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

2010. 12

기획재정부

발간사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지표경제의 개선이 체감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위기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찾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경쟁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약점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U를 위시한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IMD, WEF 등 해외 민간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쟁력순위에 대해 변동 원인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과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무엇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고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의 강·약점과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해 보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OECD 선진국을 비교대상으로 하되 경제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G20 국가들과도 비교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협회의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환경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경쟁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3단계 피라미드 모델로 제시 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245개 지표를 기준으로 30개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을 분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는 지표 위주의 분석에 치중한 결과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깊이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는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발간되는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의 현 좌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현 

목 차

[요 약]	1
제1부 국가경쟁력보고서 개요	31
1. 발간 배경	32
2. 국가경쟁력 모델	39
제2부 경쟁력 지표 분석	51
1. 성장동력	52
1.1. 경제성과	52
<참고> 경제규모	53
1.2. 요소투입	64
1.3. 기술혁신	86
1.4. 기업환경	99
1.5. 거시환경	127
1.6. 산업구조	143
2. 인프라	161
2.1. 인적자본	161
2.2. 물적자본	171

2.3. 금융자본	175
2.4. 사회적자본	179
2.5. 부존자원	186
3. 사회통합	192
4. 환경	204
4.1. 환경 관리	204
4.2. 녹색 성장	211
5. 미래 도전요인	217
제3부 주요 이슈 분석	225
1. 저출산·고령화 대응	226
2. 중소기업 경쟁력 현황 및 향후 과제	240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254
4. 녹색성장 분야의 경쟁력 현황과 향후 과제	268
<참고> 시계열 통계자료	281

참고 목차

<참고 1>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의 의의	2
<참고 2> 주요 국가경쟁력 모델과의 비교	5
<참고 3> G20에서 우리나라 위상(2009년 기준).....	21
<참고 I-1>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의 의의	38
<참고 I-2> 국가경쟁력 이론의 전개	41
<참고 I-3> 다양한 국가경쟁력 모델	42
<참고 I-4> 주요 국가경쟁력 모델과의 비교	50
<참고 II-1> 경제성장의 요인 분석 - 노동 투입량 증가 vs 생산성 증가.....	66
<참고 III-1> 저출산의 원인	230
<참고 III-2>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235
<참고 III-3> 중소기업정책의 변천	249
<참고 III-4> K社의 3不 정책 추진사례	252
<참고 III-5>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263
<참고 III-6> 입법 절차 지연과 이해관계자 반대 사례	264
<참고 III-7>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OECD 권고	266
<참고 III-8>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273
<참고 III-9>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	279

표 목차

<표 1> 주요 지표의 G20 순위(2009년 기준).....	21
<표 I-1> 주요 국가경쟁력 모델	43
<표 II-1> 주요 경제성과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52
<표 II-2> 주요 경제규모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53
<표 II-3> 주요 경제성과 지표 G20순위(2009년 기준).....	54
<표 II-4> 주요 경제규모 지표 G20순위(2009년 기준).....	54
<표 II-5> 주요 노동공급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65
<표 II-6> 주요 자본공급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79
<표 II-7> 주요 기술혁신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87
<표 II-8> 주요 노동 생산성 및 비용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100
<표 II-9> 주요 자본 생산성 및 비용 지표 OECD 순위(07~09년 기준).....	104
<표 II-10> 주요 규제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107
<표 II-11> 주요 조세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116
<표 II-12> 주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계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122
<표 II-13> 주요 거시환경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129
<표 II-14> 주요 산업구조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145
<표 II-15> 주요 인적자본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162
<표 II-16> 주요 물적자본 지표 OECD 순위(2006년~2009년 기준).....	171
<표 II-17> 주요 금융자본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175
<표 II-18> 주요 사회적자본 지표 OECD순위(2004년 이후).....	180
<표 II-19> 주요 부존자원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186
<표 II-20> 주요 사회통합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193
<표 II-21> 주요 환경관리 지표 OECD 순위(2007년 기준).....	205
<표 II-22> 주요 녹색성장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212
<표 II-23> 주요 미래도전요인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218
<표 III-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 연차별 투자금액(단위: 조원).....	233
<표 III-2>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 추이(단위: 명).....	234
<표 III-3>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인력 변경 추이	237
<표 III-4> 중소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242
<표 III-5> 중소기업 인력 현황.....	244
<표 III-6> 중소기업 정책자금(조원).....	244

<표 III-7> 중소기업 R&D투자	245
<표 III-8> 중소기업 기술수준(세계최고수준=100)	246
<표 III-9> 중소기업 경영애로요인별2) 비중(%)	246
<표 III-10> 대기업(구매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 영업이익률(%)	247
<표 III-11> GDP 성장률 전망(KDI)	255
<표 III-12> 규제산업 수 기준 진입규제 산업 비율(2008년)	259
<표 III-13>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268
<표 III-14> 부문별 1인당 에너지 최종소비2)(TOE/명)	271
<표 III-15> 온실가스 배출량 요인분해	272
<표 III-16> 분야별 녹색기술 및 국산화율(%)	273
<표 III-17>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비용 전망	276
<표 III-18> 녹색성장 5개년(2009~2013년) 계획 예산 현황	277

그림 목차

[그림 1]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4
[그림 2]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4
[그림 3] 중소기업 성장활력지수 추이	24
[그림 4] 주요국 중소기업 부가가치/고용배율	24
[그림 5] 에너지 원단위(TOE/\$, PPP)	28
[그림 6] CO ₂ 원단위(2007년, Kg/\$)	28
[그림 I -1]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	33
[그림 I -2] 전세계 국경간 자본이동 규모	33
[그림 I -3] BRICs 국가의 명목 GDP 규모 비중	34
[그림 I -4] BRICs 국가의 교역 규모 비중	34
[그림 I -5] 연평균 FDI 증가율(00~08년)	35
[그림 I -6]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35
[그림 I -7] 주요국과의 잠재성장률 비교	36
[그림 I -8]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기여율(%)	36
[그림 I -9] 국가경쟁력 모델의 역할	39
[그림 I -10]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42
[그림 I -11]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47
[그림 I -12]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49
[그림 II -1] 1인당 GDP[2009년, 만\$]	55
[그림 II -2] 1인당 GDP[2009년, PPP 기준, 만\$]	55
[그림 II -3] 경제성장률[07~09년 중 평균, %]	56
[그림 II -4] 잠재성장률[06~08년, %]	56
[그림 II -5]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2009년, %]	57
[그림 II -6] 총인구[2009년, 만명]	57
[그림 II -7] 명목GDP[2009년, 억\$]	58
[그림 II -8] 명목GDP[2009년, PPP 기준, 억\$]	58
[그림 II -9] 무역규모[2009년, 억\$]	59
[그림 II -10] 1인당 GDP[2009년, 만\$, G20 기준]	59
[그림 II -11] 1인당 GDP[2009년, PPP 기준 만\$, G20 기준]	60
[그림 II -12] 경제성장률[2007~2009년 중 평균, %, G20 기준]	60
[그림 II -13] 수출상품 세계시장 점유율[2009년, %, G20 기준]	61
[그림 II -14] 총인구[2009년, 만명, G20 기준]	61
[그림 II -15] 명목GDP[2009년, 억\$, G20 기준]	62

[그림 II-16] 명목GDP[2009년, PPP 기준, 억\$, G20 기준].....	62
[그림 II-17] 무역규모[2009년, 억\$, G20 기준].....	63
[그림 II-18]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2009년, %].....	68
[그림 II-19] 합계 출산율[2008년, %].....	68
[그림 II-20] 외국인 근로자 비율[2008년, %].....	69
[그림 II-21] 고용률(15~64세) [2009년, %].....	69
[그림 II-22] 남성 고용률(15~64세)[2009년, %].....	70
[그림 II-23] 여성 고용률(15~64세)[2009년, %].....	70
[그림 II-24] 청년층(15~24세) 고용률[2009년, %].....	71
[그림 II-25] 장년층(25~54세) 고용률[2009년, %].....	71
[그림 II-26] 고령층(55~64세) 고용률[2009년, %].....	72
[그림 II-27] 전체 실업률[2009년, %].....	72
[그림 II-28] 청년층(15~24세) 실업률[2009년, %].....	73
[그림 II-29] 장기(1년 이상) 실업자 비율[2009년, %].....	73
[그림 II-30] 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2009년, %].....	74
[그림 II-31] 남성(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2009년, %].....	74
[그림 II-32] 여성(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2009년, %].....	75
[그림 II-33] 청년층(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2009년, %].....	75
[그림 II-34] 장년층(25~54세) 경제활동 참가율[2009년, %].....	76
[그림 II-35] 고령층(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2009년, %].....	76
[그림 II-36] 연평균 근로시간[2009년, 시간].....	77
[그림 II-37] 연평균 근로시간 추이[1980~2008년, 시간].....	77
[그림 II-38]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06~08년 평균, %].....	80
[그림 II-39]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3년평균, %].....	80
[그림 II-40] 총고정자본형성 비중[2008년, GDP대비 %].....	81
[그림 II-41]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06~08년 평균, %].....	81
[그림 II-42]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2008년, GDP대비 %].....	82
[그림 II-43]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06~08년 평균, %].....	82
[그림 II-44]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2008년, GDP대비 %].....	83
[그림 II-45] 총저축률[2008년, %].....	83
[그림 II-46] 가계순저축률[2008년, %].....	84
[그림 II-47] 정부저축률[2008년, %].....	84
[그림 II-48] 기업총저축률[2008년, %].....	85
[그림 II-49] 논문게재 건수[2009년, 건].....	88
[그림 II-50]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2009년, 회].....	88
[그림 II-51]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2008년, %].....	89
[그림 II-52] 이공계 박사 학위 비율[2006년, %].....	89

[그림 II-53] 근로자 천명당 연구인력 비율[2008년, 명].....	90
[그림 II-54] GDP 대비 R&D 지출 비율[2008년, %].....	90
[그림 II-55] 기업부문 R&D 지출 비율[2008년, %].....	91
[그림 II-56] 정부부문 R&D 지출 비율[2008년, %].....	91
[그림 II-57] 특허 출원 수[2006년, 건].....	92
[그림 II-58]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 건수[2007년, 건].....	92
[그림 II-59] R&D 지출규모당 특허 출원 수[2007년, 건].....	93
[그림 II-60] 기술무역수지 배율[2008년].....	93
[그림 II-61] 전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2009년, %].....	94
[그림 II-62]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2008년, %].....	94
[그림 II-63]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2009년, %].....	95
[그림 II-64] 월간 초고속 인터넷 요금[2008년, \$].....	95
[그림 II-65]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2009년, %].....	96
[그림 II-66]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2009년, %].....	96
[그림 II-67]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2008년, %].....	97
[그림 II-68] 정보통신(ICT) 제품 수출 비중[2008년, %].....	97
[그림 II-69]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 비중[2008년, %].....	98
[그림 II-70] 노동 생산성[2009년, \$].....	101
[그림 II-71] 노동생산성 증가율[07~09년, %].....	101
[그림 II-72] 시간당 노동보수[2009년, PPP 기준, \$].....	102
[그림 II-73] 시간당 노동보수 증가율[07~09년, %].....	102
[그림 II-74]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07~09년, %].....	103
[그림 II-75] 장기 이자율[07~09년, %].....	105
[그림 II-76] 단기 이자율[07~09년, %].....	105
[그림 II-77] 정부의 시장 규제지수[2008년].....	108
[그림 II-78] 정부지출 비중[2008년, GDP대비 %].....	108
[그림 II-79] 행정/국방/치안 분야 비중[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109
[그림 II-80] 경제 분야 비중[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109
[그림 II-81] 보건/사회/문화 비중[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110
[그림 II-82] 교육 비중[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110
[그림 II-83] 공무원수 비중[2005년, 경제활동인구대비 %].....	111
[그림 II-84] 전자정부 발전지수[2010년].....	111
[그림 II-85] 창업 일수[2010년, 일].....	112
[그림 II-86] 창업 절차[2010년, 일].....	112
[그림 II-87] 창업 비용[2010년, %].....	113
[그림 II-88] 폐업 비용[2010년, 기업 총자산 대비 %].....	113
[그림 II-89] 해고 비용[2009년, 주].....	114

[그림 II-90] 법인세율[2010년, %].....	117
[그림 II-91] 조세 격차[2008년, %].....	117
[그림 II-92] 국민 부담률[2008년, %].....	118
[그림 II-93] 조세 부담률[2008년, %].....	118
[그림 II-94] 사회보장 부담률[2008년, %].....	119
[그림 II-95]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률[2008년, %].....	119
[그림 II-96]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2008년, %].....	120
[그림 II-97] 임시직 근로자 비율[2008년].....	123
[그림 II-98] 정규직(Regular) 고용 보호 지수[2008년].....	123
[그림 II-99] 임시직(Temporary) 고용 보호 지수[2008년].....	124
[그림 II-100] 노조조직률[2008년, %].....	124
[그림 II-101] 인구 천 명당 파업 근로손실 일수[06~08년 평균, 일].....	125
[그림 II-102]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2008년, %].....	125
[그림 II-103]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2008년, %].....	126
[그림 II-104]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2008년, %].....	126
[그림 II-105] CPI 상승률[07~09평균, %].....	130
[그림 II-106] 물가수준[2008년, OECD=100].....	130
[그림 II-107] 경상수지[07~09년 평균, GDP대비 %].....	131
[그림 II-108] 일반정부 재정수지[07~09년 평균, GDP대비 %].....	131
[그림 II-109] 일반정부 부채[2009년, GDP대비 %].....	132
[그림 II-110] 일반정부 순이자상환액[06~08년 평균, %].....	132
[그림 II-111] 가계부채 비율[2008년, GDP대비 %].....	133
[그림 II-112] 기업채무 비율[2008년, GDP대비 %].....	133
[그림 II-113] 총외채[2009년말, 억\$].....	134
[그림 II-114] 총외채/GDP[2009년, %].....	134
[그림 II-115] 단기외채/총외채[2009년, %].....	135
[그림 II-116] 외환보유액[2009년, 억\$].....	135
[그림 II-117] 단기외채/외환보유액[2009년, %].....	136
[그림 II-118] 무역규모 비중[2009년, GDP대비 %].....	136
[그림 II-119] 상품수출[2009년, GDP대비 %].....	137
[그림 II-120] 상품수입[2009년, GDP대비 %].....	137
[그림 II-121] 서비스수출[2009년, GDP대비 %].....	138
[그림 II-122] 서비스수입[2009년, GDP대비 %].....	138
[그림 II-123] 수입침투율[2009년, %].....	139
[그림 II-124] 농업보조 비중[2009년, 전체 농가소득대비 %].....	139
[그림 II-125] FDI 잠재력[04~06년].....	140
[그림 II-126] FDI 잔액[2009년, GDP대비 %].....	140

[그림 II-127] FDI 유입액[2009년, GDP대비 %].....	141
[그림 II-128]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잔액[2009년, GDP대비 %].....	141
[그림 II-129]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유출액[2009년, GDP대비 %].....	142
[그림 II-130] 공적개발원조(ODA)[2009년, GNI대비 %].....	142
[그림 II-131]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 비중[2007년, %].....	146
[그림 II-132] 제조업 중소기업 기업체수 비중[2007년, %].....	146
[그림 II-133] 제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2007년, %].....	147
[그림 II-134] 제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고용[2007년, 배].....	147
[그림 II-135]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48
[그림 II-136] 농림수산업 고용 비중[2008년, %].....	148
[그림 II-137]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49
[그림 II-138] 제조업 고용 비중[2008년, %].....	149
[그림 II-139]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50
[그림 II-140] 서비스업 고용 비중[2008년, %].....	150
[그림 II-141] 제조업 생산성[2008년, 만\$(명목환율)].....	151
[그림 II-142] 제조업 R&D 지출 비중[2007년, GDP대비 %].....	151
[그림 II-143] 상품수지[2007~2009년평균, GDP대비 %].....	152
[그림 II-144] 서비스업 생산성[2008년, 만\$(명목환율)].....	152
[그림 II-145] 제조업 생산성/서비스업 생산성[2008년, 배].....	153
[그림 II-146] 서비스업 R&D 지출 비중[2007년, GDP대비 %].....	153
[그림 II-147] 서비스수지[2007~2009년평균, GDP대비 %].....	154
[그림 II-148] 서비스업 FDI비중[2008년, 전산업대비 %].....	154
[그림 II-149] 도소매/음식숙박업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55
[그림 II-150]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비중[2008년, %].....	155
[그림 II-151] 교육서비스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56
[그림 II-152] 교육서비스 고용 비중[2008년, %].....	156
[그림 II-153] 보건 및 사회복지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57
[그림 II-154]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2008년, %].....	157
[그림 II-155]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58
[그림 II-156] 사업서비스업 고용 비중[2008년, %].....	158
[그림 II-157]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2008년, %].....	159
[그림 II-158] 금융업 고용 비중[2008년, %].....	159
[그림 II-159] 자영업자 고용 비중[2008년, %].....	160
[그림 II-160] 임금근로자 고용 비중[2008년, %].....	160
[그림 II-161]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2007년, %].....	163
[그림 II-162]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중[2007년, %].....	163
[그림 II-163] GDP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중[2007년, %].....	164

[그림 II-16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2007년, PPP 기준, \$].....	164
[그림 II-16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2007년, 1인당 GDP대비, %].....	165
[그림 II-166] 전체(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2008년, %].....	165
[그림 II-167]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2008년, %].....	166
[그림 II-168] 고등교육 이수 인구 증가율[98~08년, %].....	166
[그림 II-169] 평생학습 참여율[2007년, %].....	167
[그림 II-170]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명].....	167
[그림 II-171] 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명].....	168
[그림 II-172]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2008년, %].....	168
[그림 II-173]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2008년, %].....	169
[그림 II-174]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2007년, %].....	169
[그림 II-175]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PISA)-과학[2006년, 점].....	170
[그림 II-176]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PISA)-수학[2006년, 점].....	170
[그림 II-177] 도로 보급률[2006년, km/km ²].....	172
[그림 II-178] 철도 보급률[2008년, km/km ²].....	172
[그림 II-179] 유선전화 보급률[2009년, %].....	173
[그림 II-180] 월 유선전화 요금[2008년, \$].....	173
[그림 II-181] 전력 생산량[2008년, TW/h].....	174
[그림 II-182] 전기 요금[2008년, \$].....	174
[그림 II-183]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2008년, GDP대비 %].....	176
[그림 II-184] 채권 발행잔액비중[2009년, GDP대비 %].....	176
[그림 II-185] 은행 국내신용 비중[2008년 GDP대비 %].....	177
[그림 II-186] 은행 무수익여신비율[2008년, %].....	177
[그림 II-187] 은행 BIS자기자본비율[2008년, %].....	178
[그림 II-188] 외환거래량[2010년, 일평균, 백만\$].....	178
[그림 II-189] 신뢰 지수[2004년 이후].....	181
[그림 II-190] 이방인에 대한 신뢰[2004년 이후].....	181
[그림 II-191] 공정성 지수[2005년 이후].....	182
[그림 II-192] 공공기관 신뢰도[2004년 이후].....	182
[그림 II-193] 자원봉사자 비중[2008년, %].....	183
[그림 II-194] 사회지원 비중[2008년, %].....	183
[그림 II-195] 부패 지수[2009년].....	184
[그림 II-196] 공식적 교류 비중[2004년 이후].....	184
[그림 II-197] 비공식적 교류 비중[2004년 이후].....	185
[그림 II-198] 국토 면적[2008년, 1만km ²].....	187
[그림 II-199] 인구밀도[2008년, 명/km ²].....	187
[그림 II-200] 원유 확인매장량[2009년초, 백만배럴].....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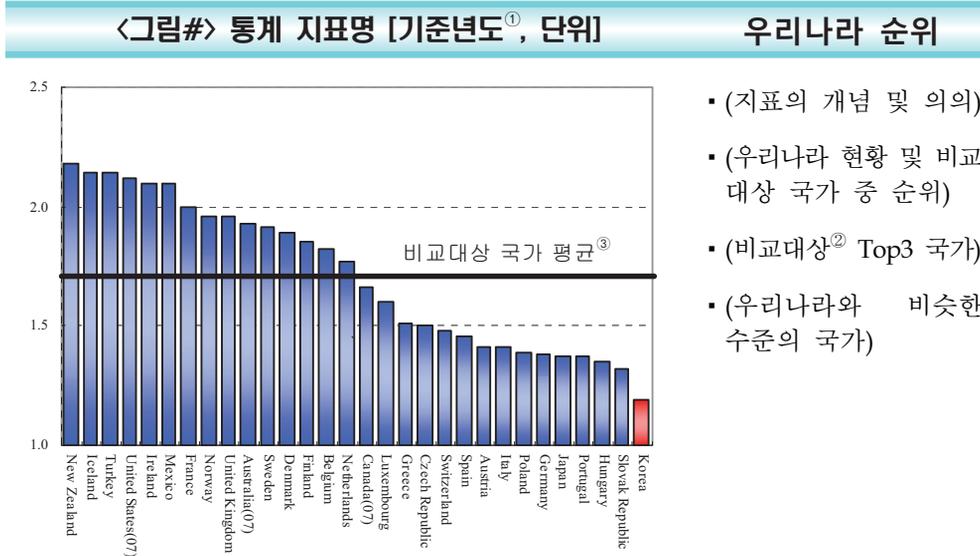
[그림 II-201] 천연가스 매장량[2009년 초, 10억ft ³]	188
[그림 II-202] 금 생산량[2009년, kg]	189
[그림 II-203] 은 생산량[2009년, kg]	189
[그림 II-204] 철광석 생산량[2007년, 천톤]	190
[그림 II-205] 1인당 담수량[2007년, 명당 1m ³ /명]	190
[그림 II-206] 식량 자급률[2007년, 배]	191
[그림 II-207] 공적 연금지출 비중[2005년, GDP대비 %]	194
[그림 II-208] 사적 연금지출 비중[2008년, GDP대비 %]	194
[그림 II-209] 고령인구 비율[2009년, %]	195
[그림 II-210] 사회복지지출 비중[2007년, GDP대비 %]	195
[그림 II-211] 사회복지지출 증가율[05~07년 평균, %]	196
[그림 II-212] 지니계수[2004년]	196
[그림 II-213] 기대수명[2008년, 년]	197
[그림 II-214] 기대수명(남성)[2008년, 년]	197
[그림 II-215] 기대수명(여성)[2008년, 년]	198
[그림 II-216] 국민의료비지출 비중[2008년, GDP대비 %]	198
[그림 II-217]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99~08년평균, %]	199
[그림 II-218] 의료접근성(1인당 외래진료 횟수)[2008년, 회]	199
[그림 II-219] 의료접근성(인구 천명당 의사수)[2007년, 명]	200
[그림 II-220] 의사 1인당 진료횟수[2007년, 회]	200
[그림 II-221] 의료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201
[그림 II-222] 유아사망률[2008년, 신생아 1천명당 명]	201
[그림 II-223] 비만율[2007년, 15세 이상 인구 중 비만인구, %]	202
[그림 II-224] 인구10만명당 수감자수[2009년]	202
[그림 II-225] 도로사망률[2008년, 인구100만명당, 명]	203
[그림 II-226] 산업재해 사망률[2007년, 인구10만명당, 명]	203
[그림 II-227] 총 CO ₂ 배출량[2007년, 백만 톤]	206
[그림 II-228] 1인당 CO ₂ 배출량[2007년, 톤]	206
[그림 II-229] 1인당 CO ₂ 배출량 증가율[’90~’07년, %]	207
[그림 II-230] CO ₂ 원단위[2007년, Kg/\$]	207
[그림 II-231] SO _x (황산화물)원단위 [2005년, kg/1,000\$]	208
[그림 II-232] 1인당 물 소비량[2006년, 톤]	208
[그림 II-233] 물 관련 인프라 투자[2006년, 10억\$]	209
[그림 II-234]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2007년, kg]	209
[그림 II-235] 도시 쓰레기 재활용률[2005년, %]	210
[그림 II-236] 1인당 에너지 소비량[2008년, Toe/명]	213
[그림 II-237] 에너지 원단위[2008년, Toe/1,000\$(PPPs)]	213

[그림 II-238] 신재생에너지 비율[2008년, %].....	214
[그림 II-239] 원자력 발전 비율[2009년, %].....	214
[그림 II-240] 환경보호 지출 비율[2008년, %].....	215
[그림 II-241] GDP대비 환경세 수입 비중[2008년, %].....	215
[그림 II-242] 세수 대비 환경세 수입 비중[2007년, %].....	216
[그림 II-243] 합계 출산율[2008년, %].....	219
[그림 II-244]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전망[%].....	219
[그림 II-245]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 추이	220
[그림 II-246] 에너지 원단위[08년, Toe/1,000\$(PPPs)].....	220
[그림 II-247] CO ₂ 원단위[07년, Kg/\$].....	221
[그림 II-248] 원유 확인매장량[2009년, 백만배럴].....	221
[그림 II-249] 1인당 담수량[2007년, 1m ³ /명].....	222
[그림 II-250] 식량 자급률[2007년, 배].....	222
[그림 II-251] 남북한/독일통일 당시 경제력 격차비교	223
[그림 III-1] 합계출산율 추이	226
[그림 III-2]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 및 전망.....	227
[그림 III-3] 잠재 성장률 전망(OECD).....	228
[그림 III-4] 잠재 고용 성장률 전망(OECD).....	228
[그림 III-5] 고령인구 부양비 비교(2008).....	229
[그림 III-6] 고령인구 부양비 추이	229
[그림 III-7] 여성 노동력 참여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변화 전망.....	236
[그림 III-8] 중소기업 사업체수	240
[그림 III-9] 중소기업 종사자수	240
[그림 III-10]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	241
[그림 III-11] 중소기업 고용 비중	241
[그림 III-12]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241
[그림 III-13] 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241
[그림 III-14] 고성장 중소기업 비중	242
[그림 III-15]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	242
[그림 III-16]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추이(대기업=100).....	243
[그림 III-17] 주요국 중소기업 부가가치/고용배율.....	243
[그림 III-18]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부족률(%).....	244
[그림 III-19] 은행 중소기업 대출(조원).....	244
[그림 III-20] 담보없이 기술력으로 대출받은 경험	245
[그림 III-21] 신용평가시 기술력 평가의 적정성	245
[그림 III-22]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황	245
[그림 III-23] 대기업당 중소기업수	246

[그림 III-24] 원자재가격 변동분 납품단가 반영 여부	247
[그림 III-25] 중소기업 납품단가 변동	247
[그림 III-26]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전략	248
[그림 III-27]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성 추이	256
[그림 III-28]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배율(2008년)	256
[그림 III-29] 서비스업, 제조업 고용비중 추이	257
[그림 III-30] OECD 서비스업 고용비중(2008년)	257
[그림 III-31] 보건/사회복지 고용비중(2008년)	257
[그림 III-32] 사업서비스 고용비중(2008년)	257
[그림 III-33]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08년)	258
[그림 III-34] 서비스업 무역수지 비교('06~'08평균, GDP대비)	258
[그림 III-35] GDP대비 서비스업 R&D 지출비중(2007년)	260
[그림 III-36] 서비스업 FDI 비중(2008년)	260
[그림 III-37] 도소매/음식숙박 고용비중(2008년)	261
[그림 III-38] 도소매/음식숙박 부가가치 비중(2008년)	261
[그림 III-39] 보건/사회복지 고용 비중(2008년, %)	261
[그림 III-40] 보건/사회복지 부가가치 비중(2008년, %)	261
[그림 III-41] 사업서비스업 고용비중(2008년)	262
[그림 III-42]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2008년)	262
[그림 III-43] 교육서비스업 고용비중(2008년)	262
[그림 III-44] 교육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2008년)	262
[그림 III-45]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변화 전망	268
[그림 III-46] 국제 기후변화 협상추이	269
[그림 III-47] 에너지 원단위(TOE/\$, PPP)	270
[그림 III-48]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명)	270
[그림 III-49] 에너지다소비형 산업비중(%)	271
[그림 III-50] CO ₂ 원단위(2007년, Kg/\$)	272
[그림 III-51] 총 CO ₂ 배출량(톤, 2007년)	272
[그림 III-52] 1인당 CO ₂ 배출량 증가율(90~07, %)	272
[그림 III-5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73

일터두기

1. 세부통계 지표 구성



자료 출처

① 기준 년도

- 경쟁력 지표는 2010.8.31일 현재 활용 가능한 최신 통계를 활용하였다.
- 일부 국가의 기준년도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최신 통계를 활용하고, 국가이름 뒤에 해당 년도를 표기하였다.
-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통계는 3년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② 비교 국가는 OECD 30개국(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제외)을 대상으로 하되, 경제성과 지표에 한하여 G20 국가를 추가하였다.

③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은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였다.

2. 약어 설명

① 국제기구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	United Nations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② 국가 코드 : ISO 3166-1 alpha-3 사용

ASU	호주	AUT	오스트리아	BEL	벨기에	CAN	캐나다
CHE	스위스	CZE	체코	DNK	덴마크	ESP	스페인
FIN	핀란드	FRA	프랑스	DEU	독일	GBR	영국
GRC	그리스	HUN	헝가리	ISL	아이슬란드	IRL	아일랜드
ITA	이탈리아	JPN	일본	KOR	대한민국	LUX	룩셈부르크
MEX	멕시코	NLD	네덜란드	NZL	뉴질랜드	NOR	노르웨이
POL	폴란드	PRT	포르투갈	SVK	슬로바키아	SWE	스웨덴
TUR	터키	USA	미국				

요약

1. 발간 배경 / 2
2. 국가경쟁력 모델 / 3
3. 경쟁력 지표 분석 / 6
4. 주요 이슈 분석 / 22

1. 발간 배경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WTO 출범(1995년) 등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BRICs 등 개발도상국들의 세계시장 참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여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상대국과 비교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IMD, WEF 등 민간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반하여 EU,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일관성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참고 1>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의 의의

-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광범위한 통계지표를 근거로 파악
- OECD 선진국과 비교한 현재 우리경제의 상대적인 강·약점 파악
- 미래사회 도전요인의 심각성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파악
- 경쟁력을 경제에 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광의로 보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
- 개별 경쟁력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경제 강·약점의 추이 파악
- 저출산·고령화, 중소기업, 녹색성장, 서비스 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정책과제 분석

2. 국가경쟁력 모델

국가경쟁력 모델이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원천이 되는 요소들을 식별·분류·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는 분석틀을 가리킨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 추격전략(catch-up strategy)의 유효성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고령화, 남북분단 등 특수한 도전요인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고용, 내수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변화는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경쟁력 모델 구축에 있어 우리경제 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은 경제부문에 국한되어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경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경쟁력에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환경 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일랜드 등 일부 경쟁력 보고서들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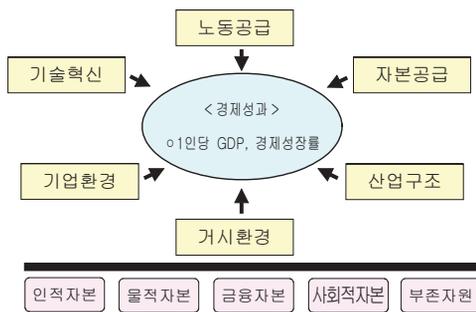
이번에 국가경쟁력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부문에 집중하는 기존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최근의 국가경쟁력 논의 동향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모델을 경제부문으로 구성된 협의의 개념과 사회통합 및 환경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주로 기인한다. 첫째, Easterlin의 역설(1974)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소득 증대 뿐 아니라 사회통합,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시계(視界)로 볼 때, 사회통합과 환경을 도외시하고서는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개념이 힘을 얻고 있다. Rodrik(1999), Perotti(1997) 등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분배정책의 채택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Stern(2006), IPCC(2007), OECD, IMF 등 다양한 연구에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가 현세대로 이어질 경우 세계 GDP의 20%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발표된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2009) 등도 국가의 정책목표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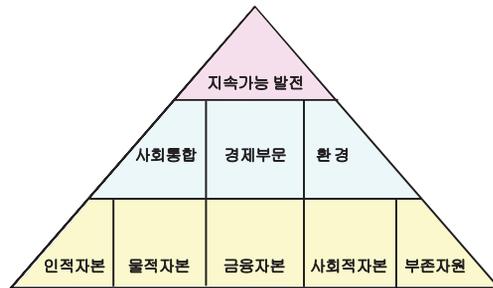
먼저,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은 경쟁력의 결과인 경제성과와 노동공급, 자본공급, 기술혁신, 기업환경, 거시환경, 산업구조 및 5대 인프라(인적자본, 물적자본, 금융자본, 사회적자본 및 부존자원)를 경쟁력 원천으로 구성하였다.²⁾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은 피라미드 모델로서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에 사회통합과 환경부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피라미드 모델은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최상층)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중간층)는 현재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과, 사회통합 및 환경의 3대 부문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최하층)는 인적자본, 물적자본, 금융자본, 사회적자본 및 부존자원의 5대 인프라를 통해 미래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림 1]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그림 2]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한편, 비교대상 국가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감안하여 OECD 국가를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세부지표는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지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자본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설문지표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경쟁국에 대비한 우리의 부문별 강·약점을 분석하는 본 보고서의 목적과 가중치(weight) 부여의 자의성 소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국가순위는 산정하지 않고 개별 지표별로 경쟁국과 비교하였다.

2)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도식화할 수 있다. 이때, 경제성과(Y)는 노동(L), 자본(K) 및 총요소생산성(A)의 총합이며, 7대 경쟁력 원천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성과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노동(노동공급), 자본(자본공급)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기업환경, 거시환경, 산업구조 및 인프라)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Y = A \cdot L^\alpha \cdot K^{(1-\alpha)} \quad (Y : \text{GDP}, L : \text{노동}, K : \text{자본}, A : \text{총요소생산성})$$

<참고 2>

주요 국가경쟁력 모델과의 비교

모 델	포괄범위 ¹⁾	지 표	비교국가
우리나라	경제 · 사회 · 환경	- 총지표수 : 245개 · 통계지표 : 236개 · 설문지표 : 9개	OECD 30개국 (경제성과지표에 대해서는 G20 포함)
I M 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경제 · (사회) · (환경)	- 총지표수 : 254개 · 통계지표 : 139개 · 설문지표 : 115개	58개국
W E 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경제 · (환경)	- 총지표수 : 111개 · 통계지표 : 31개 · 설문지표 : 80개	139개국
E U (European Competitiveness)	경제 · (환경)	- 총지표수 : 25개 · 통계지표 : 25개 · 설문지표 : 0개	미국
아일랜드 (Annual Competitiveness Report)	경제 · 사회 · 환경	- 총지표수 : 133개 · 통계지표 : 130개 · 설문지표 : 3개	총18개국(EU13개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주 : 1) () 는 전체 모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

3. 경쟁력 지표 분석

I. 성장 동력

I -1. 경제성과

빠른 경제성장률(3위)로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격차가 축소

1. OECD 국가들 중 우리경제를 규모면에서 볼 때, 인구 9위,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GDP 규모 11위 등 10위권 내외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20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는 10위, 경제성장률은 7위, GDP 규모 14위, 무역규모 8위 등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 중에서 25위이나, 경제성장률 3위, 잠재성장률 3위 등 빠른 속도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간 우리 경제는 낮은 생산성을 많은 노동 투입으로 보완해 왔다. 미국을 100으로 전제(2008년 기준)할 때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46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나 노동투입량은 113으로 미국보다 28% 많다. 그러나 최근 추이는 노동투입이 연평균 0.6% 감소(2001~2008년간)하여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술혁신, 혁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은 동 기간 연평균 4.7% 증가(OECD 2위)하여 노동투입의 감소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I-2. 요소 투입

I-2-1. 노동공급

OECD 최하위(30위)의 출산율은 향후 경쟁국보다 빠른 노동 감소를 의미

3.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0위)이 아직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99년 1.41명(20위)에서 '08년 1.19명(30위)으로 빠르게 하락(동 기간 중 OECD는 0.08명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도 점차 둔화되어 '17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00년 21위(/23개국)에서 '08년 19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과는 격차(4.1%p)를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인력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용 노동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3.7%p 낮음

5. 고용률은 '00년 61.5%(20위)에서 '09년 62.9%(20위)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66.6%)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용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률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고령층(55~64세, 8위)은 높았으나 청년층(15~24세, 26위), 장년층(25~54세, 24위)은 낮았으며 남성(18위)에 비해 여성(25위)의 고용률이 낮았다.

6. 이에 반해 실업률은 OECD 국가들(1.1%p 상승)과 달리 '00년 4.6%(12위)에서 '09년 3.8%(2위)로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 실업률(5위), 장기 실업자 비율(1위) 등의 부문별 항목에서도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하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25위, OECD와의 격차 6.9%p)이 노동활용도가 낮은 원인

7.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활용도(고용률)가 높지 않은 것은 경제활동참가율(25위)이 낮는데 원인이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세부내 역별로 보면 고령층(9위)은 높았으나 청년층(29위), 장년층(28위)은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21위)에 비해 여성(27위)이 낮았다. 특히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남성은 2.7%p인데 반해 여성은 11.1%p나 되었다.

긴 근로시간(1위)이 낮은 고용률을 보완

8.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255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OECD 평균보다 31.7%나 많다. 즉 긴 근로시간이 낮은 고용률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1980년 2,875시간 → 2008년 2,255시간, △21.5%)인 반면 OECD의 연 평균 근로시간(1980년 1,733시간 → 2009년 1,712시간, △1.2%)은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로시간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I -2-2. 자본공급

GDP대비 투자 비중(5위)은 높으나 증가율(21위)은 낮음

9.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투자 성향을 보였지만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21위를 기록하였다. 동 증가율은 2000~2002년에 3위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 부문별로 보면 GDP대비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은 3위(/21개국)를 기록한 반면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5위(/20개국)를 기록하였다.

총 저축률(3위)은 높으나, 가계 순저축률(17위)이 상대적으로 낮음

11. 국민총처분가능소득대비 총저축률(3위/28개국)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저축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주체별로는 가계의 순저축률이 '00년 5위(/25개국)에서 '08년 17위로 크게 하락하고 그 자리를 정부저축(2위/26개국 → 2위)과 기업저축('05년 9위/26개국 → '08년 4위)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 -3. 기술혁신

기술혁신은 양적으로는 활발하나, 질적으로는 OECD 평균과 격차

12. 논문게재 건수['00년 1.3만건(13위) → '09년 3.9만건(9위)] 및 특허 출원 수[인구 100만명당, '00년 1,549건(2위) → '09년 2,656건(1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이 양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근로자 천명당, '00년 5.13명(12위) → '08년 10.02명(7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졸업자 비율['00년 38.4(1위) → '08년 32.8%(2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혁신인력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13. 반면, 혁신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가 28위에 불과하였고 기술무역수지 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4년 0.34(22위/24개국)에서 '08년 0.43(23위/24개국)으로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력의 질적 지표인 이공계 박사학위 비율도 22위(/29개국)로 양적 지표에 비해 저조하다.

혁신주도형 경제에 부응하여 R&D 투자가 활발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도 양호

14. GDP대비 R&D 투자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04년 2.68%(5위) →

'08년 3.37%(4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기업부문이 4위, 정부부문이 2위를 기록하였다.

15. 인터넷 이용자 비율 10위,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 6위,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하위 2위,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1위,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 9위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양호하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조업 경쟁력은 높지만 서비스업은 경쟁력이 미흡

16. 전체 제조업 수출액 중 하이테크 제품(예: 컴퓨터, 정밀기계 등)의 수출비중 2위, 정보통신 제품 수출비중 1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17. 이에 반하여 전체 서비스 수출액 중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비중은 27위(/28개국)를 차지하여 정보 서비스업은 아직 경쟁력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I -4. 기업환경

단위당 노동비용(노동비용/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음

18. 노동 생산성(국내총생산/총근로시간, 28위)은 낮지만 빠르게 증가(2위/29개국)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시간당 노동보수(하위 5위/20개국)는 낮지만 증가속도는 2번째(/20개국)로 빠르다.

19.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빠르지만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두 지표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하위 4위, 임금상승률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으며 이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하여 노동부문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빠른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이자율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음

20. 장기 이자율(10년 만기 국채수익률, 22위/28개국)과 단기 이자율(3개월 만기 CD 금리, 20위/26개국)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아 자본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GDP대비 정부지출비중, 공무원수 비중 등은 낮지만 정부 규제는 강한 모습

21.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조사대상 2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출의 구성도 경제부문 1위(/27개국), 교육부문 6위(/27개국) 등 성장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지출 비중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을 반영하여 여타 OECD 국가('00~'08년간, 0.9%p 상승)에 비해 빠르게 상승(7.6%p 상승)하고 있다.

22.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중(25위/26개국)이 낮고 전자정부 지수가 '03년 12위에서 '10년 1위로 향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지출비중, 공무원수 비중은 작지만 정부의 시장규제(23위)는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기업의 퇴출비용은 작지만, 창업, 구조조정 등에 걸림돌이 상존

23. 기업의 총자산대비 폐업비용은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낮은 등 퇴출제도는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창업 일수 18위, 창업 절차 수 24위, 창업비용 25위(1인당 국민소득 대비) 등 기업의 창업에 애로가 존재하며 높은 해고비용(28위)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존재한다.

법인세율, 사회보장부담률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24.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하위 2위/26개국), 조세격차(하위 2위,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 등 기업의 부담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조세격차는 OECD 국가 중 순위는 하위 2위로 변함이 없었으나 그 값은 '00년 16.3%에서 '08년

20.3%로 상승(+4.0%p)하여 OECD($\Delta 0.4\%p$)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편 법인세율은 '00년 28%에서 '10년 22%로 낮아졌으나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인하 폭이 적어 동 기간 중 순위는 오히려 하락(하위 4위 → 하위 12위)했으며 대만(22.0%), 홍콩(16.5%), 싱가포르(17.0%) 등 아시아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기준).³⁾

25. 낮은 국민부담률(하위 3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조세부담률(하위 8위/28개국) 등 근로자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하고,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음

26. 정규직(계약기간 1년 이상)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12위, 임시직(계약기간 1년 미만)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14위 등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강한 편이며 임시직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노조조직률은 낮지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많음

27. 노조조직률은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낮지만 잦은 파업 또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구 천 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많다. (23위/27개국)

28.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예: 직업훈련 등)은 25위 (/26개국),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예: 실업수당 등)은 24위 (/27개국)로 낮은 수준이나 '00년에서 '08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이 GDP대비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비율(1.74%→1.39%)을 줄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0.46→0.49%)를 기록하였다.

3) OECD 평균 법인세율(지방세 미포함, 중앙정부 법인세 부가세 포함)은 '00년 이후 7.19%p 인하('00년 31.3% → '10년 24.11%)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호주(30→29%), 영국(28→24%, '11년부터 4년간 매년 1%씩 인하)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I-5. 거시 환경

외환, 재정 등 거시경제는 안정되어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29. 일반정부 재정수지['05년 GDP대비 3.4%(5위) → '09년 △1.8%(4위)], 정부부채['02년 GDP대비 15.8%(2위) → '09년 33.2%(4위)] 등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OECD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도 11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의 건진성 관련 지표는 안정되어 있다. 전체 물가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7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30.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북한GDP/남한GDP: 2.7%, 2008년 기준)가 독일 통일 당시(9.0%, 1989년 기준)보다 크고, 고령인구 부양비가 빠르게 상승(2008년 14.3% ⇒ 2020년 21.7%)하는 등 향후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31.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02년 53.1% → '08년 69.9%)에 비해서는 그 폭이 적었으나 '02년 68.8%(16위/26개국)에서 '08년 78.1%(16위/26개국)로 증가하였고 기업채무 비율은 '04년 78.0%(14위/25개국)에서 '08년 113.1%(16위/25개국)로 증가하여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이 대체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32. GDP대비 총외채 규모['03년 24.4%(2위/27개국) → '09년 48.3%(5위/27개국)]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03년 32.3%(8위/27개국) → '09년 37.3%(16위/27개국)]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여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05년 2,105억\$(2위)에서 '09년 2,702억\$(2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환건진성 지표가 양호하다.

높은 GDP대비 무역규모 비중, 수입침투율 등 경제의 개방도가 높음

33. 무역의존도(GDP대비 무역규모 비중)가 '00년 62.4%(13위)에서 '09년 82.5%(7위)로 크게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 무역[서

비스 수출, '00년 5.6%(21위) → '09년 6.7%(20위)]보다는 상품 무역[상품 수출, '00년 32.3%(13위) → '09년 43.7%(7위)]의 급증에 기인한다.

34. 국내수요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수입침투율은 '00년 15위에서 '09년 10위로 상승하여 국내시장의 대외개방도가 진전되었다.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이 크지만, 유치실적은 저조함

35.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 14위 등 투자여건은 양호하지만, GDP대비 외국인투자 잔액은 28위에 그치는 등 실적은 저조하다. FDI 유입액도 '00년 26위에서 '09년 25위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편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3위 수준이나, 유출액은 '00년 24위에서 '09년 16위로 상승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6. GNI대비 공적개발원조(26위/29개국)는 저조하나, OECD 개발원조 위원회 가입(2009.11월)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I -6. 산업구조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여타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음

37.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 중 고용비중 5위(/26개국), 부가가치 비중 9위(/25개국)를 차지하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지만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고용 배율은 21위(/25개국)를 기록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R&D 투자가 많은 제조업중심의 경제구조

38.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 1위(/28개국), 농림수산업 비중 10위(/28개국), 서비스업 비중 25위(/28개국) 등 제조업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00년 28.6%(2위/28개국) → ’08년 28.4%(1위/28개국)]은 정체 상태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00년 57.0%(26위/28개국) → ’08년 60.0%(25위/28개국)]은 증가하고 있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

39. 서비스업의 R&D 투자 비중[’99년 0.2%(9위/22개국) → ’07년 0.2%(22위/29개국)]은 정체 상태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R&D 투자 비중[’99년 1.3%(5위/23개국) → ’07년 2.2%(2위/29개국)]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배율은 ’00년 1.5배(26위/28개국)에서 ’08년 1.8배(28위)로 확대되었고 상품수지는 ’00년 3.2%(8위)에서 ’09년 6.7%(8위)로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수지는 $\Delta 0.5\%$ (22위)에서 $\Delta 2.1\%$ (29위)로 적자폭이 커지는 등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한 편이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중 도소매·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의 고용이 많으며, 보건 등은 저조

40. 도소매·음식숙박업(전산업 대비 고용비중, 5위/28개국)과 교육서비스업(7위/28개국)의 고용 순위가 높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업(28위/28개국)과 사업서비스업⁴⁾(22위/28개국)의 고용 순위가 낮다.

41. 서비스업의 부문별 생산성을 비교하면 도소매·음식숙박업(고용비중 5위/28개국, 부가가치 비중 26위/28개국)의 생산성이 특히 낮다.

자영업자의 고용비중이 높고, 임금 근로자의 고용비중은 낮음

42. 자영업자의 고용비중(4번째로 높음)이 높고 임금 근로자의 비중(4번째로 낮음)이 낮으며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이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4) 법률, 회계, 광고 등 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II. 인프라

교육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고등교육의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

43.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 4위(/25개국, 민간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율 1위/25개국,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율 19위/27개국),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비율 6위(/27개국)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44. 전체(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5위,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1위, 고등교육 이수 증가율 4위 등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이 높다.
45. 평생학습 참여율은 19위 수준(/24개국)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46. 초등교사 및 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3번째(/27개국)와 2번째(/29개국)로 많지만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개선될 전망이다.
47. 고등교육 유학생의 유입률은 25위(/27개국), 유출률 8위(/27개국)로 고등교육 과정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많아 고등교육이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48.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15세 학생대상)의 과학성적은 7위, 수학적 성적은 2위 등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로, 철도 등 물류 SOC와 통신, 전력 등의 물적 자원은 양호

49. 도로 보급률(도로 연장/국토면적) 18위, 철도 보급률(철도 연장/국토면적) 16위(/29개국) 등 물류 SOC는 OECD 중간 순위에 근접해 있다.
50. 유선 전화보급률⁵⁾ 17위, 낮은 유선전화 요금 1위 등 통신시설이 양호하며, 전력 생산량 6위, 낮은 전기 요금 1위(/23개국)⁶⁾ 등 전력사정도 우수하다.

5)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 확산에 따라 유선전화 보급률은 정체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ITU)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99.2%를 기록하였다

6) 유선전화요금, 전기요금의 경우 순위가 낮을수록 요금이 낮다는 의미이나 구매력 평가가 아닌 명목환율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직·간접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은행 건전성도 양호

51. GDP대비 주식 시가총액 10위, 채권발행 잔액 6위(/29개국), 일평균 외환 거래량 11위 등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다.

52. 무수익여신 비율 10위(/28개국), BIS 비율 11위(/25개국) 등 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방인에 대한 신뢰와 청렴도가 저조하고 사회참여도가 낮은 수준

53.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지수 13위(/19개국), 공공기관 신뢰도 10위(/18개국), 자원봉사자 비중 16위(/28개국), 사회지원 비중 17위(/28개국), 비공식 교류비중⁷⁾ 12위(/18개국) 등은 OECD 중간 순위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반면 부패지수(22위)와 공식적 교류비중⁸⁾(16위/18개국), 이방인에 대한 신뢰(15위/17개국)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은 빈약하며 식량자급률과 담수량이 낮음

55. 국토 면적은 19위이나 국토 면적 대비 인구가 많아 인구 밀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56. 원유 매장량 22위(/22개국), 천연가스 매장량 20위(/23개국), 금 생산량 13위(/14개국), 은 생산량 14위(/17개국), 철광석 생산량 13위(/16개국) 등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식량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 27위)과 1인당 담수량(24위)은 낮다.

7) 취미, 종교, 동호회 등 비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한 지표이다.

8)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 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한 지표이다.

Ⅲ. 사회통합

공적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낮으나 지니계수는 OECD 중간 수준

57. 낮은 고령인구 비율(3위), 연금제도의 짧은 역사(1988년 국민연금 도입) 등으로 연금지급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GDP대비 공적 연금지출 비중 29위, 사적 연금지출 비중 14위(/24개국) 등 연금지출 수준이 아직은 낮은 편이다.

58.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29위), 국민의료비 지출(하위 3위) 등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령화 진전 등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01~'07년중 연평균 14.3%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국민의료비 증가율도 '99~'08년 중 연평균 11.6%로 OECD 4위를 나타내었다. 한편,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OECD 중간 수준(17위)을 기록하였다.

보건 여건이 양호하고 범죄율은 낮지만 안전사고율은 높은 수준

59. 기대수명(20위), 낮은 국민의료비(하위 3위), 높은 의료접근성(2위/28개국), 유아사망률(20위) 등을 고려할 때 보건여건은 양호하다. 다만,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고용 창출이 낮고(GDP대비 부가가치 비중 : 우리나라 3.2%, 미국 6.3%, 영국 5.5%, 일본 5.1% 등, 고용 비중 : 우리나라 3.2%, 미국 12.2%, 영국 12.1%, 일본 9.0% 등) 적은 의사수(29위)와 높은 의사 1인당 진료횟수(1위/27개국) 등은 취약요인이다.

60. 범죄율(인구 10만명당 수감자 수, 하위 13위)은 낮은 편인 반면, 도로 사망률['00년 218명(백만명당, 30위) → '08년 121명(27위)], 산업재해 사망률['00년 26.7명(십만명당, 30위) → '07년 19.2명(29위)]과 같은 안전사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9) 국가별로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의 분포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IV.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물 소비량은 많으나, 도시 쓰레기 배출량은 낮음

61. 총 CO₂ 배출량, 1인당 CO₂ 배출량은 각각 6번째와 9번째로 많으며 1인당 CO₂ 배출량 증가율('90~'07년중 88.6%)은 가장 높았다. CO₂ 원단위(CO₂ 배출량/GDP, 7번째로 높음) 역시 높아 탄소 의존적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62. 1인당 물 소비량은 11번째(/25개국)로 많아 물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63.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은 쓰레기 종량제 등의 영향으로 5번째(/28개국)로 적었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낮으나 원자력발전 비율은 높음

64.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원단위(에너지 투입량/GDP)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낮은 순서로 28위와 20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00년 16위에서 '08년 20위로 순위가 하락(에너지 소비량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원단위는 '00년 0.24(27위)에서 '08년 0.21(28위)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아 순위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65. 에너지 공급원은 신재생 에너지(/총 에너지 공급) 비율(30위)이 낮은 반면 원자력 발전비율은 8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환경보호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과 환경세¹⁰⁾ 비중이 높음

66.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재정의 환경지출 비율은 3위(/25개국)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67. GDP 대비 환경세 비중은 10위, 조세수입 대비 환경세 비중은 3위 등 환경세의 비중이 높다.

10) 휘발유 등 에너지 제품, 자동차 등 환경과 관련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의미한다.

V. 미래 도전요인

저출산·고령화, 에너지·기후변화, 식량안보, 수자원, 남북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됨

68. OECD 최하위(30위)의 합계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
69. 에너지 자원이 빈약(예: 원유 매장량 22위/22개국)한 여건에서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예: 에너지 원단위 28위)는 향후 화석에너지 고갈과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시 우리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70. 탄소 의존적 경제구조(예: 총 CO₂ 배출량 25위, CO₂ 원단위 24위)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제구조 조정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71. 식량자급률(27위)이 낮아 향후 세계적인 곡물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72. 1인당 담수량(24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소비량(15위/25개국)은 많아 향후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73.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북한 GDP/남한 GDP: 2.7%, 2008년 기준)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통일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3>

G20에서 우리나라 위상(2009년 기준)

- ① GDP 성장률, 우리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1인당 GDP 등 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G20 중에서 7~10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7만불로서 G20(평균 2.2만\$)중 10위
 - PPP기준 1인당 GDP는 2.7만불로서 G20(평균 2.3만불)중 9위
 - GDP 성장률(2007~2009년 평균)은 2.5%로 G20(평균 2.1%)중 7위
 - 우리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9%로 G20(평균 3.1%)중 7위
- ② GDP 규모, 무역규모, 총인구 등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G20중에서 8~15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8,325억불로서 G20(평균 23,563억불)중 14위
 - PPP기준 GDP 규모는 13,244억불로서 G20(평균 27,469억불)중 12위
 - 무역규모는 6,866억불로서 G20(평균 7,989억불)중 8위
 - 총인구는 4,875만명으로 G20(평균 22,214만명)중 15위

<표 1> 주요 지표의 G20 순위(2009년 기준)

	실적	우리나라 순위	G20 평균
1인당 GDP	17,078불	10위	2.2만불
(PPP 기준)	27,169불	9위	2.3만불
GDP성장률 ¹⁾	2.5%	7위	2.1%
세계시장점유율	2.9%	7위	3.1%
총인구	4,875만명	15위	22,214만명
명목GDP	8,325억불	14위	23,563억불
(PPP 기준)	13,244억불	12위	27,469억불
무역규모	6,866억불	8위	7,989억불

주 : 1) 2007~2009년 평균

4. 주요 이슈 분석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그동안 빠르게 하락하여 2004년 이후에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17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비교를 하면, 2009년 현재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10위)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순위는 점차 하락하여 2022년부터는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노동력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의 빠른 증가는 소비·투자 위축, 주택 및 자산구조의 변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연금·의료비의 빠른 지출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5년간 총 42.2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며, 고령화 대책의 경우에도 노인 복지 위주로 접근하여 연금, 의료시스템 개혁 등 사회시스템 개선에는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초안이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의 중심을 ‘일과 가정의 양립’, ‘의료시스템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회복,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출산율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지원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는 맞벌이가구 등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하락 추세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직장환경인 점을 감안하여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 시간제 확산,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 향상, 시민사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가정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촉진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선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2020년까지 174만명의 추가적인 노동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급여체계 개선, 직무훈련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인력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을 활용하여 우수 해외 인력의 국내유입을 촉진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계 강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교육개방 등을 통해 낮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확대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제조업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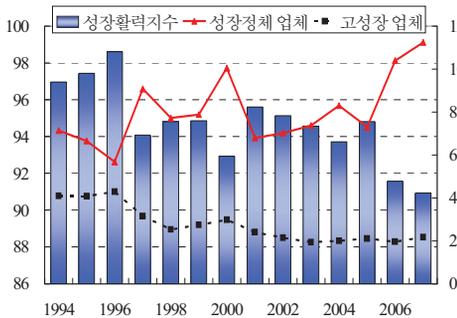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금·건강보험 제도의 개혁, 복지재정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의 도입 확대 등 지불제도의 개혁, 약제비 절감 등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령 및 건강분야에 편중된 복지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여 아동 보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 경쟁력 현황 및 향후 과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저변을 넓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 성장활력, 생산성 등 질적으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경영성과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종사자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비중은 하락('00년 50.2% → '08년 49.2%, 제조업)하였다. 둘째,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94년 4.1% → '07년 2.2%)은 낮아지고 성장성이 낮은 업체¹¹⁾의 비중('94년 7.1% → 07년 11.2%)은 높아져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1/3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OECD에서 5번째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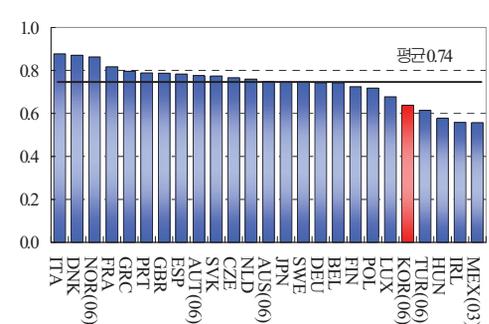
[그림 3]

중소기업¹⁾ 성장활력지수²⁾ 추이



[그림 4]

주요국 중소기업¹⁾ 부가가치/고용배율³⁾



주 : 1) 제조업 기준 2) 성장활력지수 = 100 - 성장정체 업체 비중 + 고성장 업체 비중
 3)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고용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서, 동배율이 낮을수록 국가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부진은 인력, 자금, 기술력, 경쟁관계 등 개별 경쟁력 요소들과 전체 경영전략의 유효성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인적자본은 높은 인력부족률(3.8%, 대기업 1.7%)과 이직률, 혁신인력 부족 등 양과 질 모두 미흡하다. 둘째, 자금력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01년 165.5조원 → '09년 443.5조원),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명목GDP의 8.0%) 등으로 양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신용평가

11) 고성장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에 종사자수 50인 이상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체를 말하며, 성장정체 기업은 업력 20년 이상이지만 종사자수는 19인 이하인 기업체를 일컫는다.

방식 등 질적으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 셋째, 기술력은 기술개발투자 부진,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선진국의 70%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넷째,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간에 과당경쟁 양상마저 나타나면서 협상력이 더욱 약화되었으며, 이는 업계 일각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일소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종합하면 중소기업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제품 생산” 위주의 경영전략은 유효성이 저하되었으나 기술개발, 혁신인력 육성 등을 통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자금, 인력, R&D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경쟁력 현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각종 지원정책의 틀을 탈피하여 「창업→성장→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양적인 규모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오히려 기업의 실질적 성장노력을 저하시키는 역 인센티브로 작용하였다. 둘째, 우리경제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단 주도하에 「신용위험 평가→구조조정 대상 선정→워크아웃」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확산시키는 한편, 이러한 상생협력 노력이 우리 산업생태계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인정보 DB 구축, 산학연계 강화, 바우처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의 약화, 고용창출의 어려움, 높은 대외의존도와 구조적인 서비스 수지적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4월부터 5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1인당 생산액이 OECD 최하위(3.2만불, 28위/28개국, OECD 평균 7.5만불, 08년 기준)에 그치는 등 생산성이 낮다. 또한, 서비스업 고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고용비중(67.3%, 23위/28개국, OECD 평균: 71.4%)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수지는 2009년도에 172억불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구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으로의 자원 유입 촉진과 공익성 등의 명분으로 광범위한 규제(비제조업 시장규제 하위 5위)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은 전 업종이 세제지원 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하는 등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성장지원이 미흡하다. 셋째, 서비스 산업은 R&D 투자(GDP대비 0.2%, 22위/29개국, OECD 평균 0.4%)가 미약하고 높은 자영업자 비중(31.3%, 하위 27위, OECD 평균: 16.4%)이 보여 주듯이 기업이 영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 외에도 업종별로 상이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우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비중(총 고용의 24.1%, OECD 5위/28개국)은 높으나 부가가치 비중(GDP의 11.3%, OECD 26위/28개국)이 낮은 전형적인 저생산성의 과당경쟁 업종이다. 이에 비해 보건·사회복지업과 사업서비스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낮은데 이는 각종의 진입제한과 영업규제가 주요 원인이다. 교육분야는 고용 및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나지만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의 성과는 미흡하다.

정부는 추진해 나가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중요한데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서 보듯이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당수 법률들의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2009.12월 현재 378개 정책과제 중 52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는데 24개 과제는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으로 28개 과제는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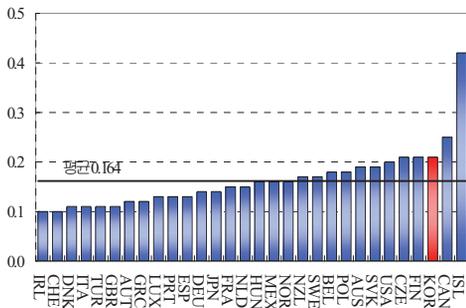
아울러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과잉 경쟁과 저생산성 문제를 안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원활한 구조조정과 함께 퇴출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분야의 경우 공공성 확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부문은 기본 수요는 정부가 담당하되, 추가 수요는 시장을 활용하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서비스업은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중간재인 전문 자격사에 대한 진입 제한,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통한 경쟁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는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이 소비가 아니라 인적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학교 간 경쟁촉진, 외국대학 유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4) 녹색성장 분야의 경쟁력 현황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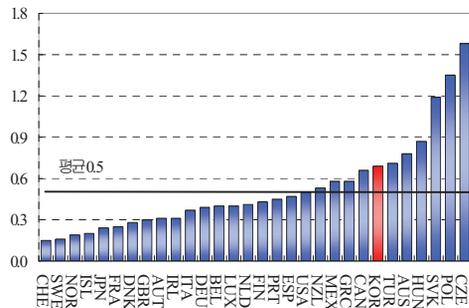
향후 국제사회에서는 코토 의정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간이 끝나는 2013년 이후의 감축체제에 관한 합의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금년말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합의결과에 관계없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래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2005년 배출량대비 4%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욕적인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2009.11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규제, 주요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등으로 녹색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구조, 탄소배출량, 녹색기술 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열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에너지원단위¹²⁾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OECD 중 3번째와 11번째로 높아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비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국민소득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탄소효율성을 측정하는 CO₂ 원단위가 OECD중 7번째로 높고 특히 '90~'07년중 1인당 CO₂ 배출량이 OECD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선진국 대비 54.6%), 에너지고효율화(57.1%), 환경보호(43.6%) 등 녹색기술 발전이 더디고 녹색 산업의 핵심분야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비중이 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5] 에너지 원단위(TOE/\$, PPP)



[그림 6] CO₂ 원단위(2007년, Kg/\$)



12) 총에너지 투입량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눈 것으로서, 값이 클수록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탄소의존형 경제구조로 인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만 계산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2020년 GDP 0.49% 감소), 에너지경제연구원(GDP 1.58~2.71% 감소, 물가 3.4~6.6% 상승), 한국경제연구원(GDP 1.03~1.16% 감소), 삼성경제연구소(GDP 0.6% 감소) 등 국내 주요기관들은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 등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정책수단, 녹색기술 발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탄소 비용화 정책(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과 전통적 규제(신재생에너지비율 의무화 등)를 적절히 조합(policy mix)하는 한편 R&D투자 지원 등을 통해 녹색기술 발전과 녹색산업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2008.8월)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1월)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제도적 기반 구축, 대규모 자원조달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빠른 시일내에 탄소에 대해 적정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탄소 비용화를 통한 외부불경제 내재화는 화석에너지 가격상승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유인을 강화하는 기본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녹색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녹색시장의 특성상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시장기능만으로는 충분한 투자 및 시장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2012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원활히 대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녹색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시장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도 녹색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제1부 국가경쟁력보고서 개요

- 1. 발간 배경 / 32
- 2. 국가경쟁력 모델 / 39

1. 발간 배경

(1)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은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¹³⁾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쟁력은 기업, 정부, 가계의 경쟁력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제도의 효율성 등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경쟁력 수준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도 국가경쟁력 평가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환경 등 비경제적인 측면도 국가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가경쟁력이란 “국민들의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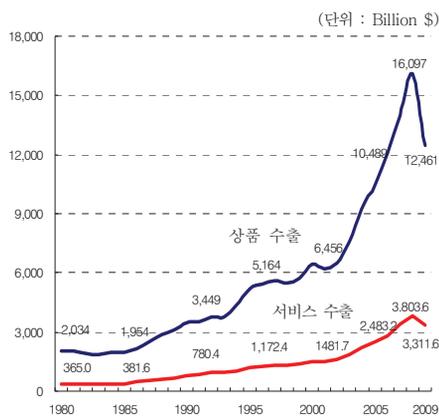
13) 국가경쟁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 마이클 포터 : “국가경쟁력의 실체는 국내산업의 생산성이며,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이다”
- 피터 드러커 : “엄밀하게 말해 국가 경쟁력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는 시대이다”
- IMD : “영토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이다”
- WEF :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 요소이다”

(2)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이유

오늘날 국가경쟁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게 된 원인으로서는 우선,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을 들 수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WTO의 출범(1995년)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상품·서비스 및 자본 이동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부터 약 30년간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규모는 각각 6배와 8배가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GDP대비 자본 이동 금액 비중도 9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2006년 17%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BRICs 등 개발도상국들의 세계시장 참여¹⁴⁾ 확대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전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였다.

[그림 I-1]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



자료 : WTO(국제무역통계, 2009)

[그림 I-2] 전세계 국경간 자본이동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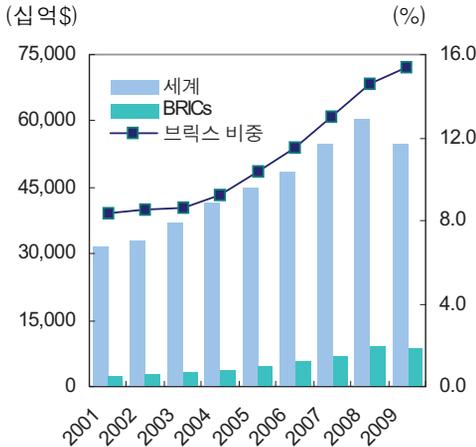
자료 : LG경제연구소, IMF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로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이 직면한 제도적 환경과 인적·물적 인프라 즉, 국가의 경쟁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므로 한 국가의 경쟁력 수준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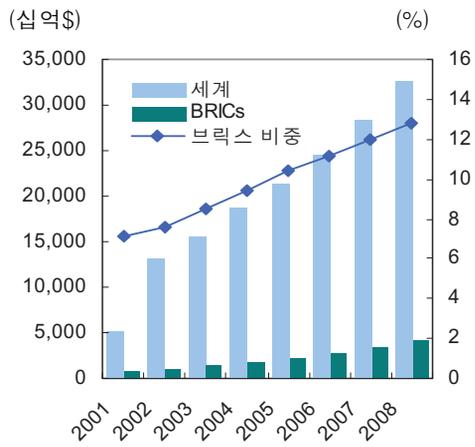
14) WTO 회원국 수 : 125개국('95.1월)→153개국('10.8월 현재),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다.

다음으로는 BRICs 등 후발 개발도상국의 부상을 들 수 있다. BRICs 국가는 풍부한 노동력,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GDP에서 BRIC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4%에서 2008년 14.6%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1년 7.1%에서 2008년 12.8%로 증가하였다.

[그림 I-3] BRICs 국가의 명목 GDP 규모 비중



[그림 I-4] BRICs 국가의 교역 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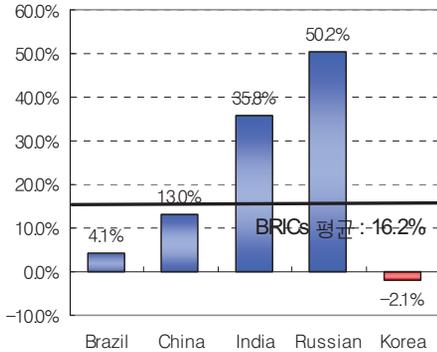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이러한 BRICs 국가의 성장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경제의 기회요인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의 상대적 감소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위축, BRICs 국가와의 기술력 격차 축소 등은 위험요인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BRICs 국가의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6.2%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2.1% 감소하였다. 또한, BRICs 국가의 기술수준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기술격차가 3.9년에 불과¹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BRICs 국가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BRICs 국가를 뛰어넘는 높은 국가경쟁력의 보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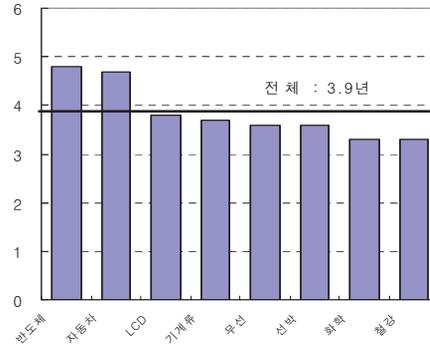
15) 전국경제인연합회, FKI Briefs 511(10.6월)

[그림 I-5] 연평균 FDI 증가율(00~08년)



자료 : UNCTAD, FDI Stat.

[그림 I-6]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10.6월)

(3) 국가발전 모델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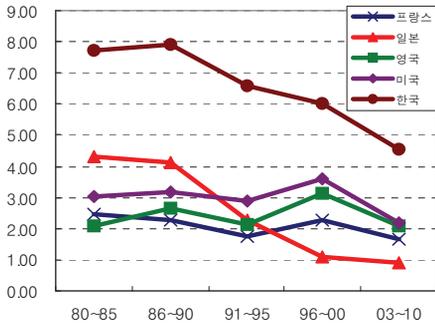
지금 우리나라는 신흥국에서 벗어나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다.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뛰어넘어 새로운 발전 모델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모델에서 ‘지식·혁신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값싼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발전이 따른 임금의 상승,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자본 수익률 저하 등으로 이러한 요소 투입 위주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과거 10%에 육박하던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현재는 4%대로 추락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잠재성장률 격차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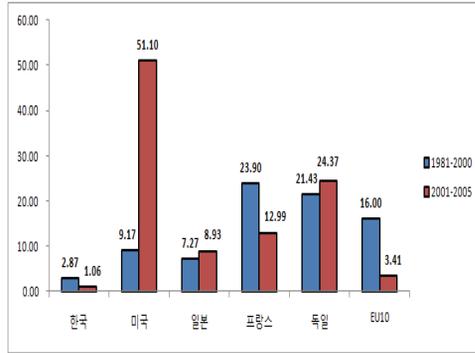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요소 투입 위주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우리는 총산출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교육경쟁력 제고, R&D 투자 효율화 등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림 I-7] 주요국과의 잠재성장률 비교



[그림 I-8] 중요요소생산성의 총산출기여율%



자료 : KDI¹⁶⁾, OECD Economic Outlook 87 자료 : 지식경제부('10.2월)

둘째,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모델’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의 부족과 좁은 내수 시장의 극복을 위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내수 시장은 과도한 규제와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로 인하여 발전이 지체되었다. 이러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은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높여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변화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구조개혁 등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16)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출처: 1980~2000년 잠재성장률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KDI, 2002년), 2003~2010년 잠재성장률은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KDI, 2007.2월)에서 인용하였다.

(4)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에 근거하여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경쟁상대국과 비교한 우리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IMD, WEF 등 민간 국제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쟁력 지수가 있지만 이들 지수들이 기반하고 있는 경쟁력 모델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고, 이들 지수가 국가 간 순위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강·약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발표되는 순위 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책적 시사점 발굴에 소홀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U, 아일랜드¹⁷⁾ 등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경쟁력 모델을 개발하여 매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변화된 경제발전 패러다임과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주요 경쟁 상대국과 비교한 우리 경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여 ‘임기응변식 처방(Quick Fix)’이 아닌 ‘일관성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국가경쟁력보고서는 기존의 경쟁력 보고서와는 달리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 환경 부문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위주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한

17) E U : GDP와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요인을 미국과 비교하고, EU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분석하였다.

아일랜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 요소들을 피라미드 항목으로 체계화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경쟁국(EU 12개국,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Growth)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향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의 도전요인들에 대응한 우리의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I-1>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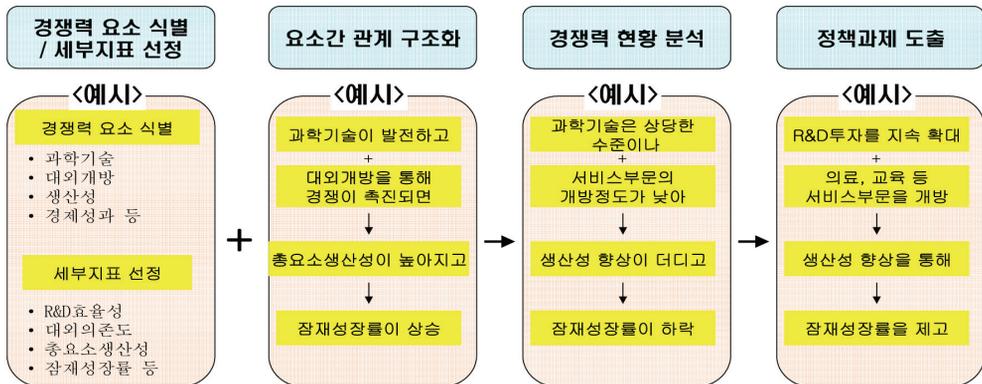
-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광범위한 통계지표를 근거로 파악
- OECD 선진국과 비교한 현재 우리경제의 상대적인 강·약점 파악
- 미래사회 도전요인의 심각성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파악
- 경쟁력을 경제에 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광의로 보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
- 개별 경쟁력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경제 강·약점의 추이 파악
- 저출산·고령화, 중소기업, 녹색성장, 서비스 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정책과제 분석

2. 국가경쟁력 모델

(1) 국가경쟁력 모델의 중요성

국가경쟁력 모델이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원천이 되는 요소들을 식별·분류·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는 분석틀을 가리킨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과정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경쟁력 모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경쟁력 모델은 과학기술, 대외개방과 같은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각 요소들이 어떤 세부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또한, 각 요소들이 어떠한 구조하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높거나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향후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I-9] 국가경쟁력 모델의 역할



이러한 국가경쟁력 모델을 정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국가경쟁력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는 데다 세부지표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경쟁력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분석은 그 의미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평가기관의 경쟁력 모델을 보면, 2010년 보고서 기준으로 IMD는 20개 분야의 254개 지수로, WEF의 경우 12개 분야 111개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력보고서가 단순한 지표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일관된 논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들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알기 쉽게 배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쟁력 모델은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 모델과 궤를 같이 할 때 그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한 발전단계에 알맞은 경쟁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발전단계와 전략별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동인(driver)이 달라지는 데 기인한다. 인적자본의 예를 들어보면, 경공업 위주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임금의 근면한 노동력이 주요 경쟁력 원천이겠으나,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선진국에서는 저렴한 노동력보다는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 모델이 현 위치와 지향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경우 경쟁력보고서는 현 단계에 필요한 경쟁우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산만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정책과제도 모든 것을 추구하다 모든 것을 잃는(covet all, lose all)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일본 등 기존 선진국에 대한 추격전략(catch-up strategy)의 유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고용, 내수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변화는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 수요 증대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남북분단 등 우리경제의 특수한 도전요인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경쟁력 모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동시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경쟁우위에 초점을 맞추어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우리의 국가경쟁력 모델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경영전략 이론에서 파생되었으며, Porter(1990)¹⁸⁾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 I-2>

국가경쟁력 이론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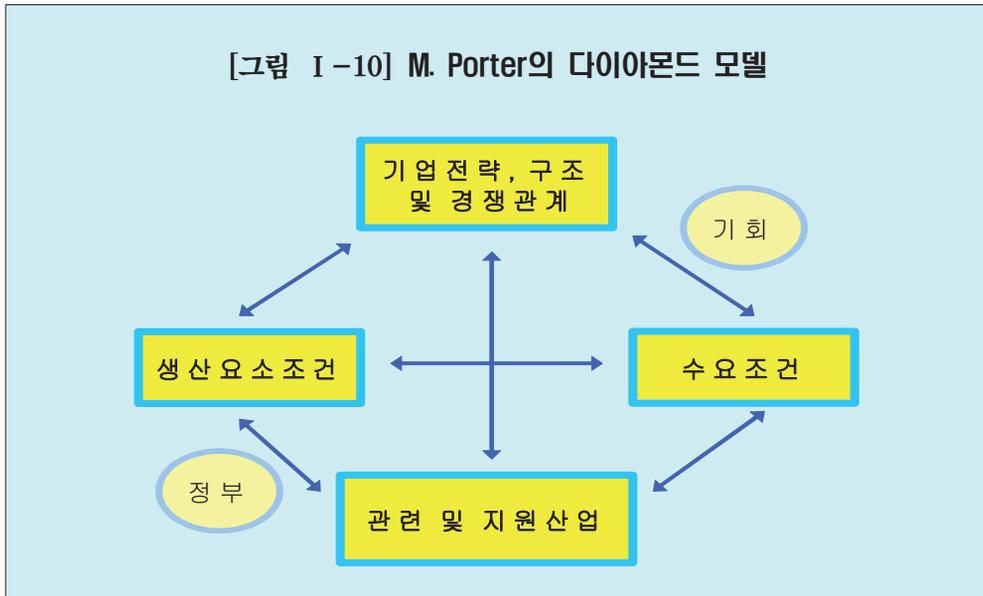
국가경쟁력 개념이 가지는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경쟁력 연구는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 등 고전경제학 이론¹⁹⁾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M. Porter(1990)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Porter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서 이전까지 기업과 산업 차원에 적용되던 경쟁력의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동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경쟁력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다시 생산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시장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관련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의 네 가지 내생변수와 정부(government), 우연한 사건(chance)의 두 가지 외생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경쟁력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경쟁과 인적자원 등 중요한 경쟁력 원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Moon, Rugman & Verbeke(1995, 1998), Cho, Moon & Kim(2006) 등은 GDD(Generalized Double Diamond), 9-Factor, DDD(Dual Double Diamond) 등 새로운 경쟁력 이론을 제시하여 다이아몬드 모델을 수정·보완하였다.

18)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1990

[그림 I-10]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특히 1990년대부터 미국경제가 소위 신경제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1980년대까지 맹렬한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고 유럽경제도 부진을 지속하는 등 국가간에 거시경제성과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IMD, WEF 등 기존에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던 국제평가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 EU, 아일랜드 등 개별국가와 경제통합체 차원에서도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력모델을 개발하고 보고서 발간에 나서게 되었다.

<참고 I-3>

다양한 국가경쟁력 모델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주요 경쟁력 모델을 대상국·포함항목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9) 고전경제학자들은 토지, 천연자원,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비교(또는 절대)우위가 국가의 부(wealth of nations)를 결정하며, 국가는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요소의 획득과 국제무역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번째 분류는 다수의 국가·모든 경쟁력 원천을 포괄하는 모델이며 IMD, WEF, IP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분류는 특정국가가 경쟁상대국과 비교하여 자국의 경쟁력 원천을 연구하는 모델이며 EU와 아일랜드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세번째 분류는 기업환경 등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경우이다. 이 분류로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Doing Business Index),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등을 꼽을 수 있다.

각각의 경쟁력 평가기관의 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음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I-1〉 주요 국가경쟁력 모델

지수명	개요	순위 (한국/전체)	발표 시기
국제경영개발원(IMD) 경쟁력지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W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경영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부문 250여개 세부항목을 평가 통계 등 경성자료와 설문자료를 각각 6:4의 비율로 활용 	23위/58개국 (2010년)	매년 5월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 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별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 등 3대 부문 12개 세부부문 평가 경성자료(약 30%)와 설문자료(약 70%) 활용 	22위/139개국 (2010년)	매년 9월
산업정책연구원(IPS) 경쟁력 지수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s, NG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요소, 경영여건 등 물적 요소와 근로자, 기업가, 전문가 등 인적요소 8개 부문 평가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기업가 인터뷰 실시 	23위/67개국 (2009년)	매년 9월
EU 경쟁력보고서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EU의 1인당 GDP, 생산성 증가율, 취업률 등을 비교 거시경제여건, 수요조건, 생산투입, 혁신 등 6대 경쟁력 원천이 유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종합순위 내지 않음	매년 11월
아일랜드 경쟁력보고서 (Ireland Competitiveness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목표인 지속가능한 성장(국민소득, 삶의질 등)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경쟁력(기업성과, 생산성 등)과 미래경쟁력(기업환경, 물적 인프라 등)을 평가 	"	매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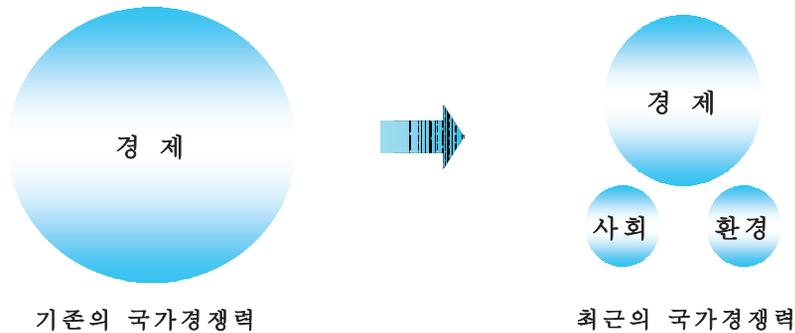
세계은행(WB) Doing Business (Ranking on the of doing business)	▪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 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	16위/183개국 (2010년)	매년 9월
헤리티지(Heritage) 재단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 기업활동, 조세, 무역정책 등 10개 부문의 경제자유정도를 계량화하여 평가	31위/179개국 (2010년)	매년 1월
경제자유네트워크 경제자유지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무역자유,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에 대한 경제자유정도 평가	32위/141개국 (2009년)	매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39위/180개국 (2009년)	매년 11월
덴마크 전경련 글로벌 벤치마킹 지수 (Global Benchmark Report)	▪ OECD국가의 성장과 발전, 기업유연성 등 6개 부문의 세계화 대응도 평가	2위/29개국 (2010년)	매년 4월

한편, 기존의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경제부문에 국한되어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경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이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통합, 환경 등 경제부문 이외의 분야에서 통계지표 개발 등 연구기반이 미흡했던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경쟁력보고서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주로 기인한다. 첫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감이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Easterlin의 역설²⁰⁾(1974)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어서게 되면 국민의 행복감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소득, 사회통합,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인 시계(視界)로

20) Easterlin, R.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 Some Empirical Evidence」, 1974

볼 때, 사회통합과 환경을 도외시키고서는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개념이 힘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양극화 등으로 사회통합(소득분배, 사회안전망 등)이 위협받거나, 화석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²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국가경쟁력 관점으로 볼 때에도 사회통합과 환경 부문을 경쟁력 원천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²²⁾(2009) 등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1) 먼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이론적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i) Rodrik(1999) 등은 외부 경제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회갈등에 취약한 국가는 경제성장에 반하는 분배 및 조정과정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ii) Alesina & Perotti(1994), Perotti(1997) 등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분배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tern(2006), IPCC(2007), OECD, IMF 등 다양한 연구에서 기후변화가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세계 GDP의 5~20%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자국의 녹색산업(green industries)을 경쟁적으로 육성하는 등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환경과 경제성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2008년 2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경제성과와 사회진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DP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2009년 9월에 연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우리의 국가경쟁력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부문에 집중하는 기존 국가경쟁력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최근의 국가경쟁력 논의 동향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모델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부문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에서 사회통합과 환경분야를 추가하여 평가·분석하였다.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 경제부문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은 경쟁력의 결과인 경제성과와 노동공급, 자본공급, 기술혁신, 기업환경, 거시환경, 산업구조 및 5대 인프라(인적자본, 물적자본, 금융자본, 사회적자본 및 부존자원)를 경쟁력 원천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첫째, 경제성과는 협의(경제부문)의 국가경쟁력의 최종결과이며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세계시장 점유율 등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노동은 한 경제의 노동공급 규모를 나타내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평균근로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자본은 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이 실물자본에 투자될 때 이루어지며 ▲자본형성 ▲저축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로서 한 경제의 기술혁신 정도는 ▲기초과학 수준 ▲R&D투자 ▲특허 현황 ▲정보화 수준 ▲하이테크산업 비중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환경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가리키며 ▲노동생산성 및 비용 ▲자본비용 ▲규제 ▲조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로 구성하였다.

23)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도식화할 수 있다. 이때, 경제성과(Y)는 노동(L), 자본(K) 및 총요소생산성(A)의 총합이며, 7대 경쟁력 원천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성과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노동(노동공급), 자본(자본공급)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기업환경, 거시환경, 산업구조 및 인프라)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Y = A \cdot L^\alpha \cdot K^{(1-\alpha)} \quad (Y : \text{GDP}, L : \text{노동}, K : \text{자본}, A : \text{총요소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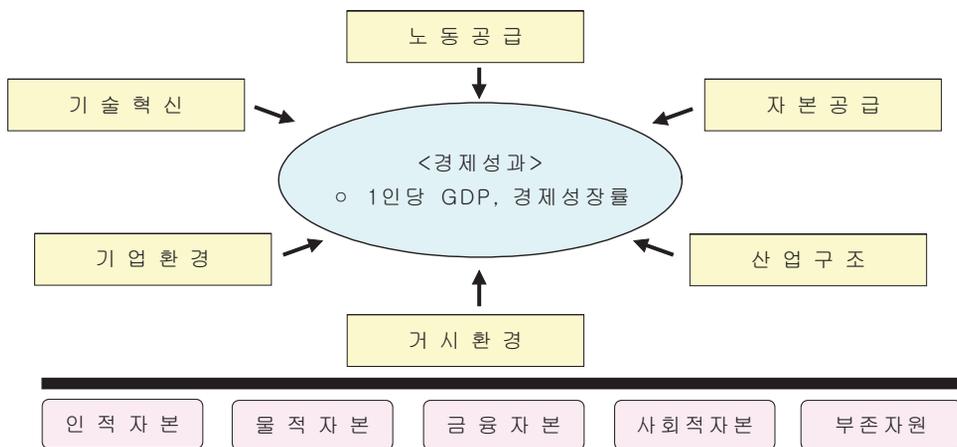
여섯째, 거시환경은 경제의 안정성과 개방정도를 나타내며 ▲거시경제안정 ▲무역개방 정도 ▲투자개방 정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일곱째, 산업구조는 ▲경쟁법 효율성 ▲중소기업 비중 ▲제조업·서비스업 비교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구성 ▲자영업자·임금근로자 비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덟째, 인프라는 노동, 자본 등 여타 경쟁력 원천의 밑바탕이 되는 요소로서 ▲인적자본 ▲물적자본 ▲금융자본 ▲사회적자본 ▲부존자원의 5개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경쟁력 원천은 모두 중요하겠으나 그 상대적 중요성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산업발달이 더딘 개발도상국일수록 자본공급과 노동공급의 중요성이 높은 반면,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 보다는 혁신, R&D 등 생산성 향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요소투입 증가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기술혁신, R&D투자와 같은 생산성 향상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각국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거시환경이 국가경쟁력의 중요 원천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림 1-11]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은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에 사회통합과 환경 부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광의의 경제발전은 국민소득 증가와 같은 좁은 의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환경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 및 행복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광의의 경제개념은 다음의 피라미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과 조화를 이루어 재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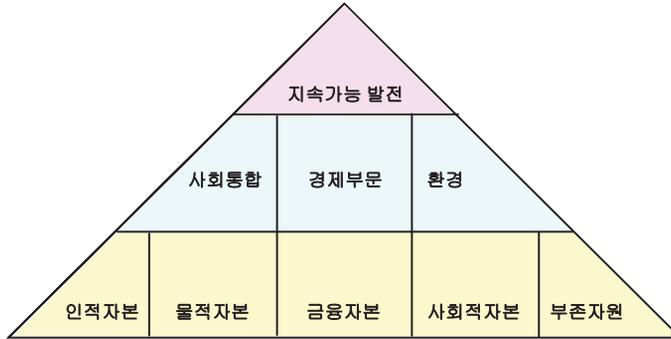
첫째, 1단계(최상층)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부문의 경쟁력이 균형 있게 향상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지표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방법은 최근 스티글리츠 위원회, OECD세계포럼(2009.10월)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표가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몇몇 국가경쟁력 모델에서는 부문별 지표의 가중평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가중치 적용의 자의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 지표나 부문별 지표의 가중평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경제·사회·환경 전 부문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를 설정하였다.

둘째, 2단계(중간층)는 현재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과, 사회통합 및 환경의 3대 부문을 측정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경제부문은 협의의 경쟁력 모델을 참조하여 경제성과, 노동공급, 자본공급, 기술혁신, 기업환경, 거시환경, 산업구조의 7개 중분류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은 사회지출, 분배, 수명·보건, 안전의 4개 중분류로, 마지막으로 환경은 환경관리와 녹색산업의 2개 중분류로 구분하였다.

셋째, 3단계(최하층)는 인적자본, 물적자본, 금융자본, 사회적자본, 부존자원의 5대 인프라를 통해 미래의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I-12]

광의의 국가경쟁력 모델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및 남북관계 등 미래 우리경제에 도전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는 요소들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경쟁력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평면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시각을 획득하였다.

비교대상 국가 및 세부지표 선정

본절에서는 국가경쟁력 모델에 포함되는 비교대상 국가의 범위를 정하고, 세부지표 선정방법 및 비교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교대상 국가는 OECD 국가를 기본으로 하되 경제성과 및 경제규모 지표의 경우에는 G20국가와도 비교하였다. 이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국가와의 비교가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알맞고, 또한 최근 G20가 국제경제 및 금융체제를 주도하는 협의체로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동 국가들이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정도(精度)높고 일관성있는 통계를 입수하기가 용이하다는 통계의 가용성(availability) 측면도 고려되었다.

다음으로 세부지표 선정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에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기초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각국 통계

청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IMD, WEF 등 기존의 국가경쟁력보고서들이 설문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공신력이 떨어지고 지표값·순위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경성자료(hard data)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통계지표 만으로는 측정할 지표가 마땅하지 않은 사회적 자본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설문지표를 사용하여 통계지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지표를 종합한 국가순위는 산정하지 않고 개별 지표별로 경쟁국과 비교하여 OECD내 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국가순위 집계시 세부지표별 가중치(weight) 산정의 자의성 소지 논란과 종합순위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본 보고서가 경쟁국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부문별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I-4>

주요 국가경쟁력 모델과의 비교

모 델	포괄범위 ¹⁾	지 표	비교국가
우리나라	경제·사회·환경	- 총지표수 : 245개 · 통계지표 : 236개 · 설문지표 : 9개	OECD 30개국 (경제성가지표에 대해서는 G20 포함)
I M D	경제·(사회)·(환경)	- 총지표수 : 254개 · 통계지표 : 139개 · 설문지표 : 115개	58개국
W E F	경제·(환경)	- 총지표수 : 111개 · 통계지표 : 31개 · 설문지표 : 80개	139개국
E U	경제·(환경)	- 총지표수 : 25개 · 통계지표 : 25개 · 설문지표 : 0개	미국
아일랜드	경제·사회·환경	- 총지표수 : 133개 · 통계지표 : 130개 · 설문지표 : 3개	총18개국(EU13개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주 : 1) ()는 전체 모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

제2부 국가경쟁력 지표 분석

1. 성장 동력 / 52
2. 인프라 / 161
3. 사회 통합 / 192
4. 환경 / 204
5. 미래도전요인 / 217

1. 성장 동력

1.1. 경제성과

(지표개요)

경제성과는 경제부문 경쟁력의 최종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i) 현재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ii) 소득의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iii)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나타내는 세계시장점유율로 구분된다.

(전반적인 순위)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17,078\$)는 OECD중 25위(단, PPP기준 1인당 GDP는 23위)를 차지하였으나 GDP성장률(2.5%, 3위), 잠재성장률(4.6%, 3위/25개국), 그리고 우리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2.9%, 8위)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품경쟁력으로 OECD 평균의 1인당 GDP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나 아직은 여타 OECD국가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수준이다.

〈표 II-1〉 주요 경제성과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1인당 GDP	17,078\$	25위	3.9만\$
(PPP 기준)	27,169\$	23위	3.5만\$
경제성장률			
- GDP성장률 ¹⁾	2.5%	3위	0.4%
- 잠재성장률 ²⁾	4.6%	3위/25개국	2.1%
세계시장점유율	2.9%	8위	2.0%

주 : 1) 2007~2009년 평균

2) 2006~2008년 평균, 우리나라는 2003~2010년 기준

(참고 : 경제규모)

우리나라의 위상을 규모로 평가해 보면, 인구 기준(4,875만명)으로는 OECD중 9위, GDP기준(8,325억\$)으로는 11위, 그리고 무역규모(6,866억 \$)로는 9위를 기록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규모기준으로 OECD 10위권 내외의 중간 순위 수준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표 II-2〉 주요 경제규모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총인구	4,875만명	9위	3,978만명
명목GDP	8,325억\$	11위	13,733억\$
(PPP 기준)	13,244억\$	9위	13,543억\$
무역규모	6,866억\$	9위	5,215억\$

(G20기준 경제성과)

한편, G20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17,078\$)는 G20중 10위(단, PPP기준 1인당 GDP는 9위)를 차지하여 중간순위를 나타내었다. 한편, GDP성장률(2.5%, 7위)과 우리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2.9%, 7위)은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표 II-3〉 주요 경제성과 지표 G20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G20 평균
1인당 GDP	17,078\$	10위	2.2만\$
(PPP 기준)	27,169\$	9위	2.3만\$
GDP성장률 ¹⁾	2.5%	7위	2.1%
세계시장점유율	2.9%	7위	3.1%

주 : 1) 2007~2009년 평균

(G20기준 경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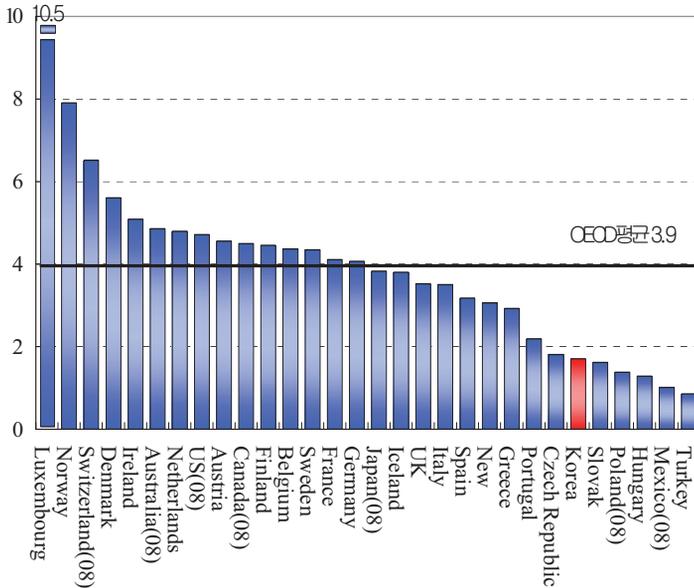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G20 기준으로 보면, 인구 기준(4,875만명)으로는 G20중 15위, GDP기준(8,325억\$)으로는 14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무역규모(6,866억\$)로는 8위로 다소 높은 순위를 보였다.

〈표 II-4〉 주요 경제규모 지표 G20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G20 평균
총인구	4,875만명	15위	22,214만명
명목GDP	8,325억\$	14위	23,563억\$
(PPP 기준)	13,244억\$	12위	27,469억\$
무역규모	6,866억\$	8위	7,989억\$

[그림 II-1] 1인당 GDP [2009년, 만\$]

25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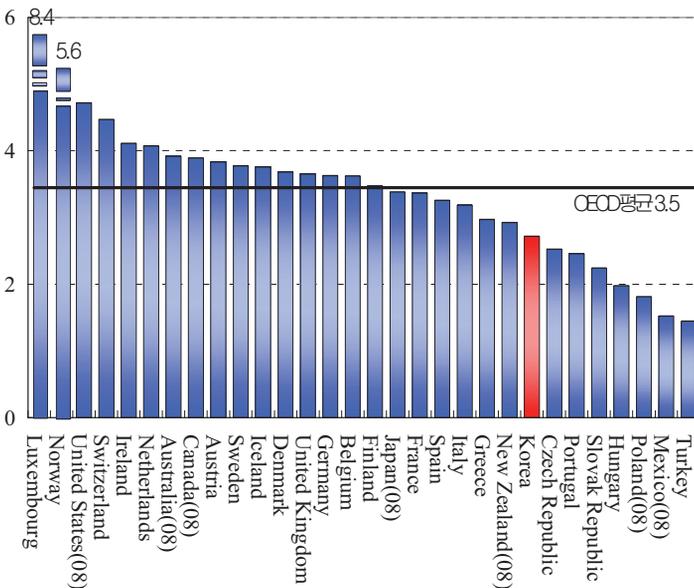


- 1인당 GDP는 경제활동의 총합으로서 각국의 소득·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 우리나라의 2009년 1인당 GDP는 17,078 \$로 OECD중 25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으며,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1인당 GDP 국가는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2] 1인당 GDP [2009년, PPP 기준, 만\$]

2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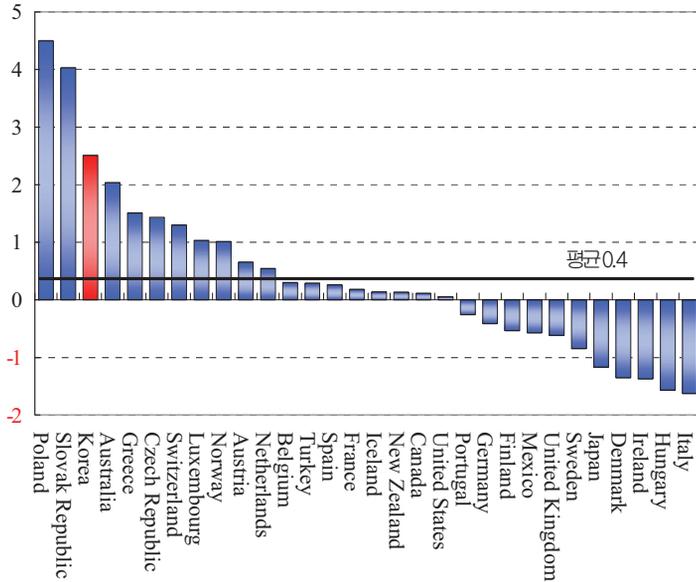


-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에 따른 구매력 격차를 반영하여 산출한 1인당 GDP로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측정
- 우리나라의 2009년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7,169\$로 OECD중 23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의 구매력평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으며, 노르웨이,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매력평가 1인당 GDP 국가는 그리스, 뉴질랜드, 체코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3] 경제성장률 [07~09년 중 평균, %]

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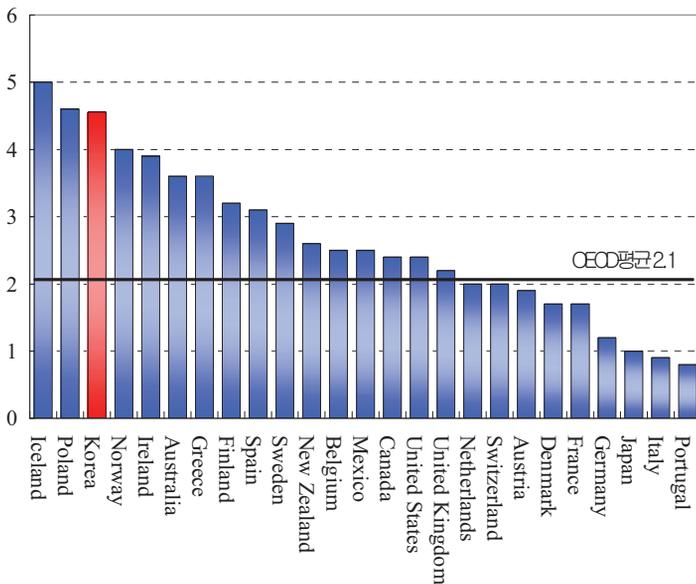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7~2009년 평균 GDP성장률은 2.5%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
- OECD 국가중에서 폴란드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슬로바키아, 우리나라, 호주, 그리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 경기사이클을 고려하기 위해 3개년 경제성장률을 단순 평균

자료 : OECD, IMF

[그림 II-4] 잠재성장률 [06~08년^주, %]

3위/OEC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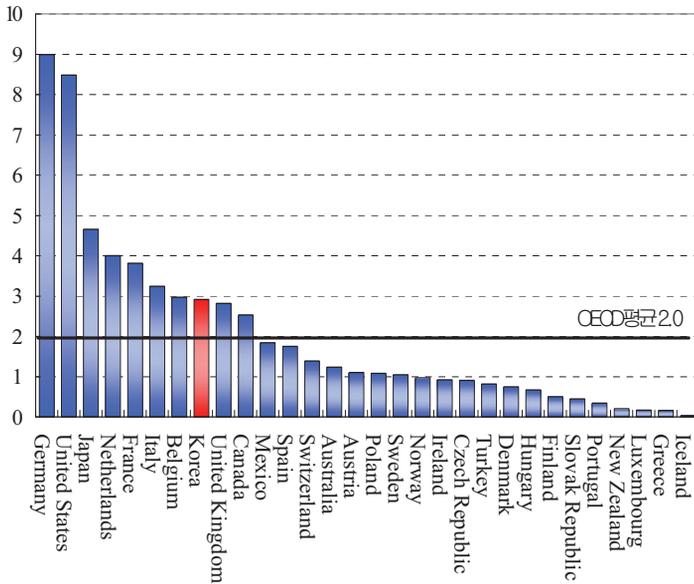


-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동원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임
- 우리나라의 2006~2008년 잠재성장률은 4.6%로 조사대상 OECD 25개국 중 3위
- OECD 국가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잠재성장률을 보였으며 폴란드, 우리나라,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우리나라는 2003~2010년 자료 : OECD, KDI(2006)

[그림 II-5]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2009년, %]

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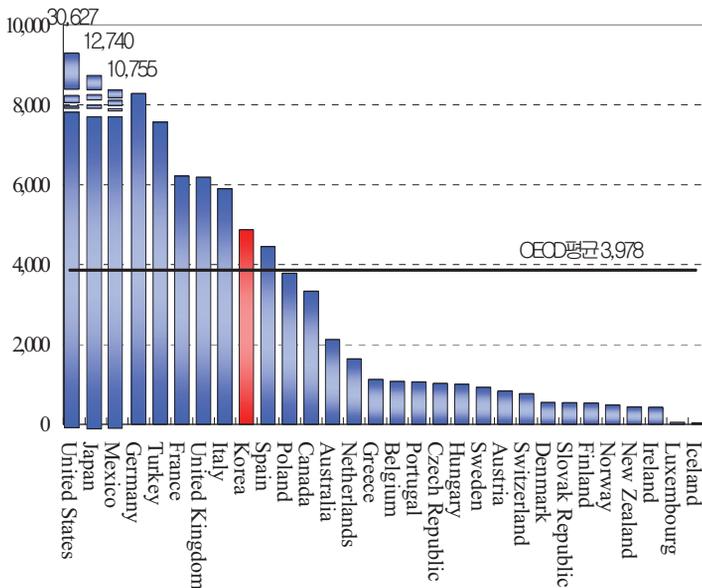


-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2009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2.9%로 OECD 중 8위
- OECD 국가 중에서 독일이 가장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미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한 국가는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등임

자료 : WTO

[그림 II-6] 총인구 [2009년, 만명]

9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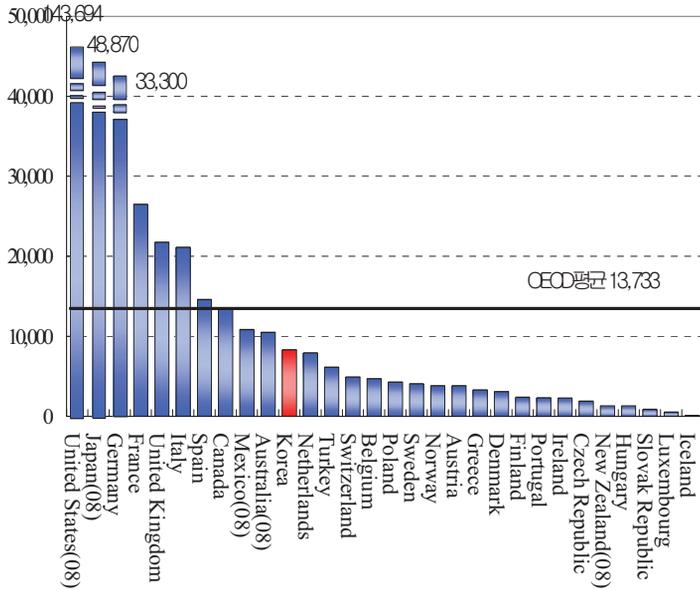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인구는 4,875만명으로 OECD 중 9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멕시코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를 기록한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7] 명목GDP [2009년, 억\$]

1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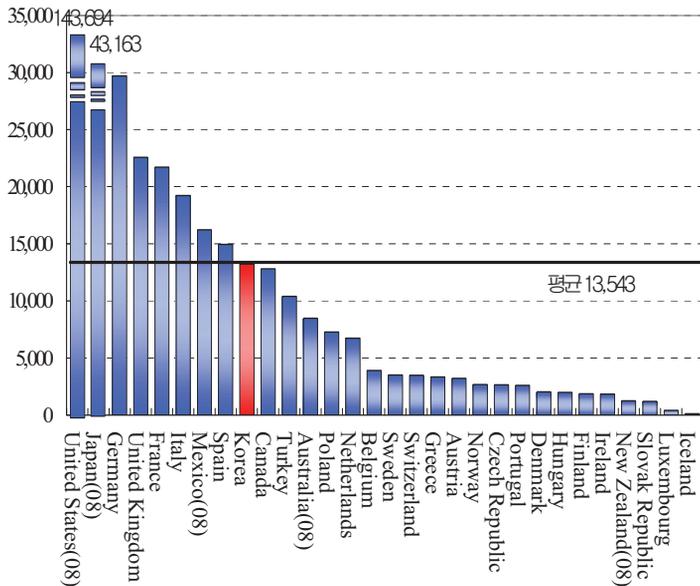


- 명목GDP는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서 각국의 경제규모를 측정
- 우리나라의 2009년 명목GDP는 8,325억\$로 OECD중 11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명목GDP를 보였으며 일본,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명목GDP를 기록한 국가는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8] 명목GDP [2009년, PPP 기준, 억\$]

9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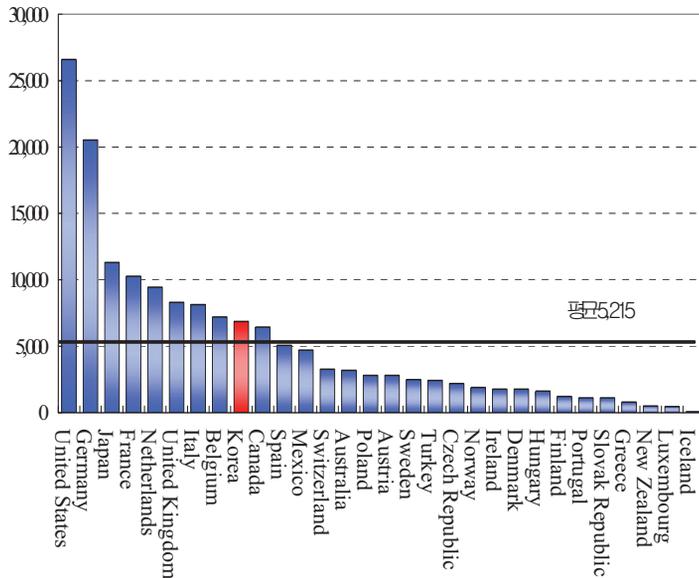


- 구매력평가 기준 명목GDP는 GDP를 물가수준에 따른 구매력 격차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임
- 우리나라의 2009년 구매력평가 명목GDP는 13,244억\$로 OECD중 9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구매력평가 명목GDP를 보였으며 일본,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매력평가 명목GDP를 기록한 국가는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9] 무역규모 [2009년, 억\$]

9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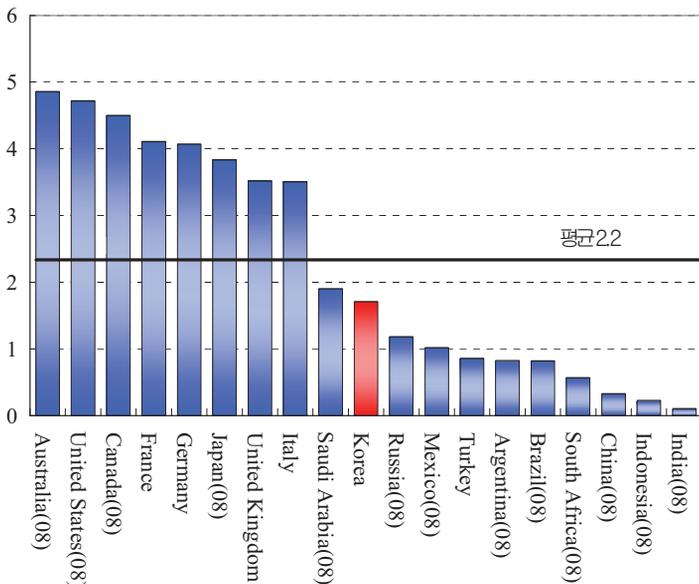


- 무역규모는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로 경제규모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대외개방도 등을 반영
- 우리나라의 2009년 무역규모는 6,866억 \$로 OECD중 9위
- OECD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무역규모를 나타내었으며 독일,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무역규모를 기록한 국가는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임

자료 : WTO

[그림 II-10] 1인당 GDP [2009년, 만\$, G20 기준]

10위/G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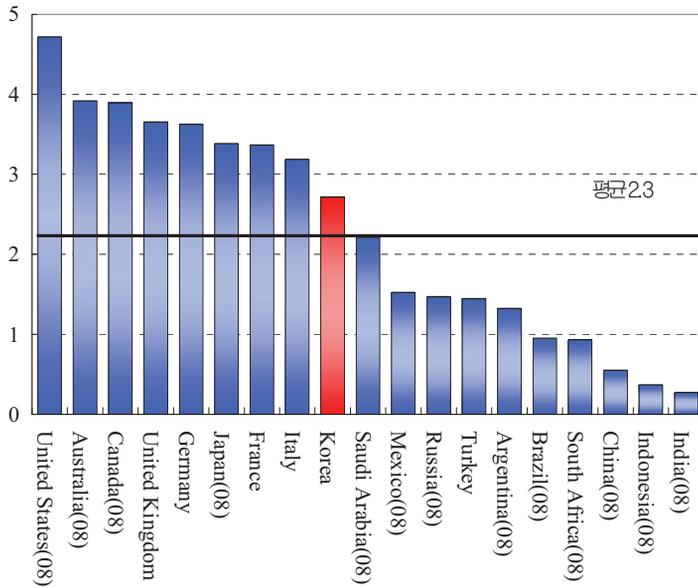


- 1인당 GDP는 경제활동의 총합으로서 각국의 소득·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 우리나라의 2009년 1인당 GDP는 17,078 \$로 G20중 10위
- G20중에서 호주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으며, 미국,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1인당 GDP 국가는 이탈리아, 사우디, 러시아 등임

자료 : OECD, Worldbank

[그림 II-11] 1인당 GDP [2009년, PPP 기준 만\$, G20 기준]

9위/G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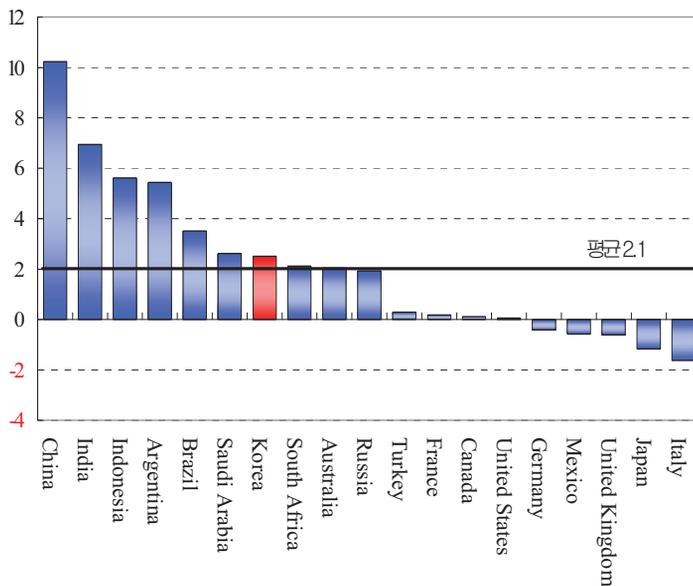


자료 : OECD, Worldbank

-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에 따른 구매력 격차를 반영하여 산출한 1인당 GDP로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측정
- 우리나라의 2009년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7,169\$로 G20중 9위
- G20중에서 미국의 구매력평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으며, 호주,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매력평가 1인당 GDP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사우디 등임

[그림 II-12] 경제성장률 [2007~2009년 중 평균 %, G2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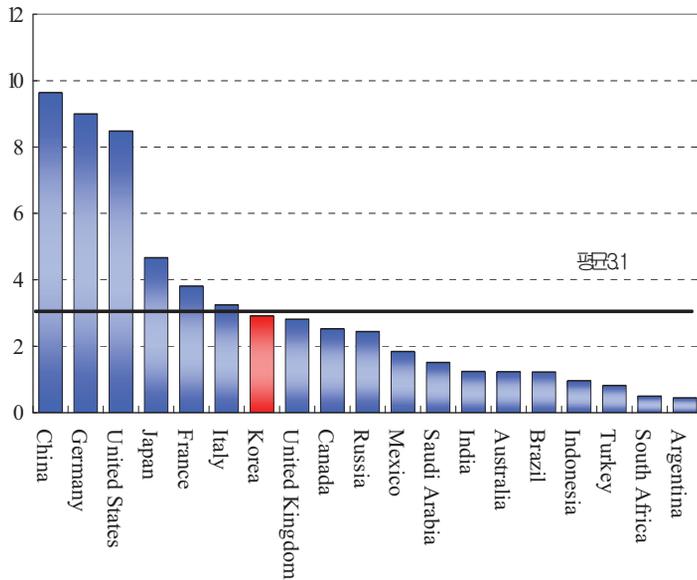
7위/G20



자료 : OECD, Worldbank, IMF

- 우리나라의 2007~2009년 평균 GDP 성장률은 2.5%로 G20중 7위를 기록
- G20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브라질, 사우디, 남아공 등임
- * 경기사이클을 고려하기 위해 3개년 경제성장률을 단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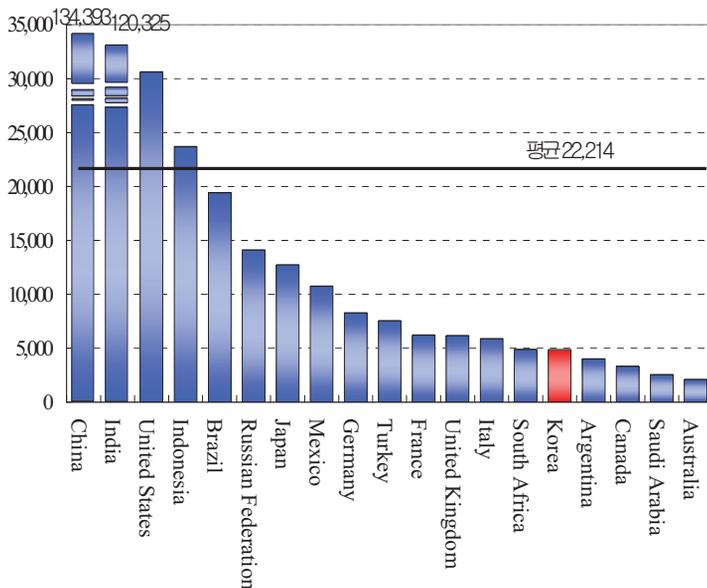
[그림 II-13] 수출상품 세계시장 점유율(2009년 % G20 기준) 7위/G20



-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2009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2.9%로 G20 중 7위
- G20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독일,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임

자료 : WTO

[그림 II-14] 총인구(2009년, 만명, G20 기준) 15위/G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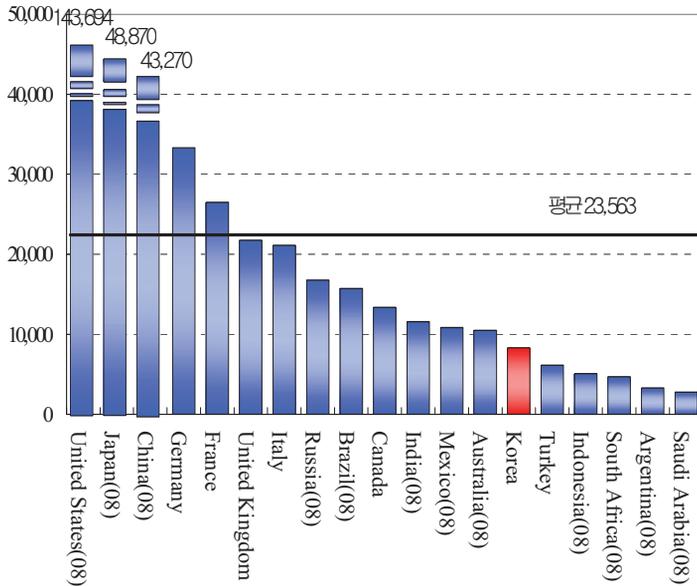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인구는 4,875만명으로 G20중 15위
- G20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였으며 인도,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를 기록한 국가는 이탈리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임

자료 : OECD, UN

[그림 II-15] 명목GDP [2009년, 억\$, G20 기준]

14위/G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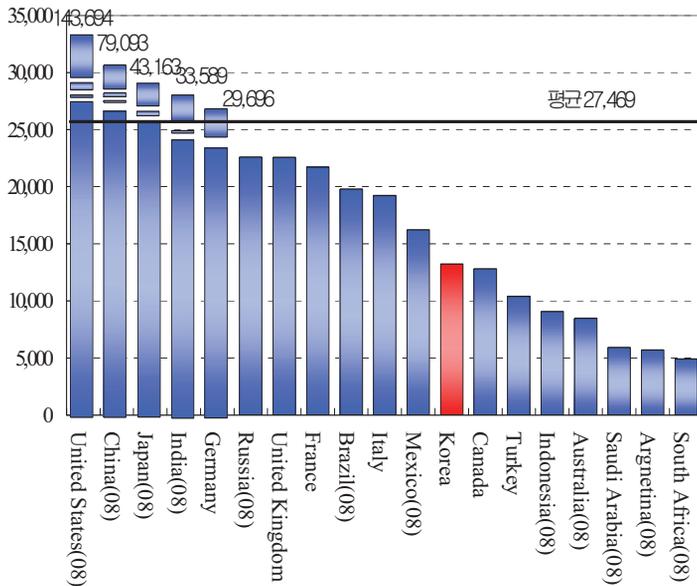


- 명목GDP는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서 각국의 경제규모를 측정
- 우리나라의 2009년 명목GDP는 8,325억\$로 G20중 14위
- G20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명목GDP를 보였으며 일본, 중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명목GDP를 기록한 국가는 멕시코, 호주, 터키 등임

자료 : OECD, Worldbank

[그림 II-16] 명목GDP [2009년, PPP 기준, 억\$, G20 기준]

12위/G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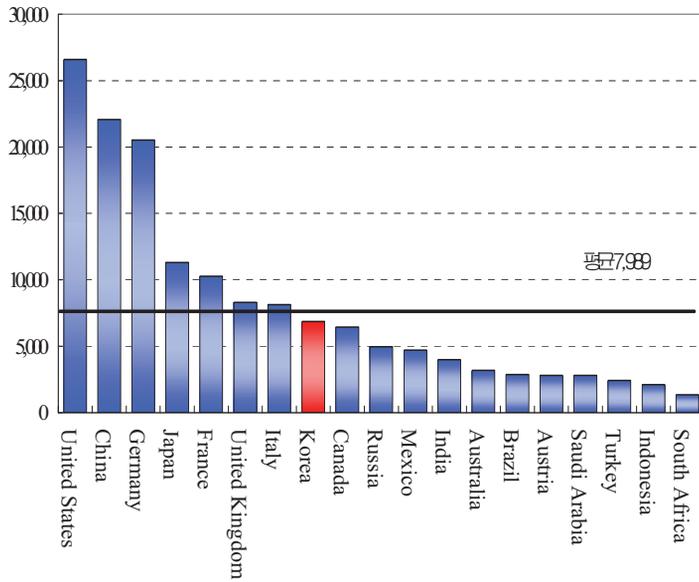


- 구매력평가 기준 명목GDP는 GDP를 물가수준에 따른 구매력 격차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임
- 우리나라의 2009년 구매력평가 명목GDP는 13,244억\$로 G20중 12위
- G20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구매력평가 명목GDP를 보였으며 중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매력평가 명목GDP를 기록한 국가는 이탈리아, 멕시코, 캐나다 등임

자료 : OECD, Worldbank

[그림 Ⅱ-17] 무역규모 [2009년, 억\$, G20 기준]

8위/G20



- 무역규모는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로 경제규모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대외개방도 등을 반영
- 우리나라의 2009년 무역규모는 6,866억 \$로 G20중 8위
- G20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무역규모를 나타내었으며 중국,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무역규모를 기록한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임

자료 : WTO

1.2. 요소투입

(2-1) 노동공급

(지표개요)

한 경제의 노동공급 규모는 i) 노동공급의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ii) 현재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률²⁴⁾, 그리고 iii) 노동자 1인당 평균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노동공급이 원활한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높거나 고용률이 높은 경제 또는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경제이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증가율(0.95%)은 OECD 국가(OECD 평균, 0.64%) 중 10위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OECD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1.19명, 30위)로 인해 향후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률(62.9%)은 OECD 국가 중에서 20위를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 고용률(52.2%, 25위),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고용률(각각 22.9%, 26위, 73.3%, 24위)이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고령층의 고용률(60.4%, 8위)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업률(3.8%, 2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20위)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활동참가율(65.4%, 25위)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25.4%, 29위)과 여성(53.9%, 27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2255.8시간)은 1위를 차지하여 노동공급 측면에서 낮은 고용률을 보완하고 있다.

24)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 = (취업자/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취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 (1-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강점 및 약점)

1인당 국민소득 수준 결정 요인을 노동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 투입(OECD 국가 중 1위)이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완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 역시 노동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노동투입량 증가에 의한 성장기여도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 요인 분석” 참고)

〈표 II-5〉 주요 노동공급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생산가능인구증가율	0.95%	10위	0.64%
합계 출산율 ¹⁾	1.19명	30위	1.71명
외국인 근로자 비율 ¹⁾	2.2%	19위/23개국	6.3%
고용률	62.9%	20위	66.6%
<성별>			
- 남성 고용률	73.6%	18위	73.2%
- 여성 고용률	52.2%	25위	60.1%
<연령별>			
- 청년층 고용률	22.9%	26위	40.2%
- 장년층 고용률	73.3%	24위	78.4%
- 고령층 고용률	60.4%	8위	51.7%
실업률(낮은 순서)	3.8%	2위	7.9%
- 청년층 실업률	9.82%	5위	18.05%
- 장기실업자 비율	0.5%	1위	24.7%
경제활동참가율	65.4%	25위	72.3%
<성별>			
- 남성 참가율	76.9%	21위	79.6%
- 여성 참가율	53.9%	27위	65.0%
<연령별>			
- 청년층 참가율	25.4%	29위	48.4%
- 장년층 참가율	76.0%	28위	84.1%
- 고령층 참가율	61.8%	9위	54.4%
평균 근로시간	2255.8시간	1위	1712.1시간

주 : 1) 2008년 기준

<참고 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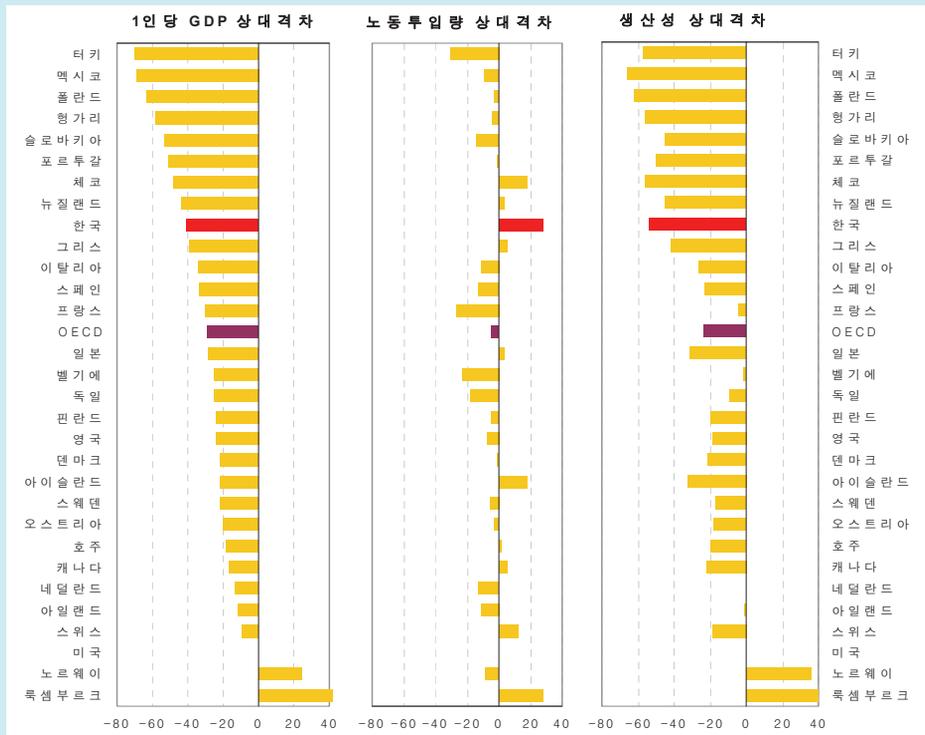
경제성장의 요인 분석 - 노동 투입량 증가 vs 생산성 증가

① 2008년 1인당 국민소득(GDP) 요인 분석

국가 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상대 격차²⁵⁾는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의 차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0으로 전제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PPPs 기준)은 59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22위 수준이다. 이를 생산성 요인과 노동투입량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미국을 100으로 전제할 때, 1)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46인 반면, 2) 노동투입은 113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낮은 생산성을 많은 노동투입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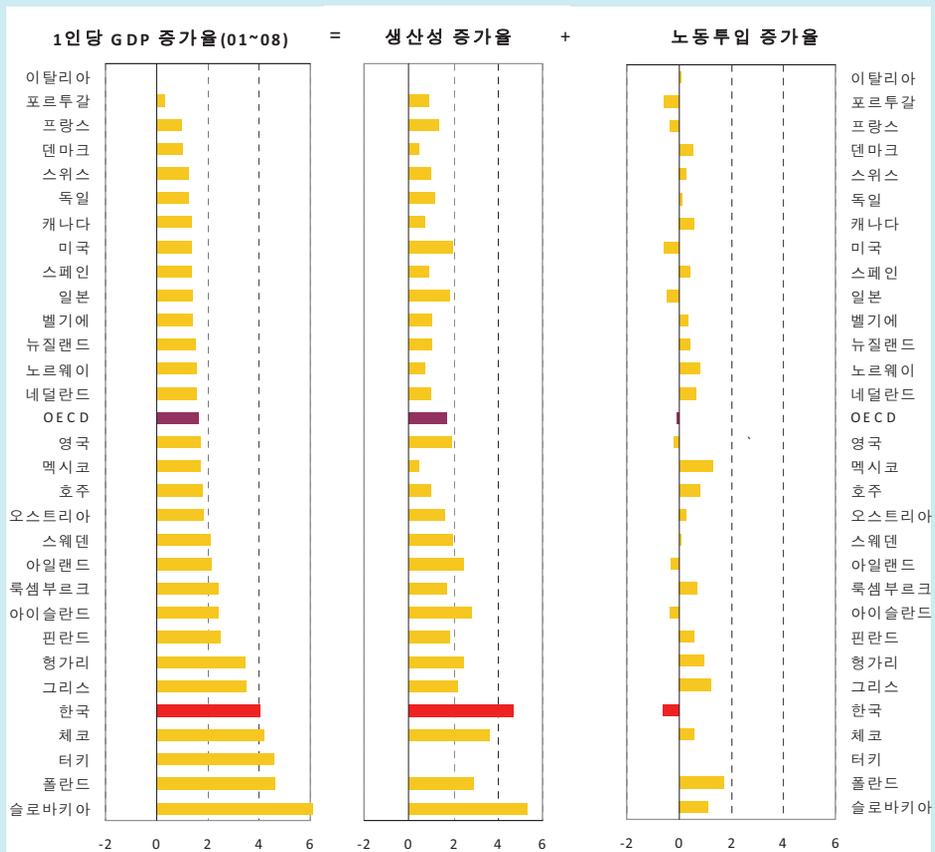
25) 1인당 GDP = GDP/인구 = (GDP/총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인구)
 = 노동 시간당 산출량(생산성) × 1인당 총 근로시간(노동 투입)

② 1인당 국민소득(GDP) 증가율의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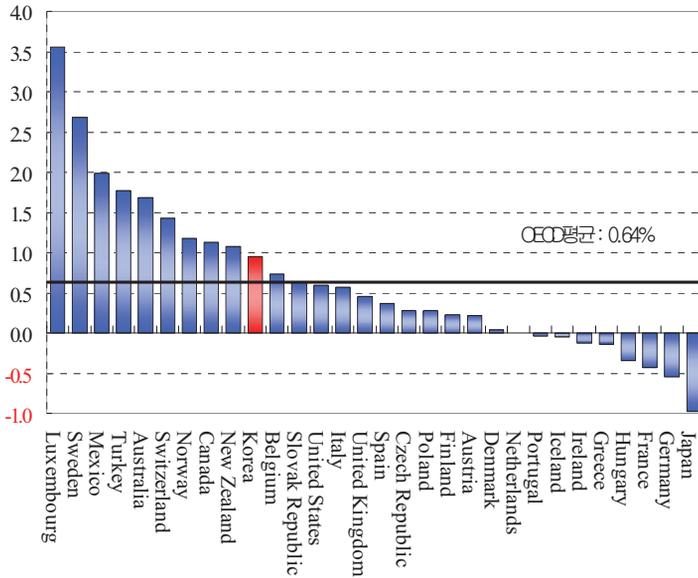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역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노동투입량 증가율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001년~200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4.0%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생산성 증가율 부문과 노동투입량 증가율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4.7%로 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노동투입량 증가율은 -0.6%로 포르투갈, 미국과 함께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2001~2008년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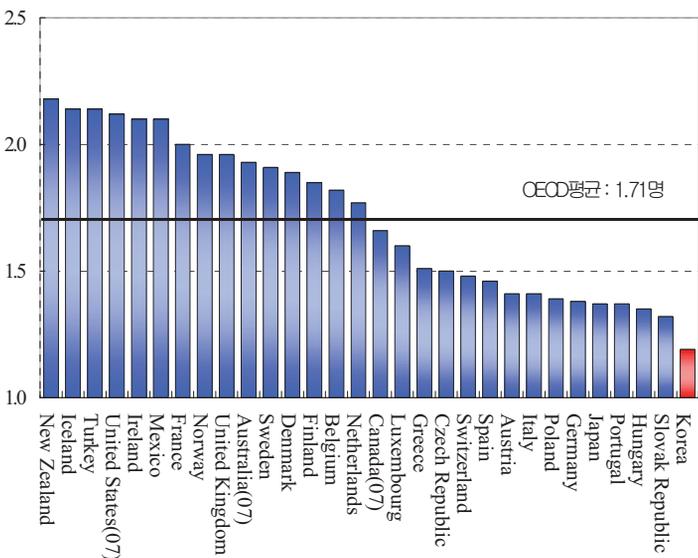
[그림 Ⅱ-18]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 [2009년, %] 10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0.95%로 OECD 국가 중 10위
-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 멕시코가 그 뒤를 이음
- * 독일, 일본 등 8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 벨기에 등임

자료 : OECD. Stat, Labor Force Statistics(LFS) by sex and age

[그림 Ⅱ-19] 합계 출산율 [2008년, %] 3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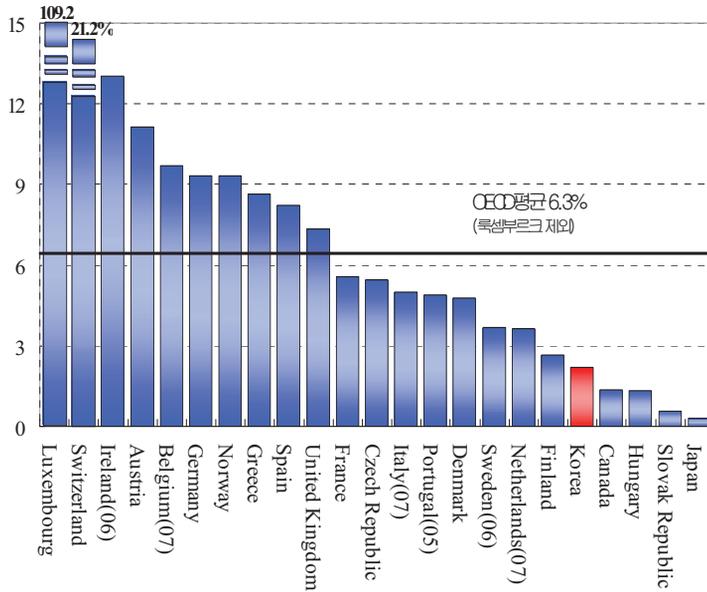


-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이 출산한 자녀수를 가리키며, 합계 출산율이 2.1명(대체 수준)이 되어야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 가능
- 우리나라는 200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30위
- OECD 국가 중 뉴질랜드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 터키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OECD Factbook 2010

[그림 II-20]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08년, %]

19위/OECD(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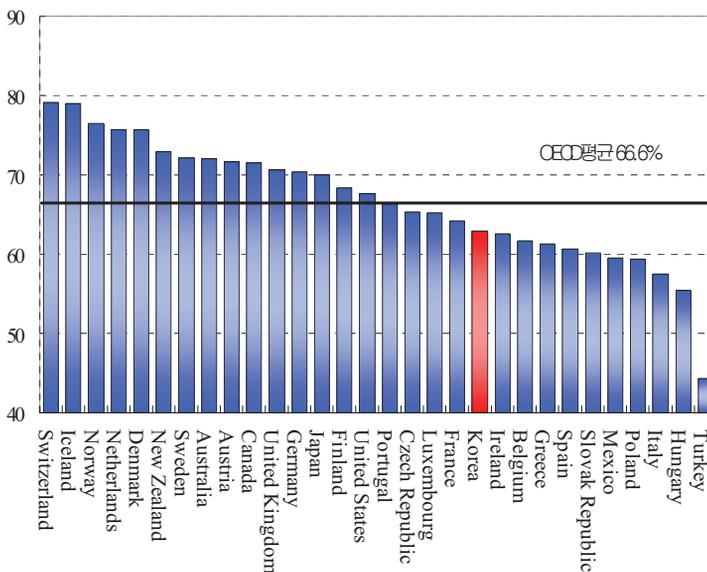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는 부족한 국내 인력을 보충하는 기능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2.2%로 조사대상 OECD 23개국 중 19위
-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위스,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핀란드, 캐나다 등임

자료 : OECD Stat.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그림 II-21] 고용률(15~64세) [2009년, %]

2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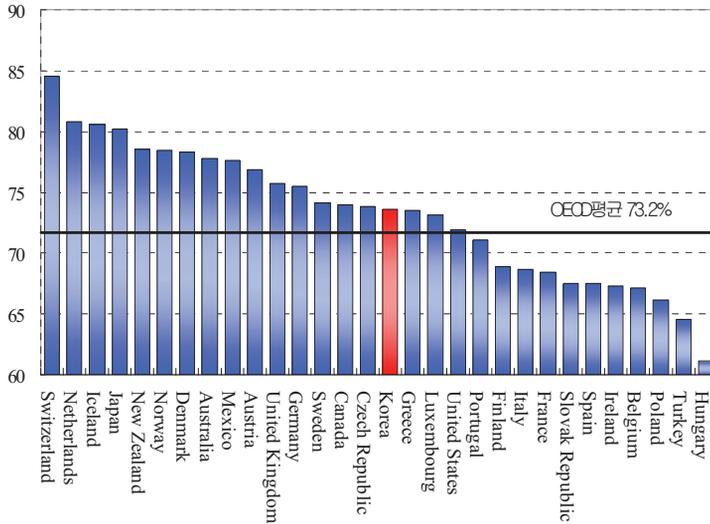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자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국민경제의 고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유용
- 우리나라의 2009년 고용률은 62.9%로 OECD 중 20위
-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낮은 것은 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기 때문임
- OECD국가 중 스위스가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등과 비슷한 수준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그림 Ⅱ-22] 남성 고용률(15~64세) [2009년, %]

1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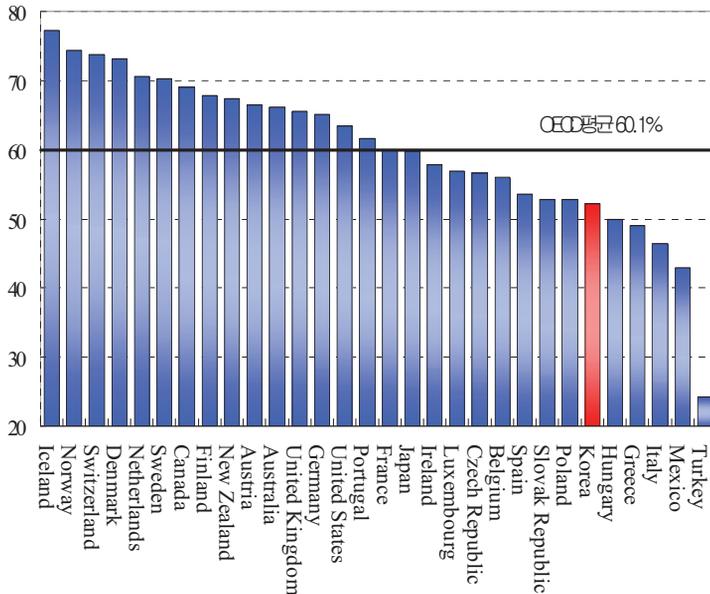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남성 고용률은 73.6%로 OECD 국가 중 18위
- OECD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가 남성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남성 고용률이 비슷한 국가는 체코, 그리스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그림 Ⅱ-23] 여성 고용률(15~64세) [20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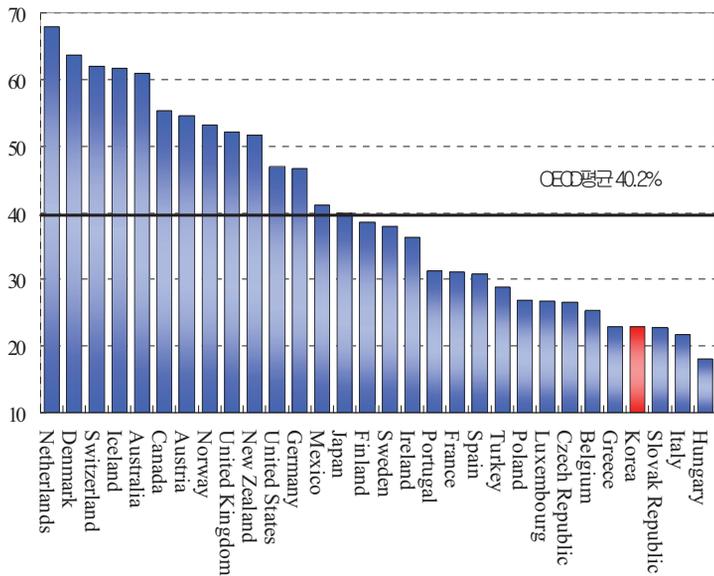
25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여성 고용률은 52.2%로 OECD 국가 중 25위
-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여성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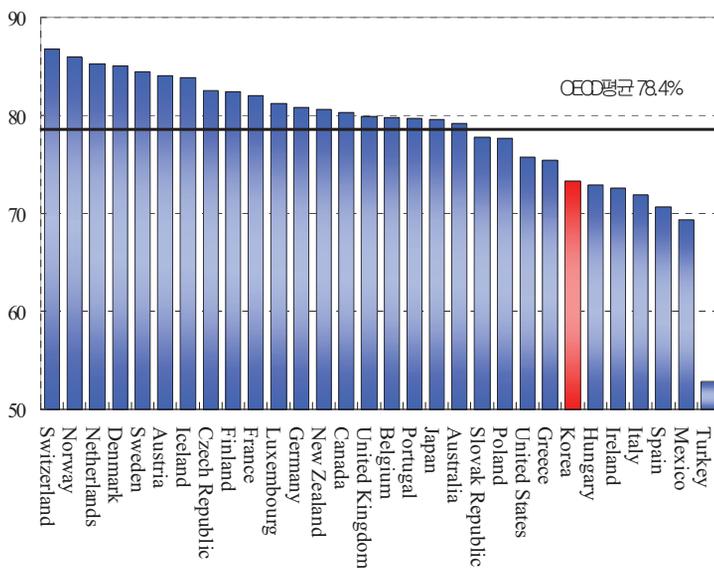
[그림 II-24] 청년층(15~24세) 고용률 [2009년, %] 26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22.9%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함께 26위
- OECD 국가 중 네덜란드가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청년층의 고용률이 비슷한 국가는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그림 II-25] 장년층(25~54세) 고용률[2009년, %] 24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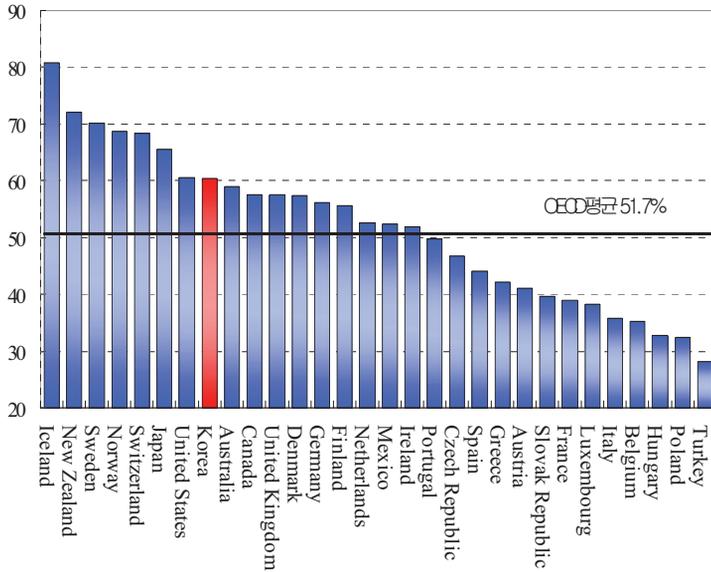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장년층(25~54세) 고용률은 73.3%로 OECD 국가 중 24위
- OECD국가 중 스위스가 장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장년층 고용률이 비슷한 국가는 그리스, 헝가리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그림 Ⅱ-26] 고령층(55~64세) 고용률[2009년, %]

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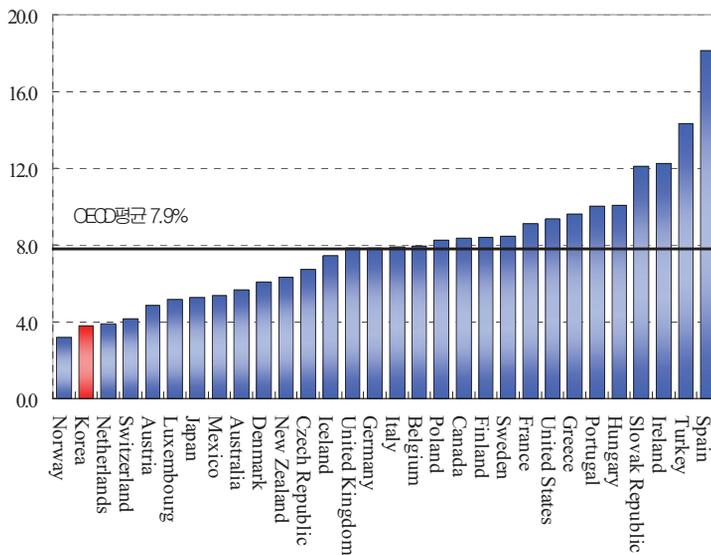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60.4%로 OECD 국가 중 8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고령층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고령자 고용률이 비슷한 국가는 미국, 호주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그림 Ⅱ-27] 전체 실업률 [20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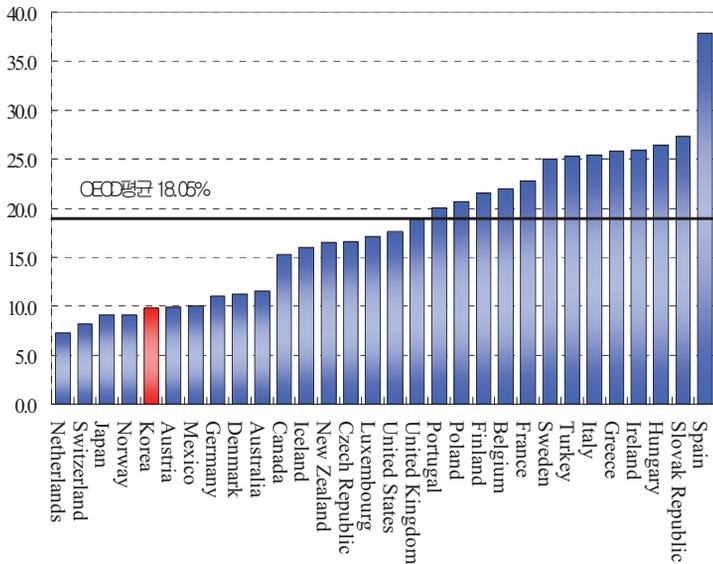
2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실업률은 3.8%로 OECD 국가 중 2위
- OECD 국가 중 노르웨이가 실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우리나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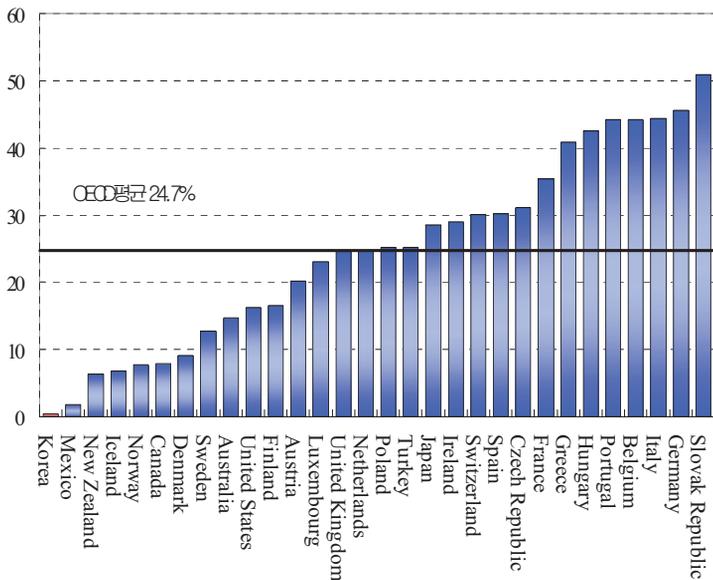
[그림 Ⅱ-28] 청년층(15~24세) 실업률 [2009년, %] 5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9.82%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
- OECD 국가 중 네덜란드가 실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스위스,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청년층 실업률이 비슷한 국가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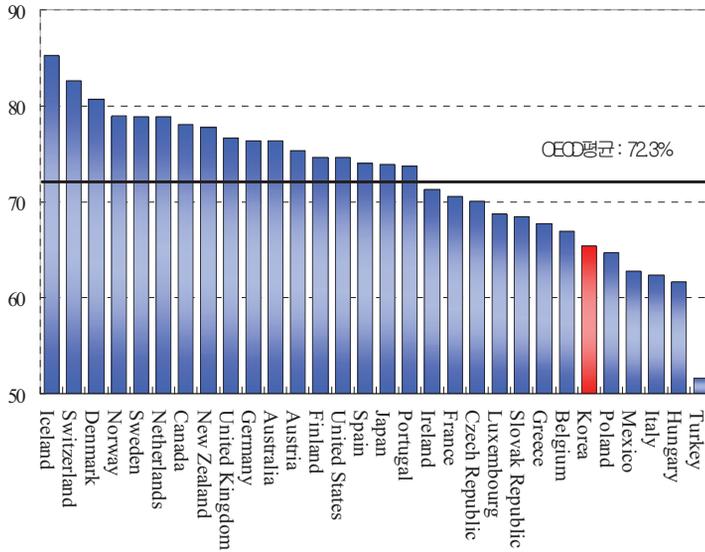
[그림 Ⅱ-29] 장기(1년 이상) 실업자 비율[2009년, %] 1위/OECD



- 실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실망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중 장기(1년 이상) 실업자 비율은 0.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자료 : OECD Stat. Unemployment by d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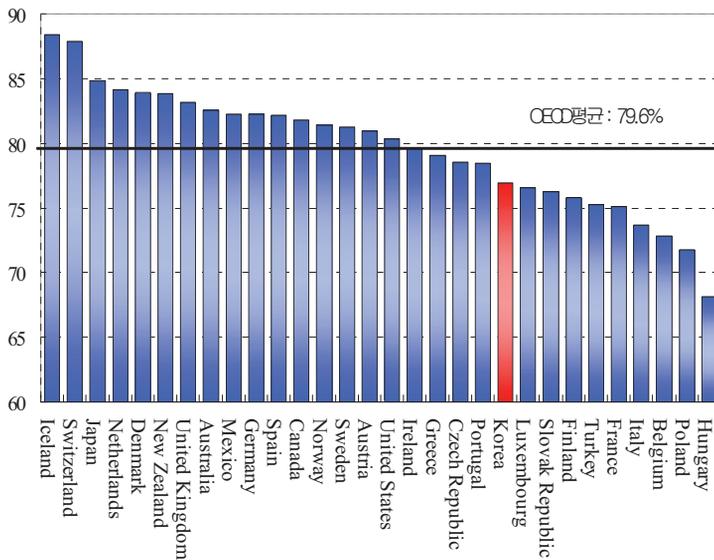
[그림 Ⅱ-30] 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 25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4%로 OECD 국가 중 25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위스,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벨기에, 폴란드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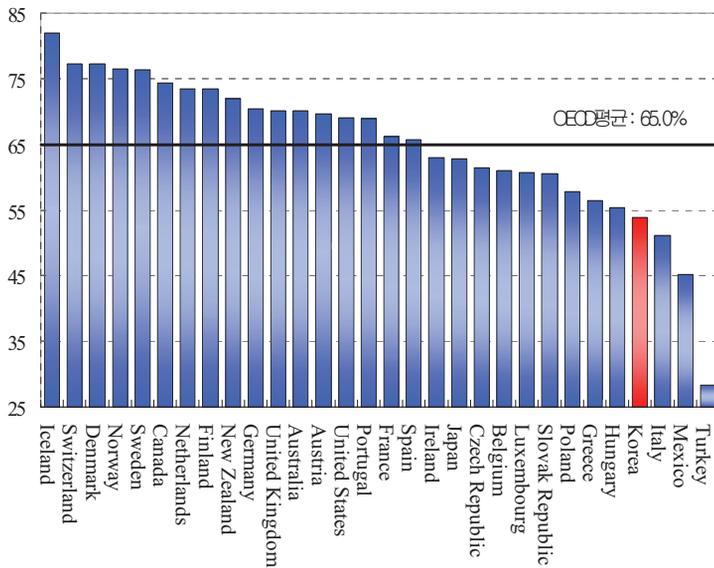
[그림 Ⅱ-31] 남성(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 21위/OECD



- 우리나라는 2009년 남성(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6.9%로 OECD 국가 중 21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위스,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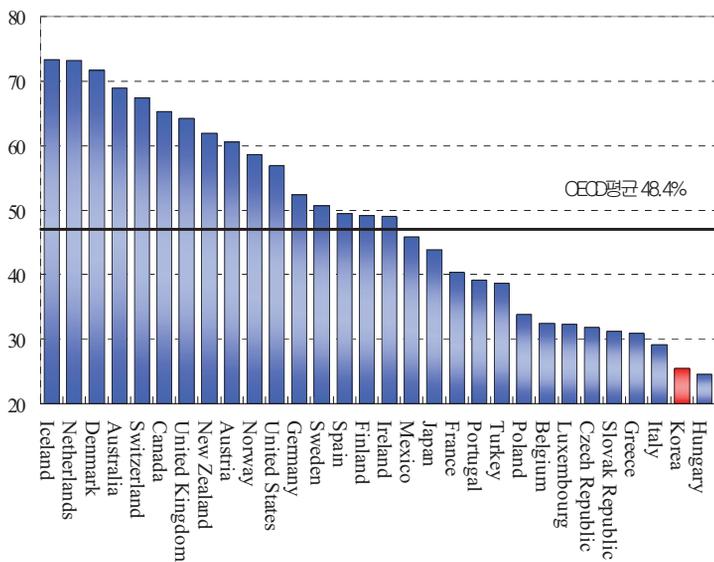
[그림 II-32] 여성(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 27위/OECD



- 우리나라는 2009년 여성(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로 OECD 국가 중 27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위스,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헝가리, 이탈리아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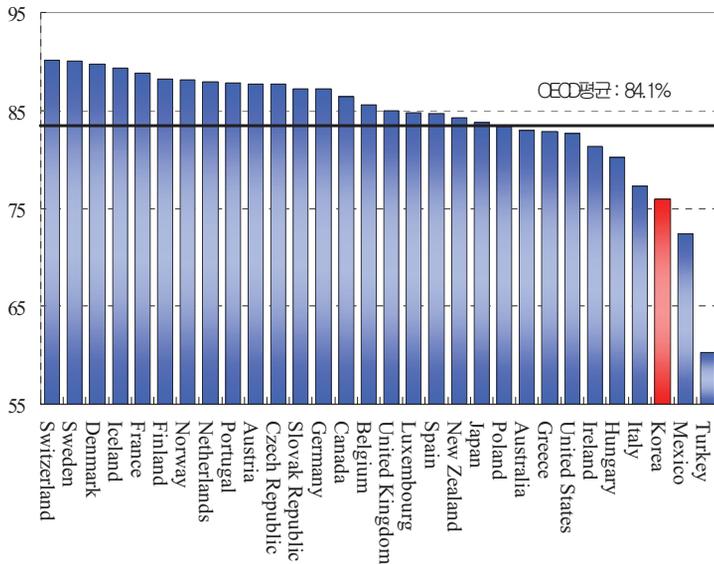
[그림 II-33] 청년층(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 29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청년층(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로 OECD 국가 중 29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이탈리아, 헝가리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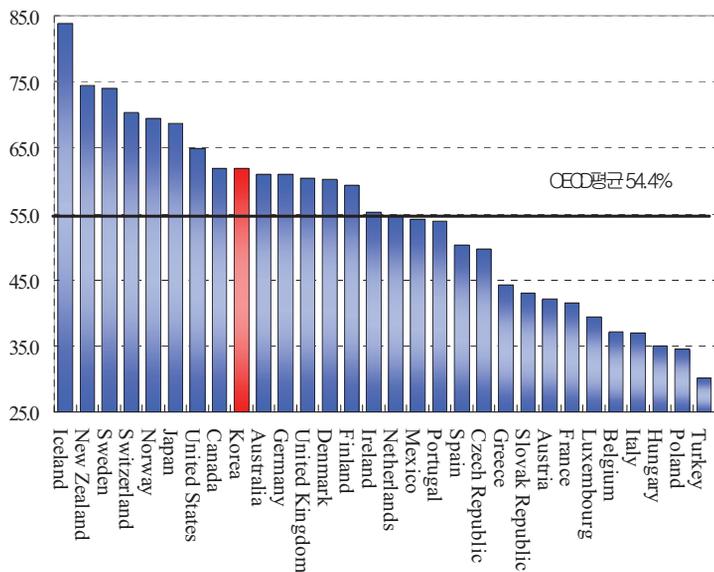
[그림 II-34] 장년층(25~54세)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 28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장년층(25~5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0%로 OECD 국가 중 28위
- OECD 국가 중 스웨덴이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이탈리아, 멕시코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그림 II-35] 고령층(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 9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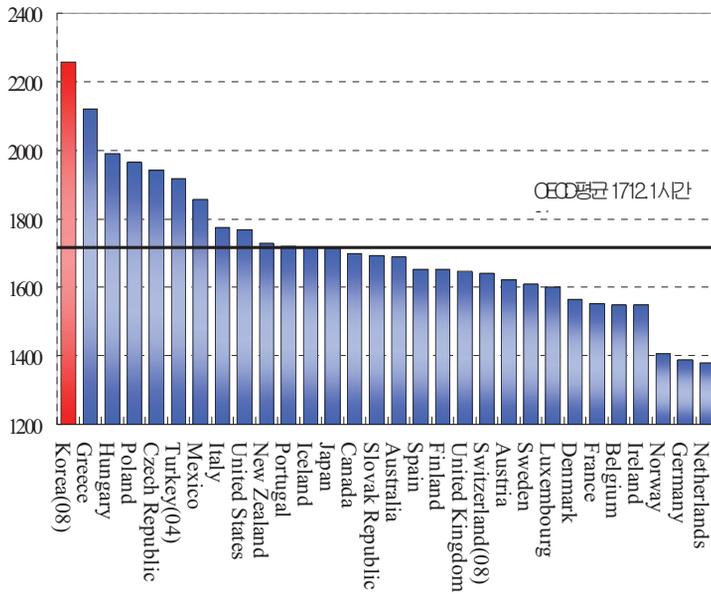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고령층(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OECD 국가 중 9위
- OECD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등임

자료 :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그림 II-36] 연평균 근로시간[2009년, 시간]

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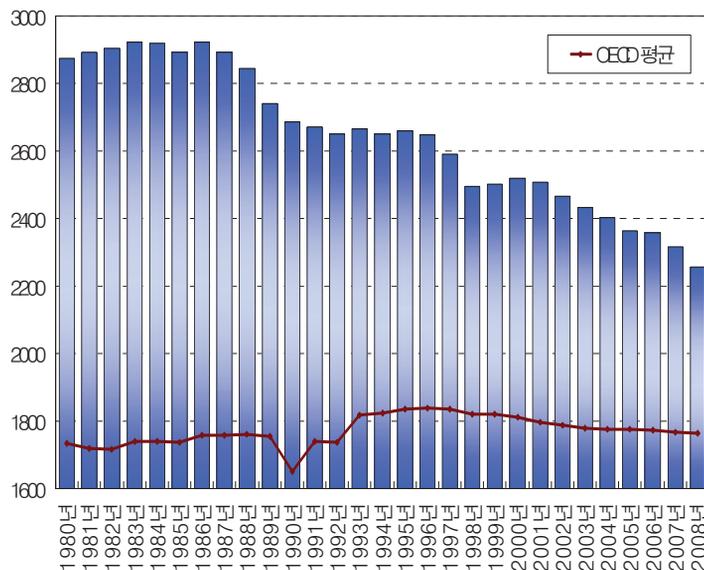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5.8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그리스,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Hour worked

[그림 II-37] 연평균 근로시간 추이[1980~2008년, 시간]

—



- OECD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
-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은 1980년 2,875.8시간에서 2008년 2,255.8시간까지 하락
- 1980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차이가 축소되고 있음

자료 : OECD. Stat, Hour worked

(2-2) 자본공급

(지표개요)

자본공급은 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이 실물자본에 투자될 때 이루어지므로 i) 총고정자본형성, ii) 민간비주택·민간주택 고정자본형성, iii) 저축률로 평가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고정자본형성(GDP대비 27.1%)은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한 반면, 그 증가율(2.0%)은 21위에 그쳤다. 또, 민간비주택고정자본형성은 비중(19.2%, 3위/21개국)과 증가율(4.9%, 12위/23개국) 모두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민간주택고정자본형성은 비중(3.5%, 15위/20개국)과 증가율(-5.1%, 16위/20개국) 모두 비주택부문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저축률은 총저축률(30.7%, 3위/28개국)이 정부총저축률(10.6%, 2위/26개국)과 기업총저축률(15.8%, 4위/26개국)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가계순저축률(2.9%, 17위/25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강점 및 약점)

자본공급은 총고정자본형성의 GDP대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투자성향이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증가율(21위)이 낮아 향후 자본공급량 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저축률은 총저축률이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이는 양호한 재정건전성, 기업의 투자유보 등으로 정부와 기업의 저축률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저축의 주체인 가계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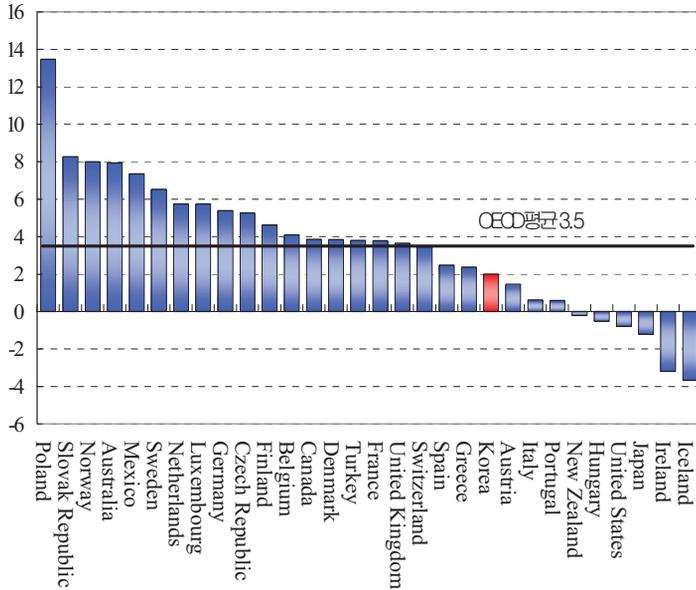
〈표 II-6〉 주요 자본공급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 증가율 ¹⁾	2.0%	21위	3.5%
- GDP대비 비중	27.1%	5위	22.9%
민간비주택고정자본형성			
- 증가율 ¹⁾	4.9%	12위/23개국	4.3%
- GDP대비 비중	19.2%	3위/21개국	14.8%
민간주택고정자본형성			
- 증가율 ¹⁾	-5.1%	16위/20개국	-1.9%
- GDP대비 비중	3.5%	15위/20개국	4.7%
총저축률	30.7%	3위/28개국	22.0%
- 가계순저축률	2.9%	17위/25개국	4.5%
- 정부총저축률	10.6%	2위/26개국	2.8%
- 기업총저축률	15.8%	4위/26개국	13.4%

주 : 1) 2006~2008년 평균

[그림 II-38]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06~08년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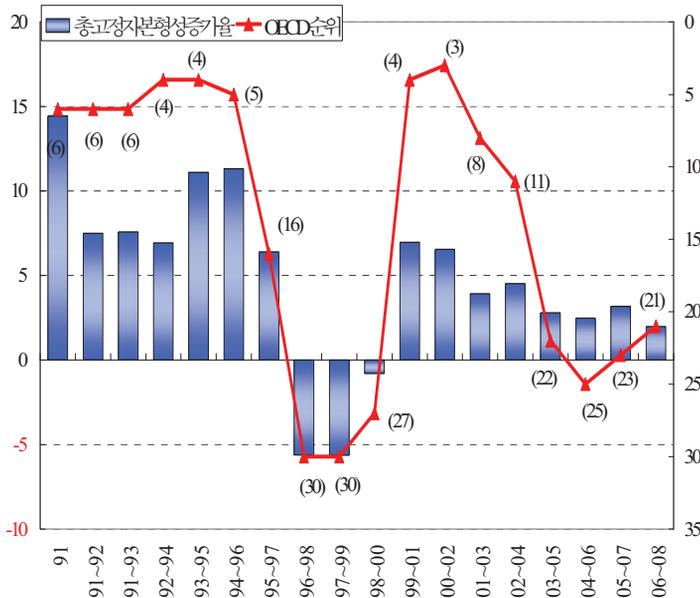
21위/OECD



자료 : OECD

-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 정부 등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입을 측정
- 우리나라의 2006~2008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2.0%로 OECD 중 21위
 ※ 2007~2009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0.3%임
- OECD 국가중에서 폴란드가 가장 높은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보였으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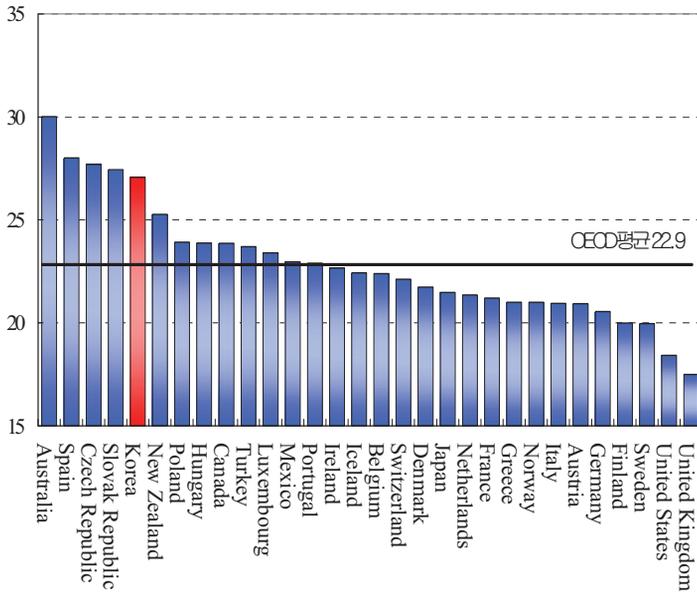
[그림 II-39]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3년평균, %]



자료 : OECD

- 우리나라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외환위기 전 후기간을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OECD 국가 중 순위를 보면, 외환위기 전후 기간을 제외할 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3~6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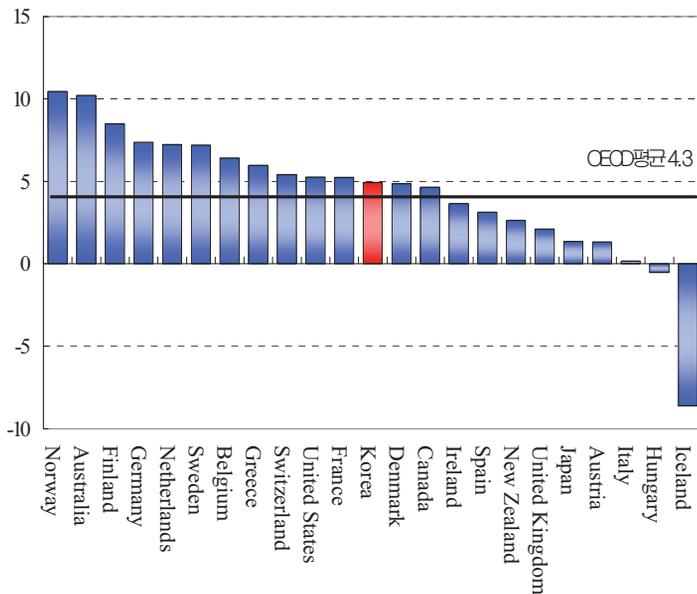
[그림 II-40]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2008년, GDP대비 %] 5위/OECD



- 우리나라의 2008년 실질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27.1%로 OECD 중 5위
- ※ 2009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6.6%임
-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높은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스페인, 체코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폴란드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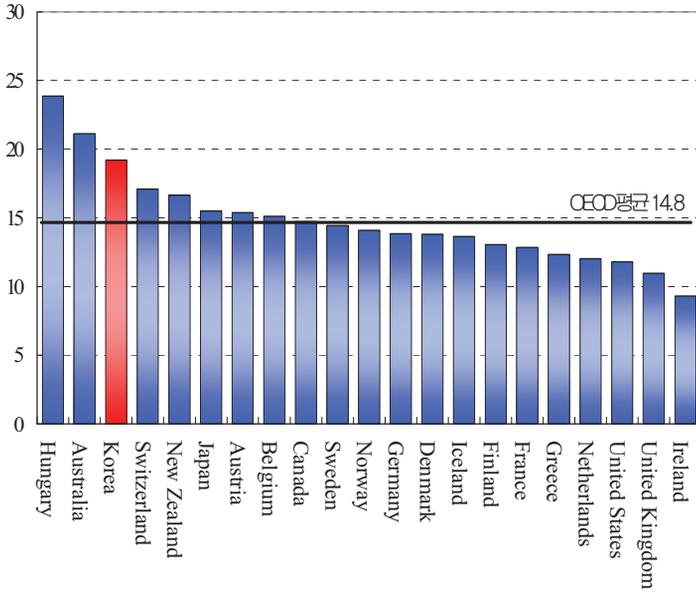
[그림 II-41]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06~08년 평균 %] 12위/OECD(23)



-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중 민간부문의 주택을 제외한 투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주로 기업의 설비 및 시설투자 등을 측정
- 우리나라의 2006~2008년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4.9%로 조사대상 23개국 중 12위
- ※ 2007~2009년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은 1.8%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호주,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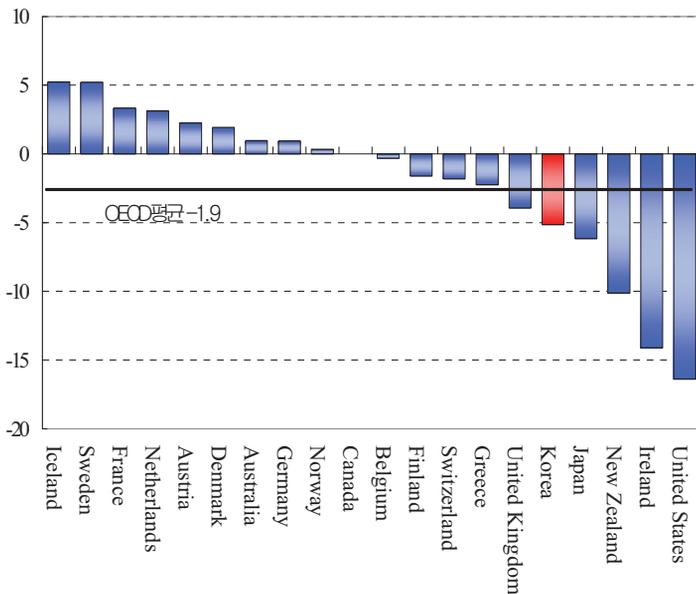
[그림 II-42]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2008년 GDP대비 %) 3위/OECD(21)



- 우리나라의 2008년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9.2%로 조사대상 21개국중 3위
- ※ 2009년 민간 비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8.8%임
- OECD 국가 중에서 헝가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호주, 우리나라,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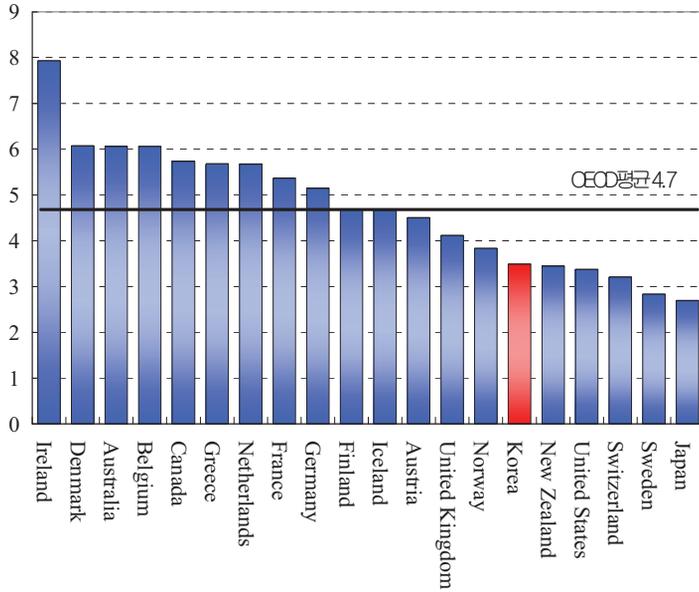
[그림 II-43]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06~08년 평균 %) 16위/OECD(20)



-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 중 민간의 주택건설 투자를 측정
- 우리나라의 2006~2008년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5.1%로 조사대상 20개국중 16위
- ※ 2007~2009년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은 7.0% 감소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스웨덴,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 영국, 일본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44]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 [2008년, GDP대비 %] 15위/OECD(20)



▪ 우리나라의 2008년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은 3.5%로 조사 대상 20개국 중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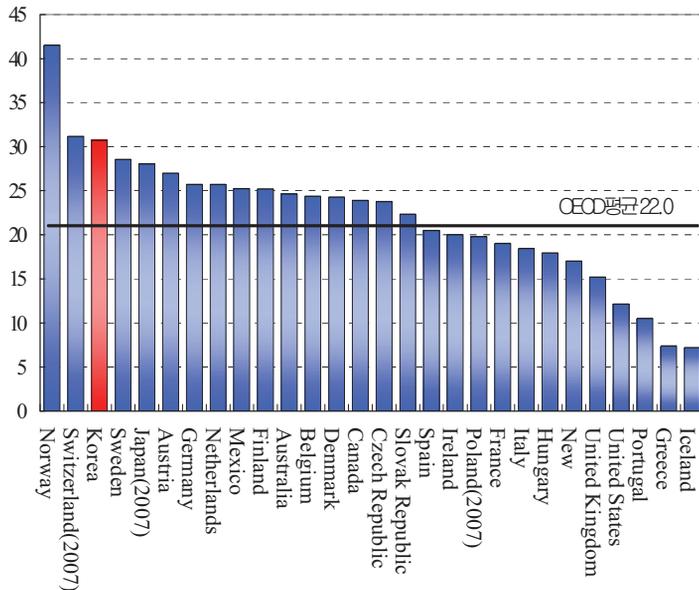
※ 2009년 민간 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은 3.2%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덴마크,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45] 총저축률 [2008년, %] 3위/OECD(28)



▪ 총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소비로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 비중을 나타내며, 총저축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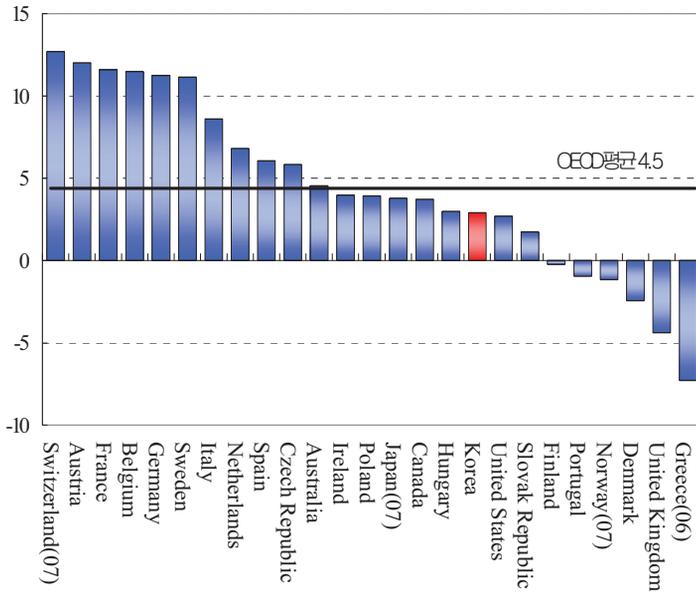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저축률은 30.7%로 조사대상 28개국중 3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총저축률을 나타내었으며 스위스, 우리나라,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그림 II-46] 가계순저축률 [2008년, %]

17위/OEC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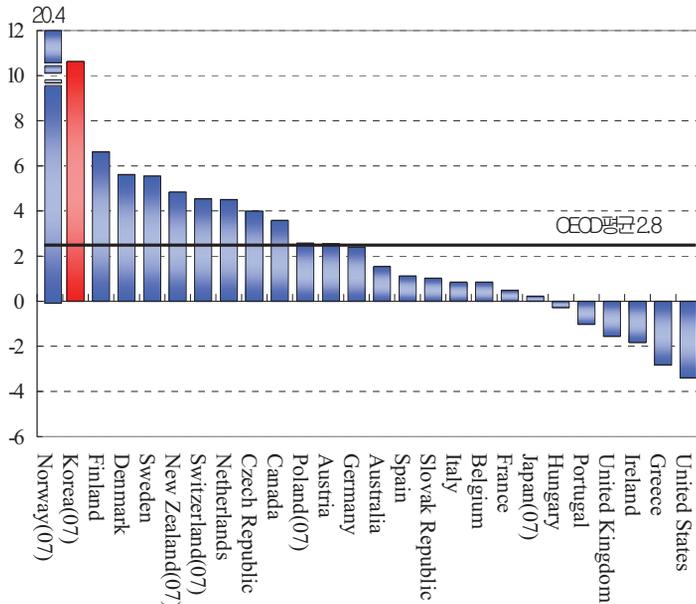


자료 : OECD

- 가계순저축률은 가계처분가능소득(연금지분 포함)에서 곧바로 지출되지 않고 저축한 비중을 나타내며, 가계순저축률이 낮을수록 가계가 소득에 비해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8년 가계순저축률은 2.9%로 조사대상 25개국중 17위
-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가 가장 높은 가계순저축률을 나타내었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계순저축률을 기록한 국가는 캐나다, 헝가리, 미국 등임

[그림 II-47] 정부저축률 [2008년, %]

2위/OECD(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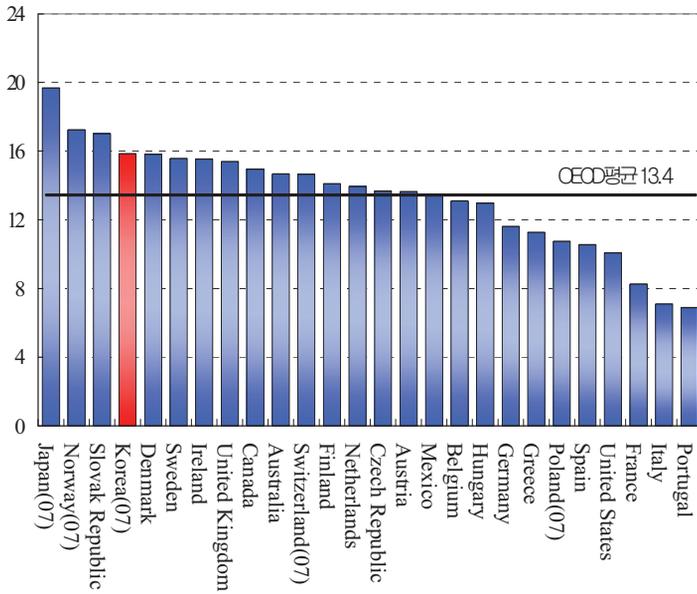


자료 : OECD

- 정부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대비 정부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우리나라의 정부저축률은 10.6%로 조사대상 26개국중 2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정부저축률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그림 Ⅱ-48] 기업총저축률 [2008년, %]

4위/OECD(26)



- 기업총저축률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서 기업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임
- 우리나라의 기업총저축률은 15.8%로 조사대상 26개국중 4위
- OECD 국가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기업저축률을 보였으며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우리나라,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1.3. 기술혁신

(지표개요)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로서 한 경제의 기술혁신 정도는 i) 기술혁신의 제반 인프라를 나타내는 정보화의 진전 정도, ii)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Input) 정도를 나타내는 R&D 수준, 그리고 iii) 기술혁신의 최종 결과(Output)로서 나타나는 논문 및 특허, 첨단산업의 수출 정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이 9위(81.4%),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6위(33.8%),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1위(83.6%)를 차지하여 정보화의 진전 정도가 높다.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이 2위(32.8%), 근로자 천 명당 연구인력 비율은 7위(10.0명), GDP대비 R&D지출도 4위(3.37%)를 기록하여 R&D에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고급인력인 이공계 박사학위 비율은 22위(/29개국, 37.6%)에 그쳤다.

한편, 기술혁신 성과의 경우 논문게재 건수는 9위(38,651건), 특허 출원 건수는 3위(/22개국, 114,195건)를 차지하고 있으나, 혁신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 1편당 피인용 건수는 28위(0.36회), 기술무역 수지 비율은 23위(/24개국, 0.43)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체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과 정보통신(ICT) 제품의 수출 비중은 각각 2위(33.4%)와 1위(26.2%)를 기록한 반면, 정보통신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7위(/28개국, 1.3%)를 기록하였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높은 정보화 수준과 활발한 인적·물적 기술혁신 투자로 높은 기술혁신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급 이공계 인력이 부족

하고 특히,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기술혁신 성과가 낮아 향후 기술혁신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II-7〉 주요 기술혁신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논문게재 건수	38,651건	9위	27,155건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0.36회	28위	0.60회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 ³⁾	32.8%	2위	22.6%
이공계 박사 학위 비율 ²⁾	37.6%	22위/29개국	42.2%
근로자 천명당 연구인력 비율 ³⁾	10.0명	7위	7.6명
GDP대비 R&D 지출 ³⁾	3.37%	4위	1.91%
- 기업부문 R&D 지출 ³⁾	2.54%	4위	1.24%
- 정부부문 R&D 지출 ³⁾	0.41%	2위	0.22%
특허 출원 건수 ²⁾	114,195건	3위/22개국	4,926건
-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 건수 ¹⁾	2,656건	1위	230.5건
- R&D 지출규모당 특허 출원 수 ¹⁾	3.7건	1위	0.57건
기술무역수지배율 ³⁾	0.43	23위/24개국	1.16
인터넷 이용자 비율	81.6%	10위	71.5%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³⁾	94.3%	1위	62.5%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	33.8%	6위	25.7%
월간 초고속 인터넷 요금 ³⁾ (낮은 순서)	18.1\$	2위	31.5\$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83.6%	1위	40.7%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	81.4%	9위	73.9%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 ³⁾	33.4%	2위	15.8%
정보통신(ICT) 산업 ³⁾			
- ICT 제품 수출 비중 ³⁾	26.2%	1위	8.8%
- ICT 서비스 수출 비중 ³⁾	1.3%	27위/28개국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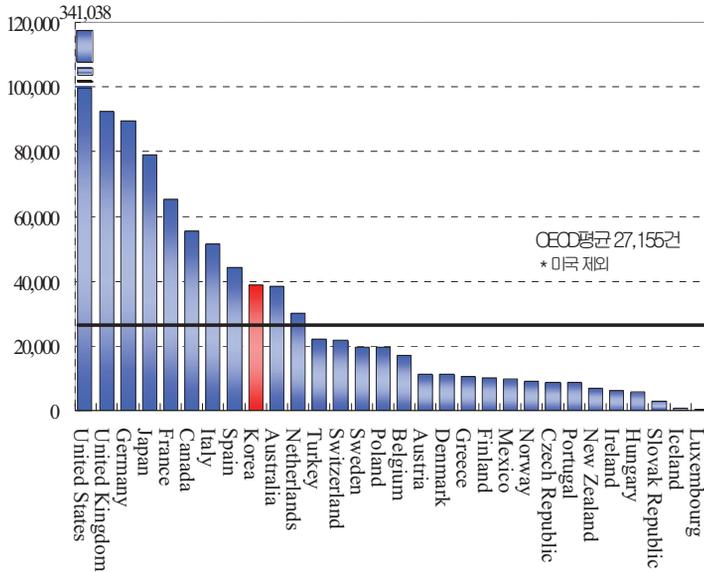
주 : 1) 2007년 기준

2) 2006년 기준

3) 2008년 기준

[그림 II-49] 논문게재 건수[2009년, 건]

9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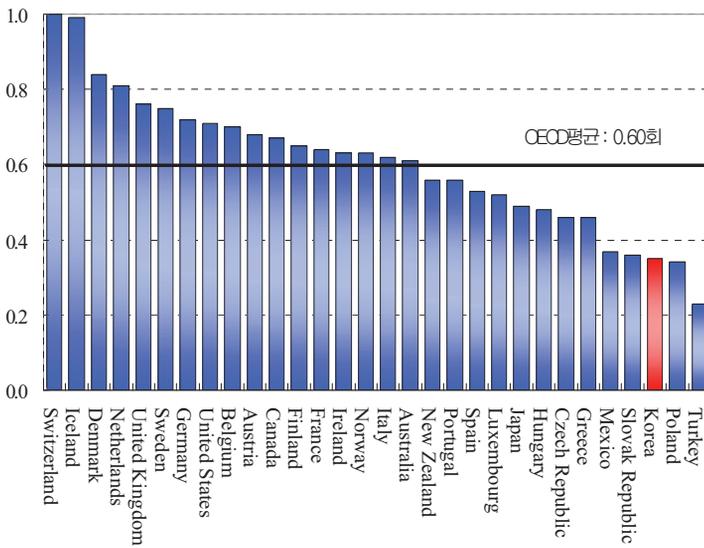


- 논문게재 건수는 각 국가의 기초과학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우리나라의 2009년 논문게재 건수는 38,651건으로 OECD 국가 중 9위
- OECD 국가 중 미국이 논문게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영국,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논문게재 건수가 비슷한 국가는 스페인, 호주 등임

자료 : Thomson Reuters, National Science Indicators DB

[그림 II-50]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2009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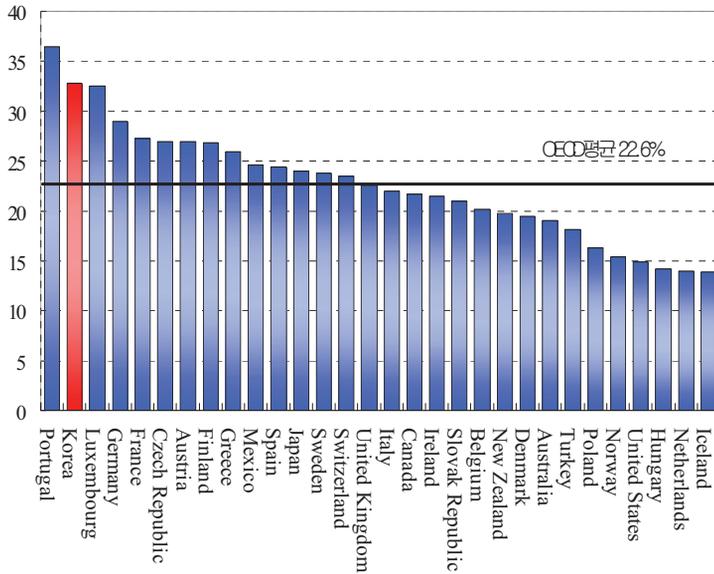
28위/OECD



-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임
- 우리나라의 2009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0.36으로 OECD 국가 중 28위
- OECD 국가 중 스위스가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가 비슷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임

자료 : Thomson Reuters, National Science Indicators DB

[그림 II-51]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2008년, %] 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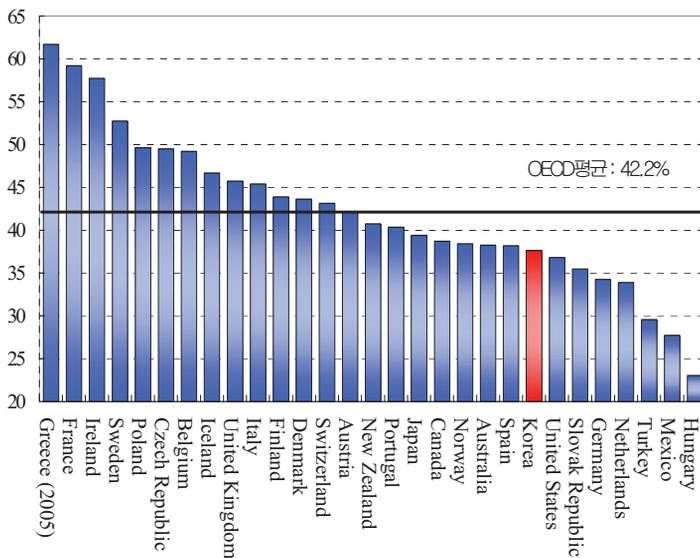


▪ 기초과학, 엔지니어링 등을 의미하는 이공계 분야는 산업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분야로서 이 분야의 대학 졸업자 비율은 기술 혁신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우리나라의 2008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은 32.8%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루셈부르크,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Graduates by field of education

[그림 II-52] 이공계 박사 학위 비율[2006년, %] 22위/OECD(29)



▪ 신규 박사학위자 중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 수여자 비율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공급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우리나라의 2006년 이공계 박사 학위 비율은 37.6%로 조사대상 OECD 29개국 중 2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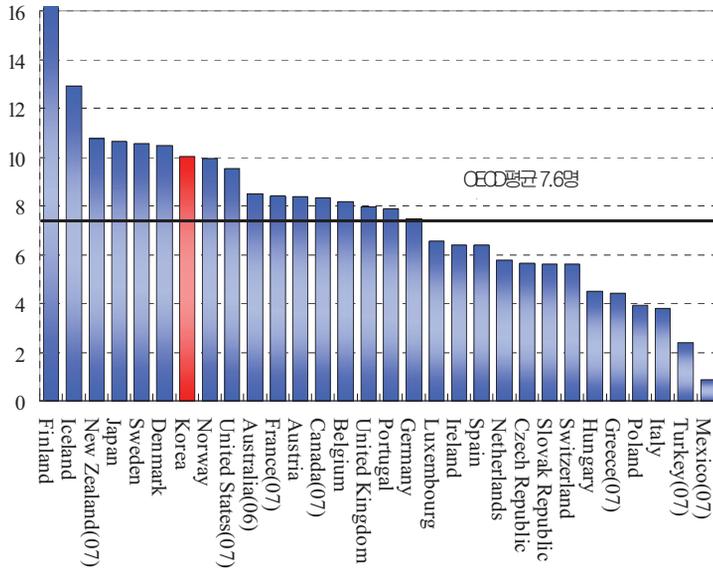
▪ OECD 국가 중 그리스(2005)가 이공계 박사 학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이공계 박사 학위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스페인, 미국 등임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9

[그림 II-53] 근로자 천명당 연구인력 비율[2008년, 명]

7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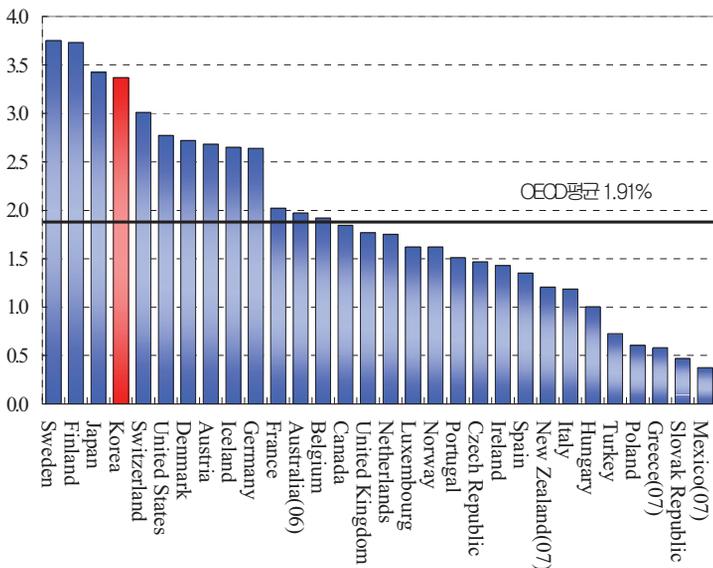


- 연구인력(researcher)은 기술개발(R&D)의 핵심 요소로서 연구인력의 많고 적음은 국민경제의 기술혁신 가능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우리나라의 2008년 근로자 천명당 연구인력 비율이 10.0명으로 OECD 중 7위
- OECD 국가 중 핀란드가 연구인력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연구인력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임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그림 II-54] GDP 대비 R&D 지출 비율[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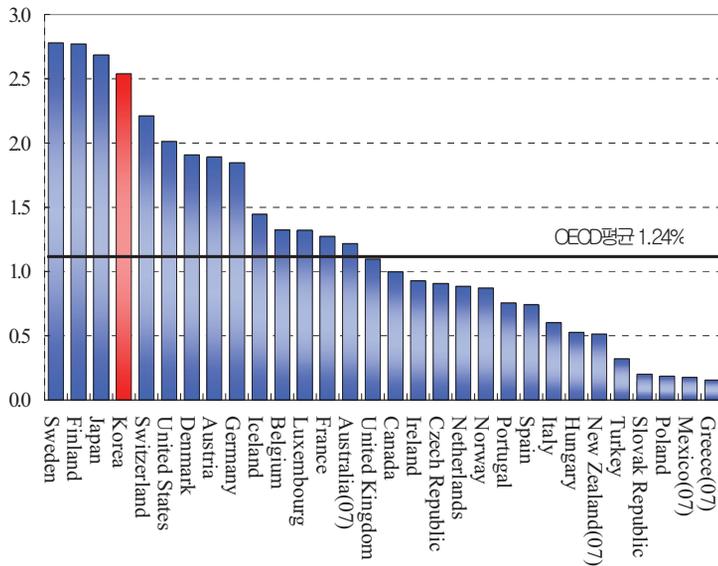
4위/OECD



-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
- 우리나라의 2008년 GDP대비 R&D 지출 규모는 3.37%로 OECD 국가 중 4위
- OECD 국가 중 스웨덴이 GDP대비 R&D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 일본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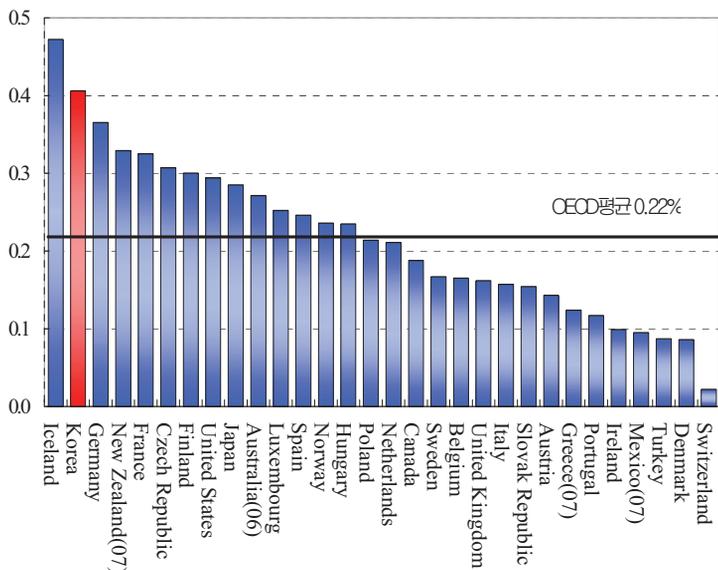
[그림 II-55] 기업부문 R&D 지출 비율[2008년, %] 4위/OECD



- 기업부문의 R&D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민간 주도의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2008년 GDP대비 기업부문의 R&D 지출 비율은 2.54%로 OECD국가 중 4위
- OECD 국가 중 스웨덴이 GDP대비 기업부문의 R&D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그림 II-56] 정부부문 R&D 지출 비율[2008년, %] 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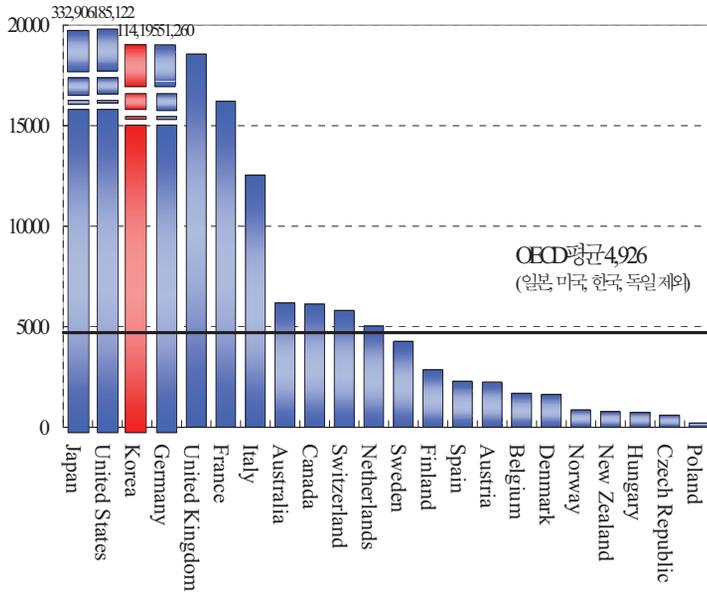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GDP대비 정부부문의 R&D지출 지출 비율은 0.41%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그림 II-57] 특허 출원 수[2006년, 건]

3위/OECD(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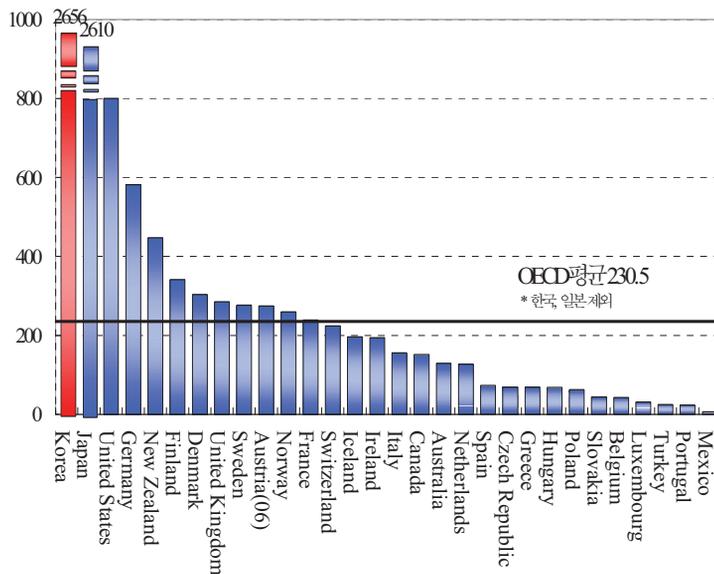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6년 총특허 출원 건수는 114,195건으로 조사 대상 OECD 22개국 중 3위
- OECD 국가 중 일본이 총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 우리나라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09

[그림 II-58]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 건수[2007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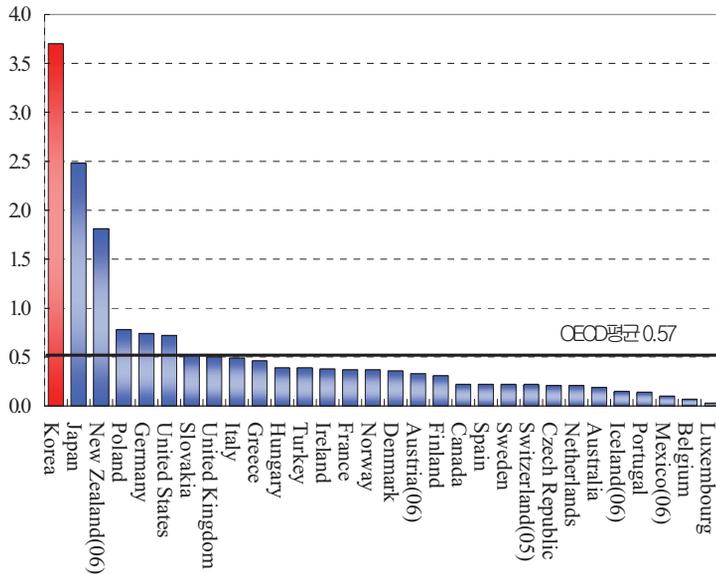
1위/OECD



- 특허 출원이 많다는 것은 혁신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7년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2,656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일본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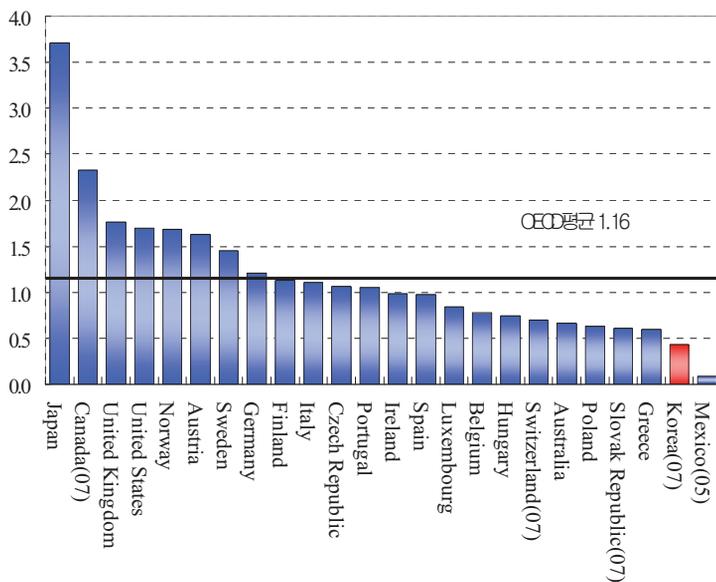
[그림 II-59] R&D 지출규모당 특허 출원 수[2007년, 건] 1위/OECD



- R&D 지출 규모당(백만\$) 특허 출원 수는 R&D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우리나라의 2007년 R&D 지출 규모 백만\$ 당 특허 출원 수는 3.7건으로 OECD국가 중 1위였으며,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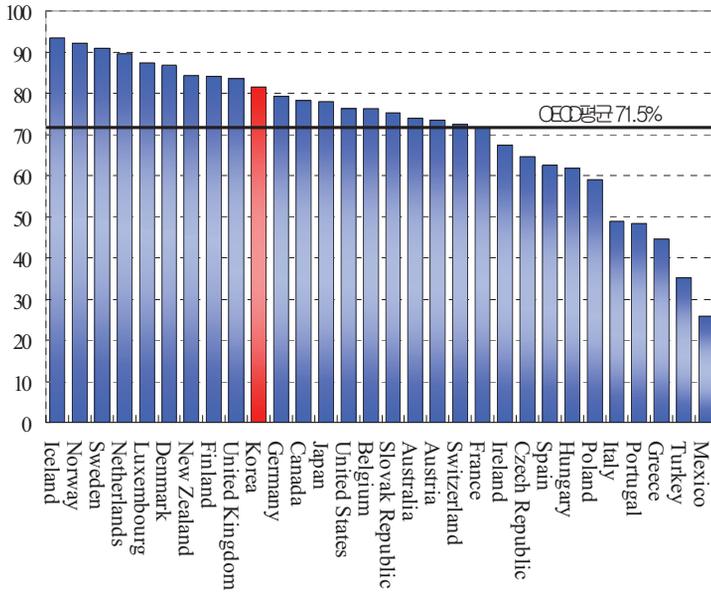
[그림 II-60] 기술무역수지 비율[2008년] 23위/OECD(24)



-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특허 등 기술 수출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이 비율이 1 이하라는 것은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2008년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으로 조사대상 OECD 24개국 중 23위
- * 우리나라는 2007년 자료
- OECD 국가 중 일본이 기술무역수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캐나다,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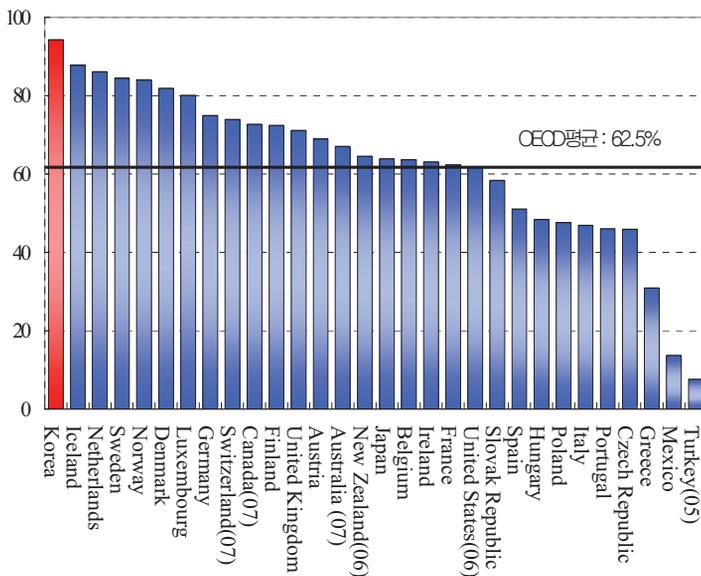
[그림 II-61] 전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2009년, %] 10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전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81.6%로 OECD 국가 중 10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영국, 독일 등임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Database

[그림 II-62]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2008년, %] 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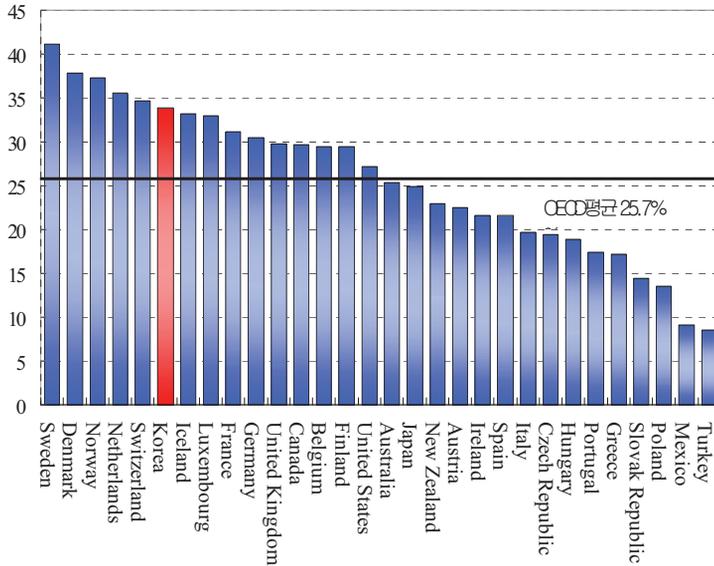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은 94.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OECD Factbook 2010

[그림 II-63]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2009년, %]

6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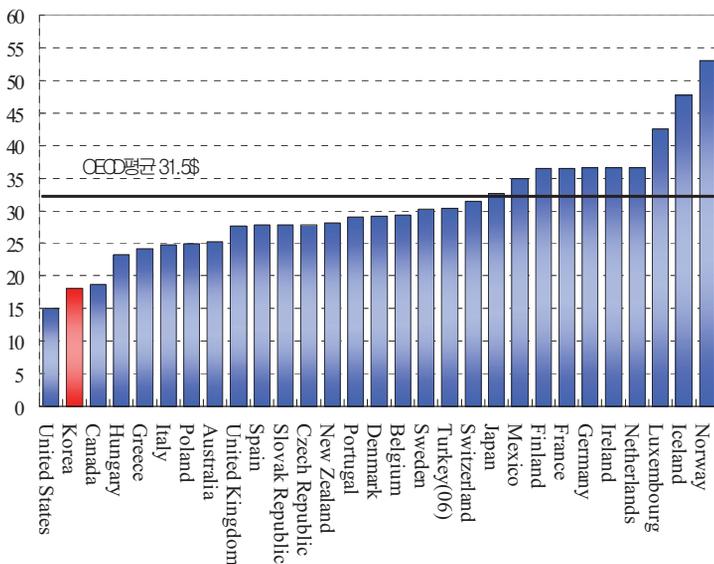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은 33.8%로 OECD 국가 중 6위
- OECD 국가 중 스웨덴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임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Database

[그림 II-64] 월간 초고속 인터넷 요금[2008년, \$]

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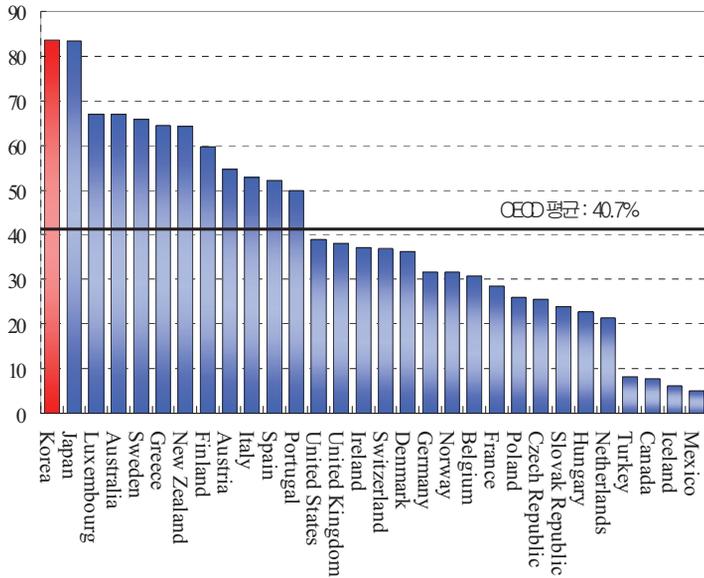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월간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18.1\$로 OECD 국가 중 2위
- OECD 국가 중 미국의 월간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가장 낮았으며, 우리나라, 캐나다,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Database

[그림 II-65]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2009년, %)

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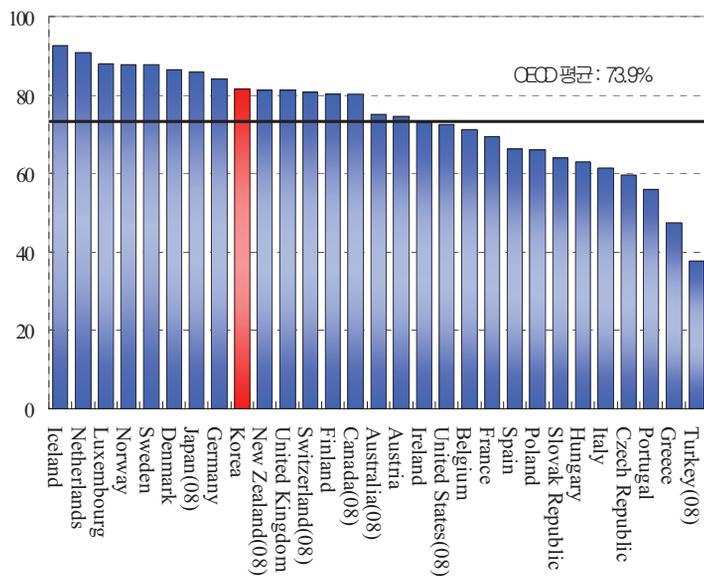


- 스마트 폰의 보급 등으로 최근 무선 초고속 인터넷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여 무선 인터넷 가입률은 유선 인터넷 가입률과 함께 정보화 진척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
- 우리나라의 2009년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율은 83.6%로 OECD 국가 중 1위
- 일본, 룩셈부르크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이음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Database

[그림 II-66]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20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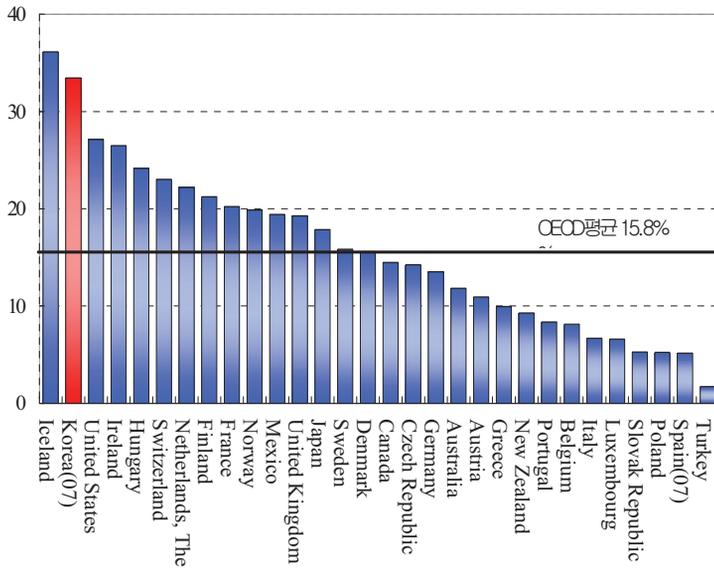
9위/OECD



- 우리나라의 2009년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은 81.4%로 OECD 국가 중 9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이 비슷한 국가는 독일, 뉴질랜드 등임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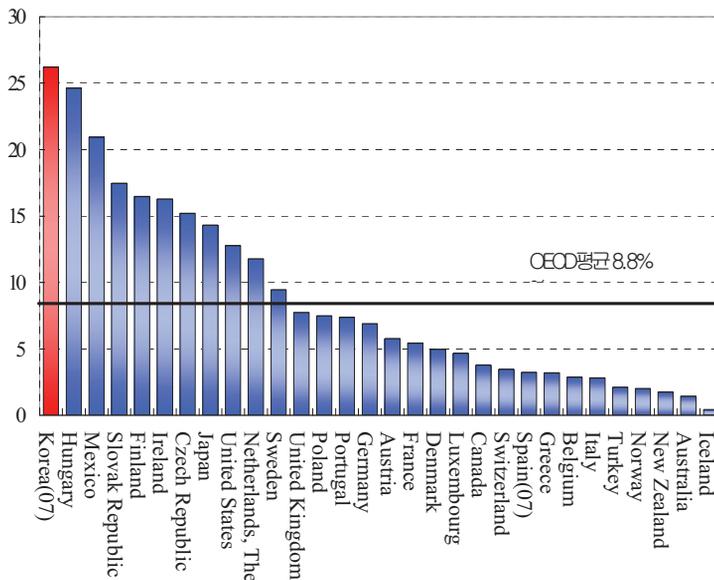
[그림 II-67]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2008년, %] 2위/OECD



- 전체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 제품(예 : 컴퓨터, 정밀기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식·기술집약도가 높은 경제를 의미
- 우리나라의 전체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은 33.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pe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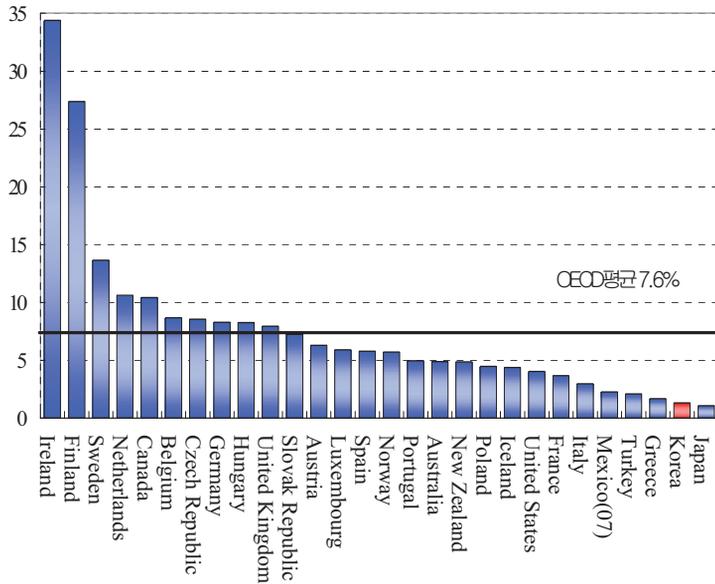
[그림 II-68] 정보통신(ICT) 제품 수출 비중[2008년, %] 1위/OECD



-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 수출 중 정보통신 제품 수출 비중은 26.2%로 OECD 국가 중 1위
- 헝가리, 멕시코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이음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pe Indicators

[그림 Ⅱ-69]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 비중[2008년, %] 27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전체 서비스 수출 중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 비중은 1.3%로 조사 대상 OECD 28개국 중 27위
- OECD국가 중 아일랜드의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 비중이 비슷한 국가는 그리스, 일본 등임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pe Indicators

1.4. 기업 환경

(4-1) 노동 생산성 및 비용

(지표개요)

한 경제의 노동에 대한 경쟁력 정도는 i) 노동 생산성, ii) 노동 비용, 그리고 iii) 시간당 노동비용과 노동 생산성 간의 비율인 단위당 노동 비용²⁶⁾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노동 시간당 산출량, 25.1\$, 28위)은 미국(57.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나, 노동 생산성 증가율(3.63%)은 2위(/29개국)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보수(15.0\$, 5위/20개국)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노동 생산성 부문의 낮은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시간당 노동보수의 증가율(5.93%, 19위/20개국)은 높은 생산성 증가를 반영하여 OECD 평균(4.51%)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강점 및 약점)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빠르지만 여타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지 않아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4위, 임금상승률 -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낮으며, 이는 여타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노동부문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6) 단위당 노동비용 = 총 노동비용/총 산출량 = (총 노동비용/총 노동시간) ÷ (총 산출량/총 노동시간) = 시간당 노동비용/노동 생산성

∴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 = 시간당 노동비용 증가율 - 노동 생산성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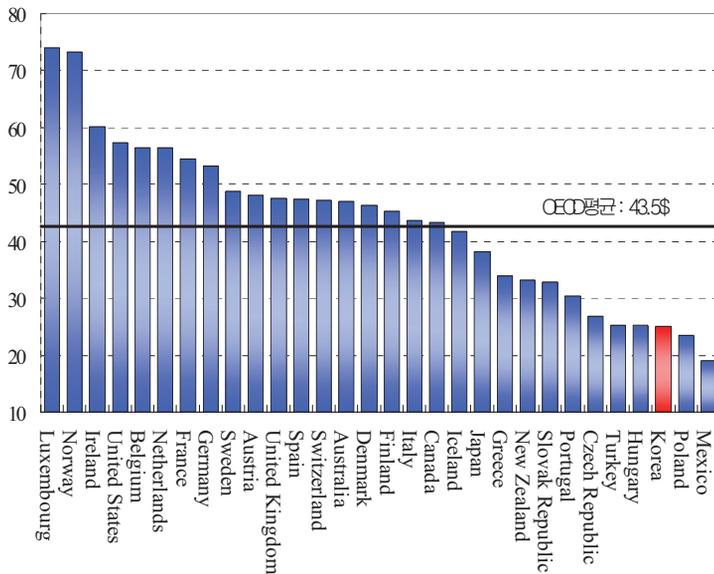
〈표 II-8〉 주요 노동 생산성 및 비용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노동생산성	25.1\$	28위	43.5\$
노동생산성 증가율 ¹⁾	3.63%	2위/29개국	0.48%
시간당 노동보수(낮은 순서)	15.0\$	5위/20개국	23.6\$
시간당 노동보수 증가율 ¹⁾ (낮은 순서)	5.93%	19위/20개국	4.51%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 ¹⁾ (낮은 순서)	1.02%	4위	3.13%

주 : 1) 2007~2009년 평균

[그림 II-70] 노동 생산성(2009년, \$)

2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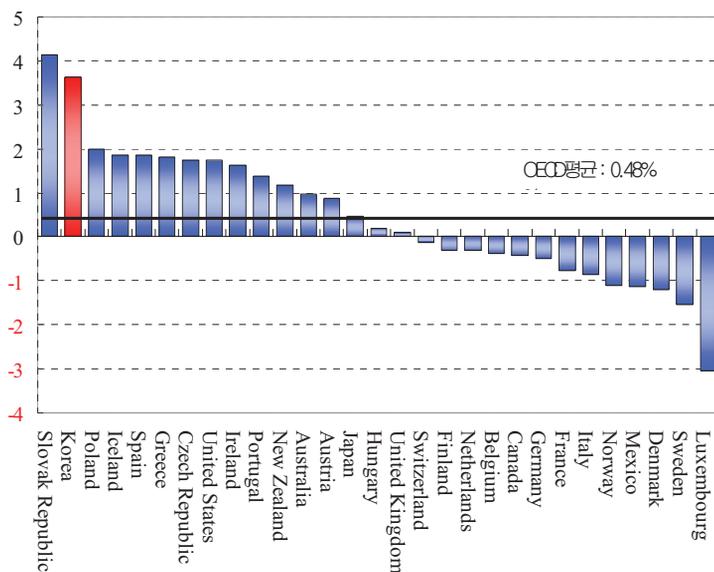


- 노동생산성은 국내총 생산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산출량'으로 측정
- 2009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5.1\$로 OECD 국가 중 28위
-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았으며,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노동생산성이 비슷한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등임

자료 : OECD Stat. Productivity levels and GDP per capita

[그림 II-71] 노동생산성 증가율(07~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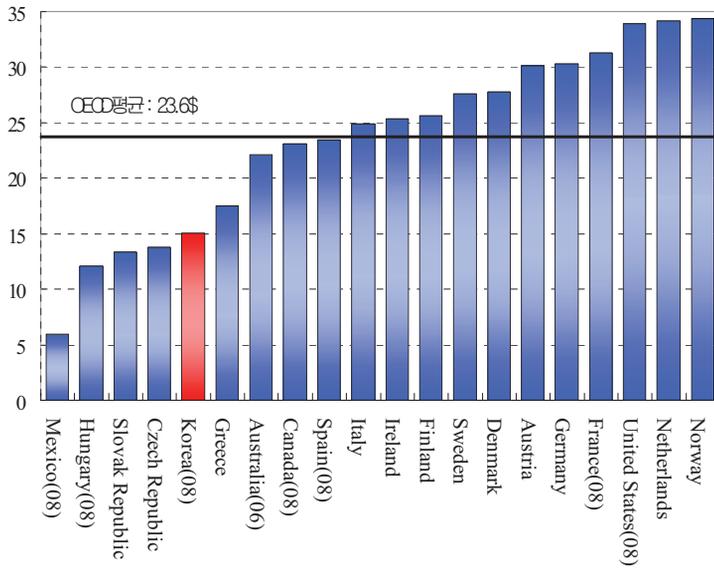
2위/OECD(29)



- 우리나라의 07~09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63%로 조사대상 OECD 29개국 중 슬로바키아에 이어 2위
-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OECD 13개국의 노동생산성은 감소

자료 : OECD Stat. Labor productivity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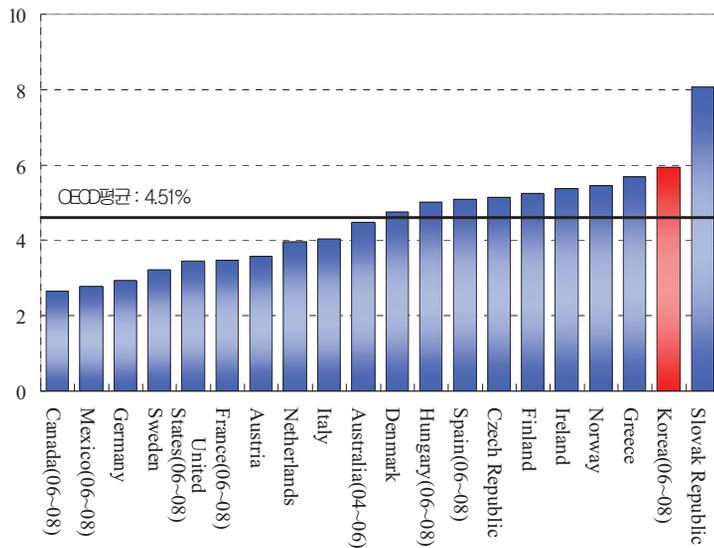
[그림 II-72] 시간당 노동보수[2009년, PPP 기준, \$] 5위/OECD(20)



- 시간당 노동보수는 노동비용을 측정하는 지표
- 2009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보수는 15.0\$로 조사대상 OECD 20개국 중 5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 멕시코가 시간당 노동보수가 가장 낮았으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시간당 노동보수가 비슷한 국가는 체코, 그리스 등임

자료 : OECD Stat. Labor compensation per hour

[그림 II-73] 시간당 노동보수 증가율[07~09년, %] 19위/OECD(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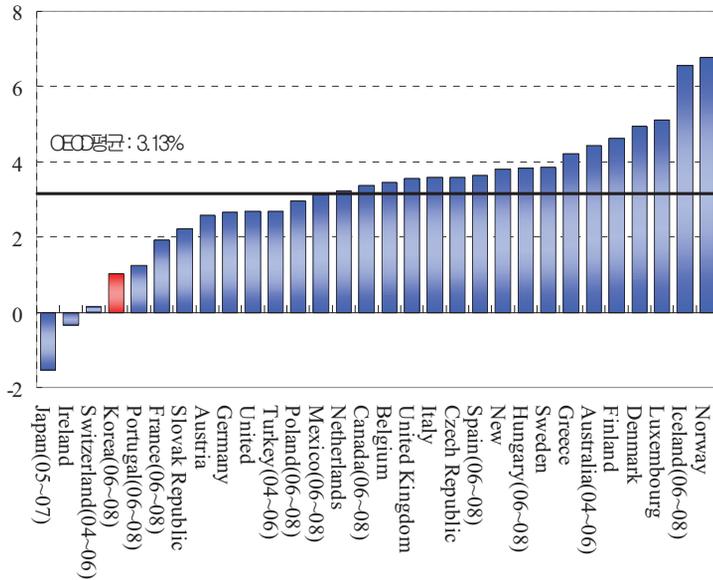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시간당 노동보수 증가율은 5.93%로 조사대상 OECD 20개국 중 2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캐나다가 시간당 노동보수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멕시코,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시간당 노동보수 증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노르웨이, 그리스 등임

자료 : OECD Stat. Labor compensation per hour

[그림 Ⅱ-74]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07~09년, %]

4위/OECD



- 단위당 노동비용은 산출물 한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비용임
-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과 같다면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0을 보임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1.02%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음
- 일본과 아일랜드는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임

자료 : OECD Stat. Unit labor cost

(4-2) 자본 생산성 및 비용

(지표개요)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 조달 비용은 장·단기 이자율로 측정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장기 이자율은 통상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장기이자율(5.36%, 22위/28개국)은 OECD 평균(4.7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통상 3개월 만기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로 측정하는 단기 이자율(4.43%, 20위/26개국)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강점 및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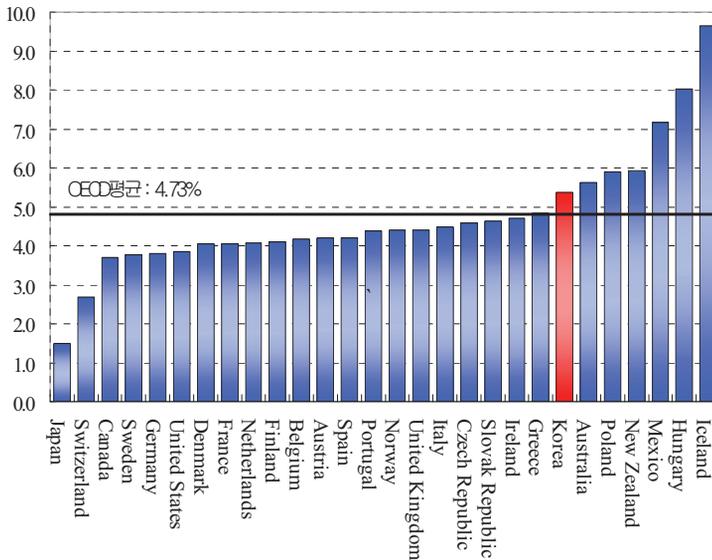
빠른 경제성장 등을 반영하여 장·단기 이자율이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자본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9〉 주요 자본 생산성 및 비용 지표 OECD 순위(07~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장기 이자율(낮은 순서)	5.36%	22위/28개국	4.73%
단기 이자율(낮은 순서)	4.43%	20위/26개국	4.09%

[그림 Ⅱ-75] 장기 이자율[07~09년, %]

22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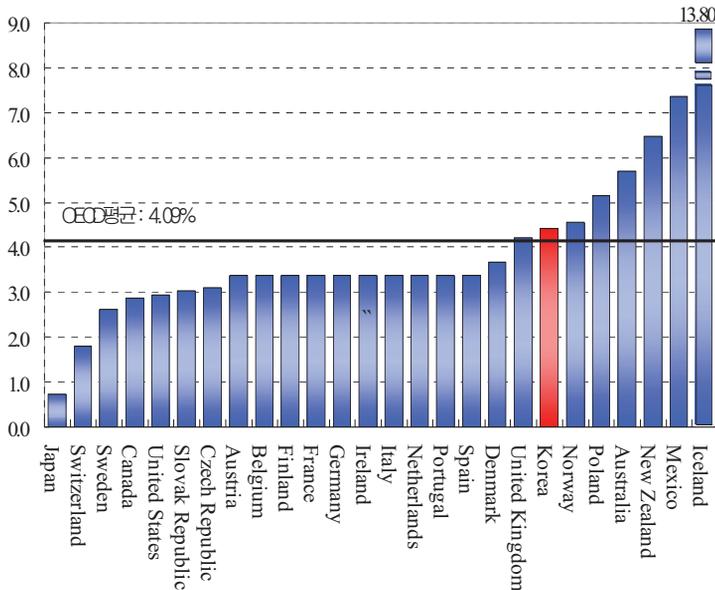


- 이자율은 자본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통상 장기이자율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측정
- 07~09년간 우리나라의 장기이자율은 5.36%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22위
- OECD 국가 중 일본의 장기이자율이 가장 낮았으며, 스위스,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Financial indicators

[그림 Ⅱ-76] 단기 이자율[07~09년, %]

20위/OECD(26)



- 통상 단기이자율은 3개월 만기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등으로 측정
- 07~09년 우리나라의 단기이자율은 4.43%로 조사대상 OECD 26개국 중 20위
- OECD 국가 중 일본이 단기이자율이 가장 낮았으며, 스위스,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Financial indicators

(4-3) 규제

(지표개요)

기업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은 i) 정부 지출 및 기능의 효율성, ii)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 iii)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등의 효율성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규제도 적고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 등이 잘 갖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순위)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30%)이 가장 낮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중(5.5%)은 조사대상 26개국 중 2번째로 낮은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행정/국방/치안 분야(27.6%, 2위/27개국), 경제분야(22.1%, 1위/27개국), 교육분야(15.9%, 6위/27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사회/문화 분야(27.7%, 27위/27개국)의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대한 개입 등 규제 정도(23위), 창업시 소요되는 절차(8단계, 24위) 및 비용(1인당 GNI 대비 14.7%, 25위) 등이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해고 시에도 많은 비용(91주 임금 지불, 28위)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폐업비용(2위)은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점 및 약점)

전반적으로 우리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가 강하고, 창업, 구조조정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기업환경의 개선 여지가 크다.

〈표 II-10〉 주요 규제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정부의 시장규제 지수 ¹⁾	1.50	23위	1.4
정부지출 비중 ¹⁾	30.0%	29위/29개국	43.6%
- 행정/국방/치안 분야 ¹⁾	27.6%	2위/27개국	20.6%
- 경제 분야 ¹⁾	22.1%	1위/27개국	11.1%
- 보건/사회/문화 분야 ¹⁾	27.7%	27위/27개국	51.9%
- 교육 분야 ¹⁾	15.9%	6위/27개국	12.8%
공무원 수 비중 ²⁾	5.5%	25위/26개국	14.3%
전자정부 발전지수 ³⁾	0.88	1위	0.70
창업 일수 ³⁾ (낮은 순서)	14일	18위	13.0일
창업 절차 ³⁾ (낮은 순서)	8단계	24위	5.8단계
창업 비용 ³⁾ (낮은 순서)	14.7%	25위	6.2%
폐업 비용 ³⁾ (낮은 순서)	4%	2위	9.5%
해고 비용(낮은 순서)	91주	28위	29.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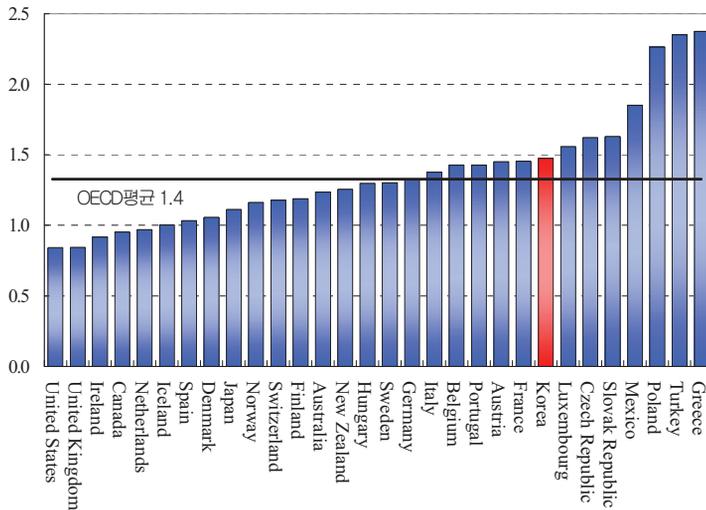
주 : 1) 2008년 기준

2) 2005년 기준

3) 2010년 기준

[그림 II-77] 정부의 시장 규제지수^{주)} [2008년]

2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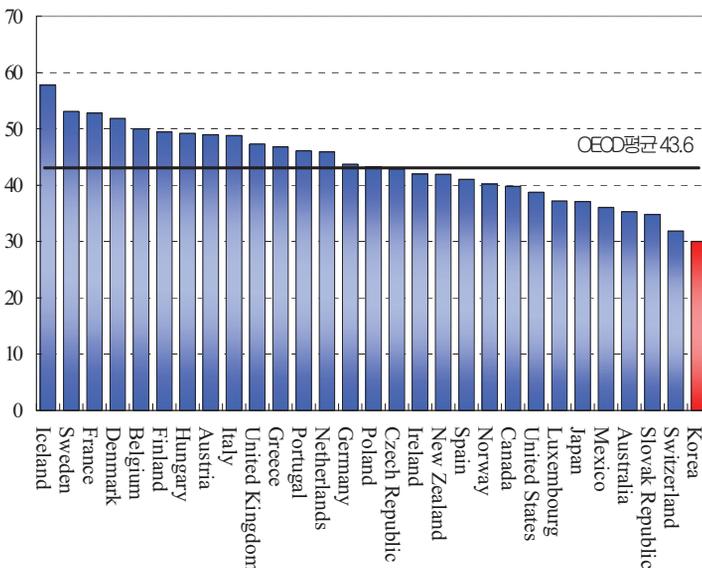
- 정부의 시장 규제지수가 높을수록 정부가 직접·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8년 시장 규제지수는 1.50으로 OECD중 23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시장 규제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영국,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시장 규제지수가 비슷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임

주 : i) 직접규제(공기업 운영 등) ii) 기업활동규제(허가/면허, 창업, 독과점 제재 등) iii) 무역/투자 관련 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규제정도를 측정, 0~6까지의 값을 가짐

자료 : OECD

[그림 II-78] 정부지출 비중 [2008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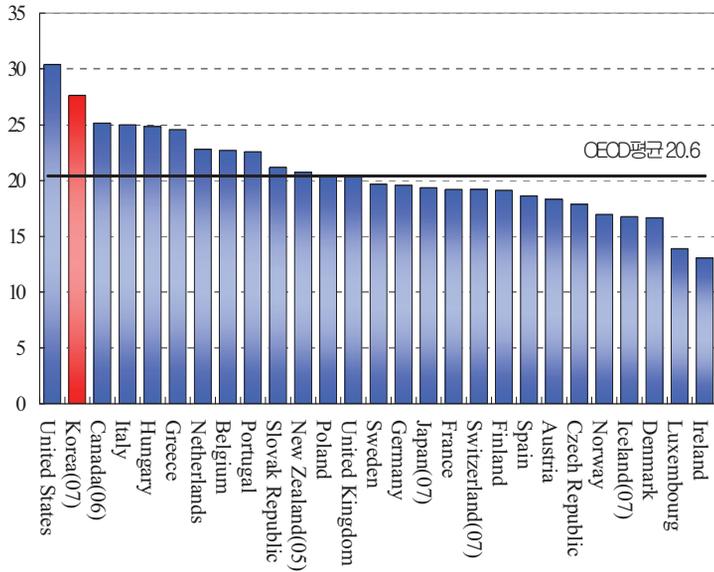
29위/OECD(29)



- 우리나라의 2008년 정부지출 비중(GDP 대비)은 30.0%로 조사 대상 29개국 중 29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정부지출비중을 보였으며 스웨덴,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호주,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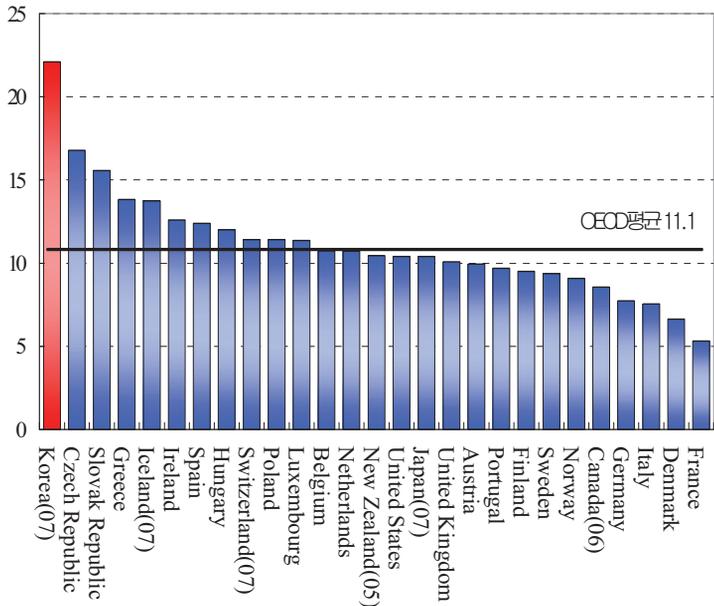
[그림 II-79] 행정/국방/치안 분야 비중 [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2위/OECD(27)



- 우리나라의 2008년 공공행정/국방/치안 분야 정부지출 비중 (전체정부지출대비)은 27.6%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2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공공행정/국방/치안 분야 비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캐나다,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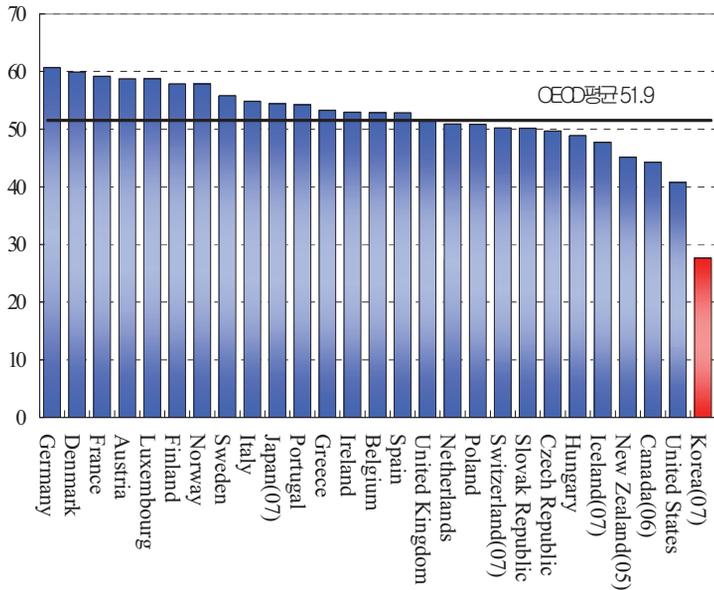
[그림 II-80] 경제 분야 비중 [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1위/OECD(27)



- 우리나라의 2008년 경제분야 정부지출 비중(전체정부지출대비)은 22.1%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1위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어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이 높은 경제분야 지출 비중을 나타내었음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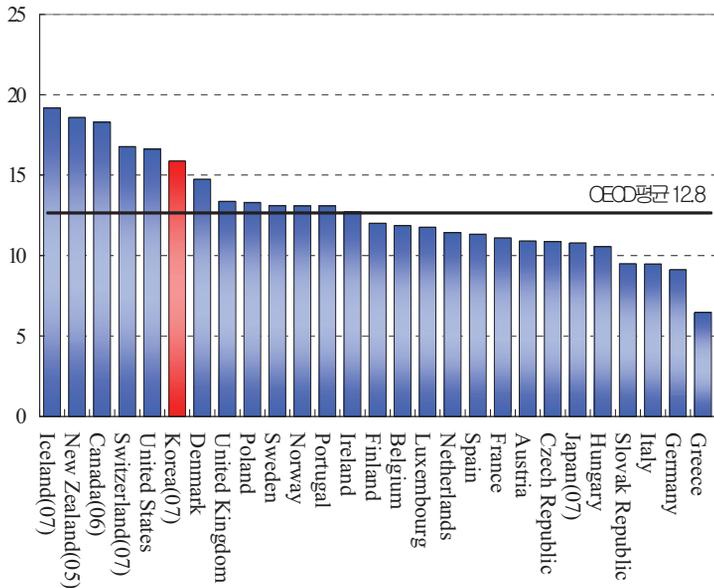
[그림 II-81] 보건/사회/문화 비중 [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27위/OECD(27)



- 우리나라의 2008년 보건/사회/문화 분야 정부지출 비중(전체정부지출대비)은 27.7%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27위
- OECD 국가 중에서 독일이 가장 높은 보건/사회/문화 분야 지출비중을 보였으며 덴마크,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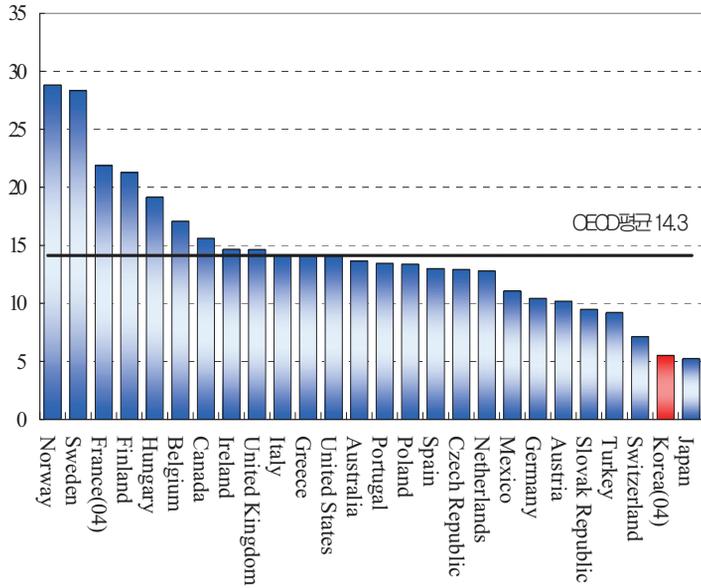
[그림 II-82] 교육 비중 [2008년, 전체정부지출대비 %] 6위/OECD(27)



- 우리나라의 2008년 교육 분야 정부지출 비중(전체정부지출대비)은 15.9%로 조사 대상 27개국 중 6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보였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육분야 지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스위스, 미국, 덴마크, 영국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83] 공무원수^주 비중 [2005년, 경제활동인구대비 %] 25위/OECD(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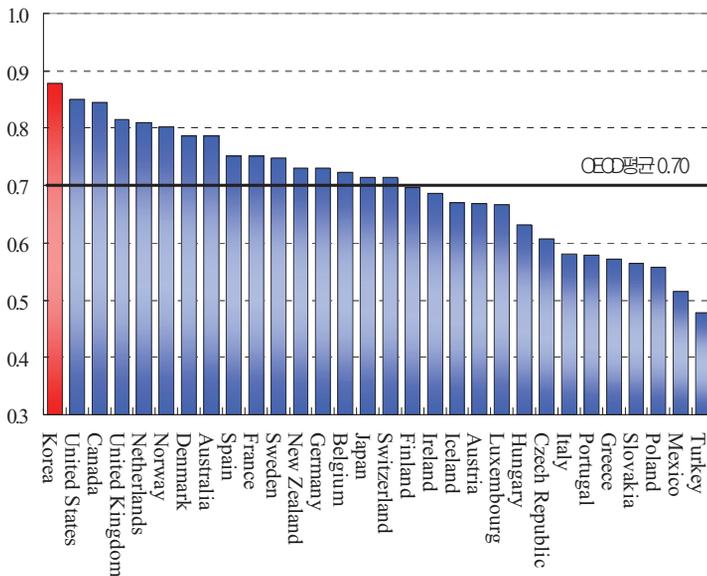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5년 공무원수 비중(경제활동인구 대비)은 5.5%로 조사대상 26개국 중 25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공무원수 비중을 보였으며 스웨덴,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터키, 스위스, 일본 등임

주 : 공기업 포함

자료 : OECD

[그림 II-84] 전자정부 발전지수 [2010년] 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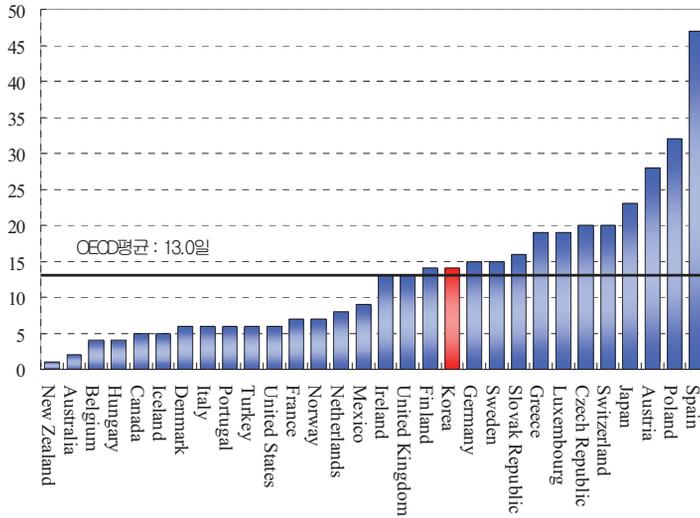


-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각국 정부의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정도를 측정
- 우리나라의 2010년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0.88로 OECD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이음

자료 : U

[그림 II-85] 창업 일수[2010년, 일]

1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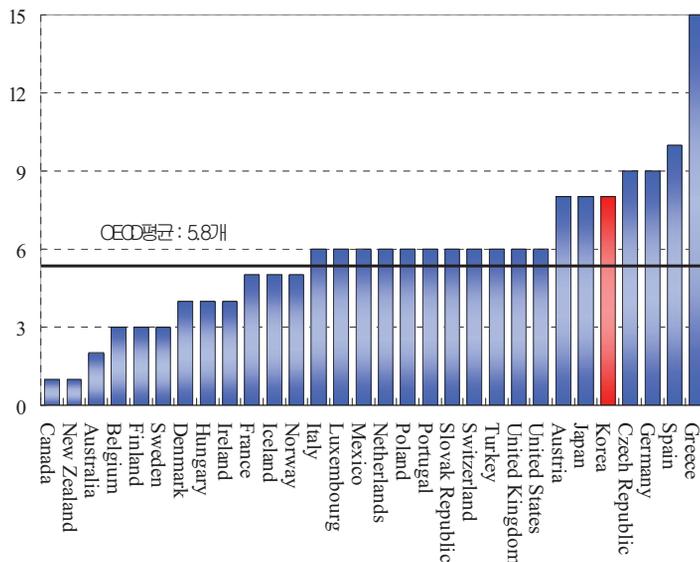


-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야 경쟁이 활성화
- 2010년 우리나라의 창업 일수는 14일로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함께 공동 18위
- OECD 국가 중 뉴질랜드가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호주, 벨기에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창업일수가 비슷한 국가는 핀란드, 독일 등임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그림 II-86] 창업 절차[2010년, 일]

24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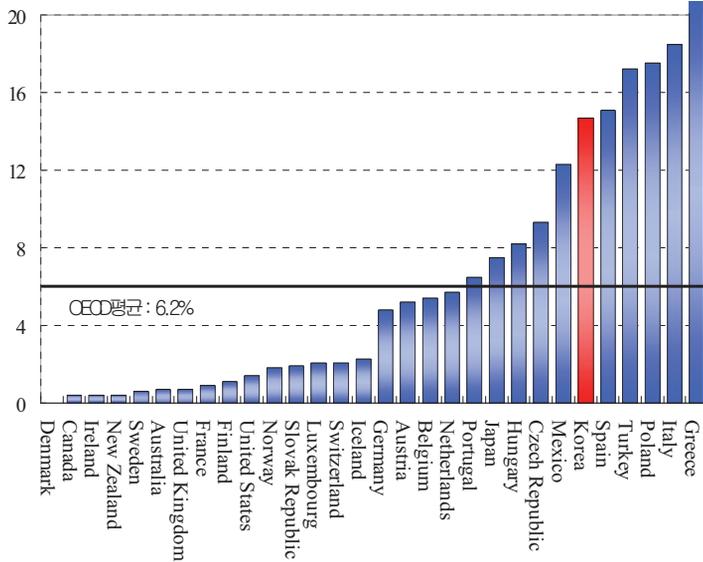


- 2010년 우리나라의 창업절차는 8단계로 조사되어 OECD국가 중 오스트리아, 일본과 함께 공동 24위
- OECD국가 중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창업시 필요한 절차가 가장 적었으며,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음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그림 II-87] 창업 비용[2010년, %]

25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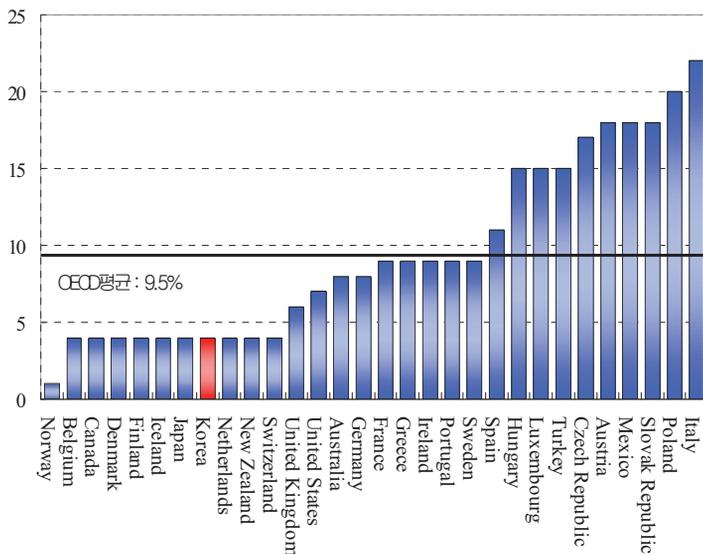


- 2010년 우리나라는 창업시 필요한 비용이 1인당 국민소득(GNI)의 14.7%로 OECD국가 중 25위
- OECD 국가 중 덴마크가 창업시 필요한 비용이 가장 적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창업비용이 비슷한 국가는 멕시코, 스페인 등임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그림 II-88] 폐업 비용[2010년, 기업 총자산 대비 %]

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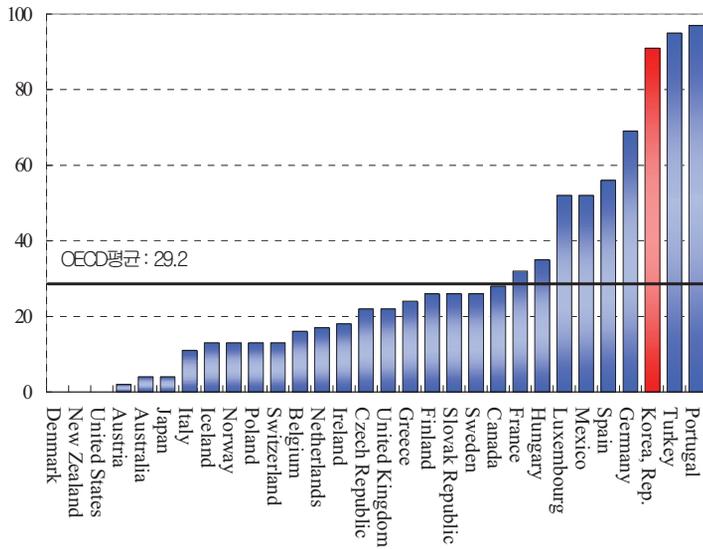


- 폐업비용은 폐업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 2010년 우리나라는 기업 총 자산대비 폐업비용이 4%로 벨기에, 캐나다 등 여타 9개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공동 2위
- OECD국가 중 노르웨이가 폐업비용이 가장 낮았음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그림 Ⅱ-89] 해고 비용[2009년, 주]

28위/OECD



- 2009년 우리나라는 해고시 91주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 OECD 국가 중 28위
- OECD 국가 중 덴마크, 뉴질랜드, 미국은 해고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와 해고비용이 비슷한 국가는 터키, 포르투갈 등임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0

(4-4) 조세

(지표개요)

높은 세금은 기업에 비용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의 정도는 i)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 ii) 기업입장에서 본 노동관련 조세부담인 조세격차(Tax wedge)²⁷⁾, iii)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2%)은 12위, 조세격차(20.3%)는 2위,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2.56%)은 2위(/26개국)를 기록하여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을 포함한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국민부담률(26.6%) 역시 3위로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낮은 조세부담률(20.8%, 8위/28개국) 및 사회보장 부담률(5.8%, 7위/28개국)에 기인한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금 등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12위이나, 대만(22.0%), 홍콩(16.5%), 싱가포르(17.0%) 등 아시아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27)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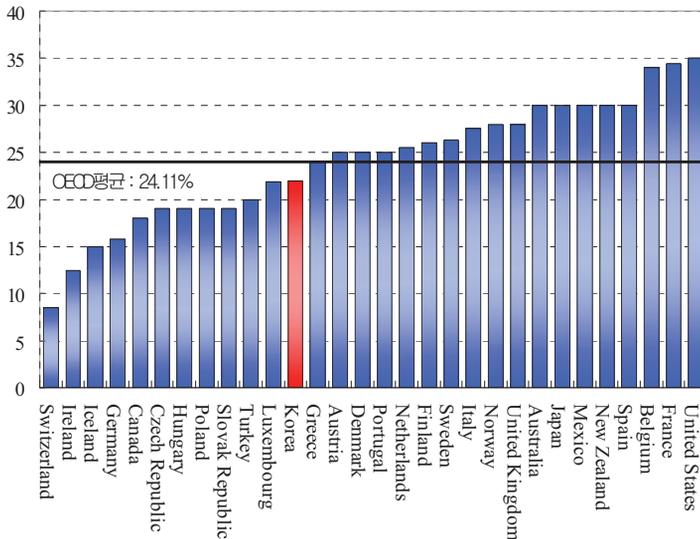
〈표 II-11〉 주요 조세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법인세율 ¹⁾ (낮은 순서)	22%	12위	24.11%
조세격차(낮은 순서)	20.3%	2위	37.4%
국민부담률(낮은 순서)	26.6%	3위	35.3%
- 조세부담률	20.8%	8위/28개국	25.7%
- 사회보장 부담률	5.8%	7위/28개국	9.8%
·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률	3.3%	14위/26개국	3.4%
·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	2.56%	2위/26개국	5.9%

주 : 1) 2010년 기준

[그림 Ⅱ-90] 법인세율^{주)}[2010년, %]

1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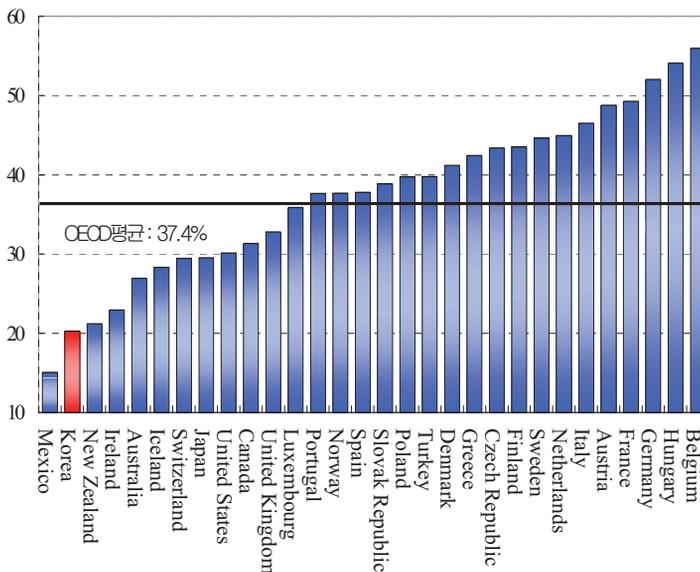


- 법인세는 법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 2010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로 OECD 국가 중 12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 스위스가 법인세율이 가장 낮았으며,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법인세율이 비슷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임

주) 지방세 미포함, 중앙정부 법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포함
 자료 : OECD, Tax database

[그림 Ⅱ-91] 조세 격차[2008년, %]

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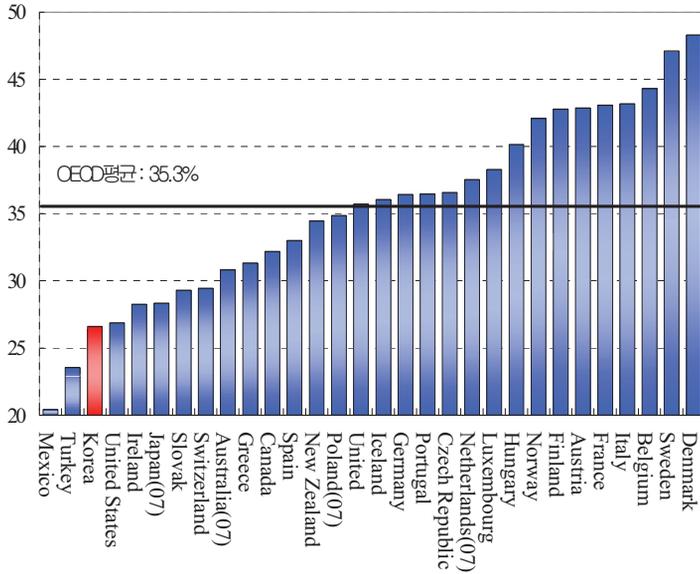


- 조세격차(Tax wedge)는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과의 차이를 의미
- 조세격차가 클수록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
- 2008년 우리나라의 조세 격차*는 20.3%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 * 평균소득 1인 가구 기준

자료 : OECD, Stat, Taxing wages

[그림 Ⅱ-92] 국민 부담률[2008년, %]

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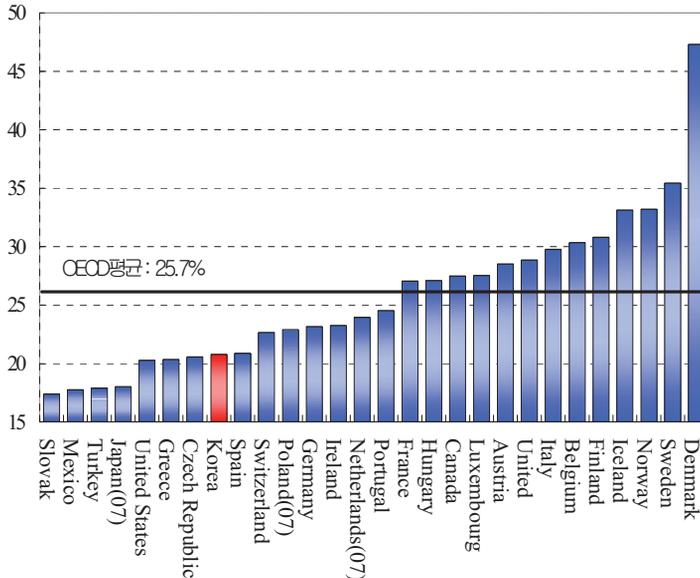


- 국민부담률은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합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세금 부담의 경중(輕重)을 나타내는 지표
-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준조세를 포함한 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
- 2008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6.6%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낮음

자료 : OECD. Stat, Taxation, Revenue statistics

[그림 Ⅱ-93] 조세 부담률[2008년, %]

8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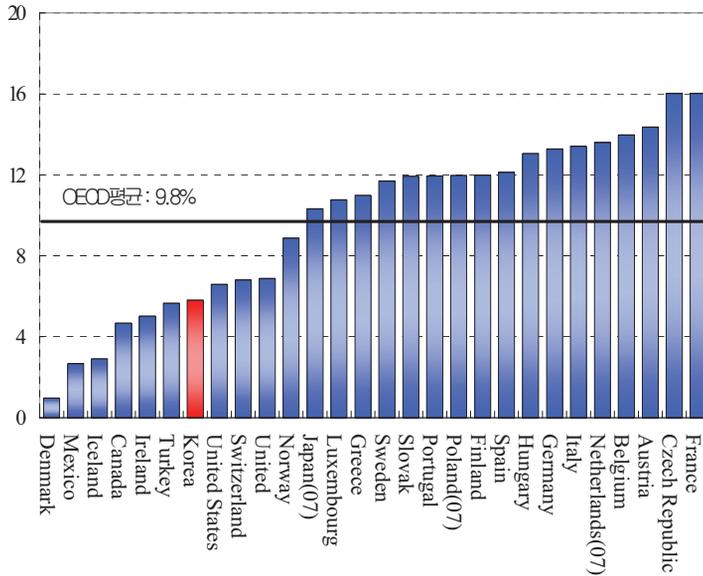


- 조세 부담률은 조세 납부 총액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누어 계산
- 2008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8%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8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가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았으며, 멕시코, 터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조세부담률이 비슷한 국가는 체코, 스웨덴 등임

자료 : OECD. Stat, Taxation, Revenue statistics

[그림 II-94] 사회보장 부담률[2008년, %]

7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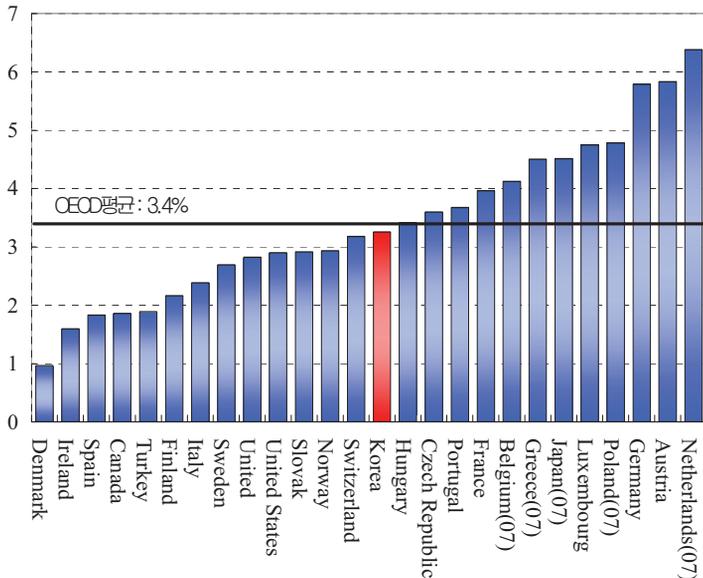


- 사회보장 부담률은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 (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합을 국민소득 (GDP)로 나누어 계산
- 2008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5.8%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7 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 덴마크가 사회보장 부담률이 가장 낮았으며, 멕시코,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부담률이 비슷한 국가는 터키, 미국 등임

자료 : OECD. Stat, Taxation, Revenue statistics

[그림 II-95]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률[2008년, %]

14위/OECD(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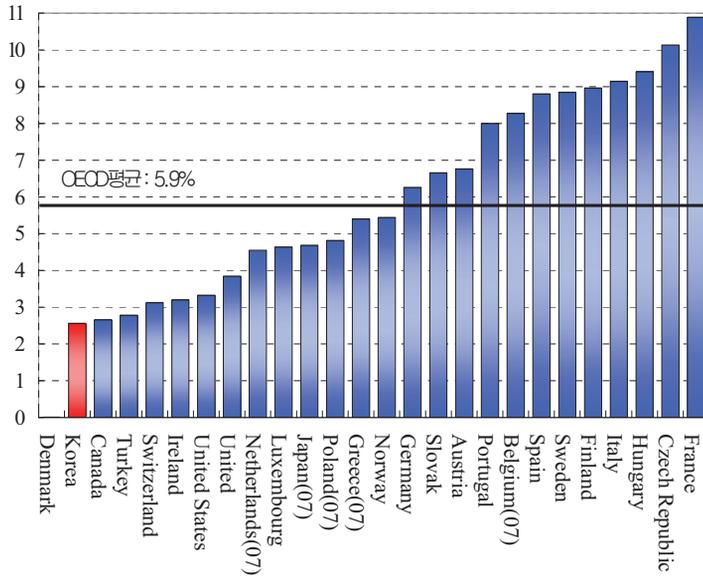


- 사회보장 부담률은 근로자의 부담분과 고용주의 부담분으로 나뉨
- 2008년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회보장 부담률은 3.3%로 조사대상 OECD 26개국 중 14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 덴마크가 근로자 사회보장 부담률이 가장 낮았으며,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이 비슷한 국가는 스위스, 헝가리 등임

자료 : OECD. Stat, Taxation, Revenue statistics

[그림 Ⅱ-96]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2008년, %)

2위/OECD(26)



• 2008년 우리나라의 고용주 사회보장 부담률은 2.56%로 조사 대상 OECD 26개국 중 덴마크에 이어 2번째로 낮음

자료 : OECD. Stat, Taxation, Revenue statistics

(4-5)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지표개요)

생산성 높은 노동인력이 충분히 공급된다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여건과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여건과 노사관계의 효율성은 i) 정규직 비율, 고용 보호 정도 등 노동시장 유연성, ii) 노사관계의 안정성, iii)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정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정도는 정규직은 12위, 임시직은 14위 등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 한편, 임시직 비율(33.6%)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노사관계의 경우 노조조직률(10.3%)은 28위로 낮으나 인구 천명당 파업근로 손실일수(17.2일)는 조사대상 OECD 27개국 중 5번째로 많았다.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지출 규모(0.49%)는 조사대상 OECD 26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0.20%)은 25위(/26개국), 실업수당 지급 등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0.29%)은 24위(/27개국)였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하여 기업들이 임시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임시직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파업근로

손실일수가 높는데 이는 잦은 파업 또는 장기간 파업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지출규모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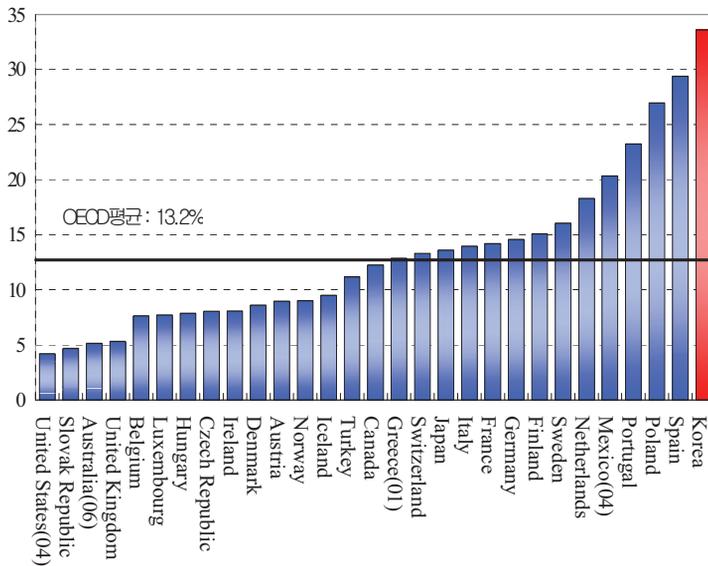
〈표 II-12〉 주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계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임시직 근로자 비율(낮은 순서)	33.6%	30위	13.2%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	2.29	12위	2.11
임시직 고용보호 지수	2.08	14위	2.08
노조조직률	10.3%	28위	29.2%
인구 천명당 파업 근로손실 일수 ¹⁾ (낮은 순서)	17.2일	23위/27개국	8.44일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0.49%	25위/26개국	1.37%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0.20%	25위/26개국	0.57%
-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0.29%	24위/27개국	0.78%

주 : 1) 2006~2008년 평균

[그림 II-97] 임시직 근로자 비율[2008년]

3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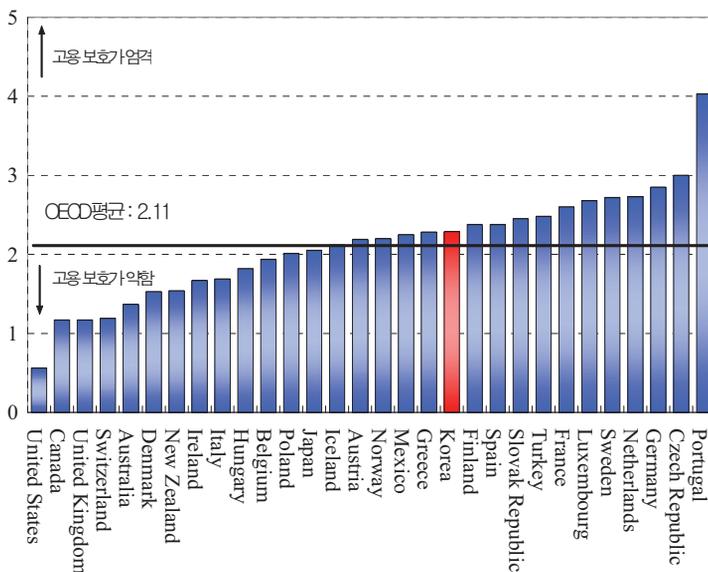


- 고용계약을 기간별로 구분하면 1년 이상의 상용직과 1년 미만의 임시직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2008년 전체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33.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OECD 국가 중 미국이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슬로바키아,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Permanent temporary employment

[그림 II-98] 정규직(Regular) 고용 보호 지수[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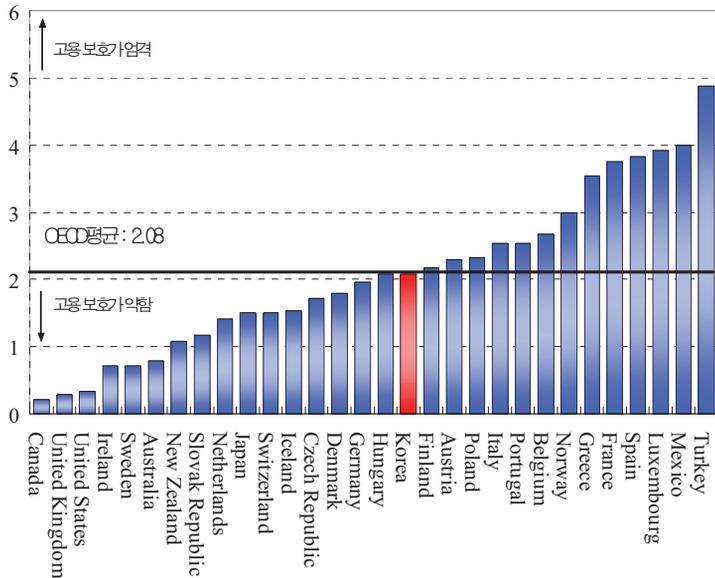
12위/OECD



- 우리나라의 2008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지수는 2.29로 OECD 국가 중 12번째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음
- OECD 국가 중 미국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가장 낮고, 캐나다,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근로자 보호수준이 비슷한 국가는 그리스, 핀란드 등임

자료 : OECD. Stat, Employment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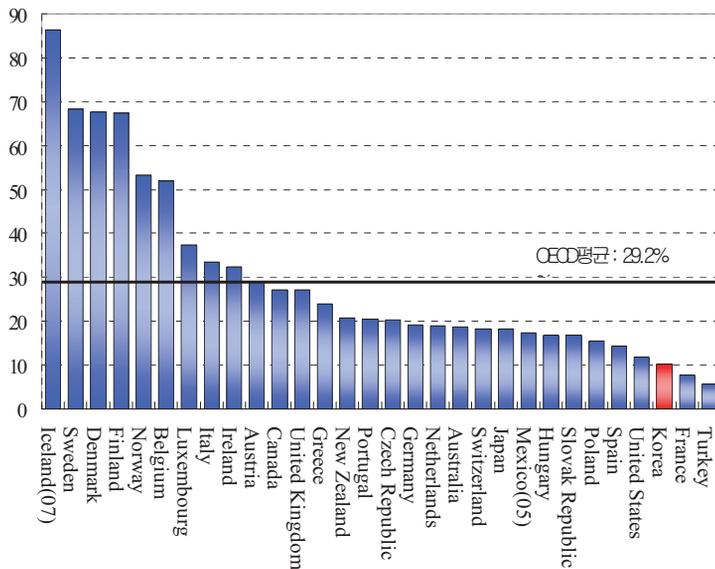
[그림 II-99] 임시직(Temporary) 고용 보호 지수[2008년] 14위/OECD



- 우리나라의 2008년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지수는 2.08로 OECD 국가 중 헝가리와 함께 14번째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음
- OECD 국가 중 캐나다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가장 낮고, 영국,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근로자 보호수준이 비슷한 국가는 헝가리, 핀란드 등임

자료 : OECD. Stat, Employment protection

[그림 II-100] 노조조직률^{주)}[2008년, %] 2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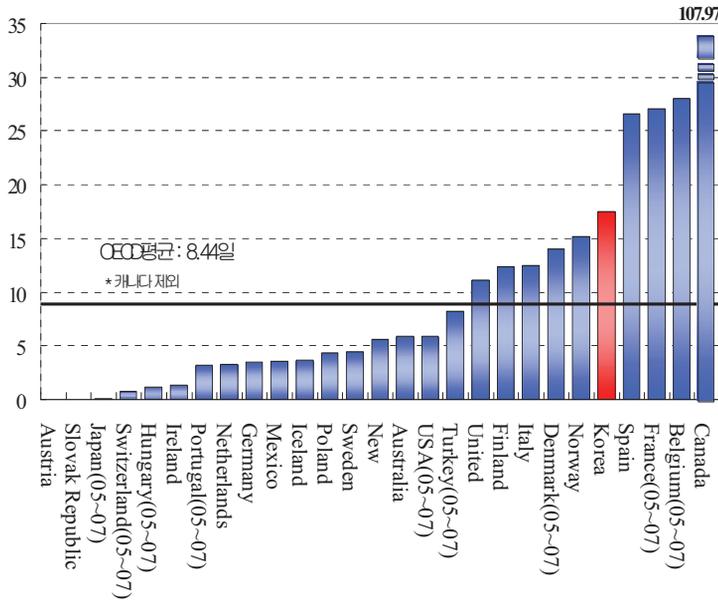


- 노조조직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 우리나라의 2008년 노조조직률은 10.3%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노조 가입률이 낮음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노조조직률이 비슷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임

주) 노조조직률 = 노조가입 근로자 ÷ 전체 임금 근로자 × 100

자료 : OECD. Stat, Trade union den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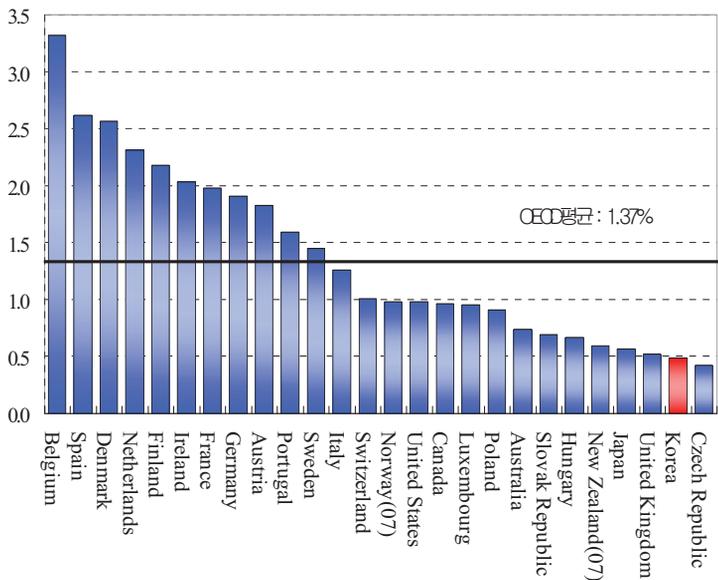
[그림 II-101] 인구 천 명당 파업 근로손실 일수(06~08년 평균, 일) 23위/OECD(27)



- 우리나라의 최근 3년(06~08년)간 근로자 천 명당 파업 근로손실일수가 17.2일로 조사대상 OECD 27개국 중 23위
- 조사대상 27개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근로자 천명당 파업 근로 손실일수가 가장 적었으며, 일본,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근로자 천명당 파업 근로손실일수가 비슷한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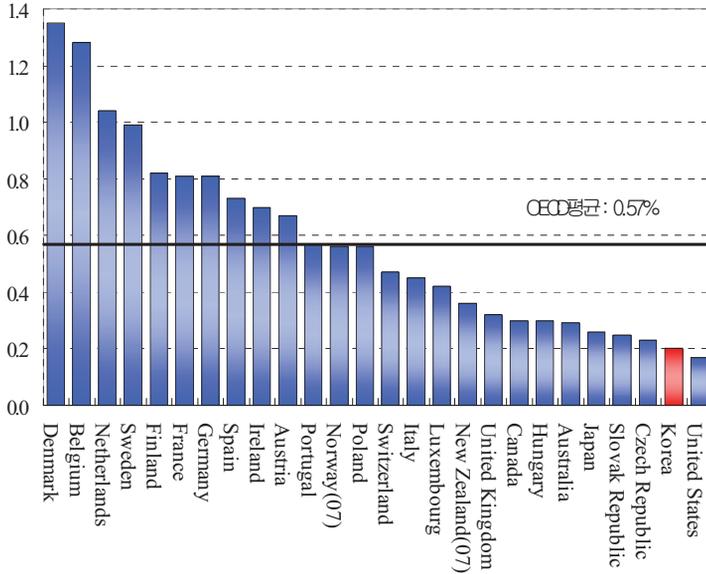
[그림 II-102]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2008년, %) 25위/OECD(26)



-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실업수당 지급 등과 같이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2008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49%로 조사대상 OECD 26개국 중 25위
- OECD 국가 중 벨기에가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페인,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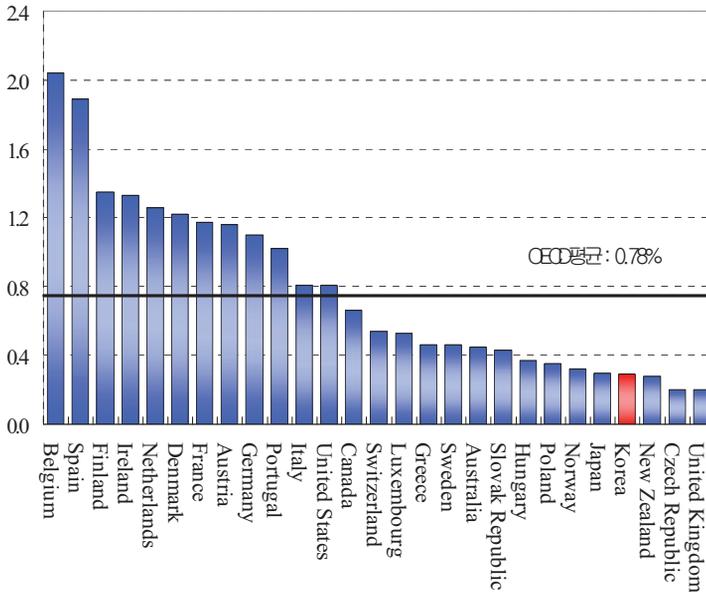
[그림 II-103]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2008년, %] 25위/OECD(26)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의미
- 2008년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20%로 조사대상 OECD 26개국 중 25위
- OECD 국가 중 덴마크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그림 II-104]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2008년, %] 24위/OECD(27)



-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실업수당 지급 등과 같은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 정책을 의미
- 2008년 우리나라의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29%로 조사대상 OECD 27개국 중 24위
- OECD 국가 중 벨기에가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페인,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1.5. 거시 환경

(지표개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은 i) 물가, 대외, 정부재정, 부채, 외환 등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성, ii) 무역의존도, 수출입비중 등 무역개방 정도, iii) FDI 등 투자개방 정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먼저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물가수준(OECD의 64%)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3.3%, 24위)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상수지(GDP대비 1.7%, 11위)는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일반정부 재정수지(2.1%, 4위/28개국), 정부부채(33.2%, 4위/27개국), 순이자상환액(경상이익 대비 -4.3%, 2위/28개국) 등 정부재정 분야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총외채(4,019억\$, 7위/27개국), 총외채비중(GDP대비 48.3%, 5위/27개국) 등 전체 외채규모도 낮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2,702억\$, 2위) 규모는 크고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비중(55.5%, 2위/27개국), 총외채대비 단기외채비중(37.3%, 16위/27개국) 등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GDP대비 가계부채비중(78.1%, 16위/26개국), 기업채무(113.1%, 16위/25개국) 등 기업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OECD 중간순위에 다소 못 미쳤다.

무역개방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비중(GDP대비 82.5%)이 OECD 국가 중 7위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상품수출(43.7%, 7위), 상품수입(38.8%, 7위)이 서비스수출(6.7%, 20위), 서비스수입(8.9%, 13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내수요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수입침투율(47.8%)이 10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시장은 대외개방되어 있으나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농가소득대비 농업보조금의 비중, 51.7%, 3위/29개국).

투자개방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14위)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DI잔액(GDP대비 13.3%)은 28위로 최하위권(유입액은 25위)에 머물렀으며 거주자 해외직접투자잔액(13.9%, 23위, 유출액은 16위)은 중하위권을 기록하였다. 공적개발원조 비중(GNI대비 0.10%, 26위/29개국)도 낮은 순위에 그쳤다.

(강점 및 약점)

거시경제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 외채 등 대외지급 측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 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개방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품부문이 서비스부문에 비해 더욱 개방되어 있다. 높은 무역개방도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한편, 높은 수입침투율로 볼 때 국내시장은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으나 농가소득대비 정부보조 비중이 최상위권을 보이는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호는 상당하다.

투자개방도는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이 상위권을 보이는 등 투자여건이 양호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는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지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2009.11월)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3〉 주요 거시환경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CPI상승률 ¹⁾ (낮은 순서)	3.3%	24위	2.8%
물가 수준 ²⁾ (낮은 순서)	64%	1위	108%
경상수지 ¹⁾	1.7%	11위	-1.1%
일반정부 재정			
- 재정수지 ¹⁾	2.1%	4위/28개국	-1.8%
- 부채(낮은 순서)	33.2%	4위/27개국	70.9%
- 순이자상환액 ³⁾ (낮은 순서)	-4.3%	2위/28개국	2.8%
가계부채/GDP ²⁾ (낮은 순서)	78.1%	16위/26개국	69.9%
기업채무/GDP ²⁾ (낮은 순서)	113.1%	16위/25개국	95.5%
외환			
- 총외채(낮은 순서)	4,019억\$	7위/27개국	20,640억\$
- 총외채/GDP(낮은 순서)	48.3%	5위/27개국	186.3%
- 단기외채/총외채(낮은 순서)	37.3%	16위/27개국	37.1%
- 외환보유액	2,702억\$	2위	991억\$
- 단기외채/외환보유액(낮은 순서)	55.5%	2위/27개국	1,253%
무역			
- 무역규모 비중	82.5%	7위	64.8%
- 상품수출 비중	43.7%	7위	32.6%
- 상품수입 비중	38.8%	7위	32.2%
- 서비스수출 비중	6.7%	20위	13.8%
- 서비스수입 비중	8.9%	13위	11.2%
- 수입침투율	47.8%	10위	46.4%
- 농업보조 비중	51.7%	3위/29개국	27.0%
투자			
- FDI잠재력 ⁴⁾	0.38	14위	0.36
- FDI잔액	13.3%	28위	59.4%
- FDI유입액	0.7%	25위	1.4%
- 해외직접투자잔액	13.9%	23위	54.0%
- 해외직접투자유출액	1.3%	16위	2.3%
공적개발원조(ODA)	0.10%	26위/29개국	0.41%

주 : 1) 2007~200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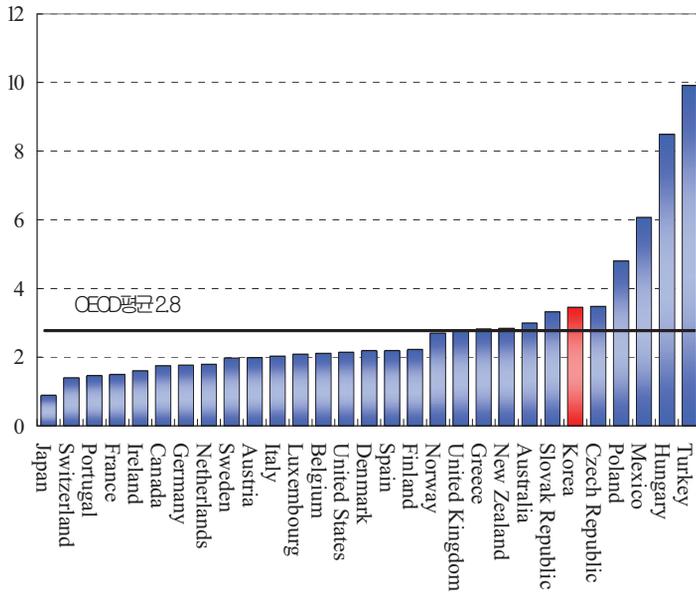
2) 2008년 기준

3) 2006~2008년 평균

4) 2004~2006년 기준

[그림 II-105] CPI 상승률 [07~09평균, %]

24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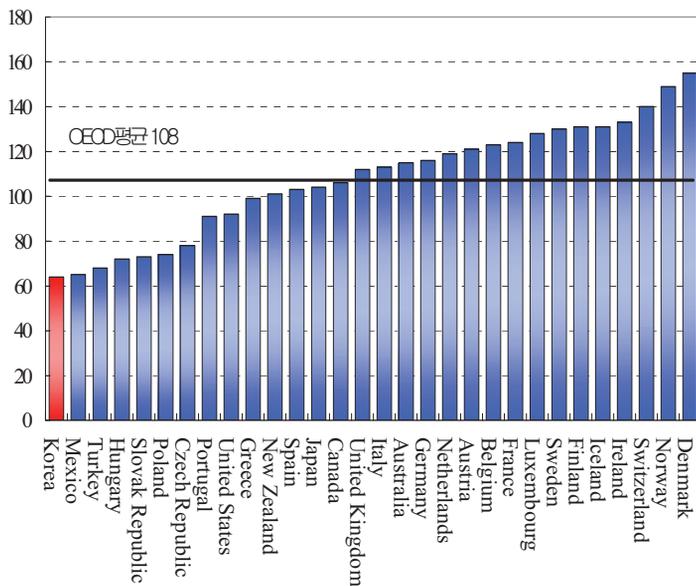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7~2009년 CPI 상승률은 3.3%로 OECD 중 24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낮은 CPI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스위스, 포르투갈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한 국가는 호주, 슬로바키아, 체코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06] 물가수준 [2008년, OECD=100]

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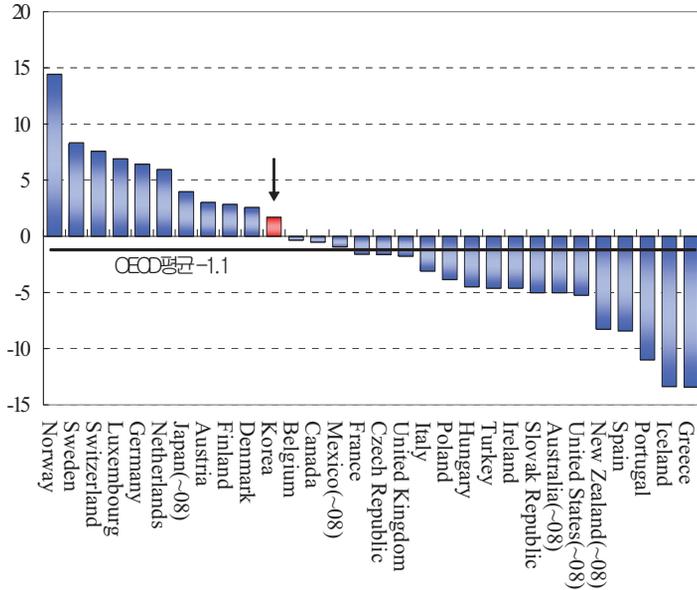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물가수준은 OECD의 64% 수준으로 OECD 중 가장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낮은 물가수준을 보였음

자료 : OECD

[그림 II-107] 경상수지 [07~09년평균, GDP대비 %]

1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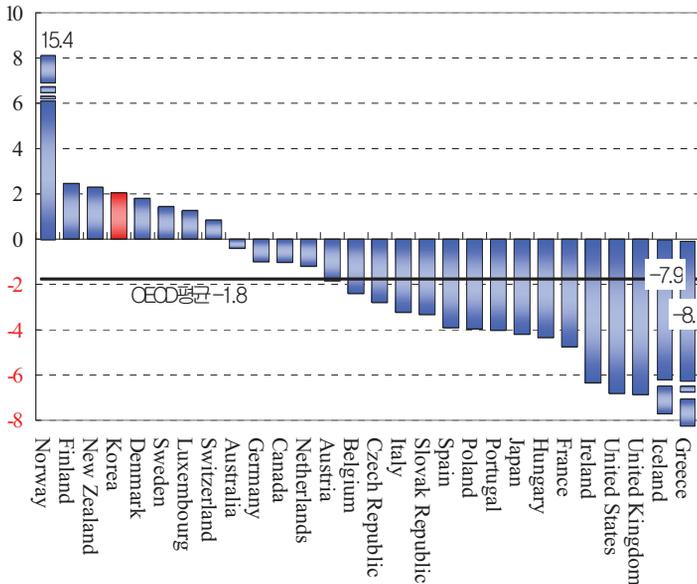


-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소득의 수입과 지급 등의 수지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07~2009년 경상수지는 GDP대비 1.7%로 OECD중 11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보였으며 스웨덴,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08] 일반정부 재정수지 [07~09년평균, GDP대비 %]

4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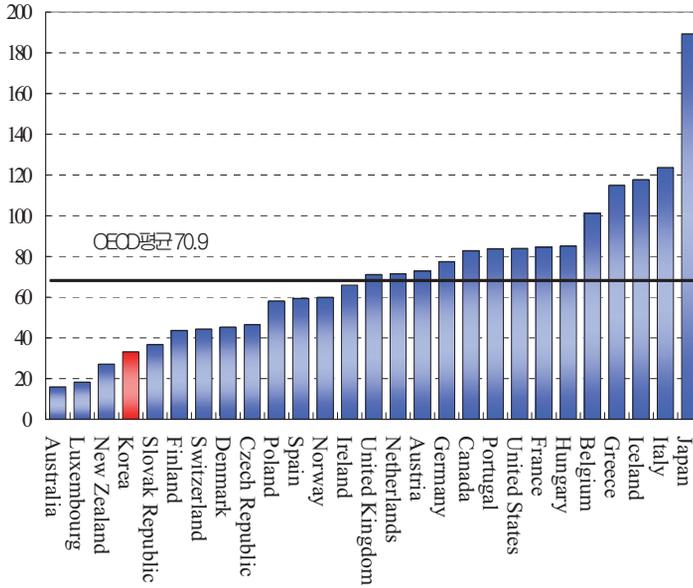


- 재정수지(GDP대비)는 조세수입 등 정부수입에서 정부지출을 차감한 것임
- 우리나라의 2007~2009년 재정수지 흑자는 GDP대비 2.1%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4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큰 재정수지 흑자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핀란드, 뉴질랜드, 우리나라,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그림 II-109] 일반정부 부채 [2009년, GDP대비 %]

4위/OEC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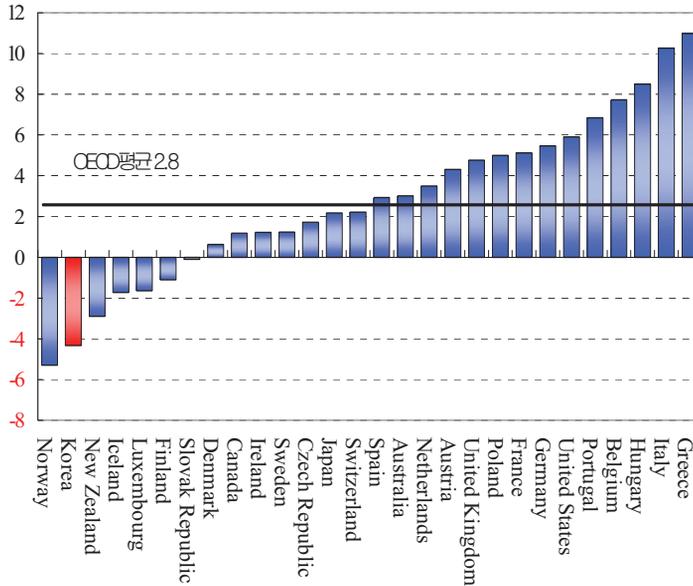


- 일반정부 부채(GDP대비)는 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국채발행 등을 통해 국내 외에서 조달한 채무임
- 우리나라의 2009년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3.2%로서 조사대상 27개국 중 4위
-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낮은 일반정부 부채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우리나라, 슬로바키아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그림 II-110] 일반정부 순이자상환액 [06~08년평균, %]

2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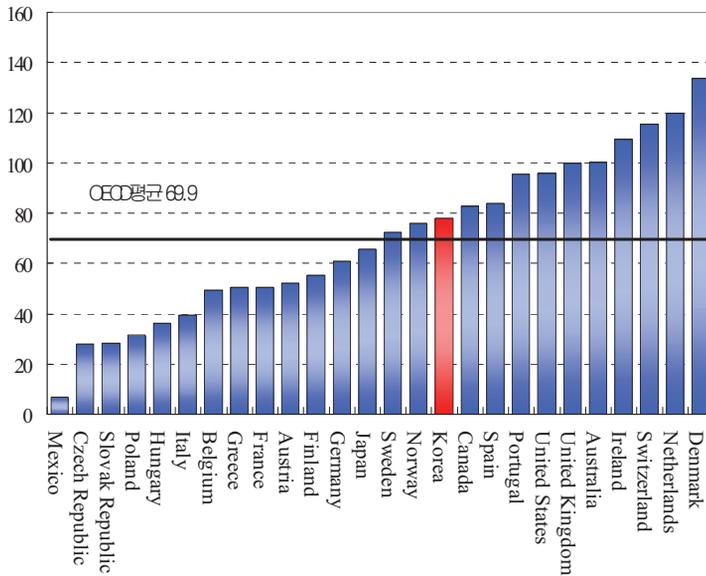


- 일반정부 순이자상환액(경상이익 대비)은 정부 채무의 이자지출에서 정부 보유자산의 이자수익을 차감하여 측정
- * 경상이익은 조세수입, 공기업 흑자, 정부보유자산의 이자수익 등을 합산
- 우리나라의 2006~2008년 일반정부 순이자상환 비중은 -4.3%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위
- ※ 2007~2009년 비중은 -4.4%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순이자상환액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그림 Ⅱ-111] 가계부채 비율 [2008년, GDP대비 %]

16위/OECD(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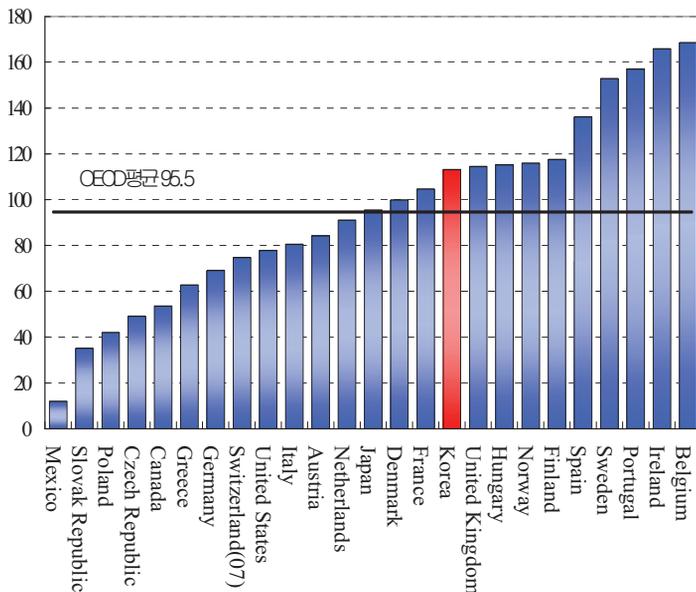


-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은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08년 가계부채* 비율은 78.1%로 조사대상 26개국 중 16번째로 낮음
- * 가계대출 기준
-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낮은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 캐나다 등임

자료 : OECD

[그림 Ⅱ-112] 기업채무주 비율 [2008년, GDP대비 %]

16위/OEC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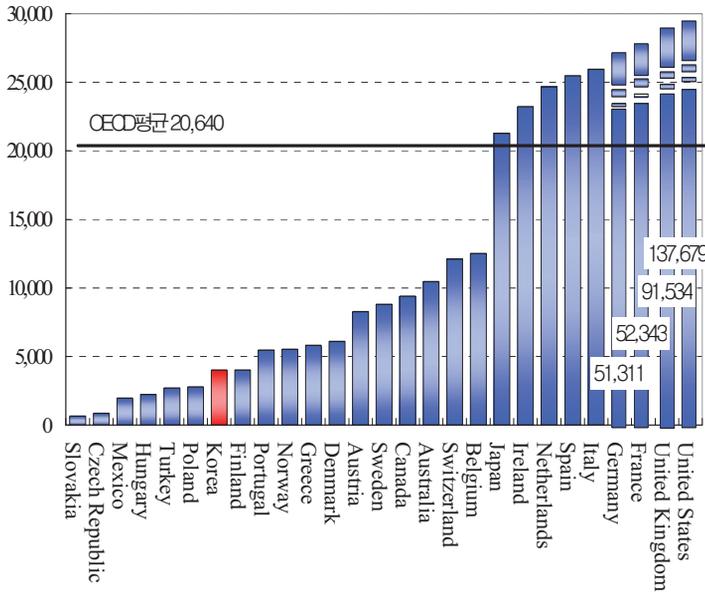


- 기업채무 비율(GDP 대비)은 기업의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08년 기업채무 비율은 113.1%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16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낮은 기업채무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임

주 : 자금순환통계 기준 비금융기업의 채권·대출금 자료 : OECD

[그림 II-113] 총외채 [2009년말, 억\$]

7위/OEC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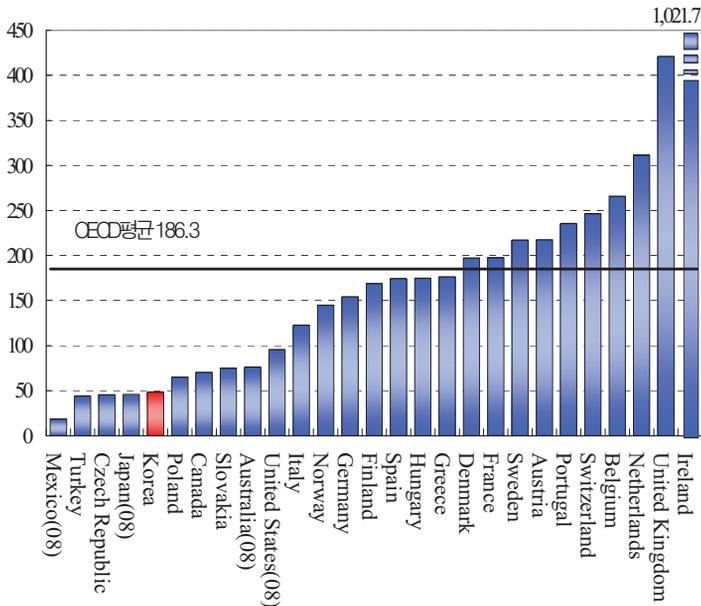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말 총외채는 4,019억\$로 조사대상 27개국중 7 번째로 적음
- OECD 국가 중에서 슬로바키아가 가장 적은 규모의 총외채를 기록하였으며 체코, 멕시코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총외채를 기록한 국가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임

자료 : BIS

[그림 II-114] 총외채/GDP [2009년, %]

5위/OEC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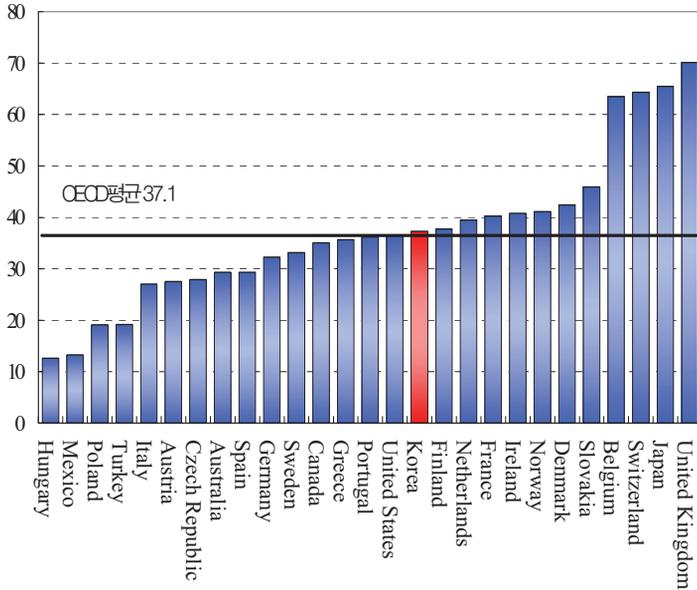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말 총외채 비중(GDP대비)은 48.3%로 조사대상 27개국중 5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낮은 총외채 비중을 보였으며 터키, 체코, 일본, 우리나라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BIS, OECD

[그림 II-115] 단기외채/총외채 [2009년, %]

16위/OEC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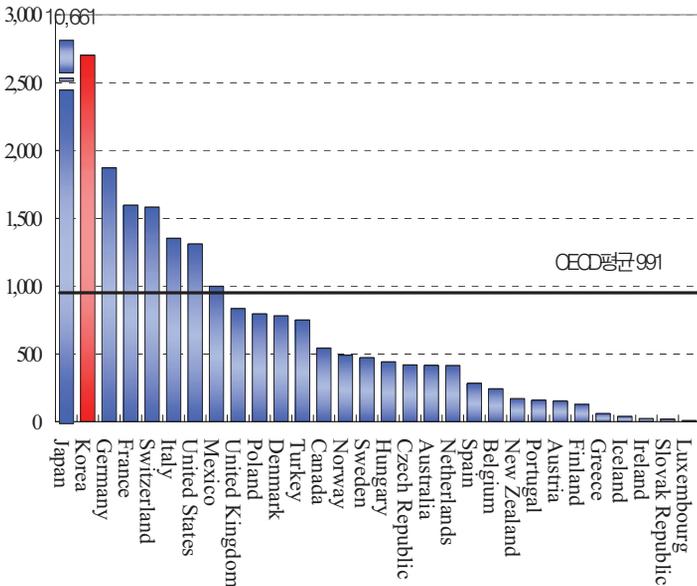


- 단기외채 비중은 총외채에서 단기 1년미만의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 우리나라의 2009년말 단기외채 비중은 37.3%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16위
- OECD 국가 중에서 헝가리가 가장 낮은 단기외채 비중을 보였으며 멕시코, 폴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기외채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포르투갈, 미국, 핀란드 등임

자료 : BIS

[그림 II-116] 외환보유액 [2009년, 억\$]

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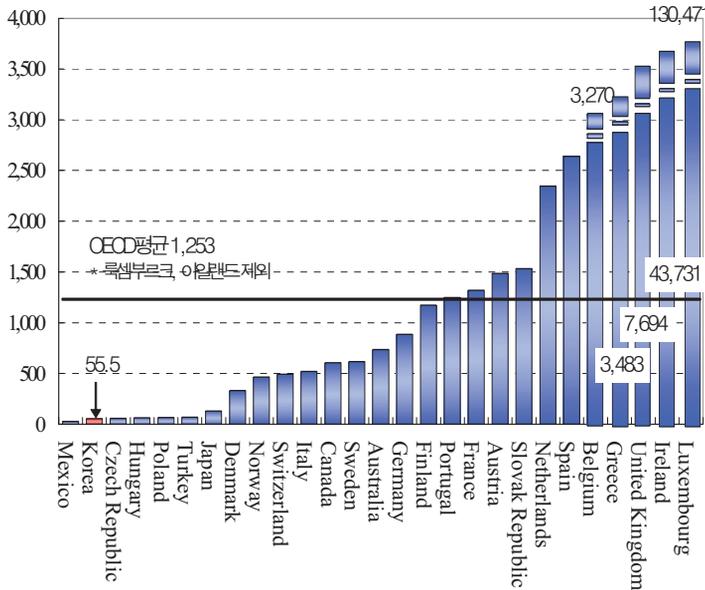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말 외환보유액은 2,702억 \$로 OECD 중 2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IMF

[그림 II-117] 단기외채/외환보유액 [2009년, %]

2위/OEC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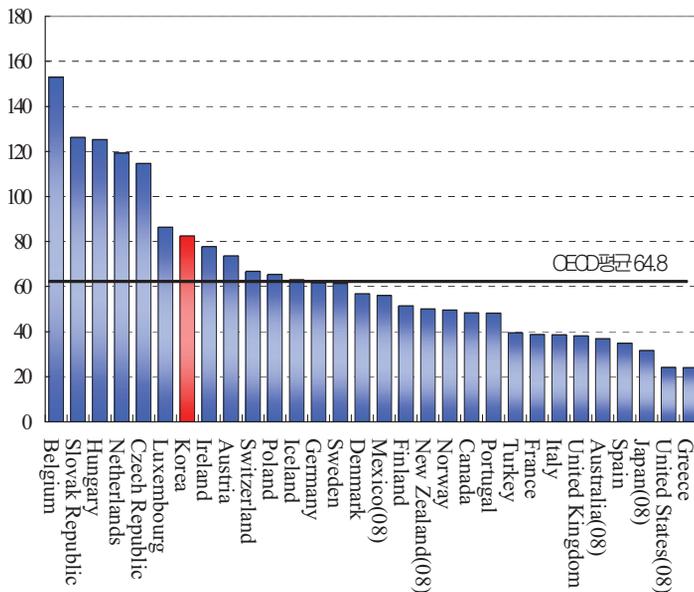


- 외환보유액대비 단기 외채 비중은 특히 신흥시장국의 외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
- 우리나라의 2009년말 단기외채 비중(외환보유액대비)은 55.5%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2위
-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낮은 단기외채 비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BIS, IMF

[그림 II-118] 무역규모 비중 [2009년, GDP대비 %]

7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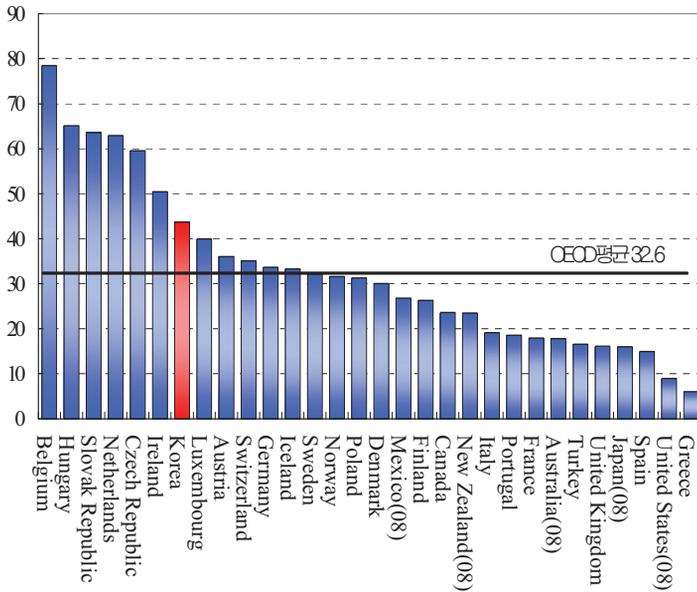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무역규모 비중(GDP대비)은 82.5%로 OECD 중 7위
- OECD 국가 중에서 벨기에가 가장 높은 무역규모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무역규모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체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임

자료 : WTO, OECD

[그림 II-119] 상품수출 [2009년, GDP대비 %]

7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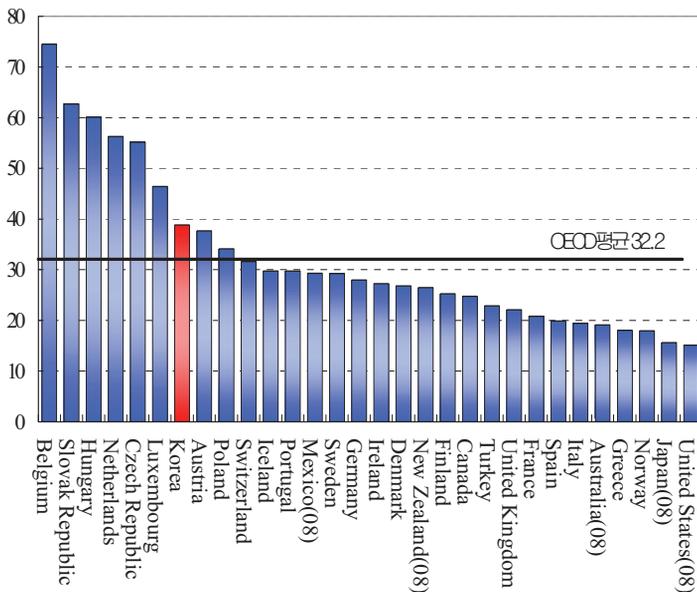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상품수출 비중(GDP대비)은 43.7%로 OECD 중 7위
- OECD 국가 중에서 벨기에가 가장 높은 상품수출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품수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체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임

자료 : WTO, OECD

[그림 II-120] 상품수입 [2009년, GDP대비 %]

7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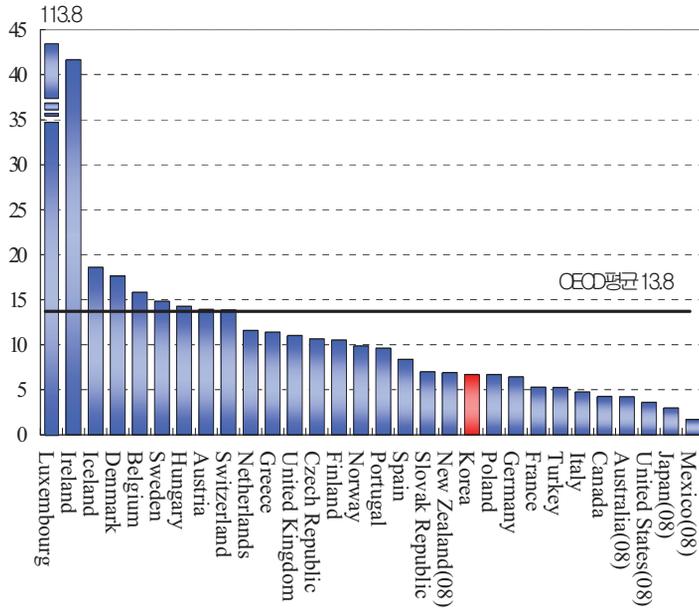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상품수입 비중(GDP 대비)은 38.8%로 OECD 중 7위
- OECD 국가 중에서 벨기에가 가장 높은 상품수입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품수입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체코,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임

자료 : WTO, OECD

[그림 Ⅱ-121] 서비스수출 [2009년, GDP대비 %]

2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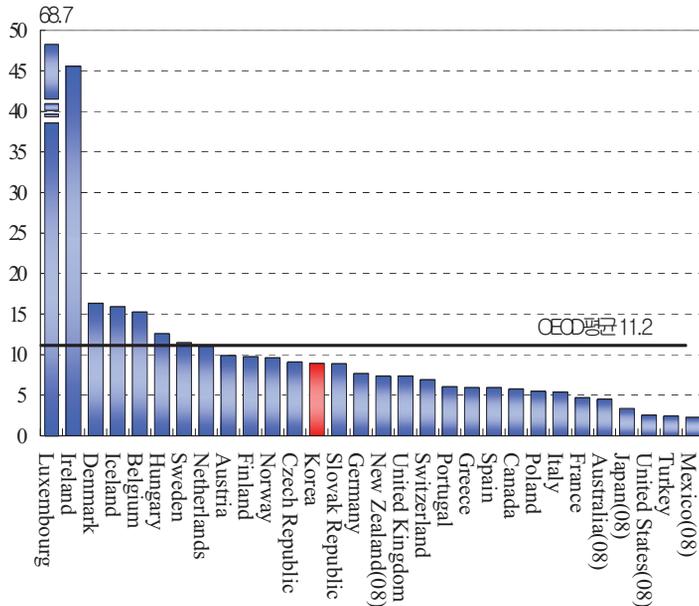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서비스수출 비중 (GDP대비)은 6.7%로 OECD중 20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서비스수출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비스수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폴란드 등임

자료 : WTO, OECD

[그림 Ⅱ-122] 서비스수입 [2009년, GDP대비 %]

1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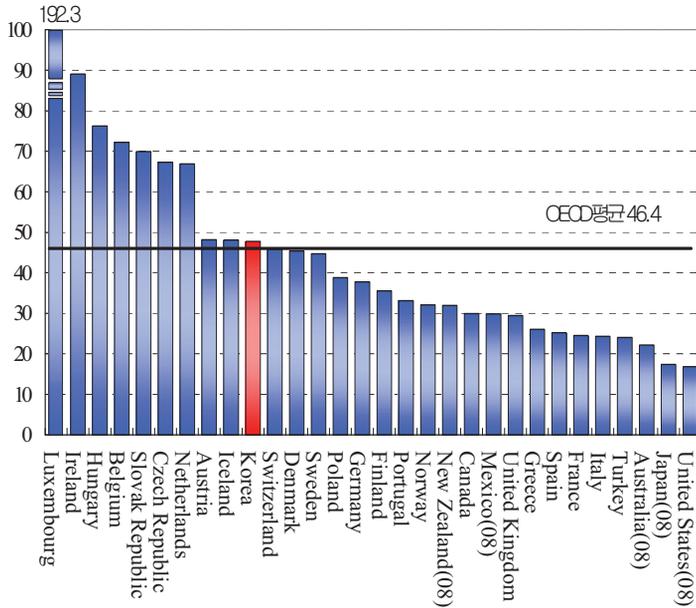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서비스수입 비중 (GDP대비)은 8.9%로 OECD 중 13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서비스수입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비스수입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 체코, 슬로바키아 등임

자료 : WTO, OECD

[그림 II-123] 수입침투율 [2009년, %]

1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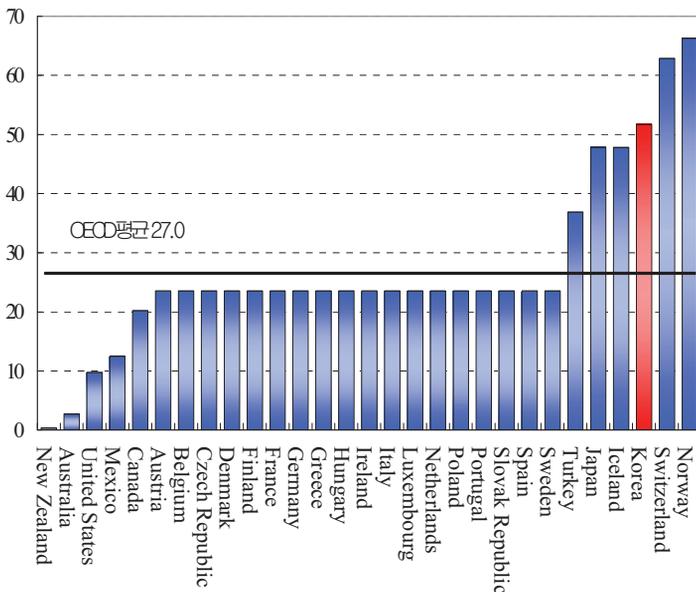


- 수입침투율은 전체 국내수요(소비, 투자 및 정부지출)대비 수입액의 비율
- 우리나라의 2009년 수입침투율은 47.8%로 OECD 중 10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수입침투율을 나타내었으며 아일랜드, 헝가리 등이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입침투율을 기록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24] 농업보조 비중 [2009년, 전체농가소득대비 %]

3위/OECD(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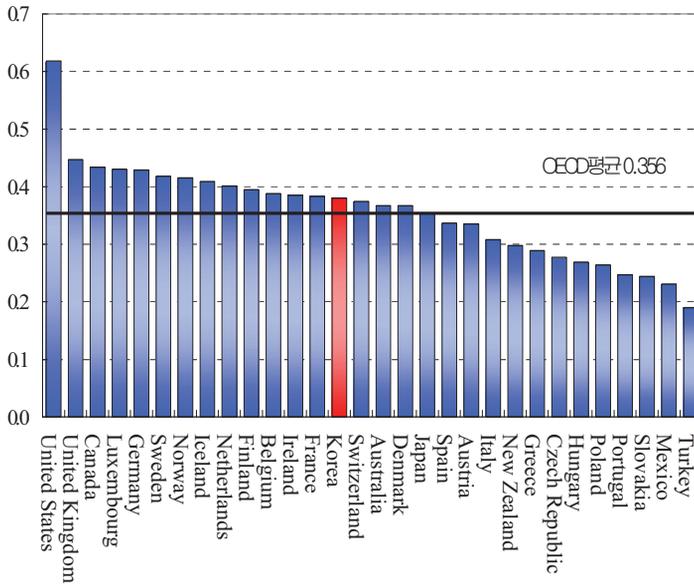


- 농업보조는 정부가 농업장려를 위해 보조금, 최저가격제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측정
- 우리나라의 2009년 농업보조 비중(전체 농가 소득대비)은 51.7%로 조사대상 29개국중 3위
-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가 가장 낮은 농업보조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호주,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업보조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25] FDI 잠재력^주 [04~06년]

14위/OECD



주 : 0~1 범위의 값을 가짐

자료 : UNCTAD

- FDI 잠재력은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수출규모, 국가신용도 등 12개 경제변수를 종합한 것으로 국가의 외국인투자매력도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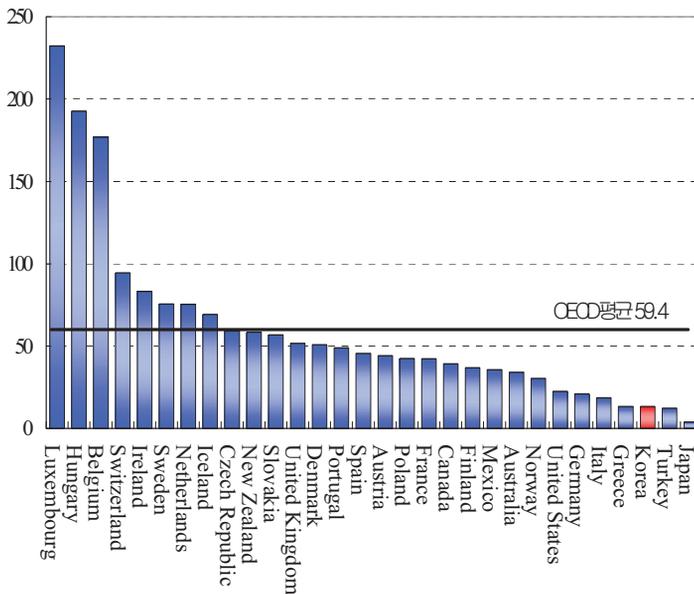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6~2008년 FDI 잠재력은 0.38로 OECD 중 14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FDI 잠재력을 보였으며 영국,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FDI 잠재력을 기록한 국가는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임

[그림 II-126] FDI 잔액 [2009년, GDP대비 %]

28위/OECD



자료 : UNCTAD

- FDI는 비거주자가 투자대상국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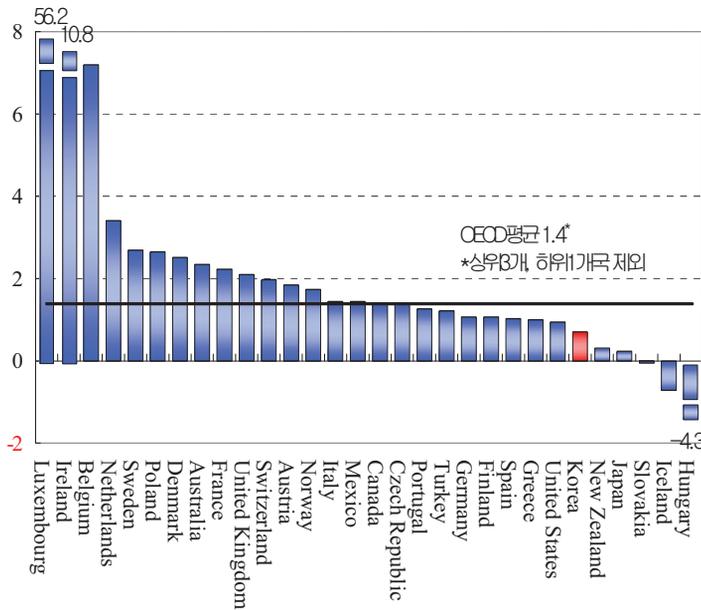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FDI 잔액 비중(GDP대비)은 13.3%로 OECD 중 28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FDI 잔액 비중을 보였으며 헝가리, 벨기에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FDI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임

[그림 II-127] FDI 유입액 [2009년, GDP대비 %]

25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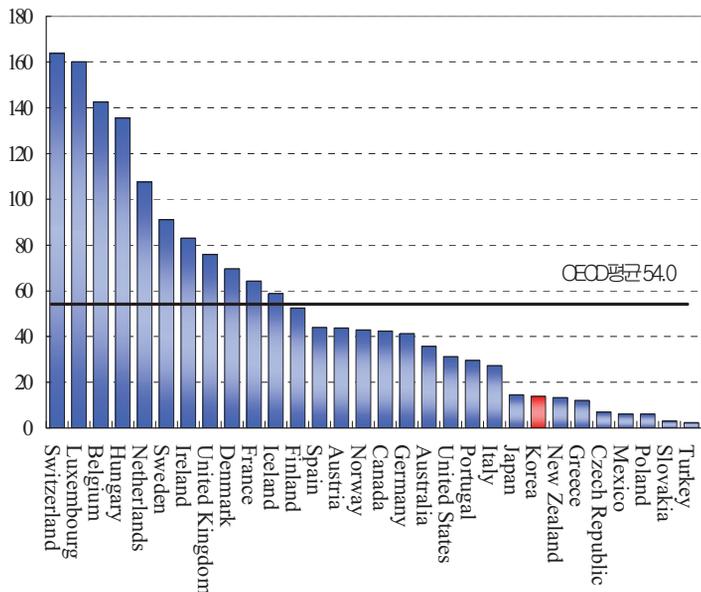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FDI 유입액 비중(GDP 대비)은 0.7%로 OECD 중 25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FDI 유입액 비중을 보였으며 아일랜드, 벨기에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FDI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임

자료 : UNCTAD

[그림 II-128]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잔액 [2009년, GDP대비 %]

2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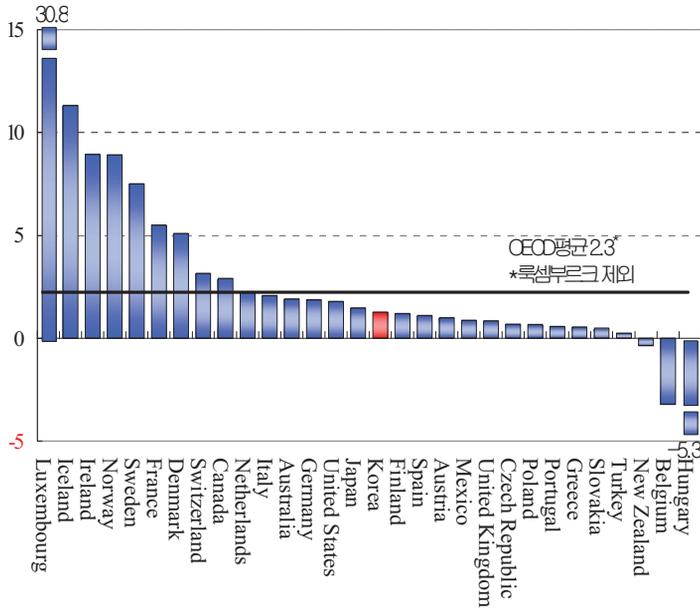


-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해외에 실행한 직접투자를 의미
- 우리나라의 2009년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잔액 비중(GDP대비)은 13.9%로 OECD중 23위
- OECD 국가중에서 스위스가 가장 높은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잔액 비중을 보였으며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임

자료 : UNCTAD

[그림 II-129]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2009년, GDP대비 %]

16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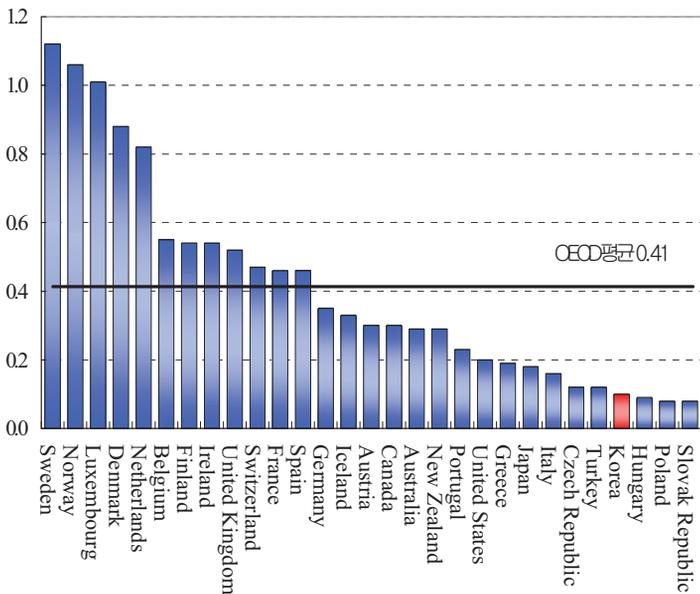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비중(GDP대비)은 1.3%로 OECD 중 16위
- OECD 국가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비중을 보였으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일본, 핀란드 등임

자료 : UNCTAD

[그림 II-130] 공적개발원조(ODA) [2009년, GNI대비 %]

26위/OECD(29)



- 공적개발원조는 정부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자금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9년 ODA 비중(GNI대비)은 0.10%로 조사대상 29개국중 26위
- OECD 국가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높은 ODA 비중을 보였으며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ODA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체코, 터키, 헝가리 등임

자료 : OECD

1.6. 산업구조

(지표개요)

산업구조는 i)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ii) 제조업·서비스업 비교, iii)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구성, iv) 자영업자/임금근로자 비중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선, 중소기업은 고용(71.0%, 5위/26개국), 기업체수(98.9%, 16위/26개국), 부가가치(45.3%, 9위/25개국) 등이 높은 순위를 보여 양적으로는 우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고용 배율(0.64배, 21위/25개국)은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의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은 부가가치(2.5%, 10위/28개국)와 고용(7.2%, 4위/28개국)면에서 비중은 작지만, 여타 OECD국가에 대비한 상대적인 순위는 상위권에 속하였다. 또한 제조업은 부가가치(28.4%, 1위/28개국), 고용(17.3%, 9위/28개국)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부가가치(60.0%, 25위/28개국)와 고용(67.3%, 23위/28개국) 모두 하위권에 그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은 중하위권에 머무른 생산성(58,187\$, 23위/28개국)을 제외하고, R&D투자(2.2%, 2위/29개국), 상품수지(3.3%, 8위) 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성(31,590\$, 28위/28개국), R&D투자(0.2%, 22위/29개국), 서비스수지(GDP 대비 -1.9%, 29위), FDI비중(43.5%, 24위/25개국) 등 대부분의 지표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배율(1.8배, 28위/28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24.1%, 5위/28개국)이 부가가치(11.3%, 26위/28개국)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6.5%, 3위/27개국), 고용(7.4%, 7위/28개국)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보건/사회복지업은 부가가치(4.2%, 25위/28개국), 고용(3.6%, 28위/28개국) 모두 최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은 부가가치(14.9%, 22위/28개국), 고용(10.2%, 22위/28개국) 모두 중하위권에 속하였으며, 금융업은 부가가치(6.6%, 12위/28개국), 고용(3.5%, 8위/28개국)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다.

한편, 자영업자의 고용비중(31.3%)은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은 반면, 임금근로자(68.7%, 하위 4위) 비중은 낮았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GDP대비 제조업 비중, 제조업 R&D투자, 상품수지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성, R&D투자, 서비스수지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열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과당경쟁, 사업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낮은 비중, 높은 영세자영업 비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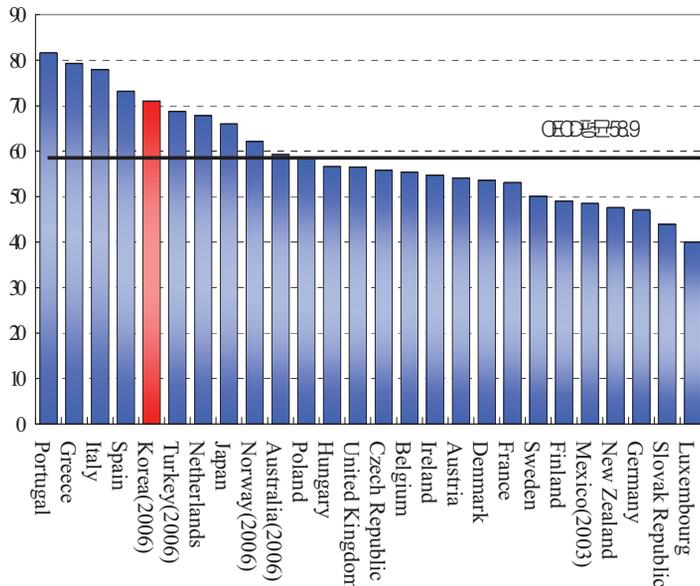
〈표 II-14〉 주요 산업구조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 고용 비중 ¹⁾	71.0%	5위/26개국	58.9%
- 기업체수 비중 ¹⁾	98.9%	16위/26개국	98.8%
- 부가가치 비중 ¹⁾	45.3%	9위/25개국	44.0%
- 부가가치/고용배율 ¹⁾	0.64배	21위/25개국	0.74배
농림업/제조업/서비스업			
- 농림업 부가가치비중	2.5%	10위/28개국	2.2%
- 농림업 고용비중	7.2%	4위/28개국	4.4%
- 제조업 부가가치비중	28.4%	1위/28개국	17.0%
- 제조업 고용비중	17.3%	9위/28개국	15.2%
-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60.0%	25위/28개국	69.3%
- 서비스업 고용비중	67.3%	23위/28개국	71.4%
제조업/서비스업			
- 제조업 생산성	58,187\$	23위/28개국	8.9만\$
- 제조업 R&D투자 ¹⁾	2.2%	2위/29개국	0.8%
- 상품수지 ²⁾	3.3%	8위	-0.3%
- 서비스업 생산성	31,590\$	28위/28개국	7.5만\$
-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배율(낮은 순서)	1.8배	28위/28개국	1.2배
- 서비스업 R&D투자 ¹⁾	0.2%	22위/29개국	0.4%
- 서비스수지 ²⁾	-1.9%	29위	2.9%
- 서비스업 FDI비중	43.5%	24위/25개국	64.3%
서비스업구조(전산업대비비중)			
- 도소매/음식업 부가가치	11.3%	26위/28개국	14.6%
- 도소매/음식업 고용	24.1%	5위/28개국	20.7%
- 교육서비스 부가가치	6.5%	3위/27개국	4.9%
- 교육서비스 고용	7.4%	7위/28개국	6.7%
- 보건/사회복지 부가가치	4.2%	25위/28개국	6.5%
- 보건/사회복지 고용	3.6%	28위/28개국	10.0%
-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14.9%	22위/28개국	19.4%
- 사업서비스 고용	10.2%	22위/28개국	12.1%
- 금융업 부가가치	6.6%	12위/28개국	6.8%
- 금융업 고용	3.5%	8위/28개국	3.3%
자영업자 고용비중(낮은 순서)	31.3%	27위	16.4%
임금근로자 고용비중(낮은 순서)	68.7%	4위	83.6%

주 : 1) 2007년 기준

2) 2007~200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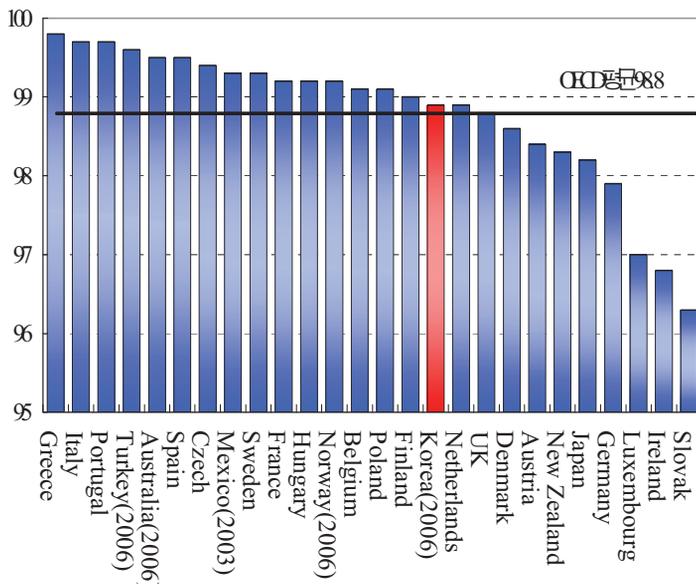
[그림 II-131] 제조업 중소기업^주 고용 비중[2007년, %] 5위/OECD(26)



- 우리나라의 2007년 제조업내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71.0%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5위
- OECD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나라, 터키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종사자 250인 미만(우리나라는 200인 미만) 기업체(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 기준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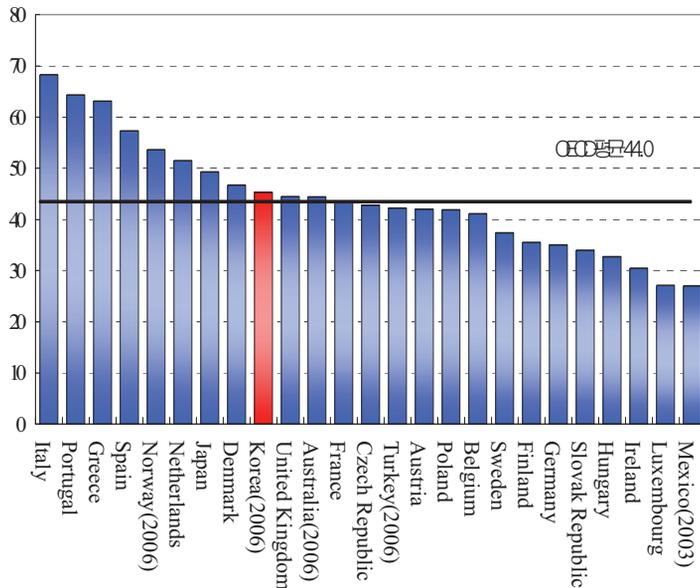
[그림 II-132] 제조업 중소기업^주 기업체수 비중[2007년, %] 16위/OECD(26)



- 우리나라의 2007년 제조업내 중소기업 기업체수 비중은 98.9%로 조사대상 26개국중 16위
-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가 가장 높은 중소기업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폴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등임

주 : 종사자 250인 미만(우리나라는 200인 미만) 기업체(또는 사업체) 기준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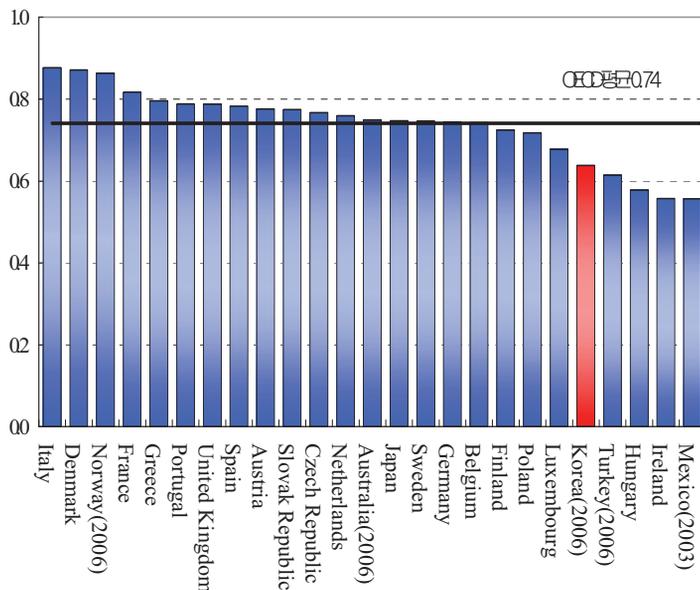
[그림 II-133] 제조업 중소기업^주 부가가치 비중 [2007년, %] 9위/OECD(25)



- 우리나라의 제조업내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은 45.3%로 조사대상 25개국중 9위
- OECD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중소기업 비중을 보였으며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 덴마크, 영국, 호주 등임

주 : 종사자 250인 미만(우리나라는 200인 미만) 기업체(또는 사업체) 기준
 자료 : OECD

[그림 II-134] 제조업 중소기업^주 부가가치/고용 [2007년, 배] 21위/OEC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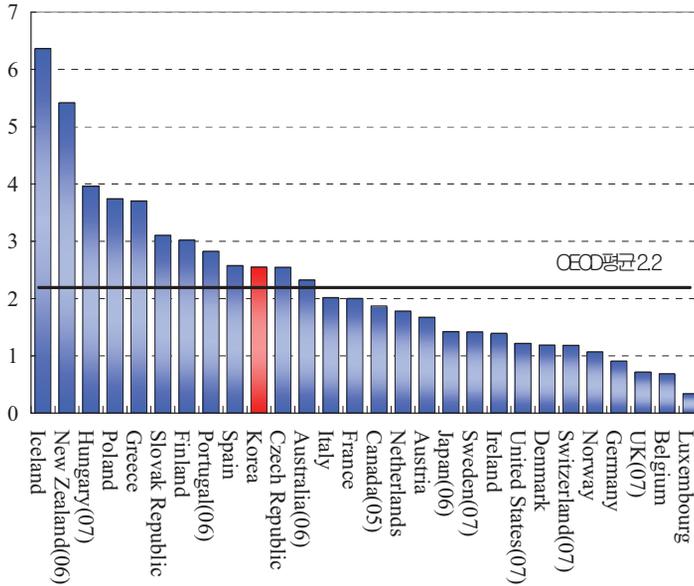


-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고용비중 배율이 낮을수록 국가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소기업 부가가치/고용 배율은 0.64배로 조사대상 25개국중 21위
- OECD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폴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등임

주 : 종사자 250인 미만(우리나라는 200인 미만) 기업체 기준
 자료 : OECD

[그림 II-135]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10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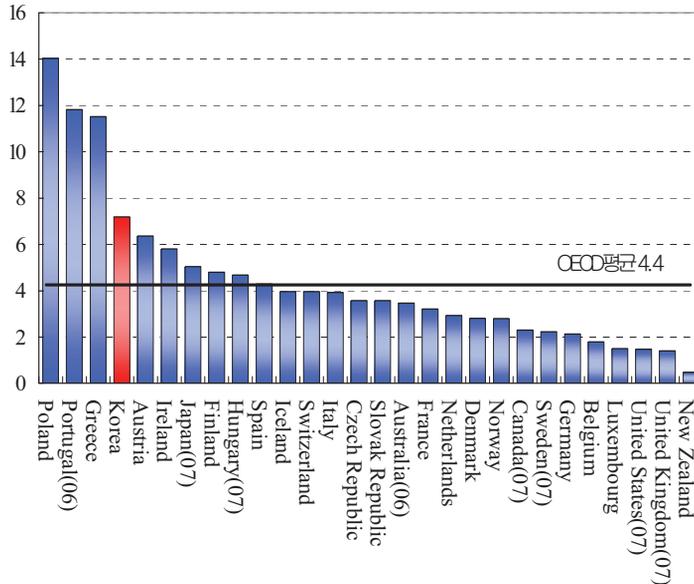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5%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10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뉴질랜드,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36] 농림수산업 고용 비중 [2008년, %]

4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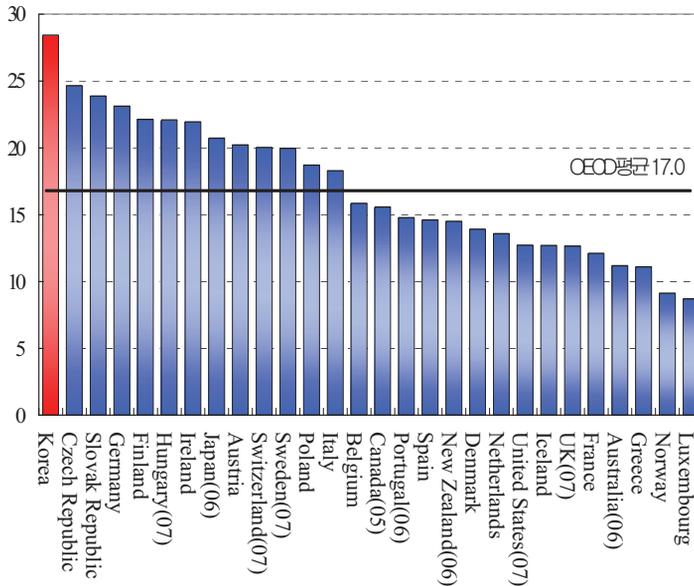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농림수산업 고용 비중은 7.2%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4위
-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가 가장 높은 농림수산업 고용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포르투갈, 그리스,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그림 II-137]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1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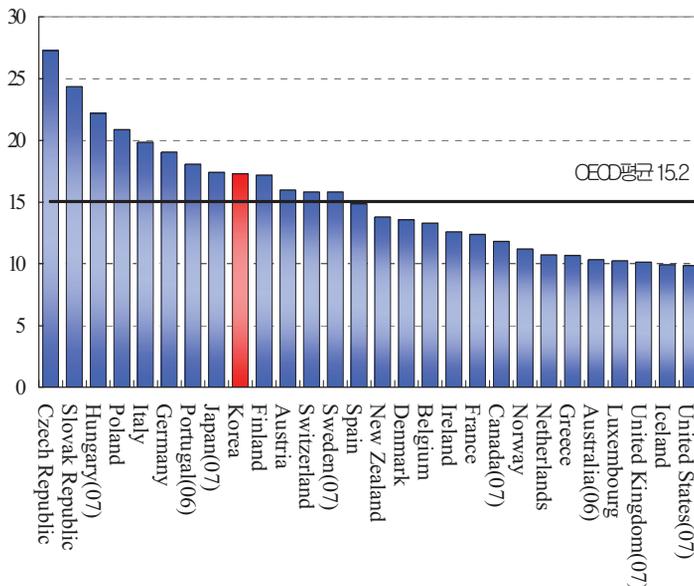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8.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1위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어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핀란드 등이 높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을 보였음

자료 : OECD

[그림 II-138] 제조업 고용 비중 [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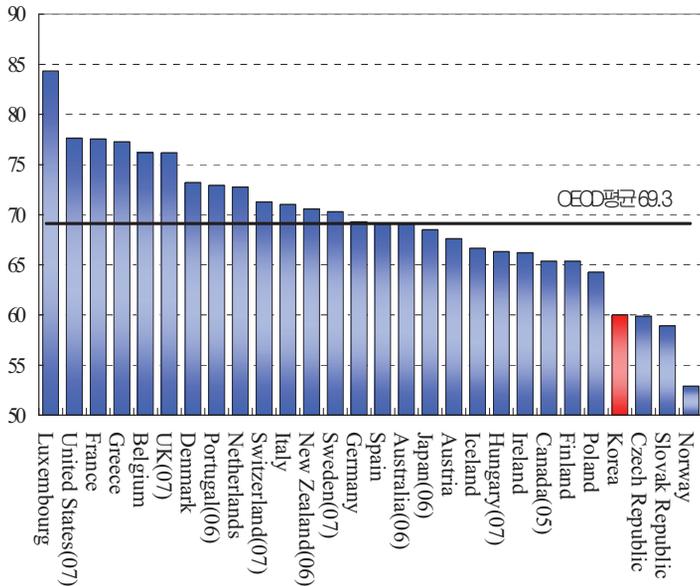
9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제조업 고용 비중은 17.3%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9위
- OECD 국가 중에서는 체코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고용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포르투갈, 일본, 핀란드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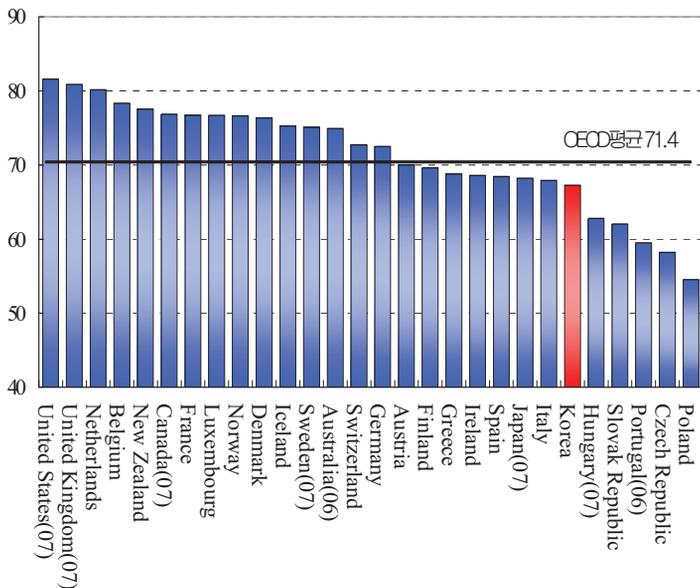
[그림 Ⅱ-139]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25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0.0%로 조사대상 28개국중 25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미국,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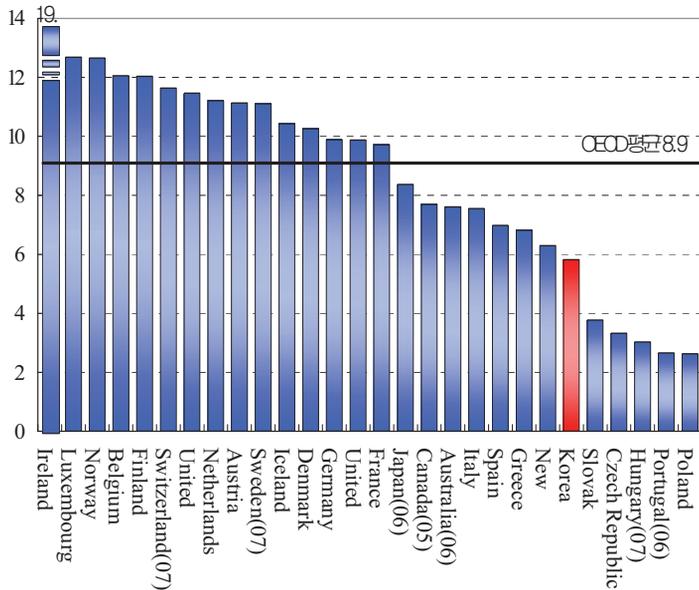
[그림 Ⅱ-140] 서비스업 고용 비중 [2008년, %] **23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7.3%로 조사대상 28개국중 23위
- OECD 국가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영국,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41] 제조업 생산성^{주)} [2008년, 만\$(명목환율)] 23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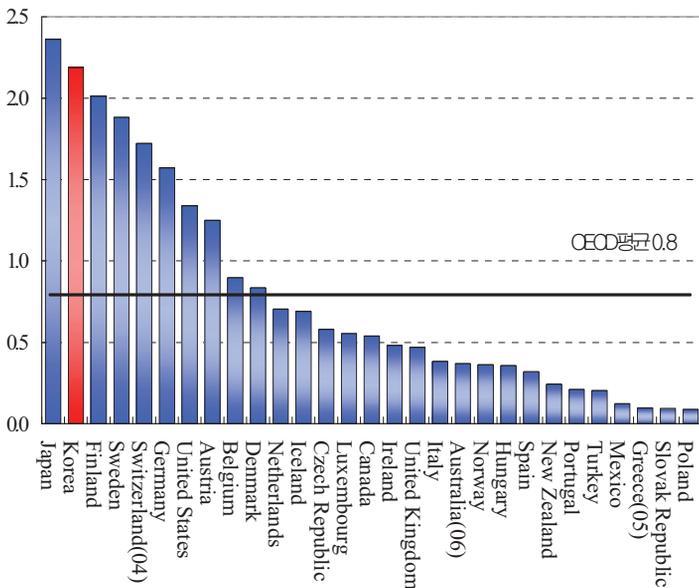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제조업 생산성(명목환율 기준)은 취업자 1인당 58,187\$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3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가 가장 높은 제조업 생산성을 보였으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생산성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임

주 : 취업자당 명목부가가치

자료 : OECD

[그림 II-142] 제조업^{주)} R&D 지출 비중 [2007년, GDP대비 %] 2위/OECD(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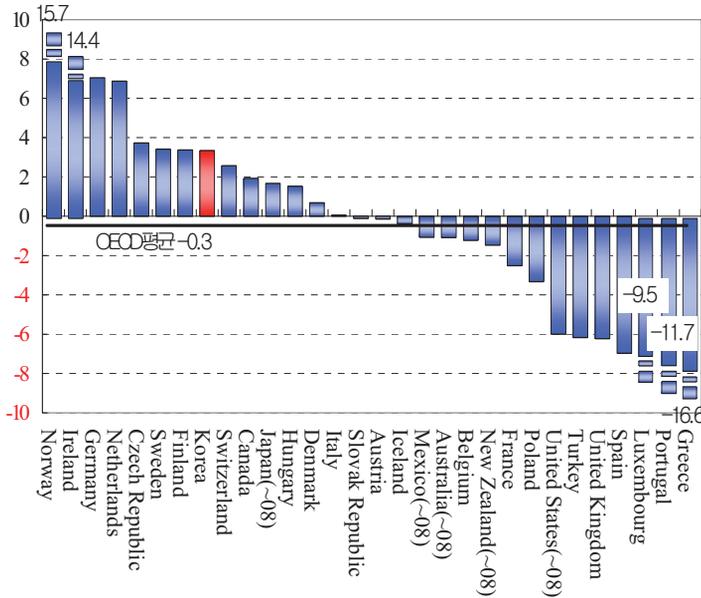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7년 제조업 R&D 지출은 GDP 대비 2.2%로 조사대상 29개국 중 2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제조업 R&D 지출 비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기업의 R&D투자 기준

자료 : OECD

[그림 II-143] 상품수지 [2007~2009년평균, GDP대비 %]

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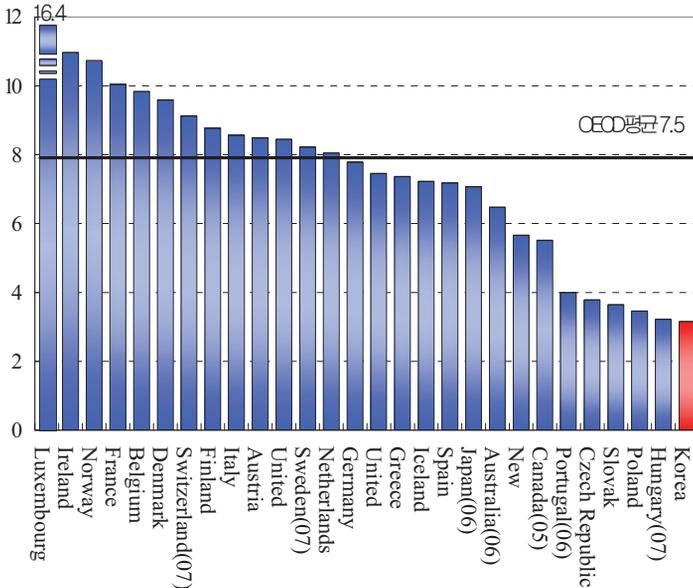


자료 : OECD

-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상품부문의 국제경쟁력 등을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07~2009년 상품수지 흑자는 GDP 대비 3.3%로 OECD 중 8위
- OECD 국가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상품수지 흑자 비중을 보였으며 아일랜드,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품수지 흑자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임

[그림 II-144] 서비스업 생산성주 [2008년, 만\$(명목환율)]

28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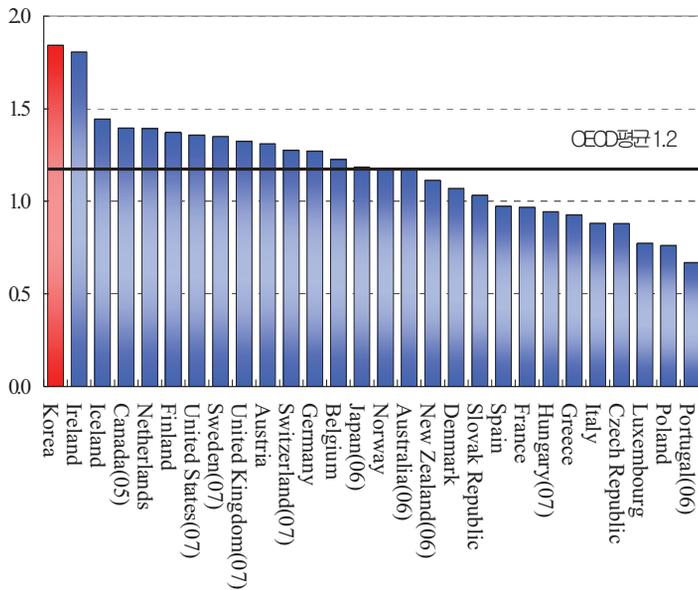


주 : 취업자당 명목부가가치

자료 : OECD

- 우리나라의 2008년 서비스업 생산성(명목환율 기준)은 취업자 1인당 31,590\$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8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보였으며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비스업 생산성을 기록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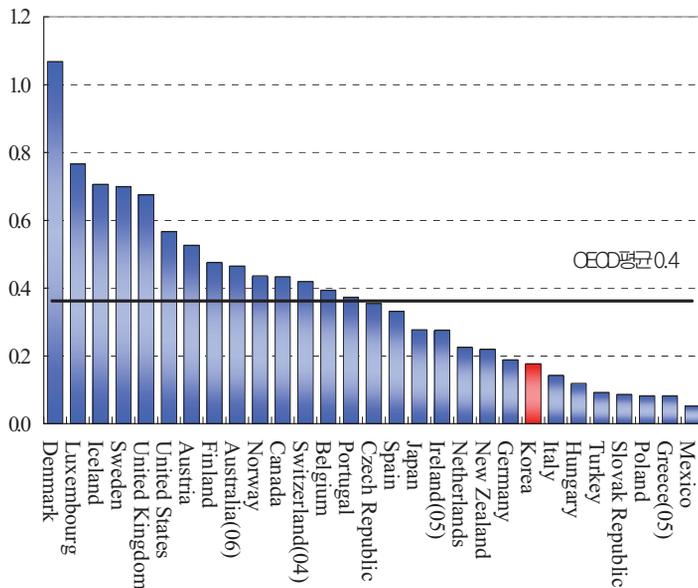
[그림 II-145] 제조업 생산성/서비스업 생산성 [2008년, 배] 28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제조업생산성/서비스업생산성 비율은 1.8배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의미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음

자료 : OECD

[그림 II-146] 서비스업^취 R&D 지출 비중 [2007년, GDP대비 %] 22위/OECD(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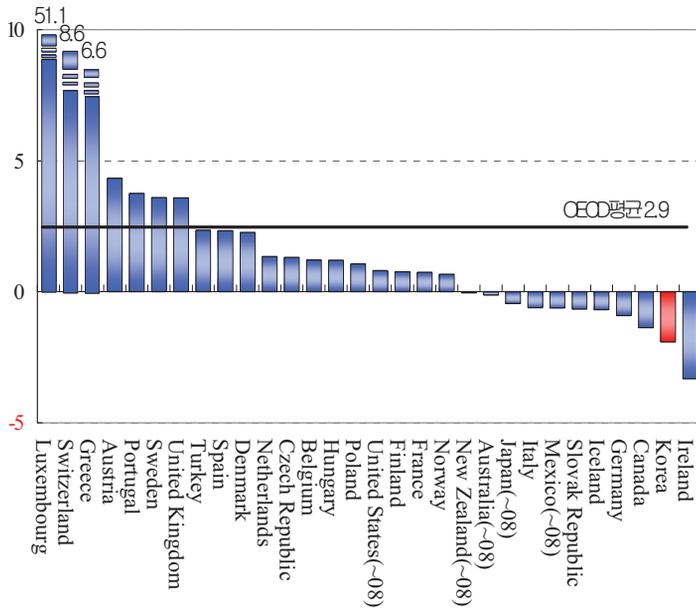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7년 서비스업 R&D 지출은 GDP 대비 0.2%로 조사대상 29개국 중 22위
- OECD 국가 중에서 덴마크가 가장 높은 서비스업 R&D 지출 비중을 보였으며,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뉴질랜드, 독일, 이탈리아 등임

주 : 기업의 R&D투자 기준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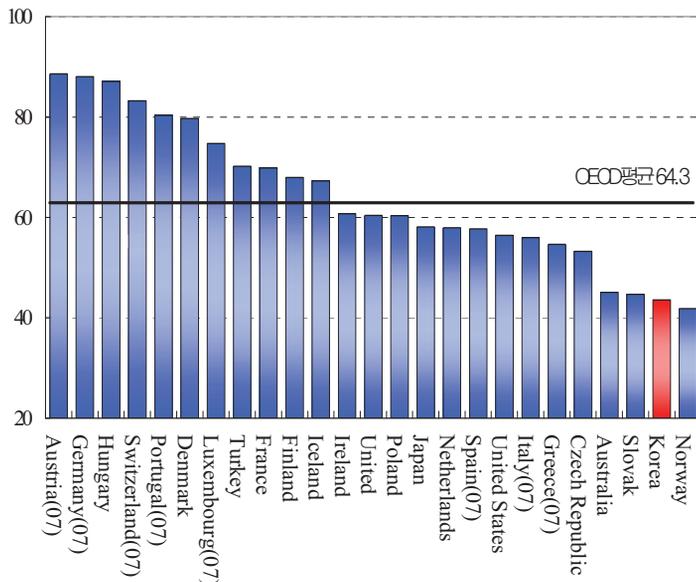
[그림 II-147] 서비스수지 [2007~2009년평균, GDP대비 %] 29위/OECD



자료 : OECD

-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서비스부문의 국제경쟁력 등을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07~2009년 서비스수지는 GDP 대비 1.9% 적자로 OECD 중 29위
- OECD 국가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서비스수지 흑자 비중을 보였으며 스위스, 그리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비스수지 적자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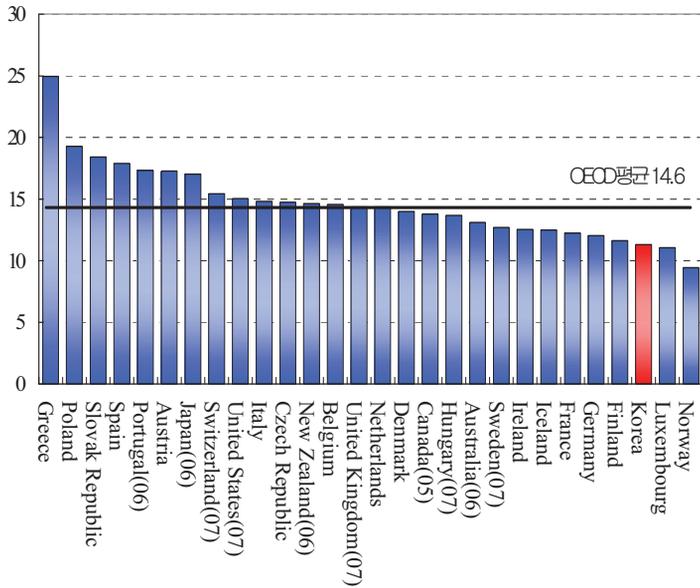
[그림 II-148] 서비스업 FDI비중 [2008년, 전산업대비 %] 24위/OECD(25)



자료 : OECD

- 우리나라의 2008년 서비스업 FDI는 전산업의 43.5%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24위
- OECD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은 서비스업 FDI 비중을 보였으며 독일,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비스업 FDI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호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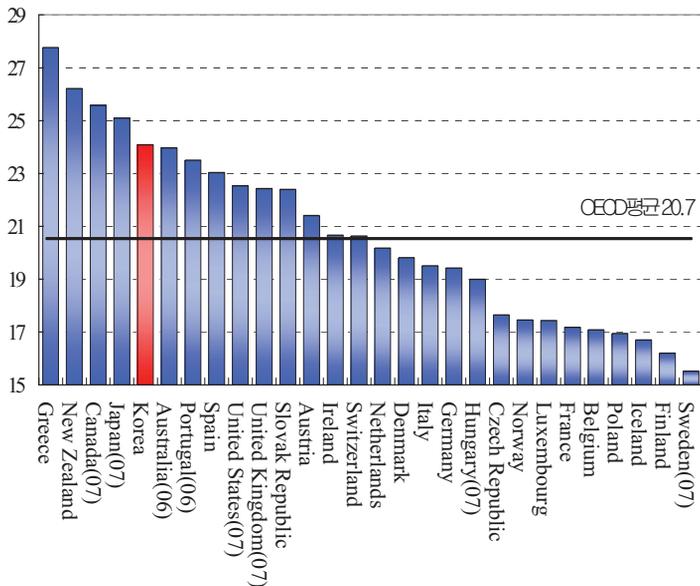
[그림 II-149] 도소매/음식숙박업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26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전산업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11.3%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6위
-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가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을 보였으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50]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비중 [2008년, %] 5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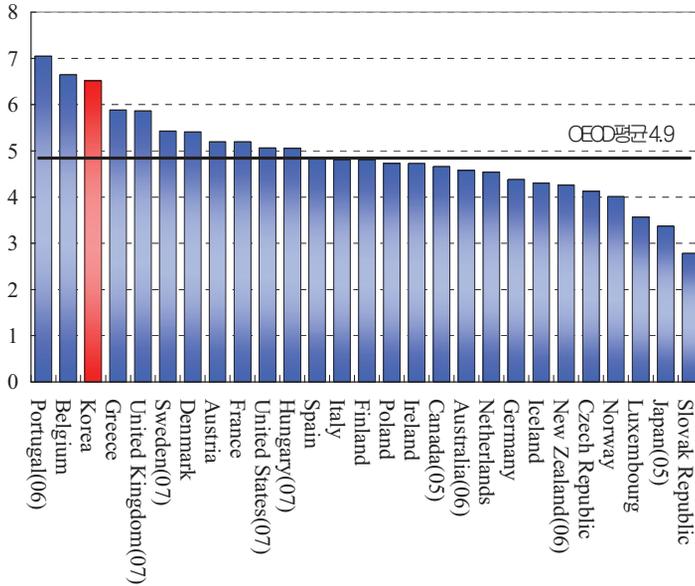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전산업대비 고용 비중은 24.1%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5위
-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가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을 보였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 호주, 포르투갈 등임

자료 : OECD

[그림 Ⅱ-151] 교육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3위/OEC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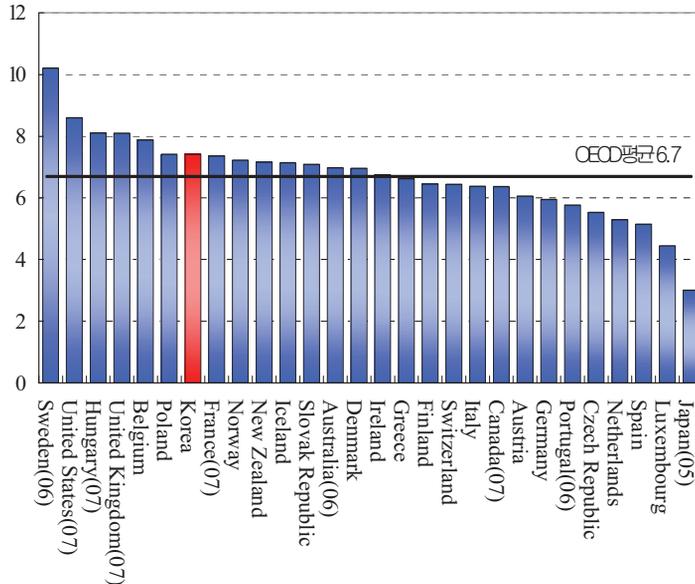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교육서비스업의 전산업대비 부가가치비중은 6.5%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3위
- OECD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이 가장 높은 교육서비스업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벨기에, 우리나라, 그리스,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그림 Ⅱ-152] 교육서비스 고용 비중 [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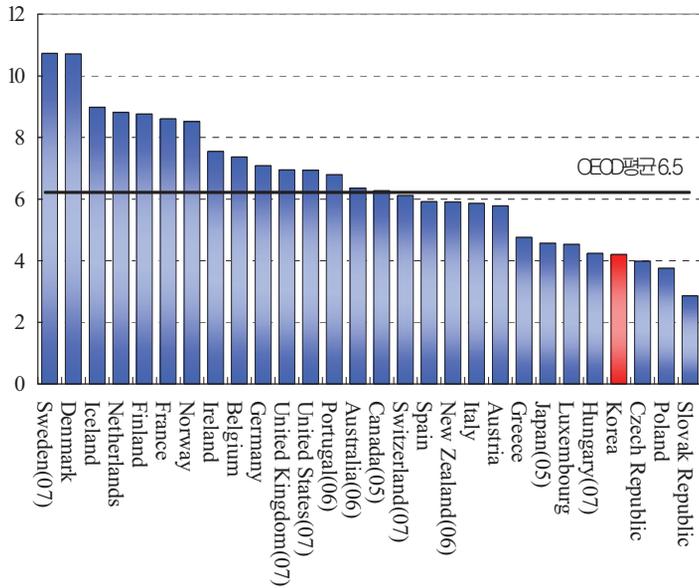
7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교육서비스업의 전산업대비 고용 비중은 7.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7위
- OECD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높은 교육서비스업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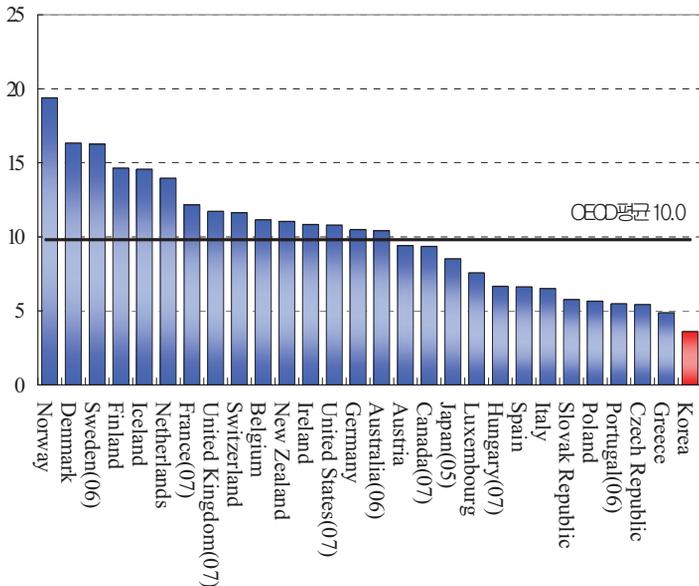
[그림 Ⅱ-153] 보건 및 사회복지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25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전산업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4.2%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5위
- OECD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을 보였으며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헝가리, 체코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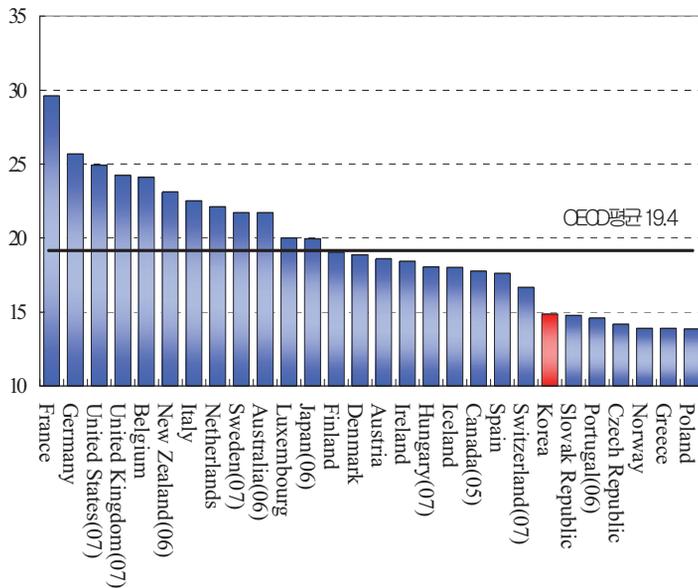
[그림 Ⅱ-154]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 [2008년, %] 28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전산업대비 고용 비중은 3.6%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8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을 보였으며 덴마크,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체코, 그리스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55] 사업서비스업^주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22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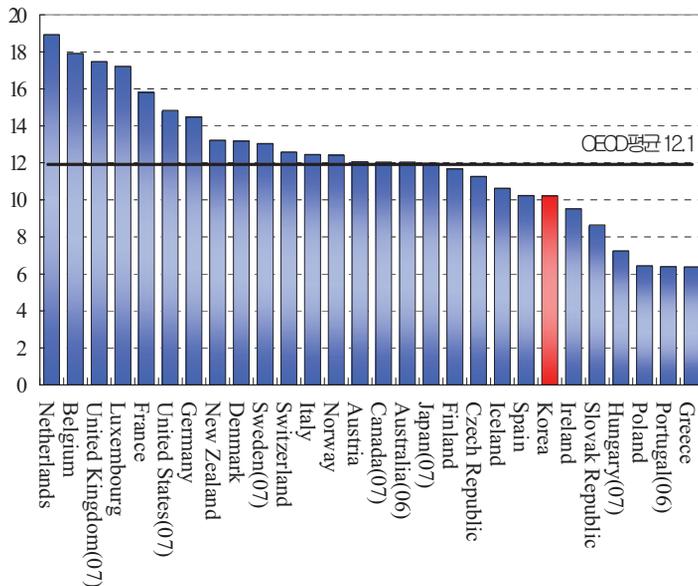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사업서비스업 및 임대업의 전산업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14.9%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2위
-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높은 사업서비스업 및 임대업 비중을 보였으며 독일,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 스위스, 슬로바키아 등임

주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포함

자료 : OECD

[그림 II-156] 사업서비스업^주 고용 비중 [2008년, %] 22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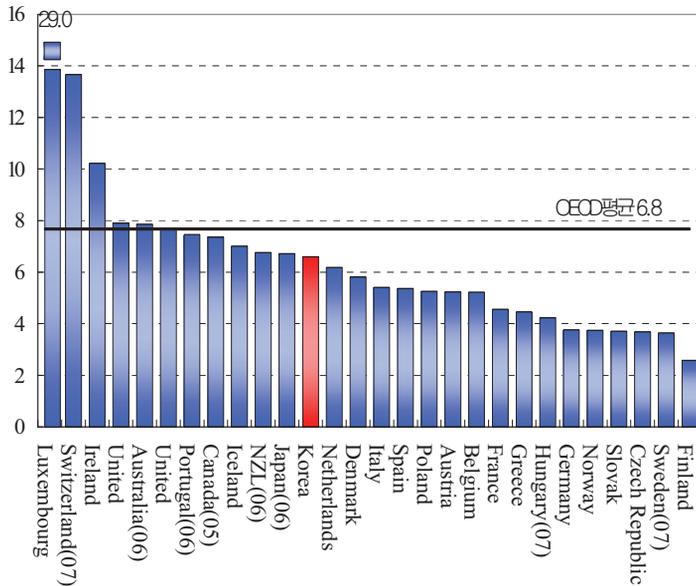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사업서비스업 및 임대업의 전산업대비 고용 비중은 10.2%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2위
- OECD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사업서비스업 및 임대업 비중을 보였으며 벨기에,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등임

주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포함

자료 : OECD

[그림 II-157]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2008년, %]

12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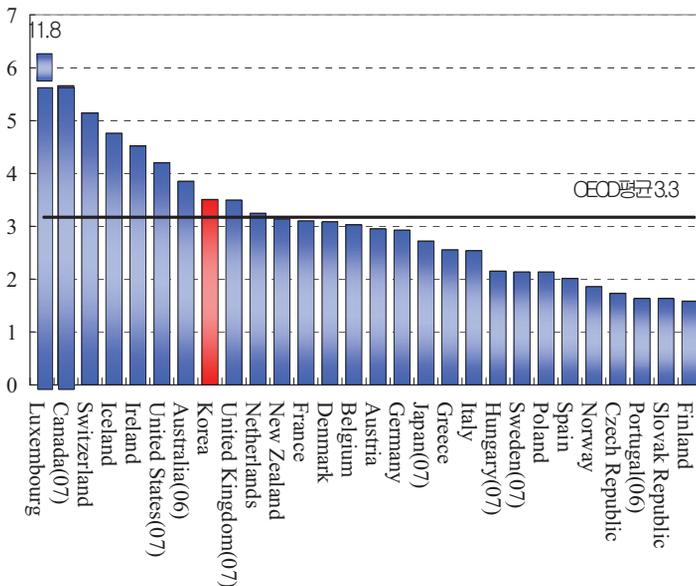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금융업의 전산업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6.6%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12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금융업 비중을 보였으며 스위스,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58] 금융업 고용 비중 [2008년, %]

8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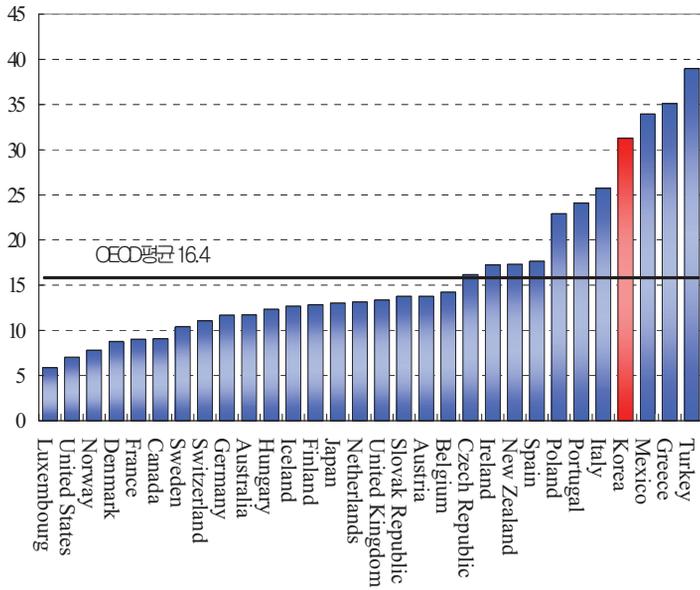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금융업의 전산업대비 고용 비중은 3.5%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8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금융업 비중을 보였으며 캐나다,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호주, 영국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59] 자영업자 고용 비중 [2008년, %]

27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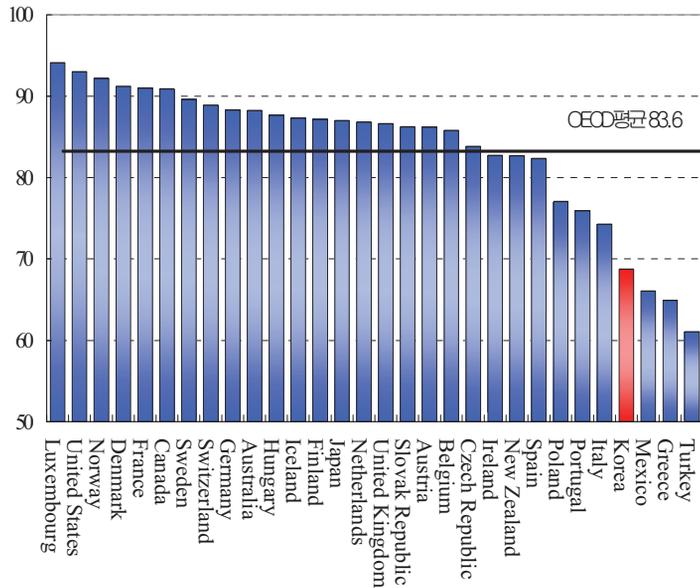


- 영세사업자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짐
- 우리나라의 2008년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OECD중 4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은 자영업자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영업자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멕시코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160] 임금근로자 고용 비중 [2008년, %]

4위/OECD



- 우리나라의 2008년 임금근로자 비중은 68.7%로 OECD중 4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멕시코 등임

자료 : OECD

2. 인프라

2.1. 인적자본

(지표개요)

인적자본은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국가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국민경제의 인적자본은 i) 인적자원 형성의 기초가 되는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정도, ii) 교육 여건 및 성과, iii) 고등교육 이수율 등 인적자원 형성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는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7.0%)이 조사대상 25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28%) 역시 6위(/27개국)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공교육비 지출을 부담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정부가 약 60%(GDP대비 4.2%, 19위/27개국), 민간이 약 40%(GDP대비 2.8%, 1위/25개국)를 부담하고 있다.

교육여건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24.1명) 3번째(/27개국), 중·고등학교(18.2명) 2번째(/29개국)로 높았다. 고등교육 분야의 유학생 순입률(-2.3%)은 25위(/27개국)를 차지하여 고등교육의 질은 좋지 못한 편이다. 한편,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15세 대상)에서 과학은 7위, 수학은 2위를 차지하는 등 중등교육의 성과는 높은 편이다.

인적자원 형성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율(37%)은 5위, 25~34세 젊은 층의 고등교육 이수율(58%)은 1위, 고등교육 이수인구 증가율(5.0%)은 4위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평생학습 참여율(30%)은 19위(/24개국) 수준으로 미흡한 편이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적자원도 풍부한 편이며, 증가율 역시 높아 향후에도 인적자원 형성 측면의 경쟁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교육비 지출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1) 교육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성과가 낮고, 2)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후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학습이 부진한 점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II-15〉 주요 인적자본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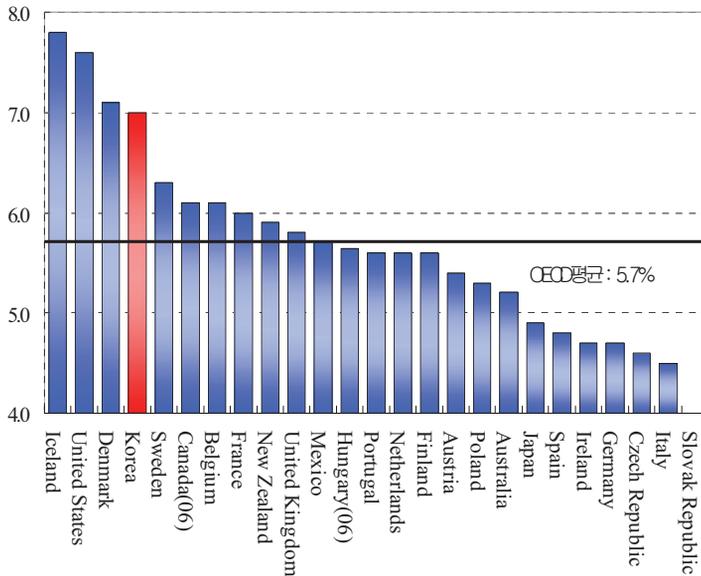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¹⁾	7.0%	4위/25개국	5.7%
- 정부 부담분 ¹⁾	4.2%	19위/27개국	4.9%
- 민간 부담분 ¹⁾	2.8%	1위/25개국	0.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¹⁾	7,325\$	19위/27개국	8,160\$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¹⁾	28%	6위/27개국	25%
고등교육 이수율	37%	5위	28.5%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58%	1위	35.5%
- 고등교육 이수인구 증가율 ²⁾	5.0%	4위	3.4%
평생학습 참여율 ¹⁾	30%	19위/24개국	40.6%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낮은 순서)	24.1명	25위/27개국	15.8명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낮은 순서)	18.2명	28위/29개국	13.1명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	1.3%	25위/27개국	6.6%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	3.5%	8위/27개국	3.5%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	-2.3%	25위/27개국	4.0%
PISA - 과학 ³⁾	522.15점	7위	500점
PISA - 수학 ³⁾	547.46점	2위	497.7점

주 : 1) 2007년 기준

2) 1998~2008년 증가율

3)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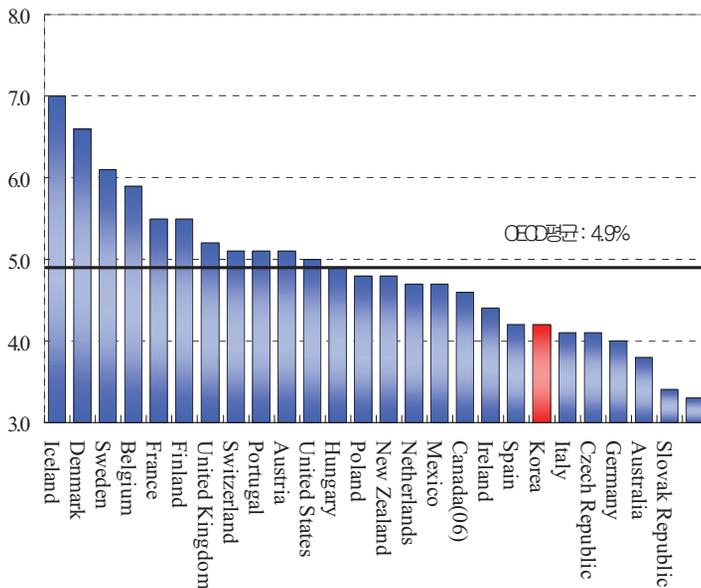
[그림 II-161]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2007년, %] 4위/OECD(25)



-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규모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2007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7.0%로 조사대상 OECD 25개국 중 4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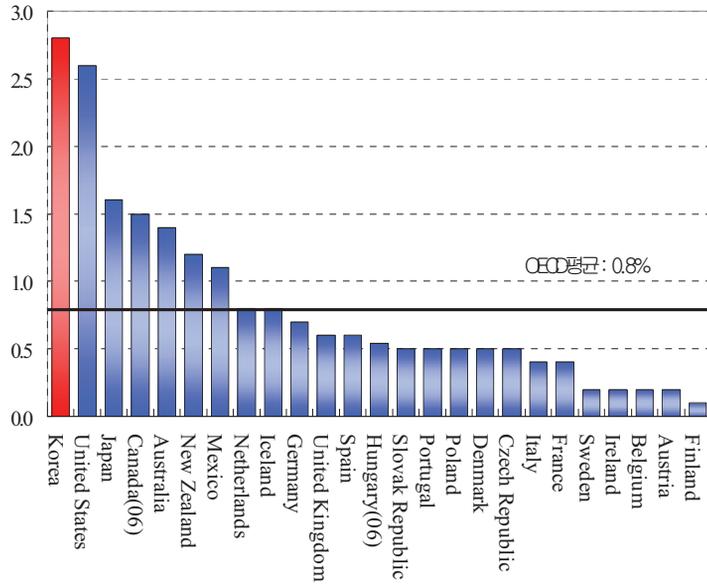
[그림 II-162]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중[2007년, %] 19위/OECD(27)



- 2007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4.2%로 조사대상 OECD 27개국 중 스페인과 함께 19위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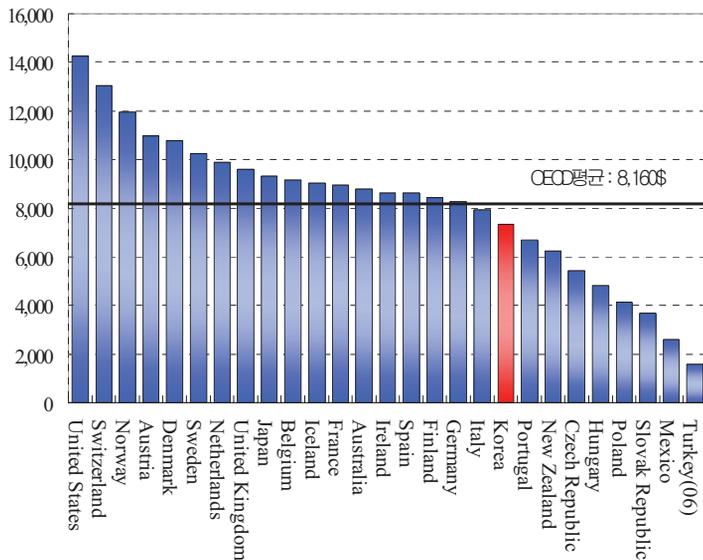
[그림 II-163] GDP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중(2007년, %) 1위/OECD(25)



- 민간부담 공교육비 지출은 ①등록금 등 민간 부담금과 ②학교법인 등의 기타 교육부담금에서 ③정부의 민간 이전금을 제외한 금액
- 2007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2.8%로 조사대상 OECD 2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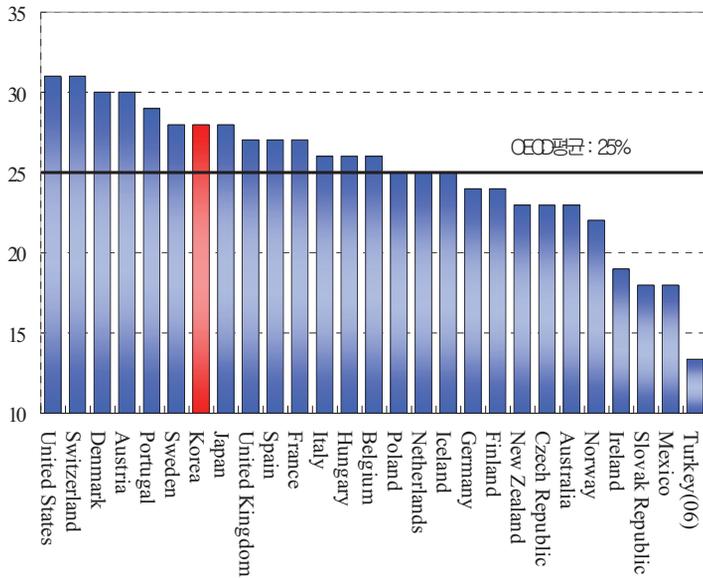
[그림 II-16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2007년, PPP 기준, \$) 19위/OECD(27)



- 2007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7,325\$(PPP 기준)로 조사대상 OECD 27개국 중 19위
- OECD 국가 중 미국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비슷한 국가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임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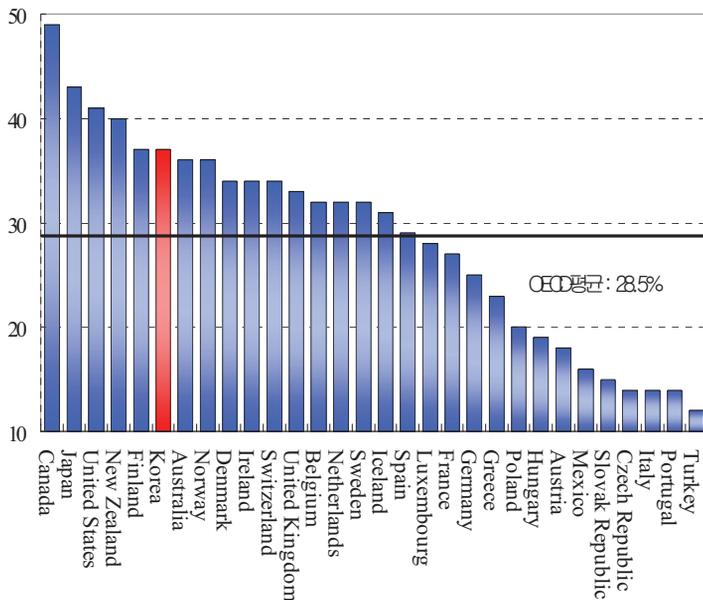
[그림 II-16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2007년 1인당 GDP대비, % 6위/OECD(27)



- 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28%로 조사 대상 OECD 27개국 중 스웨덴, 일본과 함께 6위
- OECD 국가 중 미국이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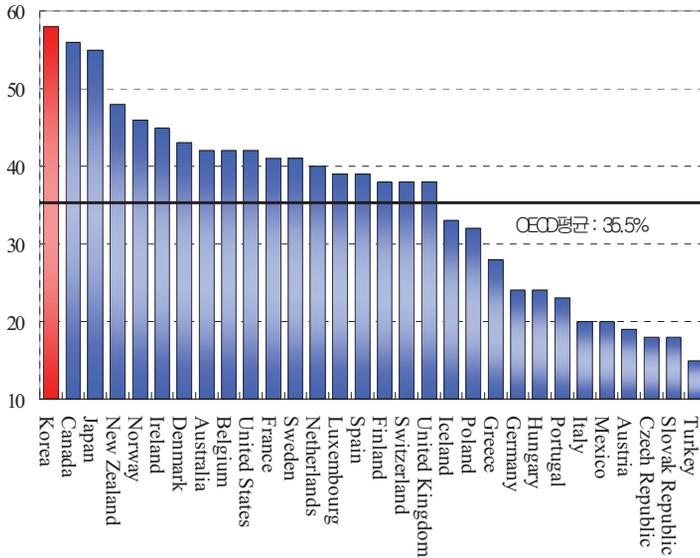
[그림 II-166] 전체(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2008년, %] 5위/OECD



- 고등교육 이수 인구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마친 인력을 의미하며, 이는 인적자본의 우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 2006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7%로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함께 5위
- OECD 국가 중 캐나다가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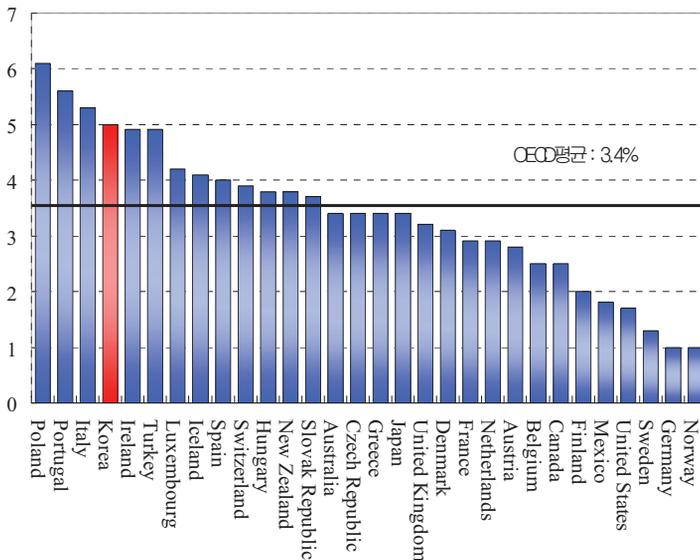
[그림 II-167]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2008년, %) **1위/OECD**



- 25-34세는 구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 인구가 많을수록 기업에서는 고급인력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음
- 2008년 우리나라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중은 5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그림 II-168] 고등교육 이수 인구 증가율(98~08년, %) **4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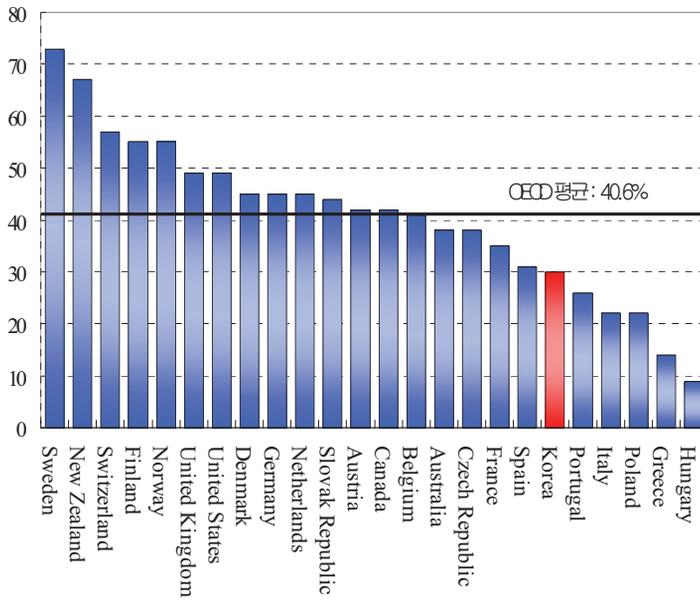


- 98~08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등교육 이수 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국가 중 4위
- OECD 국가 중 폴란드가 고등교육 이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고등교육 이수인구 증가율이 비슷한 국가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임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그림 II-169] 평생학습 참여율[2007년, %]

19위/OECD(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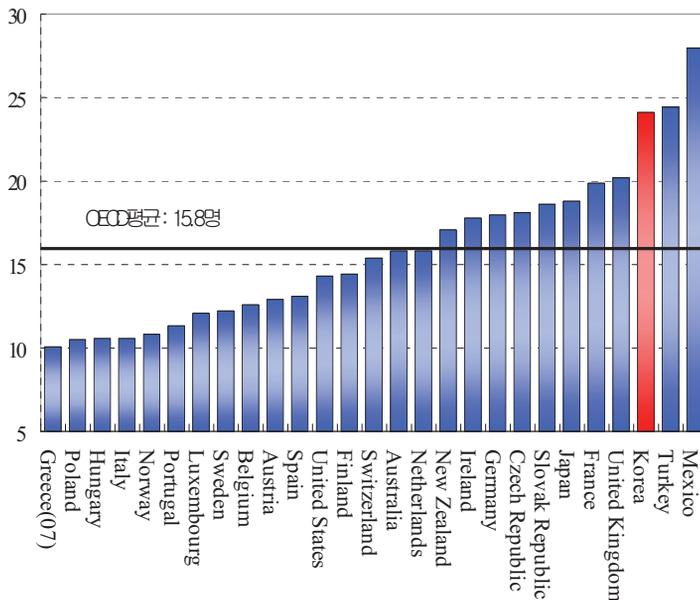


- 과학교육과 지식의 수명 주기 단축, 고령화 등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짐. 평생학습은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의미
-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로 조사대상 OECD 24개국 중 19위
- OECD 국가 중 스웨덴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평생학습 참여율이 비슷한 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임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그림 II-170]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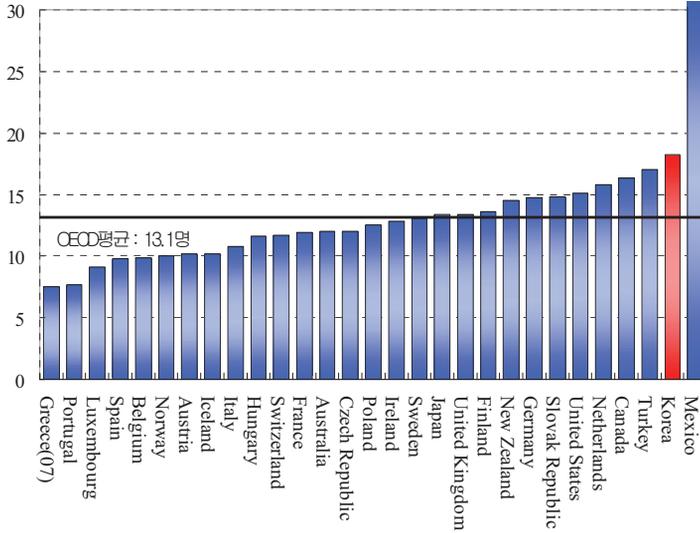
25위/OECD(27)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임
- 2008년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1명으로 조사대상 OECD 27개국 중 3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그리스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었으며, 폴란드,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비슷한 국가는 터키 등임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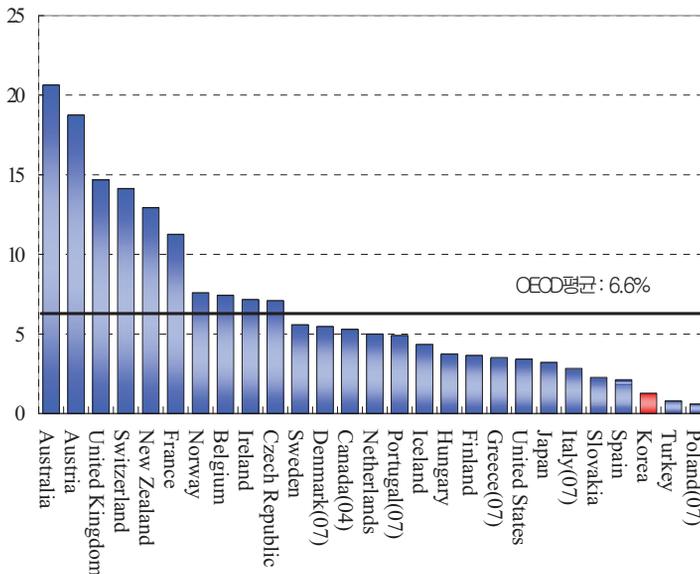
[그림 II-171] 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명] 28위/OECD(29)



- 2008년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부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8.2명으로 조사대상 OECD 29개국 중 2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그리스가 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었으며,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비슷한 국가는 터키 등임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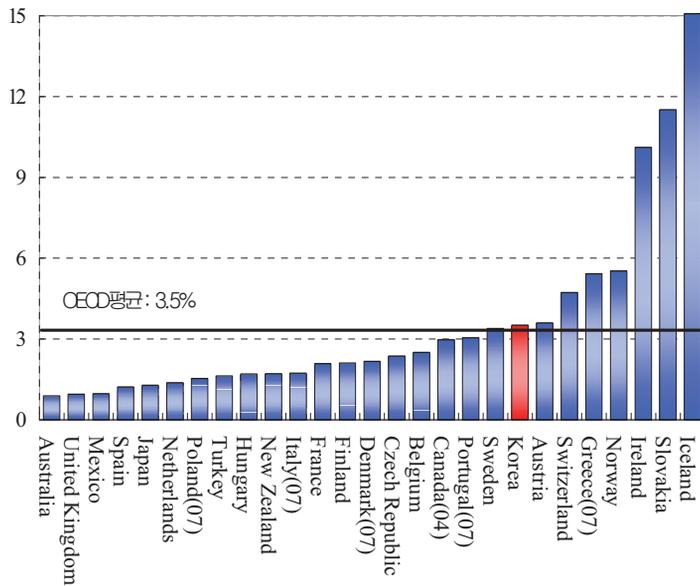
[그림 II-172]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2008년, %] 25위/OECD(27)



-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 정도는 우리나라로 유학 온 유학생 수를 전체 고등교육 학생 수로 나눈 지표로 평가할 수 있음
- 2008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은 1.3%로 조사대상 OECD 27개국 중 25위
- OECD 국가 중 호주가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UNESCO,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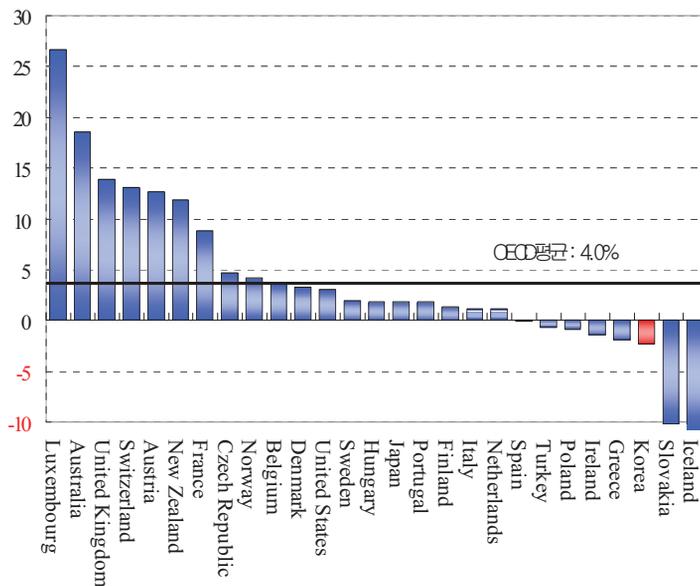
[그림 II-173]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2008년, %] **8위/OECD(27)**



- 2008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은 3.5%로 조사 대상 OECD 27개국 중 8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호주가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영국, 멕시코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임

자료 : UNESCO,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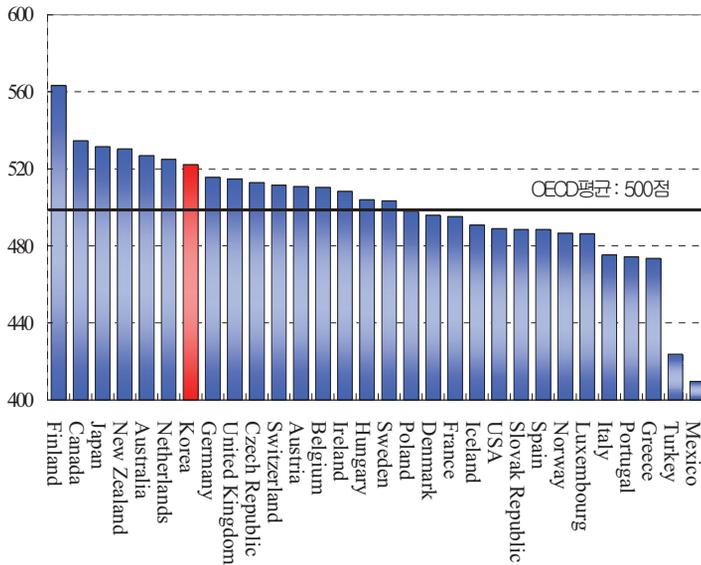
[그림 II-174]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2007년, %] **25위/OECD(27)**



- 2007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은 -2.3%로 조사 대상 OECD 27개국 중 25위
-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주,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페인, 터키 등 8개국은 유입되는 고등교육 유학생보다 유출되는 유학생의 규모가 더 큼

자료 : UNESCO,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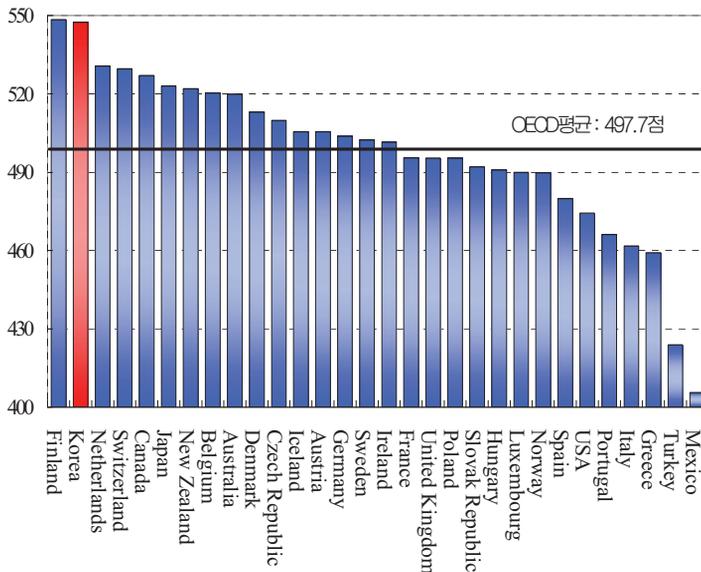
[그림 II-175]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PISA^주)-과학(2006년 점) 7위/OECD



- PISA는 3년 주기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임
- 2006년 우리나라의 과학부문 PISA 성적은 522.15점으로 OECD 국가 중 7위
- OECD 국가 중 핀란드가 과학분야 PISA 성적이 가장 높았으며, 캐나다,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과학분야 PISA 성적이 비슷한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등임

주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 OECD, PISA 2006

[그림 II-176]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PISA)-수학(2006년 점) 2위/OECD



- 2006년 우리나라의 수학부문 PISA 성적은 547.46점으로 OECD 국가 중 2위
- OECD 국가 중 핀란드가 수학분야 PISA 성적이 가장 높았음

자료 : OECD, PISA 2006

2.2. 물적자본

(지표개요)

교통, 통신, 전력 등의 물적 자본은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들로서 물적 자본의 양과 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기업활동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물류의 효율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로보급률(18위)과 및 철도보급률(16위/29개국) 모두 OECD 국가 중 중간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신 분야의 경우 유선전화 보급률(39.9%)은 17위²⁸⁾이나, 유선전화요금(4.7\$)은 가장 낮았다. 전력분야의 경우 공급량(440.5TW/h, 6위)도 우수하고 저렴한 비용(0.06\$/KW/h, 최하위/23개국)으로 공급되고 있다.

(강점 및 약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물적 자본 수준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통신, 전력 분야의 경우 저렴한 비용(명목환율 기준)으로 공급되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II-16〉 주요 물적자본 지표 OECD 순위(2006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도로 보급률 ¹⁾	1.02	18위	1.68
철도 보급률 ²⁾	0.034	16위/29개국	0.049
유선전화 보급률 ³⁾	39.9%	17위	41.5%
유선전화 요금(월) ²⁾ (낮은 순서)	4.7\$	1위	21.3\$
전력 생산량 ²⁾	440.5TW/h	6위	217.38TW/h
전기요금(산업용) ²⁾ (낮은 순서)	0.06\$	1위/23위	0.13\$

주 : 1)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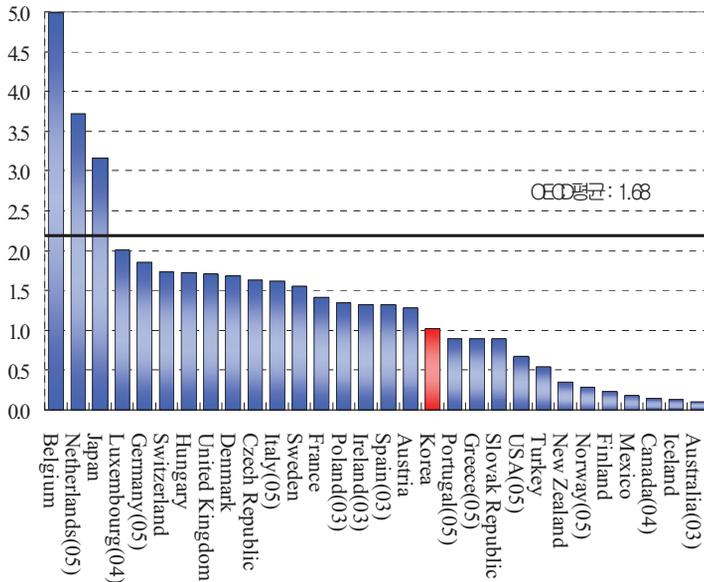
2) 2008년 기준

3) 2009년 기준

28)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 확산에 따라 유선전화 보급률은 정체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ITU)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99.2%를 기록하였다

[그림 Ⅱ-177] 도로 보급률[2006년, km/km²]

1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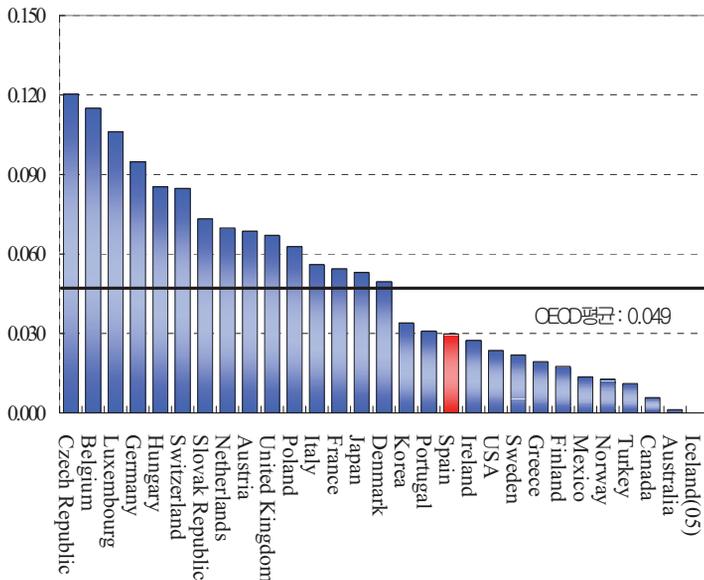


- 도로 보급률은 도로 연장을 국토면적으로 나눈 지표로 추정
- 2006년 우리나라의 도로보급률은 1.02로 OECD 국가 중 18위
- OECD 국가 중 벨기에가 도로보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도로보급률이 비슷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임

자료 : World Road Statistics 2009

[그림 Ⅱ-178] 철도 보급률[2008년, km/km²]

16위/OECD(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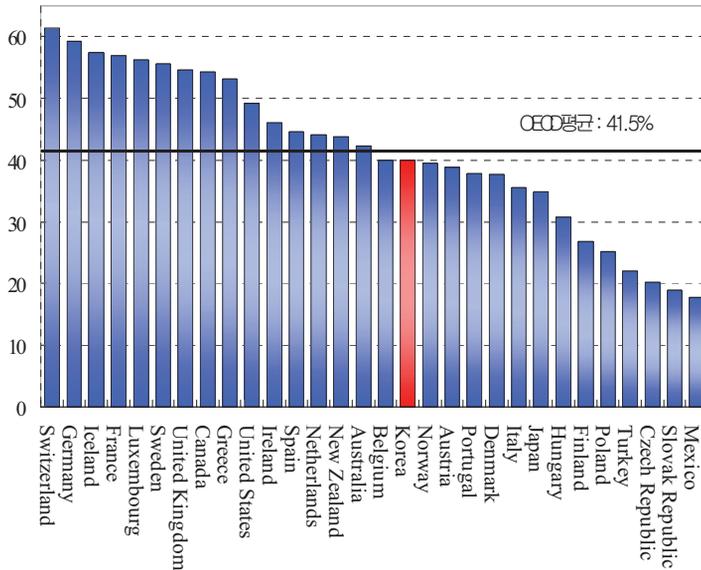


- 철도 보급률은 철도 연장을 국토면적으로 나눈 지표로 추정
- 2008년 우리나라의 철도 보급률은 0.034로 조사대상 OECD 29개국 중 16위
- OECD 국가 중 체코가 철도보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철도보급률이 비슷한 국가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임

자료 : International railways statistics 2008

[그림 II-179] 유선전화 보급률[2009년, %]

17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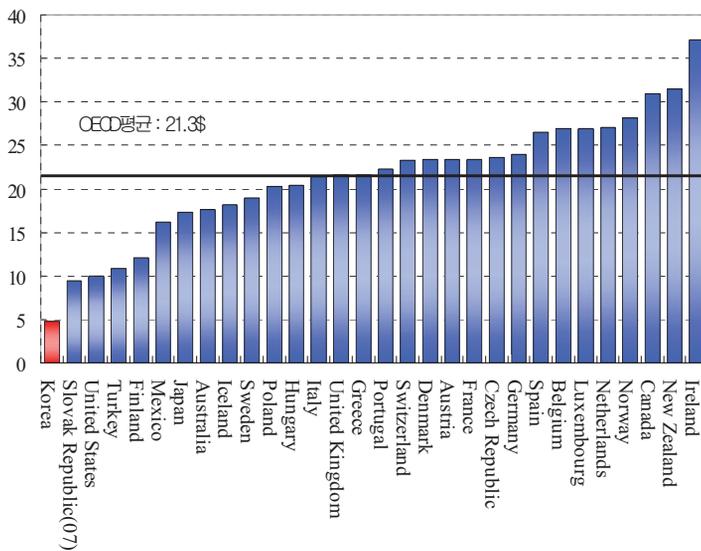


- 유선전화 보급률은 유선전화 회선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누어 계산
- 2009년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39.9%로 OECD 국가 중 17위
- OECD 국가 중 스위스가 유선전화 보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독일, 아이슬란드가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유선전화 보급률이 비슷한 국가는 벨기에, 노르웨이 등임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Database

[그림 II-180] 월 유선전화 요금[2008년, \$]

1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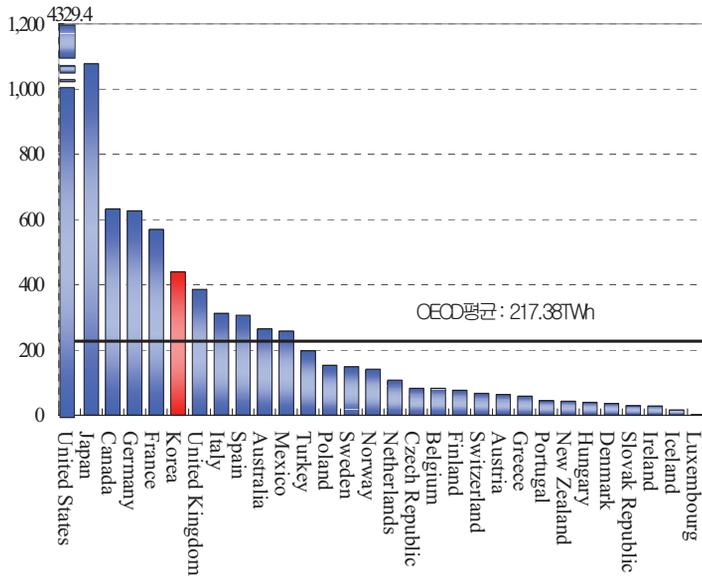


- 2008년 우리나라의 가정용 유선전화의 월 이용요금은 4.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슬로바키아, 미국 등이 뒤를 이음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Database

[그림 II-181] 전력 생산량 2008년, TW/h^{주)}

6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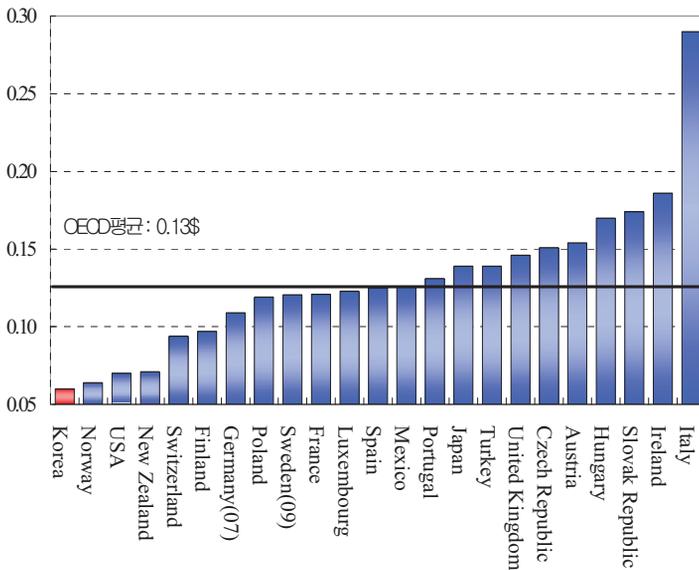


- 2008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생산량은 440.5TW/h로 OECD 국가 중 6위
- OECD 국가 중 미국이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전력 생산량이 비슷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등임

주 : 1TW/h = 10억KW/h
 자료 : OECD, OECD Factbook 2010

[그림 II-182] 전기 요금[2008년, \$]

1위/OECD(23)



- 2008년 우리나라의 Kw/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0.06\$로 조사대상 OECD 23개국 중 가장 낮음
- 노르웨이, 미국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이음

자료 : IEA,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1/2010

2.3. 금융자본

(지표개요)

금융자본은 i)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으로 본 주식시장 규모, ii) 채권발행잔액으로 본 채권시장 규모, iii) 은행 국내신용 비중, BIS자기자본비율 등 은행 규모 및 건전성, iv) 외환거래량으로 구분하여 직접·간접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규모 및 건전성을 평가한다.

(전반적인 순위)

상장주식 시가총액비중(GDP대비 53.2%)은 OECD 국가 중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채권발행잔액비중(130.4%, 6위/29개국)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한편 은행 국내신용비중(112.6%, 20위/28개국)은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등으로 상대적으로 중위권을 보였으며 은행대출의 연체율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1.1%, 10위/28개국)이 낮고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인 BIS자기자본비율(12.3%, 11위/25개국)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일평균 외환거래량(438억\$, 11위)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상장주식 시가총액, 채권발행잔액, 은행의 국내신용, 외환거래량 등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며 은행 무수익여신비율, BIS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주요 금융자본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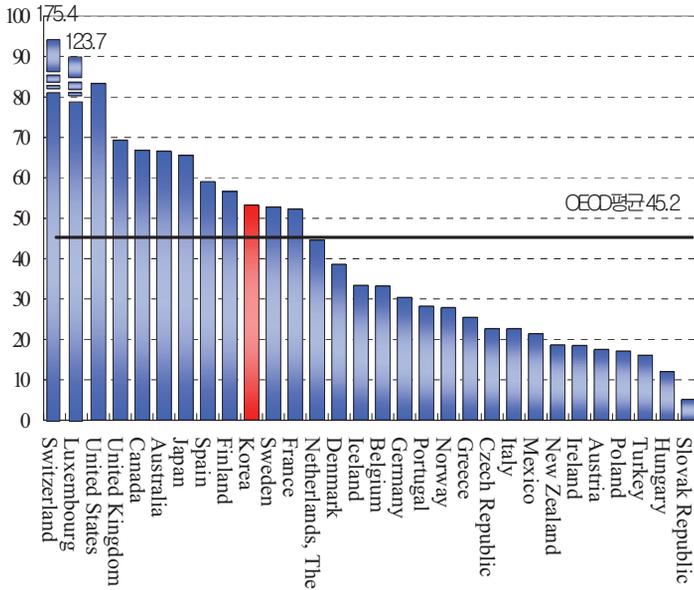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금융규모/건전성			
- 상장주식 시가총액비중	53.2%	10위	45.2%
- 채권 발행잔액비중 ¹⁾	130.4%	6위/29개국	93.8%
- 은행 국내신용비중	112.6%	20위/28개국	143.1%
- 은행 무수익여신비율(낮은 순서)	1.1%	10위/28개국	2.2%
- BIS 자기자본비율	12.3%	11위/25개국	12.4%
- 외환거래량 ²⁾	438억\$	11위	1,455억\$

주 : 1) 2009년 기준

2) 2010년 기준

[그림 II-183]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 [2008년, GDP대비 %]

1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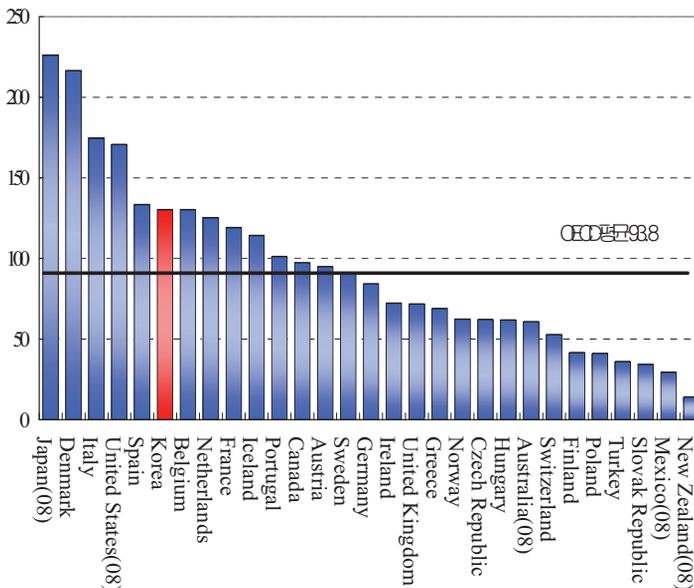


자료 : Worldbank

-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GDP대비)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발달하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함
- 우리나라의 2008년 시가총액 비중은 53.2%로 OECD 중 10위
-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가 가장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보였으며 룩셈부르크,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가총액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등임

[그림 II-184] 채권 발행잔액 비중 [2009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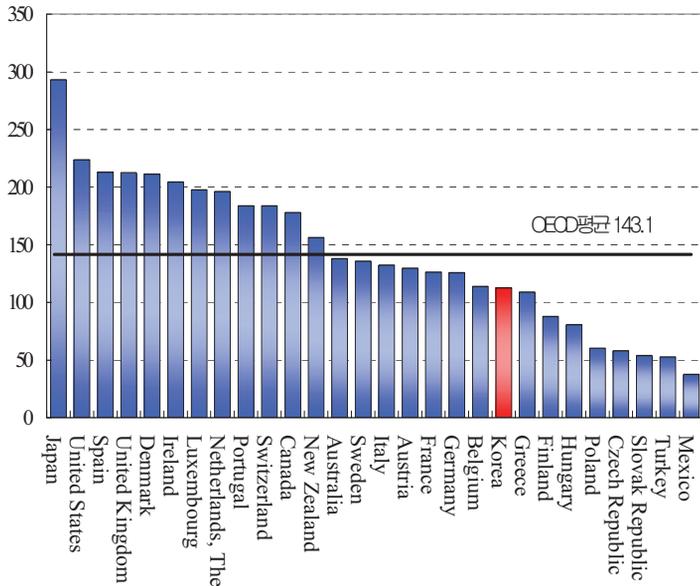
6위/OECD(29)



자료 : BIS

- 채권 발행잔액 비중(GDP대비)이 높을수록 채권시장이 발달하여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자금조달이 용이함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9년 채권 발행잔액 비중(GDP 대비)은 130.4%로 조사 대상 29개국 중 6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덴마크, 이탈리아,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채권 발행잔액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스웨덴, 벨기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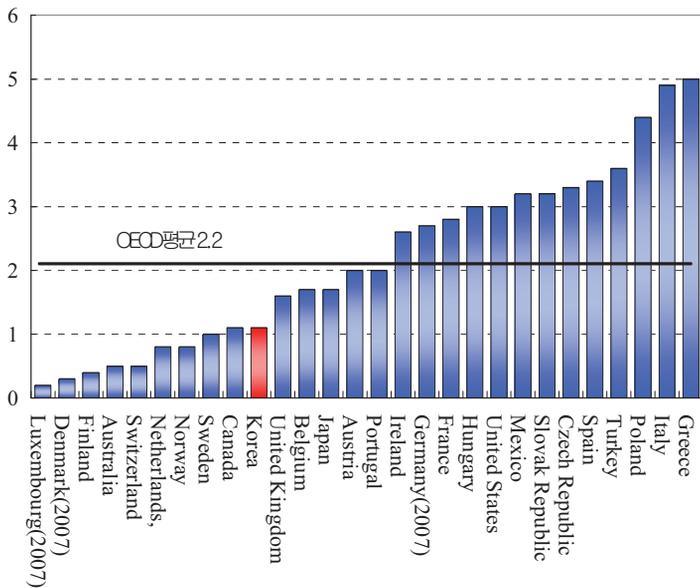
[그림 II-185] 은행 국내신용 비중 [2008년 GDP대비 %] 20위/OECD(28)



자료 : Worldbank

- 은행신용 비중(GDP 대비)이 높을수록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함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8년 은행 국내신용 비중(GDP대비)은 112.6%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0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은행신용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 스페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은행신용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 벨기에, 그리스 등임

[그림 II-186] 은행 무수익여신비율 [2008년, %] 10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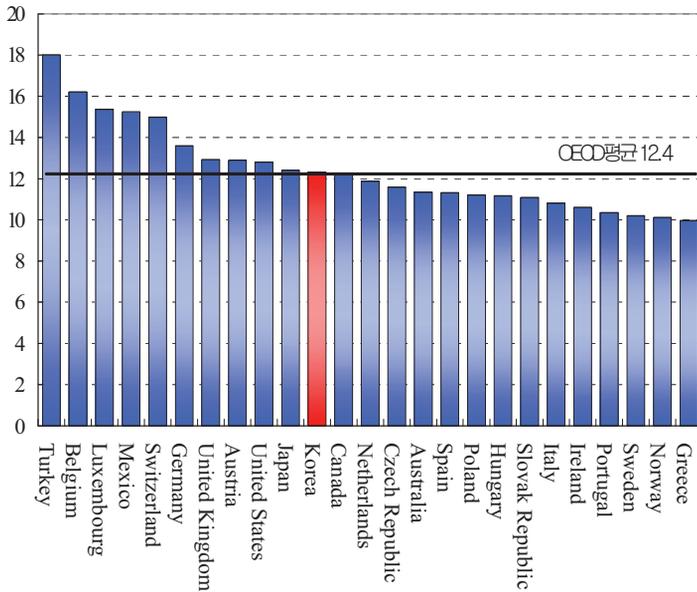


자료 : Worldbank

- 무수익여신비율은 연체, 부도 등으로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 우리나라의 2008년 무수익여신비율은 1.1%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10위
-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은 무수익여신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덴마크,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스웨덴, 캐나다, 영국 등임

[그림 II-187]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2008년, %]

11위/OEC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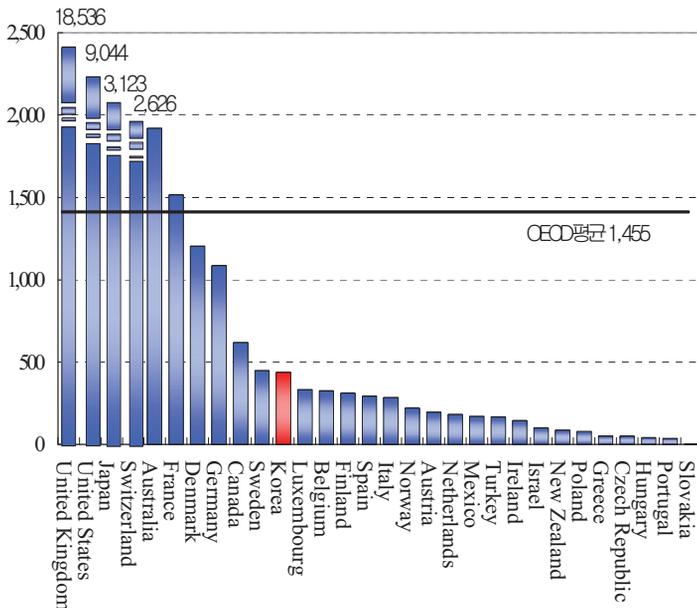


자료 : IMF

- 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을 감안한 자산규모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서, 동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의 건전성이 하락
- 우리나라의 2008년말 BIS자기자본비율은 12.3%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11위
- OECD 국가 중에서 터키가 가장 높은 BIS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임

[그림 II-188] 외환거래량 [2010년, 일평균, 백만\$]

11위/OECD



자료 : BIS

- 외환거래량*이 많을수록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외화 환전이 용이해져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
- * 현물환, 선물환 및 외환스왑거래 등 전통적 외환거래 기준
- 우리나라의 2010년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438억\$로 OECD 중 11위
- OECD 국가 중에서 영국이 가장 높은 외환거래량을 보였으며 미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환거래량을 기록한 국가는 캐나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임

2.4. 사회적자본

(지표개요)

사회적자본은 i) 신뢰지수, 공정성지수 등 신뢰, ii) 부패지수, iii) 공식·비공식 교류비중 등 네트워크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신뢰지수(13위/19개국)는 중하위에 속한 반면, 이방인에 대한 신뢰(15위/17개국)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공정성지수(4위/18개국)²⁹⁾와 공공기관 신뢰도(10위/18개국)는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자원봉사자비중(21.3%, 16위/28개국)과 사회지원비중(41.6%, 17위/28개국)도 OECD 중위권 수준이다.

한편 부패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22위로 낮은 순위를 보였으며 네트워크면에서는 비공식적 교류비중(0.40, 12위/18개국)의 순위가 공식적 교류비중(0.11, 16위/18개국)의 순위보다 크게 높았다.

(강점 및 약점)

우리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낮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신뢰지수, 공공기관 신뢰도는 OECD 중간순위에 근접하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반면, 부패지수가 높고, 비공식적 교류비중의 순위에 비해 공식적 교류비중의 순위가 낮은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29) 다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중앙일보, '10.9.20일 발표) 결과 우리나라민의 73.0%가 한국사회를 (매우)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여론조사의 특성상 방법, 시기, 비교대상 등에 따라 유사한 항목에 대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18〉 주요 사회적자본 지표 OECD순위(2004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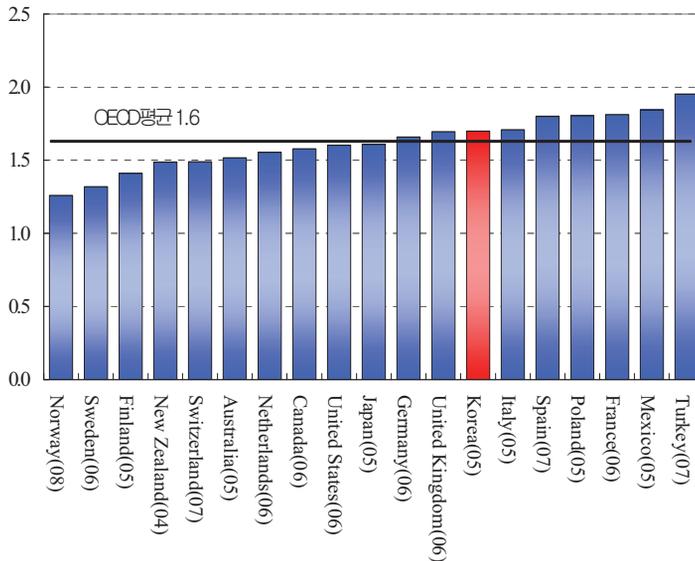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신뢰			
- 신뢰지수	1.7	13위/19개국	1.6
- 이방인에 대한 신뢰	4.00	15위/17개국	3.42
- 공정성 지수 ¹⁾	6.65	4위/18개국	6.06
- 공공기관 신뢰도	2.66	10위/18개국	2.64
- 자원봉사자 비중 ²⁾	21.3%	16위/28개국	23.8%
- 사회지원 비중 ²⁾	41.6%	17위/28개국	46.5%
부패지수 ²⁾	5.5	22위	7.0
네트워크			
- 공식적 교류비중	0.11	16위/18개국	0.24
- 비공식적 교류비중	0.40	12위/18개국	0.45

주 : 1) 2005년 이후

2) 2008년 기준

[그림 II-189] 신뢰 지수^주 [2004년 이후]

13위/OEC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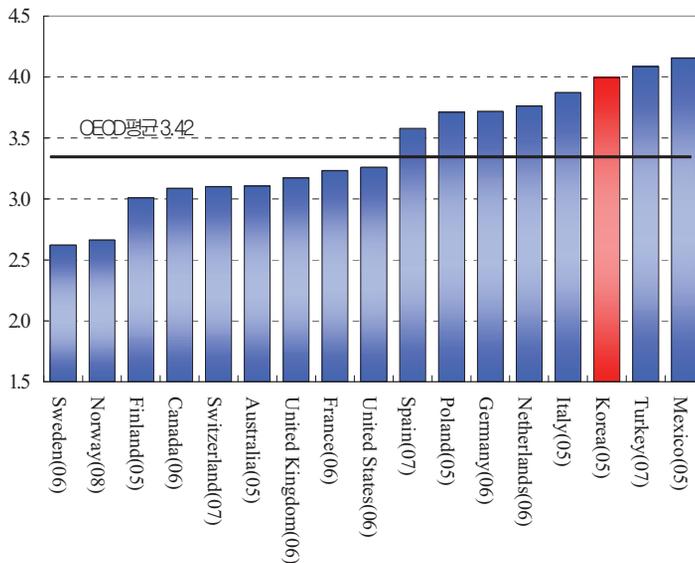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1.7로 조사대상 19개국 중 13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으며, 스웨덴,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신뢰수준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임

주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긍정 1, 부정 2)
 자료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그림 II-190] 이방인에 대한 신뢰^주 [2004년 이후]

15위/OECD(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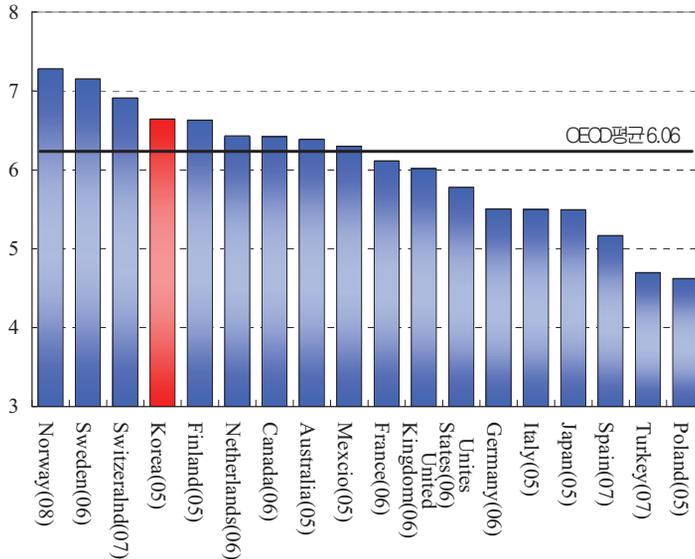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이방인에 대한 신뢰지수는 4.0으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15위
- OECD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높은 이방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보였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방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기록한 국가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임

주 :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완전히 신뢰함 1, 전혀 신뢰하지 않음 4)
 자료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그림 II-191] 공정성 지수^주 [2005년 이후]

4위/OECD(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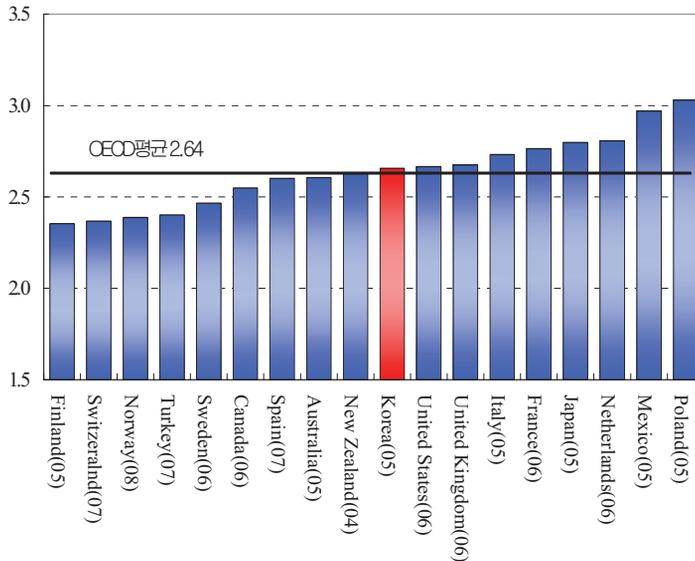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공정성 지수는 6.65로 조사 대상 18개국 중 4위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공정성 지수를 보였으며 스웨덴, 스위스, 우리나라,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1: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People would try to take advantage of you)
 10: 사람들이 당신을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People would try to fair)
 자료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그림 II-192] 공공기관 신뢰도^주 [2004년 이후]

10위/OECD(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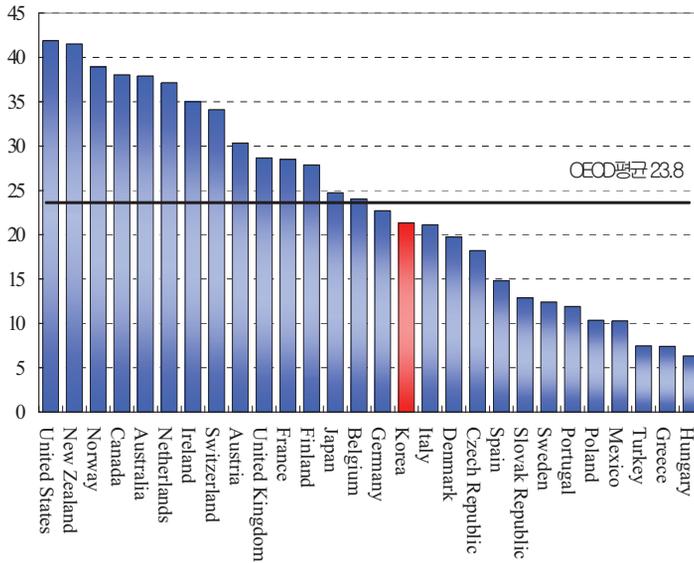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신뢰도는 2.66으로 조사대상 18개국 중 10위
-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 신뢰도를 보였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공기관 신뢰도를 기록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임

주 : 정부, 경찰, 국회, 정당에 대해 신뢰하는지 여부를 측정
 (매우 많이 신뢰함 1, 전혀 신뢰하지 않음 4)
 자료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그림 II-193] 자원봉사자 비중^{주)} [2008년, %]

16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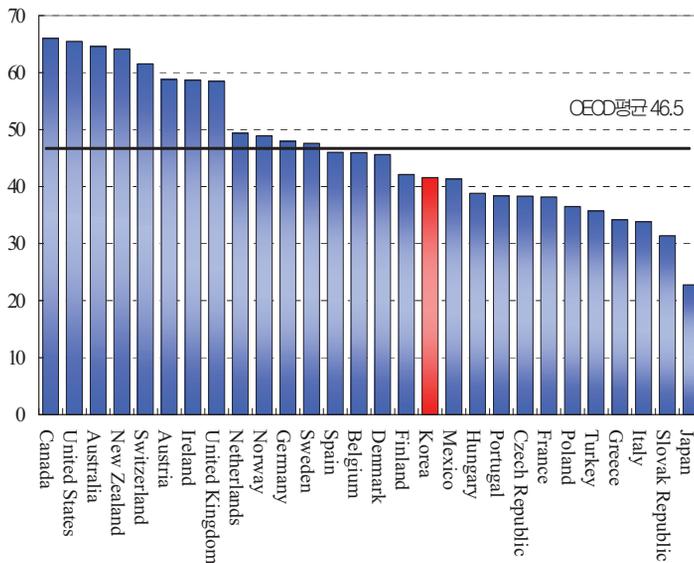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자원봉사자 비중은 21.3%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16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자원봉사자 비중을 보였으며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임

주 : 전월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
 자료 : OECD

[그림 II-194] 사회지원 비중^{주)} [2008년, %]

17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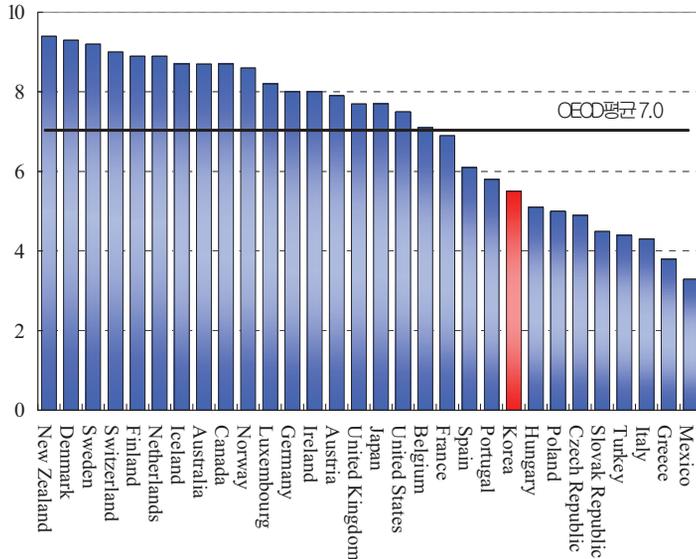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사회지원 비중은 41.6%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17위
-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높은 사회지원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등임

주 : 전월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
 자료 : OECD

[그림 II-195] 부패 지수^{주)} [2009년]

2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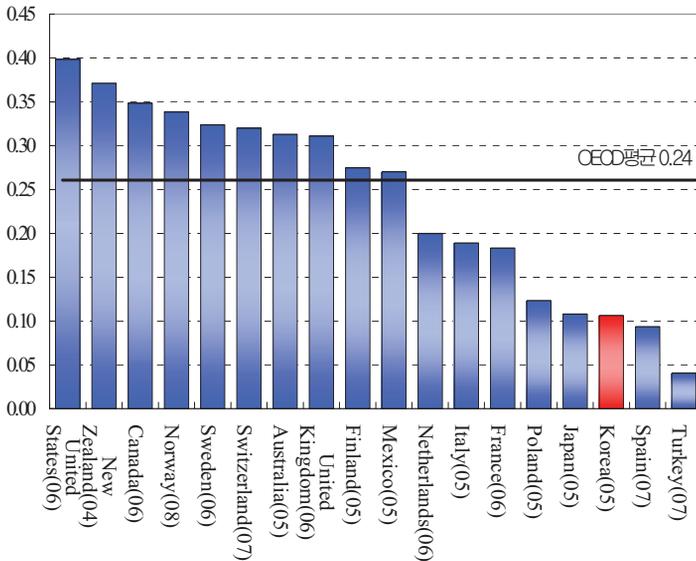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부패지수는 5.5로 OECD중 22위
-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가 가장 양호한 부패지수를 보였으며, 덴마크,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패지수를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등임

주 : 부패지수는 공무원, 정치인 등 국가지도층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하며, 0~10점 사이의 값을 가짐(낮을수록 부패)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그림 II-196] 공식적 교류 비중^{주)} [2004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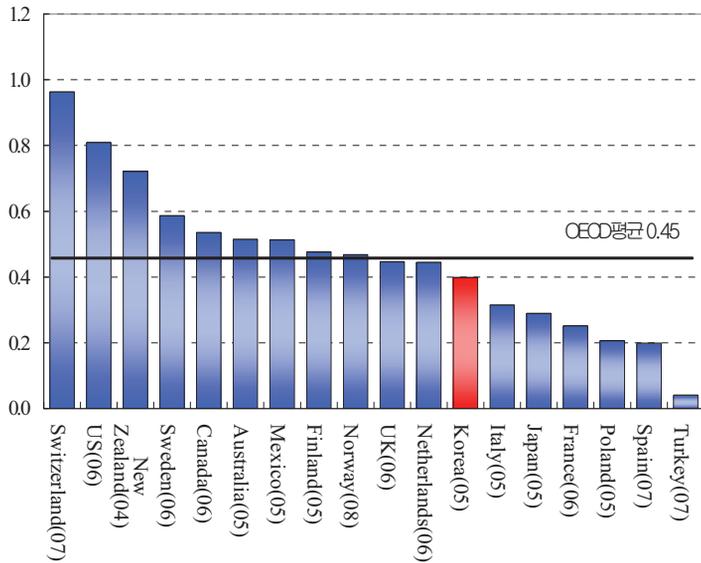
16위/OECD(18)



- 우리나라의 공식적 교류 비중은 0.11로 조사대상 18개국 중 16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공식적 교류 비중을 보였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폴란드, 일본, 스페인 등임

주 :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 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적극적 활동(2), 소극적 활동(1), 참여하지 않음(0)으로 구분하여 측정
 자료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그림 Ⅱ-197] 비공식적 교류 비중^주 [2004년 이후] 12위/OECD(18)



- 우리나라의 비공식적 교류 비중은 0.40으로 조사대상 18개국 중 12위
- OECD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높은 비공식적 교류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 뉴질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임

주 : 취미, 종교, 동호회 등 비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적극적 활동(2), 소극적 활동(1), 참여하지 않음(0)으로 구분하여 측정
 자료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2.5. 부존 자원

(지표개요)

부존자원은 i) 국토면적, 인구밀도, ii) 원유·천연가스 매장량과 금·은·철광석 생산량, iii) 식량자급률 및 1인당 담수량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국토면적(96,920km²)은 OECD 19위로 중위권인 데 반해 인구밀도(490명/km²)는 가장 높다. 자원은 원유(4,520만배럴, 22위/22개국), 천연가스(1,750억ft³, 20위/23개국) 등의 매장량이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금생산량(200kg, 13위/14개국), 은생산량(1,500kg, 14위/17개국), 철광석생산량(291,000톤, 13위/16개국) 등 광물자원의 생산량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자급률(0.5배, 27위)과 1인당 담수량(1,338m³/명, 24위)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강점 및 약점)

원유매장량, 식량 자급률, 1인당 담수량 등 대부분의 부존자원은 빈약하고 인구가 많은 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다.

〈표 II-19〉 주요 부존자원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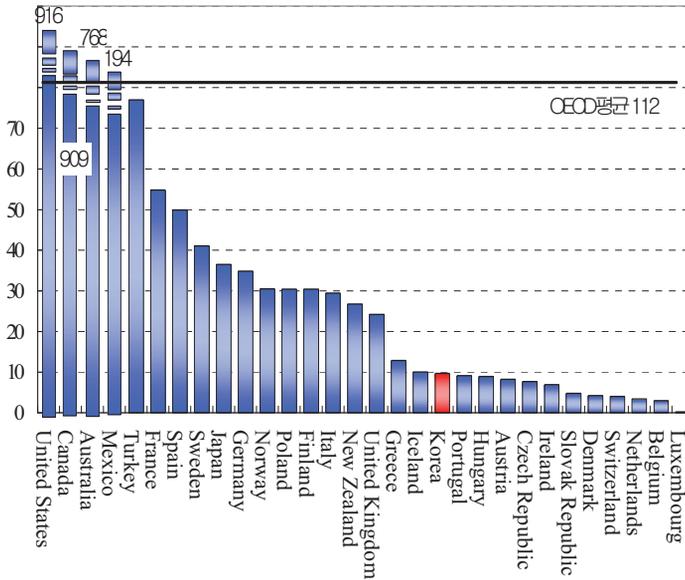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국토			
- 국토면적 ¹⁾	96,920km ²	19위	112만km ²
- 인구밀도 ¹⁾ (낮은 순서)	490명/km ²	30위	135명/km ²
자원			
- 원유 확인매장량	4,520만배럴	22위/22개국	10,191백만배럴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750억ft ³	20위/23개국	219,460억ft ³
- 금 생산량	200kg	13위/14개국	45,814kg
- 은 생산량	1,500kg	14위/17개국	497,800kg
- 철광석 생산량 ²⁾	291천톤	13위/16개국	27,232천톤
1인당 담수량 ²⁾	1,338m ³ /명	24위	30,983m ³ /명
식량자급률 ²⁾	0.5배	27위	0.9배

주 : 1) 2008년 기준

2) 2007년 기준

[그림 II-198] 국토 면적 [2008년, 1만km²]

19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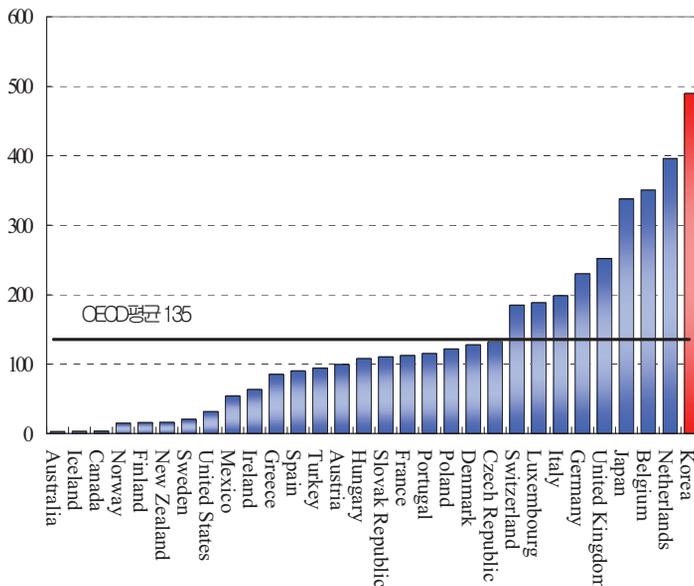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국토면적은 96,920km²로 OECD 중 19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넓은 국토면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토면적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임

자료 : Worldbank

[그림 II-199] 인구밀도 [2008년, 명/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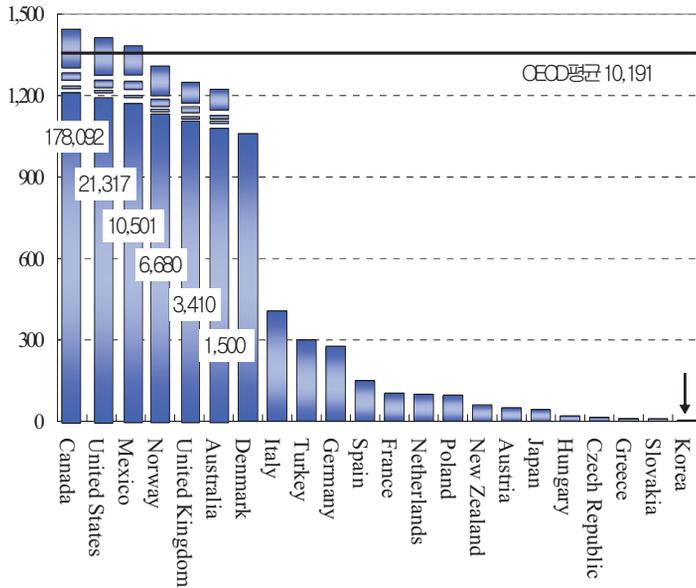
1위/OECD



- 우리나라의 2008년 인구밀도는 국토면적 1km²당 490명으로 OECD 중 1위
-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보였으며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밀도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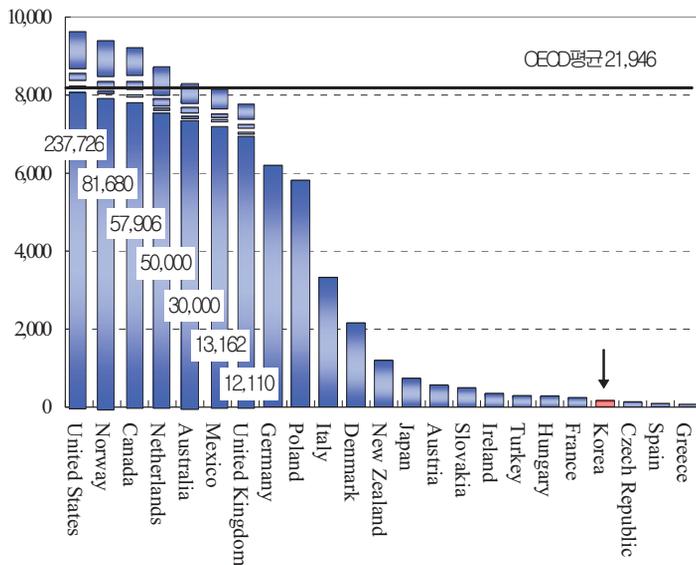
[그림 II-200] 원유 확인매장량주 [2009년초, 백만배럴] 22위/OECD(22)



- 우리나라는 약 4,520만 배럴의 추정매장량을 보유하여 조사대상 22개국 중 22위
-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큰 원유매장량을 보유하였으며 미국,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oil sand 포함 기준 자료 : Oil and Gas Journal, 지식경제부

[그림 II-201] 천연가스 매장량주 [2009년초, 10억ft³] 20위/OECD(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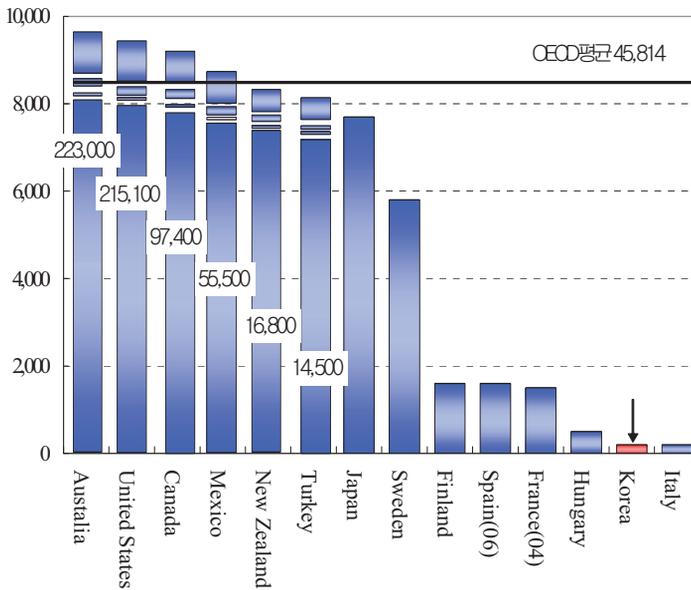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초 천연가스 매장량은 1,750억ft³(입방피트)로 조사대상 23개국 중 20위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였으며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기록한 국가는 헝가리, 프랑스, 체코 등임

주 : 확인매장량 기준, 우리나라는 예상 가체매장량 기준
 자료 : Oil and Gas Journal, 한국석유공사

[그림 II-202] 금 생산량 [2009년, kg]

13위/OECD(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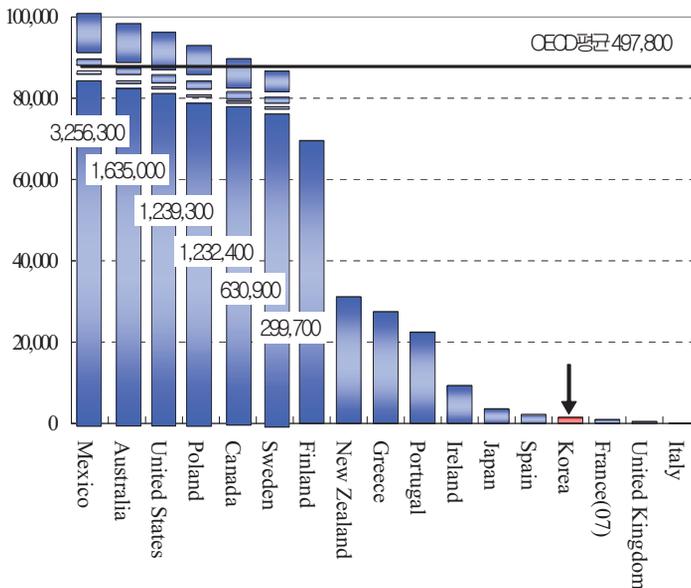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금 생산량은 200kg으로 조사대상 14개국 중 13위
-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큰 금 생산량을 보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 생산량을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임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림 II-203] 은 생산량 [2009년, kg]

14위/OECD(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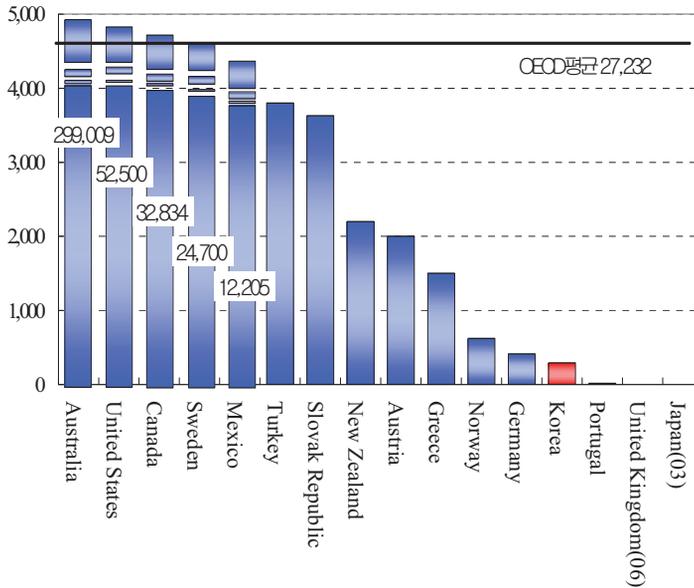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은 생산량은 1,500kg으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14위
-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큰 은 생산량을 보였으며 호주,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은 생산량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임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림 II-204] 철광석 생산량 [2007년, 천톤]

13위/OECD(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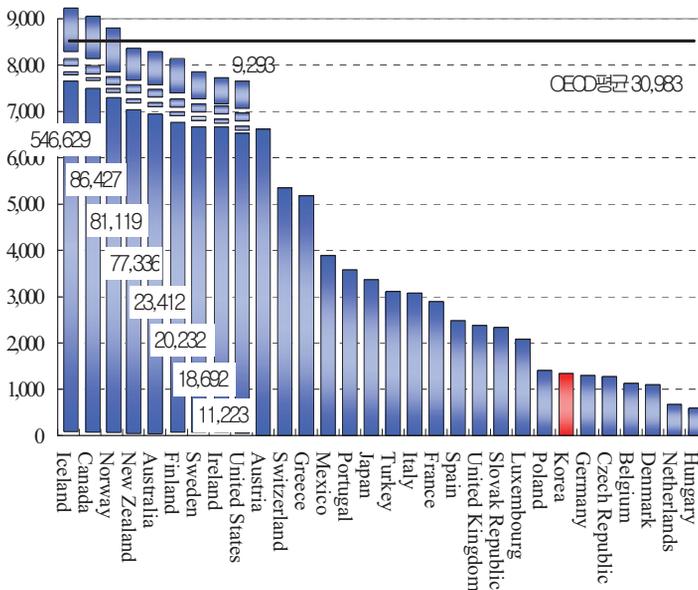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7년 철광석 생산량은 291,000톤으로 조사대상 16개국 중 13위
-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큰 철광석 생산량을 보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철광석 생산량을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등임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림 II-205] 1인당 담수량 [2007년, 명당 1m³/명]

24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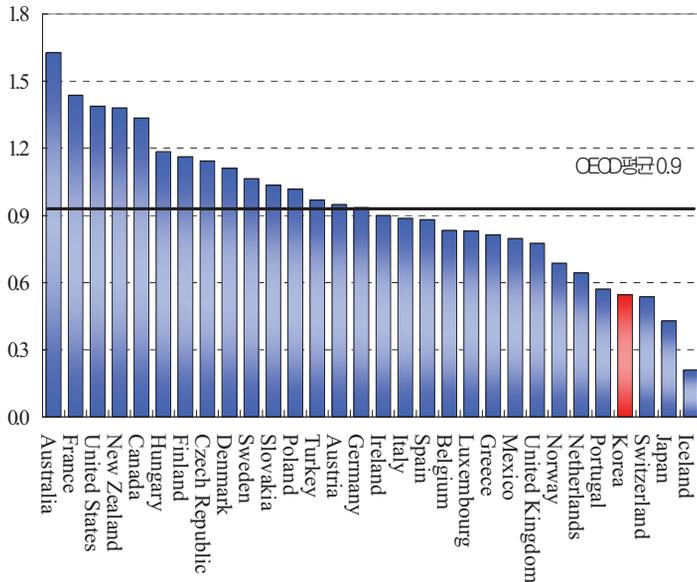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7년 담수량은 국민 1인당 1,338m³로 OECD중 24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많은 1인당 담수량을 보였으며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담수량을 기록한 국가는 폴란드, 독일 등임

자료 : UNFAO

[그림 Ⅱ-206] 식량^{주)} 자급률 [2007년, 배]

27위/OECD



- 식량자급률은 식량의 국내소비량대비 국내 생산량의 비중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7년 식량자급률은 0.5배로 OECD중 27위
-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높은 식량자급률을 보였으며 프랑스,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량자급률을 기록한 국가는 포르투갈, 스위스 등임

주 : 곡물, 채소 및 육류 기준

자료 : UNFAO

3. 사회 통합

(지표개요)

사회통합은 i) 복지 및 연금지출 수준, ii) 소득불평등 정도, iii) 기대수명 및 보건, iv) 안전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전반적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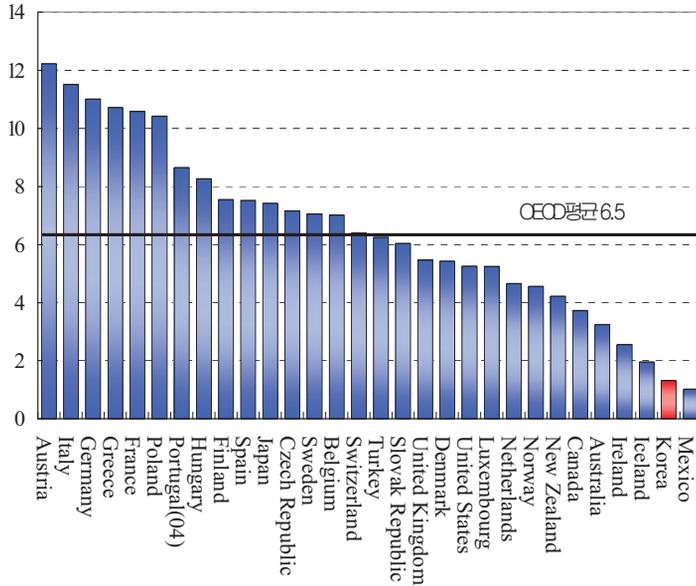
공적 연금지출(1.3%, 29위)은 낮은 고령인구 비율, 연금제도의 짧은 역사(1988년 국민연금 도입)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사적연금지출(0.8%, 14위/24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은 경제(1위), 국방(2위), 교육(6위) 등의 분야에 대한 높은 지출 비중으로 OECD 중 29위를 기록하였지만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0.31, 17위)는 OECD 중간 순위를 기록하였다.

기대수명(79.8세)과 유아사망률(4.7명, 20위)은 OECD 국가 중 20위로 중위권 수준이다. 국민의료비지출은 현재의 낮은 고령인구비율(10.7%, 3위, OECD평균 15.1%) 등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GDP대비 6.5%, 3위)을 보였으나 빠른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11.6%, 4위)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의료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고용 창출이 낮고 의사수(29위)는 적으며 연간 의사 1인당 진료횟수(1위)는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수감자수(97명, 하위 13위)는 상위권에 속하였으나, 도로 사망률(121명, 27위), 산업재해 사망률³⁰⁾(19.2명, 29위) 등에서는 문제를 드러냈다.

30) 국가별로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의 분포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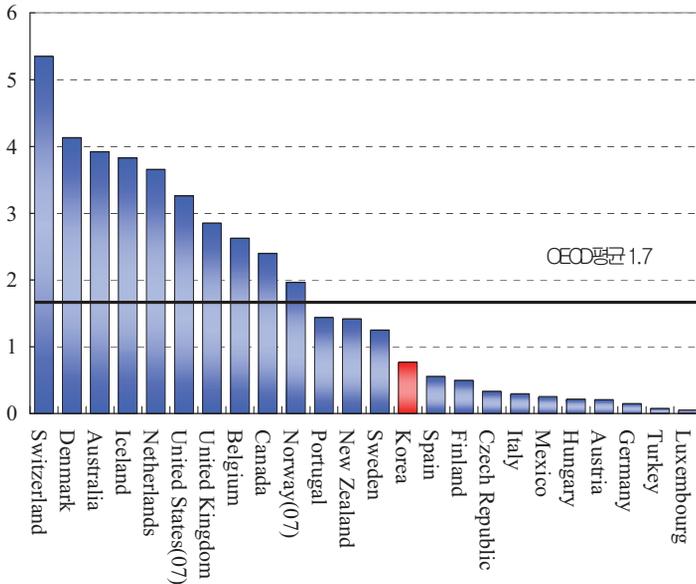
[그림 Ⅱ-207] 공적 연금지출 비중 [2005년, GDP대비 %] 29위/OECD



- 우리나라의 2005년 공적 연금지출 비중 (GDP대비)은 1.3%로 OECD 중 29위
- OECD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은 공적 연금지출 비중을 보였으며 이탈리아,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임

자료 : OECD

[그림 Ⅱ-208] 사적 연금지출 비중 [2008년, GDP대비 %] 14위/OECD(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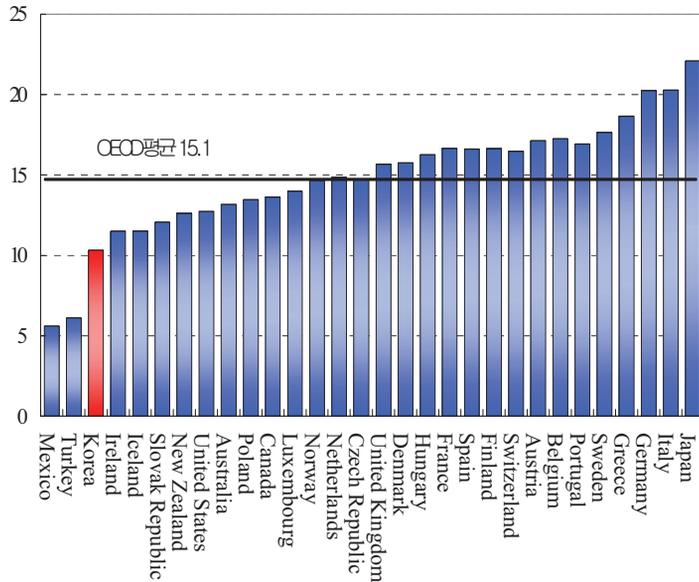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사적 연금지출 비중 (GDP대비)은 0.8%로 조사대상 24개국 중 14위
-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가 가장 높은 사적 연금지출 비중을 보였으며 덴마크,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등임

자료 : OECD

[그림 Ⅱ-209] 고령인구^주 비율 [2009년, %]

3위/OECD(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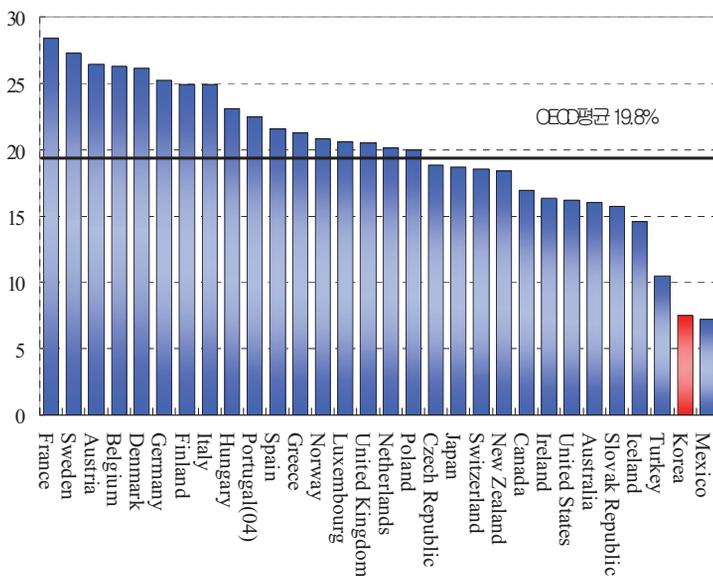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고령인구 비중은 10.7%로 OECD 중 3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낮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였으며 터키, 우리나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만65세 이상 인구

자료 : OECD

[그림 Ⅱ-210] 사회복지지출 비중 [2007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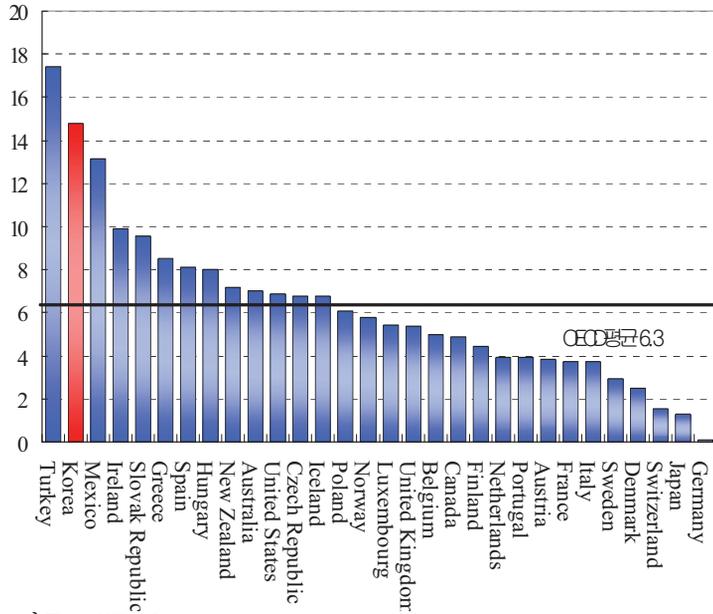
29위/OECD



- 우리나라의 2007년 사회복지지출 비중 (GDP대비)은 7.5%로 OECD 중 29위
-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였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한 국가인 멕시코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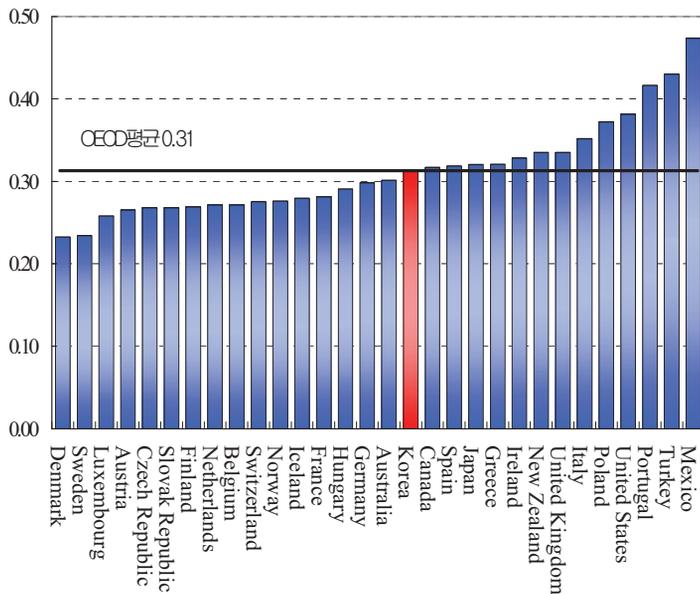
[그림 II-211]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05~07년 평균, %] 29위/OECD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05~07년 평균)은 14.8%로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

자료 : OECD

[그림 II-212] 지니계수 [2004년] 17위/OECD



-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측정하며, 0~1의 범위 안에서 계수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로 OECD 중 1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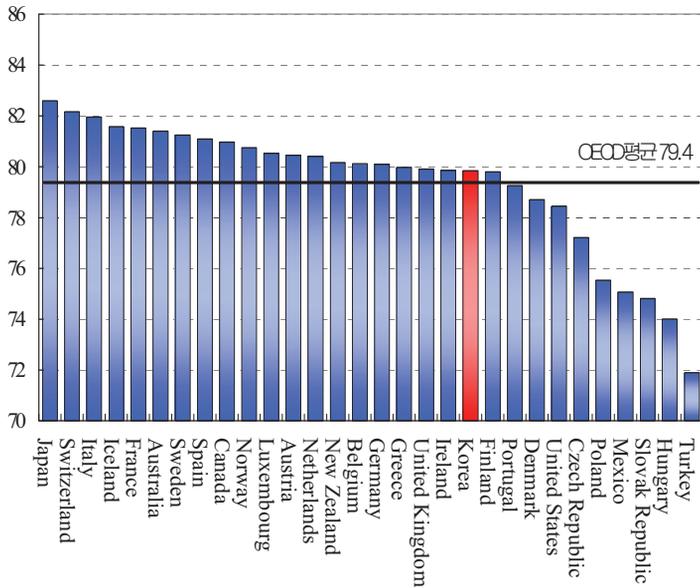
- OECD 국가 중에서 덴마크가 가장 낮은 지니계수를 보였으며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니계수값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 호주, 캐나다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213] 기대수명 [2008년, 년]

2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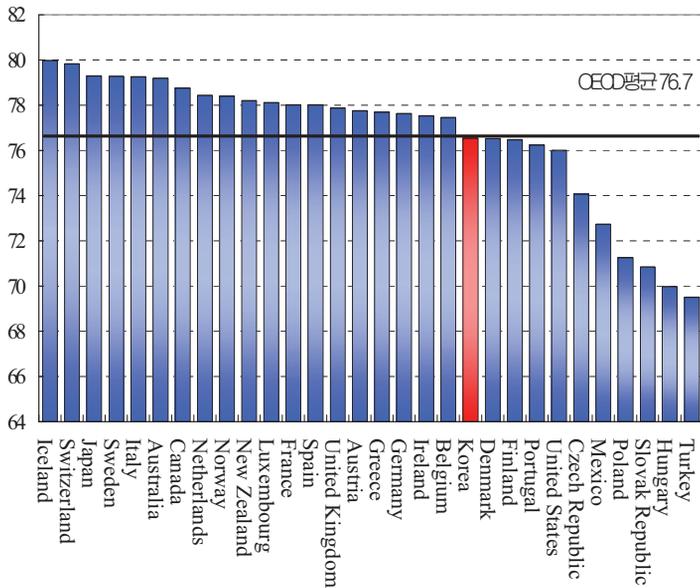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기대수명은 79.8세로 OECD 중 20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보였으며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대수명을 기록한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등임

자료 : Worldbank

[그림 II-214] 기대수명(남성) [2008년, 년]

2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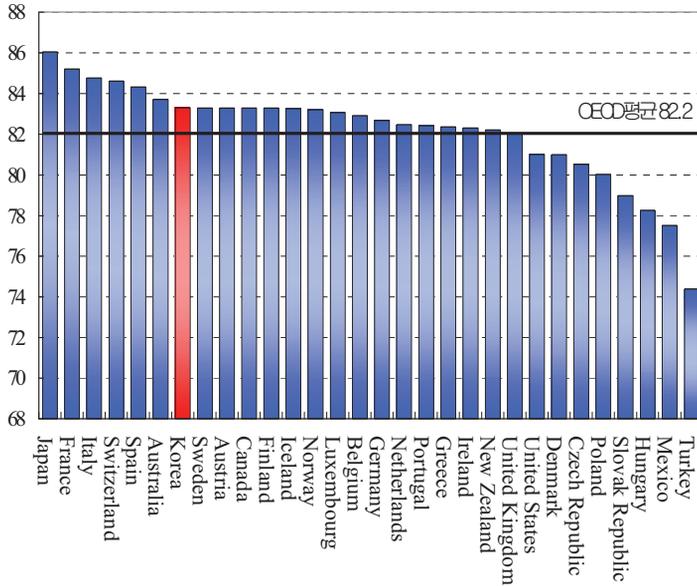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남성 기대수명은 76.5세로 OECD 중 20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남성 기대수명을 보였으며 스위스,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남성 기대수명을 기록한 국가는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등임

자료 : Worldbank

[그림 II-215] 기대수명(여성) [2008년, 년]

7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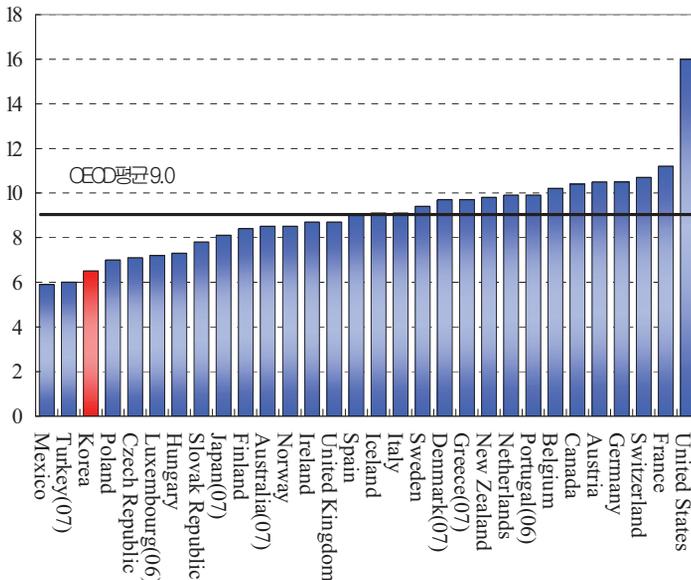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여성 기대수명은 83.3세로 OECD 중 7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보였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대수명을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 호주, 스웨덴 등임

자료 : Worldbank

[그림 II-216] 국민의료비지출^주 비중 [2008년, GDP대비 %]

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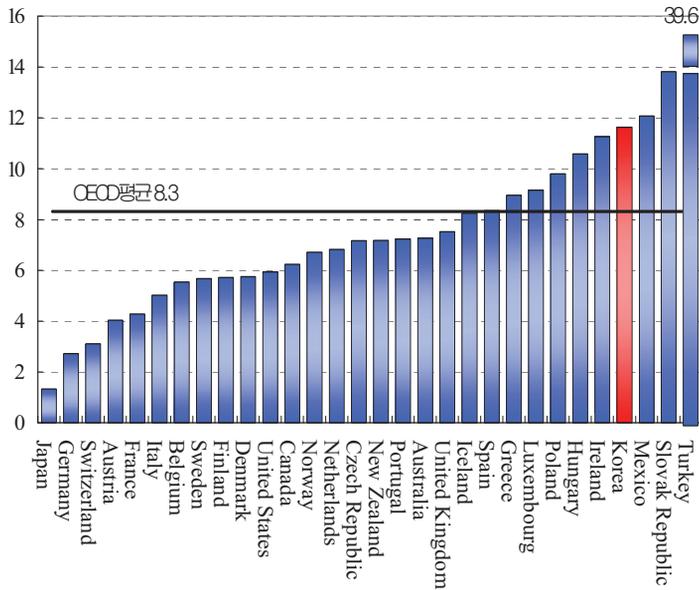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의료지출비중(GDP 대비)은 6.5%로 OECD 중 3번째로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낮은 의료지출 비중을 나타냈으며 터키, 우리나라, 폴란드, 체코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민간부문의 의료지출 포함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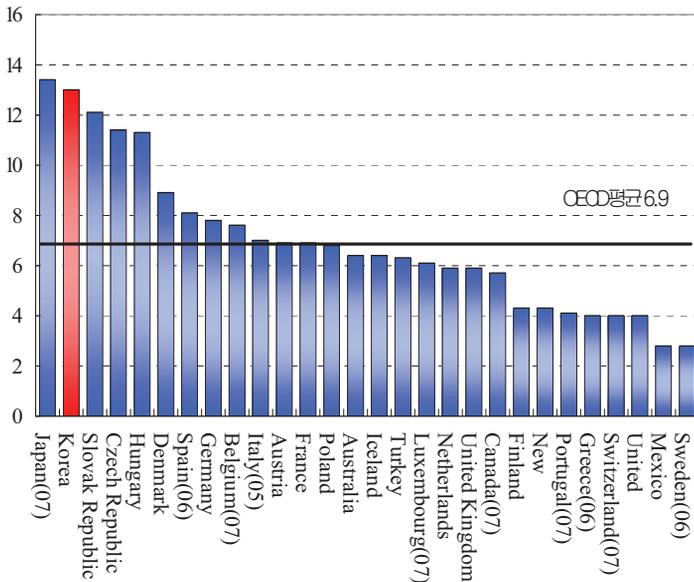
[그림 II-217]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주 증가율[99~08년평균, %] **4위/OECD**



- 우리나라의 1999~2008년 중 국민의료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6%로 OECD 중 4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낮은 의료지출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독일,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가는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등임

주 : 민간부분의 의료지출 포함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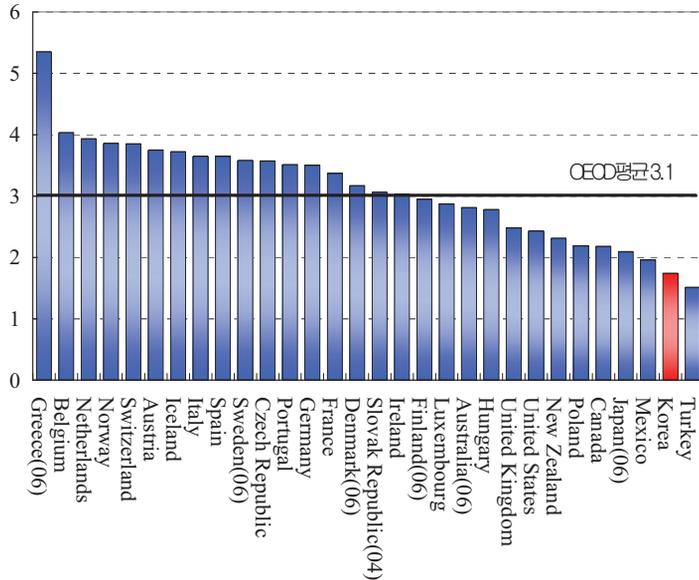
[그림 II-218] 의료접근성(1인당 외래진료 횟수 [2008년 회] **2위/OECD(28)**



-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3회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2위
-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1인당 외래진료 횟수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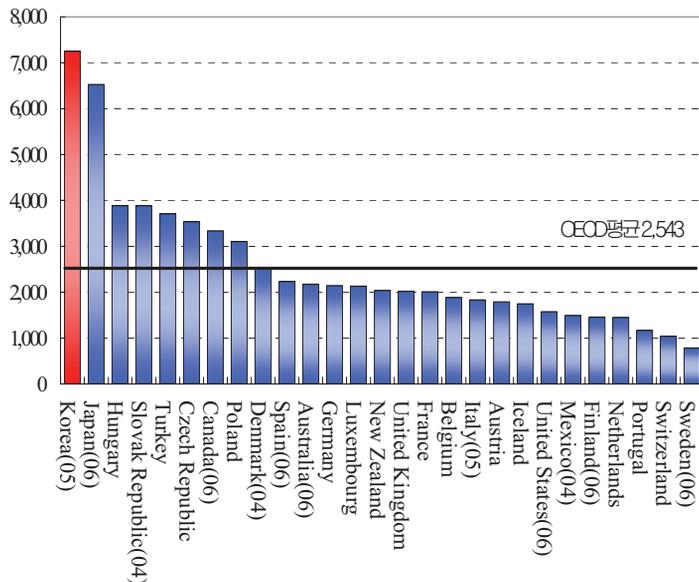
[그림 II-219] 의료접근성(인구 천명당 의사수) [2007년, 명] 29위/OECD



- 우리나라의 2007년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OECD 중 29위
-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가장 높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를 보였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사수를 나타낸 국가는 일본, 멕시코, 터키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220] 의사 1인당 진료횟수 [2007년, 회] 1위/OECD(27)



- 우리나라의 의사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7,251회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1위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일본,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높은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를 보였음

자료 : OECD

[그림 II-221] 의료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부가가치>	한국 ¹⁾	일본 ²⁾	미국 ³⁾	영국 ⁴⁾
2000	2.0	·	5.6	4.9
2003	2.4	5.0	6.3	5.4
2006	3.2	5.1	6.3	5.5 ⁵⁾

주 : 1)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의료·보건), 2006년은 명목GDP 기준
 2)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의료+보건+개호, 명목)
 3) 명목GDP 4)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 5) 2004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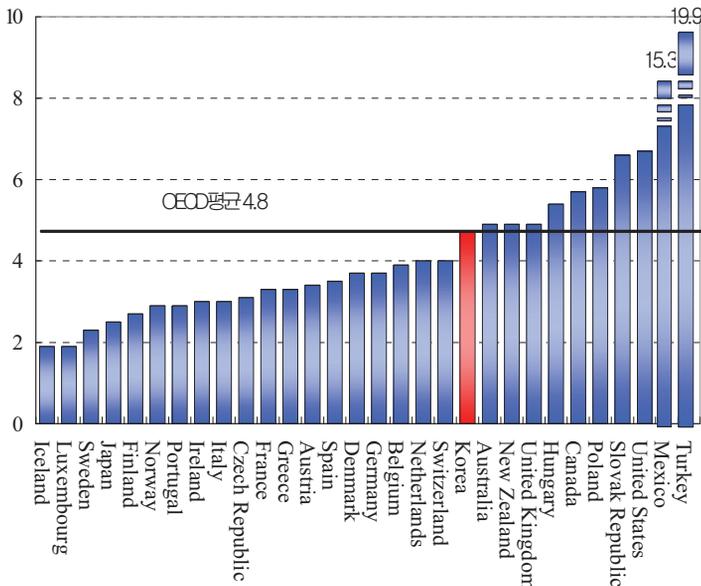
<고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2007	3.2	9.0	12.2	12.1

▪ 우리나라의 2006년 의료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3.2%로, 미국(6.3%), 영국(5.5%), 일본(5.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2007년 의료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도 3.2%로 미국(12.2%), 영국(12.1%), 일본(9.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그림 II-222] 유아사망률 [2008년, 신생아 1천명당 명]

20위/OECD



▪ 유아사망률은 신생아 천명당 만1세 이전 사망자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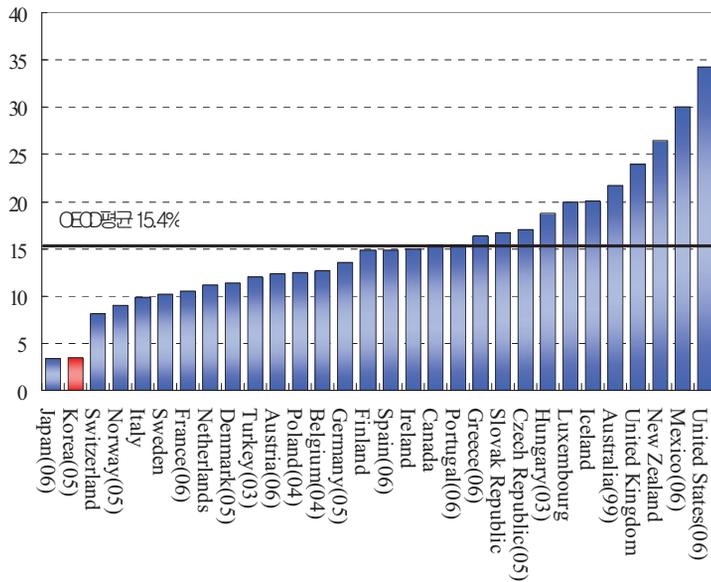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8년 유아사망률은 4.7명으로 OECD중 20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낮은 유아사망률을 나타내었으며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아사망률을 기록한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임

자료 : Worldbank

[그림 Ⅱ-223] 비만을 [2007년 15세 이상 인구 중 비만인구, %] 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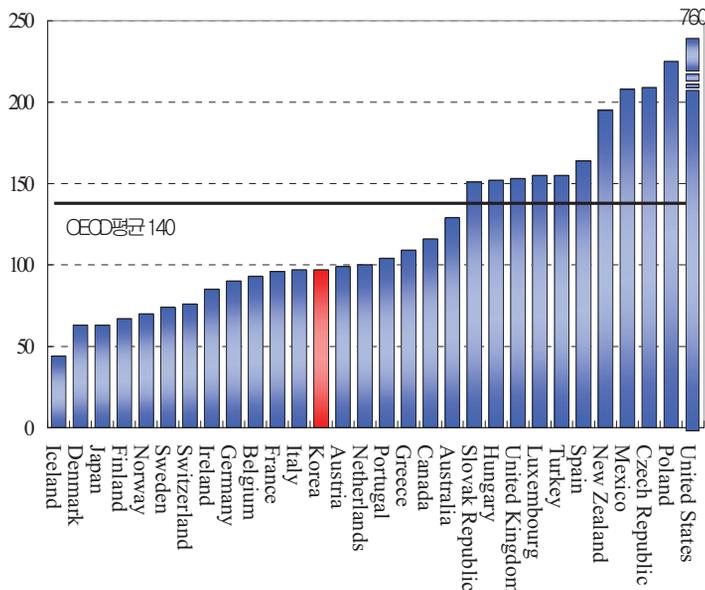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중 BMI지수가 30이상인 비만 인구 비율은 3.5%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음

* BMI(체질량) 지수 = 체중(kg) ÷ 키(m)²

자료 : OECD Factbook 2010

[그림 Ⅱ-224] 인구10만명당 수감자수 [2009년] 13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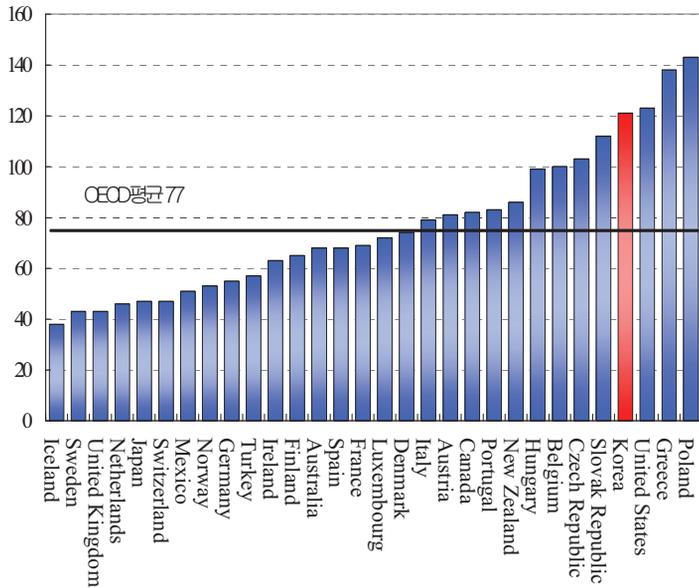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9년 인구10만명당 수감자 수는 97명으로 OECD 중 13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낮은 수감자수를 보였으며 덴마크,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감자수를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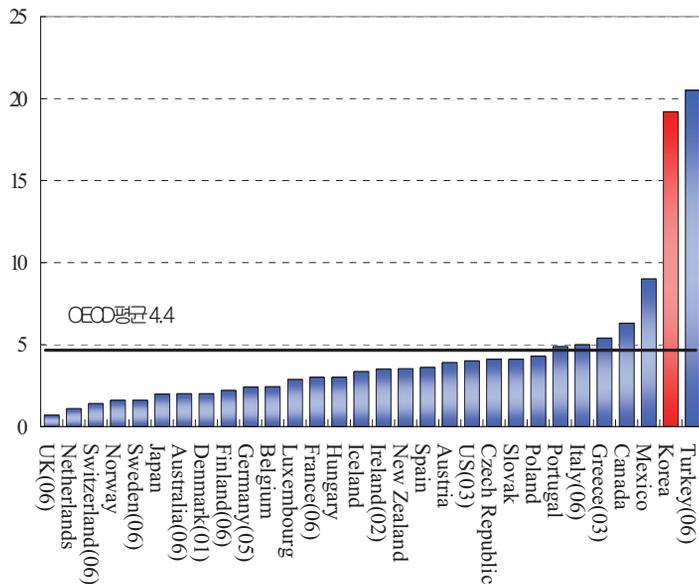
[그림 II-225] 도로사망률 [2008년, 인구100만명당, 명] 27위/OECD



- 도로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08년 도로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121명으로 OECD 중 4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낮은 도로사망률을 나타내었으며 스웨덴,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사망률을 기록한 국가는 체코, 슬로바키아, 미국 등임

자료 : OECD

[그림 II-226] 산업재해 사망률 [2007년, 인구10만명당, 명] 29위/OECD



- 산업재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07년 산업재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2명으로 OECD중 2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에서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재해 사망률을 기록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터키 등임

자료 : 노동부, ILO

4. 환경

4.1. 환경 관리

(지표개요)

환경 보호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움직임 등으로 CO₂ 배출 수준은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 관리는 i)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량, ii) 물소비량 및 물 관련 인프라 투자 규모, iii) 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률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의 총 CO₂ 배출량(4.98억톤)은 6번째, 1인당 CO₂ 배출량(10.01톤)은 9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90~'07년간 1인당 CO₂ 배출량 증가율(88.6%)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CO₂ 배출량을 GDP로 나눈 CO₂ 원단위(0.69) 역시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SO_x 배출 원단위는 19위로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인당 물소비량(610톤, 하위 15위/25개국)은 많은 편이며 이에 대응하여 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 투자 규모(77.3억불, 11위/30개국)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시 쓰레기의 재활용률(49%, 1위)은 쓰레기 종량제 등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해 1인당 도시쓰레기 배출량(380kg, 하위 5위/28개국)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CO₂ 배출이 많은 탄소 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CO₂ 배출량 증가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 또한, 1인당 물소비량도 많은 것 역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등의 영향으로 도시쓰레기 배출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표 II-21〉 주요 환경관리 지표 OECD 순위(2007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총 CO ₂ 배출량(낮은순서)	4.98억톤	25위	2.49억톤
1인당 CO ₂ 배출량(낮은순서)	10.01톤	22위	9.5톤
1인당 CO ₂ 배출량 증가율 ¹⁾ (낮은순서)	88.6%	30위	8.2%
CO ₂ 원단위(낮은순서)	0.69	24위	0.5
SO _x (황산화물) 원단위 ²⁾ (낮은순서)	0.5	19위	1.1
1인당 물소비량 ³⁾ (낮은순서)	610톤	15위/25개국	577.6톤
물 관련 인프라 투자 ³⁾	77.3억\$	11위	104.4억\$
1인당 도시쓰레기(낮은순서)	380kg	5위/28개국	533.6kg
도시쓰레기 재활용률	49%	1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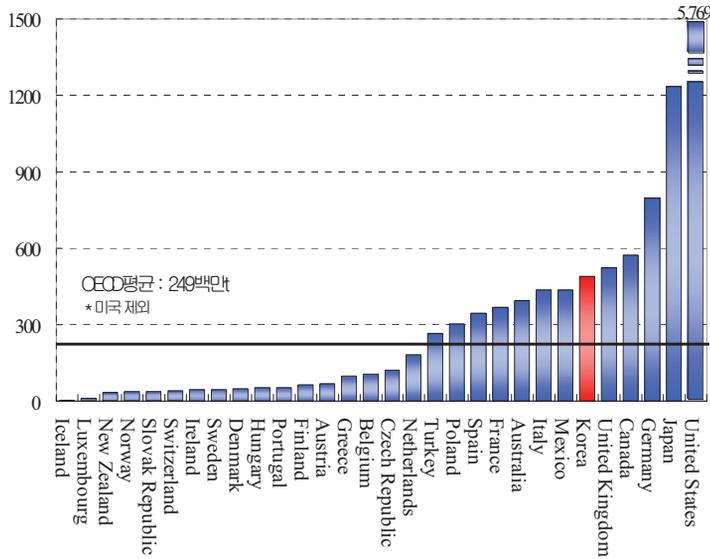
주 : 1) 1990~2007 기간 증가율

2) 2005년 기준

3) 2006년 기준

4) 200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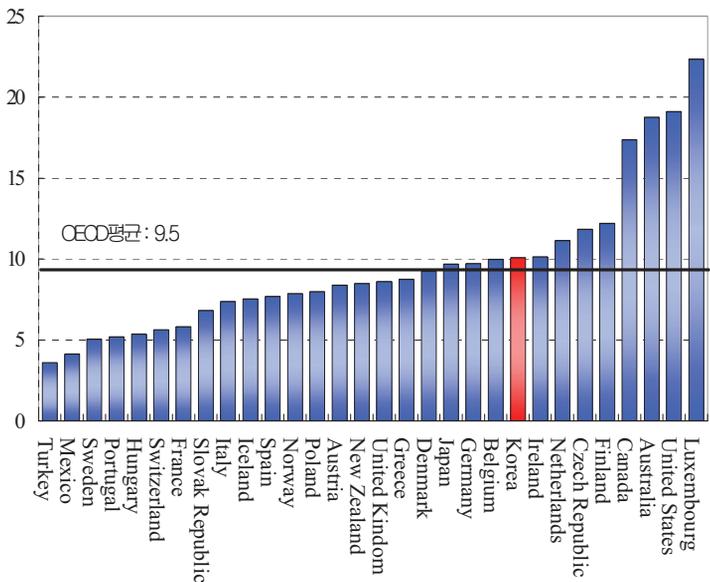
[그림 II-227] 총 CO₂ 배출량(2007년, 백만 톤) 25위/OECD



- 주요 온실가스인 CO₂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전세계적인 감축 노력이 진행 중임
- 2007년 우리나라의 CO₂ 배출량은 4.98억톤으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많음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CO₂ 배출량이 가장 적었으며,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CO₂ 배출량이 비슷한 국가는 멕시코, 영국 등임

자료 : IEA, CO₂ Emissios from fuel combustion, 2009

[그림 II-228] 1인당 CO₂ 배출량(2007년, 톤) 22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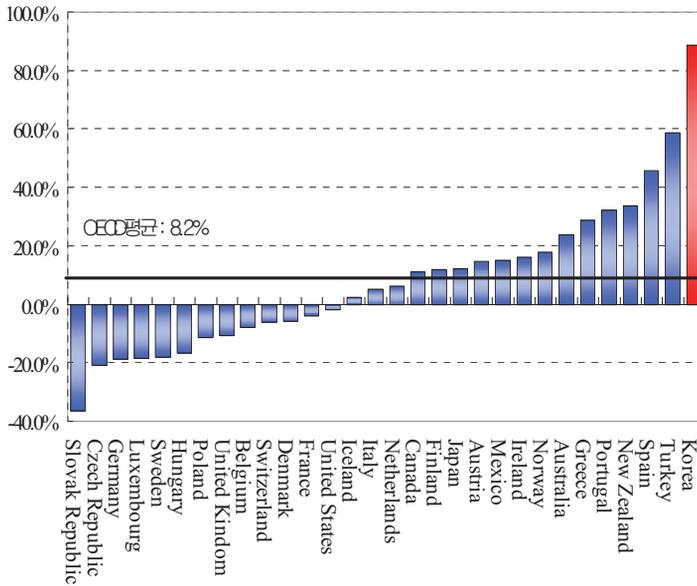


- 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CO₂ 배출량은 10.01톤으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많음
- OECD 국가 중 터키가 1인당 CO₂ 배출량이 가장 적었으며, 멕시코,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1인당 CO₂ 배출량이 비슷한 국가는 벨기에, 아일랜드 등임

자료 : IEA, CO₂ Emissios from fuel combustion, 2009

[그림 II-229] 1인당 CO₂ 배출량 증가율[90~07년, %]

3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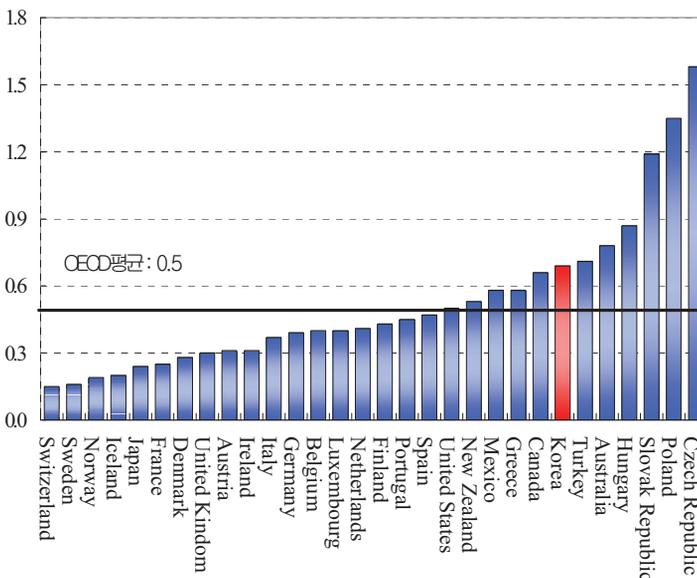


- 9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CO₂ 배출량은 증가율은 88.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가 90~07년 1인당 CO₂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체코,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등을 OECD 국가 중 13개 국가는 07년 1인당 CO₂ 배출량이 9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함

자료 : IEA, CO₂ Emissios from fuel combustion, 2009

[그림 II-230] CO₂ 원단위[2007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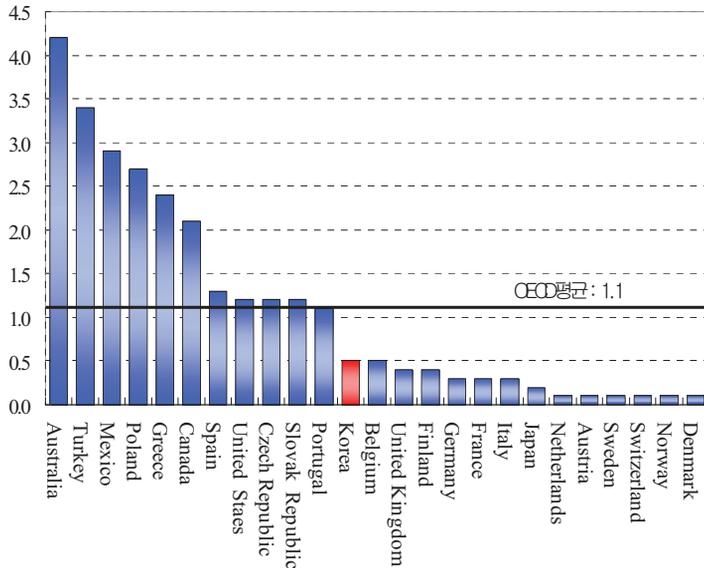
24위/OECD



-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화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 CO₂ 배출량도 증가함
- 총 CO₂ 배출량을 국민소득(GDP)로 나눈 CO₂ 원단위가 작을수록 국민경제가 탄소친화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
- 2007년 우리나라의 CO₂ 원단위는 0.69로 OECD 국가 중 7 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스위스가 CO₂ 원단위가 가장 낮았으며,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IEA, CO₂ Emissios from fuel combustio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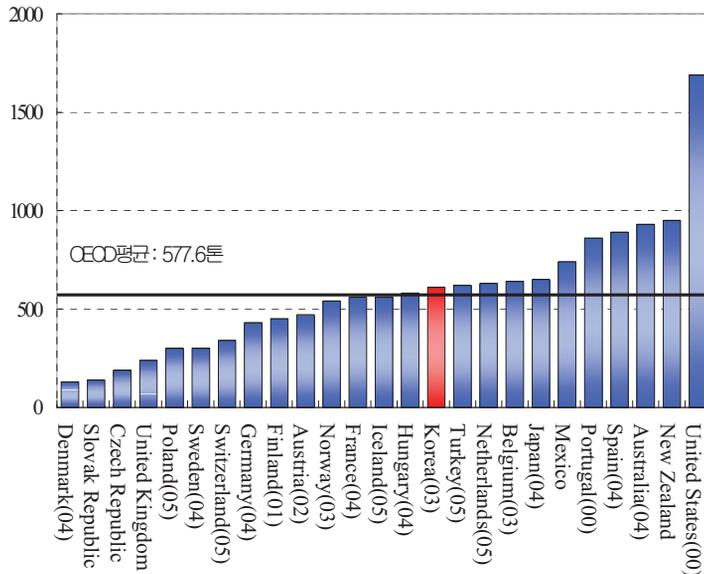
[그림 II-231] SO_x(황산화물)원단위 [2005년, kg/1,000\$] 19위/OECD



- 산성비, 스모그 등의 원인인 SO_x(황산화물)은 NO_x(질소화합물)과 함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 2005년 우리나라의 SO_x 원단위는 0.5로 OECD 국가 중 12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호주의 SO_x 원단위가 가장 높았으며 터키, 멕시코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SO_x 원단위가 비슷한 국가는 벨기에, 영국 등임

자료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6/2007 Air

[그림 II-232] 1인당 물 소비량(2006년, 톤) 15위/OEC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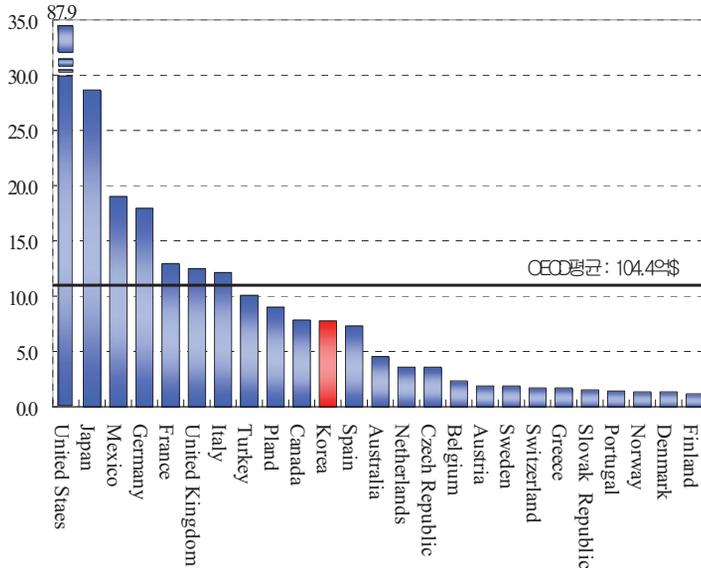


- 2006년 우리나라의 1인당 물소비량은 610톤으로 조사대상 OECD 25개국 중 11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덴마크의 1인당 물소비량이 가장 작았으며,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1인당 물 소비량이 비슷한 국가는 헝가리, 터키 등임

자료 : OECD, Factbook 2010

[그림 II-233] 물 관련 인프라 투자(2006년, 10억\$)

11위/OEC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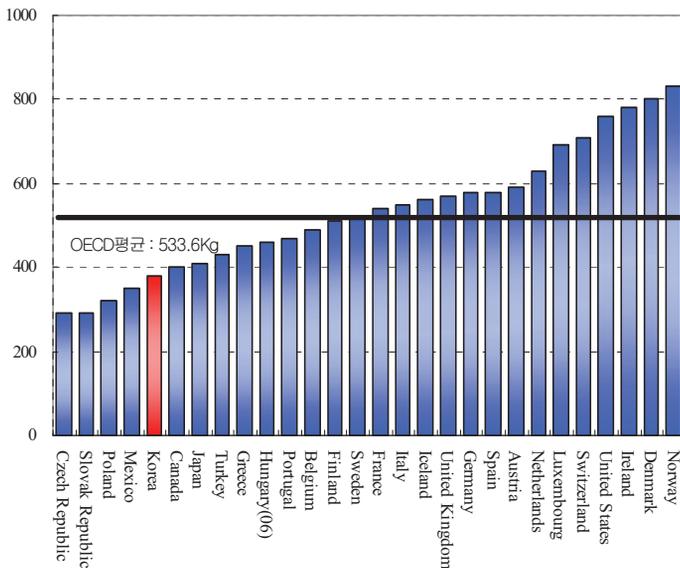


- 2006년 우리나라의 물 관련 인프라 투자 규모는 77.3억\$로 OECD 국가 중 11위
- OECD 국가 중 미국이 물 관련 인프라 투자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 멕시코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물 관련 인프라 투자 규모가 비슷한 국가는 캐나다, 스웨덴 등임

자료 : OECD(2006), Infrastructure to 2030

[그림 II-234]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2007년, kg)

5위/OEC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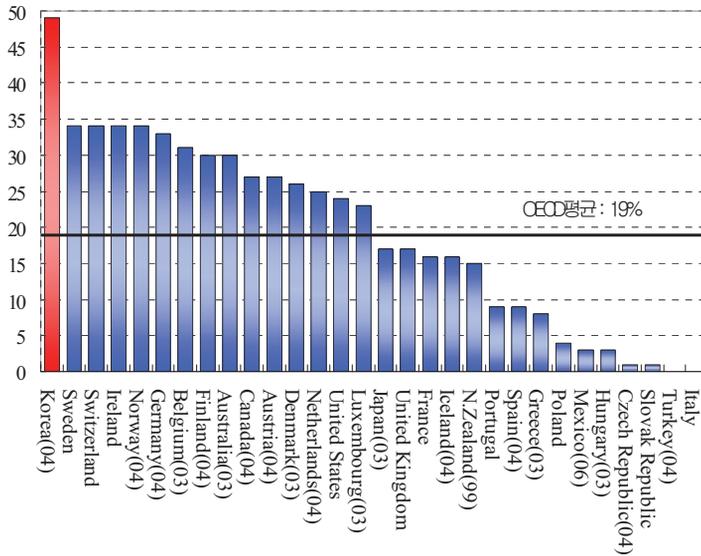


- 도시 쓰레기(Municipal Waste)는 가정, 사무실, 연구소 등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비산업 쓰레기를 의미
- 2007년 우리나라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은 380kg으로 조사 대상 OECD 28개국 중 5번째로 적음
- OECD 국가 중 체코가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낮았으며,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이 비슷한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등임

자료 : OECD, Factbook 2010

[그림 Ⅱ-235] 도시 쓰레기 재활용률(2005년, %)

1위/OECD



▪ 2005년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 재활용률은 49%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스웨덴, 스위스가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Stat

4.2. 녹색성장

(지표개요)

에너지 및 자원 고갈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i) 에너지 효율성 정도, ii)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활용 정도, iii) 정부의 환경관련 지출 및 세수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4.67Toe)이 11번째로 높고 GDP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0.21)도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1.5%)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원자력 발전 비중(34.7%)은 OECD 국가 중 8위이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출(전체 재정지출 대비 3.15%)은 3위를 차지하였으며, 휘발유 등 에너지 제품, 자동차 등 환경관련 세수 비중의 경우 GDP대비는 10위(2.52%), 조세수입 대비는 3위(10.6%)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GDP 대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원자력 발전비중이 높은 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낮은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및 민간부분을 포함한 환경보호 관련 재정지출 비율이 크고, 휘발유 등 에너지,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관련 세금의 비중이 높아 향후 녹색성장 및 환경개선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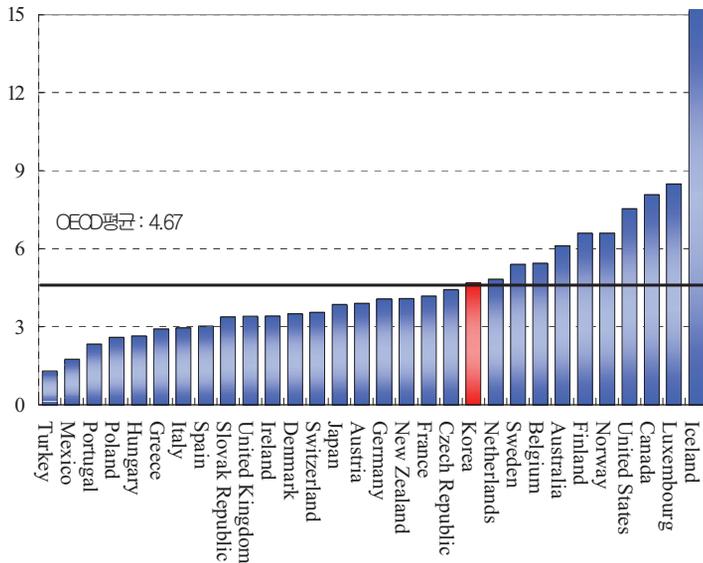
〈표 II-22〉 주요 녹색성장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낮은순서)	4.67Toe	20위	4.67Toe
에너지 원단위(낮은순서)	0.21	28위	0.164
신재생에너지 비율	1.5%	30위	14.3%
원자력 발전 비율 ¹⁾	34.7%	8위	31.5%
환경보호지출 비율 (총 재정지출 대비)	3.15%	3위	1.78%
GDP대비 환경세 비중	2.52%	10위	2.17%
세수대비 환경세 비중 ²⁾	10.6%	3위	6.47%

주 : 1) 2009년 기준

2) 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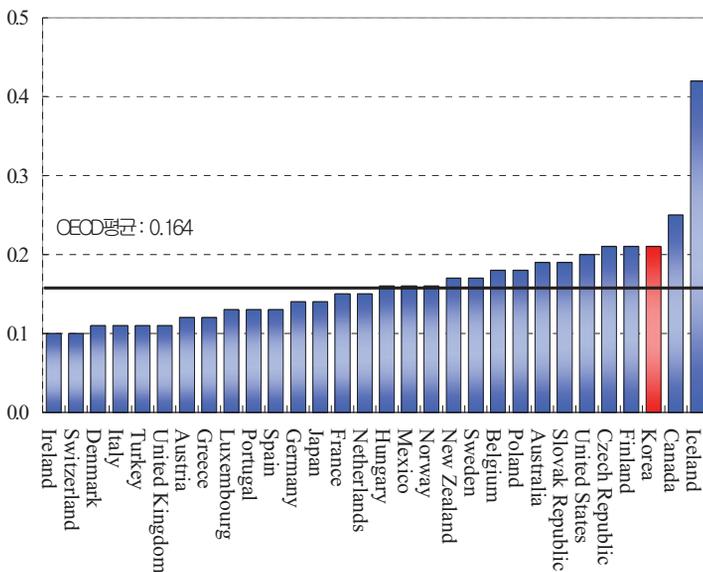
[그림 II-236] 1인당 에너지 소비량(2008년, Toe^주/명) 20위/OECD



- 2008년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6Toe로 OECD 국가 중 11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터키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었으며, 멕시코, 포르투갈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한 국가는 체코, 네덜란드 등임

주 : 석유 1톤 연소시 생성되는 에너지(Tonnes of oil equivalent)
 자료 : OECD, Factbook 2010

[그림 II-237] 에너지 원단위(2008년, Toe/1,000\$(PPPs)) 2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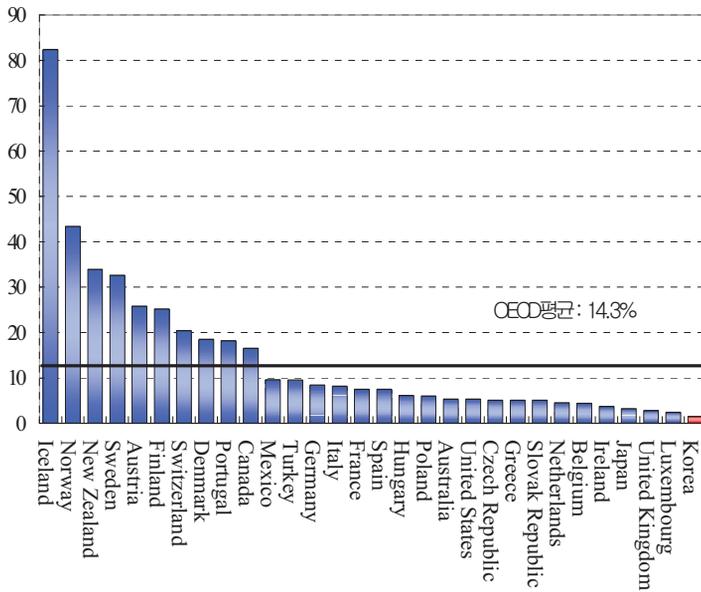


- 에너지 원단위는 총 에너지 투입량을 국민 소득(GDP)으로 나눈 것으로 국민경제의 에너지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
- 에너지 원단위가 낮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의미
- 200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0.21로 OECD 국가 중 체코, 핀란드와 함께 3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스위스의 에너지 원단위가 가장 낮았으며, 스위스,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Factbook 2010

[그림 II-238] 신재생에너지 비율[2008년, %]

3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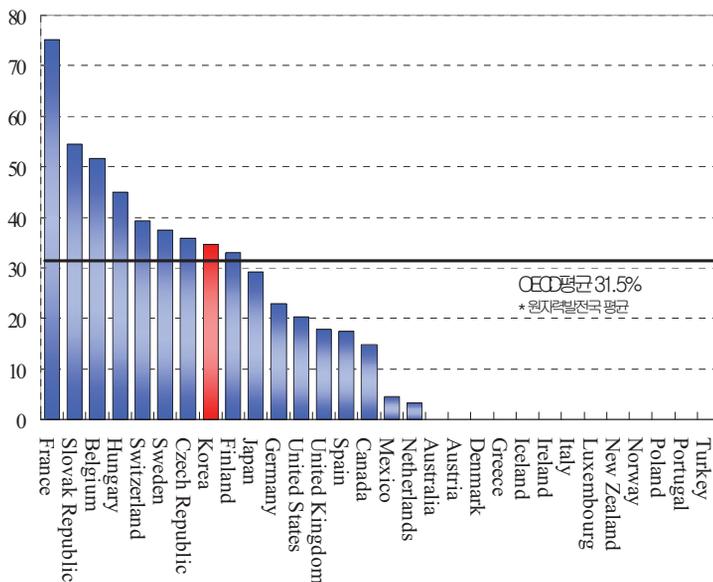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과 같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말하며 화석 에너지 고갈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부각
- 2008년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5%로 OECD 국가 중 30위
- OECD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Factbook 2010

[그림 II-239] 원자력 발전 비율[20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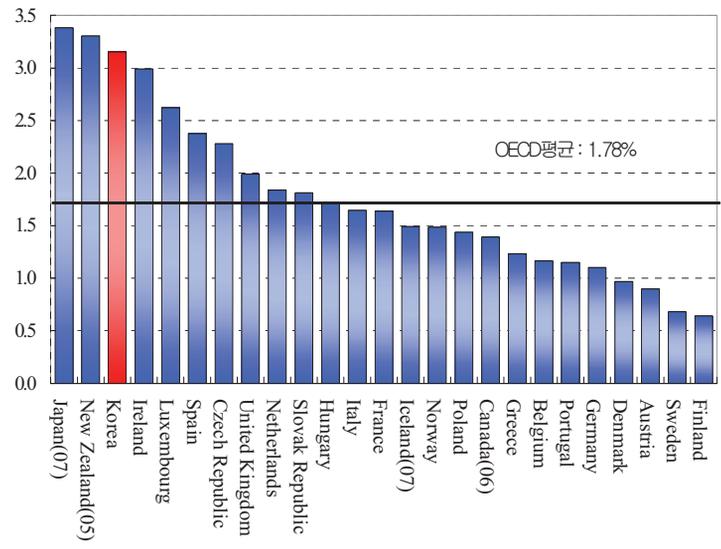
8위/OECD



- 2009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생산 중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34.7%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슬로바키아, 벨기에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원자력 발전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체코, 핀란드 등임
- * 호주를 비롯한 13개 국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이 없었음

자료 : OECD NEA, Nuclear energy data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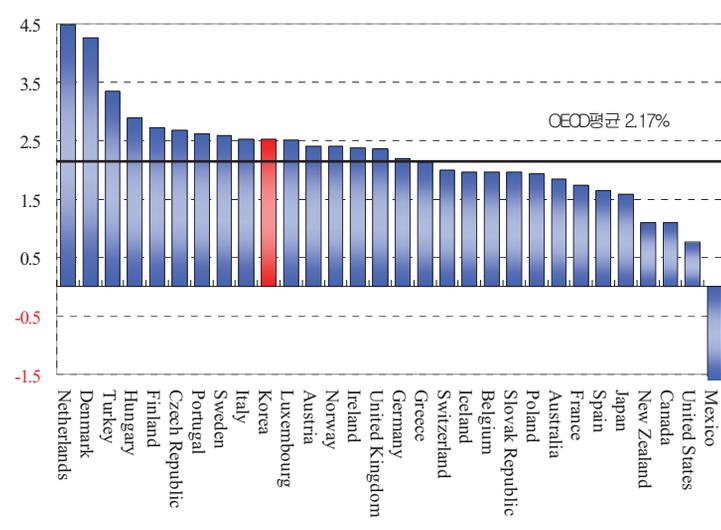
[그림 II-240] 환경보호 지출^{주)} 비율[2008년, %] 3위/OECD(25)



- 환경보호 지출 비율은 환경오염 복구 및 예방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전체 재정지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
- 2008년 우리나라의 전체 재정지출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은 3.15%로 조사대상 OECD 25개국 중 일본, 뉴질랜드에 이어 3위

주) 환경보호 지출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 부분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을 모두 포함
 자료 : OECD, Stat, General government accounts

[그림 II-241] GDP대비 환경세^{주)} 수입 비중[2008년, %] 10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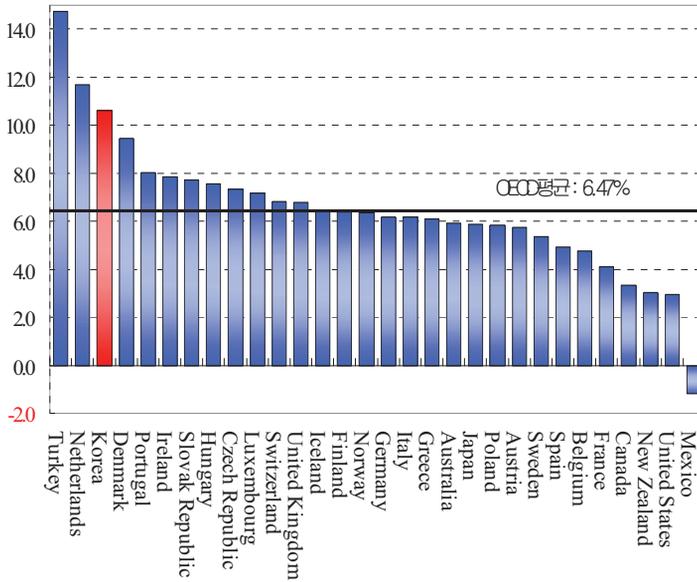


- 2008년 우리나라 GDP 대비 환경세를 통한 수입 비율은 2.52%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네덜란드가 GDP대비 환경세를 통한 수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 터키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GDP대비 환경세를 통한 수입 비율이 비슷한 국가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임

주) GDP대비 환경세(2.52%)는 휘발유 등 에너지 제품(1.81%), 자동차(0.71%), 기타 환경세(0%) 등 환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수수료를 포함
 자료 : OECD, OECD EEA Database

[그림 Ⅱ-242] 세수 대비 환경세 수입 비중[2007년, %]

3위/OECD



- 2007년 우리나라 조세수입 대비 환경세를 통한 수입 비율은 10.6%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터키가 조세수입 대비 환경세를 통한 수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OECD EEA Database

5. 미래도전요인

(지표개요)

우리경제는 i)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축소, ii) 에너지고갈·기후변화, iii) 식량안보 위협, iv) 수자원 부족, v) 남북문제 등 다양한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전반적인 순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19명)은 OECD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2009년 0.95%, 10위)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는 2008년 14.3%(28위)에서 2030년 37.7%(14위), 2050년 72.0%(2위)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너지원단위(0.21)와 CO₂ 원단위(0.69)는 각각 OECD 3번째와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원유확인매장량(4,520만배럴)은 22위(/22개국)로 저조하였으며, 식량자급률(0.5배, 27위)과 1인당 담수량(1,338m³/명, 24위)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보면, 북한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남한의 2.7%와 5.6%에 불과하여 통일당시 동서독간 격차(GDP 9.0%, 1인당 GDP 33.0%)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 및 약점)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의 합계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저조한 원유매장량 등 빈약한 에너지 자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 원단위 등 에너지집약적 경제구조를 보여 향후 화석에너지 고갈 및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시 우리경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CO₂원단위 등 탄소의존적 경제구조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제구조 조정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해 향후 세계 곡물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시 경제에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담수량이 부족하여 향후 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가 큰 데다 점차 확대되고 있어 북한의 개혁·개방이 지연될 경우 통일비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위와같은 미래 도전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표 II-23〉 주요 미래도전요인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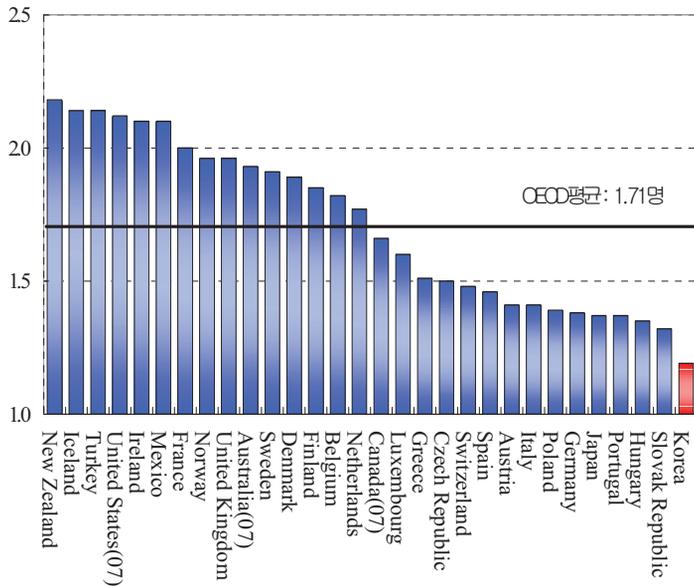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19명	30위	1.71명
에너지 원단위(낮은순서)	0.21	28위	0.164
CO ₂ 원 단위 ¹⁾ (낮은순서)	0.69	24위	0.5
원유 확인매장량 ²⁾	4,520만배럴	22위/22개국	10,191백만배럴
1인당 담수량 ¹⁾	1,338m ³ /명	24위	30,983m ³ /명
식량자급률 ¹⁾	0.5배	27위	0.9배

주 : 1) 2007년 기준

2) 2009년 기준

[그림 II-243] 합계 출산율 [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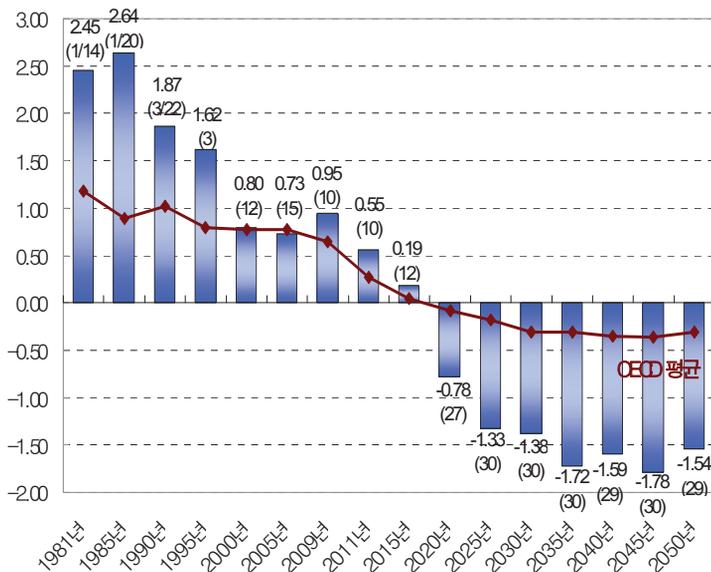
30위/OECD



-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이 출산한 자녀수를 가리키며, 합계 출산율이 2.1명(대체 출산율)이 되어야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 가능
- 우리나라는 200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30위
- OECD 국가 중 뉴질랜드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 터키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OECD Factboo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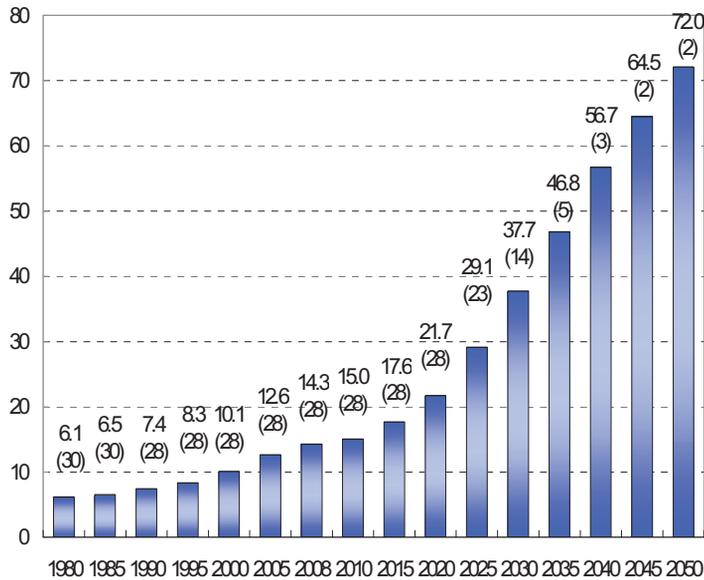
[그림 II-244]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전망[%]



- 1980~90년대 높은 수준을 보이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2001년 OECD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2017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2011년 자료부터는 OECD 전망치임

자료 : OECD. Stat,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

[그림 II-245]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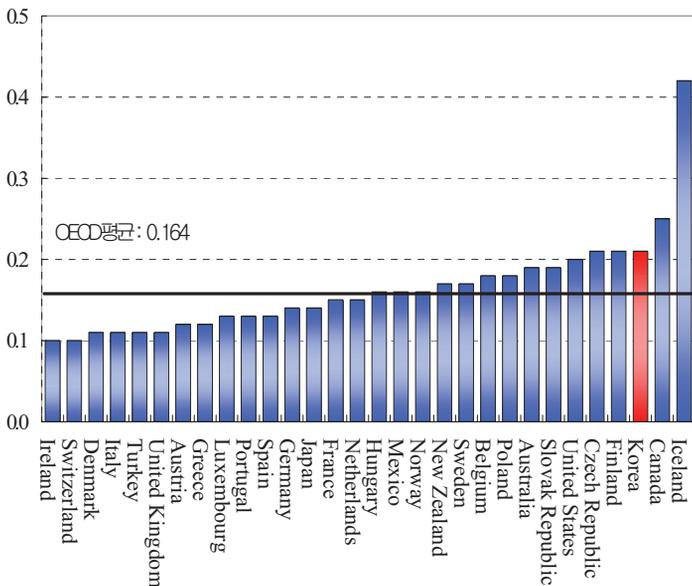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부양비는 2008년 14.3%로 OECD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OECD 최하위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해 2020년 21.7%, 2030년 37.7%, 2040년 56.7% 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주 : 1) 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 자료 : OECD

[그림 II-246] 에너지 원단위[08년, Toe/1,000\$(PPPs)]

28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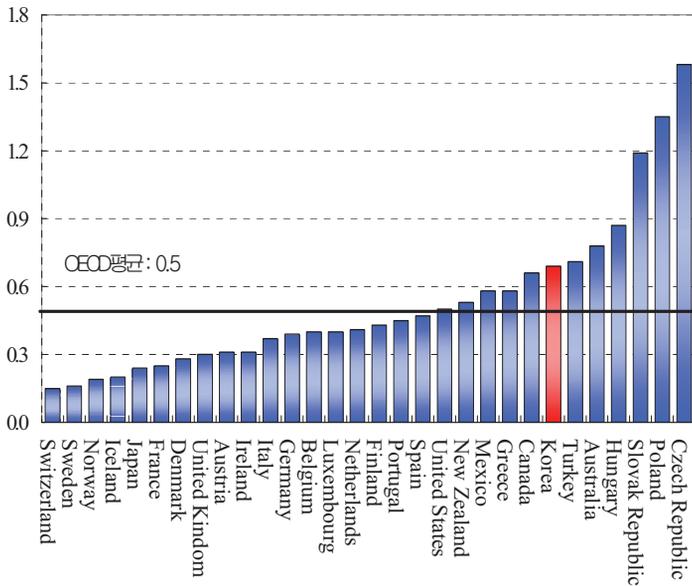


- 에너지 원단위는 총에너지 투입량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눈 것으로 국민경제의 에너지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
- 에너지 원단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의미
- 200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0.21로 OECD 국가 중 체코, 핀란드와 함께 3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스위스의 에너지 원단위가 가장 낮았으며, 덴마크,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OECD, Factbook 2010

[그림 II-247] CO₂ 원단위[07년, Kg/\$]

24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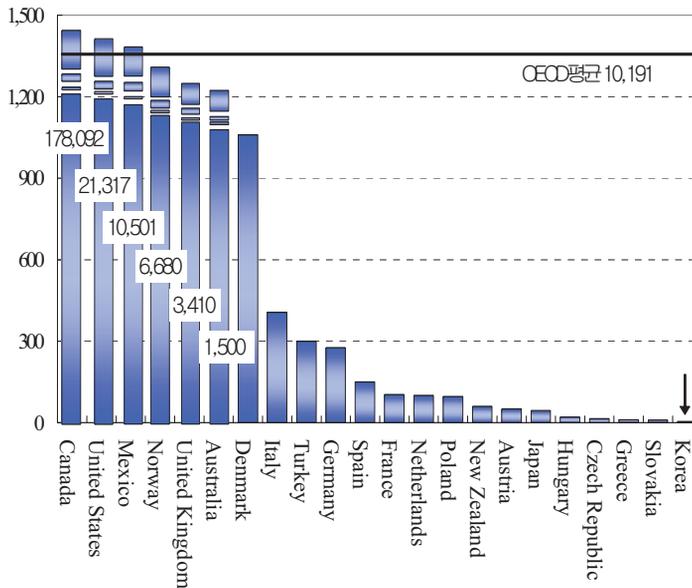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화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 CO₂ 배출량도 증가함
- 총 CO₂ 배출량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눈 CO₂ 원단위가 작을 수록 국민경제가 탄소친화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
- 2007년 우리나라의 CO₂ 원단위는 0.69로 OECD 국가 중 7 번째로 높음
- OECD 국가 중 스위스의 CO₂ 원단위가 가장 낮았으며, 스웨덴,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IEA,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09

[그림 II-248] 원유 확인매장량^주 [2009년, 백만배럴]

22위/OECD(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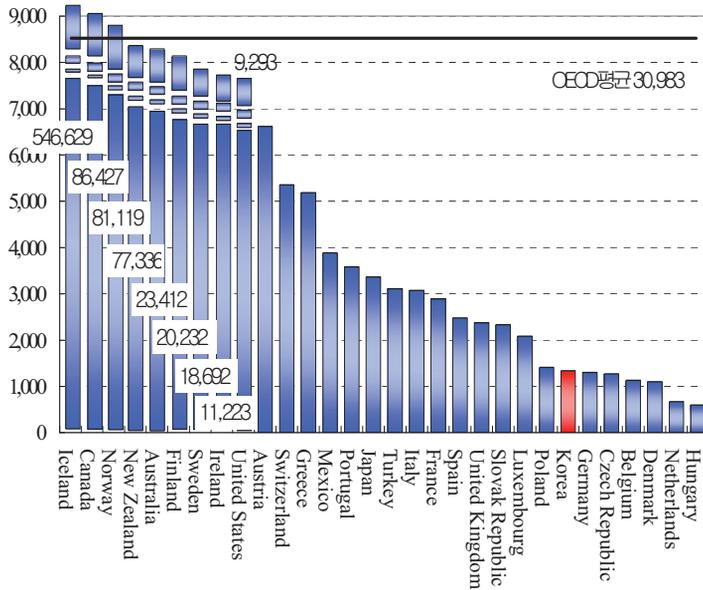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약 4,520만 배럴의 추정매장량을 보유하여 조사대상 22개국 중 22위
-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큰 원유매장량을 보유하였으며 미국,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음

주 : oil sand 포함 기준 자료 : Oil and Gas Journal, 지식경제부

[그림 II-249] 1인당 담수량 [2007년, 1m³/명]

24위/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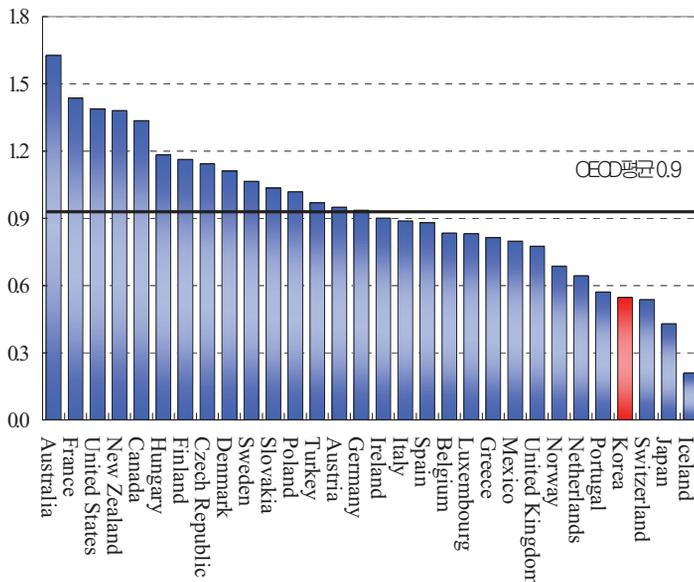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07년 담수량은 국민 1인당 1,338m³로 OECD 중 24위
-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많은 1인당 담수량을 보였으며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담수량을 기록한 국가로는 폴란드, 독일 등임

자료 : UNFAO

[그림 II-250] 식량^주 자급률 [2007년, 배]

27위/OECD



- 식량자급률은 식량의 국내소비량대비 국내 생산량의 비중을 의미
- 우리나라의 2007년 식량자급률은 0.5배로 OECD 중 27위
-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높은 식량자급률을 보였으며 프랑스,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량자급률을 기록한 국가로는 포르투갈, 스위스 등임

주 : 곡물, 채소 및 육류 기준

자료 : UNFAO

[그림 II-251] 남북한¹⁾/독일통일²⁾ 당시 경제력 격차 비교

	북한(A)	남한(B)	A/B	동독(C)	서독(D)	C/D
■ 인구(백만명)	23.3	48.6	47.9%	16.7	61.4	27.2%
■ GDP ³⁾ (십억\$)	24.7	928.7	2.7%	212	2,364	9.0%
■ 1인당GDP ³⁾ (\$)	1,061	19,106	5.6%	12,700	38,500	33.0%
■ 수출규모(십억\$)	1.1	422.0	0.3%	—	—	—

주 : 1) 2008년 기준 2) 1989년 기준
 3) 동/서독은 GNI 및 1인당 GNI 기준
 자료 : OECD, Goldman Sachs

-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독일 통일 당시의 경제력 격차에 비해 훨씬 큼
- 국민소득은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의 2.7%에 불과(통일당시 동독은 서독의 9.0%)
- 1인당 국민소득도 북한이 남한의 5.6% 수준에 그침(동독/서독은 33.0%)

제3부 주요 이슈 분석

1. 저출산·고령화 대응 / 226
2. 중소기업 경쟁력 현황 및 향후 과제 / 240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 254
4. 녹색성장 분야의 경쟁력 현황과 향후 과제 /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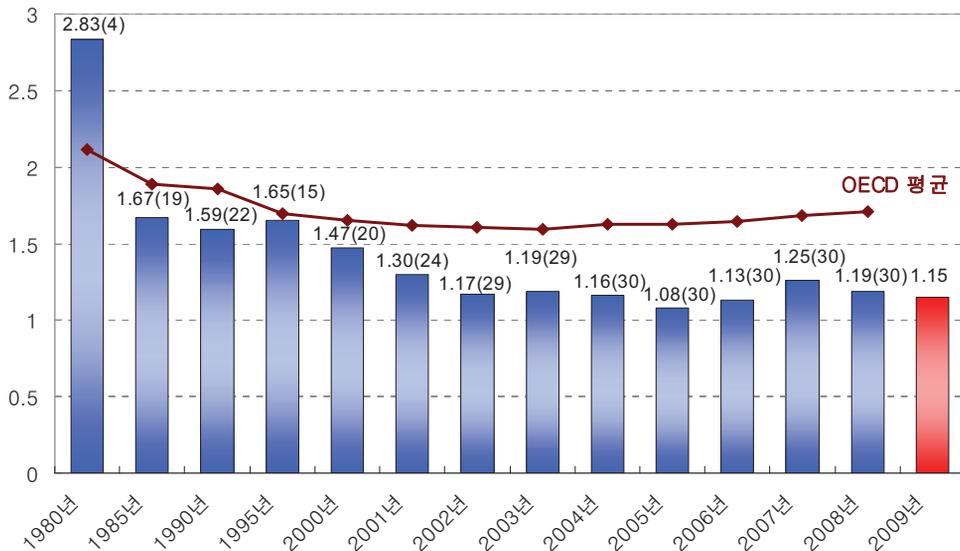
1. 저출산·고령화 대응

(1) 현황 및 전망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8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³¹⁾은 2.8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하였지만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 국민들의 의식 변화 등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1983년에는 2.08명으로 인구를 대체하는 수준인 2.1명에 미달하게 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림 Ⅲ-1]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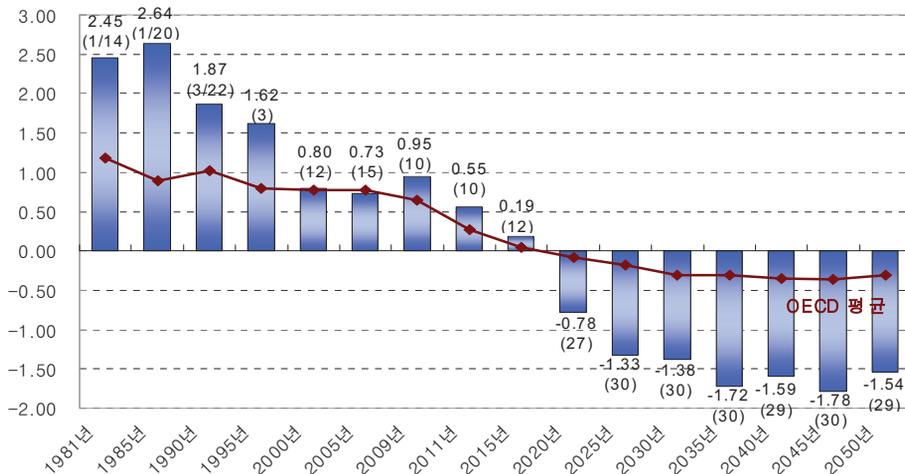
* () 안은 OECD 국가 중 순위, 자료 : OECD Stat.

3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노동력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증가율(0.95%)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10위, 평균 0.64%)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높은 출산율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부터는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Ⅲ-2]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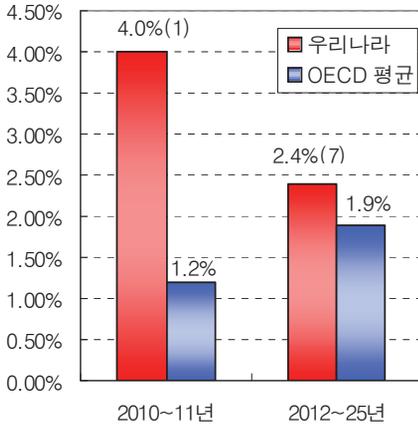
* () 안은 OECD 국가 중 순위, 자료 : OECD Stat.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한다. OECD (2010년)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0~11년 4.0%에서 2012~25년 2.4%로 1.6%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 고용성장률³²⁾이 같은 기간 동안 1.2%p 하락하기 때문이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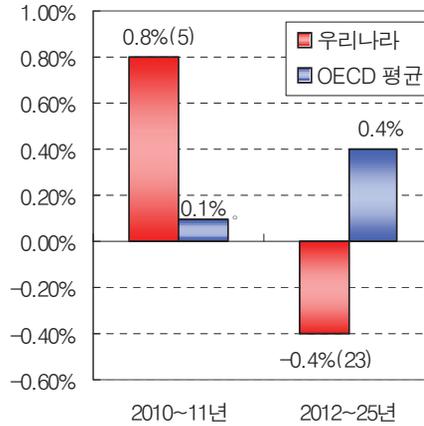
32) 국민경제에 최대 활용 가능한 노동력의 증가율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및 구조적 실업률의 증가율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33) KDI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001년~2010년 4.2%, 2011년~2020년 4.1%, 2021년~2030년 2.8%, 2031~2040년 1.7%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역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10~2040년 기간 동안 1.8%p 하락한데 주로 기인한다.(KDI, 2010년)

[그림 Ⅲ-3] 잠재 성장을 전망(OECD)



[그림 Ⅲ-4] 잠재 고용 성장을 전망(OECD)



* () 안은 OECD 국가 중 순위,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87(2010년)

고령인구의 증가와 연금, 의료비 지출 확대

한편 기대수명의 빠른 상승³⁴⁾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킨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³⁵⁾는 14.3%로 OECD 회원국(평균 22.0%)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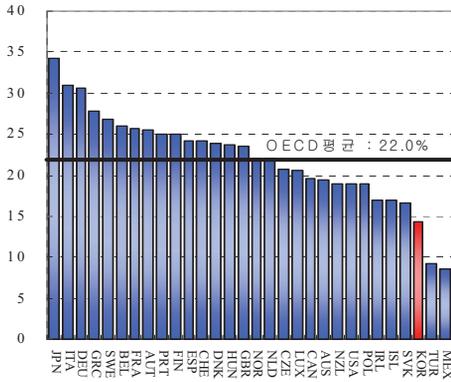
그러나 OECD 최하위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는 2020년 21.7%(OECD 평균 29.0%), 2030년 37.7%(OECD 평균 36.3%), 2040년 56.7%(OECD 평균 43.1%), 2050년 72.0%(OECD 평균 47.7%) 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부양비의 OECD내 순위는 2020년까지는 낮은 수준(28위)을 유지하다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30년 14위, 2040년 3위, 2045년 2위에 달할 전망³⁶⁾이다.

34) 1980년 우리나라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65.9세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79.4세로 상승하여 OECD 평균(79.0세)을 초과하였다.

35) 고령인구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 /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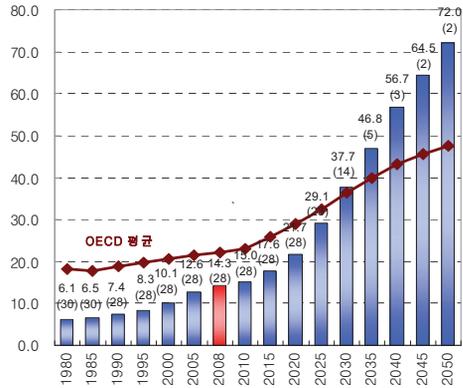
36)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 (1950-2050)

[그림 Ⅲ-5] 고령인구 부양비 비교(2008)



* 자료 : OECD Stat.

[그림 Ⅲ-6] 고령인구 부양비 추이



* 자료 : OECD Stat.

이러한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소비·투자 위축, 주택 및 자산구조의 변화 등 경제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나 특히, 연금·의료비의 빠른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1.3%로 OECD 국가(평균: 6.5%)중 두 번째로 낮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 도입 시기(1988년)가 늦어 아직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연금 지급의 본격화와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로 공적연금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³⁷⁾. 2010년 6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2044년부터 기금감소가 시작되어 206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0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편, 2008년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6.5%)도 OECD 평균(9.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1999~2008년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4위(OECD 평균 8.3%)를 기록하여 여타 OECD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³⁸⁾ 등의 영향으로 상승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2015년에는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KDI 및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37)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 전망(조세연구원, 2009년)

2020년(2.96%) → 2030년(4.57%) → 2040년(6.41%) → 2050년(8.39%)

38) 2008년 15~64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64.8만원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31.6만원으로 조사되었다.(출처 : 통계청)

<참고 III-1>

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자녀관의 변화, 만혼(晩婚)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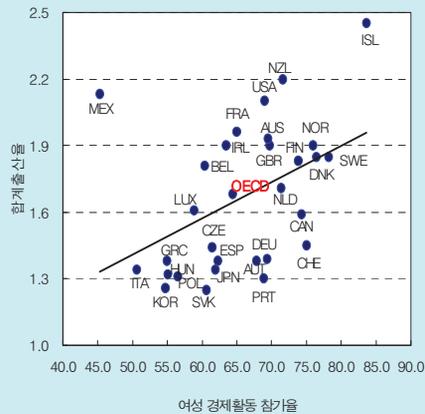
1)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합계 출산율 간의 추이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비해 합계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 시장에 참가한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 경력 단절 등의 기회비용이 커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횡단면 통계를 보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2.1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면서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64.3%)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더라도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으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 자료 : OECD Stat.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2007)>



* 자료 : OECD Stat.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인 30~39세 사이에 급락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산에 따른 업무공백을 꺼리는 직장문화, 경직적인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으로 임신·출산 이후 직장에서 퇴직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여성의 임신·출산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종합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곤란한 직장 환경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자료 : OECD Stat.

〈교육비 지출과 출산율 간의 관계〉



* 자료 : 통계청

2) 높은 교육비 부담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3%에서 2009년 13.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식료품비 지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교육비 부담은 출산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위의 시계열 분석 결과도 교육비 지출과 출산율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책 방향

기본 방향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³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산율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출산율이 증가되더라도 15~20년이 지난 후에야 노동력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 대책과 더불어 현재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1) 우선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보육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다음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⁴⁰⁾을 높여 가용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방적인 이민정책⁴¹⁾을 통해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등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혁신 촉진 등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연금제도 및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 동안의 정책 평가

그 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06년 8월에는 출산율 하락 추세의 반전과 고령사회의 적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42.2조원을 투입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첫째, 보육·교육비 지원 등 자녀 양육비 부담의

39) 프랑스는 1974년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이후 2008년 인구 대체수준에 근접한 수준(2.0)으로 회복하는데 까지 34년이 소요되었다.

40)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6.9%p 낮은 65.4%(2009년 기준, 2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3.9%, 27위, OECD 평균 65.0%)이 낮다.

4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2.2%(2008년 기준)로 19위(/23개국, 평균: 6.3%)를 기록하였다.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분야 대책, 둘째, 국민연금 개선, 기초고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노인복지 강화 대책, 셋째,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고령자 고용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장 동력 확충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Ⅲ-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 연차별 투자금액(단위: 조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저 출 산	2.1	3.1	3.8	4.8	5.9
고 령 화	1.3	1.5	3.2	4.7	5.1
성장동력	1.1	1.3	1.4	1.5	1.4
계	4.5	5.9	8.4	11.0	12.4

* 자료 :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반등을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2008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OECD 회원국 중 25위(52.0%)였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9년에는 27위(53.9%)로 오히려 두 단계 하락하는 등 아직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대응기반 마련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직장문화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대책의 경우에도 노인 복지 위주로 접근하여 연금, 의료시스템 개혁 등 사회시스템 개선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급여율 인하(60%→50%, 2007년) 등 제도 개선이 있었던 국민연금과는 달리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초안이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서는 정책의 중심을 ‘저소득 가정의 보육지원’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고령화 대책의 경우에도 의료시스템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의 개선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회복,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출산율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은 자녀를 양육하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나 기존 1차 저출산 대책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았다. 가구당 소득구간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가구당 소득이 낮아질수록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으나 출산율 하락 추세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계층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저소득층 뿐 아니라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는 맞벌이가구 등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교육 내실화, EBS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강화, 선진형 입학전형 제도 정착 등을 통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것도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표 Ⅲ-2〉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 추이(단위: 명)

구분	25~44세					35~44세				
	차이	2003	2006	2008	2009	차이	2003	2006	2008	2009
1분위	△0.22	1.66	1.56	1.62	1.44	△0.08	1.81	1.68	1.85	1.73
2분위	△0.07	1.71	1.70	1.69	1.64	0.01	1.91	1.85	1.87	1.92
3분위	0.05	1.72	1.70	1.75	1.77	0.05	1.93	1.89	1.97	1.98
4분위	△0.05	1.79	1.82	1.74	1.74	△0.07	2.01	2.02	1.95	1.94
5분위	△0.09	1.87	1.80	1.79	1.78	△0.07	2.07	1.96	1.99	2.00

* 차이: 2003년과 2009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임, 자료 : 통계청(10.8월)

한편, 가임여성 대부분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세대⁴²⁾임을 감안하여 그간 미흡했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 시간제 확산,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시민사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가정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참고 Ⅲ-2>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 서울경기 지역 20~30대 직장인 561명을 대상으로 조사(2010년 7월)

- 평균 희망자녀 수는 1.81명으로 합계출산율(1.15명)보다 높음
- 희망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양육비'(64.7%)와 '시간 부족'(12.1%) 때문으로 나타남
 - 자녀양육비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사교육비'(57.9%)가 1위였고, '유치원 등 보육위탁비'(17.3%), '의료비 등 양육비'(10.5%) 順
 - 시간부족에서는 '맞벌이'(63.8%), '미흡한 휴가·휴직'(18.9%), '과도한 근무시간'(14.0%) 順
- 필요한 출산정책으로는 '임신·출산비용 확대지원'(43.5%), '여성 휴직기간 연장' (31.2%), '남성 육아 휴직제도 도입'(19.3%) 順
 - 특히,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시설 관련 정책 요구가 76.4%
 -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33.2%), '보육시설 이용료 면제'(24.8%) 등의 順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82.0%가 부정적이었으며, 이유로는 '복지비용 부담'(45.7%), '기업의 무관심'(19.3%) 등의 順
 - 52.9%가 '일·가정 병행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기업의 공조에 대해 76.9%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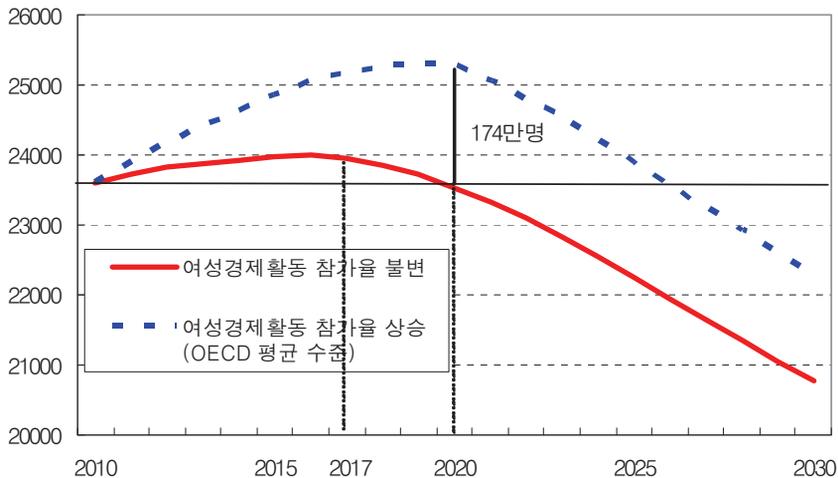
42) 취업미혼여성(20~44세) 중 출산 후 일을 계속하겠다는 비율이 86.2%에 달하였다. (2009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09.12월))

- '시간을 줄여서 일 하겠다(43.7%)', '평소대로 일 하겠다(42.5%)', '그만 두겠다(13.8%)'

둘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의 둔화에 대비하여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로 OECD 회원국(OECD 평균 : 65.0%)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만약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릴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경제활동인구) 감소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늦추는 효과가 있으며 2020년까지 174만명의 추가적인 노동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7] 여성 노동력 참여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변화 전망⁴³⁾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내실화,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알선이 필요하다.

43) 2011년부터 매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씩 상승하여 OECD 평균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하였다.

또한, 고령인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⁴⁴⁾도 필요하다. 현행 연공서열형 급여 체계에서는 고령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형 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직무 훈련 등을 통한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8.0%로 EU 평균인 3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4.3%에 그치고 있다(교육개발원, 2009년). 또한, 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다른 방안으로는 해외인력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2%(OECD 19위/23개국, 2008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단순 노무인력이 대부분이고 전문 인력은 전체 외국인의 3.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해외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동포 우수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최근 급증(04년 1.7만명→08년 7.1만명)하고 있으나 학위 수료 후 국내잔류 비율(전문직 비자로 전환 비율)이 0.6%에 그치는 등 국내에서 전문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기업간의 취업연계 시스템 구축,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3〉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인력 변경 추이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외국인 유학생(명)(A)	17,023	24,797	38,649	56,003	71,531
유학생 비자 → 전문직 비자(명)(B)	16	47	121	239	414
비중(%) (B/A)	0.1	0.2	0.3	0.4	0.6

* 자료 : 법무부

44)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층(55세~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OECD 평균(54.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09년)

셋째,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7.35%로 OECD 25개국 중 3위이며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도 34.6%로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25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활발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대학의 낮은 경쟁력을 들 수 있다. IMD(201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은 OECD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학연계 강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교육개방 등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낮은 다른 이유로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이는 OECD 최하위(28위/28개국)이다.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형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금·건강보험의 개선, 복지재정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제도 개선을 통해 기금소진 시기가 연장(2044년→2060년)되었으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의 도입 확대 등 지불제도의 개혁,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재정 지출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구조⁴⁵⁾와 관련하여 고령과 건강 부문과 함께 아동보육 부문에 대해서도 선제적 투자 관점에서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45)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중(% , 2010년): 고령 2.33, 보건 3.26, 가족 0.48,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0.27

참고문헌

- 교육개발원, “2009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2009년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2008년
-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2009년
-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자료(복지분야)”, 2010년
-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년
- 한국개발연구원, “미래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2010년
- 현대경제연구원,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2010년
- 김동렬, “출산율 1.1시대의 딜레마와 극복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외, 2006년
- 박형수 외1인, “사회복지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 안종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10년
- 이삼식 외5인,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 최경수,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한국개발연구원, 2009년
- 최동순, “출산율 저하 추세 바뀔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2009년
- 한진희 외4인, “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 2006~2080”, 한국개발연구원, 2007년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2010년
- OECD, 한국경제보고서 Volume 2001/17, 2001년
- OECD, 한국경제보고서 Volume 2005/21, 2005년
- OECD, 한국경제보고서 Volume 2007/6, 2007년
- OECD, “Economic Outlook 87”,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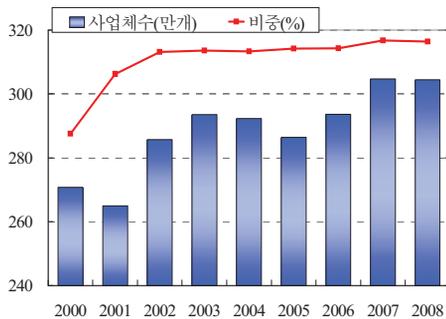
2. 중소기업 경쟁력 현황 및 향후 과제

(1) 현황

중소기업⁴⁶⁾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등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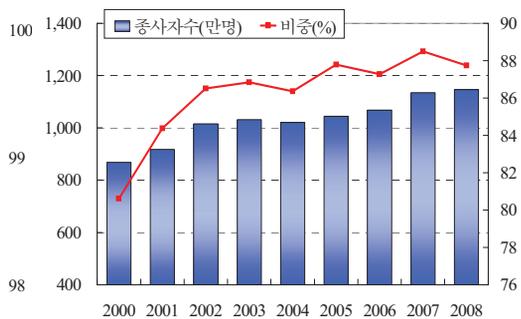
우리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체수는 2008년말 기준 304만 4천개로 전체 사업체(304만 7천개)의 절대다수인 99.9%를 차지하였다. 또한 고용은 1,147만명으로 전체(1,307만명)의 87.7%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 종사자수가 2000~2008년중 54만명 감소하는 와중에도 중소기업은 318만명 증가하였다.

[그림 Ⅲ-8] 중소기업¹⁾ 사업체수



주 : 1) 1인 이상 전사업체 기준

[그림 Ⅲ-9] 중소기업¹⁾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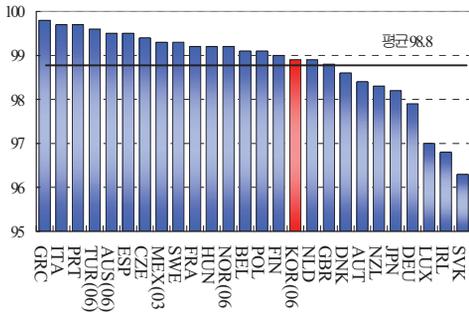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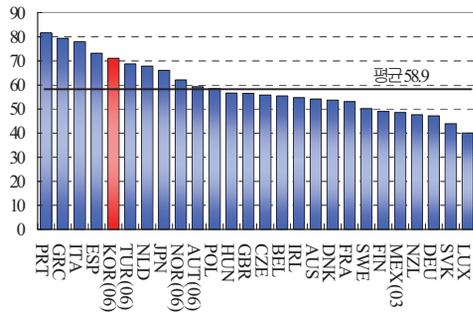
중소기업(제조업 기준)의 비중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제조업)의 사업체 비중은 98.9%로 OECD평균(98.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순위는 26개국 중 16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종사자 비중은 71.0%로 OECD평균(58.9%)에 비해 크게 높으며 순위도 26개국 중 5위를 기록하였다.

46) 중소기업은 근로자수, 자본금 등이 업종별 기준(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뉘는데 소기업은 i)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 ii) 여타 업종은 10명 미만인 기업이다. 또한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그림 Ⅲ-10] 중소기업¹⁾ 사업체 비중



[그림 Ⅲ-11] 중소기업¹⁾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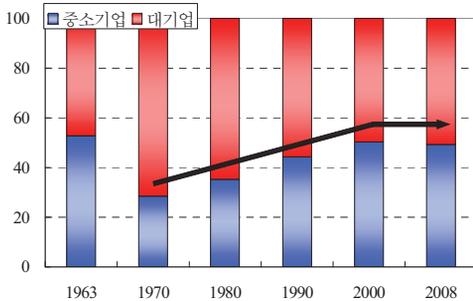


주 : 1) 제조업 기준, 종사자수 250인 미만(우리나라는 200인 미만) 사업체 기준, 기준년도는 2007년(우리나라는 2006년)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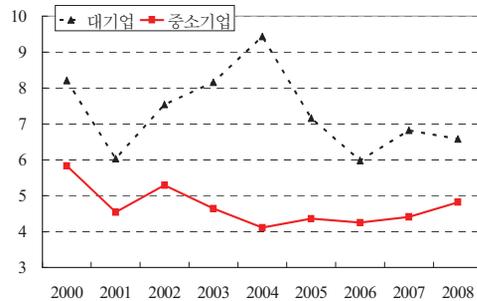
이처럼 중소기업은 고용과 사업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 성장활력, 생산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경영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제조업 기준)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50.2%에서 2008년 49.2%로 하락하였다. 또한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Ⅲ-12] 중소기업¹⁾ 부가가치 비중 추이



[그림 Ⅲ-13] 중소기업¹⁾ 매출액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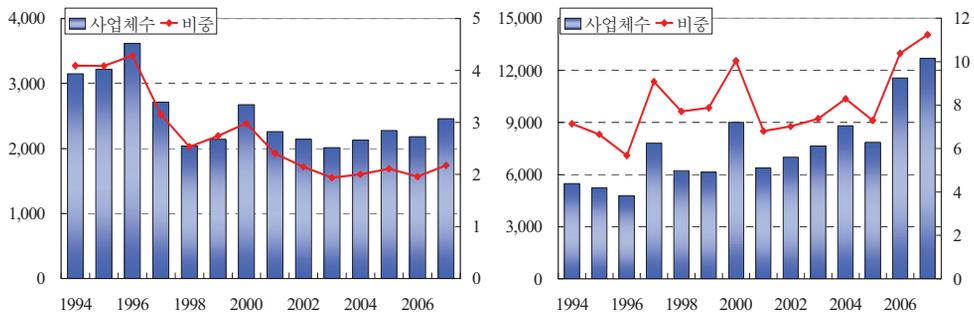


주 : 1) 제조업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둘째, 성장활력을 보면, 중소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성장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력 20년 이상이지만 종사자수는 19인 이하인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비중은 '94년 5,488(7.1%)에서 '07년 12,696개(11.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업력 10년 이내에 종사자수 50인 이상 중기업으로 성장한 고성장 중소기업은 '94년 3,147개(4.1%)에서 '07년 2,456개(2.2%)로 감소하였다.

[그림 Ⅲ-14] 고성장¹⁾ 중소기업 비중 [그림 Ⅲ-15] 성장정체²⁾ 중소기업 비중



	1994	1996	2000	2002	2004	2006	2007
■ 성장활력지수 ³⁾	97.0	98.6	92.9	95.1	93.7	91.6	90.9

주 : 1) 10년 이내 50인 이상 성장기업

3) 100 - 성장정체 비중 + 고성장 비중

2) 20년 이상 19인 이하 기업

자료 : 중소기업청

종사자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시근로자 9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전체 사업체의 88.6%를 차지하는 등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간규모 및 대기업이 적고 소기업에 집중되는 기업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Ⅲ-4> 중소기업¹⁾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1~9	10~49	50~249	250~
■ 한국	88.6	8.3	2.9	0.2
■ 일본	50.9	39.2	8.5	1.4
■ 독일	62.1	27.3	8.4	2.2
■ 영국	71.7	21.0	5.9	1.4
■ 이태리	83.4	14.4	1.9	0.3

주 : 1) 제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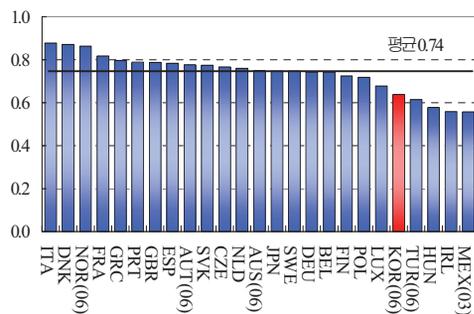
자료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5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국내 대기업이나 주요국 중소기업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수준에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가가치/고용배율⁴⁷⁾도 0.64로 OECD(평균 0.74)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Ⅲ-16] 중소기업¹⁾ 노동생산성 추이(대기업=100)



[그림 Ⅲ-17] 주요국 중소기업¹⁾ 부가가치/고용배율²⁾



주 : 1) 제조업 기준
 2)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고용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서, 동배율이 낮을수록 국가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
 자료 : OECD, 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의 경쟁력

이하에서는 인력, 자금, 기술력, 경쟁관계의 네 가지 요인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본 후 중소기업의 총체적인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이를 종합해 보도록 한다.

(요인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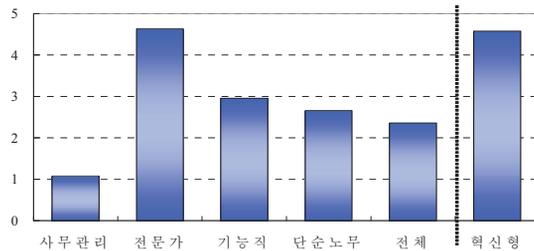
우선 인적자본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양과 질 모두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즉 인력부족률과 이직률이 높고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인력이 부족하며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8%로 대기업(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

47)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고용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서, 동 배율이 낮을수록 국가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수준이며 이직률도 17.7%로 매우 높다. 또한 직종별 부족률은 전문가 직종이 사무관리, 단순노무 등 여타 직종에 비해 높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높다. 교육훈련 면에서도 중소기업은 전체 노동비용중 극히 미미한 수준(0.3%)만을 교육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1.2%)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다.

〈표 Ⅲ-5〉 중소기업 인력 현황 [그림 Ⅲ-18] 중소기업^외 직종별 인력부족률%

국 명	중소기업	대기업
■ 인력부족률	3.8	1.7
■ 이 직 률	17.7	—
■ 교육훈련비 ¹⁾	0.3	1.2
■ 연간 급여 ²⁾	23.6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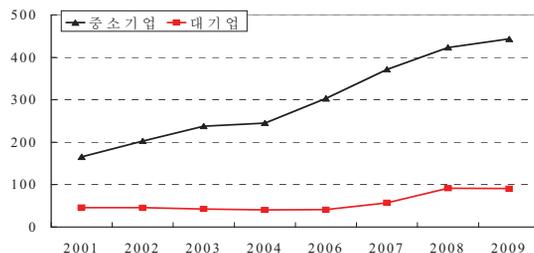


주 : 1) 교육훈련비/전체 노동비용 2) 2008년 기준(백만원) 3)제조업 기준
 자료 : 노동부,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

둘째, 자금력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신용평가 방식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양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유인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01년 165.5조원(전체 대출의 44.3%)에서 '09년 443.5조원(46.1%)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09년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및 신용보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등을 포함하여 약 8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소기업대출(443.5조원)의 19.2%, 명목GDP(1,063.1조원)의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표 Ⅲ-6〉 중소기업 정책자금(조원) [그림 Ⅲ-19] 은행 중소기업 대출(조원)

국 명	2009	2010
■ 신용보증	67.6	66.1
■ 융 자	5.9	3.1
■ 투 자	1.1	1.0
■ 한국은행대출	10.0	10.0
합 계	84.6	80.2



자료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반면 질적으로는 은행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특히, 창업단계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은행의 대출관행에 대한 실태조사('09) 결과, 담보없이 기술력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평가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8.1%에 불과하였다. 또한 담보유무와 관계없이 신용평가지 기술력과 미래 발전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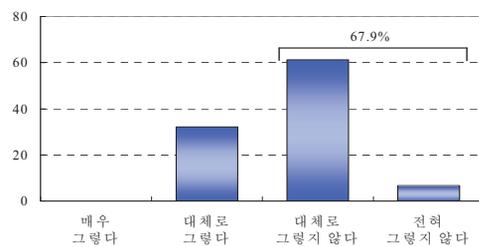
담보없이 기술력으로 대출받은 경험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09)

[그림 Ⅲ-21]

신용평가지 기술력 평가의 적정성



셋째, 기술력은 양적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질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혁신형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벤처기업('04년 7,967개 → '10.2월 18,884개)과 이노비즈기업(2,762개 → 16,068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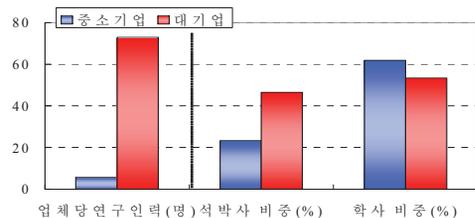
그러나 질적으로는 기술개발투자 부진,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기술개발투자를 보면 '08년 기준으로 R&D투자를 실시하는 중소제조업은 전체의 27.6%에 불과하다. 또한 연구인력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업체당 평균 6명에 그쳐 대기업(73명)에 비해 규모가 크게 뒤쳐지며 인력수준도 대기업의 경우 석박사급이 46.5%에 달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23.3%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Ⅲ-7] 중소제조업 R&D투자

구분	'07	'08
■ R&D 수행 업체수 (전체대비 비중)	25,560 (22.6)	32,663 (27.6)
■ 업체당 투자액(백만원)	200	177
■ R&D/매출액(%)	1.37	1.26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Ⅲ-22]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황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7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의 중요한 요소인 디자인능력, 신기술 개발능력 등에서 더욱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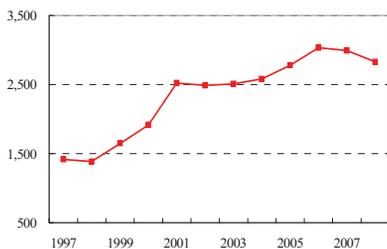
〈표 Ⅲ-8〉 중소기업 기술수준(세계최고수준=100)

구 분	제품 기획	디자인	신기술 개발	제품 설계	시험 검사	제조 능력	생산 관리	유지 보수	전 체
■ '03년	68.1		71.0	75.3	70.3	78.4	75.2	76.6	73.6
■ '05년	73.9	73.0	74.6	77.1	74.8	78.2	76.9	78.3	75.8
■ '07년	73.1	70.9	74.3	75.2	73.2	78.1	76.1	76.8	74.6
■ '09년	73.2	72.6	73.9	76.2	73.2	77.2	76.3	76.1	74.7

자료 : 중소기업청

마지막으로 경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상당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행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와 고용면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 1개 업체당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97년 1,416개에서 '08년 2,827개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 결과 경영애로의 원인으로 업체간 과당경쟁을 꼽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38.9%에 달해 원자재가격 상승(55.0%), 내수부진(49.1%)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Ⅲ-23〕 대기업당 중소기업수¹⁾



〈표 Ⅲ-9〉 중소기업 경영애로요인별²⁾ 비중(%)

내수부진	원자재가격	자금조달	인력확보	기술경쟁력	대금회수
49.1	55.0	25.3	26.0	5.0	32.4
설비노후	환율불안	금리불안	업체간 과당경쟁		
8.3	10.8	4.5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38.9	42.2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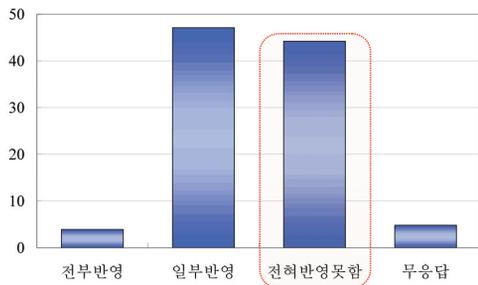
주 : 1) 제조업, 대기업은 종사자 1천명이상, 중소기업은 300명미만 업체 기준
 2) 복수응답, '10.6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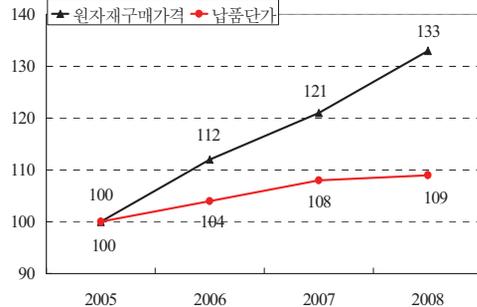
한편, 2008년 기준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47.9%가 하도급 거래를 맺고 있으며 동 업체들의 모기업 의존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81.6%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서 과당경쟁으로 중소기업들의 협상력 약화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과 더불어 업계 일각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잔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과다⁴⁸⁾, 제한된 정책수단⁴⁹⁾ 등으로 정부가 불공정거래 발생시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10.7월) 결과 제조업 중소기업중 원자재가격 증가분을 납품가격에 전부 반영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3.9%에 그쳤으며 일부 반영은 47.1%,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체가 44.2%로 절반에 육박하였다.

[그림 Ⅲ-24] 원자재가격 변동분 납품단가 반영 여부



[그림 Ⅲ-25] 중소기업 납품단가¹⁾ 변동



주 : 1) 2005=100

자료 :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

이같은 일부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즉 2005~2008년 중 대기업과 대기업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7.1% 및 6.1%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4.7%에 불과하였다.

<표 Ⅲ-10> 대기업(구매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 영업이익률(%)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5~2008평균
■ 대기업(A)	6.7	6.6	7.3	7.6	7.1
■ 대기업 자회사(B)	6.3	6.6	6.2	5.3	6.1
■ 중소기업(C)	4.5	4.7	4.6	4.7	4.7
■ C-A	△2.2	△1.9	△2.7	△2.9	△2.4
■ C-B	△1.8	△1.9	△1.6	△0.6	△1.4

자료 : 기업은행

48)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대기업-중소기업간에 이루어지는 1차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2,3차 하도급 거래까지 포함한 수많은 거래관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49)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하도급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요청을 받을 경우 국가계약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요청사례는 5건에 불과하며 실제 입찰참가가 제한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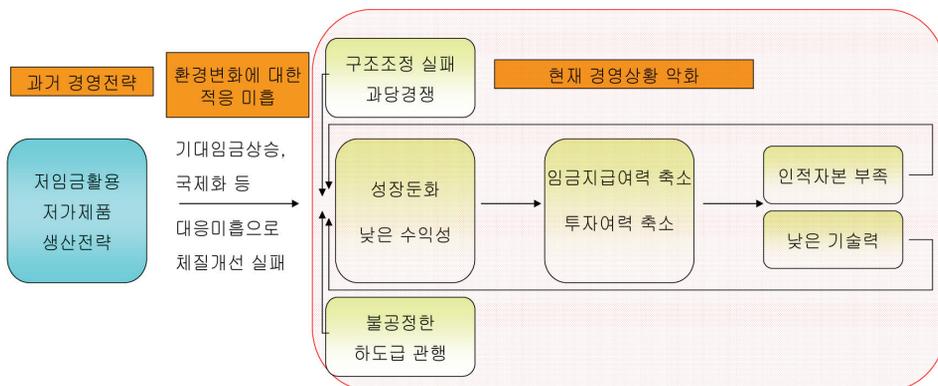
(경영전략)

이제까지 살펴본 경쟁력 요소별 분석결과를 중소기업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종합해 볼 때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경영전략의 유효성 저하와 이에 대한 대응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하에서 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전략은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저임금의 장점이 사라지고 국제화,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대기업이 저렴한 해외노동력과 저가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유효성이 빠르게 저하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 애로, 혁신인력 부족 등으로 투자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체질개선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상당부분 실패하였다.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이 낮았던 점도 중소기업의 질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체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역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Ⅲ-26]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전략



(3) 정책과제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제발전 초기의 보호육성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벤처육성을 거쳐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전환하여 왔다. 정부는 자금, 인력, R&D투자, 판로개척 등 여러 기능별로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원대상에 대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III-3>

중소기업정책의 변천

- 60~80년 : 법제, 지원조직 신설 등 중소기업정책 태동기
 - * (정책기조) 대·중소기업간 생산 계열화, 사업영역보호, 협동조합 육성 (주요정책) 중소기업기본법(64), 계열화촉진법(75), 고유업종제도(79), 신용보증기금(76), 중소기업진흥공단(79) 등
- 90~00년 :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책 다변화
 - * (정책기조)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시설현대화, 벤처기업 육성 (주요정책) 중소기업청 개청(96), 벤처기업특별법(97), 벤처창업자금(94)
- 00~07년 :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출현 및 정책영역 확대
 - * (정책기조) IT벤처 육성, 자금·인력·기술 등 기능별 지원체계 구축, 정책영역 확대(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재래시장 등) (주요정책) 기술혁신촉진법(01), 지식서비스육성자금(02), 인력지원법(03), 전통시장법(04), 장애인기업법(05) 등
- 08~현재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
 - * (정책기조) 기업체질 개선,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계층 경영안정 (주요정책) 위기시 유동성 확대 등 긴급 경영안정 조치, 정책금융공사 신설(09)

그러나,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경쟁력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규모가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체계⁵⁰⁾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규모별 기업분포가 중견·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 크게 치우쳐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성장단계나 기술 특성 등 질적 조건보다는 양적인 규모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면서 오히려 기업의 성장노력을 저하시키는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따라서 과거 지속되어 온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각종 지원정책의 틀을 탈피하여 「창업 → 성장 →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정책⁵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적 노하우가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인설립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설립절차(8단계 → 4단계)를 간소화하고 기간(14일 → 7일)을 단축함으로써 창업여건을 개선한 사례⁵²⁾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성장단계에서는 지속성장의 발판이 되는 혁신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상품·시장의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계,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혁신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가 매칭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주도할 고급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확장단계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정부는 2010. 9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성장·확장 단계별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51) 독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발전단계를 창업·성장·확장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52) 국가별로 창업여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일수(14일, OECD 19위), 창업절차(8단계, 26위), 창업비용(1인당 국민소득의 14.7%, 27위) 등 제반 여건이 창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견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hidden champion) 육성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저한세율의 단계적 인상,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신용보증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졸업기업에 대해 조세·금융부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KOTRA를 통해 해외 정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기업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단 주도하에 「신용위험 평가→구조조정 대상 선정→워크아웃」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도⁵³⁾의 일몰 연장, 통합도산법 개정 등 민간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역량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와 경영 선진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방적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규제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수평·수직적으로 확산⁵⁴⁾시키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 납품대금 감액시 입증책임 전환 등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하도급계약 확인요청서’ 표준서식 제정·보급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 추정제(‘10년 7월 시행)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구두발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53) 금융부채 상환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2010년말 일몰 도래) 등

54) '10.9월 현재 26개 기업집단 142개 대기업이 5만 7천개 협력사와 체결한 상황이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을 추진하고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 공표, ‘Cyber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동반성장 노력이 우리 산업생태계의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동반성장의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인 공동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으로서 확고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와 성과 공유, 협력사 지원 확대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도 회계·경영투명성 강화, 자기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참고 III-4>

K사의 3不 정책 추진사례

2010년 7월 K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3不 정책’을 선언했으며 이는 ① 중소기업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②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않기 및 ③ 중소기업과의 경쟁환경을 조성하지 않기로 나누어진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예보제 실시 및 개발협력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K사의 구매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생산·재고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품개발 후 상용화되지 않아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둘째, 비밀유지계약(NDA), 아이디어 보상구매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아이디어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 셋째,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인력면에 있어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⁵⁵⁾이다. 또한 중소기업 구인정보 DB 구축, 산학연계의 강화 등을 통해 마찰적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한편 바우처사업⁵⁶⁾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 수요 창출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55) 정부는 창업지원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특성화 전문계고·마이스터고 확장사업, 산학연계형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56) 연구개발, 컨설팅, 디자인 등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바우처 제공을 통해 국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참고문헌

- 국가경쟁력위원회,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2008년
- 중소기업연구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06년
-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기업신용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2009년
- 중소기업연구원, “제조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 진단”, 2009년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10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2009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위상지표”, 2010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중소기업청 업무보고)”, 2008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 육성시책의 발전과정으로 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 발전 공헌비교”, 2008년
- 금융연구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2009년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태와 역량 평가”, 2009년
- 부처합동,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4년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대책”, 2009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각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각년
- 중소기업중앙회,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각월
- OECD, “한국경제보고서” Volume 20010/6, 2010년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5

3.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지금 우리경제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노동력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금번 위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높은 대외의존도로 해외충격에 취약하고 구조적인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국제수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⁵⁷⁾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일본⁵⁸⁾을 포함한 세계 각국도 경제의 서비스화⁵⁹⁾에 대응하여 자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왜 시급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원인을 분석한다. 이어서 그동안 추진된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7) 서비스 산업은 유형의 물건이 아닌 용역을 창출하는 업종을 말하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대분류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며,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543개 업종이 해당된다.

58) 2004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창조전략 2005'의 7대 전략 산업 중 4개 분야(콘텐츠,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 서비스)가 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2007년에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생산성 제고전략 발표하였다.

59) 서비스 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서비스의 중간재화 등의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서비스부문이 커지는 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

우리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증가하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둔화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OECD 최하위의 출산율로 향후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미래의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2001~2009년의 4.2%에서 점차 하락하여 2031~2040년에는 1.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같은 기간 동안 1.8%p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표 Ⅲ-11〉 GDP 성장률 전망(KDI)

기간	GDP 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01~09년	4.2	2.0	1.5	0.7
11~20년	4.1	1.9	0.9	1.3
21~30년	2.8	1.4	0.2	1.2
31~40년	1.7	0.9	-0.3	1.2

* 자료: 미래비전 2040(KDI, 10.6월)

향후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며 특히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더구나 IT 서비스,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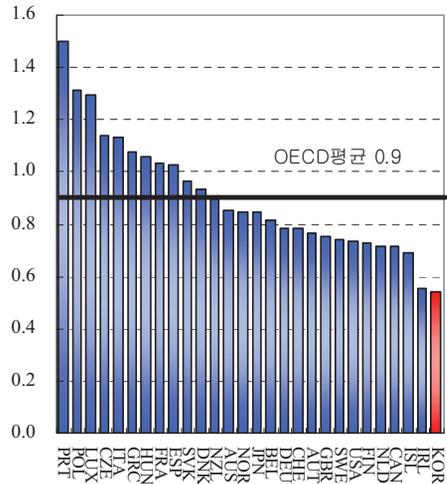
서비스 산업(2008년)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60.0%, 고용 비중 67.3% 등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생산성 수준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OECD 최하위(평균 90.2%, 28위/28개국)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 비교의 경우에도 우리의 취업자 1인당 서비스산업 생산액은 3.2만 달러로 OECD 최하위(28위/28개국, 평균 7.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Ⅲ-27]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성 추이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
* 시간당 부가가치창출액 기준(2005년=100)

[그림 Ⅲ-28]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배율(2008년)



* 자료 : OECD Stat.

고용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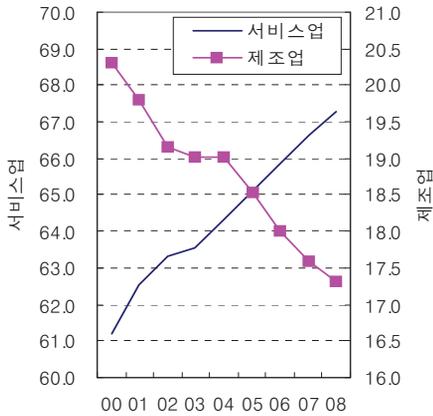
일자리는 제조업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늘고 있다. 2000년에서 2009년간 235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조업 일자리는 46만개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 일자리는 326만개가 증가했다.⁶⁰⁾⁶¹⁾

이러한 서비스업 고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 고용비중(67.3%, 23위/28개국, OECD 평균: 71.4%)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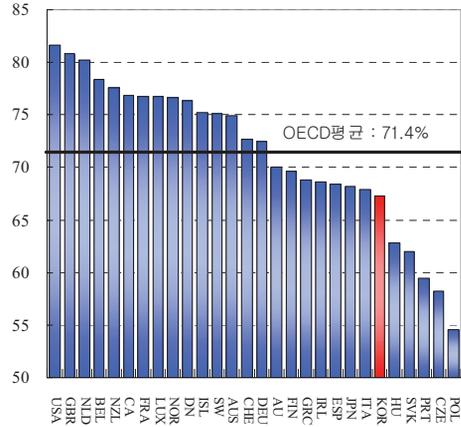
60)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에는 고용이 0.1% 감소했고,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에는 고용이 0.66% 증가하였다.(황수경, 2010)

61)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2007년 기준)는 제조업은 9.2명인 반면 서비스업은 18.1명으로 제조업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그림 Ⅲ-29] 서비스업 제조업 고용비중 추이 [그림 Ⅲ-30] OECD 서비스업 고용비중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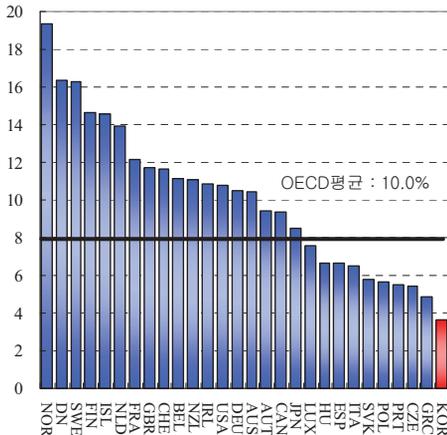
* 자료 :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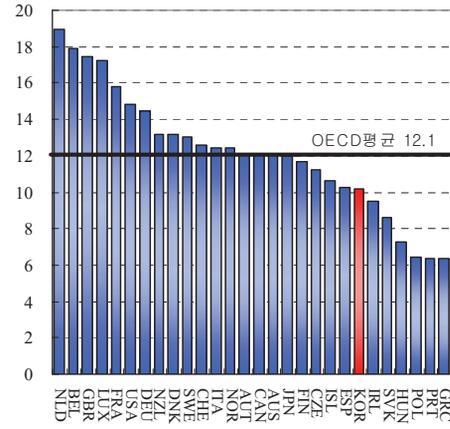
* 자료 : OECD Stat.

서비스업 부문별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24.1%, 5위/28개국, OECD평균: 20.7%) 등 저부가가치 업종은 과잉경쟁 상태로 고용 창출 여지가 크지 않으나, 보건/사회복지(3.6%, 28위/28개국, OECD평균: 10.0%), 사업서비스(10.2%, 22위/28개국, OECD평균: 12.1%)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고용창출의 여지가 크다⁶²⁾.

[그림 Ⅲ-31] 보건/사회복지 고용비중 2008년 [그림 Ⅲ-32] 사업서비스 고용비중 2008년



자료 : OECD Stat.



자료 :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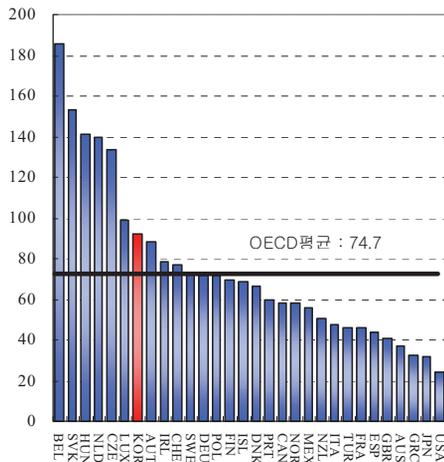
62) 2000년부터 2009년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일자리가 23만개 감소한 반면 보건 의료/사회복지는 57만개, 사업서비스는 9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및 국제수지 개선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무역규모/GDP, 2009년)는 82.5%(OECD 7위)에 이를 정도로 높아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과 경기변동을 완화⁶³⁾하여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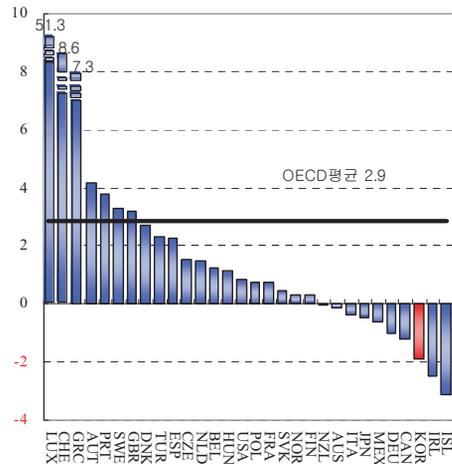
또한,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는 구조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6~2008년 기간동안 연평균 서비스수지는 GDP 대비 1.9%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OECD 중 하위 2위이다. 2009년에도 172억불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수지가 157.9억불 적자로 적자 폭이 가장 컸으며 여행수지(38.9억불), 특허권 등 사용료(38.6억불)가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통해 국제수지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33]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08년)



자료 : OECD Stat.

[그림 Ⅲ-34] 서비스업 무역수지 비교('06~'08평균, GDP대비)



자료 : OECD Stat.

63) OECD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기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준, 2010)

(2)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과도한 규제

그동안 제조업으로의 자원 유입 촉진과 공익성 등의 명분으로 서비스 산업에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전체 서비스업종 543개의 67.4%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육, 보건복지, 금융보험 등은 높은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으로 나타났다(박정수 외, 2009년).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5번째로 비제조업 시장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경쟁부족으로 비제조업의 마크 업(mark-ups)은 제조업의 3배 수준으로 이는 OECD에서 2번째 높은 수준이다(OECD, 2008).

〈표 Ⅲ-12〉 규제산업 수 기준 진입규제 산업 비율(2008년)

구분	제조업	운수통신	금융보험	교육	보건복지
진입규제산업 비율(%)	33.8	80.7	100	100	100

자료 : 최석준(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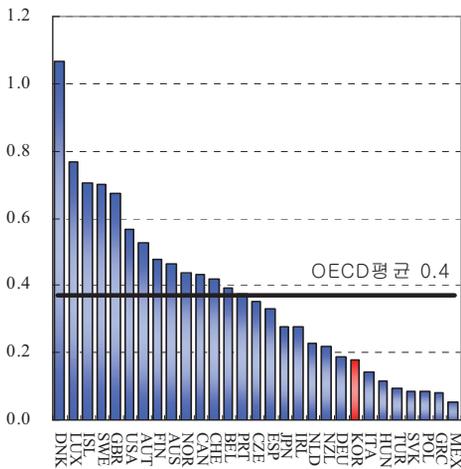
차별적인 지원정책

제조업 중심의 세제, 재정지원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지원이 미흡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업종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 업종을 세제지원에 포함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도 최근 지원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기준이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 300명, 자본금 80억원이나,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근로자 수는 80~300명, 자본금은 50~300억원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지원대상이 제조업에 비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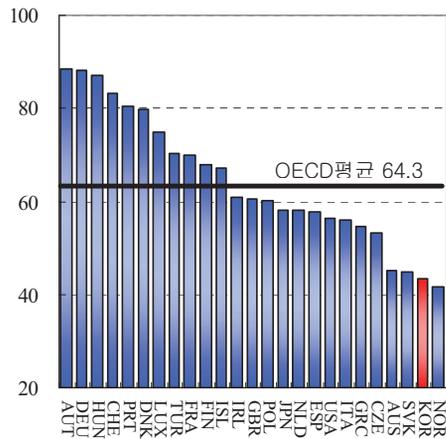
투자부진 및 규모의 영세성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미약하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영세하다는 것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한 원인이다. GDP 대비 R&D 지출비중은 제조업이 2.2%로 OECD 국가중 2위(/29개국)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0.2%로 22위(/29개국, 평균 0.4%)에 그쳤다. 또한 전체 FDI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43.5%로 24위(/25개국, 평균 64.3%)를 기록하였다. 영세 사업자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31.3%로 OECD 국가(평균: 16.4%)중에서 4번째로 높다.

[그림 Ⅲ-35] GDP대비 서비스업 R&D 지출비중(2007년)



[그림 Ⅲ-36] 서비스업 FDI 비중(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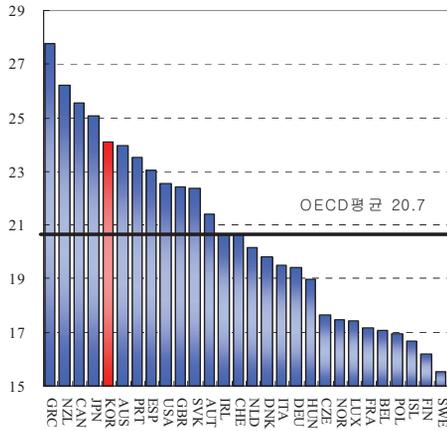


업종별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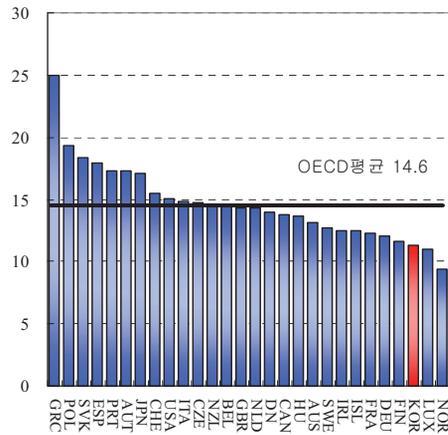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고용비중(총 고용의 24.1%, 5위/28개국, OECD 평균 20.7%)은 높으나 부가가치 비중(GDP의 11.3%, 26위/28개국, OECD 평균 14.6%)이 낮은 전형적인 과당경쟁, 저생산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9년 한 해 동안 1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⁶⁴⁾.

64) 1997년 외환위기때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인력의 유입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자리는 1998년(557.0만명)에서 2000년(596.6만명)동안 약 40만개 증가했다.

[그림 Ⅲ-37] 도소매/음식숙박 고용비중(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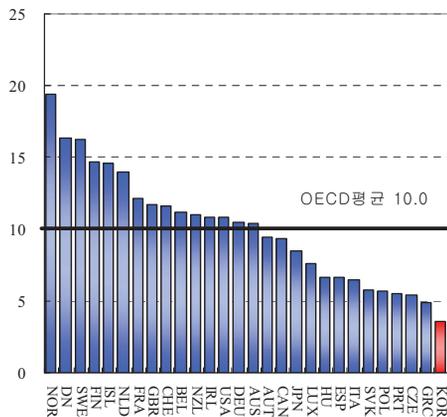


[그림 Ⅲ-38] 도소매/음식숙박 부가가치 비중(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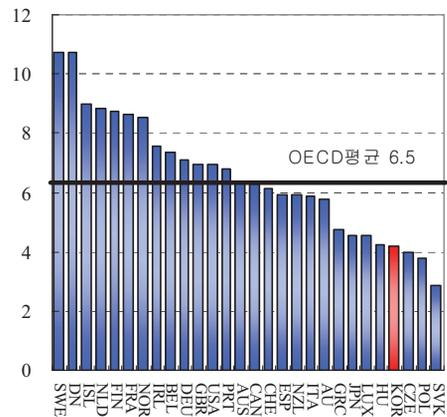


보건/사회복지 업종은 고용(총 고용의 3.6%, 28위/28개국, OECD 평균 10%)과 부가가치 비중(4.2%, 25위/28개국, OECD 평균 6.5%)이 모두 낮다. 이는 우리의 의료서비스가 높은 기술수준과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근거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업종도 인구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39] 보건/사회복지 고용 비중(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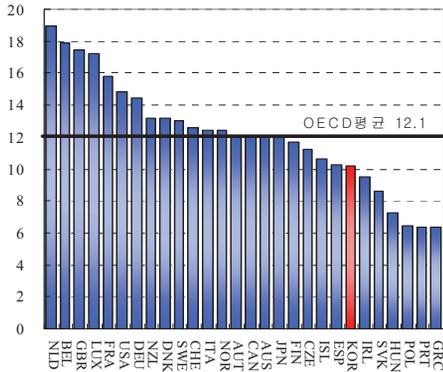


[그림 Ⅲ-40] 보건/사회복지 부가가치 비중(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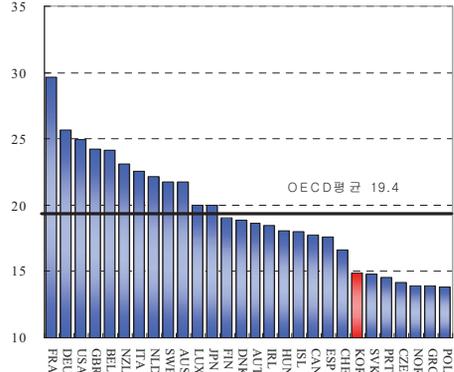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이나 고용(10.2%, 22위/28개국, OECD 평균 12.1%)과 부가가치 비중(14.9%, 22위/28개국, OECD 평균 19.4%)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자격사 등의 분야에서 진입제한과 영업규제에 주로 기인한다.

[그림 Ⅲ-41] 사업서비스업 고용비중(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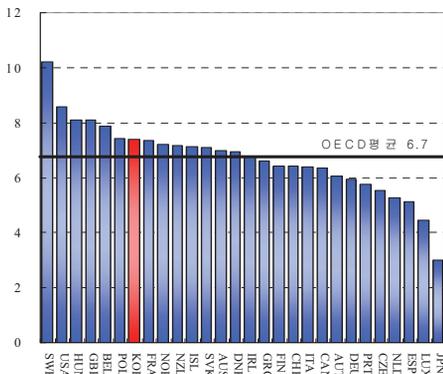


[그림 Ⅲ-42]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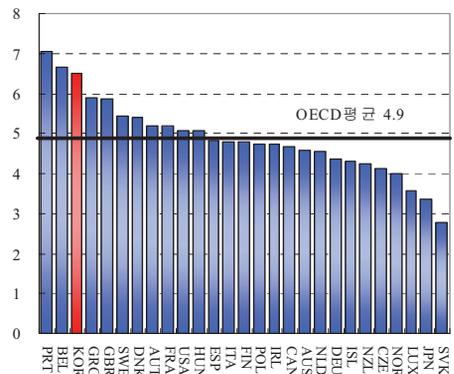


교육서비스 분야는 고용(7.4%, 7위/28개국, OECD 평균 6.7%) 및 부가가치(6.5%, 3위/28개국, OECD 평균 4.9%)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시위주 사교육 시장 발달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⁶⁵⁾이 낮고 유학생 순유출(OECD 25위/27개국)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고등교육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그림 Ⅲ-43] 교육서비스업 고용비중(2008년)



[그림 Ⅲ-44] 교육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2008년)



65)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은 OECD 국가 중 25위이다.(IMD, 2010)

(3)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기본방향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하에 2008년 4월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R&D 투자 활성화 등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참고 III-5>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① **1단계 방안** ('08.4월) : 서비스 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광, 유학·연수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관광·의료관광·교육) 외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고객 입장에서 여행 전 과정을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원 등을 추진
- ② **2단계 방안** ('08.9월)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적인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기업의 창업 촉진
 - 방송·통신 등의 분야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혁신, 민간의 고용 지원서비스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 등 제도 개선 추진
- ③ **3단계 방안** ('09.1월) :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R&D를 활성화
 - 사내대학 등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활성화, 제조업 중심의 R&D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개선, 정부 서비스 R&D 투자 확대
- ④ **4단계 방안** ('09.5월)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 서비스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 부가가치,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가 높은 교육, 의료, 콘텐츠, IT, 컨설팅 등 9개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
- ⑤ **5단계 방안** ('09.9월)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을 공고화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수기반 확충 추진
 -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먹는샘물·의료·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진화방안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기준으로 총 378개 정책과제 중에서 229개 과제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10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서비스 선진화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 별로 추진 중인 정책과제에 대해 실천여부와 함께 정책적 효과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중요한데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은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당수 법률들은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378개 정책과제 중 52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는데 24개 과제는 국회 입법 절차 지연으로 28개 과제는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

<참고 III-6>

입법 절차 지연과 이해관계자 반대 사례

- 입법 절차 지연 사례: i) 외국 교육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결산상 잉여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008.8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ii)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자구역내에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법은 2002년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안)'이 2008.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 이해관계자 반대 사례: i) 전문자격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관련 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이 당초 2009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ii)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과제가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이는 그동안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해외 실태조사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과 원활한 국회 입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이해 관계인과의 소통과 국회와의 협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토론회, 정책 설명회, 국제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소매/음식숙박업: 과잉 경쟁과 저생산성 문제를 안고 있는 업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출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업과 영세 사업자간의 사업영역 조정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사회복지: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성장이 유망한 분야이다. 의료 서비스는 공공성 확충을 바탕으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부문은 기본 수요는 정부가 담당 하되 추가 수요는 시장을 활용하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③ 사업서비스업: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지만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 자격사에 대한 진입 제한,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통한 경쟁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중간재인 전문자격사의 시장선진화방안을 조속히 확정·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서비스: 교육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학교간 경쟁촉진, 외국대학 유치 등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참고 Ⅲ-7>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OECD 권고

1. 서비스 산업에 유리한 환경 제공

- 보조금, 금융지원, 신용보증, 세제혜택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강화
- 제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 철폐
- 지적 무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고 체제 설립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2. 규제개혁 강화

- 규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제영향분석 및 공공협의를 강화하고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경우에만 규제 채택
- 진입장벽 및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에도 규제개혁 확대
- 제안된 법률의 규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내 메커니즘 설치
-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혁을 전 국가적으로 확대한후 경제특구 접근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

3. 경쟁제도 개선

- 과징금 및 개인적 제재와 같은 형사처벌의 저지효과 강화
-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 부여
- 중소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쟁법의 예외 축소

4. 국제경쟁 강화

- 외국인 소유 제한 폐지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및 사업환경 개선
- 잠재적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상품 시장 규제 자유화
- 서비스 산업 경쟁강화를 위해 FTA를 활용하고 무역 제한적 장벽 축소

출처: OECD 한국경제보고서(2008년도)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제 · 사회 선진화의 조건(1)”, 국가정책연구총서, 2009년
- 고정민, “전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 김진혁,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 박정수외 4인,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전략”, 산업연구원, 2009년
- 송영관, “서비스 개방과 경쟁 활성화”, 대외경제연구원, 2009년
- 이장혁, “서비스 혁신”, 2009년
- 이재준,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기변동 및 물가간의 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
- 이주랑외 3인, “서비스 산업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 전용복,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 전인우, “서비스산업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06년
- 정호성, “일본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 정형민,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 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 조현승외 3인, “서비스 산업 무역구조 및 무역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2009년
- 주원,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 의 원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 차문중, “서비스업 선진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9년
- 최봉현외 2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 산업연구원, 2009년
- 최석준, “서비스 규제개혁 및 정책 추진 체계의 평가, KDI, 2010년
-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2010년
- 한상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9년
- 황수경,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간의 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
- OECD 한국경제보고서 Volume 2008/12, 2008년
- OECD 한국경제보고서 Volume 2010/12, 2010년

4. 녹색성장 분야의 경쟁력 현황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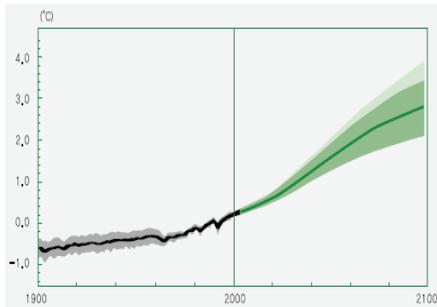
(1) 녹색성장의 중요성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고갈

기후변화는 20세기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PCC⁶⁶⁾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표면온도는 0.74°C 상승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금세기말(2090~2099년)에는 1980~1999년 기간대비 1.8~4.0°C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인류를 포함한 전체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2°C 상승할 경우 생물종의 약 20~30%가 멸종되는 등 대규모 재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세계 GDP의 5~20%가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영국, Stern보고서(2006))

[그림 Ⅲ-45]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변화 전망



자료 : IPCC(2007), Stern(2006)

<표 Ⅲ-13>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종류	영향	
생태환경영향	~'20년	- 양서류 멸종 등 생물종 감소 - 세계 4~17억명 물부족
	~'50년	- 동식물 20~30% 멸종 - 세계 10~20억명 물부족
	~'80년	- 대부분 생물종 멸종우려 - 폭염, 질병 등으로 사망자수 증가 - 세계 32억명 물부족
	~'100년	- 인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 존속 어려움
경제적 영향	- 세계GDP의 5~20% 감소	

한편, 현재 주요 에너지원의 가채년수는 석유 42년, 천연가스 60년(BP, 2007년 기준) 등으로 머지않아 화석 에너지의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 인도 등 거대경제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

6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로서 전세계 2500명의 과학자가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의의

녹색성장이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화, 환경오염 저감 등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 구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향후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가능성에 직면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합의가 예상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의 의무감축 기간(2008~2012년)이 끝나는 2013년 이후의 감축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발리로드맵(2007.12월)과 코펜하겐 합의(2009.12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중기목표와 자발적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2010년말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합의를 위한 추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 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룬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큰 국가[경제규모(세계 15위), 온실가스 배출순위(2007년 배출량 OECD 6위) 등]로 인식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Ⅲ-46] 국제 기후변화 협상추이



한편, 우리 정부는 금년말 개최되는 멕시코 당사국 총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래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에 비해 30%를 감축(2005년 배출량대비 4%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욕적인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2009.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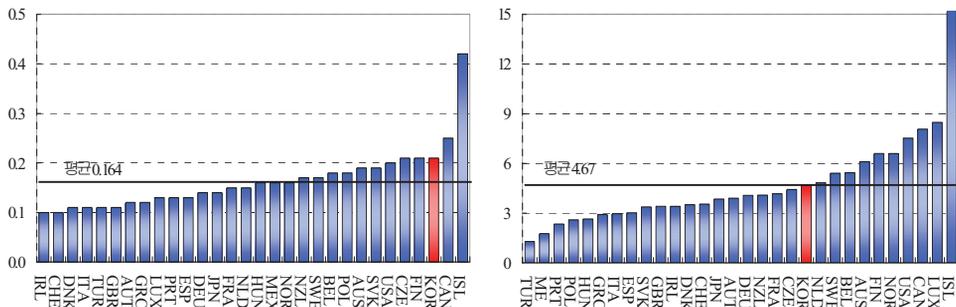
둘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 주요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⁶⁷⁾(Green Protectionism) 등으로 녹색시장이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해 이를 선점하여야 한다. 녹색산업 규모를 시장별⁶⁸⁾로 보면 태양광(2008년 200억달러 → 2013년 880억달러), 바이오에너지(2008년 492억달러 → 2018년 2,400억달러), 무공해 석탄에너지(2013년 1조 9,900억달러 → 2018년 2조 1,635억달러), LED(2007년 140억달러 → 2015년 1,000억달러), 그린카(2018년 6,593억달러) 등 주요 녹색산업이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미래기획위원회(2009) 등)

(2) 우리의 현황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 총에너지 공급량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눈 에너지 원단위는 0.21로 OECD국가(평균 0.16)중 3번째로 높으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11번째로 높다.

[그림 Ⅲ-47] 에너지 원단위(TOE¹⁾/\$, PPP) [그림 Ⅲ-48]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¹⁾/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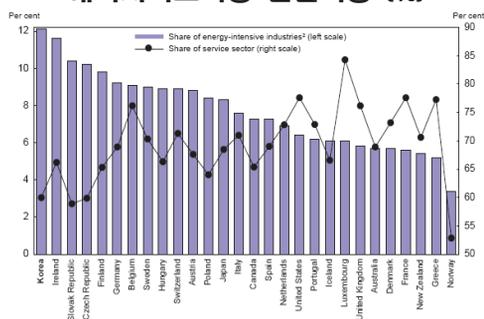
주 : 1) 석유 1톤 연소시 생성되는 에너지 2) 2008년 기준 자료 : OECD

67)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는 온실가스 등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EU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미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EU에 출입하는 모든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항공-해운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탄소 관세 도입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68) 녹색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므로 관련 통계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산업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시장규모의 집계와 전망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낮은 에너지효율성은 제조업,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비중은 12%로 OECD(평균 8%)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 수송, 상업건물 등 여타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산업부문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Ⅲ-49] 에너지다소비형 산업비중¹⁾(%)



주 : 1) 2008년 기준

2) 2007년 기준

자료 : OECD

<표 Ⅲ-14> 부문별 1인당 에너지 최종소비²⁾(TOE/명)

	전체	산업	수송	주택	상업
한국	3.02	1.56	0.62	0.38	0.38
이태리	2.36	0.80	0.70	0.47	0.24
영국	2.34	0.64	0.73	0.66	0.26
독일	2.83	1.01	0.67	0.70	0.26
일본	2.68	1.11	0.65	0.39	0.50
프랑스	2.58	0.73	0.71	0.65	0.33
미국	5.20	1.48	2.08	0.88	0.67
캐나다	6.19	2.43	1.75	0.97	0.92
OECD	3.17	1.06	1.04	0.58	0.39

탄소 의존적 경제구조

낮은 에너지효율성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경제의 탄소의존성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인당 국민소득, 에너지 원단위 및 에너지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분해⁶⁹⁾해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은 OECD에 비해 상당히 낮고 에너지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지 않은 데 반해 에너지 원단위가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비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OECD, 2010)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탄소효율성을 측정하는 CO₂ 원단위⁷⁰⁾가 0.69로 OECD(평균 0.5)중 7번째로 높아 경제성장이 탄소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9) 온실가스배출량/인구 = (GDP/인구) × (에너지소비/GDP) × (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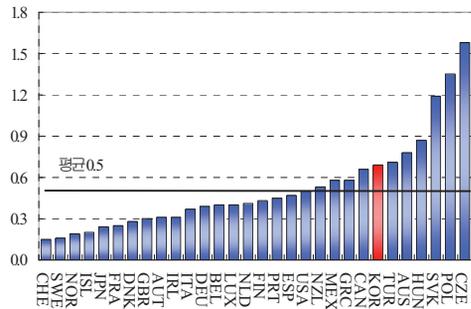
70) 총CO₂배출량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누어 구하며, 동수치가 작을수록 국민경제가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5〉 온실가스 배출량 요인분해¹⁾

	배출량/ 인구	GDP/ 인구	에너지소비/ GDP	배출량/ 에너지소비
한국	11.6	20.1	0.149	3.1
캐나다	23.1	30.6	0.206	3.7
프랑스	8.6	26.5	0.105	3.1
독일	12.0	26.6	0.114	4.0
이태리	9.7	25.7	0.096	3.9
일본	11.2	27.1	0.102	4.0
영국	11.1	28.2	0.095	4.1
미국	25.0	36.9	0.145	4.7
OECD	14.4	25.8	0.127	4.4

주 : 1) 2005년 배출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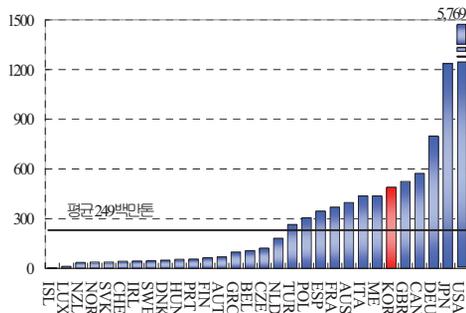
[그림 Ⅲ-50] CO₂ 원단위(2007년, Kg/\$)



자료 : IEA,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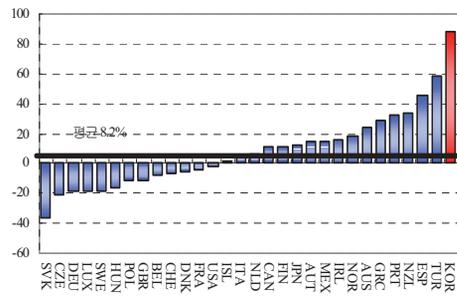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의 총 CO₂ 배출량은 약 5억톤으로 OECD(평균 2.5억톤)중 6번째로 높고, 1인당 CO₂배출량(10.0톤)은 OECD(평균 9.5톤)중에서 9번째로 많다. 특히 1990~2007년중 1인당 CO₂배출량 증가율은 88.6%로 OECD(평균 8.2%)중에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Ⅲ-51] 총 CO₂ 배출량톤, 2007년



자료 : IEA

[그림 Ⅲ-52] 1인당 CO₂ 배출량 증가율(90~07, %)



녹색기술과 경쟁력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한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녹색기술 경쟁력을 분야별로 보면 첫째, 태양광(60%), 연료전지(50%)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은 평균적으로 선진국의 54.6%에 그치고 있다. 둘째, LED·그린IT(68%), 고효율 2차전지(30%) 등 에너지고효율화 기술도 57.1%로 선진국의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50%) 등 산업·공간의 녹색화 기술(49.9%)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넷째,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80.2%),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기술(76.6%) 등 환경분야의 기술은 77.3%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산업의 핵심분야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비중도 2008년 기준 1.5%에 불과(OECD 30위)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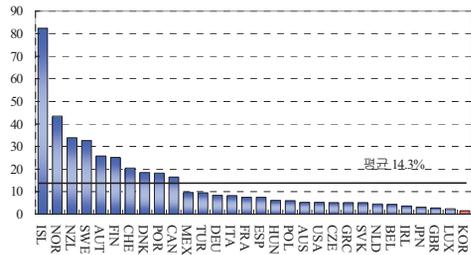
<표 III-16> **분야별 녹색기술¹⁾ 및 국산화율%**

	에너지원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 녹색화	환경보호	전체
녹색기술	54.6	57.1	49.9	77.3	50.9
국산화율	63.8	62.1	52.8	47.8	56.7

주 : 1) 선진국=100

자료 : IEA, OECD,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림 III-5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참고 III-8>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은 i) 탄소 비용화(carbon pricing)를 통한 외부불경제 내재화⁷¹⁾(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ii) 전통적 규제를 통한 시장실패 및 소비자행동 교정(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의무화, 자동차 표준연비 강화 등) iii) R&D지원, 보조금 등을 통한 촉진·조장(기술개발 지원, 녹색인력 양성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정책 수행여건에 따라 각 정책수단의 장점을 살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반의 탄소 비용화 정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주요 정책수단들을 소개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에 추가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유인을 높이는 제도이다.

7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추가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의 개인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같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제인 총량거래방식(Cap-and-Trade)은 거래 참가자 별로 배출한도(cap)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후 배출권을 서로 거래(trade)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비례하여 세율을 설정하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세제이다.

두 제도 모두 가장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가격 상승을 통해 에너지소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비교〉

제 도	특 징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확히 규제할 수 있음 - 국제 탄소배출권시장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음
탄소세	- 제도도입 및 시행이 용이함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탄소세율을 조정할 필요 - 세금신설 및 조세의 역진성 등으로 조세저항이 야기될 가능성

자료 : OECD(2010)

우리나라는 2009년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이다. 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된 전기의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반면 후자는 총 전력공급량 중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발전차액에 대한 지원규모 축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를 일몰화하기로 결정하였다.

(3)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탄소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 주요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녹색성장위원회(2009.9월)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GDP 감소 효과가 매년 약 0.4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시 2020년 GDP가 1.58%~2.71% 감소하고 물가는 3.4~6.6%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2010.2월)은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카 등 신기술이 도입되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 GDP의 1.03%~1.16%만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동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감안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설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감축비용을 최소화⁷²⁾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성경제연구소(2010.2월)는 중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년의 4%만큼 감축할 경우 자동차(2.9%), 정유(3.8%) 등 모든 산업 부문의 내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GDP 손실분은 2020년 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가정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없이 직접규제를 통해 감축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GDP 손실분은 2020년 1.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72)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편익(환경보존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등)은 장기간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한계비용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 발전과 함께 낮아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한하는 한편 온실가스 저감의 한계편익은 커지고 한계비용이 낮아지는 미래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경제연구원).

〈표 Ⅲ-17〉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비용 전망

기 관	전망시기	가 정	GDP손실	비 고
녹색성장위원회	2009	BAU대비 30%감축	매년 0.49%	녹색투자로 상쇄 가능
에너지경제연구원	· ·	배출권거래제 도입	2020년 1.58~2.71%	물가 3.4~6.6% 상승
한국경제연구원	2010	BAU대비30%감축	2020년 1.03~1.16%	신기술도입 가정
삼성경제연구소	2010	2007년의 4%감축	2020년 0.6% ¹⁾	자동차(2.9%), 정유(3.8%) 등 전산업 내수 감소

주 :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직접규제를 통한 감축시에는 1.6% 감소

상기 전망결과는 정책수단 선택과 감축로드맵 설정 등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직접규제를 보완하는 등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도출함으로써 GDP손실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탄소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과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생산·고용증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상쇄⁷³⁾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향후 정책과제

그동안의 정책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2009.2월)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2010.1월)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마련(2009.7월)하여 5년 동안(2009~2013년) 매년 GDP의 2%(107.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녹색성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도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그린 IT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73)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7조원(매년 GDP의 2%)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총 182~206조원(GDP의 약 3.5%~4.0%)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18~14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Ⅲ-18〉 녹색성장 5개년(2009~2013년) 계획 예산 현황

(조원)

구 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 녹색성장 계 】	107.4	17.4	24.2	25.7	20.6	19.4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57.5	8.5	15.5	16.0	9.8	7.7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5.4	1.0	0.9	1.0	1.1	1.3
2. 탈석유에너지 자립	15.4	2.8	3.8	2.9	3.0	2.8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36.7	4.7	10.9	12.0	5.6	3.6
② 신성장동력 창출	29.0	4.8	5.2	5.8	6.4	6.8
4. 녹색기술산업 개발	11.3	2.1	2.2	2.2	2.3	2.4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5.3	0.8	1.1	1.1	1.1	1.1
6. 산업구조 고도화	10.6	1.5	1.7	2.1	2.6	2.7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1.8	0.3	0.2	0.3	0.4	0.5
③ 삶의 질 개선 및 국가위상 강화	27.2	5.2	4.8	5.2	5.7	6.3
8. 녹색 국토교통 조성	24.7	4.8	4.4	4.7	5.2	5.7
9. 생활의 녹색 혁명	1.8	0.3	0.3	0.3	0.4	0.4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0.7	0.1	0.1	0.1	0.1	0.1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산업계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녹색투자계획⁷⁴⁾을 발표하고, 태양광, LED, 스마트그리드, 이차전지 등 녹색 신산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은 태동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책과제

그동안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대규모 재원조달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빠른 시일내에 탄소에 대해 적정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탄소 비용화를 통한 외부불경제 내재화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유인을 강화하는 기본전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직접규제와 R&D 등 지원정책 위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 따라서, 주요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직접규제를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비용화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 30대 그룹은 향후 3년간(2011~2013년) 태양광, LED, 그린카 등 녹색산업 분야에 약 2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동 기업들이 지난 3년간(2008~2010년) 녹색 분야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약 48%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운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의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에너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또는 탄소세 도입 등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아울러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제품과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보조금을 환경 친화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한 탄소가격 설정과 더불어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녹색성장으로의 이행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인 반면, 녹색시장의 특성상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시장기능만으로는 충분한 투자 및 시장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투자계획(09~13년간 107.4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을 늘림으로써 초기시장 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8년 에너지관련 R&D 예산(GDP대비 0.07%)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의 연구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박사인력의 약 70%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R&D 지출의 10%만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산학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의무할당제도의 2012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민간의 정부 정책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저감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의무할당제도로 원활히 대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녹색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는 녹색산업이 현재와 같이 저조한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제고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녹색산업이 단순히 외국의 핵심부품·소재 도입에 의

한 조립산업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녹색성장의 과실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참고 III-9>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2010.7월)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비용효율적인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참가자들에게 명확한 가격신호를 보내는 한편, 동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적으로 유해한 에너지 보조금을 시급히 철폐함으로써 부문별 에너지가격이 생산 및 분배비용을 적절히 반영토록 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산업의 성장과 사양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개방도를 높이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녹색투자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R&D의 경우 기초연구의 비중을 높여 녹색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인력이 많은 대학교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NO_x, SO_x, TSP에 대한 총량제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평균 연료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기의 질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2009년
-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2009년
- 녹색성장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 2009년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자료, 1~8차”
-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의 길”, 2009년
- 문하영, “기후변화의 경제학”, 2007년
- 부경진,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2010년
- 산업연구원, “녹색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9년
- 삼성경제연구소,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2008년
- 삼성경제연구소, “동태적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2010년
- LG경제연구원, “포스트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 시나리오”, 2010년
-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08년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8년
- 정부합동,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2009년
- 한국경제연구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2010년
-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09년
- IPCC, “Cimate change 2007 : synthesis report”, 2007년
- Lehman Brothers, “The Business of Climate Change”, 2007년
- N. Stern, “The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년
-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0년
- OECD, “An overview of alternative instru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nteractions across them”, 2008년

<참고> 시계열 자료

통계목차

I. 경제성과 및 규모

가. 국민소득	291
1. 1인당 GDP	291
2. 1인당 GDP(ppp기준)	292
나. 성장률	293
3. 경제성장률	293
4. 잠재성장률	294
다. 세계시장점유율	295
5. 수출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	295
라. 인 구	296
6. 총인구	296
마. GDP	297
7. 명목GDP	297
8. 명목GDP(PPP기준)	298
바. 무역규모	299
9. 무역규모	299

II. 노동공급

가. 생산가능인구	300
10.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	300
11.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와 전망	301
12. 합계출산율	302
13. 외국인 근로자 비율(경제활동인구대비)	303
나. 고용률	304
14. 고용률(15~64세)	304
15. 남성 고용률(15~64세)	305
16. 여성 고용률(15~64세)	306
17. 15~24세 고용률	307
18. 25~54세 고용률	308
19. 55~64세 고용률	309
다. 실업률	310
20. 전체 실업률	310

21. 청년층(15~24세) 실업률	311
22. 장기 실업률	312
라. 경제활동참가율	313
23.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313
24.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314
2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315
26.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316
27. 25~54세 경제활동참가율.....	317
28.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318
마. 평균근로시간	319
29. 연평균 근로시간.....	319

Ⅲ. 자본

가. 자본형성	320
30.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320
31. 총고정자본형성 비중(GDP대비).....	321
32. 민간부문 비주택 고정자본형성증가율.....	322
33. 민간부문 비주택 고정자본형성비중(GDP대비).....	323
34. 민간부문 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324
35. 민간부문 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GDP대비).....	325
나. 저축률	326
36. 총저축률.....	326
37. 가계순저축률.....	327
38. 정부저축률.....	328
39. 기업총저축률.....	329

Ⅳ. 기술혁신

가. 기초과학	330
40. 논문게재건수.....	330
41.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331
42.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	332
43. 이공계 박사학위 비율.....	333
나. R&D	334
44. 근로자 천명당 연구인력.....	334
45. GDP대비 R&D지출 비율.....	335

46. 기업부문 GDP대비 R&D지출 비율	336
47. 정부부문 GDP대비 R&D지출	337
다. 특 허	338
48. 특허출원수	338
49.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건수	339
50. R&D지출규모당 특허출원수	340
51. 기술무역수지배율	341
라. 정보화	342
52.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342
53. 인터넷 접속가구비율	343
54.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344
55. 유선 초고속 인터넷 월이용요금	345
56. 인구 100만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346
57. 컴퓨터보유 가구비율	347
마. 하이테크 산업	348
58. 하이테크제품 수출비중(제조업 수출대비)	348
59. 정보통신(ICT) 제품 수출비중(전체상품수출대비)	349
60. 정보통신(ICT) 서비스 수출비중(전체 서비스수출대비)	350

V. 기업환경

가. 노동생산성 및 비용	351
61. 노동생산성(GDP대비)	351
62. 노동생산성 증가율	352
63. 시간당 노동보수(us \$ PPP)	353
64. 시간당 노동보수증가율(us \$ PPP)	354
65. 단위노동비용(시간당노동비용/노동생산성) 증가율	355
나. 자본생산성 및 비용	356
66. 장기이자율(10년만기 국채수익률)	356
67. 단기이자율(3개월만기 CD금리)	357
다. 규 제	358
68. 정부의 시장규제지수	358
69. 정부지출비중(GDP대비)	359
70. 기능별 정부지출비중-행정, 국방, 치안분야	360
71. 기능별 정부지출비중-경제분야	361
72. 기능별 정부지출비중-보건, 사회, 문화분야	362

73. 기능별 정부지출비중-교육분야.....	363
74. 공무원수 비중(경제활동인구대비).....	364
75. 전자정부 발전지수.....	365
76. 창업일수.....	366
77. 창업절차.....	367
78. 창업비용(% of income per capita).....	368
79. 폐업비용(기업의 총자산대비).....	369
80. 해고비용(weeks of salary).....	370
라. 조 세	371
81. 법인세율.....	371
82. 조세격차(Tax wedge).....	372
83. 국민부담률(조세부담율+사회보장부담율, GDP대비).....	373
84. 조세부담률(GDP대비).....	374
85. 사회보장부담률(GDP대비).....	375
86.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부담률(GDP대비).....	376
87.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GDP대비).....	377
마.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378
88. 임시직(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비율.....	378
89.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379
90. 임시직 고용보호지수.....	380
91. 노조조직률.....	381
92. 인구 천명당 파업손실일수.....	382
93.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GDP대비).....	383
94.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GDP대비).....	384
95.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GDP대비).....	385

VI. 거시환경

가. 거시안정	386
96.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6
97. 물가수준.....	387
98. 경상수지(GDP대비).....	388
99. 일반정부 재정수지(GDP대비).....	389
100. 일반정부 부채(GDP대비).....	390
101.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 추이.....	391
102. 일반정부 순이자상환액(경상이익대비).....	392

103. 가계부채(GDP대비).....	393
104. 기업채무비율(GDP대비).....	394
105. 총외채.....	395
106. 총외채비중(GDP대비).....	396
107. 단기외채비중(총외채대비).....	397
108. 외환보유액.....	398
109. 단기외채비중(외환보유액대비).....	399
나. 대 외.....	400
110. 무역규모비중(GDP대비).....	400
111. 상품수출비중(GDP대비).....	401
112. 상품수입비중(GDP대비).....	402
113. 서비스수출비중(GDP대비).....	403
114. 서비스수입비중(GDP대비).....	404
115. 수입침투율.....	405
116. 농업보조금 비중(전체농가소득대비).....	406
117. FDI 잠재력(2004-2006).....	407
118. FDI비중(잔액)(GDP대비).....	408
119. FDI비중.....	409
120.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중(잔액)(GDP대비).....	410
121.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중.....	411
122. 공적개발원조(ODA), GNI대비.....	412

VII. 산업구조

가. 대기업/중소기업.....	413
123.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비중.....	413
124. 제조업 중소기업 기업체 수 비중.....	414
125. 제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중.....	415
126. 제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고용배율.....	416
나. 산업구조(부가가치, 고용기준).....	417
127.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417
128. 농림수산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18
129. 제조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419
130. 제조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20
131.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전산업대비).....	421
132. 서비스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22

133. 제조업 생산성(명목환율).....	423
134. 제조업 R&D 지출비중(GDP대비).....	424
135. 상품수지(GDP대비).....	425
136. 서비스업 생산성(명목환율).....	426
137. 제조업 생산성/서비스업 생산성 비율(명목환율).....	427
138. 서비스업 R&D 지출비중(GDP대비).....	428
139. 서비스수지(GDP대비).....	429
140. 서비스업 FDI비중(전산업대비).....	430
141. 도소매/음식숙박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431
142.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32
143. 교육서비스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433
144. 교육서비스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34
145. 보건및사회복지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435
146. 보건및사회복지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36
147.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437
148. 사업서비스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38
149. 금융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439
150. 금융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440
151. 자영업자 고용비중.....	441
152. 임금근로자 고용비중.....	442

VIII. 인적자본

가. 교육지출	443
153.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정부부담, 민간부담).....	443
15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444
155. 학생 1인당 공교육비지출(1인당 GDP대비).....	445
나. 교육여건	446
156. 전체 및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446
157. 고등교육 이수 증가율.....	447
158. 평생학습 참여율(2007).....	448
159.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449
160.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450
161.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유학생수/고등교육학생수).....	451
162.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	452
163.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유입률-유출율).....	453

다. 교육성과 454
 164.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성적(과학)..... 454
 165.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성적(수학)..... 455

IX. 물적자본

가. 교 통 456
 166. 도로 보급률(도로연장/국토면적)..... 456
 167. 철도 보급률(철도연장/국토면적)..... 457
 나. 통 신 458
 168. 인구100명당 유선전화 회선수 458
 169. 가정용 유선전화 월이용요금 459
 다. 전 력 460
 170. 전력생산량..... 460
 171. 전기요금 461

X. 금융자본

가. 금융규모/건전성 462
 172. 상장주식 시가총액비중(GDP대비)..... 462
 173. 채권발행 잔액비중(GDP대비)..... 463
 174. 은행 국내신용비중(GDP대비)..... 464
 175. 은행 무수익여신비율 465
 176.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466
 177. 외환거래량..... 467

XI. 사회적 자본

가. 신 뢰 468
 178. 신뢰지수 468
 179. 이방인에 대한 신뢰 469
 180. 공정성 지수 470
 181. 공공기관 신뢰도 471
 182. 자원봉사자 비중 472
 183. 사회지원 비중 473
 나. 부 패 474
 184. 부패 지수 474
 다. 네트워킹 475
 185. 공식적 교제 비중 475
 186. 비공식적 교제 비중 476

XII. 부존자원

가. 국 토	477
187. 국토면적	477
188. 인구밀도	478
나. 자 원	479
189. 원유 확인 매장량	479
190.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480
191. 금 생산량	481
192. 은 생산량	482
193. 철광석 생산량	483
194. 1인당 담수량	484
다. 식 량	485
195. 식량자급률(식량생산량/국내생산량)	485

XIII. 사회 통합

가. 사회지출	486
196. 공적연금 지출비중(GDP대비)	486
197. 사적연금 지출비중(GDP대비)	487
198.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	488
199. 사회복지 지출비중(GDP대비)	489
나. 분 배	490
200. 지니계수	490
다. 수명/보건	491
201. 기대수명(전체)	491
202. 기대수명(남성)	492
203. 기대수명(여성)	493
204. 국민의료비 지출비중(GDP대비)	494
205.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증가율(자국화폐기준)	495
206. 의료접근성(1인당 외래진료횟수)	496
207. 의료접근성(1천명당 의사수)	497
208. 의사당 진료횟수	498
209. 유아사망률(신생아 1천명당)	499
210. 비만율(15세이상 인구 중 비만인구 비율)	500
라. 안 전	501
211. 범죄율(인구10만명당 수감자수)	501

212. 도로사망률(인구100만명당)..... 502
 213. 산업재해율(인구10만명당)..... 503

XIV. 환 경

가. 환경관리..... 504
 214. 총CO2 배출량..... 504
 215. 1인당 CO2 배출량..... 505
 216.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 506
 217. CO2 원단위(CO2배출량/GDP)..... 507
 218. SOx(황산화물) 배출원단위..... 508
 219. 1인당 물소비량..... 509
 220. 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규모..... 510
 221.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 511
 222. 도시 쓰레기 재활용률..... 512
 나. 녹색산업..... 513
 223.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 513
 224. 에너지 원단위(에너지공급량/GDP)..... 514
 225. 신재생에너지 비율..... 515
 226. 원자력 발전비율..... 516
 227. 정부재정의 환경보호 지출비율..... 517
 228. GDP대비 환경세 수입비중..... 518
 229. 조세수입대비 환경세 수입비중..... 519

I. 경제성과 및 규모

1. 1인당 GDP

(u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46,224.8	45,750.3	50,604.9	64,564.3	74,418.8	80,952.1	90,649.8	106,829.6	117,966.8	105,097.3
Norway	37,472.2	37,873.7	42,284.1	49,312.1	56,323.1	65,342.4	72,244.6	82,349.3	94,572.1	79,057.0
Denmark	29,989.1	29,956.3	32,343.9	39,447.6	45,294.8	47,550.4	50,464.8	56,908.6	62,054.1	56,066.0
Ireland	25,387.9	27,080.8	31,178.8	39,464.8	45,516.6	48,455.9	52,038.5	59,491.9	59,944.2	50,848.4
Netherlands	24,185.1	24,973.5	27,115.1	33,180.8	37,471.7	39,129.2	41,471.9	47,521.8	53,094.0	47,930.2
Austria	23,865.5	23,644.2	25,484.0	31,044.2	35,380.5	36,828.1	38,986.7	44,849.2	49,741.3	45,567.6
Finland	23,515.4	24,009.4	25,974.1	31,482.9	36,140.7	37,297.0	39,457.8	46,505.2	50,905.0	44,576.5
Belgium	22,679.2	22,580.8	24,439.9	29,999.0	34,665.4	35,957.3	37,855.8	43,176.4	47,195.9	43,666.5
Sweden	27,869.6	25,557.5	28,118.8	35,132.1	40,259.0	41,038.7	43,946.2	50,558.9	52,676.7	43,472.0
France	21,868.5	21,904.6	23,657.1	29,013.6	32,987.3	34,094.1	35,746.9	40,670.6	44,499.3	41,079.6
Germany	23,120.4	22,965.2	24,454.0	29,594.3	33,274.9	33,813.4	35,434.0	40,469.5	44,258.7	40,672.1
Iceland	30,934.3	27,794.7	30,975.2	37,914.9	45,229.6	55,099.1	54,713.4	65,601.5	52,610.4	38,006.7
United Kingdom	25,091.0	24,884.3	27,173.3	31,245.6	36,802.6	37,851.8	40,263.2	45,904.7	43,377.7	35,205.4
Italy	19,271.2	19,610.4	21,326.7	26,163.0	29,700.3	30,332.5	31,614.1	35,641.1	38,384.5	35,059.3
Spain	14,421.6	14,957.8	16,611.3	21,036.6	24,461.4	26,041.9	28,019.5	32,108.8	34,971.4	31,793.3
Greece	11,640.8	11,966.3	13,414.7	17,654.1	20,857.4	21,880.2	23,681.9	27,688.8	31,173.6	29,299.5
Portugal	11,443.0	11,661.5	12,720.6	15,459.1	17,596.2	18,121.9	18,996.0	21,770.1	23,707.7	21,902.1
Czech Republic	5,521.2	6,048.7	7,379.5	8,955.2	10,730.4	12,170.0	13,890.7	16,876.9	20,718.6	18,141.6
Korea	11,346.7	10,654.9	12,093.7	13,451.1	15,028.8	17,550.8	19,706.6	21,653.3	19,162.0	17,078.3
Slovak Republic	3,774.7	3,920.9	4,544.9	6,180.5	7,830.6	8,884.6	10,358.2	13,913.4	17,536.9	16,239.1
Hungary	4,631.7	5,238.3	6,572.9	8,280.8	10,152.2	10,922.2	11,211.2	13,760.1	15,363.3	12,867.9
Turkey	4,148.2	3,009.2	3,522.7	4,531.1	5,789.6	7,042.5	7,647.8	9,211.2	10,274.9	8,560.6
Switzerland	34,666.6	35,000.8	37,943.6	43,896.0	48,696.7	49,655.1	51,766.9	56,981.2	65,159.8	..
Australia	21,328.0	20,104.6	22,106.9	28,034.9	33,625.5	37,205.8	39,374.7	46,566.1	48,569.4	..
United States	35,050.8	35,871.4	36,764.5	38,142.7	40,267.2	42,493.8	44,629.5	46,433.8	47,185.7	..
Canada	23,623.8	23,064.6	23,431.2	27,367.7	31,064.7	35,160.6	39,250.0	43,242.7	44,981.3	..
Japan	36,773.2	32,167.8	30,735.5	33,119.1	36,043.7	35,628.6	34,144.2	34,264.0	38,326.1	..
New Zealand	13,850.9	13,681.4	15,704.1	20,726.5	24,858.3	27,517.0	26,315.8	31,732.3	30,627.8	..
Poland	4,477.1	4,978.2	5,183.6	5,676.2	6,620.5	7,963.9	8,958.3	11,153.6	13,860.7	..
Mexico	6,480.2	6,847.5	7,057.3	6,874.7	7,374.4	8,148.8	9,063.0	9,678.8	10,194.4	..
Saudi Arabia	9,128.1	8,673.5	8,742.9	9,734.5	11,111.7	13,650.3	15,061.1	15,898.9	19,021.6	..
Russia	1,775.1	2,100.7	2,377.6	2,984.0	4,113.6	5,340.8	6,957.5	9,112.8	11,831.5	..
Argentina	7,693.9	7,200.2	2,708.3	3,408.3	3,990.7	4,729.8	5,474.1	6,645.2	8,235.7	..
Brazil	3,701.5	3,133.6	2,814.9	3,043.3	3,610.1	4,741.0	5,788.0	7,012.8	8,205.1	..
South Africa	3,019.9	2,643.9	2,450.5	3,638.6	4,660.7	5,177.8	5,438.3	5,929.8	5,678.0	..
China	949.2	1,041.6	1,135.4	1,273.6	1,490.4	1,715.0	2,027.3	2,566.4	3,266.5	..
Indonesia	803.9	771.1	927.9	1,098.8	1,186.6	1,304.1	1,642.6	1,922.5	2,246.5	..
India	453.0	462.8	483.7	563.2	649.2	740.1	824.4	1,046.3	1,016.8	..

출처 <http://stats.oecd.org/>,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 1인당 GDP(ppp기준)

(U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53,383.1	53,916.6	57,546.3	60,702.9	64,967.5	68,313.0	79,011.4	84,405.2	88,784.6	83,801.6
Norway	36,130.1	37,097.6	37,051.9	38,294.0	42,250.0	47,318.8	53,302.7	54,941.1	61,415.1	55,649.5
United States	35,050.8	35,871.4	36,764.5	38,142.7	40,267.2	42,493.8	44,629.5	46,433.8	47,185.7	..
Switzerland	31,622.0	32,108.6	33,390.9	33,262.1	34,530.7	35,478.0	39,127.2	42,791.0	45,029.0	44,724.6
Ireland	28,647.4	30,475.8	33,000.4	34,460.7	36,444.8	38,569.6	42,140.7	45,343.8	43,487.7	41,115.7
Netherlands	29,409.1	30,793.1	31,943.5	31,698.6	33,202.9	35,110.7	38,074.0	40,530.0	43,036.7	40,726.0
Australia	28,042.5	29,172.5	30,444.8	31,973.7	33,395.9	35,091.7	37,118.0	39,067.0	39,171.6	..
Canada	28,485.0	29,331.8	29,911.3	31,268.6	32,845.6	35,106.0	36,896.1	38,375.8	38,922.8	..
Austria	28,773.1	28,803.8	30,231.1	31,076.7	32,592.2	33,409.3	36,278.8	37,880.9	39,848.3	38,367.9
Sweden	27,951.9	28,235.9	29,277.8	30,414.2	32,499.8	32,701.4	35,690.1	38,428.0	39,279.6	37,746.8
Iceland	28,844.0	30,448.7	31,083.8	30,764.2	33,691.6	35,025.1	35,817.8	37,387.1	38,772.2	37,573.4
Denmark	28,825.9	29,442.2	30,756.3	30,423.7	32,295.5	33,195.9	36,035.9	37,184.6	38,577.4	36,810.1
United Kingdom	26,074.5	27,582.7	28,887.6	29,845.0	31,785.3	32,724.4	34,910.9	35,783.5	37,331.9	36,537.8
Germany	25,952.2	26,859.4	27,587.2	28,563.3	29,895.3	31,365.6	33,722.4	35,564.8	36,917.9	36,269.6
Belgium	27,627.8	28,493.3	30,013.8	30,237.9	31,146.0	32,140.9	34,169.1	35,499.5	37,019.4	36,244.9
Finland	25,654.1	26,522.5	27,509.1	27,588.7	29,850.0	30,690.0	33,104.3	36,190.8	37,625.4	34,716.5
Japan	25,607.7	26,156.2	26,804.9	27,487.1	29,020.9	30,311.5	31,858.0	33,534.6	33,850.4	..
France	25,275.5	26,649.1	27,776.4	27,396.1	28,268.6	29,692.1	31,560.1	33,261.9	34,641.2	33,679.1
Spain	21,322.7	22,595.0	24,066.5	24,745.2	25,953.4	27,376.8	30,356.2	32,213.2	32,967.1	32,564.8
Italy	25,597.5	27,131.7	26,804.0	27,134.1	27,411.2	28,144.0	30,232.5	31,749.3	32,694.7	31,886.5
Greece	18,412.5	19,931.8	21,597.6	22,698.9	24,155.0	24,640.6	26,994.5	28,450.4	30,285.3	29,723.7
New Zealand	21,116.7	22,109.7	23,115.1	23,788.6	24,767.7	25,460.3	27,309.7	28,712.9	29,247.8	..
Korea	17,219.0	18,174.0	19,655.6	20,180.9	21,630.2	22,783.2	24,300.5	26,185.5	26,874.7	27,168.7
Czech Republic	14,994.2	16,176.2	16,872.3	17,989.7	19,300.5	20,365.8	22,355.9	24,562.0	25,814.5	25,236.1
Portugal	17,750.8	18,467.7	19,088.2	19,389.8	19,792.7	21,294.1	22,876.3	23,981.7	25,206.2	24,568.5
Slovak Republic	10,972.6	12,063.4	12,956.6	13,586.7	14,645.7	16,163.3	18,391.2	20,748.9	23,205.0	22,445.5
Hungary	12,114.1	13,562.2	14,755.1	15,403.4	16,299.4	16,951.7	18,353.9	19,207.2	20,679.9	19,764.7
Poland	10,568.3	10,952.2	11,562.6	11,983.5	13,012.3	13,785.8	15,071.6	16,697.5	18,125.4	..
Mexico	10,046.1	10,135.7	10,397.9	10,887.0	11,537.4	12,460.5	13,704.2	14,453.5	15,232.6	..
Turkey	9,170.8	8,614.6	8,666.9	8,788.9	10,164.3	11,391.4	12,890.1	13,677.7	14,629.6	14,469.0
Saudi Arabia	19,731.9	19,411.2	19,016.0	20,030.1	20,629.4	21,219.7	21,372.2	21,643.1	22,158.0	..
Russia	8,615.4	9,076.0	9,549.0	10,300.3	11,093.7	11,861.4	12,833.0	13,911.5	14,706.1	..
Argentina	10,280.2	9,727.1	8,584.9	9,258.3	10,002.6	10,819.3	11,623.1	12,505.7	13,219.5	..
Brazil	7,920.5	7,911.4	8,010.0	7,994.1	8,344.2	8,505.4	8,745.1	9,145.5	9,517.1	..
South Africa	7,496.8	7,562.2	7,764.5	7,909.7	8,196.7	8,503.6	8,861.9	9,224.2	9,343.4	..
China	2,664.2	2,864.5	3,104.2	3,393.5	3,714.1	4,076.3	4,523.8	5,085.3	5,514.6	..
Indonesia	2,726.7	2,788.3	2,875.1	2,973.1	3,082.5	3,216.8	3,351.8	3,519.2	3,688.6	..
India	1,718.0	1,778.7	1,817.2	1,940.2	2,071.0	2,233.9	2,416.3	2,600.1	2,721.4	..

출처 <http://stats.oecd.org/>,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3. 경제성장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hina	8.4	8.3	9.1	10.0	10.1	10.4	11.6	13.0	9.0	8.7
India	4.0	5.2	3.8	8.4	8.3	9.4	9.7	9.1	6.1	5.7
Indonesia	4.9	3.6	4.5	4.8	5.0	5.7	5.5	6.3	6.1	4.5
Poland	4.3	1.2	1.4	3.9	5.3	3.6	6.2	6.8	5.0	1.7
Australia	2.0	3.8	3.2	4.1	2.8	3.1	3.8	3.7	1.1	1.3
Argentina	-0.8	-4.4	-10.9	8.8	9.0	9.2	8.5	8.7	6.8	0.9
Korea	8.5	4.0	7.2	2.8	4.6	4.0	5.2	5.1	2.2	0.2
Saudi Arabia	4.9	0.5	0.1	7.7	5.3	5.6	3.2	3.3	4.4	0.1
Brazil	4.3	1.3	2.7	1.1	5.7	3.2	4.0	5.7	5.1	-0.2
Switzerland	3.6	1.2	0.4	-0.2	2.5	2.6	3.6	3.6	1.8	-1.5
Norway	3.3	2.0	1.5	1.0	3.9	2.7	2.3	2.7	1.8	-1.5
New Zealand	2.4	3.6	4.9	4.3	3.8	3.0	1.8	3.1	-1.1	-1.6
South Africa	4.2	2.7	3.7	3.1	4.9	5.0	5.3	5.1	3.1	-1.8
Greece	4.5	4.2	3.4	5.9	4.6	2.2	4.5	4.5	2.0	-2.0
France	3.9	1.9	1.0	1.1	2.5	1.9	2.2	2.3	0.4	-2.2
United States	4.2	1.1	1.8	2.5	3.6	3.1	2.7	2.1	0.4	-2.4
Canada	5.2	1.8	2.9	1.9	3.1	3.0	2.9	2.5	0.4	-2.6
Portugal	3.9	2.0	0.8	-0.8	1.5	0.9	1.4	1.9	0.0	-2.7
Belgium	3.7	0.8	1.4	0.8	3.2	1.8	2.8	2.9	1.0	-3.1
Luxembourg	8.4	2.5	4.1	1.6	4.4	5.4	5.6	6.5	0.0	-3.4
Austria	3.7	0.5	1.7	0.8	2.5	2.5	3.5	3.6	2.1	-3.6
Spain	5.1	3.7	2.7	3.1	3.3	3.6	4.0	3.6	0.9	-3.6
Netherlands	3.9	1.9	0.1	0.3	2.2	2.1	3.4	3.6	2.0	-4.0
Czech Republic	3.7	2.5	1.9	3.6	4.5	6.3	6.8	6.1	2.5	-4.3
Slovak Republic	1.4	3.5	4.6	4.8	5.0	6.7	8.5	10.6	6.2	-4.7
Turkey	6.8	-5.7	6.2	5.3	9.4	8.4	6.9	4.7	0.9	-4.7
Sweden	4.4	1.1	2.4	1.9	4.1	3.3	4.3	2.5	-0.2	-4.9
Denmark	3.5	0.7	0.5	0.4	2.3	2.5	3.4	1.7	-0.9	-4.9
United Kingdom	3.9	2.5	2.1	2.8	3.0	2.2	2.9	2.6	0.6	-5.0
Germany	3.2	1.2	0.0	-0.2	1.2	0.8	3.2	2.5	1.3	-5.0
Italy	3.7	1.8	0.5	0.0	1.5	0.7	2.0	1.5	-1.3	-5.0
Japan	2.9	0.2	0.3	1.4	2.7	1.9	2.0	2.4	-0.7	-5.2
Hungary	4.9	4.1	4.4	4.3	4.9	3.5	4.0	1.0	0.6	-6.3
Iceland	4.3	3.9	0.1	2.4	7.7	7.5	4.6	6.0	1.0	-6.5
Mexico	6.6	0.0	0.8	1.4	4.0	3.3	5.0	3.4	1.4	-6.5
Ireland	9.5	5.7	6.5	4.4	4.6	6.2	5.4	6.0	-3.0	-7.1
Finland	5.3	2.3	1.8	2.0	4.1	2.9	4.4	4.9	1.2	-7.8
Russia	10.0	5.1	4.7	7.3	7.1	6.4	7.7	8.1	5.6	-7.9

출처 <http://stats.oecd.org/>,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4. 잠재성장률

(%)	2006~2008	2009~2010	2011~2017
Iceland	5.0	0.8	1.5
Poland	4.6	4.4	2.1
Korea	4.6
Norway	4.0	3.2	2.9
Ireland	3.9	-1.9	1.6
Australia	3.6	2.8	2.4
Greece	3.6	2.7	2.9
Finland	3.2	1.8	1.7
Spain	3.1	1.2	2.1
Sweden	2.9	1.8	1.9
New Zealand	2.6	1.0	1.8
Belgium	2.5	1.8	1.0
Mexico	2.5	1.9	2.8
Canada	2.4	1.6	1.7
United States	2.4	1.5	2.0
United Kingdom	2.2	1.3	1.7
Netherlands	2.0	1.3	1.3
Switzerland	2.0	1.8	1.4
Austria	1.9	1.0	1.7
Denmark	1.7	0.5	1.1
France	1.7	1.2	1.4
Germany	1.2	0.8	1.1
Japan	1.0	0.6	0.8
Italy	0.9	-0.1	0.9
Portugal	0.8	0.2	0.7

출처 <http://stats.oecd.org/>, <http://www.kdi.re.kr/kdi/report/>

5. 수출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hina	3.9	4.3	5.0	5.8	6.4	7.3	8.0	8.7	8.9	9.6
Germany	8.5	9.2	9.5	9.9	9.9	9.3	9.1	9.4	9.0	9.0
United States	12.1	11.8	10.7	9.6	8.8	8.6	8.5	8.2	8.0	8.5
Japan	7.4	6.5	6.4	6.2	6.1	5.7	5.3	5.1	4.9	4.7
Netherlands	3.6	3.7	3.8	3.9	3.9	3.9	3.8	3.9	4.0	4.0
France	5.1	5.2	5.1	5.2	4.9	4.4	4.1	3.9	3.7	3.8
Italy	3.7	3.9	3.9	3.9	3.8	3.6	3.4	3.6	3.3	3.2
Belgium	2.9	3.1	3.3	3.4	3.3	3.2	3.0	3.1	2.9	3.0
Korea	2.7	2.4	2.5	2.6	2.8	2.7	2.7	2.7	2.6	2.9
United Kingdom	4.4	4.4	4.3	4.0	3.8	3.7	3.7	3.1	2.9	2.8
Canada	4.3	4.2	3.9	3.6	3.4	3.4	3.2	3.0	2.8	2.5
Russia	1.6	1.6	1.7	1.8	2.0	2.3	2.5	2.5	2.9	2.4
Mexico	2.6	2.6	2.5	2.2	2.0	2.0	2.1	1.9	1.8	1.8
Spain	1.8	1.9	1.9	2.1	2.0	1.8	1.8	1.8	1.7	1.7
Saudi Arabia	1.2	1.1	1.1	1.2	1.4	1.7	1.7	1.7	1.9	1.5
Switzerland	1.2	1.3	1.4	1.4	1.3	1.2	1.2	1.2	1.2	1.4
India	0.7	0.7	0.8	0.8	0.8	0.9	1.0	1.1	1.2	1.2
Australia	1.0	1.0	1.0	0.9	0.9	1.0	1.0	1.0	1.2	1.2
Brazil	0.9	0.9	0.9	1.0	1.0	1.1	1.1	1.1	1.2	1.2
Austria	1.0	1.1	1.2	1.3	1.3	1.2	1.1	1.2	1.1	1.1
Poland	0.5	0.6	0.6	0.7	0.8	0.9	0.9	1.0	1.1	1.1
Sweden	1.3	1.2	1.3	1.3	1.3	1.2	1.2	1.2	1.1	1.0
Norway	0.9	1.0	0.9	0.9	0.9	1.0	1.0	1.0	1.1	1.0
Indonesia	1.0	0.9	0.9	0.8	0.8	0.8	0.9	0.8	0.9	1.0
Ireland	1.2	1.3	1.4	1.2	1.1	1.0	0.9	0.9	0.8	0.9
Czech Republic	0.5	0.5	0.6	0.6	0.7	0.7	0.8	0.9	0.9	0.9
Turkey	0.4	0.5	0.6	0.6	0.7	0.7	0.7	0.8	0.8	0.8
Denmark	0.8	0.8	0.9	0.9	0.8	0.8	0.8	0.7	0.7	0.7
Hungary	0.4	0.5	0.5	0.6	0.6	0.6	0.6	0.7	0.7	0.7
South Africa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Finland	0.7	0.7	0.7	0.7	0.7	0.6	0.6	0.6	0.6	0.5
Slovak Republic	0.2	0.2	0.2	0.3	0.3	0.3	0.3	0.4	0.4	0.4
Argentina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Portugal	0.4	0.4	0.4	0.4	0.4	0.4	0.4	0.4	0.3	0.3
New Zealand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Luxembourg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Greece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Iceland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처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es_e/

6. 총인구

(만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hina	126,996	127,949	128,840	129,684	130,498	131,298	132,086	132,863	133,631	134,393
India	104,624	106,416	108,190	109,949	111,699	113,440	115,175	116,902	118,619	120,325
United States	28,219	28,511	28,789	29,045	29,319	29,590	29,876	30,162	30,360	30,627
Indonesia	21,169	21,458	21,747	22,036	22,323	22,606	22,886	23,163	23,434	23,700
Brazil	17,128	17,382	17,639	17,899	18,159	18,418	18,677	18,934	19,187	19,437
Russian	14,742	14,683	14,616	14,544	14,470	14,395	14,322	14,250	14,178	14,106
Japan	12,693	12,729	12,744	12,762	12,769	12,777	12,777	12,777	12,757	12,740
Mexico	9,844	9,972	10,091	10,200	10,300	10,395	10,487	10,579	10,668	10,755
Germany	8,221	8,235	8,249	8,253	8,252	8,247	8,238	8,225	8,277	8,281
Turkey	6,739	6,837	6,930	7,023	7,115	7,207	7,297	7,388	7,477	7,564
France	5,905	5,945	5,986	6,026	6,064	6,100	6,135	6,171	6,184	6,215
United Kingdom	5,889	5,911	5,932	5,956	5,985	6,024	6,059	6,098	6,141	6,186
Italy	5,694	5,697	5,715	5,760	5,817	5,860	5,893	5,934	5,885	5,893
South Africa	4,540	4,602	4,658	4,709	4,754	4,794	4,828	4,858	4,883	4,906
Korea	4,701	4,736	4,762	4,786	4,804	4,814	4,830	4,846	4,861	4,875
Spain	4,026	4,072	4,131	4,201	4,269	4,340	4,407	4,487	4,431	4,451
Poland	3,826	3,825	3,823	3,820	3,818	3,816	3,813	3,812	3,793	3,786
Canada	3,069	3,102	3,137	3,168	3,200	3,231	3,265	3,298	3,310	3,337
Australia	1,915	1,941	1,965	1,990	2,013	2,040	2,070	2,102	2,102	2,124
Netherlands	1,593	1,605	1,615	1,623	1,628	1,632	1,635	1,638	1,639	1,642
Greece	1,092	1,095	1,099	1,102	1,106	1,110	1,115	1,119	1,122	1,125
Belgium	1,025	1,029	1,033	1,038	1,042	1,048	1,055	1,063	1,069	1,077
Portugal	1,023	1,029	1,037	1,044	1,050	1,055	1,058	1,061	1,062	1,063
Czech	1,027	1,022	1,020	1,020	1,021	1,023	1,027	1,032	1,026	1,027
Hungary	1,021	1,019	1,016	1,013	1,011	1,009	1,007	1,005	1,004	1,002
Sweden	887	890	893	896	899	903	908	915	920	924
Austria	801	804	808	812	818	823	828	832	834	837
Switzerland	718	723	729	734	739	744	748	755	762	767
Denmark	534	536	537	539	540	542	544	546	547	549
Slovak Republic	540	538	538	538	538	539	539	540	539	540
Finland	518	519	520	521	523	525	527	529	531	533
Norway	449	451	454	457	459	462	466	471	477	482
New Zealand	386	388	395	403	409	413	419	423	427	431
Ireland	379	385	392	398	405	413	424	434	425	430
Luxembourg	44	44	45	45	46	47	47	48	47	48
Iceland	28	29	29	29	29	30	30	31	32	32

출처 <http://stats.oecd.org>

7. 명목GDP

(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United States	98,988.0	102,339.0	105,902.0	110,892.0	118,123.0	125,797.0	133,362.0	140,108.0	143,694.0	..
Japan	46,675.0	40,955.0	39,183.0	42,291.0	46,059.0	45,522.0	43,626.0	43,779.0	48,870.0	..
China	11,984.8	13,248.0	14,538.3	16,409.6	19,316.4	22,359.1	26,578.8	33,822.6	43,270.0	..
Germany	19,002.0	18,910.0	20,170.0	24,421.0	27,452.0	27,884.0	29,186.0	33,291.0	36,345.0	33,300.0
France	13,280.0	13,398.0	14,574.0	17,999.0	20,614.0	21,465.0	22,661.0	25,940.0	28,542.0	26,494.0
United Kingdom	14,775.0	14,710.0	16,120.0	18,609.0	22,025.0	22,801.0	24,394.0	27,990.0	26,627.0	21,745.0
Italy	10,973.0	11,173.0	12,190.0	15,071.0	17,278.0	17,777.0	18,634.0	21,162.0	22,966.0	21,128.0
Russia	2,597.1	3,066.0	3,454.7	4,314.9	5,917.4	7,645.3	9,914.5	12,949.3	16,794.8	..
Spain	5,807.0	6,091.0	6,863.0	8,836.0	10,443.0	11,302.0	12,348.0	14,408.0	15,945.0	14,603.0
Brazil	6,447.0	5,535.8	5,042.2	5,524.7	6,637.6	8,821.9	10,890.6	13,332.7	15,751.5	..
Canada	7,249.0	7,154.0	7,347.0	8,659.0	9,922.0	11,338.0	12,786.0	14,241.0	14,991.0	13,361.0
India	4,601.8	4,778.5	5,071.9	5,994.6	7,009.2	8,101.5	9,148.9	11,768.9	11,591.7	..
Mexico	6,367.0	6,818.0	7,111.0	7,003.0	7,586.0	8,461.0	9,493.0	10,228.0	10,864.0	..
Australia	4,110.0	3,927.0	4,370.0	5,610.0	6,809.0	7,643.0	8,218.0	9,889.0	10,511.0	..
Korea	5,334.0	5,046.0	5,759.0	6,438.0	7,220.0	8,449.0	9,518.0	10,492.0	9,314.0	8,325.0
Netherlands	3,851.0	4,007.0	4,378.0	5,383.0	6,099.0	6,385.0	6,777.0	7,783.0	8,729.0	7,921.0
Turkey	2,666.0	1,960.0	2,325.0	3,030.0	3,922.0	4,830.0	5,309.0	6,471.0	7,303.0	6,155.0
Indonesia	1,650.2	1,604.5	1,956.6	2,347.7	2,568.4	2,858.7	3,645.7	4,319.3	5,107.3	..
Switzerland	2,499.0	2,550.0	2,786.0	3,251.0	3,630.0	3,725.0	3,912.0	4,341.0	5,024.0	4,919.0
Belgium	2,324.0	2,322.0	2,525.0	3,112.0	3,611.0	3,766.0	3,991.0	4,586.0	5,054.0	4,712.0
Poland	1,713.0	1,904.0	1,982.0	2,168.0	2,528.0	3,039.0	3,416.0	4,251.0	5,283.0	4,301.0
Sweden	2,473.0	2,274.0	2,510.0	3,147.0	3,621.0	3,706.0	3,991.0	4,625.0	4,876.0	4,061.0
South Africa	1,884.4	1,830.1	1,885.5	2,145.7	2,503.4	3,155.8	3,566.3	3,840.8	4,688.0	..
Norway	1,683.0	1,709.0	1,919.0	2,251.0	2,586.0	3,020.0	3,367.0	3,875.0	4,509.0	3,818.0
Austria	1,912.0	1,902.0	2,060.0	2,520.0	2,890.0	3,029.0	3,223.0	3,723.0	4,147.0	3,811.0
Greece	1,271.0	1,310.0	1,474.0	1,946.0	2,307.0	2,430.0	2,640.0	3,099.0	3,503.0	3,299.0
Denmark	1,601.0	1,605.0	1,739.0	2,126.0	2,447.0	2,577.0	2,744.0	3,107.0	3,408.0	3,096.0
Argentina	2,842.0	2,687.0	1,020.4	1,296.0	1,531.3	1,831.9	2,140.7	2,624.2	3,284.6	..
Saudi Arabia	1,328.8	1,184.8	1,108.7	1,666.5	2,160.1	2,428.0	2,577.3	2,837.4	2,764.5	..
Finland	1,217.0	1,246.0	1,351.0	1,641.0	1,889.0	1,956.0	2,078.0	2,460.0	2,705.0	2,380.0
Portugal	1,170.0	1,200.0	1,319.0	1,614.0	1,848.0	1,912.0	2,011.0	2,309.0	2,518.0	2,329.0
Ireland	966.0	1,046.0	1,226.0	1,577.0	1,851.0	2,016.0	2,217.0	2,597.0	2,663.0	2,272.0
Czech Republic	567.0	618.0	753.0	914.0	1,095.0	1,245.0	1,426.0	1,742.0	2,161.0	1,903.0
New Zealand	532.0	529.0	612.0	823.0	1,006.0	1,128.0	1,092.0	1,332.0	1,299.0	..
Hungary	473.0	534.0	668.0	839.0	1,026.0	1,102.0	1,129.0	1,384.0	1,542.0	1,290.0
Slovak Republic	204.0	211.0	244.0	332.0	421.0	479.0	558.0	751.0	948.0	880.0
Luxembourg	203.0	202.0	226.0	292.0	341.0	377.0	428.0	513.0	576.0	523.0
Iceland	87.0	79.0	89.0	110.0	132.0	163.0	167.0	204.0	168.0	121.0

출처 <http://stats.oecd.org/>, <http://www.kdi.re.kr/kdi/report/>

8. 명목GDP(PPP기준)

(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United States	98,988.0	102,339.0	105,902.0	110,892.0	118,123.0	125,797.0	133,362.0	140,108.0	143,694.0	..
China	29,755.9	33,001.9	36,635.2	41,157.5	46,616.0	53,143.6	61,216.4	71,034.2	79,092.6	..
Japan	32,503.0	33,301.0	34,172.0	35,099.0	37,085.0	38,728.0	40,705.0	42,847.0	43,163.0	..
India	15,438.7	16,635.4	17,564.2	19,440.1	21,654.0	24,451.9	27,679.0	30,998.4	33,588.7	..
Germany	21,330.0	22,116.0	22,754.0	23,570.0	24,664.0	25,865.0	27,776.0	29,257.0	30,317.0	29,696.0
United Kingdom	15,354.0	16,305.0	17,137.0	17,775.0	19,022.0	19,713.0	21,151.0	21,819.0	22,915.0	22,568.0
Russia	11,149.4	11,999.4	12,788.5	14,020.8	15,453.9	16,979.6	18,875.3	20,952.8	22,602.0	..
France	15,349.0	16,299.0	17,112.0	16,996.0	17,665.0	18,694.0	20,007.0	21,215.0	22,219.0	21,721.0
Brazil	12,202.8	12,660.5	13,224.5	13,661.2	14,857.0	15,826.4	16,984.0	18,429.4	19,781.4	..
Italy	14,576.0	15,459.0	15,320.0	15,631.0	15,947.0	16,494.0	17,819.0	18,851.0	19,562.0	19,216.0
Mexico	9,871.0	10,092.0	10,477.0	11,091.0	11,868.0	12,938.0	14,355.0	15,274.0	16,234.0	..
Spain	8,585.0	9,201.0	9,943.0	10,394.0	11,080.0	11,881.0	13,377.0	14,455.0	15,031.0	14,957.0
Korea	8,094.0	8,607.0	9,360.0	9,658.0	10,391.0	10,967.0	11,736.0	12,689.0	13,063.0	13,244.0
Canada	8,741.0	9,098.0	9,378.0	9,893.0	10,491.0	11,320.0	12,019.0	12,638.0	12,972.0	12,803.0
Turkey	5,893.0	5,611.0	5,721.0	5,877.0	6,885.0	7,812.0	8,948.0	9,609.0	10,399.0	10,403.0
Indonesia	4,951.2	5,255.2	5,587.8	5,979.7	6,460.9	7,051.6	7,678.8	8,380.3	9,079.6	..
Australia	5,404.0	5,698.0	6,018.0	6,398.0	6,763.0	7,208.0	7,747.0	8,296.0	8,477.0	..
Poland	4,043.0	4,189.0	4,421.0	4,577.0	4,968.0	5,261.0	5,747.0	6,364.0	6,909.0	7,271.0
Netherlands	4,683.0	4,940.0	5,158.0	5,142.0	5,404.0	5,729.0	6,222.0	6,638.0	7,075.0	6,731.0
Saudi Arabia	3,603.2	3,710.2	3,780.0	4,156.2	4,500.8	4,905.8	5,223.5	5,541.7	5,912.7	..
Argentina	3,359.0	3,288.2	2,981.3	3,313.9	3,716.9	4,190.5	4,691.5	5,234.5	5,708.5	..
South Africa	2,917.8	3,069.8	3,238.1	3,410.3	3,678.9	3,987.6	4,334.9	4,678.3	4,925.3	..
Belgium	2,831.0	2,929.0	3,100.0	3,137.0	3,244.0	3,366.0	3,602.0	3,771.0	3,964.0	3,911.0
Sweden	2,480.0	2,512.0	2,613.0	2,725.0	2,923.0	2,953.0	3,241.0	3,515.0	3,636.0	3,526.0
Switzerland	2,280.0	2,339.0	2,452.0	2,463.0	2,574.0	2,661.0	2,957.0	3,260.0	3,472.0	3,488.0
Greece	2,010.0	2,183.0	2,373.0	2,502.0	2,672.0	2,736.0	3,009.0	3,184.0	3,403.0	3,347.0
Austria	2,305.0	2,316.0	2,443.0	2,523.0	2,663.0	2,748.0	3,000.0	3,144.0	3,322.0	3,209.0
Norway	1,623.0	1,674.0	1,682.0	1,748.0	1,940.0	2,187.0	2,484.0	2,586.0	2,928.0	2,687.0
Czech Republic	1,540.0	1,654.0	1,721.0	1,835.0	1,970.0	2,084.0	2,295.0	2,535.0	2,692.0	2,647.0
Portugal	1,815.0	1,901.0	1,979.0	2,025.0	2,079.0	2,246.0	2,421.0	2,544.0	2,678.0	2,612.0
Denmark	1,539.0	1,577.0	1,653.0	1,640.0	1,745.0	1,799.0	1,959.0	2,030.0	2,119.0	2,033.0
Hungary	1,237.0	1,382.0	1,499.0	1,560.0	1,647.0	1,710.0	1,848.0	1,931.0	2,076.0	1,981.0
Finland	1,328.0	1,376.0	1,431.0	1,438.0	1,560.0	1,610.0	1,743.0	1,914.0	1,999.0	1,853.0
Ireland	1,090.0	1,178.0	1,298.0	1,377.0	1,482.0	1,604.0	1,796.0	1,979.0	1,932.0	1,837.0
New Zealand	812.0	855.0	901.0	944.0	1,002.0	1,044.0	1,133.0	1,205.0	1,240.0	..
Slovak Republic	593.0	649.0	697.0	731.0	788.0	871.0	991.0	1,120.0	1,254.0	1,216.0
Luxembourg	234.0	238.0	257.0	274.0	298.0	318.0	373.0	405.0	434.0	417.0
Iceland	81.0	87.0	89.0	89.0	99.0	104.0	109.0	116.0	124.0	120.0

출처 <http://stats.oecd.org/>, <http://www.kdi.re.kr/kdi/report/>

9. 무역규모

(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United States	20,412	19,083	18,933	20,278	23,406	26,338	29,440	31,686	34,569	26,607
China	4,743	5,097	6,208	8,510	11,546	14,219	17,604	21,762	25,633	22,072
Germany	10,490	10,578	11,061	13,562	16,256	17,480	20,148	23,762	26,312	20,524
Japan	8,588	7,526	7,539	8,547	10,202	11,108	12,258	13,366	15,446	11,315
France	6,666	6,520	6,610	7,909	9,231	9,676	10,378	11,714	13,047	10,261
Netherlands	4,514	4,395	4,633	5,607	6,771	7,702	8,805	10,434	12,189	9,445
United Kingdom	6,335	6,165	6,443	7,050	8,181	8,981	10,501	10,620	10,926	8,306
Italy	4,793	4,807	5,014	5,969	7,091	7,579	8,594	10,115	10,929	8,150
Belgium	3,659	3,690	4,144	4,906	5,925	6,531	7,189	8,452	9,381	7,208
Korea	3,327	2,915	3,146	3,726	4,783	5,457	6,348	7,283	8,573	6,866
Canada	5,214	4,871	4,799	5,178	5,967	6,829	7,472	8,109	8,755	6,458
Spain	2,714	2,713	2,908	3,647	4,410	4,814	5,424	6,426	7,023	5,083
Russia	1,502	1,556	1,683	2,120	2,806	3,692	4,678	5,779	7,635	4,958
Mexico	3,458	3,316	3,338	3,404	3,902	4,424	5,134	5,621	6,096	4,712
India	939	938	1,058	1,315	1,764	2,425	3,002	3,795	5,159	3,989
Switzerland	1,630	1,662	1,789	2,051	2,386	2,575	2,893	3,333	3,835	3,283
Australia	1,354	1,273	1,377	1,595	1,959	2,314	2,627	3,067	3,875	3,195
Brazil	1,141	1,169	1,101	1,239	1,631	1,962	2,336	2,872	3,803	2,866
Poland	808	862	964	1,220	1,647	1,911	2,378	3,059	3,793	2,811
Austria	1,401	1,454	1,570	1,967	2,383	2,525	2,740	3,267	3,656	2,807
Saudi Arabia	1,078	993	1,047	1,302	1,734	2,402	2,811	3,252	4,286	2,807
Sweden	1,600	1,388	1,485	1,856	2,237	2,427	2,753	3,215	3,505	2,495
Turkey	823	727	876	1,166	1,607	1,903	2,251	2,773	3,340	2,430
Czech Republic	611	696	791	1,004	1,390	1,546	1,881	2,407	2,888	2,183
Indonesia	1,090	949	975	1,063	1,256	1,625	1,839	2,108	2,666	2,115
Norway	945	921	945	1,084	1,311	1,592	1,865	2,167	2,618	1,892
Ireland	1,285	1,334	1,407	1,466	1,666	1,782	1,818	2,054	2,097	1,765
Denmark	968	970	1,078	1,239	1,452	1,607	1,781	2,012	2,265	1,760
Hungary	604	641	723	909	1,161	1,295	1,535	1,910	2,174	1,615
South Africa	597	575	590	762	996	1,139	1,369	1,582	1,803	1,346
Finland	805	759	794	957	1,130	1,243	1,466	1,717	1,882	1,226
Portugal	643	636	661	790	907	993	1,100	1,297	1,458	1,124
Slovak Republic	246	274	310	444	576	665	867	1,184	1,451	1,111
Greece	452	434	420	582	681	717	844	998	1,140	793
New Zealand	272	270	294	351	435	479	488	578	649	505
Luxembourg	197	221	229	295	363	407	495	499	569	452
Iceland	45	43	45	52	65	81	96	115	116	76

출처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es_e/

II. 노동공급

10.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0.68	2.33	0.34	1.63	0.51	0.93	0.97	2.93	0.80	3.56
Sweden	0.39	0.57	0.60	0.60	0.59	0.60	0.97	0.86	0.81	2.68
Mexico	2.91	1.14	2.27	1.72	1.92	0.64	1.24	1.68	1.67	1.98
Turkey	1.92	1.98	1.77	1.70	-4.24	1.79	1.72	1.61	1.44	1.77
Australia	1.19	1.44	1.45	1.42	1.34	1.47	1.59	1.56	1.63	1.69
Switzerland	0.46	0.54	1.09	1.01	0.89	0.83	0.75	0.71	1.22	1.43
Norway	0.81	0.66	0.73	0.83	0.68	0.99	2.93	1.36	1.58	1.18
Canada	1.22	1.40	1.38	1.13	1.23	1.31	1.31	1.19	1.11	1.13
New Zealand	0.65	0.82	2.03	2.41	1.84	1.39	1.37	1.07	0.97	1.08
Korea	0.80	0.62	0.56	0.52	0.51	0.73	0.77	0.80	0.77	0.95
Belgium	0.12	0.14	0.44	0.48	0.41	0.84	0.95	0.97	0.93	0.74
Slovak Republic	1.00	0.87	0.18	0.10	1.56	0.82	0.96	0.27	0.49	0.63
United States	2.19	1.29	1.29	1.72	0.98	1.20	1.14	1.26	0.50	0.60
Italy	-0.05	-0.06	0.02	0.00	-0.95	0.64	0.21	0.57	0.61	0.57
United Kingdom	0.50	0.61	0.54	0.46	0.49	0.55	0.56	0.64	2.96	0.46
Spain	0.87	0.93	0.69	0.60	5.32	1.81	1.72	1.84	1.43	0.37
Czech Republic	0.38	0.36	0.36	-0.05	0.45	0.33	0.50	0.54	0.87	0.28
Poland	1.92	0.61	0.56	-0.59	0.47	0.29	0.91	-0.10	-0.13	0.28
Finland	0.26	0.17	0.20	0.14	0.26	0.14	0.29	0.29	0.60	0.23
Austria	0.54	0.63	0.77	0.64	0.46	0.56	0.30	0.34	0.45	0.22
Denmark	0.21	0.13	0.14	0.27	0.33	0.18	0.10	0.10	0.50	0.04
Netherlands	0.61	0.66	0.56	0.39	0.20	0.16	0.09	0.10	0.05	0.00
Portugal	0.50	0.58	0.59	0.68	0.57	0.38	0.01	0.27	0.15	-0.04
Iceland	1.84	1.62	0.59	-1.03	1.11	1.44	4.25	4.10	2.27	-0.05
Ireland	1.89	2.14	2.43	1.86	1.85	2.59	2.99	2.68	1.38	-0.12
Greece	-0.68	-0.23	3.66	0.12	0.14	0.04	0.36	0.70	0.33	-0.14
Hungary	0.07	0.16	-0.02	-0.20	-0.14	-0.17	0.01	-0.23	-0.08	-0.34
France	0.40	0.70	0.53	1.53	0.66	0.54	0.68	0.55	0.40	-0.43
Germany	-0.15	-0.16	-0.20	-0.08	-0.67	0.78	-0.42	-0.59	-0.29	-0.55
Japan	-0.23	-0.37	-0.56	-0.45	-0.28	-0.62	-0.77	-0.99	-0.83	-0.97

출처 <http://stats.oecd.org>

11.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와 전망

(%)	1980	1990	2000	2009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Australia	1.57	1.50	1.19	1.69	1.03	0.91	0.85	0.88	0.83	0.56
Austria	0.54	0.22	0.04	-0.10	-0.39	-0.52	-0.07	-0.15
Belgium	..	-0.16	0.12	0.74	-0.13	-0.32	-0.47	-0.51	-0.09	-0.14
Canada	1.85	1.24	1.22	1.13	0.33	0.08	-0.04	0.07	0.27	0.03
Czech Republic	0.38	0.28	-0.72	-0.58	-0.21	-0.58	-1.47	-0.93
Denmark	..	0.53	0.21	0.04	-0.15	-0.20	-0.38	-0.67	-0.20	0.15
Finland	0.50	0.24	0.26	0.23	-0.57	-0.39	-0.22	-0.17	0.03	-0.12
France	1.37	0.32	0.40	-0.43	-0.06	0.02	-0.05	-0.11	0.05	0.06
Germany	1.35	1.60	-0.15	-0.55	-0.35	-0.59	-0.94	-1.20	-0.35	-0.65
Greece	..	1.92	-0.68	-0.14	-0.19	-0.30	-0.49	-0.61	-1.08	-0.68
Hungary	0.07	-0.34	-0.75	-1.01	-0.36	-0.25	-1.27	-0.81
Iceland	1.84	-0.05	0.35	0.13	-0.04	0.00	0.08	0.12
Ireland	..	0.75	1.89	-0.12	0.67	0.73	0.54	0.28	-0.28	-0.13
Italy	0.36	0.93	-0.05	0.57	-0.30	-0.24	-0.54	-1.04	-1.04	-0.30
Japan	0.92	0.64	-0.23	-0.97	-1.18	-0.76	-0.82	-1.27	-1.80	-1.48
Korea	..	1.87	0.80	0.95	0.19	-0.78	-1.33	-1.38	-1.59	-1.54
Luxembourg	..	2.32	0.68	3.56	0.78	0.46	0.26	0.13	0.61	0.57
Mexico	2.91	1.98	1.25	0.58	0.26	0.01	-0.39	-0.70
Netherlands	1.49	0.60	0.61	0.00	-0.13	-0.27	-0.49	-0.56	0.11	0.15
New Zealand	..	0.87	0.65	1.08	0.48	0.36	-0.04	-0.15	0.04	0.01
Norway	-1.33	0.26	0.81	1.18	0.42	0.31	0.21	0.12	0.33	0.35
Poland	1.92	0.28	-0.96	-1.13	-0.77	-0.35	-0.89	-1.56
Portugal	0.49	0.43	0.50	-0.04	-0.04	-0.06	-0.29	-0.50	-0.92	-0.50
Slovak Republic	1.00	0.63	-0.60	-0.81	-0.56	-0.56	-1.27	-1.45
Spain	1.39	0.49	0.87	0.37	-0.08	-0.10	-0.40	-0.81	-1.49	-0.70
Sweden	0.46	0.71	0.39	2.68	-0.17	0.14	0.20	-0.05	0.19	0.21
Switzerland	0.46	1.43	0.14	-0.11	-0.36	-0.54	-0.16	-0.28
Turkey	..	3.50	1.92	1.77	1.39	0.78	0.68	0.55	-0.09	-0.14
United Kingdom	..	0.23	0.50	0.46	0.22	0.35	0.31	0.11	0.45	0.10
United States	1.63	1.72	2.19	0.60	0.48	0.40	0.37	0.56	0.84	0.75

출처 <http://stats.oecd.org>

12. 합계출산율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ew Zealand	1.97	1.98	1.97	1.89	1.93	1.98	1.97	2.01	2.17	2.18
Iceland	1.99	2.08	1.95	1.93	1.99	2.03	2.05	2.07	2.09	2.14
Turkey	2.48	2.27	2.25	2.24	2.22	2.23	2.20	2.17	2.15	2.14
United States	2.01	2.06	2.03	2.01	2.04	2.05	2.05	2.10	2.12	..
Ireland	1.91	1.90	1.96	1.98	1.98	1.95	1.88	1.90	2.03	2.10
Mexico	2.73	2.77	2.60	2.46	2.34	2.25	2.20	2.17	2.13	2.10
France	1.79	1.87	1.88	1.86	1.87	1.90	1.92	1.98	1.96	2.00
Norway	1.85	1.85	1.78	1.75	1.80	1.83	1.84	1.90	1.90	1.96
United Kingdom	1.68	1.64	1.63	1.64	1.71	1.77	1.79	1.84	1.90	1.96
Australia	1.76	1.76	1.73	1.76	1.75	1.76	1.79	1.82	1.93	
Sweden	1.50	1.55	1.57	1.65	1.72	1.75	1.77	1.85	1.88	1.91
Denmark	1.74	1.77	1.75	1.72	1.76	1.78	1.80	1.85	1.85	1.89
Finland	1.73	1.73	1.73	1.72	1.76	1.80	1.80	1.84	1.83	1.85
Belgium	1.62	1.72	1.76	1.65	1.72	1.76	1.77	1.80	1.81	1.82
Netherlands	1.65	1.72	1.71	1.73	1.75	1.73	1.71	1.72	1.72	1.77
Canada	1.51	1.49	1.51	1.50	1.53	1.53	1.54	1.59	1.66	..
Luxembourg	1.71	1.78	1.66	1.63	1.62	1.66	1.62	1.64	1.61	1.6
Greece	1.28	1.27	1.26	1.27	1.29	1.31	1.34	1.41	1.42	1.51
Czech Republic	1.13	1.14	1.15	1.17	1.18	1.23	1.28	1.33	1.44	1.5
Switzerland	1.48	1.50	1.38	1.39	1.39	1.42	1.42	1.44	1.46	1.48
Spain	1.19	1.23	1.24	1.26	1.31	1.33	1.35	1.38	1.40	1.46
Austria	1.34	1.36	1.33	1.39	1.38	1.42	1.41	1.41	1.38	1.41
Italy	1.23	1.26	1.25	1.27	1.29	1.33	1.32	1.35	1.38	1.41
Poland	1.37	1.37	1.32	1.25	1.22	1.23	1.24	1.27	1.31	1.39
Germany	1.36	1.38	1.35	1.34	1.34	1.36	1.34	1.33	1.37	1.38
Japan	1.34	1.36	1.33	1.32	1.29	1.29	1.26	1.32	1.34	1.37
Portugal	1.51	1.56	1.46	1.47	1.44	1.40	1.41	1.36	1.33	1.37
Hungary	1.29	1.33	1.31	1.31	1.28	1.28	1.32	1.35	1.32	1.35
Slovak Republic	1.33	1.29	1.20	1.19	1.20	1.24	1.25	1.24	1.25	1.32
Korea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13. 외국인 근로자 비율(경제활동인구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82.4	89.7	90.6	92.8	94.4	96.8	101.0	104.7	109.2
Switzerland	18.0	18.3	20.3	19.7	19.8	20.0	20.1	20.5	21.2
Ireland	8.1	13.0
Austria	8.4	8.6	8.5	8.8	9.2	9.3	10.5	10.7	11.2
Belgium	8.8	9.1	9.0	8.9	9.5	9.5	9.7	9.7	..
Germany	9.0	9.1	9.2	9.4	9.3	9.3	9.3	9.3	9.3
Norway	4.7	5.7	5.8	5.9	6.3	6.6	7.4	8.5	9.3
Greece	3.8	4.7	5.6	5.8	6.4	6.7	6.7	7.5	8.6
Spain	2.5	3.4	4.5	5.2	5.3	8.1	8.5	8.9	8.2
United Kingdom	3.9	4.3	4.3	4.5	4.9	5.1	5.9	6.8	7.3
France	6.1	6.2	6.2	5.6	5.4	5.1	5.1	5.3	5.6
Czech Republic	2.0	2.0	2.0	2.1	2.1	2.9	3.6	4.6	5.4
Italy	3.5	3.5	3.4	6.1	5.8	5.8	5.9	5.0	..
Portugal	1.9	4.4	5.3	5.5	5.8	4.9
Denmark	3.4	3.5	3.6	3.5	3.7	3.8	3.9	4.3	4.8
Sweden	4.9	5.0	4.8	4.8	4.7	3.8	3.7
Netherlands	3.7	3.7	3.6	3.8	3.6	3.4	3.4	3.7	..
Finland	1.6	1.7	1.8	1.8	1.9	2.0	2.2	2.4	2.7
Korea	0.6	0.6	0.6	1.8	1.3	0.8	1.3	2.1	2.2
Canada	0.6	0.6	0.6	0.6	0.7	0.8	0.9	1.1	1.4
Hungary	0.8	0.9	1.0	1.2	1.6	1.5	1.5	1.4	1.3
Slovak Republic	0.2	0.2	0.2	0.2	0.2	0.2	0.2	0.4	0.6
Japan	0.2	0.2	0.3	0.3	0.3	0.3	0.3	0.3	0.3

출처 <http://stats.oecd.org>

14. 고용률(15~64세)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itzerland	78.4	79.2	78.9	77.9	77.4	77.2	77.9	78.6	79.5	79.2
Iceland	84.6	84.6	82.8	84.1	82.8	84.4	85.3	85.7	84.2	78.9
Norway	77.9	77.5	77.1	75.8	75.6	75.2	75.5	76.9	78.1	76.5
Netherlands	72.1	73.1	73.2	72.6	71.8	71.9	73.2	74.8	76.1	75.8
Denmark	76.4	75.9	75.9	75.1	75.7	75.9	77.4	77.1	78.1	75.7
New Zealand	70.4	71.4	72.2	72.2	73.2	74.3	74.9	75.2	74.7	72.9
Sweden	74.2	75.2	74.9	74.3	73.5	73.9	74.5	75.7	75.7	72.2
Australia	69.3	69.0	69.4	70.0	70.3	71.5	72.2	72.8	73.2	72.0
Austria	68.3	68.2	68.8	68.9	67.8	68.6	70.2	71.4	72.1	71.6
Canada	70.9	70.8	71.4	72.2	72.5	72.5	72.9	73.6	73.7	71.5
United Kingdom	72.2	72.5	72.3	72.6	72.7	72.6	72.5	72.3	72.7	70.6
Germany	65.6	65.8	65.3	64.6	65.0	65.5	67.2	69.0	70.2	70.4
Japan	68.9	68.8	68.2	68.4	68.7	69.3	70.0	70.7	70.7	70.0
Finland	67.5	68.3	68.3	67.9	67.8	68.5	69.6	70.5	71.3	68.4
United States	74.1	73.1	71.9	71.2	71.2	71.5	72.0	71.8	70.9	67.6
Slovenia	63.4	62.6	65.3	66.0	66.6	67.8	68.6	67.5
Portugal	68.3	68.9	68.7	68.0	67.8	67.5	67.9	67.8	68.2	66.3
Czech Republic	65.2	65.3	65.7	64.9	64.2	64.8	65.3	66.1	66.6	65.4
Luxembourg	62.7	63.0	63.6	62.2	62.5	63.6	63.6	64.2	63.4	65.2
France	61.1	62.0	62.2	63.3	63.1	63.2	63.3	64.0	64.6	64.1
Korea	61.5	62.1	63.3	63.0	63.6	63.7	63.8	63.9	63.8	62.9
Ireland	65.0	65.7	65.2	65.2	65.9	67.5	68.5	69.2	68.1	62.5
Belgium	60.9	59.7	59.9	59.6	60.3	61.1	61.0	62.0	62.4	61.6
Greece	55.9	55.6	57.5	58.7	59.4	60.1	61.0	61.4	61.9	61.2
Spain	57.4	58.8	59.5	60.7	62.0	64.3	65.7	66.6	65.3	60.6
Slovak Republic	56.8	56.9	56.9	57.7	57.0	57.7	59.4	60.7	62.3	60.2
Mexico	60.1	59.4	59.3	58.8	59.9	59.6	61.0	61.1	61.3	59.4
Poland	55.0	53.5	51.7	51.4	51.9	53.0	54.5	57.0	59.2	59.3
Italy	53.9	54.9	55.6	56.2	57.4	57.5	58.4	58.7	58.7	57.5
Hungary	56.0	56.2	56.2	57.0	56.8	56.9	57.3	57.3	56.7	55.4
Turkey	48.9	47.8	46.7	45.5	44.1	44.4	44.6	44.6	44.9	44.3

출처 <http://stats.oecd.org>

15. 남성 고용률(15~64세)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itzerland	..	87.6	86.2	85.1	84.5	83.9	84.7	85.6	85.4	84.5
Netherlands	81.2	81.9	81.4	80.3	79.3	78.9	79.9	81.0	81.9	80.8
Iceland	88.2	88.0	85.7	86.8	86.2	87.4	88.7	89.5	87.8	80.6
Japan	80.9	80.5	79.9	79.8	80.0	80.4	81.0	81.7	81.6	80.2
New Zealand	77.9	78.6	79.5	79.3	80.6	81.3	81.9	81.9	80.9	78.6
Norway	81.7	81.0	80.2	78.7	78.4	78.3	78.6	79.7	80.6	78.4
Denmark	80.7	80.2	80.0	79.6	79.7	79.8	81.2	81.0	81.9	78.3
Australia	77.1	76.4	76.7	77.0	77.6	78.5	78.8	79.6	79.6	77.7
Mexico	82.8	82.3	81.6	80.8	81.0	80.2	81.6	80.9	80.7	77.7
Austria	77.3	76.6	76.4	76.4	74.9	75.4	76.9	78.4	78.5	76.9
United Kingdom	78.9	79.1	78.6	78.9	78.9	78.8	78.4	78.4	78.5	75.7
Germany	72.9	72.8	71.7	70.4	70.8	71.4	72.8	74.7	75.9	75.5
Sweden	76.2	76.9	76.4	75.7	75.0	75.9	76.8	78.0	78.1	74.1
Canada	76.2	75.7	75.9	76.4	76.7	76.7	76.8	77.2	77.2	74.0
Czech Republic	73.6	73.6	74.2	73.4	72.4	73.3	73.7	74.8	75.4	73.8
Korea	73.1	73.5	74.9	75.0	75.2	75.0	74.6	74.7	74.4	73.6
Greece	71.3	70.9	72.2	73.4	73.7	74.2	74.6	74.9	75.0	73.5
Luxembourg	75.0	74.9	75.5	73.3	72.8	73.3	72.6	72.3	71.5	73.2
United States	80.6	79.4	78.0	76.9	77.2	77.6	78.1	77.8	76.4	72.0
Portugal	76.3	76.7	76.3	74.8	74.1	73.4	73.9	73.9	74.0	71.1
Finland	70.5	71.2	70.4	70.1	70.0	70.5	71.8	72.4	73.4	68.9
Italy	68.2	68.7	69.2	69.7	69.7	69.7	70.5	70.7	70.3	68.6
France	68.1	69.0	68.6	69.1	68.7	68.6	68.4	68.6	69.2	68.4
Slovak Republic	62.2	62.1	62.5	63.4	63.2	64.6	67.0	68.4	70.0	67.6
Spain	72.7	73.8	73.9	74.5	74.9	76.4	77.3	77.4	74.6	67.5
Ireland	76.1	76.7	75.1	74.9	75.7	76.6	77.7	77.6	75.7	67.3
Belgium	69.8	68.5	68.3	67.3	67.9	68.3	67.9	68.7	68.6	67.2
Poland	61.2	59.2	57.0	56.7	57.4	59.0	60.9	63.6	66.3	66.1
Turkey	71.7	69.3	66.9	65.9	66.4	66.9	66.8	66.8	66.6	64.6
Hungary	62.7	63.0	62.9	63.4	63.1	63.1	63.8	64.0	63.0	61.1

출처 <http://stats.oecd.org>

16. 여성 고용률(15~64세)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81.0	81.1	79.8	81.2	79.4	81.2	81.6	81.7	80.3	77.2
Norway	74.0	73.8	73.9	72.7	72.7	72.0	72.3	74.0	75.4	74.4
Switzerland	69.4	70.7	71.5	70.7	70.3	70.4	71.1	71.6	73.5	73.8
Denmark	72.1	71.4	71.7	70.5	71.6	71.9	73.4	73.2	74.3	73.1
Netherlands	62.7	64.1	64.8	64.7	64.1	64.8	66.4	68.5	70.2	70.6
Sweden	72.2	73.5	73.4	72.8	71.8	71.8	72.1	73.2	73.2	70.2
Canada	65.6	65.9	67.0	67.9	68.4	68.3	69.0	70.1	70.1	69.1
Finland	64.5	65.4	66.1	65.7	65.5	66.5	67.3	68.5	69.0	67.9
New Zealand	63.2	64.5	65.1	65.5	66.1	67.6	68.2	68.7	68.7	67.4
Austria	59.4	59.9	61.2	61.6	60.7	62.0	63.5	64.4	65.8	66.4
Australia	61.4	61.7	62.0	63.0	63.0	64.6	65.5	66.1	66.7	66.2
United Kingdom	65.6	66.0	66.3	66.4	66.6	66.7	66.8	66.3	66.9	65.6
Germany	58.1	58.7	58.8	58.7	59.2	59.6	61.4	63.2	64.3	65.2
United States	67.8	67.1	66.1	65.7	65.4	65.6	66.1	65.9	65.5	63.4
Portugal	60.5	61.3	61.4	61.4	61.7	61.7	62.0	61.9	62.5	61.6
France	54.3	55.2	55.8	57.6	57.7	58.0	58.2	59.4	60.1	60.0
Japan	56.7	57.0	56.5	56.8	57.4	58.1	58.8	59.5	59.7	59.8
Ireland	53.8	54.6	55.2	55.5	56.1	58.2	59.1	60.7	60.5	57.8
Luxembourg	50.0	50.8	51.5	50.9	51.9	53.7	54.6	56.1	55.1	57.0
Czech Republic	56.9	57.0	57.1	56.3	56.0	56.3	56.8	57.3	57.6	56.7
Belgium	51.9	50.7	51.4	51.8	52.6	53.8	54.0	55.3	56.2	56.0
Spain	42.0	43.8	44.9	46.8	49.0	51.9	54.0	55.5	55.7	53.5
Slovak Republic	51.5	51.8	51.4	52.2	50.9	50.9	51.9	53.0	54.6	52.8
Poland	48.9	47.8	46.4	46.2	46.4	47.0	48.2	50.6	52.4	52.8
Korea	50.0	50.9	52.0	51.1	52.2	52.5	53.1	53.2	53.2	52.2
Hungary	49.6	49.8	49.8	50.9	50.7	51.0	51.2	50.9	50.6	49.9
Greece	41.3	41.2	42.9	44.3	45.2	46.1	47.4	47.9	48.7	48.9
Italy	39.6	41.1	42.0	42.7	45.2	45.3	46.3	46.6	47.2	46.4
Mexico	39.6	39.0	39.5	39.1	40.9	41.6	42.9	43.6	44.1	43.0
Turkey	26.2	26.3	26.6	25.2	22.3	22.3	22.7	22.8	23.5	24.2

출처 <http://stats.oecd.org>

17. 15~24세 고용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etherlands	66.5	70.3	69.5	67.6	64.9	64.2	65.7	68.2	69.2	67.8
Denmark	67.1	61.7	63.5	59.6	62.3	62.3	64.6	65.3	67.0	63.6
Switzerland	65.1	63.9	65.4	63.5	61.9	59.9	63.3	62.6	62.4	61.9
Iceland	68.2	66.8	59.4	68.1	66.3	71.6	72.9	74.3	72.1	61.7
Australia	62.1	61.2	61.0	61.8	62.2	63.3	63.7	64.1	64.4	61.0
Canada	56.3	56.3	57.5	58.3	58.0	57.8	58.7	59.5	59.6	55.3
Austria	52.8	51.6	51.7	51.1	51.9	53.1	54.0	55.5	55.9	54.5
Norway	58.1	56.5	56.9	55.3	54.4	52.9	53.1	55.1	58.0	53.2
United Kingdom	61.5	61.0	60.9	59.7	60.1	58.6	57.3	55.9	56.4	52.1
New Zealand	54.2	55.4	56.3	56.0	56.3	56.4	58.2	58.2	56.1	51.6
United States	59.7	57.7	55.7	53.9	53.9	53.9	54.2	53.1	51.2	46.9
Germany	47.2	47.0	44.8	42.4	41.9	42.6	44.0	45.9	47.2	46.6
Mexico	48.9	47.2	45.4	44.1	44.3	43.7	44.8	44.2	44.3	41.2
Japan	42.7	42.0	41.0	40.3	40.0	40.9	41.4	41.4	41.4	39.9
Finland	42.9	43.5	42.4	41.4	41.3	42.1	44.1	46.4	46.4	38.5
Sweden	46.1	47.8	46.5	45.1	42.8	42.5	44.0	46.3	45.9	38.0
Ireland	49.4	48.2	45.9	46.2	46.2	47.9	49.4	49.8	46.5	36.3
Portugal	41.8	42.6	41.9	38.5	36.9	36.1	35.8	34.9	34.7	31.3
France	23.2	24.3	24.1	29.7	29.3	29.3	28.9	30.1	30.7	31.1
Spain	36.3	37.1	36.6	36.8	38.4	41.9	43.3	42.9	39.5	30.8
Turkey	37.0	35.3	33.0	30.5	30.0	30.2	30.3	30.2	30.3	28.9
Poland	24.5	22.1	20.0	19.6	20.0	20.9	24.0	25.8	27.3	26.8
Luxembourg	31.8	32.3	32.3	27.0	23.3	24.9	23.3	22.5	23.8	26.7
Czech Republic	38.3	36.1	33.7	31.4	28.5	27.3	27.7	28.5	28.1	26.5
Belgium	30.3	28.5	29.4	27.4	27.8	27.5	27.6	27.5	27.4	25.3
Greece	26.9	26.0	26.5	25.3	26.8	25.0	24.2	24.0	23.5	22.9
Korea	29.4	30.1	31.5	30.8	31.2	29.9	27.2	25.7	23.8	22.9
Slovak Republic	29.0	27.9	27.2	27.6	26.5	25.6	25.7	27.6	26.2	22.8
Italy	27.8	27.4	26.7	26.0	27.2	25.5	25.5	24.7	24.4	21.7
Hungary	32.5	30.7	28.5	26.7	23.6	21.8	21.7	21.0	20.0	18.1

출처 <http://stats.oecd.org>

18. 25~54세 고용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itzerland	85.4	86.0	86.0	84.8	84.7	85.1	85.2	86.1	87.2	86.8
Norway	85.3	85.1	84.4	82.9	83.1	83.2	84.4	85.8	86.8	86.0
Netherlands	81.0	81.8	81.8	81.6	81.3	81.8	83.1	84.5	85.7	85.2
Denmark	84.3	84.5	84.1	83.5	83.7	84.5	86.1	86.3	88.0	85.1
Sweden	83.8	84.6	84.2	83.5	82.9	83.9	84.7	86.1	86.5	84.4
Austria	82.5	82.7	83.5	84.0	82.6	82.6	83.5	84.0	84.4	84.0
Iceland	90.6	90.7	90.0	89.2	88.0	88.2	89.1	89.4	88.1	83.8
Czech Republic	81.6	82.1	82.5	81.7	81.4	82.0	82.5	83.5	83.8	82.5
Finland	80.9	81.5	81.6	81.1	81.0	81.7	82.5	83.3	84.3	82.4
France	78.3	79.3	79.4	80.4	80.5	80.7	81.2	82.1	83.2	82.0
Luxembourg	78.2	78.7	79.1	77.8	79.3	80.7	81.0	81.9	80.0	81.2
Germany	79.3	79.3	78.8	78.2	78.1	77.4	78.8	80.3	81.0	80.8
New Zealand	78.3	78.9	79.4	79.5	80.5	81.6	81.8	81.9	81.9	80.6
Canada	79.9	79.8	80.3	80.8	81.3	81.3	81.6	82.2	82.3	80.3
United Kingdom	80.2	80.5	80.3	80.7	80.7	81.1	81.2	81.3	81.6	79.8
Belgium	77.9	76.6	76.5	76.5	77.3	78.3	78.4	79.7	80.5	79.8
Portugal	81.8	82.3	81.5	80.9	81.1	80.8	81.3	81.0	81.6	79.7
Japan	78.6	78.6	78.0	78.3	78.6	79.0	79.6	80.2	80.2	79.6
Australia	76.3	76.3	76.7	77.3	77.4	78.8	79.2	80.0	80.3	79.2
Slovak Republic	74.7	74.8	75.1	76.0	74.7	75.3	77.2	78.0	80.1	77.8
Poland	70.9	69.3	67.5	67.6	68.3	69.5	71.8	74.9	77.5	77.6
United States	81.5	80.5	79.3	78.8	79.0	79.3	79.8	79.9	79.1	75.8
Greece	70.2	70.4	71.6	72.9	73.5	74.0	75.3	75.6	76.1	75.4
Korea	72.2	72.6	73.4	73.1	73.4	73.4	73.9	74.0	74.2	73.3
Hungary	73.0	73.1	73.0	73.7	73.6	73.7	74.2	74.6	74.4	72.9
Ireland	75.5	76.6	76.3	75.8	76.7	77.8	78.3	78.8	77.9	72.6
Italy	68.0	69.2	70.1	70.8	72.1	72.2	73.3	73.5	73.5	71.9
Spain	68.4	69.5	70.1	71.3	72.7	74.4	75.8	76.8	75.3	70.7
Mexico	67.4	67.1	67.6	67.3	68.7	68.8	69.9	70.3	70.6	69.4
Turkey	56.7	55.5	54.6	54.0	52.6	53.0	53.2	53.2	53.5	52.9

출처 <http://stats.oecd.org>

19. 55~64세 고용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84.2	85.6	87.2	83.3	82.0	84.8	84.9	84.9	83.3	80.8
New Zealand	56.9	60.4	63.2	64.3	67.0	69.5	70.2	71.8	71.7	72.1
Sweden	65.1	67.0	68.4	69.0	69.5	69.6	69.8	70.1	70.3	70.1
Norway	67.1	67.4	68.4	68.6	68.0	67.6	67.4	69.0	69.3	68.7
Switzerland	63.3	67.3	64.6	65.7	65.2	65.1	65.7	67.2	68.4	68.4
Japan	62.8	62.0	61.6	62.1	63.0	63.9	64.7	66.1	66.3	65.5
United States	57.8	58.6	59.5	59.9	59.9	60.8	61.8	61.8	62.1	60.6
Korea	57.8	58.3	59.5	57.8	58.5	58.7	59.3	60.6	60.6	60.4
Australia	46.2	46.8	48.5	50.3	51.7	53.5	55.5	56.6	57.4	59.0
Canada	48.1	48.2	50.1	53.0	53.9	54.8	55.6	57.1	57.5	57.6
United Kingdom	50.4	52.1	53.1	55.4	56.2	56.7	57.4	57.4	58.2	57.5
Denmark	54.6	56.5	57.9	60.2	60.3	59.5	60.7	58.6	57.0	57.5
Germany	37.6	37.9	38.6	39.0	41.8	45.5	48.1	51.3	53.8	56.1
Finland	42.3	45.9	47.8	49.9	51.0	52.6	54.5	55.0	56.4	55.6
Netherlands	37.6	38.2	42.0	42.9	43.3	44.0	45.6	48.3	50.7	52.6
Mexico	51.7	51.1	52.2	52.9	53.8	52.6	55.0	54.7	54.7	52.5
Ireland	45.2	46.9	48.0	49.4	49.6	51.6	53.2	54.2	54.0	51.9
Portugal	50.7	50.2	51.4	51.6	50.3	50.5	50.1	50.9	50.8	49.7
Czech Republic	36.3	37.1	40.8	42.3	42.6	44.6	45.2	46.0	47.6	46.8
Spain	37.0	39.2	39.7	40.8	41.3	43.1	44.1	44.6	45.6	44.1
Greece	39.0	38.0	39.2	41.3	39.4	41.6	42.3	42.4	42.8	42.2
Austria	28.3	28.2	29.2	30.3	28.8	31.8	35.5	38.6	41.0	41.1
Slovak Republic	21.3	22.3	22.9	24.6	26.8	30.4	33.2	35.7	39.3	39.6
France	34.3	36.5	39.3	37.0	37.6	38.7	38.1	38.3	38.2	38.9
Luxembourg	27.2	24.8	27.9	30.3	30.4	31.7	33.2	32.0	34.1	38.2
Italy	27.7	28.0	28.9	30.3	30.5	31.4	32.5	33.8	34.4	35.7
Belgium	25.0	25.2	26.6	28.1	30.0	31.8	32.0	34.4	34.5	35.3
Hungary	21.9	23.5	25.6	29.0	31.1	33.0	33.6	33.1	31.4	32.8
Poland	28.4	29.0	27.9	28.6	28.0	29.1	28.1	29.7	31.6	32.3
Turkey	36.4	35.9	35.3	32.7	29.5	28.0	27.6	27.1	27.4	28.2

출처 <http://stats.oecd.org>

20. 전체 실업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pain	13.9	10.5	11.4	11.4	11.0	9.2	8.6	8.3	11.4	18.1
Turkey	6.7	8.6	10.6	10.8	11.1	10.9	10.5	10.5	11.2	14.3
Ireland	4.6	3.9	4.5	4.7	4.6	4.8	4.7	4.7	5.8	12.2
Slovak Republic	18.8	19.3	18.6	17.6	18.2	16.2	13.3	11.0	9.6	12.1
Hungary	6.4	5.7	5.8	5.9	6.1	7.2	7.5	7.4	7.9	10.1
Portugal	4.2	4.3	5.3	6.6	7.0	8.1	8.1	8.5	8.1	10.0
Greece	11.3	10.4	10.5	9.9	10.7	10.0	9.0	8.4	7.8	9.6
United States	4.0	4.8	5.9	6.1	5.6	5.1	4.7	4.7	5.8	9.4
France	10.1	8.8	8.9	8.5	8.9	8.9	8.8	8.0	7.4	9.1
Sweden	5.9	5.1	5.3	5.8	6.6	7.8	7.1	6.2	6.2	8.5
Finland	9.8	9.1	9.0	9.0	8.9	8.4	7.7	6.9	6.4	8.4
Canada	6.9	7.3	7.7	7.7	7.3	6.8	6.3	6.1	6.2	8.4
Poland	16.4	18.6	20.3	20.0	19.3	18.0	14.0	9.7	7.2	8.3
Belgium	6.6	6.2	7.6	8.2	8.4	8.5	8.3	7.5	7.0	8.0
Italy	10.6	9.6	9.1	8.7	8.1	7.8	6.9	6.2	6.8	7.9
Germany	7.8	7.9	8.7	9.4	10.4	11.3	10.4	8.7	7.6	7.8
United Kingdom	5.5	4.8	5.1	4.9	4.7	4.7	5.4	5.3	5.4	7.8
Iceland	2.3	2.3	3.2	3.4	3.1	2.7	3.0	2.3	3.0	7.4
Czech Republic	8.8	8.2	7.3	7.8	8.4	8.0	7.2	5.4	4.4	6.8
New Zealand	6.2	5.5	5.4	4.8	4.1	3.9	3.9	3.8	4.3	6.3
Denmark	4.5	4.2	4.6	5.5	5.6	4.9	4.0	3.8	3.4	6.1
Australia	6.4	6.8	6.5	6.0	5.5	5.1	4.9	4.4	4.3	5.7
Mexico	2.6	2.6	3.0	3.1	3.8	3.6	3.3	3.5	3.6	5.4
Japan	5.0	5.2	5.6	5.4	4.9	4.6	4.3	4.1	4.2	5.3
Luxembourg	2.4	1.8	2.6	3.7	5.1	4.5	4.7	4.1	5.1	5.2
Austria	3.5	3.6	4.0	4.3	5.0	5.2	4.8	4.5	3.9	4.8
Switzerland	2.7	2.5	3.0	4.2	4.4	4.5	4.1	3.7	3.4	4.2
Netherlands	3.1	2.5	3.1	4.0	5.0	5.1	4.2	3.5	3.0	3.9
Korea	4.6	4.2	3.4	3.7	3.8	3.9	3.6	3.4	3.3	3.8
Norway	3.5	3.5	4.0	4.5	4.5	4.7	3.5	2.6	2.6	3.2

출처 <http://stats.oecd.org>

21. 청년층(15~24세) 실업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etherlands	6.10	4.87	5.42	6.75	8.62	8.80	6.92	6.32	5.60	7.29
Switzerland	4.95	5.50	5.59	8.49	7.71	8.76	7.70	7.09	7.03	8.20
Japan	9.20	9.71	10.04	10.16	9.47	8.65	8.00	7.70	7.24	9.08
Norway	10.16	10.46	11.46	11.69	11.69	12.03	8.64	7.29	7.54	9.15
Korea	10.84	10.24	8.55	10.08	10.46	10.21	10.02	8.79	9.33	9.82
Austria	5.10	5.63	6.20	7.04	9.69	10.33	9.06	8.67	8.05	9.96
Mexico	5.08	4.85	5.91	6.18	7.60	6.61	6.15	6.69	7.03	10.01
Germany	8.39	8.27	9.81	10.57	12.60	15.19	13.55	11.68	10.37	10.99
Denmark	6.72	8.25	7.39	9.21	8.20	8.61	7.68	7.87	7.63	11.20
Australia	12.08	13.52	12.78	11.98	11.36	10.65	10.04	9.37	8.87	11.57
Canada	12.66	12.88	13.62	13.60	13.38	12.41	11.64	11.17	11.60	15.27
Iceland	4.68	4.83	7.20	8.25	8.09	7.22	8.36	7.19	8.24	15.96
New Zealand	13.56	12.11	11.76	10.48	9.69	9.73	9.95	10.06	11.37	16.55
Czech Republic	16.98	16.59	16.02	17.57	20.38	19.26	17.45	10.74	9.87	16.64
Luxembourg	6.38	6.34	6.96	10.93	16.91	13.69	16.18	15.19	17.87	17.16
United States	9.34	10.56	12.00	12.43	11.84	11.31	10.51	10.54	12.84	17.60
United Kingdom	11.70	10.44	11.01	11.49	10.92	12.24	13.91	14.38	14.10	18.86
Portugal	8.59	9.36	11.62	14.46	15.32	16.08	16.24	16.57	16.45	20.02
Poland	35.17	40.98	43.89	43.03	40.85	37.77	29.77	21.66	17.29	20.65
Finland	20.28	18.75	19.48	20.41	19.46	18.88	17.61	15.75	15.70	21.60
Belgium	15.25	15.33	17.74	21.80	21.19	21.48	20.51	18.84	17.97	21.94
France	20.73	18.65	20.17	18.33	19.70	20.21	21.34	18.74	18.14	22.79
Sweden	11.85	11.80	12.88	13.77	16.96	22.30	21.34	18.93	19.37	25.03
Turkey	13.05	16.21	19.16	20.53	20.56	19.88	19.06	19.98	20.48	25.28
Italy	29.69	27.04	26.29	26.27	23.52	23.97	21.60	20.29	21.25	25.44
Greece	29.50	28.05	26.84	26.85	26.89	25.98	25.17	22.94	22.08	25.78
Ireland	7.59	7.66	9.26	9.44	9.31	9.67	9.77	10.00	12.46	25.90
Hungary	12.69	11.24	12.61	13.38	15.45	19.43	19.09	18.05	19.88	26.48
Slovak Republic	36.96	39.07	37.38	33.11	32.69	29.88	26.60	20.11	18.83	27.34
Spain	25.29	20.76	22.24	22.75	22.04	19.66	17.92	18.19	24.63	37.85

출처 <http://stats.oecd.org>, http://kosis.kr/nsportal/abroad/abroad_04List.jsp/

22. 장기 실업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lovak Republic	54.6	53.7	59.8	61.1	60.6	68.1	73.1	70.8	66.0	50.9
Germany	51.5	50.4	47.9	50.0	51.8	53.0	56.4	56.6	52.6	45.5
Italy	61.3	63.4	59.6	58.1	49.2	49.9	49.6	47.4	45.7	44.4
Belgium	56.3	51.7	48.8	45.4	49.0	51.7	51.2	50.4	47.6	44.2
Portugal	42.9	38.1	34.6	35.0	44.3	48.2	50.2	47.1	47.4	44.2
Hungary	48.9	46.5	44.8	42.2	45.1	46.1	46.1	47.5	47.6	42.6
Greece	56.4	52.8	51.3	54.9	53.1	52.2	54.3	50.0	47.5	40.8
France	42.6	37.6	33.8	41.0	40.9	41.4	42.2	40.4	37.9	35.4
Czech Republic	48.8	52.7	50.7	49.9	51.8	53.6	55.2	53.4	50.2	31.2
Spain	47.6	44.0	40.2	39.8	37.7	32.6	29.5	27.6	23.8	30.2
Switzerland	29.0	29.9	21.8	26.1	33.5	39.0	39.1	40.8	34.3	30.0
Ireland	..	33.1	30.1	32.8	34.9	33.4	32.3	30.0	27.1	29.0
Japan	25.5	26.6	30.8	33.5	33.7	33.3	33.0	32.0	33.3	28.5
Turkey	21.1	21.3	29.4	24.4	39.2	39.4	35.7	30.3	26.9	25.3
Poland	37.9	43.1	48.4	49.7	47.9	52.2	50.4	45.9	29.0	25.2
Netherlands	26.5	27.8	34.2	40.2	43.0	39.4	34.8	24.8
United Kingdom	28.0	27.8	21.7	21.5	20.6	21.1	22.3	23.8	24.1	24.6
Luxembourg	22.4	28.4	27.4	24.7	21.0	26.4	29.5	28.7	32.4	23.1
Austria	25.8	23.3	19.2	24.5	27.6	25.3	27.3	26.8	24.2	20.3
Finland	29.0	26.2	24.4	24.7	23.4	24.9	24.8	23.0	18.2	16.6
United States	6.0	6.1	8.5	11.8	12.7	11.8	10.0	10.0	10.6	16.3
Australia	25.5	22.0	22.4	21.5	20.7	18.3	18.1	15.4	14.9	14.7
Sweden	26.4	22.3	20.9	17.8	18.9	13.0	12.4	12.8
Denmark	20.0	22.2	19.1	20.4	21.5	23.4	20.8	16.2	13.6	9.1
Canada	11.2	9.5	9.6	10.0	9.5	9.6	8.7	7.5	7.1	7.8
Norway	5.3	5.5	6.4	6.4	9.2	9.5	14.5	8.8	6.0	7.7
Iceland	11.8	12.5	11.1	8.1	11.2	13.3	7.3	8.0	4.1	6.9
New Zealand	19.8	17.2	14.8	13.6	11.7	9.7	7.8	6.1	4.4	6.3
Mexico	1.2	1.0	0.9	0.9	1.1	2.3	2.5	2.7	1.7	1.9
Korea	2.3	2.3	2.5	0.6	1.1	0.8	1.1	0.6	2.7	0.5

출처 <http://stats.oecd.org>

23.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86.6	86.6	85.6	87.0	85.5	86.7	88.0	87.8	86.9	85.3
Switzerland	80.6	81.2	81.3	81.3	81.0	80.8	81.2	81.6	82.3	82.6
Denmark	80.0	79.2	79.6	79.5	80.1	79.8	80.6	80.2	80.8	80.7
Norway	80.7	80.3	80.3	79.3	79.1	78.9	78.2	78.9	80.2	79.0
Sweden	78.9	79.3	79.1	78.9	78.7	80.1	80.2	80.6	80.7	78.9
Netherlands	74.3	75.0	75.5	75.6	75.6	75.8	76.4	77.5	78.4	78.8
Canada	76.2	76.4	77.4	78.2	78.2	77.8	77.9	78.4	78.6	78.1
New Zealand	75.1	75.6	76.3	75.9	76.4	77.3	77.9	78.1	78.0	77.8
United Kingdom	76.4	76.1	76.2	76.3	76.2	76.2	76.7	76.3	76.8	76.6
Germany	71.1	71.5	71.5	71.3	72.6	73.8	75.0	75.6	75.9	76.4
Australia	74.0	74.1	74.1	74.5	74.4	75.4	75.8	76.2	76.5	76.3
Austria	70.8	70.7	71.7	72.0	71.3	72.4	73.7	74.7	75.0	75.3
Finland	74.9	75.2	75.0	74.7	74.4	74.8	75.4	75.7	76.1	74.6
United States	77.2	76.8	76.4	75.8	75.4	75.4	75.5	75.3	75.3	74.6
Spain	66.7	65.8	67.1	68.5	69.7	70.8	71.9	72.6	73.7	74.0
Japan	72.5	72.6	72.3	72.3	72.2	72.6	73.1	73.6	73.8	73.9
Portugal	71.2	72.0	72.6	72.8	72.9	73.4	73.9	74.1	74.2	73.7
Ireland	68.1	68.4	68.3	68.4	69.1	70.9	71.8	72.6	72.3	71.3
France	68.0	68.0	68.3	69.2	69.3	69.4	69.4	69.5	69.7	70.6
Czech Republic	71.6	71.1	70.9	70.4	70.1	70.4	70.3	69.8	69.7	70.1
Luxembourg	64.2	64.1	65.3	64.6	65.8	66.6	66.7	66.9	66.8	68.7
Slovak Republic	69.9	70.5	69.9	70.0	69.7	68.9	68.5	68.2	68.9	68.4
Greece	63.0	62.1	64.2	65.2	66.5	66.8	67.0	67.0	67.1	67.8
Belgium	65.2	63.6	64.8	64.9	65.9	66.7	66.5	67.1	67.1	66.9
Korea	64.4	64.8	65.6	65.4	66.1	66.3	66.2	66.2	66.0	65.4
Poland	65.8	65.7	64.8	64.2	64.2	64.6	63.4	63.2	63.8	64.7
Mexico	61.7	61.0	61.1	60.7	62.2	61.9	63.0	63.3	63.6	62.8
Italy	60.3	60.7	61.2	61.6	62.5	62.4	62.7	62.5	63.0	62.4
Hungary	59.9	59.6	59.7	60.6	60.5	61.4	62.0	61.9	61.5	61.6
Turkey	52.4	52.3	52.3	51.1	49.6	49.8	49.8	49.8	50.6	51.7

출처 <http://stats.oecd.org/>

24.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89.8	90.0	88.9	90.1	89.1	89.8	91.4	91.6	90.9	88.4
Switzerland	89.4	89.1	88.7	88.5	88.0	87.4	87.8	88.2	88.0	87.9
Japan	85.2	85.0	84.8	84.6	84.2	84.4	84.8	85.2	85.2	84.8
Netherlands	83.2	83.6	83.7	83.5	83.3	82.9	83.0	83.6	84.2	84.1
Denmark	84.0	83.3	83.6	83.8	84.0	83.6	84.1	83.9	84.4	84.0
New Zealand	83.2	83.3	83.9	83.0	83.7	84.4	85.0	84.9	84.4	83.9
United Kingdom	84.1	83.5	83.3	83.6	83.1	83.0	83.2	83.1	83.4	83.2
Australia	82.5	82.2	82.1	82.0	82.0	82.6	82.8	83.0	83.0	82.6
Mexico	84.7	84.2	83.8	83.0	83.7	83.1	84.2	83.7	83.5	82.3
Germany	78.9	79.0	78.7	78.0	79.2	80.6	81.4	81.8	82.1	82.2
Spain	80.4	79.8	80.4	81.1	81.6	82.2	82.5	82.7	83.0	82.2
Canada	81.9	81.9	82.7	83.1	82.9	82.5	82.2	82.5	82.7	81.8
Norway	84.8	84.0	83.8	82.8	82.5	82.3	81.4	81.8	82.9	81.4
Sweden	81.3	81.4	81.1	80.8	80.7	82.5	82.6	82.9	83.1	81.3
Austria	79.9	79.3	79.7	79.9	78.5	79.3	80.4	81.7	81.4	81.0
United States	83.9	83.4	83.0	82.2	81.9	81.8	81.9	81.7	81.4	80.4
Ireland	79.8	79.9	78.9	78.9	79.7	80.7	81.6	81.6	81.2	79.6
Greece	77.1	76.2	77.6	78.3	79.0	79.2	79.1	79.1	79.1	79.0
Czech Republic	79.4	79.0	78.9	78.2	77.9	78.4	78.2	78.1	78.1	78.5
Portugal	78.9	79.4	79.8	79.4	79.0	79.0	79.5	79.4	79.5	78.5
Korea	77.1	77.1	77.9	78.0	78.3	78.2	77.7	77.6	77.3	76.9
Luxembourg	76.4	76.1	77.0	75.5	75.6	76.0	75.3	75.0	74.7	76.6
Slovak Republic	76.8	77.4	76.7	76.7	76.5	76.4	76.3	75.8	76.4	76.3
Finland	77.6	77.9	77.3	77.2	76.7	76.8	77.5	77.4	78.1	75.8
Turkey	76.9	76.1	75.1	74.0	74.6	75.0	74.4	74.4	74.8	75.2
France	74.4	74.3	74.5	74.8	74.7	74.6	74.4	74.2	74.3	75.1
Italy	74.3	74.2	74.5	74.8	74.5	74.4	74.6	74.4	74.4	73.7
Belgium	73.8	72.7	73.2	72.9	73.4	73.9	73.4	73.6	73.3	72.8
Poland	71.7	71.5	70.8	70.2	70.4	71.0	70.1	70.0	70.9	71.8
Hungary	67.5	67.2	67.1	67.6	67.2	67.9	68.7	69.0	68.3	68.2

출처 <http://stats.oecd.org>

2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83.3	83.1	82.2	83.9	81.8	83.4	84.2	83.6	82.5	82.0
Switzerland	71.7	73.3	73.9	74.1	73.9	74.3	74.7	75.0	76.6	77.3
Denmark	75.9	75.0	75.5	75.1	76.2	75.9	77.0	76.4	77.1	77.3
Norway	76.5	76.4	76.7	75.8	75.7	75.4	74.8	75.9	77.4	76.5
Sweden	76.4	77.1	77.1	76.8	76.6	77.7	77.7	78.2	78.2	76.4
Canada	70.4	70.8	72.1	73.2	73.4	73.1	73.5	74.3	74.4	74.4
Netherlands	65.2	66.1	67.1	67.5	67.7	68.6	69.6	71.4	72.6	73.5
Finland	72.1	72.5	72.7	72.1	72.0	72.9	73.2	73.9	74.0	73.5
New Zealand	67.2	68.2	68.9	69.1	69.3	70.6	71.2	71.6	71.8	72.0
Germany	63.3	63.8	64.2	64.5	65.8	66.9	68.5	69.4	69.7	70.4
United Kingdom	68.9	68.9	69.3	69.2	69.6	69.6	70.3	69.8	70.2	70.2
Australia	65.4	66.0	66.1	67.0	66.7	68.2	68.9	69.5	69.9	70.1
Austria	61.8	62.3	63.7	64.3	64.2	65.6	67.0	67.8	68.6	69.6
United States	70.7	70.4	70.1	69.7	69.2	69.2	69.3	69.1	69.3	69.0
Portugal	63.8	64.8	65.6	66.5	67.0	67.9	68.4	68.8	68.9	69.0
France	61.7	61.8	62.1	63.7	64.0	64.3	64.5	65.0	65.2	66.2
Spain	52.9	51.6	53.7	55.7	57.7	59.1	61.1	62.3	64.1	65.7
Ireland	56.4	56.7	57.5	57.9	58.4	60.8	61.9	63.5	63.3	62.9
Japan	59.6	60.1	59.7	59.9	60.2	60.8	61.3	61.9	62.2	62.9
Czech Republic	63.7	63.2	62.8	62.5	62.2	62.4	62.3	61.5	61.0	61.5
Belgium	56.6	54.5	56.3	56.9	58.2	59.5	59.5	60.4	60.8	60.9
Luxembourg	51.7	52.0	53.5	53.5	55.8	57.0	58.2	58.9	58.7	60.7
Slovak Republic	63.2	63.7	63.2	63.5	62.9	61.5	60.9	60.7	61.4	60.6
Poland	59.9	59.9	58.9	58.4	58.2	58.3	56.8	56.5	57.0	57.8
Greece	49.7	48.8	51.0	52.2	54.1	54.5	55.0	54.9	55.1	56.5
Hungary	52.6	52.4	52.7	53.9	54.0	55.1	55.5	55.1	55.0	55.3
Korea	52.0	52.8	53.5	52.9	54.1	54.5	54.8	54.8	54.7	53.9
Italy	46.3	47.3	47.9	48.3	50.6	50.4	50.8	50.7	51.6	51.1
Mexico	41.0	40.4	41.0	40.6	43.0	43.2	44.5	45.3	45.9	45.2
Turkey	28.0	28.5	29.5	28.1	25.2	25.2	25.6	25.7	26.7	28.4

출처 <http://stats.oecd.org>

26.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71.6	70.2	64.0	74.2	72.1	77.1	79.5	80.1	78.6	73.4
Netherlands	70.8	73.9	73.5	72.5	71.0	70.4	70.5	72.8	73.3	73.1
Denmark	71.9	67.2	68.6	65.6	67.9	68.1	69.9	70.9	72.5	71.7
Australia	70.6	70.7	70.0	70.2	70.2	70.8	70.9	70.8	70.6	68.9
Switzerland	68.4	67.6	69.3	69.3	67.0	65.6	68.6	67.4	67.1	67.4
Canada	64.4	64.7	66.6	67.4	67.0	65.9	66.4	67.0	67.4	65.3
United Kingdom	69.7	68.2	68.5	67.4	67.4	66.7	66.6	65.3	65.6	64.2
New Zealand	62.8	63.1	63.8	62.6	62.3	62.5	64.6	64.7	63.3	61.9
Austria	55.7	54.7	55.2	55.0	57.4	59.2	59.4	60.8	60.8	60.5
Norway	64.7	63.1	64.2	62.6	61.6	60.2	58.1	59.4	62.7	58.5
United States	65.8	64.5	63.3	61.6	61.1	60.8	60.6	59.4	58.8	56.9
Germany	51.5	51.3	49.7	47.4	48.0	50.2	50.9	52.0	52.7	52.3
Sweden	52.3	54.2	53.4	52.3	51.5	54.7	56.0	57.1	56.9	50.7
Spain	48.5	46.8	47.0	47.6	49.2	52.1	52.7	52.4	52.5	49.5
Finland	53.8	53.6	52.7	52.0	51.3	51.9	53.6	55.0	55.1	49.2
Ireland	53.4	52.2	50.5	51.0	51.0	53.0	54.7	55.4	53.1	49.0
Mexico	51.5	49.6	48.2	47.0	48.0	46.8	47.8	47.4	47.7	45.8
Japan	47.0	46.5	45.6	44.8	44.2	44.8	45.0	44.9	44.6	43.9
France	29.3	29.9	30.2	36.4	36.5	36.7	36.7	37.0	37.5	40.3
Portugal	45.7	47.0	47.4	45.1	43.6	43.0	42.7	41.9	41.6	39.2
Turkey	42.5	42.1	40.9	38.4	37.8	37.7	37.4	37.7	38.1	38.7
Poland	37.8	37.4	35.6	34.4	33.9	33.5	34.2	33.0	33.1	33.8
Belgium	35.7	33.6	35.7	35.0	35.3	35.0	34.7	33.9	33.4	32.4
Luxembourg	34.0	34.5	34.7	30.4	28.0	28.8	27.8	26.5	29.0	32.3
Czech Republic	46.1	43.2	40.1	38.1	35.8	33.9	33.5	31.9	31.1	31.8
Slovak Republic	46.0	45.7	43.5	41.2	39.4	36.5	35.1	34.5	32.3	31.3
Greece	38.1	36.2	36.2	34.6	36.7	33.7	32.4	31.1	30.2	30.9
Italy	39.5	37.6	36.3	35.3	35.6	33.5	32.5	30.9	30.9	29.1
Korea	33.0	33.5	34.4	34.3	34.8	33.3	30.2	28.2	26.3	25.4
Hungary	37.2	34.6	32.6	30.8	27.9	27.1	26.8	25.6	25.0	24.6

출처 <http://stats.oecd.org>

27. 25~54세 경제활동참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itzerland	87.4	87.8	88.3	88.1	88.2	88.5	88.3	88.9	89.8	90.1
Sweden	88.2	88.1	87.9	87.8	87.7	89.5	89.4	90.0	90.4	90.0
Denmark	87.9	87.5	87.8	87.8	88.2	88.1	88.9	89.0	90.2	89.7
Iceland	92.2	92.3	92.5	91.5	89.8	89.7	90.9	90.6	89.9	89.3
France	86.2	86.3	86.4	87.1	87.3	87.6	87.8	88.2	88.8	88.8
Finland	87.9	88.0	88.1	87.5	87.3	87.8	87.8	88.0	88.6	88.2
Norway	87.6	87.4	87.1	86.2	86.5	86.6	87.0	87.5	88.5	88.1
Netherlands	83.1	83.5	84.0	84.6	84.9	85.5	86.2	86.8	87.7	87.9
Portugal	84.8	85.3	85.3	85.9	86.3	87.1	87.7	87.8	88.0	87.9
Austria	85.2	85.4	86.6	87.3	86.2	86.4	87.1	87.4	87.3	87.7
Czech Republic	88.4	88.4	88.2	87.8	87.8	88.3	88.1	87.8	87.3	87.7
Slovak Republic	88.4	89.0	88.6	89.5	88.9	87.9	87.5	86.8	87.8	87.2
Germany	85.3	85.5	85.8	86.0	86.5	86.4	87.1	87.2	87.0	87.2
Canada	84.8	85.1	85.9	86.4	86.5	86.3	86.2	86.6	86.7	86.4
Belgium	82.8	80.9	81.9	82.3	83.4	84.6	84.5	85.3	85.7	85.6
United Kingdom	83.9	83.7	83.8	83.8	83.8	84.0	84.6	84.5	84.9	85.0
Luxembourg	79.8	79.8	81.0	80.4	83.0	83.9	84.5	84.7	83.4	84.8
Spain	78.0	76.5	78.1	79.4	80.6	80.9	82.0	82.8	83.8	84.7
New Zealand	82.1	82.4	82.8	82.5	82.9	83.9	84.1	84.1	84.4	84.3
Japan	81.9	82.2	82.0	82.1	82.2	82.5	82.8	83.3	83.4	83.7
Poland	82.4	82.2	81.8	81.7	82.2	82.8	81.7	81.7	82.5	83.4
Australia	80.4	80.6	80.8	81.1	80.8	81.9	82.3	82.8	83.1	82.9
Greece	77.6	77.2	78.8	79.8	81.1	81.5	82.0	81.9	82.0	82.8
United States	84.0	83.7	83.3	83.0	82.8	82.8	82.9	83.0	83.1	82.6
Ireland	78.6	79.0	79.2	78.8	79.7	81.0	81.4	82.0	81.8	81.3
Hungary	77.3	77.1	77.0	77.8	77.9	78.8	79.6	80.0	80.1	80.2
Italy	74.3	75.1	75.8	76.3	77.5	77.4	77.8	77.6	78.1	77.2
Korea	75.2	75.3	75.7	75.4	75.9	76.0	76.3	76.4	76.6	76.0
Mexico	68.6	68.4	69.1	68.8	70.7	70.7	71.7	72.3	72.6	72.4
Turkey	59.6	59.5	59.8	59.1	57.8	58.3	58.2	58.2	59.0	60.3

출처 <http://stats.oecd.org>

28.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85.7	87.3	88.4	85.1	84.3	86.1	86.3	85.7	84.7	83.8
New Zealand	59.7	62.6	65.4	66.7	68.7	70.9	71.6	72.9	73.2	74.5
Sweden	69.3	70.5	71.7	72.5	73.1	72.8	73.0	73.0	73.0	74.0
Switzerland	65.1	68.6	65.9	67.4	67.4	67.6	67.8	69.3	70.2	70.3
Norway	68.0	68.5	69.7	69.5	68.8	68.8	68.2	69.7	70.0	69.5
Japan	66.5	65.8	65.4	65.8	66.0	66.6	67.3	68.4	68.8	68.7
United States	59.2	60.4	61.9	62.4	62.3	62.9	63.7	63.8	64.5	64.9
Canada	50.9	51.2	53.4	56.5	57.3	57.9	58.7	60.1	60.8	61.9
Korea	59.5	59.7	60.5	59.0	59.8	60.2	60.7	62.0	61.8	61.8
Australia	48.3	49.0	50.7	52.3	53.6	55.4	57.3	58.2	58.9	61.0
Germany	42.9	42.9	43.3	43.1	47.8	52.1	54.9	57.2	58.7	61.0
United Kingdom	52.7	53.9	55.0	57.3	58.0	58.2	59.1	59.3	59.9	60.3
Denmark	56.9	58.9	60.4	63.3	63.9	62.8	63.2	60.8	58.7	60.3
Finland	46.6	50.3	52.0	54.1	55.0	56.4	58.4	58.8	59.7	59.3
Ireland	46.4	48.1	49.2	50.5	50.9	53.3	54.6	55.4	55.8	55.2
Netherlands	38.5	38.8	43.0	44.1	45.1	46.1	47.7	50.4	52.7	54.7
Mexico	52.4	51.7	52.9	53.5	54.5	53.7	55.9	55.6	55.8	54.2
Portugal	52.4	51.9	53.4	54.0	53.2	53.8	53.4	54.4	54.4	53.9
Spain	40.9	41.9	42.7	43.8	44.4	45.9	46.8	47.4	49.2	50.2
Czech Republic	38.2	39.0	42.5	44.2	45.1	47.0	47.7	48.2	49.5	49.6
Greece	40.6	39.6	40.9	42.7	41.3	43.2	43.9	43.9	44.2	44.2
Slovak Republic	24.3	25.4	27.0	28.5	31.7	35.1	36.8	38.8	42.0	42.9
Austria	29.8	29.7	30.9	32.0	29.9	33.0	36.8	39.8	41.9	42.1
France	37.3	38.8	41.7	39.0	39.9	40.9	40.5	40.4	40.1	41.5
Luxembourg	27.6	24.9	27.9	30.7	30.9	32.4	33.6	32.7	35.1	39.4
Belgium	25.9	26.0	27.7	28.9	31.2	33.3	33.6	35.9	36.1	37.2
Italy	29.0	29.2	30.1	31.5	31.8	32.6	33.4	34.6	35.5	37.0
Slovenia	25.2	24.3	29.9	32.1	33.4	34.6	34.2	36.9
Hungary	22.6	24.2	26.4	29.8	32.0	34.3	34.9	34.5	33.1	35.0
Poland	31.3	32.1	31.2	32.2	31.7	32.8	30.7	31.8	33.3	34.5
Turkey	37.2	36.8	36.6	34.0	30.6	29.1	28.8	28.3	28.9	30.1

출처 <http://stats.oecd.org>

29. 연평균 근로시간

(시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reece	2120.8	2121.1	2108.9	2102.7	2082.2	2085.7	2147.8	2115.6	2116.1	2119.3
Hungary	2056.8	2011.3	2019.2	1989.5	1994.0	1993.6	1989.5	1985.6	1986.3	1988.8
Poland	1988.0	1974.0	1979.0	1984.0	1983.0	1994.0	1985.0	1976.0	1969.0	1966.0
Czech Republic	2092.3	1999.6	1980.1	1971.7	1985.9	2002.1	1996.8	1985.5	1992.4	1942.2
Mexico	1888.1	1864.3	1888.1	1857.2	1848.6	1909.1	1883.2	1871.4	1893.1	1856.9
Italy	1861.3	1843.1	1831.0	1825.6	1826.1	1818.7	1814.8	1816.4	1807.0	1773.4
United States	1836.4	1813.9	1810.1	1799.6	1802.3	1799.6	1801.0	1797.9	1796.1	1768.4
New Zealand	1829.6	1817.6	1817.3	1812.8	1826.7	1810.1	1786.9	1763.1	1746.4	1728.5
Portugal	1765.0	1769.0	1767.0	1742.0	1763.0	1752.0	1757.0	1727.0	1745.0	1719.0
Iceland	1885.0	1847.0	1812.0	1807.0	1810.0	1794.0	1795.0	1807.0	1807.0	1715.9
Japan	1821.3	1809.0	1798.0	1798.6	1787.0	1775.0	1784.0	1785.0	1771.5	1713.5
Canada	1767.8	1762.0	1744.4	1734.1	1752.4	1738.3	1737.9	1735.7	1727.3	1699.0
Slovak Republic	1815.2	1789.6	1733.4	1677.7	1733.0	1767.5	1754.6	1752.5	1769.3	1693.4
Australia	1771.9	1737.5	1733.4	1738.3	1731.8	1726.3	1718.9	1713.2	1718.1	1690.1
Spain	1730.6	1726.6	1720.9	1705.8	1689.6	1667.8	1655.5	1636.5	1647.2	1653.8
Finland	1750.6	1733.0	1726.1	1718.7	1723.2	1715.8	1708.8	1706.4	1703.6	1652.2
United Kingdom	1712.0	1715.0	1696.0	1677.0	1672.0	1676.0	1671.0	1673.0	1652.1	1645.6
Austria	1658.1	1656.8	1652.2	1657.7	1663.3	1651.8	1644.1	1630.4	1631.4	1620.8
Sweden	1642.0	1618.0	1595.0	1582.0	1605.0	1605.0	1599.0	1615.0	1625.0	1610.0
Luxembourg	1662.0	1646.0	1635.0	1630.0	1586.0	1570.0	1580.0	1515.0	1555.0	1601.0
Denmark	1581.4	1586.7	1578.8	1576.5	1579.4	1578.8	1585.6	1571.3	1569.5	1563.3
France	1591.4	1578.5	1537.2	1532.7	1561.4	1556.7	1535.8	1555.9	1559.9	1553.9
Belgium	1545.0	1577.0	1580.0	1575.0	1549.0	1565.0	1566.0	1560.0	1568.0	1550.0
Ireland	1719.0	1713.0	1698.0	1671.0	1668.0	1654.0	1642.0	1631.0	1601.0	1549.0
Norway	1455.2	1429.1	1414.1	1398.6	1417.3	1420.0	1413.9	1419.0	1422.5	1407.2
Germany	1473.0	1458.4	1445.4	1438.9	1441.5	1434.1	1429.5	1431.0	1429.6	1389.7
Netherlands	1374.0	1373.0	1348.0	1363.0	1362.0	1375.0	1389.0	1390.0	1389.0	1378.0
Korea	2519.7	2506.3	2465.1	2433.7	2404.1	2363.8	2357.1	2316.3	2255.8	..
Switzerland	1688.3	1649.6	1630.4	1643.4	1672.8	1667.3	1652.3	1642.9	1640.4	..
Russia	1981.8	1979.5	1981.6	1994.4	1994.0	1990.2	1998.7	1999.5	1997.1	..
Turkey	1937.0	1942.0	1943.0	1943.0	1918.0

출처 <http://stats.oecd.org>

Ⅲ. 자 본

30.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oland	-9.7	-6.3	-0.1	6.4	6.5	14.9	17.2	8.2
Slovak Republic	12.9	0.2	-2.7	4.8	17.6	9.3	8.7	6.8
Norway	-1.1	-1.1	0.2	10.2	13.3	11.7	8.4	3.9
Australia	-4.8	17.0	9.3	6.9	8.7	4.8	9.5	9.6
Mexico	-5.6	-0.7	0.4	7.9	7.4	9.9	7.2	5.0
Sweden	-0.4	-1.8	1.5	5.1	8.9	9.4	7.7	2.4
Netherlands	0.2	-4.5	-1.5	-1.6	3.7	7.5	4.8	4.9
Luxembourg	8.9	5.5	6.2	2.6	2.4	4.6	12.6	-0.1
Germany	-3.4	-6.1	-0.3	-1.3	1.1	8.6	5.3	2.3
Czech Republic	6.6	5.1	0.4	3.9	1.8	6.0	10.8	-1.1
Finland	4.1	-3.1	3.9	3.5	3.5	4.8	8.6	0.4
Belgium	1.1	-4.5	0.1	7.5	7.7	2.7	5.7	3.8
Canada	4.0	1.6	6.2	7.8	9.3	6.9	3.7	0.9
Denmark	-1.4	0.1	-0.2	3.9	4.7	13.5	3.1	-5.1
Turkey	-30.0	14.7	14.2	28.4	17.4	13.3	3.1	-5.0
France	2.3	-1.7	2.2	3.3	4.5	4.4	6.5	0.4
United Kingdom	2.6	3.6	1.1	5.1	2.4	6.5	7.8	-3.3
Switzerland	-3.5	-0.5	-1.2	4.5	3.8	4.7	5.2	0.4
Spain	4.8	3.4	5.9	5.1	7.0	7.2	4.6	-4.4
Greece	4.8	9.5	11.8	1.4	-4.5	9.8	4.6	-7.4
Korea	0.3	7.1	4.4	2.1	1.9	3.4	4.2	-1.7
Austria	-0.9	-3.1	1.8	1.9	2.0	2.3	2.7	-0.6
Italy	2.4	3.7	-0.9	1.5	1.4	3.2	1.6	-2.9
Portugal	1.0	-3.5	-7.4	0.2	-0.9	-0.7	3.1	-0.7
New Zealand	-1.1	10.8	10.2	13.4	3.5	-0.4	4.9	-5.2
Hungary	4.7	10.5	2.1	7.9	5.7	-3.6	1.6	0.4
United States	-1.0	-2.7	3.1	6.2	5.3	2.5	-1.2	-3.6
Japan	-0.9	-4.9	-0.5	1.4	3.1	0.5	0.8	-5.0
Ireland	0.0	3.1	6.5	9.6	14.8	3.8	2.1	-15.6
Iceland	-4.3	-14.0	11.1	28.1	35.7	21.6	-12.2	-20.4

출처 <http://stats.oecd.org/>

31. 총고정자본형성 비중(GDP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20.1	22.6	23.9	24.8	26.1	26.7	28.0	30.0
Spain	26.1	26.3	27.0	27.5	28.4	29.2	29.5	28.0
Czech Republic	29.1	30.0	29.1	29.0	27.7	27.5	28.7	27.7
Slovak Republic	28.2	27.0	25.0	25.0	27.6	27.7	27.3	27.4
Korea	29.7	29.7	30.2	29.4	28.9	28.4	28.1	27.1
New Zealand	21.8	23.1	24.4	26.5	26.6	25.8	26.3	25.3
Poland	21.2	19.6	18.8	19.0	19.5	21.1	23.2	23.9
Hungary	23.6	24.9	24.4	25.1	25.6	23.8	23.9	23.9
Canada	19.8	19.5	20.4	21.3	22.6	23.5	23.7	23.9
Turkey	16.2	17.5	19.0	22.3	24.1	25.5	25.2	23.7
Luxembourg	22.1	22.4	23.4	23.0	22.3	22.1	23.4	23.4
Mexico	19.4	19.1	18.9	19.7	20.5	21.4	22.2	23.0
Portugal	26.8	25.7	24.0	23.7	23.2	22.8	23.0	22.9
Ireland	24.5	23.7	24.2	25.3	27.4	27.0	26.0	22.7
Iceland	21.1	18.1	19.6	23.3	29.5	34.3	28.6	22.4
Belgium	20.5	19.4	19.2	20.0	21.2	21.1	21.7	22.4
Switzerland	21.6	21.4	21.2	21.6	21.9	22.1	22.4	22.1
Denmark	19.8	19.7	19.6	19.9	20.3	22.3	22.6	21.7
Japan	24.9	23.6	23.2	22.9	23.1	22.8	22.4	21.5
Netherlands	21.5	20.6	20.2	19.4	19.7	20.5	20.7	21.3
France	19.6	19.1	19.3	19.5	19.9	20.3	21.2	21.2
Greece	21.7	23.0	24.3	23.5	22.0	23.1	23.1	21.0
Norway	15.9	15.5	15.4	16.3	18.0	19.6	20.6	21.0
Italy	20.5	21.2	21.0	21.0	21.1	21.3	21.4	20.9
Austria	23.0	22.0	22.2	22.0	21.8	21.6	21.5	20.9
Germany	20.4	19.2	19.2	18.8	18.8	19.8	20.3	20.5
Finland	19.7	18.8	19.2	19.1	19.2	19.2	20.1	20.0
Sweden	17.3	16.6	16.5	16.8	17.7	18.5	19.4	20.0
United States	19.7	18.9	19.0	19.5	19.9	19.9	19.2	18.4
United Kingdom	16.4	16.6	16.3	16.7	16.7	17.3	18.2	17.5

출처 <http://stats.oecd.org/>

32. 민간부문 비주택 고정자본형성증가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orway	-4.3	-1.9	-2.9	10.3	17.3	14.5	9.5	7.4
Australia	-3.1	14.7	13.5	8.6	14.2	7.7	11.7	11.3
Finland	10.2	-7.3	0.5	0.6	6.9	7.0	13.6	4.9
Germany	-2.6	-7.0	0.7	0.7	4.3	10.2	8.9	3.0
Netherlands	-3.0	-7.6	-1.0	-2.7	2.2	9.7	4.9	7.0
Sweden	-1.8	-5.9	1.8	4.0	8.9	8.8	8.6	4.1
Belgium	4.2	-4.8	-1.2	8.2	5.5	4.5	8.7	6.1
Greece	5.8	9.4	12.1	1.7	-3.3	-2.7	15.0	5.6
Switzerland	-2.3	-0.5	-4.4	4.7	6.4	7.6	8.2	0.5
United States	-2.8	-7.9	0.9	6.0	6.7	7.9	6.2	1.6
France	3.3	-3.0	1.2	3.8	3.1	5.6	7.5	2.6
Korea	-3.3	8.1	2.3	1.9	2.0	7.6	7.0	0.2
Denmark	-0.3	0.7	-3.0	-0.3	-0.2	14.3	4.2	-4.0
Canada	0.2	-4.1	6.9	8.2	12.4	10.0	3.7	0.2
Ireland	-9.2	0.7	5.9	14.5	17.5	3.9	18.7	-11.6
Spain	3.2	1.2	5.3	6.8	7.7	7.8	3.8	-2.2
New Zealand	-3.0	-1.0	13.0	13.3	11.1	-0.2	5.1	3.0
United Kingdom	1.5	1.2	-1.0	1.2	17.9	-6.9	11.9	1.4
Japan	1.3	-5.2	4.4	5.6	9.2	2.3	5.7	-3.9
Austria	2.8	-3.5	4.3	2.7	0.9	2.2	2.9	-1.2
Italy	2.0	4.5	-3.4	1.1	-0.3	3.4	2.1	-5.0
Hungary	4.7	10.5	2.1	7.9	5.7	-3.6	1.6	0.4
Iceland	-11.3	-20.2	20.9	33.9	60.2	23.1	-23.7	-25.1

출처 <http://stats.oecd.org/>

33. 민간부문 비주택 고정자본형성비중(GDP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Hungary	23.6	24.9	24.4	25.1	25.6	23.8	23.9	23.9
Australia	12.3	13.5	14.8	15.6	17.3	18.1	19.4	21.1
Korea	19.6	19.8	19.7	19.2	18.8	19.2	19.6	19.2
Switzerland	15.9	15.7	15.1	15.4	16.0	16.6	17.3	17.1
New Zealand	13.4	12.7	13.7	14.9	16.1	15.6	16.0	16.6
Japan	14.5	13.7	14.1	14.5	15.5	15.5	16.0	15.5
Austria	16.7	15.9	16.4	16.4	16.1	15.9	15.9	15.4
Belgium	13.4	12.6	12.3	12.9	13.4	13.6	14.4	15.1
Canada	12.2	11.4	11.9	12.5	13.6	14.6	14.8	14.7
Sweden	12.9	11.9	11.9	11.9	12.5	13.1	13.8	14.4
Norway	10.0	9.7	9.3	9.9	11.3	12.6	13.4	14.1
Germany	12.4	11.5	11.6	11.6	12.0	12.8	13.6	13.8
Denmark	13.6	13.6	13.2	12.8	12.5	13.8	14.2	13.8
Iceland	12.4	9.9	11.7	14.5	21.6	25.5	18.4	13.6
Finland	12.4	11.3	11.2	10.8	11.3	11.5	12.5	13.0
France	11.7	11.3	11.3	11.4	11.6	11.9	12.5	12.8
Greece	11.3	12.0	12.6	12.3	11.6	10.8	11.9	12.3
Netherlands	12.3	11.3	11.2	10.6	10.7	11.3	11.4	12.0
United States	11.3	10.2	10.1	10.3	10.7	11.2	11.7	11.8
United Kingdom	10.2	10.1	9.7	9.5	11.0	10.0	10.9	10.9
Ireland	8.0	7.5	7.6	8.4	9.2	9.1	10.2	9.3

출처 <http://stats.oecd.org/>

34. 민간부문 주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12.3	11.6	3.0	12.6	5.8	14.8	22.1	-21.2
Sweden	2.7	11.4	4.6	21.8	16.6	12.9	7.7	-5.0
France	1.4	1.3	2.1	3.1	6.1	6.3	5.4	-1.7
Netherlands	3.2	-6.5	-3.9	4.7	5.3	5.3	4.1	0.0
Austria	-6.1	-5.1	-4.0	1.0	5.4	3.7	3.5	-0.4
Denmark	-9.3	0.8	12.1	12.3	17.8	11.1	4.8	-10.2
Australia	-10.9	25.9	4.6	2.9	-3.5	-2.5	2.7	2.7
Germany	-5.9	-6.0	-0.9	-3.7	-4.0	5.8	-2.2	-0.8
Norway	8.1	-0.6	1.9	16.3	10.8	4.1	5.3	-8.4
Canada	10.3	13.8	5.3	7.5	2.1	0.7	2.7	-3.4
Belgium	-2.1	-4.6	4.3	7.1	9.7	2.5	-0.7	-2.8
Finland	-9.5	1.1	9.7	10.1	5.0	6.1	-0.7	-10.1
Switzerland	-4.1	-3.7	14.7	7.1	1.0	-2.0	-3.7	0.2
Greece	4.3	15.2	12.3	-1.9	0.0	29.1	-6.8	-29.1
United Kingdom	0.4	6.2	0.5	11.9	-4.4	9.9	0.9	-22.7
Korea	11.7	13.2	5.2	3.1	7.4	-2.4	-4.2	-8.8
Japan	-5.2	-4.0	-1.1	1.8	-2.1	0.4	-11.1	-7.9
New Zealand	-12.6	22.4	21.5	4.0	-9.9	-4.2	4.2	-30.5
Ireland	-1.2	4.2	15.6	11.7	15.9	2.6	-13.4	-31.6
United States	0.1	3.7	7.6	9.7	6.2	-7.4	-18.9	-22.9

출처 <http://stats.oecd.org/>

35. 민간부문 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GDP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reland	11.2	10.9	12.1	12.9	14.1	13.8	11.2	7.9
Denmark	4.3	4.3	4.8	5.2	6.0	6.5	6.7	6.1
Australia	5.6	6.8	6.9	6.9	6.4	6.1	6.0	6.1
Belgium	6.0	5.6	5.8	6.1	6.5	6.5	6.3	6.1
Canada	5.1	5.7	5.9	6.1	6.1	5.9	6.0	5.7
Greece	6.8	7.6	8.1	7.6	7.4	9.2	8.2	5.7
Netherlands	6.0	5.6	5.3	5.5	5.7	5.8	5.8	5.7
France	4.8	4.8	4.9	4.9	5.1	5.3	5.5	5.4
Germany	6.3	5.9	5.9	5.6	5.4	5.5	5.2	5.1
Finland	4.7	4.7	5.0	5.4	5.5	5.5	5.3	4.7
Iceland	4.1	4.6	4.6	4.8	4.7	5.2	6.0	4.7
Austria	5.1	4.8	4.5	4.5	4.6	4.6	4.6	4.5
United Kingdom	4.9	5.1	5.0	5.4	5.1	5.4	5.3	4.1
Norway	3.4	3.4	3.4	3.8	4.1	4.2	4.3	3.8
Korea	4.2	4.4	4.5	4.5	4.6	4.3	3.9	3.5
New Zealand	4.4	5.1	5.9	5.9	5.2	4.8	4.9	3.4
United States	5.3	5.3	5.6	5.9	6.1	5.5	4.4	3.4
Switzerland	3.3	3.1	3.6	3.8	3.7	3.5	3.3	3.2
Sweden	1.8	1.9	2.0	2.3	2.6	2.8	3.0	2.8
Japan	3.8	3.7	3.6	3.5	3.4	3.3	2.9	2.7

출처 <http://stats.oecd.org/>

36. 총저축률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orway	35.4	31.7	30.7	32.9	37.5	39.6	38.2	41.5
Switzerland	30.2	28.5	31.0	31.1	33.1	33.4	31.2	..
Korea	31.1	30.5	31.9	34.0	32.1	30.8	30.8	30.7
Sweden	23.1	22.6	23.4	23.4	23.8	26.7	28.4	28.5
Japan	26.5	25.5	25.7	26.3	26.6	27.0	28.0	..
Austria	23.7	25.3	25.0	25.4	25.2	25.8	26.8	27.0
Germany	19.9	19.9	19.8	22.0	22.1	24.0	26.0	25.7
Netherlands	26.8	25.8	25.4	27.2	26.7	28.6	28.2	25.7
Mexico	20.8	21.3	21.8	23.8	23.4	25.3	24.6	25.2
Finland	29.2	27.9	25.0	26.4	25.5	26.0	27.3	25.2
Australia	22.1	21.6	22.2	21.8	23.4	23.8	24.4	24.6
Belgium	25.2	25.0	24.9	25.4	25.2	25.9	26.7	24.4
Denmark	24.3	23.7	23.7	23.8	25.3	25.7	24.7	24.3
Canada	22.8	21.7	21.9	23.5	24.3	24.8	24.2	23.9
Czech Republic	24.9	23.4	21.6	23.3	25.2	26.1	26.4	23.8
Slovak Republic	22.3	21.7	19.2	20.6	21.2	20.7	23.6	22.3
Spain	22.4	23.3	23.7	22.8	22.5	22.6	21.7	20.5
Ireland	26.1	25.2	27.3	27.8	27.8	28.6	25.6	20.0
Poland	18.1	16.3	16.9	16.2	18.1	18.2	19.8	..
France	21.2	19.9	19.2	19.1	18.7	19.4	20.0	19.0
Italy	21.1	21.1	20.1	20.5	19.7	19.9	20.4	18.4
Hungary	22.3	19.8	17.0	18.3	16.9	17.7	18.6	17.9
New Zealand	20.3	19.9	19.8	19.1	17.1	16.3	17.0	..
United Kingdom	15.3	15.2	15.0	14.9	14.3	14.3	15.5	15.2
United States	16.0	14.3	13.6	14.1	14.6	15.6	14.0	12.1
Portugal	16.7	16.8	16.4	15.3	12.9	12.0	12.7	10.5
Greece	11.6	9.6	12.2	12.5	9.5	9.1	7.8	7.4
Iceland	17.5	19.7	15.3	14.2	12.8	11.5	13.3	7.2

출처 <http://stats.oecd.org>

37. 가계순저축률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witzerland	10.8	11.7	11.9	10.7	9.4	9.0	10.1	11.4	12.7	..
Austria	9.8	9.2	8.0	8.0	9.1	9.3	9.7	10.8	11.3	12.0
France	11.9	11.8	12.5	13.7	12.5	12.4	11.4	11.4	11.9	11.6
Belgium	13.1	12.3	13.7	12.9	12.2	10.8	10.0	10.9	11.2	11.5
Germany	9.5	9.2	9.4	9.9	10.3	10.4	10.5	10.6	10.8	11.2
Sweden	2.8	4.3	8.4	8.3	7.2	6.1	5.5	6.6	8.8	11.1
Italy	10.2	8.4	10.5	11.3	10.3	10.2	9.9	9.1	8.2	8.6
Netherlands	8.9	6.7	9.5	8.4	7.5	7.3	6.3	6.0	8.1	6.8
Spain	..	5.9	5.6	5.6	6.0	4.9	4.7	4.2	3.6	6.1
Czech Republic	3.4	3.3	2.2	3.0	2.4	0.5	3.2	4.8	6.3	5.8
Australia	2.8	2.6	2.6	0.2	-0.9	-1.5	0.4	1.3	0.5	4.5
Ireland	4.1	3.8	7.0	5.2	3.7	1.3	4.0
Poland	11.0	10.2	12.0	8.2	7.6	7.7	6.9	6.6	7.1	3.9
Japan	10.2	8.8	5.1	5.1	3.9	3.6	3.9	3.7	3.8	..
Canada	4.1	4.8	5.3	3.5	2.7	3.2	2.2	3.6	2.9	3.7
Hungary	9.9	8.9	8.5	6.4	4.3	6.8	6.1	7.5	4.6	3.0
Korea	16.1	9.3	5.2	0.4	5.3	9.2	7.2	5.2	2.9	2.9
United States	3.3	3.0	2.8	3.7	3.8	3.4	1.5	2.5	1.7	2.7
Slovak Republic	6.3	6.1	3.9	3.5	1.2	0.5	1.2	0.5	2.5	1.8
Finland	2.4	0.5	0.3	0.5	1.4	2.7	0.9	-1.1	-0.9	-0.2
Portugal	3.3	3.8	4.6	4.1	4.0	3.1	2.5	1.1	-1.2	-1.0
Norway	4.7	4.3	3.1	8.2	8.9	7.2	10.1	0.1	-1.2	..
Denmark	-5.6	-4.0	2.1	2.1	2.4	-1.4	-4.2	-2.3	-3.2	-2.4
United Kingdom	0.9	0.1	1.5	-0.1	0.4	-1.6	-1.2	-2.8	-4.1	-4.4
Greece	..	-6.0	-7.5	-8.0	-7.3	-7.2	-8.0	-7.3

출처 <http://stats.oecd.org>

38. 정부저축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orway	19.0	16.2	12.2	10.4	14.1	17.9	21.4	20.4	..
Korea	11.6	10.9	11.4	11.1	9.8	9.8	10.0	10.6	..
Finland	9.4	7.6	6.7	5.0	4.8	5.0	6.1	7.6	6.6
Denmark	4.1	3.0	1.9	1.4	3.4	6.5	6.6	6.5	5.6
Sweden	6.5	4.6	1.7	1.8	3.5	5.2	5.5	6.9	5.5
New Zealand	5.0	7.0	7.6	7.9	8.8	9.7	8.7	4.8	..
Switzerland	4.8	3.6	2.9	1.5	1.5	2.2	3.5	4.5	..
Netherlands	4.5	3.5	1.7	0.7	1.4	2.9	3.4	3.4	4.5
Czech Republic	2.4	2.8	2.1	1.5	4.3	3.7	3.9	5.1	4.0
Canada	5.2	3.0	2.4	2.4	3.6	4.5	4.6	4.7	3.6
Poland	-0.1	-0.9	-0.8	-1.6	-1.7	-0.2	0.7	2.6	..
Austria	1.3	3.3	2.4	1.5	2.0	1.5	1.4	2.5	2.5
Germany	1.6	0.1	-0.9	-1.3	-1.3	-0.9	0.6	2.4	2.4
Australia	2.9	3.5	4.3	4.1	4.7	5.3	5.2	5.4	1.5
Spain	3.0	3.6	4.0	4.0	4.1	5.2	6.6	7.1	1.1
Slovak Republic	-0.3	-1.4	-1.9	0.2	0.3	1.0	-0.5	0.7	1.0
Italy	1.3	0.8	0.2	-0.9	-0.5	-0.7	1.4	2.3	0.8
Belgium	2.5	2.3	1.9	0.6	1.3	1.6	2.0	1.9	0.8
France	2.1	2.0	0.3	-0.8	-0.2	0.3	1.3	1.1	0.5
Japan	-0.2	0.1	-2.1	-2.4	-2.6	-1.4	0.1	0.2	..
Hungary	2.6	2.1	-0.5	-2.1	-2.2	-3.4	-4.3	-0.4	-0.3
Portugal	0.6	-0.6	-0.3	-1.4	-2.4	-3.2	-1.7	-0.1	-1.0
United Kingdom	2.9	2.4	-0.1	-1.3	-1.1	-1.0	-0.2	-0.3	-1.6
Ireland	4.8	4.5	5.7	5.9	7.1	5.1	-1.8
Greece	-0.2	-0.1	-0.7	-1.9	-3.0	-2.5	-1.7	-2.6	-2.8
United States	3.7	1.7	-1.5	-2.4	-1.9	-0.7	0.2	-0.1	-3.4

출처 <http://stats.oecd.org>

39. 기업총저축률

(%)	2005	2006	2007	2008
Japan	21.0	19.7	19.7	..
Norway	12.4	15.5	17.2	..
Slovak Republic	15.9	17.4	18.2	17.0
Korea	15.3	15.1	15.8	..
Denmark	16.9	16.3	15.8	15.8
Sweden	13.1	15.3	15.2	15.6
Ireland	15.0	16.5	16.7	15.5
United Kingdom	12.7	12.5	14.4	15.4
Canada	15.7	15.2	15.0	14.9
Australia	12.0	11.9	12.7	14.7
Switzerland	21.2	19.3	14.6	..
Finland	15.7	16.1	15.7	14.1
Netherlands	17.0	18.8	17.5	13.9
Czech Republic	16.9	16.9	15.1	13.7
Austria	14.3	14.4	13.9	13.6
Mexico	11.8	12.5	13.6	13.4
Belgium	14.5	14.2	15.0	13.1
Hungary	13.1	14.0	12.8	13.0
Germany	11.5	12.1	12.3	11.6
Greece	12.6	13.1	8.7	11.3
Poland	11.8	11.4	10.7	..
Spain	9.8	8.6	7.5	10.6
United States	10.8	10.2	9.4	10.1
France	8.6	8.2	8.5	8.3
Italy	9.2	7.7	7.8	7.1
Portugal	9.4	7.8	8.4	6.9

출처 <http://stats.oecd.org>

IV. 기술혁신

40. 논문게재건수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0-2009
United States	262,365	268,923	266,492	289,177	279,646	315,763	312,148	305,922	340,493	341,038	2,981,967
United Kingdom	73,954	73,067	70,639	76,543	74,013	83,092	82,089	82,995	91,226	92,628	800,246
Germany	68,460	70,190	68,433	73,881	70,092	80,336	78,209	76,544	87,433	89,545	763,123
Japan	72,063	74,536	73,452	80,581	73,524	80,601	76,647	73,756	79,515	78,930	763,605
France	49,368	50,436	48,665	53,527	49,935	57,342	55,698	54,381	64,515	65,301	549,168
Canada	34,638	34,704	35,174	39,251	38,711	45,929	46,887	47,230	53,286	55,534	431,344
Italy	31,427	33,625	34,034	38,279	37,594	42,393	42,610	43,768	50,367	51,606	405,703
Spain	22,642	24,126	25,037	27,423	27,815	32,031	33,857	34,387	41,990	44,324	313,632
Korea	13,459	15,896	17,101	21,110	22,681	27,806	28,425	27,367	35,573	38,651	248,069
Australia	21,755	22,487	22,671	25,204	24,687	28,745	29,636	29,851	36,793	38,599	280,428
Netherlands	19,385	19,875	19,913	22,161	21,567	25,072	24,974	24,841	28,439	30,204	236,431
Turkey	5,321	6,484	8,511	10,781	12,463	15,106	14,971	15,987	20,806	22,037	132,467
Switzerland	14,305	14,201	13,992	15,976	15,616	17,872	18,098	18,341	21,070	21,800	171,271
Sweden	15,143	16,140	15,635	16,752	15,855	18,061	17,472	17,578	19,135	19,611	171,382
Poland	9,787	10,847	11,320	12,960	13,421	14,684	14,786	13,709	19,532	19,513	140,559
Belgium	10,135	10,652	10,788	12,183	12,014	13,931	13,698	13,866	16,198	16,865	130,330
Austria	7,203	7,870	7,722	8,765	8,415	9,426	9,098	9,347	11,085	11,347	90,278
Denmark	7,968	8,119	7,876	8,902	8,457	9,566	9,432	9,594	10,877	11,200	91,991
Greece	4,908	5,649	5,718	6,736	6,919	8,057	8,796	9,179	10,558	10,598	77,118
Finland	7,558	7,809	7,574	8,356	8,020	8,785	8,878	8,711	9,790	9,971	85,452
Mexico	4,903	5,258	5,585	6,279	6,466	7,422	7,281	7,540	9,411	9,612	69,757
Norway	4,956	5,227	5,169	5,707	5,778	6,777	7,279	7,372	8,762	9,232	66,259
Czech Republic	4,340	4,660	4,845	5,436	5,399	6,391	6,482	6,807	8,635	8,822	61,817
Portugal	3,163	3,648	3,833	4,693	4,990	5,564	6,684	6,143	7,812	8,819	55,349
New Zealand	4,560	4,531	4,486	4,923	4,792	5,817	5,748	5,789	6,833	6,770	54,249
Ireland	2,780	2,866	2,998	3,305	3,570	4,389	4,623	4,858	5,872	6,125	41,386
Hungary	4,144	4,404	4,238	4,726	4,427	5,235	4,983	4,951	5,910	5,767	48,785
Slovak Republic	1,978	2,015	1,945	2,077	2,046	2,333	2,294	2,410	3,180	2,899	23,177
Iceland	298	373	371	425	442	449	503	516	671	709	4,757
Luxembourg	103	107	98	141	165	188	239	232	359	464	2,096

출처 http://thomsonrenters.com/products_services/science/a-z/national_science_indicators/

41.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0-2009
Switzerland	27.51	26.43	24.61	21.10	19.47	16.25	11.97	8.40	4.25	1.00	14.75
Iceland	26.64	23.23	23.55	20.96	17.62	16.31	10.60	10.22	4.38	0.99	13.37
Denmark	25.33	24.86	21.39	20.78	18.23	14.86	11.07	7.88	4.09	0.84	14.00
Netherlands	25.54	23.72	22.23	20.44	17.98	14.70	10.94	7.75	3.75	0.81	13.60
United Kingdom	22.64	21.15	20.63	17.99	15.84	13.06	9.80	6.80	3.47	0.76	12.58
Sweden	23.71	22.52	20.30	18.95	16.39	13.29	10.13	6.99	3.50	0.75	13.06
Germany	20.09	19.23	18.32	16.23	14.62	12.40	9.30	6.74	3.42	0.72	11.54
United States	26.13	24.42	22.44	19.98	17.31	13.91	10.24	7.04	3.47	0.71	13.81
Belgium	21.67	20.10	19.59	17.83	15.16	13.48	9.81	7.05	3.53	0.70	11.77
Austria	20.05	19.15	18.39	15.66	15.03	12.97	9.39	6.75	3.17	0.68	11.24
Canada	22.51	20.82	18.86	17.21	15.01	12.06	9.15	6.30	3.14	0.67	11.38
Finland	23.03	21.16	20.14	17.10	14.39	12.21	9.04	6.60	3.33	0.65	12.10
France	19.25	18.19	17.07	15.09	13.47	11.21	8.54	6.32	3.00	0.64	10.70
Ireland	17.66	19.93	17.33	16.09	13.33	11.14	9.57	6.40	3.02	0.63	9.78
Norway	21.15	19.55	19.27	17.52	15.84	13.02	8.98	6.09	2.92	0.63	10.99
Italy	19.18	17.70	17.31	14.93	13.45	11.63	8.64	6.12	3.02	0.62	10.30
Australia	19.82	19.40	17.55	15.80	14.21	11.26	8.70	6.22	2.95	0.61	10.39
New Zealand	18.22	15.70	14.84	14.23	12.06	10.32	7.49	5.27	2.55	0.56	9.28
Portugal	15.64	15.13	14.44	12.05	11.08	9.58	7.10	5.27	2.67	0.56	7.78
Spain	17.34	16.04	15.15	13.88	12.58	10.44	7.90	5.74	2.72	0.53	9.01
Luxembourg	16.82	16.65	17.57	12.48	12.69	12.37	7.61	5.60	2.62	0.52	7.50
Japan	16.20	15.25	13.87	12.26	11.35	9.06	6.89	4.87	2.45	0.49	9.16
Hungary	13.85	13.41	14.78	12.93	11.54	9.06	6.95	5.35	2.48	0.48	8.55
Czech Republic	12.49	11.88	10.79	10.20	9.63	8.20	6.55	4.75	2.29	0.46	6.80
Greece	14.41	12.61	12.95	11.33	10.05	8.72	6.50	4.68	2.23	0.46	7.27
Mexico	12.44	11.35	10.29	9.03	8.43	6.61	5.52	3.67	1.82	0.37	6.12
Slovak Republic	8.54	9.78	8.32	7.49	7.65	5.83	5.70	3.74	1.66	0.36	5.44
Korea	13.03	11.83	11.42	9.97	8.84	7.19	5.33	4.12	1.99	0.35	6.12
Poland	11.44	10.42	9.64	9.09	7.95	6.93	5.37	4.21	1.65	0.34	5.95
Turkey	10.33	9.94	8.66	7.79	6.67	5.11	4.13	2.89	1.20	0.23	4.34

출처 <http://stats.oecd.org>

42.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ortugal	18.1	18.9	24.1	25.7	26.3	33.1	36.4
Korea	38.4	39.4	38.6	38.8	38.6	37.8	36.9	36.0	32.8
Luxembourg	31.5	32.5
Germany	32.5	31.6	30.9	30.8	30.8	31.2	27.8	28.1	28.9
France	29.2	29.5	28.7	28.6	28.6	27.1	26.5	27.6	27.2
Czech Republic	28.3	24.7	25.9	25.1	24.5	26.6	24.3	25.0	26.9
Austria	27.2	27.8	28.0	27.4	27.0	28.2	30.9	31.2	26.9
Finland	31.9	28.0	29.0	28.8	29.9	30.1	29.4	28.8	26.8
Greece	27.6	28.6	..	23.4	25.9
Mexico	23.0	23.5	23.6	27.1	25.4	25.6	25.3	24.7	24.6
Spain	23.1	24.6	24.3	25.0	24.9	24.6	24.5	24.4	24.4
Japan	25.7	25.8	25.9	25.6	25.0	24.8	24.4	24.1	24.0
Sweden	29.0	30.9	31.0	29.9	31.7	26.5	26.7	24.6	23.8
Switzerland	30.2	29.1	..	26.8	25.1	26.7	25.3	25.5	23.5
United Kingdom	26.4	28.6	..	27.9	..	23.8	23.2	22.8	22.6
Italy	24.5	23.9	22.8	23.4	22.9	22.1	21.8	21.0	22.0
Canada	20.4	19.4	20.2	18.4	22.4	21.6
Ireland	29.0	27.3	25.9	25.1	23.4	25.2	22.1	21.1	21.5
Slovak Republic	22.3	27.2	27.3	25.7	26.0	27.2	24.0	23.8	21.0
Belgium	22.4	23.4	23.1	22.6	23.0	22.4	22.9	22.8	20.1
New Zealand	18.7	19.7	19.8	19.1	18.9	19.0	18.3	17.3	19.7
Denmark	21.6	15.7	15.8	16.5	18.3	18.1	17.7	19.8	19.5
Australia	19.7	19.3	21.6	22.0	21.4	20.9	21.3	20.4	19.0
Turkey	24.2	22.0	22.5	21.8	17.3	22.1	17.5	17.6	18.1
Poland	11.4	10.5	11.0	11.7	12.3	14.1	17.1	17.0	16.3
Norway	13.1	15.1	..	18.2	16.2	16.0	15.8	15.1	15.4
United States	15.8	15.9	..	16.3	14.7	15.7	15.3	15.0	14.9
Hungary	12.1	9.8	12.0	10.6	11.0	10.2	12.6	14.1	14.2
Netherlands	15.2	15.7	16.0	16.3	16.1	15.9	15.0	14.2	14.0
Iceland	17.8	17.5	17.7	17.6	17.0	15.1	14.7	12.9	13.9

출처 <http://stats.oecd.org>

43. 이공계 박사학위 비율

(2006)	과학분야	기술분야	계(%)
Greece (2005)	41.6	20.1	61.7
France	48.8	10.4	59.2
Ireland	41.9	15.8	57.7
Sweden	22.6	30.1	52.7
Poland	33.5	16.1	49.6
Czech Republic	23.9	25.6	49.5
Belgium	32.5	16.6	49.2
Iceland	33.3	13.3	46.7
United Kingdom	31.2	14.6	45.8
Italy	26.4	19.0	45.4
Finland	21.9	22.0	43.9
Denmark	18.2	25.4	43.6
Switzerland	32.0	11.1	43.2
Austria	22.1	20.1	42.1
New Zealand	32.8	8.0	40.8
Portugal	26.9	13.5	40.4
Japan	16.4	23.0	39.4
Canada	23.6	15.1	38.7
Norway	27.4	11.0	38.4
Australia	24.5	13.8	38.3
Spain	30.8	7.4	38.2
Korea	11.4	26.2	37.6
United States	23.1	13.7	36.8
Slovak Republic	17.4	18.1	35.5
Germany	25.5	8.8	34.2
Netherlands	16.0	17.9	33.9
Turkey	15.3	14.3	29.6
Mexico	18.8	8.9	27.7
Hungary	17.9	5.1	23.0

출처 http://oecd-ilibrary.org/content/book/sti_Scoreboard-2009-en/

44. 근로자 천명당 연구인력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7.33	..	7.81	..	8.39	..	8.48
New Zealand	..	9.10	..	10.35	..	10.47	..	10.76	..
United States	9.30	9.48	9.67	10.21	9.78	9.55	9.64	9.53	..
France	7.07	7.16	7.48	7.73	8.10	8.06	8.30	8.39	..
Canada	7.17	7.54	7.44	7.75	8.05	8.31	8.30	8.34	..
Greece	..	3.37	..	3.55	..	4.31	4.29	4.43	..
Turkey	1.07	1.06	1.12	1.54	1.56	1.78	1.91	2.40	..
Mexico	0.86	0.98	1.08	0.86	0.88	..
Finland	15.17	15.83	16.42	17.71	17.40	16.57	16.61	15.69	16.19
Iceland	..	11.69	..	12.22	..	13.36	14.15	12.46	12.92
Japan	9.92	10.44	10.14	10.63	10.64	11.03	11.06	11.02	10.64
Sweden	..	10.47	..	11.03	11.25	12.67	12.60	10.57	10.58
Denmark	..	6.99	9.17	9.03	9.55	10.18	10.21	10.38	10.49
Korea	5.13	6.32	6.41	6.84	6.93	7.88	8.65	9.48	10.02
Norway	..	8.61	..	9.07	9.11	9.21	9.46	9.77	9.95
Austria	6.33	..	6.72	7.18	7.35	7.83	8.39
Belgium	7.43	7.74	7.37	7.43	7.72	7.78	8.09	8.29	8.16
United Kingdom	5.76	6.09	6.59	7.13	7.46	8.00	8.12	8.02	7.98
Portugal	3.33	3.46	3.69	3.95	4.04	4.14	4.81	5.50	7.88
Germany	6.59	6.73	6.80	6.95	6.95	7.01	7.16	7.32	7.48
Luxembourg	6.24	6.66	6.79	7.24	6.44	6.61	6.54
Ireland	5.02	5.12	5.28	5.55	5.89	5.91	5.95	5.97	6.40
Spain	4.67	4.73	4.81	5.18	5.46	5.70	5.78	5.95	6.39
Netherlands	5.19	5.50	4.58	4.50	5.75	5.67	6.20	5.93	5.79
Czech Republic	2.80	3.02	3.00	3.21	3.30	4.84	5.16	5.34	5.63
Slovak Republic	4.92	4.71	4.50	4.67	5.21	5.24	5.52	5.68	5.63
Switzerland	6.40	6.09	5.59
Hungary	3.39	3.47	3.54	3.59	3.58	3.82	4.20	4.17	4.50
Poland	3.50	3.96	4.12	4.31	4.43	4.42	4.10	4.05	3.93
Italy	2.88	2.85	2.99	2.91	2.97	3.38	3.56	3.69	3.81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45. GDP대비 R&D지출 비율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eden	3.624	3.604	3.740	3.606	3.753	..
Finland	3.453	3.480	3.478	3.477	3.731	4.007
Japan	3.167	3.323	3.405	3.442	3.424	..
Korea	2.683	2.792	3.009	3.210	3.369	..
Switzerland	2.902	3.008	..
United States	2.542	2.568	2.608	2.664	2.771	..
Denmark	2.485	2.456	2.478	2.554	2.720	..
Austria	2.255	2.452	2.467	2.536	2.681	2.725
Iceland	..	2.770	2.992	2.685	2.651	..
Germany	2.486	2.486	2.528	2.532	2.639	..
France	2.150	2.099	2.098	2.042	2.022	..
Australia	1.725	..	1.971
Belgium	1.858	1.833	1.863	1.898	1.921	..
Canada	2.075	2.047	1.973	1.903	1.843	1.992
United Kingdom	1.683	1.729	1.750	1.787	1.770	..
Netherlands	1.807	1.787	1.776	1.819	1.752	..
Luxembourg	1.631	1.559	1.65	1.579	1.621	..
Norway	1.593	1.523	1.517	1.646	1.62	..
Portugal	0.770	0.805	1.021	1.210	1.510	..
Czech Republic	1.246	1.414	1.549	1.535	1.467	..
Ireland	1.234	1.252	1.254	1.283	1.431	..
Spain	1.064	1.122	1.200	1.267	1.351	..
New Zealand	..	1.157	..	1.206
Italy	1.096	1.091	1.133	1.179	1.186	..
Hungary	0.873	0.945	1.002	0.967	1.004	..
Turkey	0.518	0.591	0.58	0.722	0.725	..
Poland	0.558	0.567	0.556	0.567	0.605	..
Greece	0.550	0.590	0.581	0.579
Slovak Republic	0.512	0.505	0.486	0.459	0.471	..
Mexico	0.400	0.413	0.387	0.375

출처 <http://www.oecd.org/sti/msti/>, <http://stats.oecd.org>

46. 기업부문 GDP대비 R&D지출 비율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eden	2.665	2.621	2.793	2.659	2.779	..
Finland	2.421	2.465	2.48	2.514	2.770	2.937
Japan	2.381	2.540	2.627	2.681	2.686	..
Korea	2.058	2.146	2.325	2.448	2.539	..
Switzerland	2.140	2.211	..
United States	1.763	1.798	1.857	1.922	2.012	..
Denmark	1.691	1.677	1.658	1.775	1.907	..
Austria	1.528	1.708	1.737	1.790	1.892	..
Germany	1.735	1.724	1.770	1.772	1.846	..
Iceland	..	1.427	1.592	1.465	1.446	..
Belgium	1.283	1.247	1.290	1.320	1.323	..
Luxembourg	1.431	1.347	1.420	1.321	1.322	..
France	1.357	1.304	1.324	1.292	1.274	..
Australia	0.937	1.043	1.150	1.217
United Kingdom	1.053	1.061	1.079	1.117	1.097	..
Canada	1.181	1.148	1.105	1.036	0.999	1.078
Ireland	0.812	0.821	0.83	0.845	0.928	..
Czech Republic	0.778	0.893	1.008	0.951	0.908	..
Netherlands	1.032	1.007	1.014	0.966	0.886	..
Norway	0.874	0.818	0.821	0.878	0.873	..
Portugal	0.278	0.310	0.474	0.62	0.756	..
Spain	0.578	0.604	0.666	0.708	0.742	..
Italy	0.524	0.55	0.553	0.611	0.603	0.656
Hungary	0.359	0.408	0.484	0.487	0.528	..
New Zealand	..	0.481	..	0.514
Turkey	0.125	0.200	0.215	0.298	0.321	..
Slovak Republic	0.252	0.252	0.209	0.182	0.202	..
Poland	0.160	0.180	0.175	0.172	0.187	..
Mexico	0.171	0.194	0.185	0.178
Greece	0.171	0.183	0.175	0.156

출처 <http://www.oecd.org/sti/msti/>, <http://stats.oecd.org>

47. 정부부문 GDP대비 R&D지출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0.269	..	0.271
Austria	0.116	0.128	0.129	0.136	0.143	..
Belgium	0.144	0.153	0.150	0.153	0.165	..
Canada	0.184	0.198	0.195	0.190	0.188	0.207
Chile
Czech Republic	0.280	0.283	0.289	0.320	0.307	..
Denmark	0.171	0.158	0.163	0.084	0.086	..
Finland	0.327	0.332	0.325	0.294	0.300	0.348
France	0.365	0.373	0.346	0.323	0.325	..
Germany	0.340	0.351	0.351	0.352	0.365	..
Greece	0.109	0.120	0.121	0.124
Hungary	0.258	0.265	0.254	0.234	0.235	..
Iceland	..	0.652	0.610	0.479	0.472	..
Ireland	0.093	0.093	0.085	0.09	0.099	0.099
Italy	0.196	0.189	0.195	0.171	0.157	0.190
Japan	0.301	0.275	0.282	0.267	0.285	..
Korea	0.324	0.331	0.348	0.374	0.406	..
Luxembourg	0.179	0.188	0.195	0.211	0.252	..
Mexico	0.104	0.096	0.096	0.095
Netherlands	0.255	0.237	0.233	0.221	0.211	..
New Zealand	..	0.300	..	0.329
Norway	0.247	0.237	0.238	0.252	0.236	..
Poland	0.218	0.206	0.206	0.201	0.214	..
Portugal	0.121	0.118	0.116	0.113	0.117	..
Slovak Republic	0.156	0.150	0.159	0.162	0.154	..
Spain	0.170	0.191	0.200	0.223	0.246	..
Sweden	0.113	0.179	0.168	0.173	0.167	..
Switzerland	0.031	..	0.024	..	0.022	..
Turkey	0.041	0.068	0.068	0.076	0.087	..
United Kingdom	0.180	0.183	0.175	0.164	0.162	..
United States	0.310	0.306	0.297	0.289	0.294	..

출처 <http://www.oecd.org/sti/msti/>, <http://stats.oecd.org>

48. 특허출원수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	652,985	681,794	721,722	795,697	815,811	815,573	844,981	861,349	876,432	946,498
Australia	8,950	8,947	9,904	11,047	12,142	13,591	12,324	6,114	5,761	6,195
Austria	1,631	1,717	1,676	1,760	1,739	1,648	1,722	1,829	1,966	2,247
Belgium	1,287	1,233	1,224	1,198	1,253	1,335	1,305	1,427	1,535	1,695
Brazil	2,865	2,551	2,906	3,210	3,367	3,402	3,818	4,091	3,973	4,056
Canada	5,257	5,380	5,464	5,698	5,034	4,978	4,658	5,164	5,275	6,125
China	10,944	12,116	14,346	22,794	27,278	38,264	52,571	61,693	84,515	113,547
Czech Republic	565	620	581	536	481	495	576	576	558	597
Denmark	1,068	1,288	1,387	1,503	1,443	1,507	1,610	1,660	1,583	1,634
Finland	2,591	2,792	2,899	3,239	3,354	3,058	2,741	2,731	2,476	2,866
France	12,960	13,056	13,580	13,875	13,467	13,515	13,752	14,599	14,774	16,210
Germany	41,410	44,572	47,312	49,380	48,296	46,620	46,799	49,235	48,878	51,260
Hungary	785	783	803	829	927	874	769	762	720	746
India	743	802	694	800	957	1,307	1,295	1,303	1,585	1,559
Israel	1,959	1,872	2,013	2,034	1,813	1,658	1,484	1,900	1,433	1,773
Italy	8,381	8,652	8,779	9,252	9,468	8,388	6,186	5,383	5,468	12,535
Japan	335,706	342,707	341,885	365,335	364,506	348,115	341,111	345,750	342,885	332,906
Netherlands	3,867	4,071	4,266	5,023	5,248	5,714	5,983	6,184	5,958	5,038
New Zealand	598	683	773	845	871	723	836	773	694	780
Norway	1,240	1,304	1,349	1,375	1,281	1,237	1,141	1,013	1,241	867
Poland	2,237	2,245	2,153	2,252	2,006	2,262	2,275	2,189	321	208
Korea	33,010	41,475	53,427	56,510	59,253	60,620	73,805	84,163	84,487	114,195
Romania	1,056	788	560	515	462	492	223	180	95	85
Russian Federation	12,128	13,402	15,273	16,989	19,751	21,527	23,419	22,289	22,437	25,636
South Africa	1,391	1,553	1,394	1,270	1,200	1,193	1,126	1,030	588	524
Spain	1,851	1,992	2,339	2,442	2,471	2,584	2,414	2,574	2,378	2,292
Sweden	5,165	5,049	5,231	5,574	5,116	4,524	4,335	4,270	3,510	4,271
Switzerland	3,992	4,098	4,419	4,529	4,515	4,413	4,433	4,459	4,593	5,803
Ukraine	246	270	378	667	1,139	1,865	8,688	2,203	1,623	1,281
United Kingdom	18,649	20,539	21,746	22,931	22,146	21,873	21,369	20,240	18,785	18,562
United States	120,390	122,152	136,895	164,729	174,023	176,354	178,750	176,771	177,555	185,122
Others	10,063	13,085	16,066	17,556	20,804	21,437	23,463	28,794	28,782	25,883

출처 <http://www.wipo.int/ipstats/eu/statistics/Patents/>

49.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건수

(국)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99.51	98.17	100.66	112.66	120.30	121.54	127.14	125.28	137.07	129.34
Austria	245.16	253.43	244.77	225.66	239.00	261.15	274.99	275.71	274.20	..
Belgium	67.63	57.79	56.28	55.51	58.16	50.02	49.32	49.34	46.45	42.73
Canada	125.93	133.15	136.08	127.50	126.24	124.04	163.49	160.40	169.13	151.56
Czech Republic	60.61	57.96	54.02	55.56	51.56	61.26	61.04	57.26	62.42	69.28
Denmark	291.08	311.33	324.13	328.10	337.72	328.93	347.52	306.13	276.43	303.95
Finland	479.53	486.11	498.24	460.68	415.72	378.29	384.65	348.83	344.84	341.10
France	226.91	231.86	235.50	228.05	226.83	224.60	235.12	235.36	236.81	238.58
Germany	567.03	609.46	629.32	607.16	576.89	579.32	587.13	586.48	582.84	581.67
Greece	40.98	38.41	39.48	50.78	47.42	46.54	43.57	54.85	62.07	68.97
Hungary	67.21	71.21	79.33	90.21	82.89	74.63	74.01	69.89	71.29	68.52
Iceland	149.64	126.13	181.49	171.93	246.53	196.86	225.95	158.38	148.13	196.14
Ireland	265.29	265.25	243.08	263.55	232.46	215.73	193.44	189.70	196.68	193.99
Italy	..	110.34	138.32	155.87
Japan	2,827.14	2,822.98	3,028.30	3,010.76	2,865.58	2,804.49	2,883.63	2,879.79	2,716.58	2,610.13
Luxembourg	103.14	55.56	194.06	116.04	92.45	35.56	50.74	52.55	55.01	31.25
Mexico	4.73	4.71	4.40	5.39	5.26	4.63	5.54	5.67	5.51	5.97
Netherlands	156.13	161.02	154.78	131.50	131.40	141.01	134.32	135.85	132.63	126.91
New Zealand	309.57	370.26	379.23	455.61	465.75	458.13	399.02	457.92	514.51	447.46
Norway	273.69	299.33	291.92	263.46	259.59	236.37	248.70	247.23	246.53	259.71
Poland	62.25	59.11	62.52	57.57	60.50	59.38	62.36	53.14	56.55	62.75
Portugal	9.48	7.96	7.92	10.40	12.54	11.97	11.71	14.98	17.38	23.57
Republic of Korea	1,093.09	1,200.63	1,549.33	1,556.56	1,607.87	1,887.06	2,190.93	2,538.29	2,598.01	2,656.04
Slovakia	39.51	39.48	43.80	45.73	48.15	39.04	39.94	28.77	35.80	44.28
Spain	57.17	61.09	67.31	62.08	66.88	66.97	67.25	70.05	70.52	72.80
Sweden	448.72	467.63	476.27	441.42	376.29	337.76	307.83	279.48	269.37	276.23
Switzerland	284.81	268.35	289.94	257.13	250.80	..	235.74	220.92	232.50	224.10
Turkey	3.18	4.16	4.11	4.92	5.95	6.92	9.59	12.88	14.69	24.50
United Kingdom	333.92	363.53	374.41	362.43	347.63	342.90	320.27	296.10	288.49	284.83
United States	488.42	534.87	583.98	622.61	639.99	650.52	646.46	702.50	742.36	800.17

출처 <http://www.wipo.int/ipstats/eu/statistics/Patents/>

50. R&D지출규모당 특허출원수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Korea	2.74	3.45	4.27	3.75	3.46	3.91	4.25	4.35	4.10	3.70
Japan	3.45	3.37	3.60	3.47	3.22	3.10	3.11	3.06	2.70	2.48
New Zealand	1.39	..	1.78	..	1.84	..	1.44	..	1.81	..
Poland	0.95	0.84	0.82	0.77	0.82	0.89	0.93	0.73	0.73	0.78
Germany	0.91	0.95	0.91	0.83	0.78	0.78	0.78	0.78	0.77	0.74
United States	0.53	0.56	0.58	0.59	0.60	0.63	0.62	0.67	0.68	0.72
Slovakia	0.31	0.41	0.54	0.56	0.58	0.50	0.49	0.37	0.44	0.52
United Kingdom	0.71	0.76	0.73	0.69	0.66	0.64	0.60	0.55	0.52	0.50
Italy	..	0.40	0.51	0.49
Greece	0.48	..	0.33	..	0.37	..	0.32	0.41	0.42	0.46
Hungary	0.79	0.85	0.89	0.85	0.63	0.50	0.51	0.49	0.44	0.39
Turkey	0.10	0.13	0.11	0.12	0.14	0.16	0.22	0.26	0.24	0.39
Ireland	0.84	0.81	0.71	0.75	0.65	0.57	0.47	0.43	0.42	0.38
France	0.39	0.40	0.39	0.36	0.35	0.34	0.37	0.36	0.37	0.37
Norway	0.41	..	0.42	..	0.37	0.32	0.32	0.33	0.34	0.37
Denmark	0.51	0.50	0.48	..	0.44	0.41	0.42	0.38	0.34	0.36
Austria	0.49	0.47	0.41	0.36	0.36	0.38	0.37	0.37	0.33	
Finland	0.74	0.68	0.61	0.51	0.45	0.40	0.39	0.34	0.33	0.31
Canada	0.27	0.26	0.25	0.21	0.19	0.18	0.24	0.23	0.25	0.22
Spain	0.32	0.30	0.33	0.28	0.29	0.27	0.25	0.25	0.23	0.22
Sweden	0.50	..	0.47	..	0.30	..	0.26	0.24	0.22	0.22
Switzerland	0.29	0.22
Czech Republic	0.35	0.32	0.29	0.27	0.25	0.29	0.27	0.24	0.22	0.21
Netherlands	0.26	0.27	0.25	0.22	0.22	0.24	0.23	0.22	0.22	0.21
Australia	..	0.24	..	0.24	..	0.23	..	0.21	..	0.19
Iceland	0.30	0.22	0.27	0.21	0.27	0.22	0.26	..	0.15	..
Portugal	0.09	0.07	0.06	0.07	0.08	0.08	0.08	0.10	0.11	0.14
Mexico	0.13	0.11	0.09	0.12	0.11	0.09	0.12	0.11	0.10	..
Belgium	0.13	0.11	0.10	0.09	0.09	0.08	0.08	0.08	0.08	0.07
Luxembourg	0.11	0.05	0.05	0.05	0.03

출처 <http://www.wipo.int/ipstats/eu/statistics/Patents/>

51. 기술무역수지배율*

	2004	2005	2006	2007	2008
Japan	3.12	2.88	3.37	3.49	3.71
Canada	2.39	2.20	1.96	2.33	..
United Kingdom	2.07	2.06	2.04	1.93	1.76
United States	2.28	2.35	1.70	1.70	1.70
Norway	1.36	1.38	1.77	1.41	1.68
Austria	1.49	1.61	1.65	1.61	1.63
Sweden	1.32	1.35	1.07	1.51	1.45
Germany	1.11	1.12	1.13	1.13	1.21
Finland	0.62	0.74	0.64	0.68	1.13
Italy	0.95	0.94	1.25	1.24	1.11
Czech Republic	0.40	0.62	0.84	0.70	1.07
Portugal	0.61	0.62	0.82	1.13	1.06
Ireland	0.85	0.87	0.90	1.04	0.98
Spain	0.54	0.70	0.81	0.72	0.98
Luxembourg	0.63	2.35	1.00	0.91	0.84
Belgium	1.04	1.22	1.31	0.87	0.77
Hungary	0.52	0.66	0.63	0.71	0.75
Switzerland	0.83	0.90	0.72	0.70	..
Australia	0.77	0.76	0.94	0.75	0.66
Poland	0.27	0.34	0.43	0.43	0.63
Slovak Republic	0.56	0.47	0.61
Greece	0.44	0.42	0.50	0.39	0.60
Korea	0.34	0.36	0.39	0.43	..
Mexico	0.07	0.09

출처 <http://www.oecd.org/sti/msti/>, <http://stats.oecd.org>

* 기술무역수지배율 = 기술수출액 ÷ 기술수입액

52.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44.5	49.4	79.1	81.2	82.3	87.3	89.5	90.6	91.0	93.5
Norway	26.8	29.3	72.8	74.7	74.8	82.0	82.6	86.9	90.6	92.1
Sweden	45.7	51.8	70.6	76.8	81.5	84.8	87.8	82.0	89.1	90.8
Netherlands	44.0	49.4	61.3	64.3	68.5	80.8	82.6	85.8	87.4	89.6
Luxembourg	22.9	36.2	39.8	52.8	65.3	70.4	72.5	78.9	82.2	87.3
Denmark	39.2	43.0	64.3	70.9	75.8	82.7	86.7	85.0	85.0	86.8
New Zealand	47.4	53.2	59.1	61.0	61.8	62.7	67.1	69.8	72.0	84.4
Finland	37.2	43.1	62.4	65.9	70.3	74.5	79.7	80.8	83.7	84.1
United Kingdom	26.8	33.5	56.5	60.8	62.7	69.6	68.8	75.1	78.4	83.6
Korea	44.7	56.6	59.4	65.5	72.7	73.5	78.1	78.8	81.0	81.6
Germany	30.2	31.7	48.8	53.7	61.1	68.7	72.2	75.2	77.9	79.3
Canada	42.3	45.2	61.6	64.0	66.0	67.9	70.4	72.8	75.4	78.1
Japan	30.0	38.5	46.6	48.4	62.4	66.9	68.7	74.3	75.4	78.0
United States	43.1	49.1	58.8	61.7	64.8	68.0	68.9	71.8	74.0	76.2
Belgium	29.4	31.3	46.3	50.0	53.9	59.8	64.2	69.3	71.2	76.2
Slovak Republic	9.4	12.5	40.1	43.1	46.4	55.2	56.1	61.8	66.3	75.2
Australia	46.8	52.7	57.6	59.5	61.4	63.2	65.2	68.6	72.0	74.0
Austria	33.7	39.2	36.6	41.0	51.9	58.0	63.6	69.4	72.9	73.5
Switzerland	47.9	54.7	61.4	64.0	66.6	68.2	70.9	66.8	69.8	72.4
France	14.3	26.3	30.2	36.1	39.1	42.9	46.9	66.1	70.7	71.6
Ireland	17.9	23.1	25.8	30.6	33.5	41.6	54.8	60.6	65.3	67.4
Czech Republic	9.8	14.7	23.9	28.0	31.6	35.3	47.9	51.9	63.0	64.4
Slovenia	15.1	30.2	27.8	31.9	36.9	50.1	54.0	56.7	57.7	64.3
Spain	13.6	18.1	20.4	36.6	40.4	47.9	50.4	55.1	59.6	62.6
Hungary	7.0	14.5	16.7	21.6	27.7	39.0	47.1	53.3	61.0	61.8
Poland	7.3	9.9	21.2	24.9	28.9	38.8	44.6	48.6	53.1	59.0
Italy	23.1	27.2	28.0	28.5	31.4	35.4	38.0	40.8	44.5	48.8
Portugal	16.4	18.1	19.4	25.7	29.3	35.0	38.0	42.1	44.1	48.3
Greece	9.1	10.9	15.1	16.3	19.7	24.5	32.3	35.9	41.2	44.5
Turkey	3.8	5.2	11.4	12.3	13.3	15.5	18.2	28.6	34.4	35.3
Chile	16.6	18.7	19.1	25.5	28.2	31.2	34.5	31.0	32.5	34.0
Mexico	5.1	7.0	10.5	14.9	16.6	18.5	19.3	20.6	21.4	25.9

출처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53. 인터넷 접속가구비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Korea	49.8	63.2	70.2	68.8	86.0	92.7	94.0	94.1	94.3
Iceland	80.6	84.4	83.0	83.7	87.7
Netherlands	41.0	..	58.0	60.5	..	78.3	80.3	82.9	86.1
Sweden	48.2	53.3	72.5	77.4	78.5	84.4
Norway	60.5	60.1	64.0	68.8	77.6	84.0
Denmark	46.0	59.0	55.6	64.2	69.4	74.9	78.7	78.1	81.9
Luxembourg	39.9	45.4	58.6	64.6	70.2	74.6	80.1
Germany	16.4	36.0	46.1	54.1	60.0	61.6	67.1	70.7	74.9
Switzerland	61.0	..	70.5	73.9	..
Canada	42.6	49.9	54.5	56.9	59.8	64.3	68.1	72.7	..
Finland	30.0	39.5	44.3	47.4	50.9	54.1	64.7	68.8	72.4
United Kingdom	19.0	40.0	49.7	55.1	55.9	60.2	62.6	66.7	71.1
Austria	19.0	..	33.5	37.4	44.6	46.7	52.3	59.6	68.9
Australia	32.0	42.0	46.0	53.0	56.0	60.0	64.0	67.0	..
New Zealand	..	37.4	64.5
Japan	48.8	53.6	55.8	57.0	60.5	62.1	63.9
Belgium	50.2	54.0	60.2	63.6
Ireland	20.4	35.6	39.7	47.2	50.0	57.3	63.0
France	11.9	18.1	23.0	31.0	33.6	..	40.9	49.2	62.3
United States	41.5	50.4	..	54.7	61.7	..
Slovak Republic	23.3	23.0	26.6	46.1	58.3
Spain	27.5	33.6	35.5	39.1	44.6	51.0
Hungary	14.2	22.1	32.3	38.4	48.4
Poland	11.0	14.0	26.0	30.4	35.9	41.0	47.6
Italy	18.8	..	33.7	32.1	34.1	38.6	40.0	43.4	46.9
Portugal	8.0	18.0	15.1	21.7	26.2	31.5	35.2	39.6	46.0
Czech Republic	14.8	19.4	19.1	29.3	35.1	45.9
Greece	12.2	16.3	16.5	21.7	23.1	25.4	31.0
Mexico	..	6.1	7.6	..	8.9	8.8	10.4	11.9	13.7
Turkey	6.9	7.0	7.7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54.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eden	2.8	6.6	9.4	12.2	15.6	27.8	21.2	30.4	41.2	41.1
Denmark	1.3	4.4	8.4	13.3	18.8	24.8	31.9	35.9	36.8	37.9
Norway	0.5	2.0	4.5	8.7	14.6	21.4	26.6	30.4	33.3	37.3
Netherlands	1.6	2.9	7.3	12.3	19.7	25.1	31.7	33.5	35.1	35.6
Switzerland	0.8	1.9	6.3	10.7	16.6	21.8	27.0	31.5	33.9	34.6
Korea	8.3	16.7	22.2	23.7	25.2	25.6	29.4	30.7	32.1	33.8
Iceland	0.8	3.7	8.5	14.4	19.1	26.4	29.1	31.8	32.9	33.2
Luxembourg	0.0	0.3	1.3	3.4	8.0	15.1	21.0	27.1	29.8	32.9
France	0.3	1.0	2.8	5.9	10.8	15.5	20.7	25.2	28.5	31.1
Germany	0.3	2.6	3.9	5.4	8.5	13.1	18.2	23.8	27.5	30.4
United Kingdom	0.1	0.6	2.3	5.2	10.2	16.4	21.5	25.6	28.2	29.8
Canada	4.6	9.2	11.2	14.3	16.9	21.7	24.7	27.5	29.6	29.7
Belgium	1.4	4.5	7.9	12.1	15.6	19.3	22.5	25.8	28.0	29.4
Finland	0.7	2.6	5.3	9.4	15.3	22.4	27.2	30.6	30.5	29.4
United States	2.5	4.4	6.8	9.3	12.5	15.9	19.7	22.7	24.7	27.1
Australia	..	0.6	1.3	2.6	5.0	9.9	18.9	23.2	25.1	25.4
Japan	0.7	3.0	7.4	11.7	15.4	18.3	20.7	22.2	23.7	24.9
Slovenia	..	0.3	2.8	2.9	5.8	9.8	14.0	17.1	21.2	23.1
New Zealand	0.1	0.4	1.1	2.1	4.7	7.8	11.3	20.3	21.6	23.0
Austria	2.4	4.0	5.6	7.2	10.6	14.3	17.3	19.5	20.7	22.5
Ireland	0.0	0.0	0.3	1.0	3.7	7.7	12.1	17.4	20.1	21.6
Spain	0.2	1.1	3.0	5.1	8.0	11.7	15.4	18.3	20.5	21.5
Italy	0.2	0.7	1.5	3.9	8.1	11.6	14.4	17.1	18.9	19.7
Czech Republic	0.0	0.1	0.2	0.3	2.3	7.0	10.9	14.6	17.1	19.5
Hungary	0.0	0.2	1.1	2.6	4.1	6.5	11.9	13.8	16.8	18.8
Portugal	0.2	1.0	2.5	4.8	8.0	11.1	13.4	14.2	15.3	17.4
Greece	0.0	0.0	0.0	0.1	0.5	1.4	4.4	9.2	13.5	17.2
Slovak Republic	..	0.0	0.1	0.4	1.5	3.4	5.7	8.8	11.2	14.4
Poland	0.0	0.0	0.3	0.5	2.1	2.5	7.6	10.9	11.7	13.6
Chile	0.1	0.4	1.2	2.2	3.0	4.3	6.2	7.8	8.5	9.8
Mexico	0.0	0.0	0.2	0.4	1.0	1.8	2.9	4.2	7.0	9.1
Turkey	0.0	0.0	0.0	0.3	0.8	2.2	3.8	6.5	7.8	8.5

출처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55. 유선 초고속 인터넷 월이용요금

(U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urkey	32.4	30.4
Austria	24.8	22.5	..	58.4
Norway	53.0
Chile	47.8
Iceland	63.4	56.8	..	47.6
Luxembourg	42.5
Germany	36.6
Ireland	36.6
Netherlands	36.6
Finland	36.5
France	36.5
Mexico	55.0	32.0	..	35.0
Japan	32.6
Switzerland	36.3	39.5	39.4	39.1	..	31.4
Sweden	30.2
Belgium	48.3	52.4	..	29.3
Denmark	29.2
Portugal	24.5	15.9	18.1	..	29.0
New Zealand	28.1
Czech Republic	25.0	17.7	23.4	27.8
Slovak Republic	27.8
Spain	16.3	16.8	17.2	..	27.8
United Kingdom	35.3	28.7	27.8	..	27.6
Slovenia	26.5
Australia	25.2
Poland	38.8	24.9
Italy	44.9	37.0	25.0	31.4	..	24.7
Greece	24.2
Hungary	23.2
Canada	18.7
Korea	18.1
United States	15.0

출처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56. 인구 100만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Korea	0.4	9.3	20.1	26.3	32.5	49.2	71.6	83.6
Japan	..	0.0	0.1	1.6	8.6	22.9	49.6	65.4	75.5	83.5
Luxembourg	3.9	14.5	28.9	42.4	82.6	67.1
Australia	0.4	2.3	3.2	14.5	32.7	53.7	67.0
Sweden	0.2	3.6	6.8	13.6	24.7	35.5	65.9
Greece	0.3	2.1	7.8	22.5	45.7	64.5
New Zealand	0.2	3.1	12.8	27.9	45.2	64.2
Finland	0.0	1.8	6.6	15.4	24.3	59.6
Austria	3.9	11.0	20.2	29.7	42.7	54.6
Italy	0.7	6.0	17.7	40.1	41.4	48.8	52.8
Spain	0.2	2.2	8.5	22.8	38.9	52.2
Portugal	8.7	20.4	24.5	40.5	49.8
United States	0.4	1.0	3.6	16.5	26.3	39.0
United Kingdom	0.4	4.3	7.7	12.9	20.6	33.9	38.0
Ireland	24.9	32.4	37.2
Switzerland	0.0	1.5	4.8	19.3	28.3	37.0
Denmark	0.1	2.3	2.2	6.0	12.3	22.5	36.2
Germany	0.4	2.9	5.5	15.1	21.8	31.6
Norway	0.0	1.9	7.5	13.3	20.9	31.6
Belgium	0.1	0.3	0.9	5.4	12.0	30.8
France	0.1	2.2	6.8	13.8	23.6	28.6
Slovenia	0.3	1.3	3.3	11.6	26.3	28.6
Poland	0.0	0.2	1.1	7.8	15.8	25.9
Czech Republic	0.3	0.7	1.2	6.5	13.1	25.6
Slovak Republic	0.9	3.6	10.5	23.8
Hungary	3.1	7.9	15.5	22.9
Netherlands	0.4	1.6	4.9	12.6	15.1	21.5
Turkey	8.2
Canada	-	-	0.1	0.7	1.5	4.6	7.7
Iceland	2.7	6.2
Mexico	0.0	0.2	0.5	1.8	5.1
Chile	0.1	0.8	2.4	3.4

출처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57. 컴퓨터보유 가구비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53.0	58.0	61.0	66.0	66.0	67.0	70.0	72.6	74.9	..
Canada	54.9	59.9	64.0	66.6	68.7	72.0	75.5	78.4	80.0	..
Chile	16.9	..	20.5	24.9	27.4	30.1	33.1	36.4	40.0	..
Japan	50.5	58.0	71.7	78.2	78.0	80.5	74.1	85.0	85.9	..
Mexico	9.3	11.7	15.2	16.6	18.0	18.6	20.6	22.1	25.6	..
New Zealand	..	46.6	52.0	57.0	62.2	67.8	71.6	75.7	81.2	..
Switzerland	61.3	64.2	65.4	68.9	70.6	76.5	77.4	78.1	80.6	..
Turkey	8.0	9.0	10.3	12.0	..	28.5	37.7	..
United States	51.0	56.2	59.0	61.8	64.0	66.0	68.1	70.2	72.5	..
Iceland	..	73.1	83.0	84.0	85.7	89.0	84.0	89.0	91.9	92.5
Netherlands	69.0	71.0	73.9	78.0	80.0	86.0	87.7	90.8
Luxembourg	43.2	..	52.6	58.0	67.3	75.0	77.0	80.0	82.8	87.9
Norway	65.0	..	70.0	71.2	71.5	74.0	75.0	82.0	85.8	87.6
Sweden	59.9	69.2	75.0	76.0	77.0	80.0	82.0	83.0	87.1	87.5
Denmark	65.0	69.6	72.2	78.5	79.3	84.0	85.0	83.0	85.5	86.2
Germany	47.3	53.0	61.0	65.2	68.7	70.0	77.0	79.0	81.8	84.1
Korea	71.0	76.9	78.6	77.9	78.0	78.5	79.4	80.4	80.9	81.4
United Kingdom	38.0	49.0	57.9	63.2	65.3	70.0	71.0	75.0	78.0	81.2
Finland	47.0	52.9	54.5	57.4	63.8	64.9	71.0	74.0	75.8	80.1
Austria	34.0	..	49.2	50.8	58.6	63.1	67.0	71.0	75.9	74.5
Ireland	32.4	..	41.1	42.2	46.3	55.0	59.0	65.0	70.3	72.8
Slovenia	46.0	46.0	55.0	55.0	58.0	61.0	65.0	66.0	65.1	71.2
Belgium	..	44.6	40.9	45.7	46.0	57.0	57.0	67.0	70.0	71.1
France	27.0	32.4	36.6	45.7	49.8	54.3	56.0	62.0	68.4	69.2
Spain	30.4	34.0	36.1	47.0	52.0	55.0	57.0	60.4	63.6	66.3
Poland	..	18.9	23.1	25.0	36.1	40.0	45.0	54.0	58.9	66.1
Slovak Republic	12.9	12.4	24.6	35.9	39.0	47.0	50.0	55.0	63.2	64.0
Hungary	13.3	22.0	26.0	29.4	31.9	42.0	50.0	54.0	58.8	63.0
Italy	29.4	..	39.9	47.7	47.3	46.0	48.0	53.0	56.0	61.3
Czech Republic	21.4	..	27.8	23.8	30.0	30.0	39.0	43.0	52.4	59.6
Portugal	22.8	24.7	27.0	38.3	41.3	42.5	45.4	48.3	49.8	56.0
Greece	25.3	28.7	29.0	33.0	37.0	40.0	44.0	47.3

출처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58. 하이테크제품 수출비중(제조업 수출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3.2234	5.5303	6.2652	6.4347	27.0766	37.5796	57.1246	36.1133
Korea	29.5506	31.3043	32.1489	32.7551	32.3292	32.0057	33.4474	..
United States	32.5882	31.8109	30.8052	30.3319	29.9219	30.0780	28.5381	27.1222
Ireland	47.3210	40.6279	34.4705	33.8330	34.5256	34.3359	27.9252	26.4949
Hungary	24.0889	24.8106	25.6465	28.9152	25.6933	23.9902	25.1966	24.1503
Switzerland	20.3696	21.3766	22.1467	21.9642	21.9279	21.8846	21.6723	23.0149
Netherlands	32.3425	27.6552	30.8928	30.0744	30.5215	28.6011	25.7111	22.2053
Finland	24.3253	24.2021	23.7496	20.9433	26.4071	22.4997	21.4830	21.2322
France	23.1984	21.1966	19.4744	19.5405	20.0230	21.1959	18.8632	20.2373
Norway	18.9588	22.0538	18.6392	18.2683	17.3103	18.5642	18.0461	19.8848
Mexico	22.0057	21.3581	21.3118	21.2025	19.5520	18.8931	17.0908	19.4103
United Kingdom	33.6870	31.3698	25.9342	24.1645	28.0160	33.6380	19.5117	19.2627
Japan	26.2478	24.4778	24.0570	23.6842	22.4745	21.6093	18.9650	17.8656
Sweden	17.1241	17.9086	16.0243	17.1818	16.6746	15.8525	15.6982	15.8426
Denmark	20.0501	21.6737	19.6215	19.7160	21.9828	19.1427	16.6073	15.5694
Canada	16.5729	14.3140	14.0419	12.3872	13.1517	13.4709	14.3341	14.4938
Czech Republic	9.6262	14.3071	13.2342	12.9104	12.7510	14.1025	14.1267	14.2589
Germany	17.7867	16.9096	16.3703	17.3123	16.9543	16.6993	14.2232	13.5220
Australia	15.4549	16.4454	13.7728	13.6478	12.7424	12.3289	11.1577	11.8137
Austria	14.2759	16.0781	15.3006	15.9595	13.5282	13.0737	11.3187	10.9267
Greece	9.8579	11.5980	12.1809	11.4232	10.1877	10.5394	8.0227	9.9550
New Zealand	9.9083	10.1135	10.2003	10.1942	10.3699	10.5038	9.7386	9.2743
Portugal	7.9002	7.2418	8.5681	8.7114	8.9860	9.3109	8.5390	8.3751
Belgium	10.5078	8.4889	8.5169	8.0354	8.6609	7.9491	7.4786	8.1195
Italy	9.3793	8.9775	7.8449	7.8046	7.7668	7.1259	6.6277	6.6813
Luxembourg	18.8653	14.9720	11.7524	10.2107	11.8061	11.5413	8.8470	6.6094
Slovak Republic	4.1756	3.1472	3.7078	5.3584	7.3960	6.6291	5.3504	5.2712
Poland	3.1015	2.7717	3.0677	3.2687	3.8500	3.8090	3.7625	5.2409
Spain	7.5229	6.9266	7.2639	7.0400	7.0515	6.1794	5.1602	..
Turkey	3.9241	1.8938	2.0632	1.9959	1.5143	1.9264	2.0415	1.7380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59. 정보통신(ICT) 제품 수출비중(전체상품수출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Korea	31.3609	35.7150	31.1051	33.8661	34.334	33.9178	30.6461	27.206	26.2117	..
Hungary	23.7595	27.6815	24.6239	26.0315	27.8267	30.6178	27.7441	26.1325	24.5203	24.6217
Mexico	22.3331	23.0388	24.0267	22.5626	21.7734	21.9897	20.48	21.3881	19.6242	20.9414
Slovak Republic	4.0666	3.9026	4.5410	4.3076	4.7094	6.8047	10.0432	13.3385	15.1410	17.4549
Finland	22.3697	25.4091	21.9862	21.9892	21.113	18.9814	22.314	18.9444	17.1597	16.4620
Ireland	33.1954	34.5397	35.836	30.8076	24.2534	22.6953	22.6657	22.3976	19.3335	16.2776
Czech Republic	4.9897	7.3231	9.5895	13.0440	12.1559	13.8419	12.5029	14.1879	14.8434	15.2071
Japan	24.2986	25.7797	23.4765	22.8008	22.5966	21.9602	20.4178	19.342	15.7069	14.3069
United States	21.4302	23.3570	20.8138	19.13	18.8818	18.2507	17.1304	16.2991	14.1606	12.7818
Netherlands	20.7552	19.3078	15.9824	14.3708	17.1716	18.3299	18.5084	17.4815	14.7854	11.7829
Sweden	18.1332	19.0695	12.2575	12.3572	11.1066	12.0150	12.1430	11.1793	9.4900	9.4521
United Kingdom	18.4463	19.7505	19.5894	18.4827	13.9916	12.5633	15.5465	20.5387	8.5368	7.7400
Poland	4.5366	4.5052	4.8211	5.3504	4.9530	4.5290	4.6128	5.5880	6.1875	7.4799
Portugal	7.2731	7.7675	8.5739	7.7866	8.5330	8.1171	8.3590	9.0113	8.3458	7.3816
Germany	9.3571	10.4533	10.3395	9.9729	9.3982	10.0304	10.1447	9.5715	7.8802	6.8974
Austria	6.9362	7.8814	7.8763	7.9962	7.4252	7.0929	6.9083	6.3149	6.1323	5.7749
France	10.8382	12.0837	10.5168	9.1269	7.8773	7.87142	7.6394	7.9579	6.0753	5.4330
Denmark	8.1919	8.4871	7.9662	9.7598	7.9492	7.7853	8.6178	7.1315	6.1751	4.9647
Luxembourg	14.3601	14.9164	18.5015	15.1340	11.0433	10.1021	10.9356	8.0556	7.0572	4.6862
Canada	6.5867	8.1647	5.7502	4.7581	4.4137	4.4886	4.6076	4.6495	4.3937	3.7927
Switzerland	5.4014	5.7790	5.2355	4.0552	4.0360	4.0213	4.3457	3.7282	3.5996	3.4763
Spain	5.4310	5.4147	5.3044	4.6846	4.8134	4.4972	4.2946	3.9927	3.2290	..
Greece	2.8583	4.38359	3.6962	3.6861	3.3340	3.8454	3.0128	3.3440	2.9769	3.2109
Belgium	5.3379	6.1856	6.4154	4.8940	4.8883	4.4318	4.3757	3.6979	2.9745	2.8813
Italy	5.0121	5.3393	5.2522	4.4931	4.1898	4.1468	4.0654	3.6861	3.1522	2.8205
Turkey	3.4757	4.0140	3.7921	4.7927	4.4968	4.9056	4.6202	4.0046	3.0089	2.1276
Norway	3.3019	2.3873	2.5796	2.2661	2.1657	2.0251	1.7912	1.7773	1.9712	2.0135
New Zealand	2.2478	2.1526	1.9874	2.1834	2.2078	2.2797	2.2748	2.2704	2.1132	1.7533
Australia	3.3564	3.2426	3.1312	2.7108	2.7734	2.4625	2.1392	1.8145	1.7637	1.4542
Iceland	0.2707	0.6111	0.4220	0.5864	0.7037	0.6468	0.8242	0.4494	0.3583	0.4329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60. 정보통신(ICT) 서비스 수출비중(전체 서비스수출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reland	37.6448	45.4801	42.3249	38.2319	35.5258	36.4216	33.5845	31.1655	32.7303	34.3708
Finland	22.8923	5.35252	5.79604	7.09926	6.9306	7.03123	11.1921	10.8643	9.71109	27.3721
Sweden	8.13689	9.06211	9.76864	8.72924	9.15998	9.68813	9.62756	10.4192	13.0057	13.6417
Netherlands	4.84307	5.28737	5.30508	5.18094	8.65563	9.50609	9.3455	10.3306	10.9777	10.6057
Canada	9.57281	9.4634	9.89692	9.31737	10.1547	9.73486	9.95495	10.5905	10.4732	10.43
Belgium	7.67685	7.39084	7.895	9.22142	8.92943	8.86236	8.52637	8.22727	8.87286	8.66842
Czech Republic	2.33118	3.16759	4.7053	4.42605	2.3127	3.73989	8.23188	9.45955	8.12929	8.55767
Germany	5.65198	6.31619	7.40988	7.33498	7.5829	7.75467	7.22254	7.55224	7.7302	8.2796
Hungary	3.15096	3.21201	3.85013	4.38159	4.9055	5.84382	5.62148	6.64193	7.40737	8.26602
United Kingdom	5.42939	5.92321	6.29174	6.82804	7.69591	8.64404	8.4436	8.35198	7.98426	7.95813
Slovak Republic	4.59528	4.6149	..	4.57927	4.8498	5.31308	5.22171	7.89071	6.61651	7.24898
Austria	2.87098	3.35119	3.72989	4.13047	4.13219	4.13963	5.26946	6.33113	6.43776	6.29965
Luxembourg	4.59804	4.21298	4.554	4.84283	7.95022	9.52489	8.27679	7.1942	5.41707	5.90408
Spain	5.11057	5.16821	5.37946	5.68353	5.33139	4.86885	5.36699	5.06955	5.52324	5.79425
Norway	4.00866	5.37055	4.96279	3.39753	3.15033	3.51276	4.26658	5.32862	4.23987	5.71833
Portugal	2.75529	2.74722	2.78944	3.17526	3.80638	4.28111	4.76415	4.53107	4.75337	4.96631
Australia	7.2369	6.95242	5.42435	6.02422	5.87987	5.40475	4.8663	5.15328	4.66613	4.89205
New Zealand	5.92106	6.22508	6.84114	6.1756	4.90973	4.76091	5.36897	4.20297	4.36685	4.86573
Poland	4.86667	2.83708	2.92218	2.6203	3.3739	3.65971	3.10001	3.89957	4.04302	4.47761
Iceland	3.9704	3.81096	4.704	3.82442	3.81401	4.07237	3.80472	5.40418	4.66997	4.37635
United States	3.65223	3.29422	3.53754	3.29598	3.63604	3.32083	3.21189	4.05084	3.99523	4.04398
France	2.22752	2.64412	3.36222	3.89187	3.82186	3.97412	4.28235	4.48118	4.22938	3.66817
Italy	2.61649	3.04479	3.08742	2.28556	3.33722	3.06358	3.1691	4.17567	3.53583	2.98138
Mexico	9.95824	8.81752	6.19791	4.37519	3.34869	3.00853	3.39539	2.84523	2.27271	..
Turkey	1.6909	1.8057	2.10984
Greece	2.16106	1.79844	1.59336	1.43521	1.8826	1.79133	1.67683	1.64785	1.6163	1.68028
Korea	1.52325	1.30348	1.42351	1.3992	1.12542	1.12436	1.10815	1.78461	1.40082	1.32149
Japan	3.31445	3.45362	3.30512	2.86189	2.23816	1.53348	1.37989	1.19514	1.17723	1.07523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V. 기업환경

61. 노동생산성(GDP대비)

(US \$)	2008	2009
Luxembourg	77.6	74.0
Norway	75.2	73.3
Ireland	54.7	60.2
United States	55.3	57.4
Belgium	54.0	56.5
Netherlands	55.5	56.4
France	53.2	54.5
Germany	50.5	53.3
Sweden	45.9	48.8
Austria	45.6	48.1
United Kingdom	44.9	47.6
Spain	42.5	47.4
Switzerland	44.7	47.2
Australia	44.5	47.0
Denmark	43.6	46.3
Finland	44.2	45.2
Italy	41.1	43.6
Canada	43.2	43.3
Iceland	36.8	41.7
Japan	38.3	38.2
Greece	32.1	33.9
New Zealand	30.5	33.2
Slovak Republic	30.2	32.9
Portugal	27.5	30.3
Czech Republic	24.4	26.8
Turkey	23.8	25.3
Hungary	24.1	25.2
Korea	25.3	25.1
Poland	21.0	23.4
Mexico	18.6	19.0

출처 <http://stats.oecd.org>

62. 노동생산성 증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lovak Republic	3.00	4.30	7.60	6.90	1.90	3.10	6.60	8.10	2.30	2.00
Korea	3.60	2.50	5.80	4.20	3.90	4.30	4.00	5.50	4.30	1.10
Poland	6.40	4.10	4.20	4.70	4.00	0.70	3.20	2.70	1.60	1.70
Iceland	1.60	4.20	3.50	2.50	7.70	4.90	-0.60	0.70	0.20	4.70
Spain	0.10	0.70	0.60	0.90	0.70	0.80	0.80	1.70	0.80	3.10
Greece	3.90	4.00	1.70	4.90	3.30	1.10	-0.50	4.50	1.90	-1.00
Czech Republic	3.80	6.50	2.40	4.80	3.60	4.50	4.90	4.00	0.50	0.70
United States	2.70	2.40	3.10	3.00	2.40	1.50	0.90	1.40	1.30	2.50
Ireland	5.00	3.10	5.50	3.90	1.30	2.00	1.80	2.70	-0.50	2.70
Portugal	4.40	-0.10	0.20	1.10	0.40	1.70	0.60	4.10	-1.50	1.50
New Zealand	0.90	1.70	1.60	1.90	-0.50	0.90	0.70	2.60	-0.80	1.70
Australia	-1.20	4.00	1.80	2.30	0.20	0.20	1.00	1.00	-0.20	2.10
Austria	2.10	-0.10	1.90	0.20	1.80	2.00	2.70	2.60	0.70	-0.70
Japan	2.80	1.60	2.40	1.70	3.10	2.20	1.10	1.90	-0.10	-0.40
Hungary	3.80	6.60	4.10	5.40	5.50	3.70	3.50	1.40	1.90	-2.70
United Kingdom	3.30	1.40	2.40	3.00	2.20	0.90	2.20	1.70	1.10	-2.50
Switzerland	2.80	1.90	1.00	-0.60	0.40	2.20	2.00	1.60	0.10	-2.10
Finland	3.90	1.90	1.30	2.30	3.40	1.90	2.90	3.20	-0.50	-3.60
Netherlands	2.30	-0.10	1.30	-0.30	3.20	0.60	0.60	0.90	0.60	-2.40
Belgium	3.90	-2.60	1.30	1.10	3.90	-0.70	1.50	1.70	-1.30	-1.50
Canada	2.90	1.10	1.40	0.40	0.30	2.20	1.00	0.20	-0.50	-1.00
Germany	2.60	1.80	1.50	1.20	0.60	1.40	2.80	0.70	0.00	-2.20
France	3.60	0.90	3.10	1.30	0.50	1.60	2.60	-0.40	-0.60	-1.30
Italy	2.50	0.80	-0.60	-1.20	1.10	0.50	0.30	0.10	-1.20	-1.50
Norway	3.90	3.40	2.20	3.10	2.00	1.30	-0.90	-1.60	-1.50	-0.20
Mexico	6.10	1.20	-2.80	2.30	1.10	-0.60	2.70	2.30	-1.90	-3.80
Denmark	2.00	-0.70	0.80	1.70	2.70	1.40	0.90	-0.30	-2.00	-1.30
Sweden	3.30	0.60	3.90	3.70	3.30	2.90	2.90	-0.20	-2.00	-2.40
Luxembourg	3.10	-1.90	1.50	0.00	4.80	3.40	1.20	6.10	-7.20	-8.00

출처 <http://stats.oecd.org>

63. 시간당 노동보수(us \$ PPP)

(U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Mexico	4.7	5.0	5.0	5.3	5.3	5.5	5.7	5.9	6.0	..
Hungary	7.4	8.0	8.8	9.4	9.9	10.4	10.9	11.2	12.1	..
Slovak Republic	7.0	7.6	8.4	8.6	8.8	9.7	10.6	11.5	12.3	13.3
Czech Republic	7.4	8.5	9.1	10.1	10.5	11.1	11.9	12.7	13.3	13.8
Korea	9.4	9.9	10.3	11.2	11.8	12.7	13.3	14.3	15.0	..
Greece	11.3	12.0	13.8	13.9	14.4	14.8	14.8	15.8	16.7	17.5
Australia	18.2	18.8	19.1	19.4	20.6	21.3	22.1
Canada	18.1	18.7	18.8	19.5	20.2	21.3	21.8	22.9	23.1	..
Spain	17.6	18.4	19.3	19.4	19.5	20.2	21.1	22.1	23.5	..
Italy	18.9	19.4	19.5	20.1	20.6	21.3	22.1	22.9	23.8	24.9
Ireland	15.6	16.5	16.8	18.0	19.2	20.6	21.7	22.9	24.5	25.4
Finland	17.5	18.0	18.5	18.9	20.1	20.9	21.9	23.3	24.5	25.6
Sweden	19.7	20.4	21.3	22.3	23.3	24.1	25.1	26.8	27.2	27.6
Denmark	20.0	20.2	21.4	21.4	22.4	22.9	24.2	25.5	26.8	27.8
Austria	22.9	22.7	23.6	24.3	24.8	25.7	27.1	27.9	29.0	30.1
Germany	23.7	24.4	25.0	26.0	26.5	27.0	27.8	28.3	29.4	30.3
France	23.8	25.1	26.9	26.4	27.0	28.3	29.8	30.3	31.3	..
United States	24.9	26.0	26.9	28.3	29.4	30.6	31.6	32.9	33.9	..
Netherlands	24.5	25.4	26.8	26.9	28.5	29.3	30.5	32.3	34.0	34.2
Norway	21.1	22.4	23.8	25.3	26.2	27.4	29.3	31.7	33.5	34.4

출처 <http://stats.oecd.org>

64. 시간당 노동보수증가율(us \$ PPP)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anada	4.89	3.19	0.81	3.23	3.82	5.69	2.33	4.90	0.75	..
Mexico	11.78	6.61	-0.23	6.23	0.02	3.30	3.76	3.46	1.12	..
Germany	3.42	2.99	2.68	3.87	2.04	1.81	3.01	1.57	4.15	3.05
Sweden	11.49	3.66	4.17	4.65	4.77	3.40	4.19	6.60	1.45	1.58
United States	6.44	4.30	3.29	5.50	3.65	4.22	3.43	3.98	2.95	..
France	7.90	5.83	6.91	-1.67	2.09	4.83	5.49	1.54	3.35	..
Austria	4.39	-0.83	3.87	2.97	1.86	3.95	5.22	3.11	4.05	3.58
Netherlands	7.23	3.26	5.65	0.44	5.91	2.88	3.99	6.00	5.18	0.71
Italy	2.33	2.67	0.21	3.35	2.06	3.64	3.68	3.81	3.91	4.36
Australia	3.45	3.17	1.88	1.52	6.01	3.50	3.92
Denmark	3.14	0.83	6.11	-0.08	4.68	2.35	5.52	5.25	5.10	3.91
Hungary	10.55	8.05	10.54	6.90	4.79	5.79	4.66	2.28	8.09	..
Spain	3.35	4.41	4.67	0.68	0.68	3.66	4.46	4.48	6.30	..
Czech Republic	5.66	15.28	5.97	11.92	3.56	5.91	6.62	7.15	5.08	3.21
Finland	4.87	2.77	2.93	2.07	6.30	3.98	4.94	6.23	5.02	4.50
Ireland	3.38	6.12	1.66	7.16	6.47	7.29	5.45	5.63	6.85	3.67
Norway	5.39	6.33	6.25	6.10	3.94	4.47	7.02	7.93	5.90	2.52
Greece	5.64	6.18	15.06	1.08	3.32	3.06	0.13	6.48	5.71	4.87
Korea	-0.34	5.60	4.19	8.78	4.76	7.70	5.10	7.34	5.33	..
Slovak Republic	6.61	8.40	10.46	2.96	1.59	10.27	9.13	9.14	6.83	8.22

출처 <http://stats.oecd.org>

65. 단위노동비용(시간당노동비용/노동생산성) 증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Japan	..	-1.30	-3.82	-3.15	-3.06	-2.11	-0.60	-1.93
Ireland	3.56	4.00	0.37	4.43	3.61	5.67	3.80	1.69	3.53	-6.22
Switzerland	0.99	4.68	2.12	0.43	-2.30	1.13	1.64
Korea	-0.21	5.48	1.23	5.25	1.32	2.39	0.19	0.66	2.21	..
Portuga	4.49	3.41	3.33	3.47	0.81	3.60	0.87	-0.15	3.05	..
France	1.59	2.28	2.88	1.90	0.87	1.86	2.04	1.26	2.45	..
Slovak Republic	11.01	0.94	4.14	5.37	4.16	4.98	0.61	-0.85	2.72	4.83
Austria	-0.12	1.00	0.33	1.09	-0.63	1.18	0.45	0.52	2.09	5.08
Germany	0.25	0.39	0.33	0.72	-0.87	-0.93	-1.55	-0.29	2.08	6.20
United States	4.07	2.29	0.82	2.07	1.34	2.21	2.98	2.84
Turkey	33.14	49.91	30.02	21.23	2.22	0.89	4.95
Poland	5.36	3.16	-1.77	-2.76	-1.98	0.66	-0.78	2.55	7.13	..
Mexico	11.14	10.60	6.84	6.09	2.08	3.17	2.68	3.09	3.58	..
Netherlands	3.15	4.70	4.45	2.25	0.34	-0.32	0.70	2.02	2.48	5.16
Canada	2.01	2.24	1.02	2.52	2.35	2.27	3.72	3.14	3.24	..
Belgium	0.57	3.71	2.45	0.84	-0.02	1.38	2.01	2.08	3.59	4.66
United Kingdom	2.87	3.68	2.53	2.98	1.77	2.35	2.17	2.55	2.82	5.30
Italy	-0.36	3.25	3.37	4.45	1.49	3.06	1.79	2.11	3.87	4.79
Czech Republic	2.06	6.48	5.80	4.68	1.01	-0.80	0.08	2.78	4.63	3.38
Spain	2.70	3.11	2.99	3.17	2.46	3.47	3.16	3.47	4.25	..
New Zealand	0.57	3.19	2.16	3.34	4.80	4.64	4.36	2.19	4.84	..
Hungary	15.72	6.71	9.15	5.99	3.81	2.99	1.74	5.58	4.20	..
Sweden	4.45	5.30	0.59	0.41	-1.25	0.59	-0.74	4.11	2.40	5.03
Greece	1.46	-0.07	9.19	1.20	0.67	2.81	1.74	3.65	3.71	5.26
Australia	3.21	0.88	2.35	1.85	4.39	3.97	4.89
Finland	-0.02	3.52	1.18	1.64	0.04	2.34	0.49	-0.17	5.90	8.14
Denmark	0.18	4.40	3.75	2.19	1.09	2.85	2.33	4.54	5.91	4.40
Luxembourg	3.43	5.71	2.34	1.51	1.64	1.92	0.91	1.48	7.00	6.88
Iceland	4.33	6.89	7.84	1.57	2.23	5.12	9.31	6.25	4.16	..
Norway	1.99	4.28	3.47	1.63	1.48	3.25	7.35	8.43	6.92	4.94

출처 <http://stats.oecd.org>

66. 장기이자율(10년만기 국채수익률)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Japan	1.32	1.26	1.00	1.49	1.35	1.74	1.67	1.47	1.33
Switzerland	3.38	3.20	2.66	2.74	2.10	2.52	2.93	2.90	2.20
Germany	4.80	4.78	4.07	4.04	3.35	3.76	4.22	3.98	3.22
Canada	5.48	5.30	4.80	4.58	4.07	4.21	4.27	3.60	3.23
Sweden	5.11	5.30	4.64	4.43	3.38	3.70	4.17	3.89	3.25
United States	5.02	4.61	4.02	4.27	4.29	4.79	4.63	3.67	3.26
Denmark	5.09	5.06	4.31	4.30	3.40	3.81	4.29	4.28	3.59
United Kingdom	4.93	4.90	4.53	4.88	4.41	4.50	5.01	4.59	3.65
France	4.94	4.86	4.13	4.10	3.41	3.80	4.30	4.23	3.65
Netherlands	4.96	4.89	4.12	4.10	3.37	3.78	4.29	4.23	3.69
Finland	5.04	4.98	4.14	4.11	3.35	3.78	4.29	4.29	3.74
Belgium	5.06	4.89	4.15	4.06	3.37	3.81	4.33	4.40	3.82
Austria	5.08	4.97	4.15	4.15	3.39	3.80	4.30	4.36	3.94
Spain	5.12	4.96	4.13	4.10	3.39	3.78	4.31	4.36	3.97
Norway	6.24	6.38	5.05	4.37	3.75	4.08	4.77	4.46	4.00
Portugal	5.16	5.01	4.18	4.14	3.44	3.91	4.42	4.52	4.21
Italy	5.19	5.03	4.30	4.26	3.56	4.05	4.49	4.68	4.31
Slovak Republic	8.04	6.94	4.99	5.03	3.52	4.41	4.49	4.72	4.71
Czech Republic	6.31	4.88	4.12	4.82	3.54	3.80	4.30	4.63	4.84
Australia	5.62	5.84	5.37	5.59	5.34	5.59	5.99	5.82	5.04
Korea	6.86	6.59	5.05	4.73	4.95	5.15	5.35	5.57	5.17
Greece	5.30	5.12	4.27	4.26	3.59	4.07	4.50	4.80	5.17
Ireland	5.02	4.99	4.13	4.06	3.32	3.79	4.33	4.55	5.23
New Zealand	6.39	6.53	5.87	6.07	5.88	5.78	6.26	6.08	5.46
Mexico	13.79	8.54	7.37	7.74	9.28	7.51	7.60	8.09	5.83
Poland	10.68	7.36	5.78	6.90	5.22	5.23	5.48	6.07	6.12
Iceland	10.36	7.96	6.65	7.49	7.73	9.33	9.85	11.07	8.04
Hungary	7.95	7.09	6.77	8.29	6.60	7.12	6.74	8.24	9.12

출처 <http://stats.oecd.org>

67. 단기이자율(3개월만기 CD금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itzerland	2.86	1.13	0.33	0.48	0.81	1.56	2.57	2.48	0.36
Sweden	4.03	4.07	3.03	2.11	1.72	2.33	3.55	3.91	0.40
United States	3.69	1.73	1.15	1.56	3.51	5.15	5.27	2.97	0.56
Japan	0.09	0.09	0.09	0.32	0.75	0.85	0.58
Canada	4.00	2.62	2.97	2.31	2.81	4.18	4.62	3.31	0.69
United Kingdom	4.97	3.99	3.67	4.57	4.70	4.80	5.95	5.49	1.20
Austria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Belgium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Finland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France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Germany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Ireland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Italy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Netherlands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Portugal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Slovak Republic	7.49	7.50	5.89	4.38	2.64	4.08	4.03	3.85	1.23
Spain	4.26	3.32	2.33	2.11	2.18	3.08	4.28	4.63	1.23
Chile	7.23	3.93	2.77	1.83	3.53	4.83	5.18	7.24	1.75
Denmark	4.62	3.48	2.38	2.14	2.17	3.13	4.32	4.87	1.81
Czech Republic	5.17	3.55	2.28	2.36	2.01	2.30	3.10	4.04	2.19
Norway	7.23	6.91	4.10	2.01	2.21	3.10	4.96	6.22	2.46
Korea	5.32	4.81	4.31	3.79	3.65	4.48	5.16	5.49	2.63
New Zealand	5.74	5.67	5.42	6.13	7.11	7.55	8.33	8.02	3.03
Australia	4.90	4.75	4.90	5.48	5.64	5.99	6.67	6.97	3.43
Poland	15.72	8.77	5.69	6.24	5.20	4.20	4.77	6.35	4.34
Mexico	13.43	8.45	7.16	7.44	9.63	7.69	7.78	8.35	5.93
Iceland	11.99	8.97	5.35	6.29	9.36	12.35	14.29	15.82	11.28

출처 <http://stats.oecd.org>

68. 정부의 시장규제지수*

	1998	2003	2008
United States	1.3	1.0	0.8
United Kingdom	1.1	0.8	0.8
Ireland	1.6	1.3	0.9
Canada	1.3	1.1	1.0
Netherlands	1.7	1.4	1.0
Iceland	1.7	1.2	1.0
Spain	2.5	1.7	1.0
Denmark	1.6	1.2	1.1
Japan	2.2	1.4	1.1
Norway	1.9	1.4	1.2
Switzerland	2.5	1.7	1.2
Finland	2.1	1.3	1.2
Australia	1.5	1.2	1.2
New Zealand	1.4	1.1	1.3
Hungary	2.3	1.9	1.3
Sweden	1.9	1.5	1.3
Germany	2.1	1.6	1.3
Italy	2.6	1.8	1.4
Belgium	2.2	1.6	1.4
Portugal	2.2	1.6	1.4
Austria	2.3	1.8	1.5
France	2.5	1.7	1.5
Korea	2.3	1.8	1.5
Luxembourg	..	1.5	1.6
Czech Republic	3.0	2.0	1.6
Slovak Republic	..	1.8	1.6
Mexico	2.4	2.0	1.9
Poland	4.0	3.0	2.3
Turkey	3.3	2.6	2.4
Greece	3.0	2.6	2.4

출처 <http://stats.oecd.org>

- * i) 직접규제(공기업 운영 등) ii) 기업활동규제(허가/면허, 창업, 독과점 체제 등)
 iii) 무역/투자 관련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규제정도를 측정, 0~6까지의 값을 가짐.

69. 정부지출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celand	41.9	42.6	44.3	45.6	44.1	42.2	41.6	42.3	57.8	51.5
Sweden	55.6	55.5	56.7	57.0	55.6	55.2	54.1	52.5	53.1	56.5
France	51.6	51.6	52.6	53.3	53.2	53.4	52.7	52.3	52.8	56.0
Denmark	53.7	54.2	54.6	55.1	54.6	52.8	51.6	50.9	51.8	58.5
Belgium	49.1	49.2	49.8	51.1	49.4	52.2	48.6	48.4	50.0	54.3
Finland	48.3	47.8	48.9	50.2	50.0	50.2	49.0	47.3	49.5	55.6
Hungary	46.9	47.3	51.2	49.4	48.7	50.1	52.0	49.8	49.2	49.8
Austria	52.1	51.6	51.0	51.5	54.0	50.2	49.5	48.7	49.0	51.8
Italy	46.2	48.0	47.4	48.3	47.7	48.2	48.7	47.9	48.8	51.9
United Kingdom	39.1	40.2	41.1	42.1	42.9	44.1	44.1	44.2	47.3	51.6
Greece	46.7	45.3	45.1	44.7	45.4	43.8	43.2	45.0	46.8	50.4
Portugal	43.1	44.4	44.3	45.5	46.5	47.6	46.3	45.8	46.2	51.1
Netherlands	44.2	45.4	46.2	47.1	46.1	44.8	45.5	45.5	45.9	51.6
Germany	45.1	47.6	48.1	48.5	47.1	46.8	45.4	43.7	43.7	47.5
Poland	41.1	43.8	44.3	44.7	42.6	43.4	43.9	42.2	43.3	44.5
Czech Republic	41.8	44.4	46.3	47.3	45.1	45.0	43.8	42.5	42.9	..
Ireland	31.3	33.2	33.5	33.2	33.5	34.0	34.4	36.6	42.0	48.4
New Zealand	38.3	37.6	36.9	37.0	37.1	38.0	39.3	39.4	41.9	..
Spain	39.1	38.6	38.9	38.4	38.9	38.4	38.4	39.2	41.1	45.9
Norway	42.3	44.1	47.1	48.2	45.4	42.1	40.5	41.1	40.2	45.9
Canada	41.1	42.0	41.2	41.2	39.9	39.3	39.4	39.2	39.8	..
United States	33.9	35.0	35.9	36.3	36.0	36.3	36.0	36.7	38.8	..
Luxembourg	37.6	38.1	41.5	41.8	42.6	41.5	38.3	36.2	37.2	42.4
Japan	39.1	38.6	38.8	38.4	37.0	38.4	36.2	36.0	37.1	..
Mexico	30.8	29.9	30.6	31.4	31.5	36.0	..
Australia	35.5	35.0	34.4	34.4	34.5	33.7	33.5	33.4	35.3	..
Slovak Republic	52.2	44.5	45.1	40.2	37.7	38.0	36.9	34.4	34.8	40.8
Switzerland	35.1	34.8	36.2	36.4	36.0	35.3	33.5	32.2	31.8	..
Korea	22.4	23.9	23.6	28.9	26.1	26.6	27.7	28.7	30.0	..

출처 <http://stats.oecd.org>

70. 기능별 정부지출비중 - 행정, 국방, 치안분야

(%)	2004	2005	2006	2007	2008
United States	30.1	30.5	30.7	30.9	30.4
Korea	27.1	27.7	28.0	27.6	..
Canada	25.9	25.6	25.1
Italy	25.5	25.5	24.4	24.9	25.0
Hungary	26.3	25.8	25.5	25.3	24.8
Greece	28.9	27.8	26.7	27.2	24.5
Netherlands	23.7	24.0	23.0	22.9	22.8
Belgium	24.5	22.8	23.1	23.3	22.7
Portugal	21.7	21.4	22.1	21.3	22.6
Slovak Republic	26.2	25.6	23.2	21.1	21.2
New Zealand	19.2	20.7
Poland	20.8	20.8	20.4	20.9	20.5
United Kingdom	21.4	21.5	21.2	21.2	20.3
Sweden	19.3	19.3	19.9	19.9	19.7
Germany	18.8	19.0	19.2	19.5	19.6
Japan	19.7	18.8	19.4	19.3	..
France	19.7	19.7	19.1	19.0	19.2
Switzerland	19.2	..
Finland	19.0	19.2	18.9	18.8	19.1
Spain	19.8	19.7	19.5	19.0	18.6
Austria	17.4	18.7	19.0	18.9	18.3
Czech Republic	18.8	20.6	17.9	18.0	17.9
Norway	16.1	15.7	16.8	16.5	16.9
Iceland	15.5	15.5	15.2	16.7	..
Denmark	17.4	16.7	16.8	16.7	16.7
Luxembourg	14.3	13.9	13.4	13.6	13.9
Ireland	15.6	14.7	13.8	13.4	13.1

출처 <http://stats.oecd.org>

71. 기능별 정부지출비중 - 경제분야

(%)	2004	2005	2006	2007	2008
Korea	22.9	22.4	22.0	22.1	..
Czech Republic	16.7	15.4	16.2	16.1	16.8
Slovak Republic	11.5	9.9	10.5	12.0	15.6
Greece	13.0	10.5	9.3	10.0	13.8
Iceland	14.4	13.6	14.2	13.7	..
Ireland	11.3	11.0	11.7	11.2	12.6
Spain	13.4	12.6	12.6	13.0	12.4
Hungary	11.3	11.1	12.1	13.0	12.0
Switzerland	11.4	..
Poland	7.9	8.9	10.2	11.2	11.4
Luxembourg	11.4	10.6	12.2	11.0	11.4
Belgium	8.4	13.7	10.1	10.4	10.7
Netherlands	10.5	10.5	10.3	10.5	10.7
New Zealand	10.2	10.5
United States	10.3	10.2	9.8	9.8	10.4
Japan	11.5	13.5	10.5	10.4	..
United Kingdom	6.2	6.5	6.7	6.5	10.1
Austria	15.5	9.7	10.0	9.5	10.0
Portugal	9.6	9.2	8.3	8.2	9.7
Finland	9.5	9.4	9.5	9.3	9.5
Sweden	8.5	9.1	8.7	8.9	9.4
Norway	8.8	9.2	8.9	9.0	9.1
Canada	8.5	8.5	8.6
Germany	7.8	7.5	7.2	7.2	7.7
Italy	8.1	7.8	9.8	8.3	7.6
Denmark	6.7	6.8	6.8	6.6	6.6
France	5.6	5.6	5.5	5.5	5.3

출처 <http://stats.oecd.org>

72. 기능별 정부지출비중 - 보건, 사회, 문화분야

(%)	2004	2005	2006	2007	2008
Germany	61.1	61.3	61.4	61.2	60.7
Denmark	58.8	59.2	59.4	59.8	59.9
France	58.1	58.3	58.9	59.0	59.2
Austria	54.2	57.8	58.1	58.7	58.7
Luxembourg	58.4	59.8	59.0	59.5	58.7
Finland	57.8	57.8	58.1	58.3	57.9
Norway	58.4	58.6	58.0	58.3	57.8
Sweden	57.2	56.6	56.4	56.2	55.8
Italy	53.5	53.7	53.2	53.9	54.8
Japan	52.1	50.8	54.0	54.4	..
Portugal	50.3	50.8	52.0	55.5	54.2
Greece	49.2	52.8	54.9	54.2	53.3
Ireland	52.7	53.5	53.2	53.0	53.0
Belgium	53.3	50.2	52.8	52.4	52.9
Spain	51.2	52.0	52.3	52.0	52.8
United Kingdom	54.5	53.9	53.5	53.5	51.5
Netherlands	50.1	49.8	51.5	51.2	50.9
Poland	53.3	51.6	51.6	50.5	50.8
Switzerland	50.2	..
Slovak Republic	48.0	50.3	51.8	51.4	50.2
Czech Republic	47.9	47.2	48.4	49.9	49.7
Hungary	47.5	48.3	47.8	47.6	48.9
Iceland	49.0	48.5	47.5	47.7	..
New Zealand	46.9	45.2
Canada	43.9	44.4	44.3
United States	40.8	40.2	40.7	40.5	40.8
Korea	23.7	25.3	26.5	27.7	..

출처 <http://stats.oecd.org>

73. 기능별 정부지출비중 - 교육분야

(%)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18.6	19.8	19.9	19.2	..
New Zealand	19.0	18.6
Canada	18.2	17.8	18.3
Switzerland	16.8	..
United States	17.1	16.8	17.0	16.9	16.6
Korea	18.8	18.0	16.7	15.9	..
Denmark	15.0	15.1	15.0	14.5	14.7
United Kingdom	13.7	14.0	13.9	13.9	13.4
Poland	13.4	14.0	13.6	13.4	13.3
Sweden	12.8	12.8	12.9	12.9	13.1
Norway	13.7	13.6	13.4	13.3	13.1
Portugal	15.9	16.0	15.3	12.7	13.1
Ireland	13.7	13.7	13.6	13.5	12.7
Finland	12.6	12.3	12.2	12.2	12.0
Belgium	11.7	11.3	12.0	11.9	11.9
Luxembourg	11.5	11.4	11.3	11.7	11.8
Netherlands	11.4	11.4	11.2	11.5	11.4
Spain	11.3	11.2	11.2	11.2	11.3
France	11.6	11.4	11.3	11.2	11.1
Austria	10.8	11.6	10.6	10.6	10.9
Czech Republic	10.7	10.6	11.3	10.9	10.9
Japan	10.8	10.6	10.7	10.8	..
Hungary	11.9	11.8	11.0	10.7	10.6
Slovak Republic	10.5	10.4	10.6	11.5	9.5
Italy	9.6	9.8	9.5	9.6	9.5
Germany	9.1	9.0	9.1	9.1	9.1
Greece	6.8	6.9	7.0	6.7	6.5

출처 <http://stats.oecd.org>

74. 공무원수 비중(경제활동인구대비)

(%)	1995	2005
Norway	..	28.8
Sweden	29.8	28.3
France(04)	21.6	21.9
Finland	21.0	21.3
Hungary	..	19.2
Belgium	16.9	17.1
Canada	17.9	15.6
Ireland	15.9	14.7
United Kingdom	..	14.6
Italy	14.2	14.2
Greece	..	14.1
United States	..	14.1
Australia	13.9	13.6
Portugal	13.0	13.4
Poland	..	13.4
Spain	11.5	13.0
Czech Republic	12.8	12.9
Netherlands	13.1	12.8
Mexico	..	11.1
Germany	12.2	10.4
Austria	11.8	10.2
Slovak Republic	8.9	9.5
Turkey	9.1	9.2
Switzerland	7.2	7.1
Korea(04)	5.8	5.5
Japan	..	5.3

출처 <http://stats.oecd.org>

75. 전자정부 발전지수*

	2003	2004	2005	2008	2010
Sweden	0.84	0.87	0.90	0.92	0.75
Denmark	0.82	0.90	0.91	0.91	0.79
Norway	0.78	0.82	0.82	0.89	0.80
United States	0.93	0.91	0.91	0.86	0.85
Netherlands	0.75	0.80	0.80	0.86	0.81
Korea	0.74	0.86	0.87	0.832	0.88
Canada	0.81	0.84	0.84	0.82	0.84
Australia	0.83	0.84	0.87	0.81	0.79
France	0.69	0.67	0.69	0.80	0.75
United Kingdom	0.81	0.89	0.88	0.79	0.81
Japan	0.69	0.73	0.78	0.77	0.72
Switzerland	0.76	0.75	0.75	0.76	0.71
Luxembourg	0.66	0.66	0.65	0.75	0.67
Finland	0.76	0.82	0.82	0.75	0.70
Austria	0.68	0.75	0.76	0.743	0.67
New Zealand	0.72	0.78	0.80	0.739	0.73
Ireland	0.70	0.71	0.73	0.73	0.69
Spain	0.60	0.58	0.58	0.72	0.75
Iceland	0.70	0.77	0.78	0.72	0.67
Germany	0.76	0.79	0.81	0.71	0.73
Belgium	0.67	0.75	0.74	0.68	0.72
Czech Republic	0.54	0.62	0.64	0.67	0.61
Italy	0.69	0.66	0.68	0.67	0.58
Hungary	0.52	0.59	0.65	0.65	0.63
Portugal	0.65	0.60	0.61	0.65	0.58
Poland	0.58	0.60	0.59	0.61	0.56
Mexico	0.59	0.60	0.61	0.59	0.52
Slovakia	0.53	0.56	0.59	0.59	0.56
Greece	0.54	0.56	0.59	0.57	0.57
Turkey	0.51	0.49	0.50	0.48	0.48

출처 <http://www.un.org/>

* 각 국의 정부의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정도를 측정

76. 창업일수

(일)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pain	115	108	47	47	47	47	47	47
Poland	43	31	31	31	31	31	32	32
Austria	29	29	29	29	28	28	28	28
Japan	31	31	31	23	23	23	23	23
Czech Republic	88	40	40	24	17	15	15	20
Switzerland	20	20	20	20	20	20	20	20
Greece	45	38	38	38	38	19	19	19
Luxembourg	26	26	24	19
Slovak Republic	98	52	25	25	25	16	16	16
Germany	45	45	24	24	18	18	18	15
Sweden	16	16	16	16	15	15	15	15
Finland	33	14	14	14	14	14	14	14
Korea	33	22	22	22	17	17	14	14
Ireland	12	24	24	19	13	13	13	13
United Kingdom	18	18	18	18	13	13	13	13
Mexico	51	58	58	27	27	28	13	9
Netherlands	11	11	11	10	10	10	10	8
France	53	8	8	8	7	7	7	7
Norway	24	23	13	13	10	10	7	7
Denmark	4	4	5	5	6	6	6	6
Italy	23	13	13	13	13	10	10	6
Portugal	95	78	54	8	7	6	6	6
Turkey	38	9	9	9	6	6	6	6
USA	4	5	5	5	6	6	6	6
Canada	3	3	3	3	3	5	5	5
Iceland	5	5	5	5	5	5
Belgium	56	34	34	27	4	4	4	4
Hungary	65	52	38	38	16	5	4	4
Australia	2	2	2	2	2	2	2	2
New Zealand		12	12	12	12	1	1	1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exploreTopics/StartingBusiness/>

77. 창업절차

(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reece	15	15	15	15	15	15	15
Spain	10	10	10	10	10	10	10
Germany	9	9	9	9	9	9	9
Czech Republic	10	10	10	10	10	8	9
Korea, Rep.	10	10	10	10	10	10	8
Japan	11	11	11	8	8	8	8
Austria	8	8	8	8	8	8	8
United States	6	6	6	6	6	6	6
United Kingdom	6	6	6	6	6	6	6
Turkey	13	6	6	6	6	6	6
Switzerland	6	6	6	6	6	6	6
Slovak Republic	10	9	9	9	9	6	6
Portugal	11	11	11	8	7	6	6
Poland	10	10	10	10	10	10	6
Netherlands	7	7	7	6	6	6	6
Mexico	9	9	9	8	8	9	6
Luxembourg	6	6	6	6
Italy	9	9	9	9	9	6	6
Norway	5	5	5	4	5	5	5
Iceland	..	5	5	5	5	5	5
France	8	5	5	5	5	5	5
Ireland	4	4	4	4	4	4	4
Hungary	6	6	6	6	6	4	4
Denmark	5	5	4	4	4	4	4
Sweden	3	3	3	3	3	3	3
Finland	3	3	3	3	3	3	3
Belgium	7	4	4	4	3	3	3
Australia	2	2	2	2	2	2	2
New Zealand	2	2	2	2	2	1	1
Canada	2	2	2	2	2	1	1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exploreTopics/StartingBusiness/>

78. 창업비용(% of income per capita)

(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reece	31.6	30.5	20.0	19.8	19.4	10.2	20.7
Italy	22.1	21.4	20.7	20	18.7	18.5	18.5
Poland	21.2	20.6	22.2	21.4	21.2	18.8	17.5
Turkey	36.8	26.0	27.4	26.5	20.7	14.9	17.2
Spain	16.8	17.0	16.5	16.2	15.1	14.9	15.1
Korea, Rep.	18.4	15.7	15.7	18.2	17.1	16.9	14.7
Mexico	17.6	16.7	15.6	14.2	13.3	12.5	12.3
Czech Republic	10.0	10.8	9.5	8.9	10.6	9.6	9.3
Hungary	40.4	22.9	22.4	20.9	17.7	8.4	8.2
Japan	10.7	10.6	10.7	7.5	7.5	7.5	7.5
Portugal	12.0	13.5	13.4	7.9	7.0	7.0	6.5
Netherlands	13.3	13.2	13.0	7.2	6.0	5.9	5.7
Belgium	11.1	11.3	11.1	5.8	5.3	5.2	5.4
Austria	6.1	6.0	5.7	5.6	5.4	5.1	5.2
Germany	5.9	5.9	4.7	5.1	5.7	5.6	4.8
Iceland	..	3.1	2.8	3.0	2.7	2.6	2.3
Luxembourg	11.9	10.8	6.8	2.1
Switzerland	8.6	8.6	8.7	2.2	2.1	2.1	2.1
Slovak Republic	9.4	5.7	5.1	4.8	4.2	3.3	1.9
Norway	3.5	2.9	2.7	2.5	2.3	2.1	1.8
United States	0.7	0.7	0.8	0.8	0.7	0.7	1.4
Finland	1.1	1.2	1.2	1.1	1.0	1.0	1.1
France	1.3	1.1	1.2	1.1	1.1	1.0	0.9
Australia	2.0	2.1	1.9	1.8	0.8	0.8	0.7
United Kingdom	1.0	0.9	0.7	0.7	0.8	0.8	0.7
Sweden	0.7	0.7	0.7	0.7	0.6	0.6	0.6
Canada	0.6	1.0	0.9	0.9	0.9	0.5	0.4
Ireland	10.4	10.3	5.3	0.3	0.3	0.3	0.4
New Zealand	0.2	0.2	0.2	0.2	0.1	0.4	0.4
Denmark	0	0	0	0	0	0	0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exploreTopics/StartingBusiness/>

79. 폐업비용(기업의 총자산대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Italy	18	18	22	22	22	22	22
Poland	22	22	22	22	22	20	20
Austria	18	18	18	18	18	18	18
Mexico	18	18	18	18	18	18	18
Slovak Republic	18	18	18	18	18	18	18
Czech Republic	18	18	15	15	15	15	17
Hungary	15	15	15	15	15	15	15
Luxembourg	15	15	15	15
Turkey	15	15	15	15	15	15	15
Spain	15	15	15	15	15	15	11
France	9	9	9	9	9	9	9
Greece	9	9	9	9	9	9	9
Ireland	9	9	9	9	9	9	9
Portugal	9	9	9	9	9	9	9
Sweden	9	9	9	9	9	9	9
Australia	8	8	8	8	8	8	8
Germany	1	1	8	8	8	8	8
United States	7	7	7	7	7	7	7
United Kingdom	6	6	6	6	6	6	6
Belgium	4	4	4	4	4	4	4
Canada	4	4	4	4	4	4	4
Denmark	4	4	4	4	4	4	4
Finland	4	4	4	4	4	4	4
Iceland	..	4	4	4	4	4	4
Japan	4	4	4	4	4	4	4
Korea, Rep.	4	4	4	4	4	4	4
Netherlands	4	4	4	4	4	4	4
New Zealand	4	4	4	4	4	4	4
Switzerland	4	4	4	4	4	4	4
Norway	1	1	1	1	1	1	1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exploreTopics/ClosingBusiness/>

80. 해고비용(weeks of salary)

(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Portugal	95	95	95	95	95	95
Turkey	95	95	95	95	95	95
Korea, Rep.	91	91	91	91	91	91
Germany	69	69	69	69	69	69
Spain	56	56	56	56	56	56
Mexico	52	52	52	52	52	52
Luxembourg	39	39	39
Hungary	35	35	35	35	35	35
France	32	32	32	32	32	32
Canada	28	28	28	28	28	28
Finland	26	26	26	26	26	26
Slovak Republic	13	13	13	13	26	26
Sweden	26	26	26	26	26	26
Greece	24	24	24	24	24	24
Czech Republic	22	22	22	22	22	22
United Kingdom	22	22	22	22	22	22
Ireland	13	24	24	24	18	18
Netherlands	17	17	17	17	17	17
Belgium	16	16	16	16	16	16
Iceland	..	13	13	13	13	13
Norway	13	13	13	13	13	13
Poland	13	13	13	13	13	13
Switzerland	13	13	13	13	13	13
Italy	2	2	2	2	2	11
Australia	4	4	4	4	4	4
Japan	4	4	4	4	4	4
Austria	2	2	2	2	2	2
Denmark	0	0	0	0	0	0
New Zealand	0	0	0	0	0	0
United States	0	0	0	0	0	0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exploreTopics/EmployingWorkers/>

81. 법인세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United States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France	37.76	36.43	35.43	35.43	35.43	34.95	34.43	34.43	34.43	34.43	34.43
Belgium	40.20	40.20	40.20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Australia	34.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Japan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Mexico	35.00	35.00	35.00	34.00	33.00	30.00	29.00	28.00	28.00	28.00	30.00
New Zealand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0.00	30.00	30.00
Spain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2.50	30.00	30.00	30.00
Norway	28.00	28.00	28.00	28.00	28.00	23.75	28.00	28.00	28.00	28.00	28.00
United Kingdom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8.00	28.00	28.00
Italy	37.00	36.00	36.00	34.00	33.00	33.00	33.00	33.00	27.50	27.50	27.50
Sweden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6.30	26.30
Finland	29.00	29.00	29.00	29.00	29.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Netherlands	35.00	35.00	34.50	34.50	34.50	31.50	29.60	25.50	25.50	25.50	25.50
Austria	34.00	34.00	34.00	34.00	34.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Denmark	32.00	30.00	30.00	30.00	30.00	28.00	28.00	25.00	25.00	25.00	25.00
Portugal	32.00	32.00	30.00	30.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Greece	40.00	37.50	35.00	35.00	35.00	32.00	29.00	25.00	25.00	25.00	24.00
Korea	28.00	28.00	27.00	27.00	27.00	25.00	25.00	25.00	25.00	22.00	22.00
Luxembourg	31.20	31.20	22.88	22.88	22.88	22.88	22.88	22.88	22.88	21.84	21.84
Turkey	33.00	33.00	33.00	30.00	33.00	30.00	20.00	20.00	20.00	20.00	20.00
Czech Republic	31.00	31.00	31.00	31.00	28.00	26.00	24.00	24.00	21.00	20.00	19.00
Hungary	18.00	18.00	18.00	18.00	16.00	16.00	17.33	20.00	20.00	20.00	19.00
Poland	30.00	28.00	28.00	27.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lovak Republic	29.00	29.00	25.00	25.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Canada	29.12	28.12	26.12	24.12	22.12	22.12	22.12	22.12	19.50	19.00	18.00
Germany	42.20	26.38	26.38	27.96	26.38	26.38	26.38	26.38	15.83	15.83	15.83
Iceland	30.00	30.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5.00	15.00	15.00
Ireland	24.00	20.00	16.0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Switzerland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4/0,3343,en_2649_34533_41407428_1_1_1_1,00.html

82. 조세격차(Tax wedge)*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Mexico	12.61	13.20	15.83	16.76	15.25	14.70	15.01	15.91	15.09
Korea	16.27	16.44	16.10	16.33	17.01	17.28	18.14	19.68	20.26
New Zealand	19.37	19.43	19.47	19.69	20.00	20.42	21.07	21.54	21.18
Ireland	28.87	25.78	24.52	24.19	24.00	23.48	22.98	22.75	22.93
Australia	30.55	27.32	27.65	27.99	27.98	28.32	28.30	27.72	26.94
Iceland	26.17	26.87	28.46	29.34	29.84	29.70	29.50	28.12	28.32
Switzerland	30.04	30.05	30.07	29.66	29.44	29.49	29.49	29.74	29.45
Japan	24.78	24.94	30.49	27.38	27.34	27.72	28.79	29.32	29.51
United States	30.36	30.27	30.12	29.89	29.85	29.75	29.87	29.68	30.12
Canada	33.15	31.99	32.14	31.97	31.98	31.94	31.86	31.20	31.34
United Kingdom	32.59	32.19	32.25	33.79	33.92	33.94	34.01	34.01	32.80
Luxembourg	37.50	35.80	32.94	33.47	33.87	34.74	35.33	36.30	35.85
Portugal	37.33	36.44	36.61	36.75	37.79	37.27	37.41	37.68	37.64
Norway	38.56	39.22	38.65	38.09	38.15	37.24	37.42	37.54	37.69
Spain	38.56	38.84	39.05	38.52	38.74	38.91	39.11	38.95	37.79
Slovak Republic	41.67	42.73	42.49	42.85	42.46	38.29	38.50	38.57	38.85
Poland	43.07	42.78	42.72	42.99	43.16	43.41	43.67	42.91	39.73
Turkey	40.36	43.60	42.48	42.19	42.76	42.80	42.69	42.74	39.74
Denmark	44.35	43.61	42.63	42.58	41.26	41.15	41.26	41.38	41.19
Greece	38.46	38.24	38.99	37.95	39.98	40.49	41.88	42.30	42.42
Czech Republic	42.70	42.62	42.92	43.19	43.53	43.76	42.55	42.94	43.40
Finland	47.80	46.35	45.90	45.05	44.46	44.62	44.02	43.59	43.53
Sweden	50.14	49.10	47.77	48.23	48.40	48.05	47.75	45.32	44.62
Netherlands	39.69	37.23	37.37	37.09	38.82	38.92	44.57	44.26	44.95
Italy	46.94	46.43	46.40	45.70	46.01	45.74	45.89	46.24	46.49
Austria	47.31	46.91	47.07	47.38	48.11	47.96	48.26	48.58	48.78
France	49.56	49.81	49.75	49.81	49.86	50.05	50.10	49.23	49.28
Germany	53.96	53.03	53.48	54.22	53.23	53.05	53.30	52.60	52.02
Hungary	54.64	55.81	53.75	50.78	51.78	51.11	51.96	54.53	54.09
Belgium	57.10	56.66	56.33	55.74	55.43	55.51	55.49	55.77	55.97

출처 <http://stats.oecd.org>

*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과의 차이

83.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Mexico	15.8	16.9	17.1	16.5	17.4	17.1	18.1	18.3	18.0	20.4
Turkey	23.1	24.2	26.1	24.6	25.9	24.1	24.3	24.5	23.7	23.5
Korea	20.6	22.6	23.0	23.2	23.9	23.2	23.9	25.0	26.5	26.6
United States	29.4	29.9	28.8	26.5	25.9	26.1	27.5	28.2	28.3	26.9
Ireland	31.5	31.3	29.1	28.0	28.5	29.9	30.4	31.7	30.8	28.3
Japan	26.3	27.0	27.3	26.2	25.7	26.3	27.4	28.0	28.3	..
Slovak Republic	35.4	34.1	33.2	33.2	33.1	31.6	31.4	29.4	29.4	29.3
Switzerland	28.7	30.0	29.5	29.9	29.2	28.8	29.2	29.3	28.9	29.4
Australia	30.5	31.1	29.6	30.5	30.6	31.1	30.8	30.6	30.8	..
Greece	32.9	34.0	32.9	33.6	32.2	31.1	31.4	31.2	32.0	31.3
Canada	36.4	35.6	34.8	33.7	33.7	33.6	33.4	33.5	33.3	32.2
Spain	34.1	34.2	33.8	34.2	34.2	34.6	35.7	36.7	37.2	33.0
New Zealand	33.4	33.6	33.0	34.4	34.2	35.3	37.4	36.6	35.7	34.5
Poland	35.1	32.8	32.6	33.1	32.6	31.7	33.0	34.0	34.9	..
United Kingdom	35.7	36.4	36.1	34.6	34.3	34.9	35.8	36.6	36.1	35.7
Iceland	36.9	37.2	35.4	35.3	36.7	38.0	40.6	41.5	40.9	36.0
Germany	37.1	37.2	36.1	35.4	35.5	34.8	34.8	35.6	36.2	36.4
Portugal	33.9	34.1	33.8	34.5	34.7	33.9	34.7	35.5	36.4	36.5
Czech Republic	35.8	35.3	35.6	36.3	37.3	37.8	37.6	37.1	37.4	36.6
Netherlands	40.1	39.7	38.2	37.5	36.9	37.3	38.5	38.9	37.5	..
Luxembourg	38.3	39.1	39.7	39.3	38.1	37.2	37.6	35.8	36.5	38.3
Hungary	38.1	38.0	38.1	37.9	37.6	37.6	37.3	37.1	39.5	40.1
Norway	42.7	42.6	42.9	43.1	42.3	43.3	43.5	44.0	43.6	42.1
Finland	45.8	47.2	44.6	44.6	44.0	43.5	44.0	43.5	43.0	42.8
Austria	44.0	43.2	45.3	44.0	43.8	43.4	42.3	41.8	42.3	42.9
France	45.1	44.4	44.0	43.4	43.2	43.5	43.9	44.0	43.5	43.1
Italy	42.5	42.3	42.0	41.4	41.8	41.0	40.8	42.3	43.5	43.2
Belgium	45.2	44.9	44.9	45.0	44.6	44.8	44.7	44.4	43.9	44.3
Sweden	51.4	51.8	49.8	47.9	48.3	48.7	49.5	49.0	48.3	47.1
Denmark	50.1	49.4	48.4	47.8	48.0	49.0	50.8	49.6	48.7	48.3

출처 <http://stats.oecd.org>

84. 조세부담률(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lovak Republic	21.4	20.0	18.8	18.6	19.3	18.5	18.8	17.6	17.7	17.4
Mexico	13.1	14.1	14.2	13.5	14.4	14.3	15.3	15.5	15.2	17.7
Turkey	18.9	19.6	20.5	19.7	20.5	18.3	18.8	19.0	18.6	17.9
Japan	16.9	17.5	17.3	16.2	15.8	16.4	17.3	17.7	18.0	..
United States	22.5	23.0	21.9	19.6	19.1	19.3	20.8	21.5	21.7	20.3
Greece	22.8	23.6	22.3	22.0	20.4	20.0	20.3	20.2	20.4	20.3
Czech Republic	20.3	19.7	20.0	20.3	21.1	21.8	21.5	20.9	21.1	20.6
Korea	17.1	18.8	18.8	18.8	19.3	18.4	18.9	19.7	21.0	20.8
Spain	22.3	22.3	21.7	22.1	22.1	22.6	23.7	24.6	25.1	20.9
Switzerland	21.4	22.7	21.9	22.2	21.8	21.8	22.2	22.5	22.2	22.6
Poland	21.3	19.8	19.2	20.1	19.8	19.3	20.7	21.8	22.9	..
Germany	22.5	22.7	21.8	21.2	21.1	20.6	20.9	21.9	22.9	23.2
Ireland	27.4	27.1	24.8	23.7	24.3	25.4	25.8	27.1	26.1	23.2
Netherlands	24.6	24.2	24.4	24.2	23.5	23.5	25.4	24.8	24.0	..
Portugal	23.8	23.8	23.3	23.7	23.6	22.8	23.4	24.1	24.7	24.5
France	29.0	28.4	28.0	27.3	26.9	27.4	27.7	27.8	27.4	27.0
Hungary	26.6	26.9	26.8	26.4	26.1	26.3	25.7	25.2	26.6	27.1
Canada	31.5	30.8	29.8	28.6	28.5	28.6	28.4	28.6	28.5	27.5
Luxembourg	28.2	29.1	28.8	28.4	27.4	26.5	27.2	25.9	26.4	27.5
Austria	29.0	28.5	30.4	29.3	29.1	28.8	27.8	27.4	28.0	28.5
United Kingdom	29.6	30.2	30.0	28.7	28.1	28.3	29.0	29.8	29.5	28.8
Italy	30.4	30.2	30.0	29.2	29.4	28.6	28.3	29.8	30.4	29.8
Belgium	30.9	31.0	30.7	30.6	30.3	30.8	31.0	30.8	30.3	30.3
Finland	33.2	35.3	32.6	32.8	32.3	31.8	32.0	31.3	31.1	30.8
Iceland	34.1	34.4	32.6	32.5	33.7	34.9	37.5	38.2	37.7	33.1
Norway	32.7	33.7	33.6	33.2	32.5	33.9	34.6	35.2	34.6	33.2
Sweden	39.1	38.1	35.6	34.0	34.8	35.4	36.3	36.5	35.7	35.4
Denmark	48.5	47.6	46.7	46.6	46.8	47.8	49.7	48.6	47.7	47.3

출처 <http://stats.oecd.org>

85. 사회보장부담률(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Denmark	1.6	1.8	1.7	1.2	1.2	1.2	1.1	1.0	1.0	1.0
Mexico	2.8	2.8	2.9	3.0	2.9	2.8	2.8	2.7	2.8	2.7
Iceland	2.8	2.9	2.8	2.9	3.1	3.1	3.2	3.3	3.1	2.9
Canada	4.9	4.9	5.1	5.2	5.3	5.1	5.0	5.0	4.8	4.7
Ireland	4.1	4.2	4.3	4.2	4.3	4.5	4.6	4.6	4.7	5.0
Turkey	4.3	4.5	5.6	4.9	5.4	5.7	5.4	5.5	5.1	5.7
Korea	3.5	3.8	4.2	4.4	4.7	4.8	5.0	5.2	5.5	5.8
United States	6.9	6.9	7.0	6.9	6.8	6.8	6.7	6.7	6.6	6.6
Switzerland	7.3	7.3	7.6	7.6	7.5	7.0	7.0	6.8	6.7	6.8
United Kingdom	6.1	6.2	6.2	5.9	6.3	6.6	6.7	6.8	6.6	6.9
Norway	10.0	8.9	9.2	9.9	9.8	9.4	8.9	8.7	9.1	8.9
Japan	9.4	9.5	9.9	10.0	9.9	9.9	10.1	10.2	10.3	..
Luxembourg	10.1	10.1	10.9	10.9	10.8	10.7	10.5	9.9	10.2	10.8
Greece	10.1	10.4	10.6	11.6	11.8	11.1	11.1	11.0	11.7	11.0
Sweden	12.3	13.6	14.2	13.9	13.6	13.3	13.2	12.5	12.6	11.7
Slovak Republic	14.0	14.1	14.3	14.6	13.8	13.1	12.6	11.7	11.7	11.9
Portugal	10.1	10.3	10.5	10.8	11.1	11.1	11.4	11.4	11.7	11.9
Poland	13.7	12.9	13.4	12.9	12.8	12.3	12.3	12.2	12.0	..
Finland	12.6	11.9	12.0	11.9	11.8	11.7	12.0	12.1	11.9	12.0
Spain	11.9	11.9	12.1	12.0	12.1	12.1	12.0	12.1	12.1	12.1
Hungary	11.5	11.2	11.3	11.5	11.5	11.3	11.7	11.9	12.9	13.0
Germany	14.6	14.5	14.4	14.3	14.4	14.2	13.9	13.7	13.2	13.3
Italy	12.1	12.1	12.0	12.2	12.4	12.4	12.6	12.5	13.0	13.4
Netherlands	15.5	15.4	13.8	13.3	13.4	13.8	13.1	14.1	13.6	..
Belgium	14.2	13.9	14.2	14.4	14.3	14.0	13.7	13.5	13.6	14.0
Austria	15.0	14.8	14.8	14.6	14.7	14.6	14.5	14.4	14.2	14.3
Czech Republic	15.6	15.6	15.7	16.0	16.3	16.0	16.1	16.2	16.2	16.0
France	16.2	16.0	16.0	16.1	16.3	16.1	16.2	16.3	16.1	16.0
Australia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처 <http://stats.oecd.org>

86.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부담률(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ew Zealan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celand	0.18	0.20	0.22	0.20	0.19	0.18	0.17	0.17	0.17
Mexico	1.58	1.53	1.53	1.52	1.50	1.48	1.45	1.41	1.36
Ireland	5.15	4.89	4.96	4.98	5.05	5.09	5.12	5.19	5.24
Finland	7.03	6.54	6.13	6.10	6.11	6.35	6.76	6.72	6.18
Spain	6.35	6.35	6.35	6.35	6.35	6.35	6.35	6.35	6.35
Sweden	6.98	7.01	7.01	7.01	7.00	7.00	6.99	7.01	7.00
Canada	5.93	6.15	6.46	6.60	6.77	7.56	7.43	7.35	7.24
Korea	6.70	6.70	6.70	6.92	7.06	7.11	7.19	7.34	7.59
United States	7.65	7.65	7.65	7.65	7.65	7.65	7.65	7.65	7.65
Norway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United Kingdom	8.41	8.25	8.28	9.18	9.22	9.23	9.24	9.25	9.21
Italy	9.19	9.19	9.19	9.19	9.19	9.19	9.19	9.49	9.49
Denmark	11.72	10.70	10.65	10.65	10.67	10.69	10.67	10.61	10.57
Portugal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Switzerland	11.55	11.55	11.55	11.30	11.05	11.05	11.05	11.05	11.05
Luxembourg	11.72	11.72	11.55	11.55	11.55	11.70	11.70	12.05	12.06
Japan	10.00	10.00	13.63	11.59	11.59	11.84	12.22	12.08	12.20
Czech Republic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Slovak Republic	12.00	12.80	12.80	12.80	13.40	13.40	13.40	13.40	13.40
France	13.41	13.47	13.25	13.60	13.60	13.60	13.60	13.70	13.70
Belgium	13.96	13.97	13.97	13.97	13.97	13.98	13.98	13.98	13.99
Turkey	14.0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Greece	15.90	15.90	15.9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Hungary	12.50	12.50	12.50	12.50	13.50	13.50	14.33	17.00	17.00
Austria	18.06	18.06	18.06	18.06	18.01	18.06	18.06	18.06	18.06
Netherlands	24.39	19.96	19.57	20.88	21.80	21.34	22.20	20.75	20.19
Germany	20.50	20.55	20.65	21.00	20.85	21.43	21.70	21.11	20.51
Poland	24.81	25.01	25.01	25.21	25.42	25.62	25.82	24.66	21.48

출처 <http://stats.oecd.org>

87.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ew Zealan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United States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United Kingdom	0.10	0.10	0.10	0.11	0.11	0.11	0.11	0.11	0.11
Switzerland	0.12	0.12	0.12	0.11	0.11	0.11	0.11	0.11	0.11
Turkey	0.20	0.23	0.22	0.22	0.22	0.22	0.22	0.22	0.20
Denmark	0.48	0.61	0.59	0.57	0.57	0.56	0.59	0.56	0.54
Iceland	4.77	5.23	5.23	5.73	5.73	5.73	5.79	5.34	5.34
Australia	6.40	6.30	6.20	6.00	6.00	6.00	6.00	6.00	6.00
Korea	8.86	8.77	8.59	8.53	8.79	8.98	9.22	9.54	9.79
Ireland	12.00	12.00	10.75	10.75	10.75	10.75	10.75	10.75	10.75
Canada	11.62	11.60	11.88	11.53	11.88	11.75	11.72	11.63	11.53
Mexico	14.75	11.77	11.82	11.84	11.85	11.83	11.82	11.80	11.80
Norway	12.80	12.80	12.80	12.80	13.03	13.10	13.30	12.80	12.80
Japan	10.34	10.52	15.09	12.58	12.53	12.78	13.12	12.96	13.08
Luxembourg	13.92	12.95	13.01	13.01	13.01	13.16	13.16	13.16	13.51
Netherlands	10.68	10.72	10.86	9.62	10.27	10.49	14.91	15.23	16.02
Poland	20.41	20.41	20.41	20.48	20.48	20.48	20.43	20.43	18.43
Germany	20.50	20.55	20.65	21.00	20.85	20.73	20.55	19.97	19.38
Austria	23.53	0.00	0.00	21.73	21.58	21.63	21.63	21.63	21.48
Portugal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Finland	26.00	25.00	25.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Slovak Republic	38.00	38.00	38.20	38.20	35.20	26.20	26.20	26.20	26.20
Greece	27.96	27.96	27.96	28.06	28.06	28.06	28.06	28.06	28.06
Spain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30.15	30.15
Belgium	32.86	31.60	31.32	31.08	30.34	30.39	30.47	30.50	30.62
Italy	34.08	33.88	33.08	33.08	33.08	33.08	32.08	32.08	32.08
Sweden	32.92	32.82	32.82	32.82	32.70	32.46	32.28	32.42	32.42
Hungary	36.00	39.50	37.29	36.16	35.94	35.61	34.68	34.59	34.50
Czech Republic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France	41.18	41.27	41.13	41.58	42.03	42.25	42.25	42.30	42.30

출처 <http://stats.oecd.org>

88. 임시직(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비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United States	..	4.0	4.2
Slovak Republic	4.8	5.0	5.0	5.1	5.6	5.0	5.1	5.1	4.7
Australia	..	4.8	4.3	..	5.2
United Kingdom	6.8	6.7	6.2	5.9	5.7	5.5	5.6	5.8	5.3
Belgium	9.0	8.8	7.6	8.6	8.7	9.1	8.9	8.8	7.6
Luxembourg	3.4	4.4	4.3	3.1	4.8	5.3	6.1	6.9	7.7
Hungary	7.1	7.5	7.3	7.5	6.8	7.0	6.7	7.3	7.9
Czech Republic	9.3	9.0	8.8	9.9	9.5	8.6	8.7	8.6	8.0
Ireland	4.7	..	4.9	4.7	3.4	2.6	4.2	9.0	8.1
Denmark	10.2	9.4	8.9	9.6	9.8	9.9	9.6	9.1	8.6
Austria	7.9	8.0	7.4	7.2	8.9	9.1	9.0	8.9	9.0
Norway	9.3	9.3	9.9	9.4	9.9	9.5	10.1	9.5	9.0
Iceland	12.2	9.9	9.6	10.7	10.1	10.9	11.7	12.4	9.5
Turkey	20.3	17.4	15.5	15.6	16.3	13.3	12.7	11.9	11.2
Canada	12.5	12.8	12.9	12.4	12.8	13.2	13.0	12.9	12.3
Greece	13.1	12.9
Switzerland	11.7	11.7	12.5	12.2	12.2	13.0	13.6	13.0	13.3
Japan	12.5	12.8	13.5	13.8	13.9	14.0	14.0	13.9	13.6
Italy	10.1	9.5	9.9	9.5	11.9	12.4	13.0	13.4	14.0
France	15.5	14.9	14.1	13.4	13.0	13.3	13.4	13.7	14.2
Germany	12.7	12.4	12.0	12.2	12.4	13.7	14.1	14.2	14.6
Finland	16.5	16.4	16.1	16.4	16.2	16.6	16.4	16.0	15.1
Sweden	15.2	14.8	14.8	14.7	15.1	15.8	16.8	17.5	16.1
Netherlands	14.0	14.3	14.4	14.5	14.6	15.2	16.2	18.0	18.3
Mexico	20.5	19.6	20.0	20.6	20.3
Portugal	20.4	20.3	21.6	20.6	19.9	19.5	20.2	22.2	23.3
Poland	..	11.7	15.4	19.4	22.7	25.7	27.3	28.2	27.0
Spain	32.1	31.6	32.0	31.8	32.1	33.3	34.4	31.9	29.4
Korea	32.0	36.2	36.1	35.1	35.7	33.6

출처 <http://stats.oecd.org>

89.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42	1.37	..
Austria	2.92	2.92	2.92	2.37	2.37	2.37	2.37	2.37	2.19	..
Belgium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94	..
Canada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17	..
Czech Republic	3.31	3.31	3.31	3.31	3.31	3.31	3.31	3.05	3.00	..
Denmark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53	..
Finland	2.31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38	..
France	2.34	2.47	2.47	2.47	2.47	2.47	2.47	2.47	2.60	2.60
Germany	2.68	2.68	2.68	2.68	3.00	3.00	3.00	3.00	2.85	..
Greece	2.25	2.25	2.25	2.33	2.33	2.33	2.33	2.33	2.28	..
Hungary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82	..
Iceland	2.12	..
Ireland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7	..
Italy	1.77	1.77	1.77	1.77	1.77	1.77	1.77	1.77	1.69	..
Japan	1.87	1.87	1.87	1.87	1.87	1.87	1.87	1.87	2.05	..
Korea	2.37	2.37	2.37	2.37	2.37	2.37	2.37	2.37	2.29	..
Luxembourg	2.68	..
Mexico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Netherlands	3.05	3.05	3.05	3.05	3.05	3.05	3.05	2.88	2.73	..
New Zealand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54	..
Norway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0	..
Poland	2.06	2.06	2.06	2.06	2.06	2.06	2.06	2.06	2.01	..
Portugal	4.33	4.33	4.33	4.33	4.17	4.17	4.17	4.17	4.03	3.51
Slovak Republic	2.47	2.47	2.47	2.31	2.31	2.31	2.31	2.31	2.45	..
Spain	2.61	2.61	2.61	2.46	2.46	2.46	2.46	2.46	2.38	..
Sweden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72	..
Switzerland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9	..
Turkey	2.56	2.56	2.56	2.56	2.56	2.56	2.56	2.56	2.48	..
United Kingdom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7	..
United States	0.17	0.17	0.17	0.17	0.17	0.17	0.17	0.17	0.56	..

* 2008년부터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

출처 <http://stats.oecd.org>

*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와 고용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값이 높을 수록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90. 임시직 고용보호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0.88	0.88	0.88	0.88	0.88	0.88	0.88	0.88	0.79	..
Austria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29	..
Belgium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7	..
Canada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2	..
Czech Republic	0.50	0.50	0.50	0.50	0.50	0.88	0.88	0.88	1.71	..
Denmark	1.38	1.38	1.38	1.38	1.38	1.38	1.38	1.38	1.79	..
Finland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2.17	..
France	3.63	3.63	3.63	3.63	3.63	3.63	3.63	3.63	3.75	3.50
Germany	2.00	2.00	1.50	1.50	1.25	1.25	1.25	1.25	1.96	..
Greece	4.75	4.75	4.75	3.13	3.13	3.13	3.13	3.13	3.54	..
Hungary	0.63	0.63	0.63	1.13	1.13	1.13	1.13	1.38	2.08	..
Iceland	1.54	..
Ireland	0.25	0.25	0.25	0.63	0.63	0.63	0.63	0.63	0.71	..
Italy	3.25	2.25	2.25	1.88	1.88	1.88	1.88	1.88	2.54	..
Japa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0	..
Korea	1.69	1.69	1.69	1.69	1.69	1.69	1.69	1.69	2.08	..
Luxembourg	3.92	..
Mexico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Netherlands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42	..
New Zealand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08	..
Norway	2.88	2.88	2.88	2.88	2.88	2.88	3.13	3.13	3.00	..
Poland	0.75	0.75	0.25	1.25	1.75	1.75	1.75	1.75	2.33	..
Portugal	3.00	3.00	3.00	3.00	2.75	2.75	2.75	2.75	2.54	2.54
Slovak Republic	1.13	1.13	1.13	0.38	0.38	0.38	0.38	0.38	1.17	..
Spain	3.25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83	..
Sweden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0.71	..
Switzerland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50	..
Turkey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
United Kingdom	0.25	0.25	0.38	0.38	0.38	0.38	0.38	0.38	0.29	..
United States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33	..

* 2008년부터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

출처 <http://stats.oecd.org>

* 임시직 근로자의 해고와 고용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값이 높을 수록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91. 노조조직률*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81.6	81.7	80.9	85.0	90.5	94.3	92.1	88.9	86.4	..
Sweden	80.6	79.1	78.0	78.0	78.0	78.1	76.5	75.1	70.8	68.3
Denmark	74.9	74.2	73.8	73.2	72.4	71.7	71.7	69.4	69.1	67.6
Finland	76.3	75.0	74.5	73.5	72.9	73.3	72.4	71.7	70.3	67.5
Norway	54.8	54.4	53.9	54.5	55.1	55.0	54.9	54.9	53.7	53.3
Belgium	50.9	49.5	49.6	50.9	51.9	53.1	52.9	54.1	52.9	51.9
Luxembourg	43.3	42.5	41.8	42.1	42.8	42.3	41.4	40.1	38.7	37.4
Italy	35.4	34.8	34.2	33.8	33.7	34.1	33.6	33.2	33.5	33.4
Ireland	39.0	38.4	38.2	36.4	37.8	35.9	34.1	33.3	32.4	32.3
Austria	37.4	36.6	35.9	35.8	34.7	34.4	33.6	32.5	30.8	28.9
Canada	28.1	28.3	28.4	28.4	28.5	27.8	27.7	27.4	27.3	27.1
United Kingdom	30.1	30.2	29.6	29.3	29.6	29.4	28.4	28.1	27.9	27.1
Greece	26.8	26.5	25.8	25.5	25.3	24.5	24.6	24.7	24.5	24.0
New Zealand	21.6	22.3	22.2	22.3	21.2	20.9	21.0	21.4	21.5	20.8
Portugal	22.4	21.6	21.1	20.7	21.4	21.4	21.2	20.8	20.8	20.4
Czech Republic	32.8	29.5	25.5	21.7	22.3	22.3	21.5	21.0	20.5	20.2
Germany	25.3	24.6	23.7	23.5	23.0	22.2	21.6	20.7	19.9	19.1
Netherlands	24.6	22.9	21.9	21.7	21.2	21.3	21.0	20.4	19.3	18.9
Australia	25.2	24.7	24.4	23.0	22.8	22.0	22.1	20.1	18.5	18.6
Switzerland	21.0	20.8	20.5	20.4	20.1	19.6	19.4	19.0	18.7	18.3
Japan	22.2	21.5	20.9	20.3	19.7	19.3	18.8	18.3	18.3	18.2
Mexico	17.1	16.9	17.2	17.2	18.3	18.9	17.4
Hungary	24.5	21.7	20.0	17.4	17.9	16.9	17.5	17.0	16.9	16.8
Slovak Republic	34.2	32.3	29.1	27.4	26.1	23.6	22.8	20.6	18.8	16.8
Poland	26.0	24.2	22.5	23.5	23.7	19.7	18.3	16.8	15.2	15.6
Spain	16.0	16.7	15.9	16.0	15.8	15.5	15.0	14.6	14.2	14.3
United States	13.4	12.8	12.8	12.6	12.4	12.0	12.0	11.5	11.6	11.9
Korea	11.7	11.4	11.5	10.8	10.8	10.3	9.9	10.0	10.6	10.3
France	8.2	8.1	8.0	8.2	8.0	7.8	7.8	7.7	7.6	7.7
Turkey	10.6	9.9	10.0	9.5	8.9	8.3	7.8	7.2	6.6	5.8

출처 <http://stats.oecd.org>

* 노조조직률 = 노조가입 근로자 ÷ 전체 근로자 × 100

92. 인구 천명당 파업손실일수

(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nada	71.74	68.43	73.38	73.75	83.33	94.46	157.45	142.12	107.97
Belgium(05~07)	16.63	25.97	25.44	24.51	14.94	34.23	29.35	28.03	28.03
France(05~07)	7.46	8.30	7.29	5.24	3.70	13.28	19.76	27.08	27.08
Spain	52.86	57.84	84.77	61.18	80.09	47.88	48.62	22.87	26.58
Korea	33.65	30.82	32.11	27.73	28.43	23.23	22.47	17.84	17.52
Norway	58.95	37.44	47.98	11.19	21.42	11.15	21.62	11.62	15.23
Denmark(05~07)	213.07	17.26	23.52	19.13	20.13	11.28	13.14	14.04	14.04
Italy	13.85	16.43	39.31	45.53	43.61	20.62	12.41	13.63	12.49
Finland	26.18	21.45	25.03	12.92	11.73	49.69	50.84	54.10	12.37
United Kingdom(05~07)	5.81	7.16	13.21	13.18	15.25	9.06	10.42	11.09	11.09
Turkey(05~07)	4.42	4.37	3.43	2.29	1.37	2.03	2.16	8.24	8.24
USA(05~07)	32.69	27.85	26.23	6.79	6.60	7.36	5.68	5.92	5.92
Australia	28.83	26.21	19.19	18.39	17.94	17.27	12.07	6.60	5.91
New Zealand(05~07)	3.50	7.14	8.59	9.20	5.03	4.55	5.17	5.56	5.56
Sweden	3.04	3.39	0.46	23.75	23.90	23.89	0.66	0.59	4.41
Poland	1.93	1.60	0.68	0.09	0.06	0.06	0.28	1.91	4.31
Iceland	139.77	300.86	300.86	244.60	160.88	160.88	3.63
Mexico	3.35	3.85	4.82	2.35	2.11	1.63	3.39	3.45	3.62
Germany	0.43	0.47	1.41	2.02	2.12	0.94	2.02	2.97	3.43
Netherlands	2.49	2.72	6.18	6.29	6.63	2.43	2.44	1.71	3.30
Portugal(05~07)	6.65	4.88	6.14	6.52	6.64	4.03	3.74	3.21	3.21
Ireland	31.12	37.67	20.27	14.87	6.67	7.01	4.45	3.19	1.36
Hungary(05~07)	13.01	13.25	5.28	0.38	0.75	0.74	0.87	1.17	1.17
Switzerland(05~07)	1.50	1.27	2.13	2.19	3.02	2.10	2.17	0.73	0.73
Japan(05~07)	0.59	0.40	0.20	0.13	0.08	0.06	0.06	0.12	0.12
Slovak Republic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ustria	0.12	0.12	0.51	53.99	53.99	53.61	0.01	0.00	0.00

* 해당년도 자료는 최근 3년치 평균값임.

출처 <http://laborsta.ilo.org/>

93.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elgium	3.32	3.35	3.44	3.59	3.50	3.50	3.39	3.28	3.32
Spain	2.14	2.11	2.19	2.16	2.24	2.17	2.16	2.17	2.62
Denmark	4.27	4.14	4.19	4.43	4.37	3.92	3.37	2.80	2.56
Netherlands	3.23	3.14	3.28	3.45	3.51	3.31	2.85	2.47	2.31
Finland	2.97	2.80	2.85	2.97	3.01	2.81	2.61	2.29	2.18
Ireland	1.61	1.60	1.64	1.60	1.56	1.47	1.47	1.55	2.03
France	2.57	2.56	2.69	2.78	2.66	2.48	2.30	2.14	1.98
Germany	3.12	3.15	3.38	3.45	3.39	2.90	2.59	2.02	1.91
Austria	1.69	1.76	1.81	2.02	2.03	2.15	2.12	1.93	1.83
Portugal	1.45	1.61	1.57	1.90	1.93	2.01	1.84	1.62	1.59
Sweden	3.09	2.70	2.60	2.43	2.51	2.46	2.32	1.79	1.45
Italy	1.37	1.38	1.29	1.14	1.26
Switzerland	1.10	0.99	1.36	1.79	1.80	1.67	1.42	1.16	1.01
Norway	1.11	1.17	1.35	1.65	1.62	1.45	1.08	0.98	0.98
United States	0.45	0.66	0.67	0.52	0.40	0.37	0.37	0.43	0.98
Canada	1.10	1.22	1.16	1.15	1.04	0.94	0.90	0.85	0.96
Luxembourg	0.78	1.00	1.09	1.15	1.06	0.99	0.95
Poland	1.07	1.23	1.38	1.47	1.37	1.28	1.16	1.01	0.91
Australia	1.25	1.23	1.11	1.05	1.00	0.91	0.81	0.71	0.74
Slovak Republic	1.15	0.90	0.77	0.60	0.59	0.61	0.66	0.59	0.69
Hungary	0.83	0.83	0.87	..	0.67	0.69	0.64	0.67	0.67
New Zealand	1.82	1.53	1.44	1.25	0.96	0.82	0.72	0.59	..
Japan	0.84	0.76	0.78	0.78	0.73	0.68	0.59	0.49	0.57
United Kingdom	0.54	0.58	0.53	0.66	0.65	0.63	0.51	0.49	0.52
Korea	0.46	0.35	0.30	0.26	0.29	0.32	0.35	0.38	0.49
Czech Republic	0.48	0.44	0.46	0.50	0.50	0.49	0.49	0.46	0.42

출처 <http://stats.oecd.org>

94.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Denmark	1.89	1.86	1.88	1.77	1.70	1.58	1.51	1.30	1.35
Belgium	1.16	1.16	1.05	1.08	1.06	1.11	1.15	1.22	1.28
Netherlands	1.47	1.47	1.57	1.50	1.41	1.30	1.18	1.08	1.04
Sweden	1.75	1.66	1.58	1.25	1.22	1.29	1.36	1.12	0.99
Finland	0.89	0.83	0.82	0.91	0.97	0.91	0.91	0.87	0.82
France	1.19	1.15	1.11	1.05	0.95	0.89	0.92	0.90	0.81
Germany	1.23	1.22	1.24	1.17	1.07	0.89	0.86	0.72	0.81
Spain	0.79	0.74	0.72	0.71	0.75	0.72	0.73	0.73	0.73
Ireland	0.81	0.89	0.81	0.71	0.67	0.64	0.62	0.64	0.70
Austria	0.52	0.58	0.56	0.63	0.61	0.63	0.72	0.68	0.67
Portugal	0.63	0.63	0.59	0.66	0.69	0.69	0.61	0.53	0.57
Norway	0.61	0.63	0.69	0.79	0.78	0.74	0.58	0.56	..
Poland	0.25	0.25	0.22	0.40	0.35	0.42	0.45	0.50	0.56
Switzerland	0.56	0.52	0.60	0.72	0.77	0.75	0.66	0.59	0.47
Italy	0.63	0.57	0.50	0.45	0.45
Luxembourg	0.28	0.41	0.45	0.50	0.48	0.47	0.42
New Zealand	0.49	0.44	0.41	0.44	0.42	0.39	0.38	0.36	..
United Kingdom	0.24	0.32	0.28	0.44	0.46	0.45	0.32	0.32	0.32
Canada	0.40	0.42	0.39	0.38	0.36	0.32	0.31	0.29	0.30
Hungary	0.38	0.46	0.51	..	0.30	0.30	0.28	0.31	0.30
Australia	0.37	0.35	0.34	0.35	0.38	0.37	0.33	0.30	0.29
Japan	0.28	0.29	0.29	0.30	0.27	0.25	0.19	0.16	0.26
Slovak Republic	0.31	0.36	0.41	0.29	0.25	0.34	0.32	0.22	0.25
Czech Republic	0.20	0.20	0.18	0.19	0.25	0.25	0.26	0.25	0.23
Korea	0.38	0.22	0.19	0.12	0.11	0.12	0.12	0.13	0.20
United States	0.17	0.17	0.16	0.15	0.14	0.13	0.13	0.13	0.17

출처 <http://stats.oecd.org>

95.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진출(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elgium	2.17	2.19	2.38	2.51	2.45	2.40	2.24	2.05	2.04
Spain	1.35	1.37	1.47	1.45	1.49	1.45	1.43	1.44	1.89
Finland	2.08	1.97	2.03	2.06	2.04	1.90	1.70	1.43	1.35
Ireland	0.80	0.72	0.83	0.88	0.89	0.83	0.85	0.91	1.33
Netherlands	1.75	1.67	1.71	1.95	2.09	2.01	1.67	1.39	1.26
Denmark	2.38	2.27	2.31	2.66	2.66	2.34	1.86	1.50	1.22
France	1.38	1.41	1.58	1.73	1.71	1.58	1.38	1.24	1.17
Austria	1.17	1.18	1.25	1.39	1.42	1.52	1.40	1.25	1.16
Germany	1.89	1.92	2.14	2.28	2.32	2.01	1.73	1.30	1.10
Portugal	0.82	0.98	0.98	1.24	1.24	1.32	1.23	1.09	1.02
Italy	0.62	0.61	0.66	0.65	0.74	0.81	0.79	0.69	0.81
United States	0.28	0.48	0.50	0.37	0.27	0.24	0.24	0.30	0.81
Canada	0.70	0.80	0.77	0.78	0.69	0.62	0.59	0.56	0.66
Switzerland	0.54	0.47	0.76	1.07	1.03	0.92	0.76	0.57	0.54
Luxembourg	0.43	0.47	0.50	0.59	0.64	0.65	0.59	0.52	0.53
Greece	0.39	0.36	0.33	0.37	0.40	0.41	0.38	0.34	0.46
Sweden	1.34	1.05	1.02	1.18	1.29	1.17	0.96	0.67	0.46
Australia	0.88	0.88	0.77	0.70	0.62	0.54	0.48	0.41	0.45
Slovak Republic	0.84	0.54	0.35	0.32	0.34	0.27	0.34	0.36	0.43
Hungary	0.45	0.37	0.37	0.36	0.37	0.39	0.36	0.36	0.37
Poland	0.81	0.98	1.16	1.07	1.02	0.86	0.71	0.51	0.35
Norway	0.50	0.54	0.66	0.86	0.84	0.72	0.50	0.42	0.32
Japan	0.56	0.47	0.49	0.47	0.45	0.43	0.40	0.33	0.30
Korea	0.08	0.13	0.12	0.13	0.18	0.20	0.23	0.25	0.29
New Zealand	1.33	1.09	1.02	0.82	0.54	0.43	0.34	0.23	0.28
Czech Republic	0.29	0.25	0.28	0.31	0.25	0.24	0.23	0.20	0.20
United Kingdom	0.30	0.26	0.25	0.23	0.19	0.18	0.19	0.16	0.20

출처 <http://stats.oecd.org>

VI. 거시환경

96. 소비자 물가 상승률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Japan	-0.7	-0.8	-0.9	-0.2	-0.0	-0.3	0.2	0.1	1.4	-1.4
Canada	2.7	2.5	2.3	2.8	1.9	2.2	2.0	2.1	2.4	0.3
Switzerland	1.6	1.0	0.6	0.6	0.8	1.2	1.1	0.7	2.4	-0.5
Netherlands	2.3	4.2	3.3	2.1	1.2	1.7	1.2	1.6	2.5	1.2
Portugal	2.9	4.4	3.6	3.3	2.4	2.3	3.1	2.5	2.6	-0.8
Germany	1.4	1.9	1.5	1.0	1.7	1.5	1.6	2.3	2.6	0.4
France	1.7	1.6	1.9	2.1	2.1	1.7	1.7	1.5	2.8	0.1
Austria	2.3	2.6	1.8	1.4	2.1	2.3	1.4	2.2	3.2	0.5
Italy	2.5	2.8	2.5	2.7	2.2	2.0	2.1	1.8	3.3	0.8
Denmark	2.9	2.3	2.4	2.1	1.2	1.8	1.9	1.7	3.4	1.3
Luxembourg	3.2	2.7	2.1	2.0	2.2	2.5	2.7	2.3	3.4	0.4
Sweden	0.9	2.4	2.2	1.9	0.4	0.5	1.4	2.2	3.4	-0.3
United Kingdom	0.8	1.2	1.3	1.4	1.3	2.0	2.3	2.3	3.6	2.2
Norway	3.1	3.0	1.3	2.5	0.5	1.5	2.3	0.7	3.8	2.2
United States	3.4	2.8	1.6	2.3	2.7	3.4	3.2	2.9	3.8	-0.4
New Zealand	2.6	2.6	2.7	1.8	2.3	3.0	3.4	2.4	4.0	2.1
Ireland	5.6	4.9	4.6	3.5	2.2	2.4	3.9	4.9	4.1	-4.5
Finland	3.0	2.6	1.6	0.9	0.2	0.6	1.6	2.5	4.1	0.0
Spain	3.4	3.6	3.1	3.0	3.0	3.4	3.5	2.8	4.1	-0.3
Greece	3.2	3.4	3.6	3.6	2.9	3.6	3.2	2.9	4.2	1.2
Poland	9.9	5.4	1.9	0.7	3.4	2.2	1.3	2.5	4.2	3.8
Australia	4.5	4.4	3.0	2.8	2.3	2.7	3.5	2.3	4.4	1.8
Belgium	2.5	2.5	1.6	1.6	2.1	2.8	1.8	1.8	4.5	-0.1
Slovak Republic	12.0	7.3	3.1	8.6	7.5	2.7	4.5	2.8	4.6	1.6
Korea	2.3	4.1	2.7	3.6	3.6	2.8	2.2	2.5	4.7	2.8
Mexico	9.5	6.4	5.0	4.5	4.7	4.0	3.6	4.0	5.1	5.3
Hungary	9.8	9.1	5.3	4.7	6.7	3.6	3.9	8.0	6.0	4.2
Czech Republic	3.9	4.7	1.8	0.1	2.8	1.9	2.6	3.0	6.3	1.0
Turkey	54.9	54.4	45.0	21.6	8.6	8.2	9.6	8.8	10.4	6.3
Iceland	5.1	6.4	5.2	2.1	3.2	4.0	6.7	5.1	12.7	12.0

출처 <http://stats.oecd.org>

97. 불가수준

OECD = 100

	1970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Korea	45	61	71	70	68	68	76	79	78	64
Mexico	67	70	48	69	65	62	64	67	65	65
Turkey	71	70	60	48	53	56	61	60	66	68
Hungary	41	55	61	63	62	70	72
Slovak Republic	37	47	52	54	57	65	73
Poland	45	48	50	57	60	65	74
Czech Republic	39	51	54	59	63	67	78
Portugal	61	59	67	69	82	87	83	84	89	91
United States	129	96	95	107	102	98	98	99	95	92
Greece	62	66	69	67	80	84	87	89	95	99
New Zealand	72	81	86	70	89	98	106	97	108	101
Spain	56	85	95	72	87	92	93	93	97	103
Japan	76	97	123	153	123	121	115	106	97	104
Canada	119	95	102	88	90	92	98	105	107	106
United Kingdom	81	111	103	103	107	113	113	117	125	112
Italy	77	85	108	80	99	106	106	106	110	113
Australia	101	109	102	81	90	98	104	105	114	115
Germany	92	116	111	95	106	109	106	106	111	116
Netherlands	87	125	106	88	107	110	109	110	114	119
Austria	69	98	105	88	102	106	108	109	116	121
Belgium	92	119	103	88	102	109	110	112	119	123
France	102	127	117	92	108	114	113	115	119	124
Luxembourg	100	121	104	92	109	112	116	116	124	128
Sweden	124	145	140	106	118	121	123	125	128	130
Finland	94	118	150	98	117	118	119	121	125	131
Iceland	89	117	111	114	126	131	154	155	171	131
Ireland	81	96	100	94	117	122	123	125	128	133
Switzerland	74	122	136	117	135	138	137	134	130	140
Norway	130	157	147	111	132	130	135	137	146	149
Denmark	103	131	136	111	133	137	140	142	149	155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98. 경상수지(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orway	15.0	16.1	12.6	12.3	12.7	16.3	17.3	14.1	18.6	10.6
Sweden	3.8	3.8	4.0	7.1	6.6	6.8	7.8	8.2	9.3	7.4
Switzerland	12.1	8.2	8.8	13.3	13.4	14.0	15.1	9.1	1.7	11.9
Luxembourg	13.2	8.8	10.5	8.1	11.9	11.0	10.3	9.7	5.3	5.7
Germany	-1.7	0.0	2.0	1.9	4.7	5.1	6.5	7.6	6.7	5.0
Netherlands	1.9	2.4	2.5	5.5	7.5	7.2	9.0	8.3	4.6	5.0
Japan	2.6	2.1	2.9	3.2	3.7	3.6	3.9	4.8	3.2	..
Austria	-0.7	-0.8	2.7	1.7	2.2	2.2	2.8	3.5	3.3	2.3
Finland	8.1	8.6	8.9	5.2	6.6	3.6	4.6	4.2	3.0	1.3
Denmark	1.6	2.6	2.9	3.5	2.3	4.3	3.0	1.5	2.2	4.0
Korea	2.3	1.6	0.9	1.9	3.9	1.8	0.6	0.6	-0.6	5.1
Belgium	4.0	3.4	4.6	4.1	3.5	2.6	2.0	1.6	-2.9	0.3
Canada	2.7	2.3	1.7	1.2	2.3	1.9	1.4	0.8	0.4	-2.9
Mexico	-2.9	-2.6	-2.0	-1.0	-0.7	-0.6	-0.5	-0.8	-1.5	..
France	1.5	1.8	1.2	0.7	0.5	-0.5	-0.6	-1.0	-1.9	-1.9
Czech Republic	-4.8	-5.3	-5.5	-6.2	-5.2	-1.3	-2.4	-3.2	-0.6	-1.0
United Kingdom	-2.6	-2.1	-1.7	-1.6	-2.1	-2.6	-3.4	-2.6	-1.6	-1.1
Italy	-0.5	-0.1	-0.8	-1.3	-0.9	-1.7	-2.6	-2.4	-3.6	-3.2
Poland	-6.0	-3.1	-2.8	-2.5	-4.0	-1.2	-2.8	-4.8	-5.1	-1.7
Hungary	-8.5	-6.0	-6.9	-8.0	-8.3	-7.2	-7.1	-6.5	-7.1	0.1
Turkey	-3.7	1.9	-0.3	-2.5	-3.7	-4.6	-6.0	-5.9	-5.7	-2.3
Ireland	-0.4	-0.7	-0.9	0.0	-0.6	-3.5	-3.5	-5.3	-5.7	-2.9
Slovak Republic	-3.4	-8.3	-7.9	-5.9	-7.8	-8.5	-7.9	-5.3	-6.5	-3.2
Australia	-3.7	-1.9	-3.5	-5.0	-5.8	-5.4	-5.0	-5.8	-4.3	..
United States	-4.2	-3.9	-4.3	-4.7	-5.3	-5.9	-6.0	-5.1	-4.7	..
New Zealand	-5.1	-2.7	-3.8	-4.1	-6.1	-8.2	-8.3	-7.9	-8.6	..
Spain	-4.0	-3.9	-3.3	-3.5	-5.3	-7.4	-9.0	-10.0	-9.7	-5.5
Portugal	-10.4	-10.4	-8.3	-6.5	-8.4	-10.4	-10.7	-10.1	-12.6	-10.3
Iceland	-10.0	-4.7	1.6	-4.8	-10.0	-16.2	-24.5	-16.3	-20.2	-3.7
Greece	-7.8	-7.3	-6.8	-6.6	-5.9	-7.6	-11.3	-14.5	-14.5	-11.2

출처 <http://stats.oecd.org>

99. 일반정부 재정수지(GDP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Norway	15.1	18.5	17.7	18.8	9.6
Finland	2.6	3.9	5.2	4.4	-2.3
Denmark	5.0	5.0	4.5	3.4	-2.5
Korea	3.4	3.9	4.7	3.3	-1.8
New Zealand	5.2	5.9	5.0	3.1	-1.2
Sweden	2.0	2.4	3.8	2.5	-2.0
Luxembourg	0.0	1.3	3.7	2.5	-2.3
Switzerland	-0.7	0.8	1.6	1.6	-0.7
Australia	1.7	1.9	1.8	1.0	-4.0
Netherlands	-0.3	0.5	0.2	0.7	-4.5
Canada	1.5	1.6	1.6	0.1	-4.8
Germany	-3.3	-1.6	0.2	0.0	-3.2
Austria	-1.7	-1.7	-0.7	-0.5	-4.3
Belgium	-2.8	0.2	-0.2	-1.2	-5.7
Czech Republic	-3.6	-2.6	-0.7	-2.0	-5.7
Slovak Republic	-2.8	-3.5	-1.9	-2.3	-5.9
Italy	-4.4	-3.3	-1.5	-2.7	-5.5
Japan	-6.7	-1.6	-2.5	-2.7	-7.4
Portugal	-6.1	-3.9	-2.7	-2.8	-6.7
France	-3.0	-2.3	-2.7	-3.4	-8.2
Poland	-4.1	-3.6	-1.9	-3.7	-6.4
Hungary	-7.9	-9.4	-5.0	-3.7	-4.3
Spain	1.0	2.0	1.9	-4.1	-9.6
United Kingdom	-3.3	-2.7	-2.7	-5.3	-12.6
United States	-3.3	-2.2	-2.8	-6.5	-11.2
Ireland	1.7	3.0	0.2	-7.2	-12.2
Greece	-5.3	-3.2	-4.0	-7.8	-12.7
Iceland	4.9	6.3	5.4	-13.6	-15.7

출처 <http://stats.oecd.org>

100. 일반정부 부채(GDP대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20.5	19.0	17.2	16.9	16.2	15.3	14.3	15.9
Luxembourg	8.4	7.9	8.6	7.6	11.3	10.9	16.3	18.2
New Zealand	33.5	31.4	28.6	27.4	27.0	26.2	25.3	27.0
Korea	15.8	17.4	21.3	23.1	26.1	25.7	26.8	33.2
Slovak Republic	50.1	48.2	46.9	38.4	33.8	32.2	30.8	36.7
Denmark	55.4	53.6	50.1	42.4	38.3	31.6	39.8	45.3
Finland	49.5	51.4	51.5	48.5	45.2	41.5	40.7	43.7
Czech Republic	33.1	34.9	34.8	34.9	34.6	38.0	40.7	46.5
Switzerland	57.2	57.0	57.9	56.4	50.3	47.2	44.0	44.4
Spain	60.3	55.3	53.4	50.6	46.2	42.1	47.0	59.3
Ireland	35.2	34.1	32.7	32.7	28.8	28.3	48.5	65.8
Poland	55.0	55.3	54.6	54.7	55.1	51.7	54.0	58.1
Norway	40.6	50.2	52.7	49.1	60.5	58.4	56.0	59.9
United Kingdom	40.8	41.2	43.5	46.1	45.9	46.9	56.8	71.0
Netherlands	60.3	61.9	62.2	61.1	54.9	52.1	65.8	71.4
Austria	73.2	71.3	70.8	70.8	66.4	62.2	66.2	72.9
Germany	62.1	65.3	68.7	71.1	69.2	65.3	68.8	77.4
Canada	80.6	76.6	72.6	71.6	69.5	65.0	69.7	82.8
United States	56.7	60.1	61.1	61.3	60.8	61.8	70.0	83.9
Portugal	66.5	68.0	70.6	74.0	73.1	71.1	75.2	83.8
France	67.3	71.4	73.9	75.7	70.9	69.9	75.7	84.5
Hungary	60.7	61.7	65.0	68.8	72.1	72.2	77.0	85.2
Belgium	108.4	103.4	98.5	95.9	91.6	88.1	93.5	101.2
Iceland	72.0	71.0	64.5	52.6	57.5	53.6	96.3	117.6
Greece	117.2	112.0	114.2	114.5	107.9	103.9	102.6	114.9
Italy	119.4	116.8	117.3	119.9	117.1	112.5	114.4	123.6
Japan	152.3	158.0	165.5	175.3	172.1	167.1	172.1	189.3

출처 <http://stats.oecd.org>

101.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 추이

(%)	1980	1990	2000	2005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Korea	6.1	7.4	10.1	12.6	14.3	15.0	17.6	21.7	29.1	37.7	56.7	72.0
Mexico	8.3	7.3	7.6	8.2	8.6	9.0	10.0	11.7	14.3	17.6	25.7	34.3
Slovak Republic	16.5	16.0	16.6	16.4	16.7	17.7	20.6	25.4	29.8	33.2	40.1	52.9
Turkey	8.3	7.3	8.3	8.9	9.2	9.3	9.8	11.2	13.1	15.3	21.2	27.2
Spain	17.8	20.5	24.6	24.4	24.2	25.6	27.9	30.3	34.1	39.6	55.3	67.5
Poland	15.4	15.5	17.9	18.8	18.9	18.8	22.1	27.7	33.2	35.8	40.1	51.7
Ireland	18.2	18.6	16.7	16.3	17.0	17.7	20.2	22.7	25.5	28.6	36.4	45.6
Czech Republic	21.3	18.9	19.8	19.9	20.7	21.7	26.1	30.4	32.9	35.1	43.3	55.3
New Zealand	15.4	17.0	18.0	18.1	19.0	19.9	23.0	26.3	30.6	35.8	43.2	45.0
Portugal	18.0	20.3	23.9	25.3	25.1	26.9	29.2	31.7	34.6	38.6	48.3	57.3
Canada	13.9	16.6	18.4	18.9	19.6	20.2	23.4	27.4	32.3	37.1	40.9	43.8
Japan	13.5	17.3	25.5	30.5	34.3	36.2	44.0	48.8	51.2	54.4	67.2	76.4
Greece	20.5	20.6	24.4	27.2	27.8	28.2	30.6	32.8	36.0	39.6	50.4	58.9
Iceland	15.7	16.5	17.8	17.7	17.0	18.5	20.8	23.9	27.7	31.1	34.4	35.6
Italy	20.4	21.7	27.1	29.6	30.9	31.4	34.4	36.6	39.6	45.0	58.2	62.5
Finland	17.7	19.9	22.3	23.9	25.0	26.2	32.4	37.6	41.7	45.3	46.9	48.6
Switzerland	20.8	21.3	22.8	23.4	24.2	25.3	28.0	30.6	34.2	38.9	44.9	46.9
Hungary	20.8	20.1	22.1	22.8	23.6	24.4	26.8	31.0	33.5	33.6	38.2	45.5
Australia	14.8	16.6	18.6	19.2	19.5	20.4	23.2	26.0	28.9	31.5	34.5	36.3
Belgium	21.7	22.3	25.6	26.2	26.1	26.6	29.4	32.6	36.9	41.8	47.3	48.0
Denmark	22.3	23.1	22.2	22.8	23.9	25.7	30.1	33.3	36.6	40.8	46.2	43.8
Germany	23.7	21.6	24.2	28.4	30.6	30.9	32.3	35.4	39.9	46.7	54.6	55.8
Austria	24.0	22.1	22.8	23.9	25.5	25.7	27.3	29.2	32.6	37.5	44.1	46.4
France	21.9	21.3	24.7	25.4	25.6	25.7	29.3	32.6	35.7	39.1	44.2	45.6
Netherlands	17.4	18.6	20.0	21.0	22.1	23.1	27.4	30.8	34.6	38.8	42.5	38.9
United States	17.1	19.0	18.8	18.5	19.0	19.4	22.0	25.1	28.7	31.6	33.0	33.3
Luxembourg	20.2	19.4	21.0	20.9	20.6	21.6	23.0	25.0	28.0	31.9	36.8	36.1
Norway	23.4	25.2	23.4	22.4	22.1	22.9	25.5	27.9	30.6	33.3	38.0	38.5
United Kingdom	23.3	24.1	24.3	23.3	23.5	25.0	28.0	30.1	32.5	35.7	39.5	40.5
Sweden	25.4	27.7	26.8	26.4	26.9	28.3	32.1	34.3	36.0	37.9	40.3	39.5

출처 <http://stats.oecd.org>

* 고령인구(65세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2. 일반정부 순이자상환액(경상이익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Norway	-3.6	-4.1	-4.0	-4.0	-3.7	-4.0	-5.5	-6.4	-5.3	-5.2
Korea	-3.3	-3.3	-2.9	-3.4	-3.4	-3.9	-4.5	-4.6	-4.1	-3.3
New Zealand	0.0	0.0	-0.3	-1.0	-1.4	-3.7	-2.3	-2.7	-2.3	-1.8
Iceland	1.3	0.8	1.5	0.7	-0.7	-1.5	-2.0	-1.8	10.1	11.9
Luxembourg	-3.0	-2.5	-2.0	-1.8	-1.6	-1.8	-1.6	-1.5	-1.6	-1.7
Finland	0.9	0.0	-0.1	-0.1	-0.3	-0.7	-1.2	-1.4	-1.4	-1.5
Ireland	3.0	2.9	3.1	2.7	2.5	2.4	2.1	-0.8	2.4	4.9
Denmark	3.3	3.1	2.7	2.2	1.6	1.0	0.8	0.1	0.5	1.3
Slovak Republic	5.9	7.6	3.3	1.3	-0.6	-0.3	-0.4	0.4	0.1	-0.2
Canada	6.9	6.3	4.5	3.9	2.5	1.7	1.5	0.4	0.9	0.5
Sweden	3.1	3.9	2.5	1.7	1.8	1.5	1.3	0.9	0.9	1.6
Czech Republic	0.9	0.9	1.2	1.6	1.8	1.8	1.6	1.7	2.0	2.1
Switzerland	2.6	2.9	2.9	2.9	2.7	2.3	2.2	2.1	2.1	2.1
Japan	4.4	4.6	4.4	4.0	2.7	2.0	2.0	2.5	3.1	4.2
Spain	7.0	6.3	5.6	4.8	4.0	3.3	2.7	2.7	2.9	2.9
Netherlands	5.4	5.0	4.6	4.3	4.1	3.6	3.7	3.2	4.7	5.2
Australia	4.6	4.3	3.9	3.7	3.1	2.8	3.0	3.2	3.8	3.8
Austria	5.2	5.1	4.8	4.5	4.6	4.5	4.3	4.0	5.0	5.7
Poland	7.0	5.4	6.3	6.7	5.6	5.0	5.1	5.0	4.8	4.4
United Kingdom	5.0	4.5	4.5	4.4	4.6	4.5	4.8	5.0	5.1	6.8
Germany	5.8	5.6	5.8	5.8	5.5	5.6	5.5	5.4	5.0	5.1
France	5.5	5.6	5.3	5.3	5.0	4.8	5.2	5.4	5.4	4.6
United States	6.6	6.5	6.0	5.7	5.8	5.8	6.0	5.9	5.0	5.6
Portugal	7.9	7.3	7.0	6.8	6.4	6.7	6.8	7.0	7.2	7.1
Belgium	12.4	11.0	10.4	9.5	8.5	7.9	7.7	7.5	7.7	7.8
Hungary	9.2	8.6	8.9	9.5	9.3	8.9	8.5	8.1	8.6	8.5
Italy	13.5	12.4	11.5	10.7	10.4	9.9	10.2	10.7	11.4	11.8
Greece	15.1	13.4	12.6	12.6	11.8	11.2	10.9	10.9	11.1	11.8

출처 <http://stats.oecd.org>

103. 가계부채(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Denmark	91.6	94.6	98.6	103.4	108.4	116.2	121.4	128.3	133.6
Netherlands	87.0	89.7	95.2	103.0	107.8	114.1	117.6	118.5	119.8
Switzerland	112.2	112.8	115.9	121.3	121.4	122.8	121.3	117.6	115.6
Ireland	..	50.1	55.2	61.9	71.4	84.4	93.3	98.7	109.3
Australia	67.0	70.5	77.1	83.9	89.9	93.7	96.4	99.6	100.4
United Kingdom	69.0	73.3	78.8	84.3	91.0	92.9	97.3	100.1	99.8
United States	71.6	75.3	80.0	85.8	90.1	93.6	97.5	99.1	95.7
Portugal	62.0	65.5	70.0	75.0	79.7	84.9	90.1	93.6	95.6
Spain	46.2	48.1	52.1	57.6	64.4	71.9	79.3	83.3	83.9
Canada	65.9	67.5	69.1	70.4	72.4	73.8	76.6	79.5	82.9
Korea	68.8	67.7	65.5	69.4	73.7	76.1	78.1
Norway	56.4	60.5	66.9	71.4	72.6	73.6	74.5	78.9	76.0
Sweden	50.2	52.6	54.5	57.1	60.4	64.3	66.9	69.0	72.6
Japan	74.5	73.8	72.8	71.5	69.0	69.2	67.8	65.3	65.5
Germany	72.8	72.0	71.8	71.8	70.5	69.4	67.0	63.4	61.0
Finland	32.7	33.0	35.5	39.7	43.3	47.9	51.4	52.7	55.1
Austria	47.1	47.8	48.6	49.0	51.2	54.5	53.7	53.4	52.2
France	36.2	36.8	37.6	39.0	40.8	43.9	46.4	48.5	50.7
Greece	12.8	16.7	20.9	24.5	29.7	36.3	42.0	47.4	50.5
Belgium	39.7	38.0	38.5	39.9	40.5	43.1	45.2	46.9	49.4
Italy	22.3	22.5	26.7	28.9	31.5	34.8	37.1	39.0	39.5
Hungary	5.8	7.7	11.3	16.7	19.6	23.2	25.8	29.4	36.4
Poland	7.2	8.9	12.9	13.7	14.3	16.3	19.8	23.9	31.6
Slovak Republic	6.0	6.9	8.6	10.3	10.7	16.1	20.4	24.5	28.2
Czech Republic	7.5	8.4	9.8	11.7	14.0	18.0	19.6	23.9	27.7
Mexico	4.7	4.1	4.2	5.5	5.5	6.2	7.4	8.2	6.7

출처 <http://stats.oecd.org>

104. 기업채무비율(GDP대비)

(%)	2004	2005	2006	2007	2008
Mexico	9.7	9.8	9.9	11.0	11.9
Slovak Republic	35.0	32.3	32.3	32.8	35.2
Poland	30.6	29.2	32.3	35.4	42.0
Czech Republic	46.2	42.6	43.5	45.1	49.1
Canada	52.2	51.0	51.7	50.9	53.6
Greece	47.3	51.4	54.0	57.7	62.7
Germany	66.1	65.5	66.8	67.0	69.0
Switzerland	65.7	66.7	66.8	74.8	..
United States	66.0	67.4	70.2	75.8	77.8
Italy	63.8	66.7	70.0	75.4	80.5
Austria	78.0	78.7	78.6	82.0	84.2
Netherlands	96.7	96.4	95.0	92.0	91.0
Japan	104.3	100.7	98.1	93.8	95.4
Denmark	76.2	84.8	92.7	93.9	99.8
France	88.1	91.7	96.2	97.8	104.6
Korea	78.0	77.9	86.2	93.3	113.1
United Kingdom	91.2	102.2	110.0	108.8	114.4
Hungary	67.0	79.8	85.3	96.0	115.2
Norway	101.8	99.5	101.7	110.7	115.9
Finland	96.9	96.7	99.2	101.4	117.5
Spain	95.4	104.6	120.4	130.6	136.1
Sweden	114.0	120.9	119.2	134.6	152.9
Portugal	125.6	127.9	132.2	142.8	157.0
Ireland	99.1	103.8	111.8	112.7	165.8
Belgium	147.9	142.7	148.9	158.5	168.6

출처 <http://stats.oecd.org>

105. 총외채

(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lovakia	181	238	271	322	443	525	659
Czech Republic	216	224	270	349	452	465	572	760	831	865
Mexico	1,620	1,627	1,662	1,731	1,691	1,931	2,012	1,966
Hungary	404	581	759	794	1,250	1,694	2,189	2,256
Turkey	1,186	1,136	1,295	1,441	1,610	1,697	2,076	2,494	2,777	2,711
Poland	695	720	849	1,073	1,300	1,329	1,696	2,341	2,435	2,795
Korea	1,481	1,287	1,415	1,574	1,723	1,879	2,601	3,832	3,779	4,019
Finland	1,501	1,857	2,275	2,187	2,640	3,163	3,462	4,022
Portugal	2,705	3,106	3,022	3,815	4,839	4,847	5,485
Norway	2,372	2,825	2,758	4,089	5,403	5,687	5,534
Greece	2,046	2,533	2,630	3,298	4,542	5,046	5,817
Denmark	2,971	3,519	3,585	4,509	5,687	5,894	6,103
Austria	4,088	4,930	5,108	6,460	8,014	8,328	8,280
Sweden	3,679	5,218	5,246	7,940	8,815
Canada	5,219	5,796	6,055	6,339	6,940	8,069	7,811	9,404
Australia	4,190	5,061	5,323	6,396	8,204	7,998	10,468
Switzerland	6,205	5,990	7,221	8,076	9,069	8,869	10,416	14,525	12,303	12,117
Belgium	7,778	9,615	9,848	11,557	15,387	13,543	12,525
Japan	13,544	15,571	15,211	15,129	17,678	22,306	21,276
Ireland	5,081	7,343	10,521	13,362	17,631	22,674	23,556	23,214
Netherlands	14,054	16,710	16,691	20,976	26,139	24,614	24,665
Spain	7,081	9,798	12,353	13,501	18,047	23,020	23,266	25,460
Italy	11,170	14,521	16,479	16,758	21,080	25,493	23,953	25,950
Germany	..	21,803	27,499	33,267	37,757	35,781	42,290	51,169	51,584	51,311
France	17,267	23,007	28,516	30,523	38,176	48,329	49,350	52,343
United Kingdom	54,064	67,295	73,860	92,393	112,606	91,067	91,534
United States	69,463	83,535	94,764	112,041	134,271	137,496	137,679

출처 <http://davdata.worldbank.org/sdmx/>

106. 총외채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Mexico	22.8	23.2	21.9	20.5	17.8	18.9	18.5	..
Turkey	44.5	58.0	55.7	47.6	41.0	35.1	39.1	38.5	38.0	44.1
Czech Republic	38.1	36.2	35.8	38.2	41.3	37.3	40.1	43.7	38.4	45.5
Japan	32.0	33.8	33.4	34.7	40.4	45.6	..
Korea	27.8	25.5	24.6	24.4	23.9	22.2	27.3	36.5	40.6	48.3
Poland	40.6	37.8	42.8	49.5	51.4	43.7	49.7	55.1	46.1	65.0
Canada	71.0	66.9	61.0	55.9	54.3	56.7	52.1	70.4
Slovakia	54.5	56.4	56.5	57.7	59.0	55.4	74.8
Australia	74.7	74.3	69.7	77.8	83.0	76.1	..
United States	62.6	70.7	75.3	84.0	95.8	95.7	..
Italy	91.6	96.4	95.4	94.3	113.1	120.5	104.3	122.8
Norway	105.4	109.3	91.3	121.4	139.4	126.1	144.9
Germany	..	115.3	136.3	136.2	137.5	128.3	144.9	153.7	141.9	154.1
Finland	111.1	113.2	120.4	111.8	127.1	128.6	128.0	169.0
Spain	103.2	110.9	118.3	119.5	146.1	159.8	145.9	174.4
Hungary	60.5	69.2	73.9	72.0	110.7	122.4	142.0	174.9
Greece	105.1	109.8	108.2	124.9	146.6	144.1	176.3
Denmark	139.7	143.8	139.1	164.3	183.0	173.0	197.1
France	118.5	127.8	138.3	142.2	168.5	186.3	172.9	197.6
Sweden	116.9	144.1	141.5	162.8	217.1
Austria	162.2	170.6	168.6	200.4	215.3	200.8	217.3
Portugal	167.6	168.1	158.1	189.7	209.6	192.5	235.5
Switzerland	248.3	234.9	259.2	248.4	249.8	238.1	266.3	334.6	244.9	246.3
Belgium	249.9	266.3	261.5	289.6	335.5	268.0	265.8
Netherlands	261.1	274.0	261.4	309.5	335.8	282.0	311.4
United Kingdom	290.5	305.5	323.9	378.8	402.3	342.0	420.9
Ireland	414.4	465.7	568.4	662.8	795.3	873.1	884.6	1,021.7

출처 <http://davdata.worldbank.org/sdmx/>, <http://stats.oecd.org/>

107. 단기외채비중(총외채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Hungary	11.8	14.4	14.1	15.7	11.7	13.8	12.9	12.7
Mexico	14.1	13.3	11.4	11.5	12.5	12.2	12.1	13.3
Poland	13.0	14.7	15.6	13.0	13.7	14.1	13.9	19.2	20.8	19.1
Turkey	23.9	14.4	12.7	16.0	20.0	22.6	20.5	17.3	18.2	19.2
Italy	32.8	29.5	27.7	28.0	27.4	30.7	28.6	27.0
Austria	27.5	29.5	32.2	34.7	32.7	32.0	27.5
Czech Republic	37.0	35.1	32.4	33.7	31.2	29.3	26.6	30.7	31.7	27.9
Australia	34.2	31.1	30.3	29.8	29.7	29.0	29.3
Spain	26.8	27.6	24.5	26.4	23.2	24.3	29.9	29.4
Germany	..	36.4	33.6	33.4	32.5	31.9	32.7	34.2	33.0	32.3
Sweden	43.0	36.5	38.1	37.3	33.1
Canada	32.0	33.0	31.1	34.2	36.2	37.6	39.0	35.0
Greece	26.5	22.8	25.5	17.3	22.1	30.8	35.7
Portugal	38.8	41.5	42.4	39.5	38.1	37.2	36.2
United States	41.3	42.6	40.1	42.3	42.5	40.1	36.5
Korea	33.5	31.3	34.1	32.3	32.7	35.1	43.7	41.8	39.7	37.3
Finland	29.5	26.2	29.9	29.4	31.2	28.7	33.1	37.7
Netherlands	38.1	38.8	36.3	39.7	43.8	43.9	39.5
France	44.5	38.8	38.9	40.6	42.2	43.4	43.3	40.3
Ireland	54.1	54.0	49.8	44.8	41.6	39.9	43.7	40.8
Norway	27.7	22.2	51.6	55.3	56.4	48.8	41.1
Denmark	50.8	44.1	43.5	42.8	44.7	51.0	42.4
Slovakia	36.0	36.6	47.6	34.5	39.2	38.3	46.0
Belgium	68.5	69.9	73.1	74.8	72.8	71.0	63.5
Switzerland	76.9	76.8	71.4	71.3	70.4	71.3	68.0	73.4	65.9	64.3
Japan	69.1	67.9	66.9	61.5	59.5	63.5	65.5
United Kingdom	76.8	76.1	75.8	75.0	76.8	74.4	70.1

출처 <http://davdata.worldbank.org/sdmx/>

108. 외환보유액

(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Japan	3,616	4,020	4,697	6,735	8,445	8,469	8,953	9,734	11,534	10,661
Germany	873	822	891	968	972	1,017	1,116	1,466	2,261	1,872
Korea	2,105	2,391	2,624	2,014	2,702
France	674	623	656	738	815	824	1,085	1,392	1,934	1,598
Switzerland	543	525	622	707	760	585	651	761	1,373	1,583
Italy	497	510	612	714	686	741	848	1,018	1,149	1,352
United Kingdom	577	518	605	675	767	792	856	972	987	834
Mexico	356	449	507	591	642	741	764	872	953	999
United States	669	686	786	872	871	645	661	707	783	1,312
Turkey	234	200	281	352	376	524	632	764	743	748
Belgium	127	143	150	149	146	125	138	177	678	243
Denmark	163	182	283	385	404	342	314	346	642	782
Poland	279	266	298	340	368	426	486	658	622	796
Norway	272	238	326	382	444	470	568	609	593	490
Australia	196	195	213	332	367	433	551	269	558	417
Netherlands	181	183	205	230	236	218	251	305	492	415
Canada	324	342	372	363	345	330	351	411	439	544
Czech Republic	131	145	237	270	285	297	316	351	372	418
Spain	356	343	403	268	204	200	210	229	344	283
Hungary	122	114	107	131	155	184	213	240	336	442
Austria	196	174	166	170	144	154	149	211	324	154
Sweden	178	158	200	227	249	251	281	311	297	473
Slovak Republic	41	42	92	122	149	155	134	190	188	20
Luxembourg	3	21	155	9
Finland	94	93	103	110	123	128	99	107	124	129
Portugal	157	164	181	131	124	109	109	124	119	159
New Zealand	41	38	53	65	74	93	147	180	109	170
Ireland	..	60	58	45	30	9	9	10	84	22
Greece	88	46	34	36	45	70	60
Iceland	4	4	5	8	11	11	23	26	36	39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

109. 단기외채비중(외환보유액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Mexico	45.1	36.6	29.6	26.9	27.7	27.0	25.5	26.2
Turkey	121.0	82.1	58.4	65.4	85.6	73.1	67.4	56.4	67.9	69.5
Czech Republic	60.7	54.2	36.9	43.6	49.6	45.9	48.1	66.6	70.9	57.9
Korea	31.3	47.6	61.1	74.4	55.5
Poland	32.4	39.8	44.6	41.0	48.4	44.0	48.6	68.2	81.5	67.1
Hungary	44.5	64.0	68.7	67.7	68.6	97.5	84.2	64.6
Slovak Republic	..0.0	53.6	58.3	83.1	83.2	91.5	106.7	1,531.7
Japan	139.0	125.2	120.2	104.0	108.1	122.7	130.7
Australia	430.4	429.1	373.3	345.8	904.6	416.3	735.9
Denmark	391.6	383.5	455.9	614.7	735.1	468.1	331.5
Norway	172.1	140.9	303.1	397.8	500.7	468.8	464.5
Switzerland	879.2	876.9	828.6	814.3	839.9	1,081.8	1,088.0	1,401.2	590.8	492.1
Italy	598.1	599.4	665.5	633.3	681.2	768.9	595.5	519.1
Canada	449.2	527.1	546.3	655.9	716.0	738.6	694.6	606.3
Germany	..	965.5	1,035.1	1,146.4	1,261.7	1,122.8	1,240.2	1,195.3	753.4	885.5
Austria	663.8	1,011.1	1,070.4	1,501.8	1,240.7	824.3	1,485.2
Finland	431.0	441.5	550.6	504.6	829.3	849.6	925.1	1,173.5
Sweden	695.5	763.7	797.9	997.0	617.2
France	1,170.9	1,210.2	1,361.1	1,503.7	1,483.4	1,508.7	1,104.9	1,319.4
Belgium	3,587.0	4,615.4	5,735.6	6,271.1	6,335.6	1,418.5	3,269.9
Portugal	803.4	1,044.4	1,175.1	1,388.1	1,482.4	1,520.6	1,247.4
Spain	471.3	1,009.5	1,487.1	1,785.9	1,996.5	2,444.2	2,022.9	2,639.6
Netherlands	2,326.9	2,746.7	2,780.4	3,313.7	3,746.0	2,200.8	2,347.0
Greece	617.2	1,271.3	1,958.5	1,584.4	2,226.0	2,235.9	3,482.7
United Kingdom	6,151.3	6,683.1	7,072.6	8,087.2	8,902.6	6,864.8	7,693.8
Luxembourg	7,621.6	130,470.8
Ireland		0.0	4,762.8	8,857.9	17,311.3	64,524.3	82,911.1	89,569.6	12,244.4	43,731.5
United States	3,284.3	4,081.2	5,893.4	7,170.9	8,076.2	7,032.2	3,834.5

출처 <http://davdata.worldbank.org/sdmx/>,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

110. 무역규모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elgium	157.4	158.9	164.1	157.6	164.1	173.4	180.1	184.3	185.6	153.0
Slovak Republic	120.5	129.6	126.9	133.6	136.8	138.9	155.3	157.6	153.0	126.3
Hungary	127.6	119.9	108.2	108.3	113.2	117.5	136.0	138.0	141.0	125.2
Netherlands	117.2	109.7	105.8	104.2	111.0	120.6	129.9	134.1	139.6	119.2
Czech Republic	107.7	112.7	105.1	109.9	126.9	124.2	131.9	138.2	133.7	114.7
Luxembourg	96.8	109.4	101.2	100.9	106.4	107.9	115.6	97.4	98.8	86.4
Korea	62.4	57.8	54.6	57.9	66.2	64.6	66.7	69.4	92.0	82.5
Ireland	133.0	127.5	114.7	93.0	90.0	88.4	82.0	79.1	78.7	77.7
Austria	73.3	76.4	76.2	78.0	82.5	83.4	85.0	87.7	88.2	73.7
Switzerland	65.2	65.2	64.2	63.1	65.7	69.1	73.9	76.8	76.3	66.7
Poland	47.2	45.3	48.7	56.3	65.2	62.9	69.6	71.9	71.8	65.4
Iceland	51.6	54.3	50.6	47.3	49.1	49.5	57.4	56.3	69.0	63.0
Germany	55.2	55.9	54.8	55.5	59.2	62.7	69.0	71.4	72.4	61.6
Sweden	64.7	61.1	59.1	59.0	61.8	65.5	69.0	69.5	71.9	61.4
Denmark	60.5	60.5	62.0	58.3	59.4	62.4	64.9	64.8	66.5	56.8
Mexico	54.3	48.6	46.9	48.6	51.4	52.3	54.1	55.0	56.1	..
Finland	66.2	60.9	58.7	58.3	59.8	63.5	70.5	69.8	69.6	51.5
New Zealand	51.1	51.1	48.1	42.6	43.3	42.5	44.7	43.4	50.0	..
Norway	56.1	53.9	49.3	48.1	50.7	52.7	55.4	55.9	58.1	49.6
Canada	71.9	68.1	65.3	59.8	60.1	60.2	58.4	56.9	58.4	48.3
Portugal	55.0	53.0	50.1	48.9	49.1	52.0	54.7	56.2	57.9	48.3
Turkey	30.9	37.1	37.7	38.5	41.0	39.4	42.4	42.9	45.7	39.5
France	50.2	48.7	45.4	43.9	44.8	45.1	45.8	45.2	45.7	38.7
Italy	43.7	43.0	41.1	39.6	41.0	42.6	46.1	47.8	47.6	38.6
United Kingdom	42.9	41.9	40.0	37.9	37.1	39.4	43.0	37.9	41.0	38.2
Australia	32.9	32.4	31.5	28.4	28.8	30.3	32.0	31.0	36.9	..
Spain	46.7	44.5	42.4	41.3	42.2	42.6	43.9	44.6	44.0	34.8
Japan	18.4	18.4	19.2	20.2	22.2	24.4	28.1	30.5	31.6	..
United States	20.6	18.6	17.9	18.3	19.8	20.9	22.1	22.6	24.1	..
Greece	35.6	33.1	28.5	29.9	29.5	29.5	32.0	32.2	32.5	24.0

출처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es_e/, <http://stats.oecd.org/>

111. 상품수출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elgium	81.1	82.0	85.6	82.1	85.0	88.8	91.9	94.2	93.4	78.5
Hungary	59.6	57.0	51.7	51.4	54.2	57.1	66.7	68.9	70.4	65.1
Slovak Republic	58.0	59.7	59.0	65.8	65.9	66.6	75.0	77.5	75.0	63.6
Netherlands	60.5	57.6	55.7	55.0	58.6	63.6	68.4	70.8	73.1	63.0
Czech Republic	51.3	53.9	51.1	53.3	63.0	62.7	66.6	70.3	67.9	59.5
Ireland	80.1	79.2	72.0	58.8	56.6	54.4	49.0	46.8	47.2	50.5
Korea	32.3	29.8	28.2	30.1	35.2	33.7	34.2	35.4	45.3	43.7
Luxembourg	41.3	48.3	45.2	45.5	47.7	49.9	53.5	43.7	44.0	40.0
Austria	35.4	37.2	38.2	38.6	41.0	41.3	42.4	43.9	43.7	36.0
Switzerland	32.2	32.2	32.9	32.2	33.8	35.1	37.8	39.6	39.9	35.1
Germany	29.0	30.2	30.5	30.8	33.1	34.8	38.0	39.7	39.8	33.7
Iceland	21.9	25.6	25.0	21.6	21.5	19.0	20.7	23.4	32.0	33.3
Sweden	35.2	33.3	32.5	32.4	34.0	35.3	37.0	36.5	37.6	32.2
Norway	35.7	34.6	31.1	30.4	31.9	34.4	36.3	35.2	38.3	31.6
Poland	18.5	18.9	20.8	24.8	29.7	29.4	32.4	33.0	32.3	31.3
Denmark	32.0	32.2	33.1	31.3	31.5	33.0	33.7	33.0	34.2	30.1
Mexico	26.1	23.3	22.6	23.6	24.8	25.3	26.3	26.6	26.8	..
Finland	37.9	34.7	33.4	32.4	32.6	33.5	37.2	36.6	35.7	26.3
Canada	38.2	36.3	34.4	31.5	31.9	31.8	30.4	29.5	30.4	23.6
New Zealand	24.9	26.0	23.5	20.1	20.2	19.3	20.5	20.2	23.5	..
Italy	21.9	21.9	20.9	19.9	20.5	21.0	22.4	23.6	23.4	19.2
Portugal	20.8	20.1	19.6	19.7	19.4	20.0	21.5	22.3	22.2	18.5
France	24.7	24.1	22.8	21.8	21.9	21.6	21.9	21.3	21.1	17.9
Australia	15.5	16.1	14.9	12.5	12.7	13.9	15.0	14.3	17.8	..
Turkey	10.4	16.0	15.5	15.6	16.1	15.2	16.1	16.6	18.1	16.6
United Kingdom	19.3	18.5	17.4	16.4	15.8	16.9	18.4	15.7	17.3	16.1
Japan	10.3	9.9	10.6	11.2	12.3	13.1	14.8	16.3	16.0	..
Spain	19.8	19.2	18.3	17.7	17.5	17.0	17.3	17.6	17.7	14.9
United States	7.9	7.1	6.5	6.5	6.9	7.2	7.7	8.2	9.0	..
Greece	9.2	8.7	7.1	6.9	6.6	7.1	7.9	7.6	7.2	6.0

출처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es_e/, <http://stats.oecd.org/>

112. 상품수입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elgium	76.4	76.9	78.5	75.5	79.1	84.6	88.2	90.1	92.3	74.5
Slovak Republic	62.5	70.0	67.9	67.8	70.9	72.3	80.3	80.2	78.0	62.7
Hungary	68.0	63.0	56.5	57.0	59.0	60.4	69.3	69.0	70.6	60.1
Netherlands	56.7	52.1	50.1	49.2	52.4	57.0	61.5	63.3	66.6	56.3
Czech Republic	56.4	58.7	54.0	56.6	63.9	61.5	65.4	67.8	65.7	55.2
Luxembourg	55.6	61.0	56.0	55.4	58.8	58.1	62.1	53.7	54.8	46.4
Korea	30.1	28.0	26.4	27.8	31.1	30.9	32.5	34.0	46.7	38.8
Austria	37.9	39.2	38.0	39.5	41.5	42.0	42.6	43.8	44.4	37.7
Poland	28.6	26.4	27.9	31.5	35.5	33.4	37.2	39.0	39.5	34.1
Switzerland	33.0	33.0	31.3	30.8	31.9	34.0	36.1	37.1	36.5	31.6
Iceland	29.8	28.7	25.6	25.7	27.6	30.5	36.7	32.9	36.9	29.7
Portugal	34.1	32.9	30.4	29.2	29.7	32.0	33.2	33.9	35.7	29.7
Mexico	28.2	25.4	24.3	25.0	26.7	27.0	27.8	28.4	29.3	..
Sweden	29.5	27.8	26.7	26.5	27.7	30.1	32.0	33.0	34.3	29.2
Germany	26.2	25.7	24.3	24.8	26.1	27.9	31.1	31.7	32.6	28.0
Ireland	52.8	48.3	42.7	34.2	33.4	34.0	33.0	32.3	31.5	27.2
Denmark	28.5	28.2	28.9	27.0	27.9	29.3	31.2	31.7	32.3	26.8
New Zealand	26.1	25.2	24.6	22.6	23.1	23.2	24.2	23.2	26.5	..
Finland	28.3	26.2	25.3	25.9	27.2	30.0	33.4	33.2	33.9	25.2
Canada	33.8	31.8	31.0	28.3	28.2	28.4	28.1	27.4	28.0	24.7
Turkey	20.4	21.1	22.2	22.9	24.9	24.2	26.3	26.3	27.7	22.9
United Kingdom	23.6	23.4	22.6	21.5	21.4	22.5	24.7	22.3	23.8	22.1
France	25.5	24.5	22.6	22.2	22.8	23.5	23.9	23.9	24.6	20.8
Spain	26.9	25.4	24.1	23.6	24.7	25.6	26.6	27.0	26.4	19.9
Italy	21.8	21.1	20.3	19.7	20.6	21.6	23.7	24.2	24.2	19.4
Australia	17.4	16.3	16.6	15.9	16.1	16.4	16.9	16.7	19.1	..
Greece	26.3	24.4	21.4	23.0	22.9	22.4	24.1	24.6	25.3	18.0
Norway	20.4	19.3	18.2	17.8	18.8	18.4	19.1	20.7	19.8	17.9
Japan	8.1	8.5	8.6	9.1	9.9	11.3	13.3	14.2	15.6	..
United States	12.7	11.5	11.3	11.8	12.9	13.8	14.4	14.4	15.1	..

출처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es_e/, <http://stats.oecd.org/>

113. 서비스수출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89.8	86.4	98.6	107.4	117.7	127.2	123.1	113.8
Ireland	19.0	22.2	24.2	26.5	28.2	29.5	31.0	35.9	38.1	41.7
Iceland	10.8	12.7	11.6	11.6	11.6	12.0	10.8	11.1	13.0	18.6
Denmark	14.8	15.7	15.3	14.9	14.8	16.8	19.1	19.9	21.3	17.7
Belgium	14.4	13.9	14.0	14.4	14.3	15.8	16.6	15.8
Sweden	8.1	9.6	9.5	9.6	10.7	11.5	12.4	13.7	14.7	14.8
Hungary	12.3	13.0	11.0	10.9	10.4	11.6	12.0	12.4	12.9	14.3
Austria	12.0	12.5	12.4	12.7	13.0	13.9	14.2	14.4	14.8	14.0
Switzerland	11.8	10.9	10.7	10.6	11.7	13.0	13.7	14.8	15.2	13.9
Netherlands	12.6	12.5	12.5	11.4	11.8	12.2	12.2	12.1	11.8	11.6
Greece	15.1	14.8	13.6	12.4	14.3	13.9	13.5	13.9	14.4	11.4
United Kingdom	8.0	8.1	8.2	8.4	8.8	8.9	9.6	10.0	10.7	11.0
Czech Republic	11.9	11.4	9.3	8.5	8.8	9.4	9.8	9.7	10.3	10.7
Finland	6.3	7.3	7.7	6.9	8.0	8.6	8.4	9.5	11.8	10.5
Norway	10.4	10.6	10.0	9.5	9.7	9.8	9.8	10.4	10.1	9.9
Portugal	7.6	7.7	7.7	7.6	7.9	7.9	9.1	10.0	10.4	9.6
Spain	9.0	9.1	8.7	8.3	8.2	8.3	8.6	8.8	8.9	8.4
Slovak Republic	10.9	11.6	11.4	9.8	8.8	9.1	9.7	9.3	8.9	7.0
New Zealand	8.2	8.3	8.7	8.3	8.1	7.6	7.4	6.9	6.9	..
Korea	5.6	5.6	4.7	4.9	5.6	5.2	5.1	5.9	8.0	6.7
Poland	6.1	5.1	5.1	5.2	5.3	5.3	6.0	6.8	6.7	6.7
Germany	4.2	4.5	4.8	4.8	5.0	5.6	6.3	6.5	6.6	6.5
France	6.0	5.9	5.9	5.4	5.5	5.7	5.7	5.7	5.7	5.3
Turkey	7.2	7.7	6.0	5.9	5.8	5.5	4.7	4.4	4.7	5.3
Italy	5.1	5.1	4.9	4.7	4.8	5.0	5.2	5.2	5.2	4.8
Canada	5.4	5.3	5.4	5.0	4.9	4.8	4.6	4.5	4.3	4.3
Australia	4.7	4.5	4.4	4.1	4.1	4.0	3.9	4.0	4.2	..
United States	2.8	2.6	2.6	2.6	2.8	2.9	3.0	3.4	3.6	..
Japan	1.5	1.6	1.7	1.7	1.9	2.2	2.6	2.9	3.0	..
Mexico	2.1	1.8	1.8	1.8	1.8	1.9	1.7	1.7	1.7	..

출처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es_e/, <http://stats.oecd.org/>

114. 서비스수입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54.8	53.1	61.3	65.1	69.7	73.9	71.7	68.7
Ireland	32.3	33.7	34.9	34.6	35.3	35.4	35.4	36.5	41.0	45.6
Denmark	13.2	13.8	14.0	13.3	13.6	14.4	16.5	17.4	18.3	16.3
Iceland	13.2	13.4	12.4	13.5	13.8	15.5	15.2	14.4	14.9	15.9
Belgium	14.0	13.5	13.4	13.4	13.1	15.0	16.2	15.3
Hungary	10.0	10.2	10.1	10.8	9.8	10.2	10.6	11.3	12.0	12.6
Sweden	9.4	10.1	9.5	9.1	9.1	9.5	9.9	10.4	11.1	11.5
Netherlands	13.0	13.0	12.9	11.7	11.2	11.3	11.0	10.8	10.5	11.0
Austria	8.6	9.2	9.1	9.4	9.7	10.1	10.4	10.5	10.3	9.9
Finland	6.8	6.4	7.2	7.3	7.6	9.0	9.0	9.1	10.8	9.8
Norway	8.8	9.2	9.3	9.1	9.2	9.5	9.3	10.0	9.7	9.6
Czech Republic	9.5	8.9	8.5	7.9	8.2	8.1	8.3	8.3	8.0	9.1
Korea	6.2	6.4	6.3	6.2	6.8	6.9	7.1	7.8	9.9	8.9
Slovak Republic	8.7	9.3	9.5	9.1	8.1	8.4	8.3	8.6	9.6	8.9
Germany	7.1	7.4	7.1	7.0	7.1	7.4	7.6	7.7	7.8	7.7
New Zealand	8.3	8.1	7.7	6.9	7.1	7.2	7.1	6.8	7.4	..
United Kingdom	6.6	6.6	6.6	6.6	6.6	6.9	7.0	7.0	7.4	7.4
Switzerland	5.8	5.5	5.3	5.2	6.0	6.9	6.8	7.3	7.2	6.9
Portugal	5.8	5.5	5.3	5.0	5.2	5.4	5.9	6.1	6.6	6.1
Greece	8.6	8.5	6.4	5.5	5.9	5.9	6.0	6.4	7.0	5.9
Spain	5.7	5.7	5.6	5.4	5.6	5.9	6.3	6.7	6.5	5.9
Canada	6.0	6.0	6.1	6.0	5.8	5.7	5.6	5.7	5.8	5.8
Poland	5.2	4.6	4.6	5.0	5.2	5.0	5.7	5.6	5.7	5.5
Italy	5.0	5.0	5.0	4.9	4.7	5.0	5.3	5.6	5.6	5.4
France	4.5	4.6	4.7	4.5	4.7	4.9	4.9	4.9	5.0	4.7
Australia	4.5	4.3	4.1	3.8	4.0	3.9	3.8	4.0	4.5	..
Japan	2.3	2.4	2.5	2.4	2.6	2.7	3.1	3.4	3.3	..
United States	2.1	2.0	2.0	2.0	2.2	2.2	2.4	2.4	2.5	..
Turkey	2.9	2.9	2.4	2.2	2.3	2.1	2.0	2.2	2.2	2.4
Mexico	2.6	2.4	2.4	2.5	2.5	2.5	2.4	2.3	2.3	..

출처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es_e/, <http://stats.oecd.org/>

115. 수입침투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163.3	156.6	150.5	148.5	169.0	174.8	200.5	216.1	207.9	192.3
Ireland	98.5	99.8	91.9	79.7	80.2	79.3	78.3	79.6	81.8	89.1
Hungary	74.0	71.4	63.6	62.6	64.1	66.6	77.3	80.1	82.0	76.2
Belgium	77.6	77.1	75.6	73.0	75.5	79.4	81.6	82.7	85.6	72.2
Slovak Republic	71.2	74.8	73.1	76.3	75.3	77.3	85.0	86.9	83.4	69.9
Czech Republic	64.4	66.2	61.0	62.6	70.1	71.3	75.6	79.0	76.0	67.3
Netherlands	68.3	65.3	61.7	60.5	63.7	66.8	70.6	72.4	74.6	66.9
Austria	45.4	47.3	46.5	46.7	50.0	52.3	54.5	56.8	56.7	48.1
Iceland	38.1	39.4	36.4	36.2	37.6	39.2	42.5	40.9	46.1	48.1
Korea	36.7	34.2	32.1	33.9	38.3	37.6	38.8	41.0	53.5	47.8
Switzerland	43.2	43.1	40.5	40.1	42.4	45.3	48.2	51.2	50.9	45.7
Denmark	43.1	43.5	44.0	41.7	42.6	46.4	50.5	51.2	53.8	45.4
Sweden	42.9	42.4	40.3	39.4	41.1	44.1	46.8	48.0	49.8	44.7
Poland	31.5	29.6	31.0	35.1	38.9	37.5	41.4	42.4	42.3	38.8
Germany	33.1	33.5	32.7	33.0	35.1	37.8	42.1	42.9	43.9	37.8
Finland	37.9	35.5	34.5	34.2	35.7	39.3	42.8	42.9	44.5	35.5
Portugal	36.1	34.8	33.2	32.3	33.7	34.0	36.5	37.3	38.7	33.1
Norway	35.5	34.7	32.0	31.4	33.0	33.7	34.6	35.9	35.8	32.1
New Zealand	34.0	33.2	30.9	28.5	29.2	29.0	29.7	29.1	31.9	..
Canada	42.3	40.1	38.8	35.7	35.7	35.4	34.5	33.7	34.2	29.9
Mexico	29.5	26.6	25.7	26.4	27.9	28.2	28.9	29.4	29.8	..
United Kingdom	28.9	28.8	28.0	27.2	27.2	28.8	30.7	28.8	31.0	29.4
Greece	33.8	32.9	30.5	28.7	29.3	28.9	30.0	30.4	30.4	26.0
Spain	31.2	30.3	28.8	28.0	28.8	29.4	30.7	31.5	30.6	25.2
France	27.9	27.3	25.8	24.8	25.6	26.7	27.7	27.9	28.3	24.5
Italy	26.4	26.1	25.0	24.1	24.8	26.0	28.3	29.2	29.3	24.3
Turkey	22.4	24.3	24.0	23.8	25.5	24.5	26.3	26.1	27.1	24.1
Australia	21.8	20.5	20.5	19.0	20.1	20.8	20.7	21.4	22.1	..
Japan	9.7	10.0	10.2	10.6	11.6	13.1	15.1	16.2	17.4	..
United States	14.4	13.2	13.0	13.3	14.5	15.2	15.9	16.1	16.8	..

출처 <http://stats.oecd.org/>

* 전체 국내수요(소비, 투자 및 정부지출)대비 수입액의 비율

116. 농업보조금 비중(전체농가소득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orway	66.5	65.3	73.7	71.1	66.4	65.9	64.1	56.9	60.3	66.3
Switzerland	69.8	67.3	70.6	69.2	69.3	66.2	65.4	54.3	56.6	62.9
Korea	66.0	57.4	59.6	56.5	62.7	60.6	59.5	58.3	46.2	51.7
Iceland	69.6	62.6	66.4	65.0	65.8	66.8	64.6	57.6	53.4	47.8
Japan	59.7	56.3	57.2	57.5	56.0	53.8	51.6	46.4	47.5	47.8
Turkey	24.2	12.1	24.3	30.2	31.7	32.1	28.3	29.6	36.0	36.9
Austria	24.1	22.4	23.5
Belgium	24.1	22.4	23.5
Czech Republic	24.1	22.4	23.5
Denmark	24.1	22.4	23.5
Finland	24.1	22.4	23.5
France	24.1	22.4	23.5
Germany	24.1	22.4	23.5
Greece	24.1	22.4	23.5
Hungary	24.1	22.4	23.5
Ireland	24.1	22.4	23.5
Italy	24.1	22.4	23.5
Luxembourg	24.1	22.4	23.5
Netherlands	24.1	22.4	23.5
Poland	24.1	22.4	23.5
Portugal	24.1	22.4	23.5
Slovak Republic	24.1	22.4	23.5
Spain	24.1	22.4	23.5
Sweden	24.1	22.4	23.5
Canada	20.0	15.9	21.2	25.4	21.1	22.1	21.9	18.8	13.0	20.2
Mexico	23.4	18.2	26.8	19.2	11.7	13.0	13.2	12.9	12.0	12.5
United States	23.3	22.1	18.4	15.0	16.3	15.3	11.2	10.0	7.9	9.8
Australia	3.3	3.3	4.7	3.7	3.4	3.7	4.5	5.0	4.0	2.7
New Zealand	0.3	0.6	0.3	0.7	0.7	1.3	0.9	0.7	0.6	0.4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117. FDI 잠재력*(2004-2006)

Rank Economy Score (0-1)	점 수	순 위
United States	0.618	1
United Kingdom	0.447	2
Canada	0.434	3
Luxembourg	0.430	4
Germany	0.429	5
Sweden	0.418	6
Norway	0.415	7
Iceland	0.409	8
Netherlands	0.401	9
Finland	0.395	10
Belgium	0.388	11
Ireland	0.385	12
France	0.383	13
Korea	0.380	14
Switzerland	0.374	15
Australia	0.367	16
Denmark	0.367	17
Japan	0.354	18
Spain	0.337	19
Austria	0.335	20
Italy	0.308	21
New Zealand	0.298	22
Greece	0.289	23
Czech Republic	0.277	24
Hungary	0.269	25
Poland	0.264	26
Portugal	0.247	27
Slovakia	0.244	28
Mexico	0.231	29
Turkey	0.190	30

출처 <http://www.unctad.org/Templates/>

*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수출규모, 국가신용도 등 12개 경제변수를 종합한 것으로 국가의 외국인 투자매력도를 측정할 것

118. FDI비중(잔액)(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963.1	1,007.7	154.9	143.1	145.5	116.1	140.4	163.1	158.9	232.3
Hungary	47.8	51.5	54.5	57.3	61.3	56.2	107.1	143.2	162.9	192.8
Belgium	91.1	113.4	129.7	100.7	120.6	176.9	133.1	176.8
Switzerland	34.4	34.5	44.4	49.4	53.9	45.3	67.6	88.9	88.4	94.4
Ireland	131.6	128.1	149.3	141.6	112.3	81.1	70.4	78.1	61.9	83.3
Sweden	38.3	40.8	48.0	51.1	54.9	46.9	57.8	64.5	56.8	75.5
Netherlands	63.3	70.6	79.9	79.3	78.2	70.7	76.1	93.8	73.3	75.4
Iceland	5.7	8.7	9.0	10.9	15.8	28.9	46.1	80.8	55.6	69.3
Czech Republic	38.2	43.8	51.4	49.6	52.3	48.7	56.1	64.6	52.1	59.2
New Zealand	47.3	39.7	49.2	53.8	51.9	46.3	54.8	52.0	41.1	58.6
Slovakia	23.3	26.5	34.9	43.8	51.8	49.4	60.2	60.3	48.4	56.8
United Kingdom	29.7	34.4	32.5	32.6	31.9	36.9	46.8	44.4	36.8	51.7
Denmark	46.0	47.0	47.6	47.1	47.6	45.2	48.8	52.1	44.2	50.8
Portugal	28.4	31.1	35.0	38.7	37.4	34.2	45.4	51.6	41.1	49.0
Spain	26.9	29.1	37.5	38.4	39.0	34.0	37.5	40.7	38.8	45.6
Austria	16.3	18.4	21.8	22.9	24.5	27.2	34.4	43.9	38.4	44.2
Poland	20.0	21.7	24.4	26.7	34.3	29.9	36.8	42.0	30.9	42.5
France	29.4	28.6	30.2	36.2	42.0	41.3	48.8	48.5	32.2	42.3
Canada	29.3	29.9	30.7	33.4	31.8	30.2	29.3	36.1	29.4	39.2
Finland	19.9	19.2	25.1	30.5	30.4	28.1	33.7	37.3	30.5	36.8
Mexico	15.3	20.6	23.1	25.8	27.0	26.9	26.1	26.9	27.5	35.6
Australia	29.7	32.0	35.4	39.2	43.2	32.8	37.6	40.6	30.0	34.1
Norway	18.0	19.1	22.3	21.8	30.7	25.3	28.4	32.3	24.2	30.3
United States	28.3	25.2	19.3	22.3	23.2	22.6	24.9	26.0	18.0	22.6
Germany	14.3	14.4	14.8	16.2	18.7	17.1	20.3	21.0	18.3	21.0
Italy	11.0	10.2	10.7	12.0	12.8	12.6	15.8	17.3	14.8	18.6
Greece	11.1	10.6	10.6	11.6	12.3	11.9	15.4	17.0	10.7	13.4
Korea	7.1	10.5	10.9	10.3	12.2	12.4	12.5	11.4	10.2	13.3
Turkey	7.2	10.0	8.0	11.1	9.8	14.7	18.0	23.3	9.5	12.4
Japan	1.1	1.2	2.0	2.1	2.1	2.2	2.5	3.0	4.1	3.9

출처 <http://www.unctad.org/Templates/>

119. FDI비중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437.8	436.7	18.0	10.0	15.2	15.9	74.7	-58.5	17.3	56.2
Ireland	26.7	9.2	23.9	14.5	-5.7	-15.7	-2.5	9.5	-7.4	10.8
Belgium	6.5	10.8	12.1	9.1	14.8	25.8	21.8	7.2
Netherlands	16.6	13.0	5.7	3.9	0.8	7.5	1.2	14.9	-0.9	3.4
Sweden	9.5	4.8	4.9	1.6	3.1	2.7	6.9	6.0	7.0	2.7
Poland	5.5	3.0	2.1	2.1	5.1	3.4	5.7	5.5	2.8	2.6
Denmark	21.1	7.2	3.8	1.3	-4.3	5.0	1.0	3.8	0.8	2.5
Australia	3.9	2.9	3.5	1.7	6.4	-3.3	3.9	4.8	4.6	2.3
France	3.3	3.8	3.4	2.4	1.6	3.9	3.2	3.7	2.2	2.2
United Kingdom	8.0	3.6	1.5	0.9	2.5	7.7	6.4	6.7	3.4	2.1
Switzerland	7.6	3.4	2.2	5.0	0.3	-0.3	8.0	12.0	1.0	2.0
Austria	4.6	3.1	0.2	2.8	1.3	3.5	2.5	8.4	2.7	1.8
Norway	4.2	1.2	0.4	1.5	1.0	1.8	1.9	1.5	1.8	1.7
Italy	1.2	1.3	1.2	1.1	1.0	1.1	2.1	1.9	0.7	1.4
Mexico	2.8	4.4	3.3	2.4	3.1	2.6	2.1	2.7	2.2	1.4
Canada	9.2	3.9	3.0	0.9	0.0	2.3	4.7	7.6	3.7	1.4
Czech Republic	8.8	9.1	11.3	2.3	4.5	9.4	3.8	6.0	3.0	1.4
Portugal	5.9	5.4	1.4	4.6	1.1	2.1	5.6	1.4	1.9	1.3
Turkey	0.4	1.7	0.5	0.6	0.7	2.1	3.8	3.4	2.4	1.2
Germany	10.4	1.4	2.7	1.3	-0.4	1.7	1.9	2.3	0.7	1.1
Finland	7.3	3.0	5.9	2.0	1.5	2.4	3.7	5.0	-0.7	1.1
Spain	6.8	4.7	5.7	2.9	2.4	2.2	2.5	4.5	4.6	1.0
Greece	0.9	1.2	0.0	0.7	0.9	0.3	2.0	0.7	1.3	1.0
United States	3.2	1.6	0.7	0.5	1.2	0.8	1.8	1.9	2.3	0.9
Korea	1.7	0.8	0.6	0.7	1.2	0.8	0.5	0.3	0.9	0.7
New Zealand	2.6	-0.6	2.4	2.9	2.4	1.4	4.4	2.6	4.0	0.3
Japan	0.2	0.2	0.2	0.1	0.2	0.1	-0.1	0.5	0.5	0.2
Slovakia	9.5	7.5	16.9	6.5	7.2	5.1	8.4	4.8	3.6	-0.1
Iceland	2.0	2.3	1.0	2.9	4.9	14.3	23.1	33.6	5.5	-0.7
Hungary	5.8	7.4	4.5	2.5	4.4	7.0	17.5	51.5	40.1	-4.3

출처 <http://www.unctad.org/Templates/>

120.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중(잔액)(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itzerland	92.0	98.0	103.9	104.0	109.3	115.0	145.0	157.6	153.0	163.8
Luxembourg	886.9	898.4	80.3	73.2	81.6	86.9	99.2	153.1	116.7	160.1
Belgium	79.8	98.8	103.1	127.3	154.9	141.5	122.0	142.5
Hungary	2.7	2.9	3.3	4.2	5.9	7.1	50.5	96.0	119.4	135.6
Netherlands	79.3	82.9	90.6	97.2	96.3	96.4	112.7	114.6	94.3	107.5
Sweden	50.2	54.7	58.9	59.7	60.1	57.0	67.5	72.6	66.2	91.1
Ireland	28.9	39.0	48.1	46.6	57.7	51.6	54.3	57.5	63.1	82.9
United Kingdom	60.8	59.1	61.7	63.8	56.7	52.6	59.8	65.5	57.4	75.9
Denmark	45.7	48.8	49.9	48.3	51.6	50.2	53.6	58.3	55.1	69.7
France	69.6	59.5	43.7	52.5	55.9	57.3	70.9	69.5	45.7	64.3
Iceland	7.6	10.6	14.1	15.8	30.5	61.9	83.9	123.7	56.9	58.9
Finland	42.8	41.8	47.2	46.2	45.0	41.9	45.9	47.8	42.6	52.4
Spain	22.2	23.6	23.8	25.0	27.0	27.0	35.4	40.8	37.2	44.0
Austria	13.0	15.0	20.6	22.2	24.2	23.6	32.7	40.1	38.0	43.8
Norway	20.2	21.9	24.5	25.4	31.3	30.8	35.8	37.6	28.9	42.9
Canada	32.8	35.0	37.5	36.8	37.6	34.3	34.8	36.3	34.9	42.3
Germany	28.5	32.7	34.5	34.0	33.7	33.2	37.1	40.2	36.1	41.3
Australia	24.0	32.1	30.4	33.7	34.7	28.3	33.9	35.8	23.6	35.7
United States	27.4	22.8	19.3	24.8	28.7	29.2	33.9	38.1	21.9	31.2
Portugal	17.6	19.2	16.7	22.0	24.6	22.6	27.7	30.3	25.9	29.6
Italy	16.4	16.3	16.0	15.9	16.2	16.5	20.3	24.6	22.2	27.3
Japan	6.0	7.3	7.8	7.9	8.0	8.5	10.3	12.4	13.9	14.5
Korea	5.0	4.0	3.6	3.9	4.5	4.6	5.2	7.1	10.5	13.9
New Zealand	16.1	13.7	15.6	14.6	14.0	10.4	12.3	12.1	10.6	13.3
Greece	4.8	5.4	6.1	6.4	6.0	5.5	8.4	10.1	10.5	12.1
Czech Republic	1.3	1.8	2.0	2.5	3.4	2.9	3.5	4.9	5.8	7.1
Mexico	1.3	1.8	1.8	2.4	2.9	3.5	3.9	4.4	4.2	6.2
Poland	0.6	0.6	0.7	1.0	1.3	2.1	4.2	5.0	4.3	6.1
Slovakia	1.8	2.1	2.0	2.5	2.0	1.2	2.4	2.0	2.0	3.1
Turkey	1.4	2.3	2.5	2.0	1.8	1.7	1.7	1.8	1.9	2.4

출처 <http://www.unctad.org/Templates/>

121.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중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426.1	498.3	40.9	-0.1	20.3	24.0	16.9	126.3	30.9	30.8
Iceland	4.5	4.4	3.6	3.4	19.4	41.0	33.1	49.8	-26.1	11.3
Ireland	4.8	3.9	9.0	3.5	9.8	7.1	6.9	8.1	5.0	8.9
Norway	5.6	0.5	3.0	2.7	2.1	7.3	6.3	3.5	6.5	8.9
Sweden	16.7	3.3	4.3	6.8	5.9	7.2	6.0	8.3	5.8	7.5
France	13.3	6.5	3.5	2.9	2.7	5.3	4.9	6.3	5.6	5.5
Denmark	16.6	8.3	3.3	0.6	-4.2	6.3	3.0	6.6	4.1	5.1
Switzerland	17.7	7.1	2.9	4.7	7.2	13.6	19.3	13.1	10.3	3.2
Canada	6.2	5.0	3.6	2.6	4.4	2.4	3.5	4.2	5.4	2.9
Netherlands	19.6	12.6	7.3	8.2	4.8	20.6	9.6	3.7	2.3	2.2
Italy	1.1	1.9	1.4	0.6	1.1	2.4	2.3	4.3	1.9	2.1
Australia	1.1	3.6	1.8	3.4	1.6	-4.2	3.2	1.8	3.2	1.9
Germany	3.0	2.1	0.9	0.2	0.7	2.7	4.1	4.9	3.7	1.9
United States	1.5	1.2	1.3	1.2	2.5	0.1	1.7	2.8	2.3	1.8
Japan	0.7	0.9	0.8	0.7	0.7	1.0	1.2	1.7	2.6	1.5
Korea	0.9	0.5	0.5	0.5	0.7	0.5	0.9	1.5	2.0	1.3
Finland	19.7	6.7	5.4	-1.4	-0.6	2.2	2.3	2.9	3.1	1.2
Spain	10.0	5.4	4.8	3.2	5.8	3.7	8.5	9.5	4.7	1.1
Austria	3.0	1.7	2.8	2.8	2.9	3.7	4.2	10.5	7.1	1.0
Mexico	0.1	0.6	0.1	0.2	0.6	0.8	0.6	0.8	0.1	0.9
United Kingdom	15.8	4.0	3.1	3.3	4.1	3.5	3.5	11.4	6.0	0.8
Czech Republic	0.1	0.3	0.3	0.2	0.9	-0.0	1.0	0.9	2.0	0.7
Poland	0.0	-0.0	0.1	0.1	0.4	1.1	2.6	1.3	0.6	0.7
Portugal	7.2	5.4	-0.1	4.2	4.2	1.1	3.7	2.5	1.1	0.6
Greece	1.7	0.5	0.4	0.2	0.4	0.6	1.5	1.7	0.7	0.5
Slovakia	0.1	0.3	0.0	0.7	-0.1	0.3	0.9	0.8	0.3	0.5
Turkey	0.3	0.3	0.1	0.2	0.2	0.2	0.2	0.3	0.3	0.2
New Zealand	1.2	-2.1	0.6	1.1	-0.5	-1.4	0.2	2.8	-0.2	-0.4
Belgium	4.9	12.4	9.5	8.7	12.7	23.1	25.8	-3.2
Hungary	1.3	0.7	0.4	1.9	1.1	2.0	16.5	48.1	38.7	-5.3

출처 <http://www.unctad.org/Templates/>

122. 공적개발원조(ODA), GNI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eden	0.80	0.77	0.84	0.79	0.78	0.94	1.02	0.93	0.98	1.12
Norway	0.76	0.80	0.89	0.92	0.87	0.94	0.89	0.95	0.88	1.06
Luxembourg	0.70	0.77	0.78	0.86	0.79	0.79	0.89	0.92	0.97	1.01
Denmark	1.06	1.03	0.96	0.84	0.85	0.81	0.80	0.81	0.82	0.88
Netherlands	0.84	0.82	0.81	0.80	0.73	0.82	0.81	0.81	0.80	0.82
Belgium	0.36	0.37	0.43	0.60	0.41	0.53	0.50	0.43	0.48	0.55
Finland	0.31	0.32	0.35	0.35	0.37	0.46	0.40	0.39	0.44	0.54
Ireland	0.29	0.33	0.40	0.39	0.39	0.42	0.54	0.55	0.59	0.54
United Kingdom	0.32	0.32	0.31	0.34	0.36	0.47	0.51	0.36	0.43	0.52
Switzerland	0.34	0.34	0.33	0.37	0.40	0.43	0.39	0.38	0.44	0.47
France	0.30	0.31	0.37	0.40	0.41	0.47	0.47	0.38	0.39	0.46
Spain	0.22	0.30	0.26	0.23	0.24	0.27	0.32	0.37	0.45	0.46
Germany	0.27	0.27	0.27	0.28	0.28	0.36	0.36	0.37	0.38	0.35
Iceland	0.10	0.13	0.15	0.17	0.18	0.18	0.27	0.27	0.47	0.33
Austria	0.23	0.34	0.26	0.20	0.23	0.52	0.47	0.50	0.43	0.30
Canada	0.25	0.22	0.28	0.24	0.27	0.34	0.29	0.29	0.33	0.30
Australia	0.27	0.25	0.26	0.25	0.25	0.25	0.30	0.32	0.32	0.29
New Zealand	0.25	0.25	0.22	0.23	0.23	0.27	0.27	0.27	0.30	0.29
Portugal	0.26	0.25	0.27	0.22	0.63	0.21	0.21	0.22	0.27	0.23
United States	0.10	0.11	0.13	0.15	0.17	0.23	0.18	0.16	0.19	0.20
Greece	0.20	0.17	0.21	0.21	0.16	0.17	0.17	0.16	0.21	0.19
Japan	0.28	0.23	0.23	0.20	0.19	0.28	0.25	0.17	0.19	0.18
Italy	0.13	0.15	0.20	0.17	0.15	0.29	0.20	0.19	0.22	0.16
Czech Republic	0.03	0.05	0.07	0.11	0.11	0.11	0.12	0.11	0.12	0.12
Turkey	0.04	0.04	0.04	0.04	0.11	0.17	0.18	0.09	0.11	0.12
Korea	0.04	0.06	0.05	0.06	0.06	0.10	0.05	0.07	0.09	0.10
Hungary	0.03	0.07	0.11	0.13	0.08	0.08	0.09
Poland	0.02	0.02	..	0.01	0.05	0.07	0.09	0.10	0.08	0.08
Slovak Republic	0.03	0.04	0.02	0.05	0.07	0.12	0.10	0.09	0.10	0.08

출처 <http://stats.oecd.org>

VII. 산업구조

123.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비중

(%)	2007
Portugal	81.6
Greece	79.3
Italy	77.9
Spain	73.2
Korea(2006)	71.0
Turkey(2006)	68.7
Netherlands	67.8
Japan	66.0
Norway(2006)	62.1
Australia(2006)	59.3
Poland	58.4
Hungary	56.6
United Kingdom	56.5
Czech Republic	55.8
Belgium	55.4
Ireland	54.7
Austria	54.1
Denmark	53.6
France	53.1
Sweden	50.1
Finland	49.0
Mexico(2003)	48.5
New Zealand	47.6
Germany	47.1
Slovak Republic	43.9
Luxembourg	40.0

출처 <http://stats.oecd.org>

* 250인 미만 기업체

124. 제조업 중소기업* 기업체 수 비중

	(2007)
Greece	99.8
Italy	99.7
Portugal	99.7
Turkey(2006)	99.6
Australia(2006)	99.5
Spain	99.5
Czech Republic	99.4
Mexico(2003)	99.3
Sweden	99.3
France	99.2
Hungary	99.2
Norway(2006)	99.2
Belgium	99.1
Poland	99.1
Finland	99.0
Korea(2006)	98.9
Netherlands	98.9
United Kingdom	98.8
Denmark	98.6
Austria	98.4
New Zealand	98.3
Japan	98.2
Germany	97.9
Luxembourg	97.0
Ireland	96.8
Slovak Republic	96.3

출처 <http://stats.oecd.org>

* 250인 미만 기업체

125. 제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중

(%)	2007
Italy	68.3
Portugal	64.3
Greece	63.1
Spain	57.3
Norway(2006)	53.6
Netherlands	51.5
Japan	49.3
Denmark	46.7
Korea(2006)	45.3
United Kingdom	44.5
Australia(2006)	44.4
France	43.4
Czech Republic	42.8
Turkey(2006)	42.2
Austria	42.0
Poland	41.9
Belgium	41.1
Sweden	37.4
Finland	35.5
Germany	35.0
Slovak Republic	34.0
Hungary	32.7
Ireland	30.5
Luxembourg	27.1
Mexico(2003)	27.0

출처 <http://stats.oecd.org/>

* 250인 미만 기업체

126. 제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고용배율

(배)	2007
Italy	0.88
Denmark	0.87
Norway(2006)	0.86
France	0.82
Greece	0.80
Portugal	0.79
United Kingdom	0.79
Spain	0.78
Austria	0.78
Slovak Republic	0.77
Czech Republic	0.77
Netherlands	0.76
Australia(2006)	0.75
Japan	0.75
Sweden	0.75
Germany	0.74
Belgium	0.74
Finland	0.72
Poland	0.72
Luxembourg	0.68
Korea(2006)	0.64
Turkey(2006)	0.61
Hungary	0.58
Ireland	0.56
Mexico(2003)	0.56

출처 <http://stats.oecd.org/>

* 250인 미만 기업체

127.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9.0	9.2	9.3	7.9	6.8	6.2	6.3	5.6	6.4
New Zealand	8.5	8.8	6.6	6.5	6.1	5.2	5.4
Hungary	5.4	5.3	4.6	4.3	4.8	4.2	4.1	4.0	..
Poland	5.0	5.1	4.5	4.4	5.1	4.5	4.3	4.3	3.7
Greece	6.6	6.4	5.9	5.5	4.9	4.9	3.9	3.8	3.7
Slovak Republic	4.5	4.7	5.1	4.5	4.1	3.7	3.6	3.5	3.1
Finland	3.5	3.4	3.3	3.2	3.0	3.0	2.7	3.2	3.0
Portugal	3.8	3.6	3.3	3.2	3.2	2.8	2.8
Spain	4.4	4.3	4.0	4.0	3.6	3.2	2.8	2.7	2.6
Korea	4.6	4.4	4.0	3.7	3.7	3.3	3.2	2.9	2.5
Czech Republic	3.9	3.9	3.3	3.1	3.3	3.0	2.6	2.5	2.5
Australia	4.0	4.4	3.3	3.5	3.3	3.1	2.3
Italy	2.8	2.7	2.6	2.5	2.5	2.2	2.1	2.1	2.0
France	2.8	2.9	2.7	2.5	2.5	2.3	2.1	2.2	2.0
Canada	2.3	2.2	2.2	2.1	2.2	1.9
Netherlands	2.6	2.6	2.3	2.3	2.2	2.1	2.2	2.1	1.8
Austria	2.0	2.1	2.0	1.9	1.9	1.6	1.7	1.8	1.7
Japan	1.7	1.6	1.6	1.6	1.6	1.5	1.4
Sweden	2.0	2.0	1.9	1.9	1.8	1.1	1.4	1.4	..
Ireland	3.2	2.8	2.4	2.4	2.3	1.8	1.5	1.5	1.4
United States	1.0	1.0	0.9	1.0	1.2	1.1	0.9	1.2	..
Denmark	2.6	2.8	2.2	2.0	1.9	1.4	1.3	1.2	1.2
Switzerland	1.6	1.4	1.4	1.3	1.4	1.3	1.2	1.2	..
Norway	2.1	1.8	1.7	1.5	1.6	1.5	1.5	1.4	1.1
Germany	1.3	1.4	1.1	1.0	1.1	0.9	0.9	0.9	0.9
UK	1.0	0.9	0.9	1.0	1.0	0.7	0.7	0.7	..
Belgium	1.4	1.3	1.2	1.1	1.1	0.8	0.9	0.9	0.7
Luxembourg	0.7	0.7	0.7	0.6	0.6	0.4	0.4	0.4	0.3

출처 <http://stats.oecd.org>

128. 농림수산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oland	18.4	19.1	19.3	18.4	18.0	17.4	15.8	14.7	14.0
Portuga	12.6	12.8	12.3	12.5	12.0	11.9	11.8
Greece	17.0	15.7	15.1	14.6	12.7	12.5	12.0	11.6	11.5
Korea	10.6	10.0	9.3	8.8	8.1	7.9	7.7	7.4	7.2
Austria	7.9	7.8	7.7	7.6	7.4	7.2	6.9	6.6	6.4
Ireland	7.7	7.2	7.0	6.6	6.2	5.9	5.7	5.6	5.8
Japan	5.9	5.7	5.4	5.4	5.3	5.2	5.1	5.0	..
Finland	6.0	5.6	5.4	5.3	5.1	5.1	5.0	4.9	4.8
Hungary	6.6	6.3	6.2	5.5	5.3	5.0	4.9	4.7	..
Spain	6.3	6.1	5.9	5.7	5.4	5.2	4.7	4.5	4.3
Iceland	8.3	7.8	7.2	6.9	6.3	6.5	6.3	5.9	4.0
Switzerland	4.5	4.2	4.1	4.1	3.8	3.8	3.8	3.9	4.0
Italy	4.8	4.7	4.5	4.2	4.2	4.2	4.2	4.0	3.9
Czech Republic	4.8	4.6	4.3	4.2	4.0	3.8	3.7	3.6	3.6
Slovak Republic	5.7	5.4	5.0	4.5	4.5	4.4	4.0	3.6	3.6
Australia	4.8	4.8	4.0	3.9	3.7	3.5	3.5
France	3.9	3.8	3.7	3.7	3.6	3.6	3.5	3.3	3.2
Netherlands	3.4	3.4	3.4	3.4	3.3	3.2	3.1	3.0	2.9
Denmark	3.5	3.3	3.3	3.3	3.1	3.1	2.9	2.8	2.8
Norway	4.1	3.9	3.8	3.7	3.5	3.3	3.1	2.9	2.8
Canada	3.1	2.8	2.8	2.6	2.6	2.6	2.4	2.3	..
Sweden	3.0	2.7	2.6	2.5	2.4	2.3	2.2	2.2	..
Germany	2.4	2.4	2.3	2.3	2.2	2.2	2.1	2.1	2.1
Belgium	2.2	2.1	2.0	2.0	2.0	2.0	1.9	1.9	1.8
Luxembourg	1.5	1.4	1.4	1.6	1.6	1.6	1.6	1.7	1.5
United States	1.7	1.7	1.7	1.7	1.7	1.6	1.5	1.5	..
United Kingdom	1.7	1.6	1.4	1.4	1.4	1.4	1.4	1.4	..
New Zealand	0.5	0.5	0.6	0.7	0.6	0.6	0.5	0.5	0.5

출처 <http://stats.oecd.org>

129. 제조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Korea	28.6	26.9	26.5	26.1	28.0	27.8	27.5	27.6	28.4
Czech Republic	26.8	26.4	25.4	24.7	26.8	26.3	26.3	26.5	24.7
Slovak Republic	24.7	25.3	22.8	23.4	24.0	24.1	24.1	24.2	23.9
Germany	22.9	22.8	22.4	22.4	22.6	22.7	23.4	23.6	23.1
Finland	26.2	25.7	24.9	24.2	23.5	23.1	23.7	23.6	22.1
Hungary	23.5	22.3	21.4	22.0	22.1	22.2	22.5	22.1	..
Ireland	32.7	31.6	32.5	28.5	25.8	23.5	22.5	21.9	21.9
Japan	21.3	20.1	19.7	20.1	20.4	20.6	20.7
Austria	20.6	20.3	19.8	19.4	19.3	19.6	20.0	20.2	20.2
Switzerland	19.0	19.5	19.2	18.9	18.9	19.3	19.8	20.0	..
Sweden	22.0	20.7	20.3	20.0	19.8	19.7	19.7	20.0	..
Poland	18.5	16.8	16.5	17.7	19.1	18.5	18.8	18.9	18.7
Italy	21.0	20.4	19.9	19.0	18.8	18.5	18.7	19.0	18.3
Belgium	19.3	18.5	18.2	17.4	17.5	17.1	16.7	16.3	15.8
Canada	19.7	18.4	18.1	17.0	16.6	15.6
Portugal	17.5	17.1	16.7	16.0	15.5	15.1	14.8
Spain	18.6	18.1	17.3	16.8	16.3	15.8	15.5	15.0	14.6
New Zealand	16.2	15.6	15.7	15.0	15.0	14.9	14.5
Denmark	16.2	15.9	15.8	15.0	14.5	14.2	14.2	14.2	13.9
Netherlands	15.6	14.8	14.3	14.1	14.3	14.3	13.9	13.9	13.6
United States	15.7	14.4	14.1	13.5	13.3	13.1	13.0	12.7	..
Iceland	13.8	15.5	13.5	12.5	12.0	10.4	11.4	10.6	12.7
UK	17.4	16.4	15.3	14.3	13.8	13.3	13.0	12.6	..
France	16.2	15.6	14.8	14.2	13.7	13.4	12.8	12.5	12.1
Australia	12.7	12.1	12.5	12.5	11.8	11.2	11.2
Greece	11.1	10.5	10.2	9.6	9.9	10.4	10.2	10.4	11.1
Norway	10.6	10.7	10.7	10.6	10.3	9.8	10.0	10.2	9.1
Luxembourg	11.3	11.0	10.3	10.1	9.9	9.2	8.7	9.2	8.7

출처 <http://stats.oecd.org>

130. 제조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zech Republic	27.7	28.1	27.8	27.4	27.4	27.5	27.6	27.3	27.3
Slovak Republic	25.4	25.4	24.9	25.2	25.0	24.5	24.3	24.5	24.3
Hungary	24.3	24.9	24.8	23.6	22.9	22.3	22.0	22.2	..
Poland	20.8	20.0	18.7	19.1	19.9	20.1	20.5	20.7	20.9
Italy	21.8	21.3	21.2	21.0	20.7	20.5	20.2	20.1	19.8
Germany	20.7	20.7	20.4	20.0	19.6	19.4	19.1	19.0	19.0
Portugal	20.8	20.1	19.8	19.3	18.8	18.4	18.1
Japan	19.1	18.8	18.1	17.8	17.4	17.2	17.4	17.4	..
Korea	20.3	19.8	19.1	19.0	19.0	18.5	18.0	17.6	17.3
Finland	20.0	19.9	19.3	18.8	18.3	18.0	17.9	17.6	17.2
Austria	17.1	17.0	16.6	16.3	16.1	16.1	16.0	16.0	16.0
Switzerland	17.7	17.6	16.9	16.1	16.0	16.0	16.0	16.0	15.8
Sweden	18.4	18.3	17.8	17.4	16.7	16.5	16.1	15.8	..
Spain	18.1	17.8	17.6	17.1	16.7	16.1	15.5	14.9	14.9
New Zealand	16.5	16.1	16.4	16.1	15.6	14.9	14.3	14.1	13.8
Denmark	16.3	16.1	15.7	15.2	14.6	14.1	13.8	13.8	13.6
Belgium	16.1	16.0	15.5	15.0	14.6	14.2	13.9	13.5	13.3
Ireland	17.5	17.1	16.2	15.6	14.8	13.9	13.2	12.9	12.6
France	15.2	15.0	14.6	14.2	13.7	13.4	13.0	12.6	12.4
Canada	14.6	14.2	13.9	13.5	13.3	13.0	12.4	11.8	..
Norway	12.9	12.5	12.2	11.8	11.3	11.2	11.4	11.3	11.2
Netherlands	12.8	12.5	12.1	11.8	11.5	11.3	11.0	10.8	10.7
Greece	11.6	12.1	11.9	11.5	11.1	11.1	11.0	10.8	10.7
Australia	12.4	11.8	11.9	11.2	11.1	10.6	10.3
Luxembourg	12.5	12.1	11.8	12.1	11.9	11.5	11.1	10.6	10.2
United Kingdom	14.3	13.5	12.8	12.1	11.4	10.8	10.4	10.1	..
Iceland	15.5	14.5	14.3	13.9	14.0	13.1	11.9	10.8	9.9
United States	12.7	12.1	11.3	10.8	10.5	10.3	10.1	9.9	..

출처 <http://stats.oecd.org>

131.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81.0	80.7	80.9	81.4	81.7	82.9	83.9	83.7	84.3
United States	75.7	76.8	77.4	77.6	77.3	77.3	77.1	77.6	..
France	74.3	74.7	75.5	76.3	76.6	77.0	77.5	77.4	77.6
Greece	72.5	72.2	74.6	75.5	75.7	75.5	76.1	76.5	77.3
Belgium	71.6	72.6	73.3	74.1	74.3	75.1	75.1	75.4	76.2
United Kingdom	71.7	72.8	74.1	75.2	75.6	75.9	75.7	76.2	..
Denmark	70.6	71.4	72.2	73.1	73.4	73.1	72.5	73.0	73.2
Portugal	68.6	69.1	69.9	70.9	71.4	72.6	72.9
Netherlands	72.4	72.8	73.6	73.8	74.0	73.7	73.2	73.4	72.8
Switzerland	71.1	70.8	71.4	71.8	71.9	71.6	71.2	71.3	..
Italy	68.8	69.2	69.7	70.4	70.5	70.9	70.7	70.4	71.0
New Zealand	67.2	67.6	69.4	69.9	69.8	70.4	70.6
Sweden	69.4	70.1	70.6	70.9	70.6	71.2	70.6	70.3	..
Germany	68.5	69.0	69.7	70.2	69.6	70.0	69.2	68.9	69.3
Spain	66.4	66.6	67.0	67.1	67.3	67.1	67.4	68.1	69.0
Australia	69.9	69.8	70.4	70.4	70.0	68.9	69.0
Japan	66.3	67.6	68.3	68.4	68.1	68.4	68.5
Austria	67.2	67.7	68.5	68.6	68.7	68.9	68.6	67.8	67.6
Iceland	65.2	63.8	66.4	68.9	69.2	69.7	67.3	68.4	66.6
Hungary	62.4	64.2	65.5	65.8	64.9	65.6	65.9	66.3	..
Ireland	55.1	56.0	55.8	59.4	61.4	63.2	64.0	65.0	66.2
Canada	64.2	65.5	66.6	66.4	65.9	65.4
Finland	62.8	63.3	64.2	64.8	65.4	65.7	64.9	64.1	65.3
Poland	63.3	65.4	66.8	66.0	64.1	64.8	64.6	64.0	64.2
Korea	57.0	58.7	59.4	59.3	57.8	58.7	59.3	59.7	60.0
Czech Republic	58.0	58.3	60.0	61.0	58.1	59.1	59.2	59.1	59.9
Slovak Republic	59.3	60.4	60.9	60.5	59.3	59.8	57.4	57.7	58.9
Norway	56.0	58.0	60.3	60.7	58.5	55.6	53.7	56.3	52.9

출처 <http://stats.oecd.org>

132. 서비스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United States	79.1	79.6	80.4	80.9	81.0	81.1	81.3	81.6	..
United Kingdom	77.0	77.8	78.6	79.3	79.9	80.4	80.7	80.9	..
Netherlands	77.1	77.5	78.0	78.5	78.9	79.3	79.7	80.1	80.2
Belgium	75.0	75.2	76.0	76.6	77.1	77.5	77.8	78.1	78.3
New Zealand	76.7	77.5	76.7	76.8	77.0	77.1	77.7	77.5	77.5
Canada	74.9	75.5	75.8	76.1	76.1	76.0	76.3	76.9	..
France	74.2	74.4	74.9	75.3	75.8	76.0	76.3	76.6	76.7
Luxembourg	75.4	76.1	76.1	74.8	75.0	75.3	75.6	76.0	76.7
Norway	74.9	75.5	75.8	76.0	76.6	76.7	76.4	76.3	76.6
Denmark	73.4	73.9	74.4	75.0	75.7	75.9	76.1	76.1	76.4
Iceland	68.7	69.6	69.8	71.4	71.3	71.9	72.3	73.4	75.3
Sweden	72.7	72.9	73.4	74.0	74.6	74.8	75.1	75.1	..
Australia	73.8	74.1	74.7	74.9	74.6	74.9	74.9
Switzerland	69.8	70.3	71.1	72.1	72.6	72.5	72.5	72.4	72.7
Germany	68.7	69.3	70.1	70.7	71.3	71.9	72.3	72.4	72.5
Austria	66.6	67.1	67.8	68.3	68.7	69.0	69.5	69.8	70.0
Finland	66.3	67.0	67.9	68.5	69.1	69.1	69.2	69.3	69.6
Greece	63.3	63.9	64.7	65.1	67.5	67.6	68.3	68.5	68.8
Ireland	63.5	64.0	65.2	65.9	66.2	66.5	66.7	67.2	68.6
Spain	63.8	63.8	64.2	64.7	65.1	65.5	66.4	66.9	68.5
Japan	64.1	65.0	66.0	66.5	67.4	67.9	68.0	68.2	..
Italy	65.8	66.1	66.4	66.8	67.0	67.0	67.3	67.4	67.9
Korea	61.2	62.5	63.3	63.5	64.3	65.1	65.9	66.6	67.3
Hungary	59.6	59.5	59.7	61.2	61.9	62.7	62.9	62.8	..
Slovak Republic	59.4	60.2	60.9	60.9	60.9	61.6	62.1	62.1	62.0
Portugal	54.5	55.4	56.0	56.7	57.8	58.8	59.5
Czech Republic	56.0	56.2	56.9	57.5	57.6	57.9	58.0	58.3	58.2
Poland	49.7	50.4	52.1	53.0	53.2	53.5	54.4	54.6	54.6

출처 <http://stats.oecd.org>

133. 제조업 생산성(명목환율)

(U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reland	94,826	98,972	123,226	141,073	151,845	153,335	163,094	185,028	198,106
Luxembourg	61,751	59,427	61,728	74,502	85,007	87,185	94,365	120,960	126,824
Norway	52,542	55,425	63,338	76,992	89,405	99,770	107,897	122,100	126,498
Belgium	60,275	57,639	63,792	77,699	91,794	94,931	98,814	112,465	120,468
Finland	60,552	60,825	64,930	77,845	89,452	90,417	98,829	115,635	120,343
Switzerland	61,898	63,993	71,381	86,319	96,986	100,806	105,800	116,321	..
United States	81,586	81,179	88,111	93,204	99,307	103,856	109,977	114,619	..
Netherlands	51,503	50,936	55,271	69,651	82,004	87,276	90,439	103,241	112,090
Austria	52,664	51,940	55,920	68,217	78,393	82,328	88,603	101,450	111,260
Sweden	60,043	50,795	56,578	71,617	85,800	87,855	95,354	111,035	..
Iceland	42,077	45,860	46,359	54,145	61,391	67,459	77,968	94,333	104,276
Denmark	50,219	49,415	54,466	66,545	76,699	80,247	85,757	94,705	102,546
Germany	48,400	47,776	51,208	63,506	73,550	75,905	82,635	93,379	98,862
United Kingdom	53,619	52,965	56,859	64,324	76,707	80,424	86,615	98,723	..
France	52,143	50,547	53,545	64,954	74,282	76,836	78,553	89,403	97,126
Japan	82,781	70,455	69,843	78,382	88,043	89,140	83,759
Canada	60,396	56,854	57,161	63,751	71,172	76,969
Australia	41,384	38,809	43,212	57,756	65,357	71,208	76,086
Italy	41,064	40,976	43,274	51,016	58,178	59,150	61,576	70,890	75,489
Spain	32,926	33,141	35,410	43,651	49,471	51,546	54,976	62,932	69,841
Greece	25,379	23,649	25,857	32,915	40,807	44,827	46,836	55,906	68,211
New Zealand	35,614	34,332	38,016	48,103	58,548	65,845	63,010
Korea	31,726	28,277	31,931	35,520	42,329	49,819	56,217	63,074	58,187
Slovak Republic	8,732	9,347	9,919	13,423	17,584	20,110	23,502	30,732	37,740
Czech Republic	10,086	10,603	12,500	15,169	19,484	21,464	24,157	29,128	33,289
Hungary	10,274	10,672	12,875	17,208	21,611	24,248	25,579	30,320	..
Portugal	16,447	16,739	18,161	22,011	25,057	25,686	26,648
Poland	9,226	10,056	11,200	13,026	15,641	17,547	18,933	22,352	26,332

출처 <http://stats.oecd.org>

134. 제조업 R&D 지출비중(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apan	1.9	2.0	2.0	2.1	2.0	2.1	2.2	2.3	2.4	..
Korea	1.3	1.4	1.6	1.5	1.6	1.8	1.9	2.1	2.2	..
Finland	1.8	1.9	1.9	1.8	1.9	1.9	2.0	2.0	2.0	..
Sweden	2.2	..	2.5	..	2.3	..	1.9	..	1.9	..
Switzerland	..	1.5	1.7
Germany	1.5	1.6	1.6	1.6	1.6	1.6	1.5	1.6	1.6	..
United States	1.3	1.3	1.2	1.1	1.1	1.3	1.3	1.3	1.3	..
Austria	1.0	..	1.1	..	1.2	1.2	..
Belgium	0.9	0.9	..
Denmark	0.8	..
Netherlands	0.8	0.8	0.8	0.7	0.8	0.8	0.8	0.8	0.7	..
Iceland	0.3	..	0.3	0.2	0.4	..	0.5	0.7	0.7	0.7
Czech Republic	0.5	0.5	0.5	0.5	0.5	0.5	0.6	0.7	0.6	0.6
Luxembourg	0.7	..	0.6	..	0.6	..
Canada	0.7	0.8	0.8	0.7	0.7	0.6	0.6	0.6	0.5	0.5
Ireland	0.6	..	0.5	0.5	0.5	0.5	0.5	0.5	0.5	0.5
United Kingdom	0.5	..
Italy	0.4	0.4	0.4	0.4	..	0.4	0.4	0.4	0.4	..
Australia	0.3	0.3	0.3	0.4	0.4	0.4	0.4	0.4
Norway	0.4	..	0.4	0.4	0.4	0.4	0.3	0.3	0.4	..
Hungary	0.2	0.3	0.3	0.3	0.3	0.3	0.3	0.4	0.4	..
Spain	0.3	0.3	0.3	0.3	0.3	0.3	0.3	0.3	0.3	..
New Zealand	0.2	..	0.2	..	0.2	..	0.2	..	0.2	..
Portugal	0.1	0.1	0.1	0.1	0.1	0.1	0.1	0.2	0.2	..
Turkey	0.2	0.1	0.2	0.1	0.1	0.1	0.1	0.2	0.2	..
Mexico	0.1	0.1	0.1	0.1	0.1	0.1	0.2	0.1	0.1	..
Greece	0.1	..	0.1	..	0.1	..	0.1
Slovak Republic	0.1	0.2	0.2	0.1	0.1	0.1	0.1	0.1	0.1	0.1
Poland	0.1	0.1	0.1	0.1	0.1	0.1	0.1	..

출처 <http://stats.oecd.org>

135. 상품수지(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orway	15.5	15.4	12.6	12.5	13.2	16.2	17.7	15.0	19.0	13.2
Ireland	26.0	26.1	27.2	23.4	21.1	17.4	14.2	10.4	13.1	19.8
Germany	2.9	4.7	6.3	6.0	6.9	7.0	6.9	8.2	7.3	5.7
Netherlands	4.6	4.8	4.2	6.9	6.8	7.6	7.4	7.7	6.7	6.2
Czech Republic	-5.5	-5.0	-2.9	-2.7	-0.5	2.0	2.0	3.4	2.8	5.0
Sweden	6.0	5.7	6.0	5.9	6.3	5.2	5.1	3.4	3.6	3.3
Finland	11.3	10.2	9.5	7.8	6.7	4.9	5.5	4.9	3.2	2.1
Korea	3.2	2.7	2.6	3.4	5.2	3.9	2.9	2.7	0.6	6.7
Switzerland	-1.0	-1.1	1.2	1.0	1.5	0.6	1.0	1.8	2.8	3.1
Canada	6.2	6.4	5.0	4.7	5.1	4.6	3.4	3.1	3.0	-0.3
Japan	2.5	1.7	2.4	2.5	2.9	2.1	1.9	2.4	0.8	..
Hungary	-6.2	-4.2	-3.2	-4.0	-3.4	-2.5	-2.3	0.2	0.0	4.4
Denmark	4.3	4.3	4.7	4.7	3.8	2.9	1.1	0.1	-0.2	2.2
Italy	0.9	1.4	1.1	0.7	0.6	0.0	-0.7	0.2	-0.1	0.1
Slovak Republic	-4.4	-10.1	-8.7	-1.9	-3.7	-5.0	-4.7	-1.2	-1.1	1.9
Austria	-2.1	-1.7	0.6	-0.7	-0.3	-0.4	0.1	0.5	-0.1	-0.8
Iceland	-5.5	-0.8	1.7	-1.9	-3.9	-9.1	-13.4	-6.7	-0.5	6.0
Mexico	-1.3	-1.4	-1.1	-0.8	-1.2	-0.9	-0.6	-1.0	-1.6	..
Australia	-1.2	0.5	-1.2	-2.6	-2.6	-1.8	-1.2	-1.8	-0.3	..
Belgium	2.1	2.4	3.8	3.5	2.7	1.6	0.8	0.2	-3.3	-0.6
New Zealand	1.1	2.7	0.2	-0.6	-1.4	-2.3	-1.8	-1.3	-1.3	..
France	-0.2	0.3	0.5	0.2	-0.2	-1.3	-1.7	-2.2	-3.0	-2.3
Poland	-7.2	-4.0	-3.7	-2.6	-2.2	-0.9	-2.1	-4.0	-4.9	-1.0
United States	-4.5	-4.1	-4.5	-4.9	-5.6	-6.2	-6.3	-5.9	-5.8	..
Turkey	-8.3	-1.7	-2.7	-4.5	-5.8	-6.8	-7.7	-7.2	-7.3	-4.0
United Kingdom	-3.4	-4.0	-4.4	-4.3	-5.1	-5.5	-5.8	-6.4	-6.4	-5.9
Spain	-6.4	-5.7	-5.0	-5.1	-6.4	-7.5	-8.5	-8.7	-8.0	-4.3
Luxembourg	-11.7	-12.2	-9.3	-10.2	-10.4	-11.2	-10.0	-9.4	-10.9	-8.0
Portugal	-12.9	-12.4	-10.6	-9.4	-11.0	-11.8	-11.5	-11.4	-13.3	-10.4
Greece	-16.2	-14.6	-14.6	-13.2	-13.7	-14.1	-16.8	-18.4	-18.6	-13.0

출처 <http://stats.oecd.org>

136. 서비스업 생산성(명목환율)

(U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73,593	69,160	74,964	97,519	110,712	120,463	134,326	152,644	164,093
Ireland	44,079	47,010	52,569	69,511	80,903	86,187	91,881	105,500	109,672
Norway	47,672	49,695	57,539	68,683	75,262	82,901	86,376	99,799	107,317
France	48,938	48,783	53,034	65,750	74,943	77,700	81,094	91,385	100,413
Belgium	48,010	48,125	52,361	64,849	73,861	76,326	79,623	89,975	98,350
Denmark	48,731	48,533	52,623	65,444	75,161	77,024	79,412	87,865	95,932
Switzerland	58,519	58,195	63,210	73,337	81,232	82,368	84,062	91,248	..
Finland	43,743	44,469	47,522	57,395	65,892	67,214	69,956	79,766	87,651
Italy	44,699	45,013	48,356	59,235	67,420	69,303	70,207	78,455	85,651
Austria	44,136	43,756	47,507	57,733	65,431	67,555	70,166	78,276	84,879
United States	62,903	65,535	68,156	71,063	74,537	77,974	81,144	84,472	..
Sweden	47,760	43,140	47,565	59,729	68,219	69,957	73,167	82,253	..
Netherlands	39,791	40,318	44,227	54,441	61,964	63,927	65,811	73,510	80,506
Germany	43,530	43,131	46,288	56,370	62,308	63,117	64,477	71,363	77,819
United Kingdom	41,071	40,852	44,905	51,644	60,275	61,584	64,873	74,538	..
Greece	30,214	30,621	34,674	45,779	51,633	53,515	56,043	64,993	73,644
Iceland	44,536	39,558	46,837	57,873	69,545	81,944	75,834	89,859	72,239
Spain	33,347	34,110	37,484	46,308	52,434	53,844	55,764	63,758	71,755
Japan	76,894	68,349	66,493	71,468	75,887	74,732	70,715
Australia	38,260	35,816	38,826	49,027	57,922	62,124	64,758
New Zealand	31,856	30,758	35,891	47,144	55,497	60,299	56,619
Canada	38,358	38,039	38,360	44,123	49,397	55,164
Portugal	24,592	24,582	26,851	33,239	37,586	38,654	39,916
Czech Republic	10,771	11,717	14,448	17,909	20,101	22,826	25,826	30,373	37,837
Slovak Republic	8,956	9,410	10,841	14,360	17,845	19,810	21,835	28,928	36,513
Poland	13,197	15,536	16,335	17,523	19,664	23,042	24,539	28,723	34,596
Hungary	11,144	12,836	16,384	19,871	23,500	25,445	26,157	32,177	..
Korea	20,964	19,536	21,622	24,171	25,819	29,866	33,200	35,968	31,590

출처 <http://stats.oecd.org>

137. 제조업 생산성/서비스업 생산성 비율(명목환율)

(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Korea	1.5	1.4	1.5	1.5	1.6	1.7	1.7	1.8	1.8
Ireland	2.2	2.1	2.3	2.0	1.9	1.8	1.8	1.8	1.8
Iceland	0.9	1.2	1.0	0.9	0.9	0.8	1.0	1.0	1.4
Canada	1.6	1.5	1.5	1.4	1.4	1.4
Netherlands	1.3	1.3	1.2	1.3	1.3	1.4	1.4	1.4	1.4
Finland	1.4	1.4	1.4	1.4	1.4	1.3	1.4	1.4	1.4
United States	1.3	1.2	1.3	1.3	1.3	1.3	1.4	1.4	..
Sweden	1.3	1.2	1.2	1.2	1.3	1.3	1.3	1.3	..
United Kingdom	1.3	1.3	1.3	1.2	1.3	1.3	1.3	1.3	..
Austria	1.2	1.2	1.2	1.2	1.2	1.2	1.3	1.3	1.3
Switzerland	1.1	1.1	1.1	1.2	1.2	1.2	1.3	1.3	..
Germany	1.1	1.1	1.1	1.1	1.2	1.2	1.3	1.3	1.3
Belgium	1.3	1.2	1.2	1.2	1.2	1.2	1.2	1.2	1.2
Japan	1.1	1.0	1.1	1.1	1.2	1.2	1.2
Norway	1.1	1.1	1.1	1.1	1.2	1.2	1.2	1.2	1.2
Australia	1.1	1.1	1.1	1.2	1.1	1.1	1.2
New Zealand	1.1	1.1	1.1	1.0	1.1	1.1	1.1
Denmark	1.0	1.0	1.0	1.0	1.0	1.0	1.1	1.1	1.1
Slovak Republic	1.0	1.0	0.9	0.9	1.0	1.0	1.1	1.1	1.0
Spain	1.0	1.0	0.9	0.9	0.9	1.0	1.0	1.0	1.0
France	1.1	1.0	1.0	1.0	1.0	1.0	1.0	1.0	1.0
Hungary	0.9	0.8	0.8	0.9	0.9	1.0	1.0	0.9	..
Greece	0.8	0.8	0.7	0.7	0.8	0.8	0.8	0.9	0.9
Italy	0.9	0.9	0.9	0.9	0.9	0.9	0.9	0.9	0.9
Czech Republic	0.9	0.9	0.9	0.8	1.0	0.9	0.9	1.0	0.9
Luxembourg	0.8	0.9	0.8	0.8	0.8	0.7	0.7	0.8	0.8
Poland	0.7	0.6	0.7	0.7	0.8	0.8	0.8	0.8	0.8
Portugal	0.7	0.7	0.7	0.7	0.7	0.7	0.7

출처 <http://stats.oecd.org/>

138. 서비스업 R&D 지출비중(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Denmark	1.1	..
Luxembourg	0.8	..	0.7	..	0.8	..
Iceland	0.8	..	1.4	1.4	1.0	..	0.9	0.9	0.7	0.7
Sweden	0.5	..	0.7	..	0.5	..	0.7	..	0.7	..
United Kingdom	0.7	..
United States	0.7	0.7	0.7	0.8	0.7	0.5	0.5	0.5	0.6	..
Austria	0.4	..	0.4	..	0.5	0.5	..
Finland	0.3	0.4	0.4	0.5	0.5	0.5	0.5	0.5	0.5	..
Australia	0.3	0.3	0.4	0.4	0.4	0.4	0.4	0.5
Norway	0.4	..	0.4	0.4	0.4	0.4	0.4	0.4	0.44	..
Canada	0.3	0.3	0.4	0.4	0.4	0.5	0.5	0.4	0.43	0.4
Switzerland	..	0.3	0.4
Belgium	0.4	0.39	..
Portugal	0.1	0.1	0.1	0.1	0.1	0.1	0.1	0.3	0.37	..
Czech Republic	0.2	0.2	0.2	0.2	0.3	0.3	0.3	0.3	0.35	0.3
Spain	0.1	0.2	0.2	0.2	0.2	0.2	0.3	0.3	0.3	..
Japan	0.2	0.1	0.3	0.3	0.3	0.3	0.3	0.3	0.3	..
Ireland	0.2	..	0.2	0.3	0.3	0.3	0.3
Netherlands	0.2	0.2	0.2	0.2	0.2	0.2	0.2	0.2	0.2	..
New Zealand	0.1	..	0.2	..	0.2	..	0.2	..	0.2	..
Germany	0.1	..	0.2	0.1	0.1	0.1	0.2	0.2	0.2	..
Korea	0.2	0.2	0.2	0.2	0.2	0.1	0.1	0.2	0.2	..
Italy	0.1	0.1	0.1	0.1	..	0.1	0.2	0.1	0.1	..
Hungary	0.0	0.1	0.1	0.1	0.1	0.1	0.1	0.1	0.1	..
Turkey	0.0	0.0	0.0	0.0	0.0	0.0	0.1	0.1	0.1	..
Slovak Republic	0.3	0.2	0.2	0.2	0.2	0.1	0.1	0.1	0.1	0.1
Poland	0.1	0.0	0.1	0.1	0.1	0.1	0.1	..
Greece	0.1	..	0.1	..	0.1	..	0.1
Mexico	0.0	0.0	0.0	0.0	0.0	0.0	0.0	0.1	0.1	..

출처 <http://stats.oecd.org>

139. 서비스수지(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Luxembourg	33.5	31.9	35.9	34.1	38.1	43.1	48.7	53.8	51.7	47.8
Switzerland	7.2	6.8	6.5	6.6	6.7	7.2	8.0	8.7	9.1	7.9
Greece	6.4	6.0	6.6	6.7	8.3	7.9	7.3	7.3	7.2	5.3
Austria	3.4	3.3	3.5	3.5	3.5	3.9	3.8	4.1	4.6	4.2
Portugal	1.7	2.2	2.4	2.5	2.7	2.5	3.1	3.9	3.8	3.6
Sweden	-0.6	-0.2	-0.2	0.7	1.6	2.1	2.5	3.6	3.6	3.6
United Kingdom	1.5	1.7	1.8	2.0	2.4	2.1	2.6	3.3	3.8	3.6
Turkey	4.3	4.7	3.4	3.5	3.3	3.2	2.6	2.1	2.3	2.6
Spain	3.3	3.4	3.1	3.0	2.6	2.4	2.3	2.2	2.4	2.4
Denmark	1.5	2.1	1.2	1.7	1.4	2.4	2.6	2.5	2.9	1.3
Netherlands	-0.5	-0.6	-0.2	-0.1	0.7	1.1	1.4	1.6	1.5	1.0
Czech Republic	2.5	2.5	0.9	0.5	0.6	1.2	1.4	1.4	1.8	0.7
Belgium	0.9	0.8	0.8	0.6	1.0	1.3	1.6	1.2	0.9	1.5
Hungary	1.8	2.0	0.1	-1.4	0.1	1.3	1.4	1.0	0.9	1.6
Poland	0.8	0.4	0.4	0.1	0.0	0.2	0.2	1.1	0.9	1.1
United States	0.7	0.6	0.5	0.4	0.5	0.6	0.6	0.9	0.9	..
Finland	-1.2	-0.2	0.4	-0.4	0.3	-0.4	-0.5	0.4	1.0	0.9
France	1.3	1.1	1.1	0.8	0.7	0.7	0.7	0.8	0.9	0.6
Norway	1.6	1.5	0.8	0.5	0.4	0.2	0.4	0.4	0.1	1.5
New Zealand	-0.2	0.2	1.1	1.4	1.0	0.4	0.2	0.2	-0.5	..
Australia	0.1	0.1	0.2	0.2	0.0	0.0	0.0	0.0	-0.4	..
Japan	-1.0	-1.1	-1.1	-0.8	-0.8	-0.5	-0.5	-0.5	-0.4	..
Italy	0.1	0.0	-0.2	-0.2	0.1	0.0	-0.1	-0.5	-0.6	-0.7
Mexico	-0.4	-0.5	-0.6	-0.7	-0.6	-0.6	-0.6	-0.6	-0.7	..
Slovak Republic	2.1	2.3	1.9	0.7	0.6	0.7	1.4	0.7	-0.7	-2.0
Iceland	-1.7	-0.2	-0.1	-1.1	-1.6	-3.1	-4.1	-3.4	-1.9	3.2
Germany	-2.9	-2.9	-2.1	-2.1	-1.9	-1.7	-1.2	-1.1	-0.9	-0.8
Canada	-0.5	-0.7	-0.6	-1.0	-0.9	-0.9	-1.0	-1.2	-1.4	-1.5
Korea	-0.5	-0.8	-1.4	-1.2	-1.1	-1.6	-2.0	-1.9	-1.8	-2.1
Ireland	-13.3	-11.4	-10.6	-7.9	-6.8	-5.7	-3.8	-0.6	-4.2	-5.1

출처 <http://stats.oecd.org>

140. 서비스업 FDI비중(전산업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ia	67.8	71.2	73.3	71.9	76.9	77.8	80.7	86.5	88.6	..
Germany	87.6	87.8	85.9	87.4	87.4	88.0	..
Hungary	87.1
Switzerland	..	82.3	83.0	84.2	81.9	83.3	83.4	84.9	83.2	..
Portugal	73.1	76.5	81.1	80.5	80.9	78.2	78.1	..	80.3	..
Denmark	83.7	..	82.5	82.5	82.4	82.0	79.7
Luxembourg	83.6	78.4	78.4	80.8	85.4	88.1	90.5	80.8	74.7	..
Turkey	..	38.3	39.7	38.6	38.5	44.2	60.7	68.1	67.7	70.2
France	74.3	75.6	80.0	78.2	80.6	76.6	77.6	80.1	82.1	69.8
Finland	60.2	61.6	62.6	66.5	69.9	66.7	67.9
Iceland	0.0	56.9	62.9	78.1	67.3
Ireland	55.8	56.8	49.2	70.5	67.9	60.7
United Kingdom	60.5	61.0	61.1	50.8	56.2	60.4	..
Poland	58.2	56.1	57.0	59.1	58.9	60.3
Japan	49.9	50.4	57.0	58.1
Netherlands	61.0	64.2	62.9	62.2	60.8	54.9	60.7	61.0	62.9	57.9
Spain	40.2	64.5	57.7	..
United States	60.6	42.9	62.5	62.8	63.4	59.2	56.4
Italy	49.8	49.9	51.8	54.7	56.0	..
Greece	60.5	64.7	55.6	62.1	54.6	..
Czech Republic	47.4	49.9	54.5	50.8	50.4	53.2
Australia	39.2	49.5	47.9	45.5	45.1
Slovak Republic	46.2	43.1	40.4	44.7	..
Korea	40.8	39.5	40.7	42.4	44.5	46.1	51.4	48.6	52.5	43.5
Norway	42.4	40.0	43.0	39.4	41.8

출처 <http://stats.oecd.org>

141. 도소매/음식숙박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reece	22.3	23.0	23.8	25.0	23.7	23.8	24.2	23.8	25.0
Poland	20.7	21.0	21.1	20.2	20.0	20.2	20.1	19.5	19.3
Slovak Republic	15.0	14.6	13.9	15.0	16.4	17.0	16.7	17.2	18.4
Spain	18.8	18.6	18.7	18.4	18.4	18.2	18.0	17.8	17.9
Portugal	17.5	17.6	17.6	17.4	17.7	17.4	17.3
Austria	17.5	17.5	17.6	17.5	17.4	17.5	17.3	17.0	17.3
Japan	17.3	17.3	17.1	16.8	17.0	17.2	17.0
Switzerland	15.8	16.1	16.1	16.0	15.9	15.8	15.5	15.4	..
United States	15.4	15.4	15.4	15.3	15.2	15.1	15.2	15.0	..
Italy	16.6	16.7	16.1	15.7	15.7	15.5	15.3	15.1	14.8
Czech Republic	16.0	15.2	15.6	15.1	13.7	14.8	14.9	14.4	14.7
New Zealand	14.6	15.3	15.5	15.5	15.1	14.9	14.6
Belgium	13.3	13.6	14.0	14.5	14.8	14.8	14.5	14.7	14.5
United Kingdom	14.9	15.1	14.9	14.8	14.9	14.6	14.4	14.3	..
Netherlands	15.9	15.6	15.8	15.2	15.1	14.8	14.8	14.9	14.3
Denmark	13.7	13.3	13.7	13.6	13.5	13.4	14.1	14.2	14.0
Canada	13.3	13.6	13.8	13.8	13.9	13.8
Hungary	12.4	13.3	13.3	13.1	12.8	12.6	13.1	13.7	..
Australia	14.0	14.1	14.4	14.5	14.1	13.5	13.1
Sweden	11.8	12.0	12.2	12.3	12.5	12.7	12.6	12.7	..
Ireland	11.6	11.3	11.5	11.8	12.1	12.3	12.5	12.5	12.5
Iceland	13.2	11.6	12.1	11.8	12.2	12.6	11.4	12.2	12.5
France	12.9	13.2	13.1	13.4	13.1	12.8	12.6	12.4	12.2
Germany	12.7	12.7	12.3	12.0	11.8	11.9	11.7	11.8	12.0
Finland	11.0	11.4	11.7	11.9	12.0	12.2	12.0	11.7	11.6
Korea	12.7	12.5	12.1	11.5	11.0	11.0	11.1	11.0	11.3
Luxembourg	11.3	12.0	12.1	11.9	11.7	11.3	11.0	11.1	11.0
Norway	10.4	10.4	10.6	10.3	9.9	9.4	9.5	10.4	9.4

출처 <http://stats.oecd.org>

142.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reece	25.2	25.6	26.0	26.4	26.8	27.2	27.5	27.5	27.8
New Zealand	26.8	26.8	26.8	26.8	26.4	26.9	27.7	26.8	26.2
Canada	25.6	25.7	25.9	25.7	25.6	25.6	25.4	25.6	..
Japan	25.8	25.9	25.8	25.6	25.6	25.4	25.2	25.1	..
Korea	27.2	27.2	27.1	26.5	26.0	25.4	24.9	24.4	24.1
Australia	24.6	24.8	24.9	24.7	24.8	24.0	24.0
Portugal	20.7	21.7	21.5	22.0	22.6	23.0	23.5
Spain	21.7	21.5	21.5	21.6	22.0	21.8	22.0	22.3	23.0
United States	22.2	22.3	22.3	22.4	22.4	22.5	22.4	22.5	..
United Kingdom	22.8	22.9	23.1	23.0	23.1	22.8	22.4	22.4	..
Slovak Republic	16.2	17.3	18.9	19.8	19.7	20.5	21.2	22.0	22.4
Austria	20.8	20.9	21.0	21.1	21.2	21.2	21.2	21.3	21.4
Ireland	20.7	20.4	20.3	20.5	20.2	20.1	20.0	20.5	20.7
Switzerland	21.6	21.3	21.3	21.4	21.4	21.2	20.8	20.7	20.6
Netherlands	20.6	20.6	20.5	20.4	20.4	20.2	20.2	20.3	20.2
Denmark	18.9	18.7	18.5	18.6	18.9	19.0	19.2	19.4	19.8
Italy	19.2	19.4	19.3	19.4	19.3	19.3	19.5	19.5	19.5
Germany	19.6	19.7	19.7	19.6	19.8	19.7	19.6	19.5	19.4
Hungary	17.6	17.9	17.8	17.6	17.8	19.0	18.8	19.0	..
Czech Republic	18.2	18.3	18.3	18.2	18.1	18.1	18.1	18.1	17.6
Norway	17.5	17.5	17.6	17.7	18.0	17.9	17.5	17.5	17.5
Luxembourg	19.2	18.8	18.5	18.9	18.7	18.6	18.2	17.7	17.4
France	16.6	16.7	16.9	17.2	17.3	17.3	17.1	17.1	17.2
Belgium	17.6	17.6	17.6	17.6	17.6	17.5	17.3	17.2	17.1
Poland	15.9	15.9	16.0	16.1	16.2	16.1	16.0	16.8	16.9
Iceland	18.1	18.6	17.2	16.6	16.0	17.3	17.5	17.8	16.7
Finland	15.7	15.6	15.8	15.8	15.8	16.0	15.9	16.0	16.2
Sweden	14.9	14.9	14.7	14.9	15.1	15.2	15.1	15.5	..

출처 <http://stats.oecd.org>

143. 교육서비스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ortugal	6.6	6.7	7.0	6.9	7.0	7.2	7.0
Belgium	6.4	6.5	6.6	6.6	6.5	6.5	6.5	6.5	6.6
Korea	5.1	5.4	5.5	5.7	5.8	6.0	6.3	6.4	6.5
Greece	5.1	5.1	5.3	5.8	5.6	5.8	5.9	6.1	5.9
United Kingdom	5.6	5.7	5.8	5.7	5.8	5.9	5.9	5.9	..
Sweden	5.2	5.4	5.5	5.8	5.7	5.6	5.5	5.4	..
Denmark	5.5	5.6	5.7	5.8	5.8	5.6	5.5	5.3	5.4
Austria	5.5	5.4	5.4	5.4	5.3	5.3	5.2	5.2	5.2
France	5.6	5.6	5.6	5.6	5.5	5.4	5.3	5.3	5.2
United States	4.8	4.9	5.1	5.2	5.1	5.0	5.0	5.1	..
Hungary	4.8	4.9	5.2	5.8	5.5	5.7	5.5	5.1	..
Spain	4.9	4.9	4.9	4.9	4.8	4.8	4.7	4.7	4.8
Italy	4.9	4.9	5.0	5.0	4.7	4.9	4.9	4.8	4.8
Finland	4.7	4.6	4.8	4.9	4.9	5.0	4.8	4.7	4.8
Poland	4.4	4.7	4.7	4.9	5.1	5.1	4.9	4.8	4.7
Ireland	3.5	3.6	3.8	4.0	4.1	4.2	4.4	4.3	4.7
Canada	4.7	4.7	4.8	4.8	4.7	4.7
Australia	4.7	4.7	4.7	4.6	4.7	4.6	4.6
Netherlands	4.3	4.4	4.6	4.7	4.7	4.7	4.5	4.6	4.5
Germany	4.5	4.5	4.6	4.5	4.6	4.6	4.4	4.4	4.4
Iceland	4.7	5.0	5.4	5.9	5.4	5.3	5.7	4.0	4.3
New Zealand	4.2	4.0	4.1	4.1	4.2	4.2	4.3
Czech Republic	4.0	4.0	4.1	4.3	4.1	4.3	4.2	4.2	4.1
Norway	4.3	4.5	4.8	5.0	4.7	4.4	4.2	4.2	4.0
Luxembourg	3.8	4.0	4.0	4.0	4.0	3.9	3.6	3.5	3.6
Japan	3.4	3.5	3.5	3.5	3.4	3.4
Slovak Republic	3.6	3.7	3.6	3.6	3.4	3.5	3.1	2.9	2.8

출처 <http://stats.oecd.org>

144. 교육서비스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weden	8.7	8.8	9.2	9.7	9.8	9.8	10.2
United States	8.1	8.2	8.5	8.6	8.6	8.6	8.5	8.6	..
Hungary	8.4	8.2	8.2	8.4	8.6	8.3	8.3	8.1	..
United Kingdom	7.4	7.4	7.5	7.8	7.9	8.0	8.1	8.1	..
Belgium	7.7	7.7	7.8	7.8	7.9	8.0	8.0	7.9	7.9
Poland	6.5	6.7	6.8	7.9	7.7	7.8	7.9	7.4	7.4
Korea	5.6	5.7	6.0	6.7	6.7	6.9	7.2	7.2	7.4
France	7.7	7.7	7.7	7.7	7.6	7.4	7.4	7.4	..
Norway	7.6	7.8	7.8	7.8	7.7	7.7	7.5	7.3	7.2
New Zealand	8.8	8.2	8.1	8.4	8.2	7.6	7.1	7.0	7.2
Iceland	6.3	7.4	8.1	7.8	7.7	7.4	7.4	7.6	7.1
Slovak Republic	8.8	8.6	8.5	8.5	8.4	8.0	7.7	7.4	7.1
Australia	6.9	7.1	7.1	7.3	6.9	7.2	7.0
Denmark	7.2	7.1	7.3	7.3	7.4	7.4	7.2	7.0	7.0
Ireland	6.0	6.0	6.2	6.4	6.3	6.3	6.6	6.5	6.7
Greece	5.9	6.0	6.1	6.2	6.7	6.7	6.9	6.7	6.6
Finland	6.7	6.6	6.7	6.8	6.9	6.7	6.7	6.5	6.4
Switzerland	6.1	6.1	6.3	6.6	6.5	6.5	6.5	6.4	6.4
Italy	6.8	6.8	6.7	6.7	6.6	6.6	6.5	6.5	6.4
Canada	6.3	6.3	6.2	6.2	6.3	6.4	6.4	6.4	..
Austria	6.1	6.0	6.1	6.2	6.0	6.1	6.0	6.0	6.1
Germany	5.5	5.5	5.7	5.7	5.8	5.9	5.9	5.9	6.0
Portugal	5.7	5.7	5.7	5.7	5.7	5.8	5.8
Czech Republic	5.6	5.5	5.4	5.6	5.6	5.7	5.5	5.5	5.5
Netherlands	5.0	5.0	5.2	5.4	5.4	5.3	5.3	5.3	5.3
Spain	5.2	5.3	5.3	5.2	5.1	5.1	5.2	5.1	5.1
Luxembourg	4.6	4.6	4.6	4.6	4.6	4.7	4.6	4.5	4.4
Japan	2.9	2.9	2.9	3.0	3.0	3.0

출처 <http://stats.oecd.org>

145. 보건및사회복지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weden	9.9	10.4	11.0	11.1	11.0	11.0	10.8	10.7	..
Denmark	10.3	10.5	10.7	11.0	11.0	10.8	10.7	10.5	10.7
Iceland	9.3	9.3	9.8	10.1	9.9	9.8	9.0	9.2	9.0
Netherlands	7.3	7.6	8.4	8.8	8.9	8.8	8.7	8.7	8.8
Finland	7.7	7.8	8.0	8.4	8.5	8.7	8.6	8.4	8.8
France	7.5	7.6	7.9	8.1	8.4	8.4	8.5	8.5	8.6
Norway	7.9	8.4	9.2	9.3	9.0	8.6	8.4	8.8	8.5
Ireland	5.4	5.7	5.8	6.3	6.8	6.9	7.0	6.9	7.5
Belgium	6.5	6.7	6.8	6.9	6.9	6.9	6.9	7.0	7.4
Germany	6.7	6.8	7.1	7.2	7.1	7.3	7.2	7.0	7.1
United Kingdom	6.4	6.6	6.7	7.0	7.0	7.0	7.0	6.9	..
United States	6.1	6.5	6.7	6.9	6.9	6.9	6.9	6.9	..
Portugal	5.4	5.8	6.0	6.1	6.3	6.7	6.8
Australia	6.2	6.2	6.3	6.4	6.4	6.4	6.4
Canada	6.0	6.3	6.4	6.5	6.4	6.3
Switzerland	5.9	6.1	6.2	6.3	6.4	6.5	6.3	6.1	..
Spain	5.1	5.0	5.1	5.3	5.4	5.5	5.5	5.7	5.9
New Zealand	5.2	5.2	5.3	5.4	5.6	5.8	5.9
Italy	5.4	5.4	5.4	5.4	5.6	5.7	5.9	5.6	5.9
Austria	5.3	5.5	5.5	5.8	5.8	5.8	5.8	5.7	5.8
Greece	3.7	3.4	3.6	3.9	4.1	4.4	4.6	4.8	4.8
Japan	3.9	4.2	4.3	4.4	4.5	4.6
Luxembourg	3.8	4.5	4.5	4.7	5.2	4.8	4.5	4.4	4.5
Hungary	4.3	4.3	4.5	5.0	4.7	4.7	4.4	4.2	..
Korea	2.7	3.4	3.3	3.4	3.5	3.7	3.9	4.1	4.2
Czech Republic	3.5	3.7	4.1	4.1	4.1	4.1	4.0	3.8	4.0
Poland	3.3	3.7	4.2	4.4	3.6	3.6	3.7	3.7	3.8
Slovak Republic	3.6	3.6	3.6	3.6	2.9	3.2	2.9	3.1	2.9

출처 <http://stats.oecd.org>

146. 보건및사회복지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orway	17.8	18.4	18.8	19.1	19.4	19.4	19.6	19.4	19.4
Denmark	16.6	16.7	17.1	17.3	17.4	17.2	17.1	16.7	16.3
Sweden	16.4	16.4	16.7	16.8	17.0	16.9	16.3
Finland	13.6	13.9	14.2	14.5	14.7	14.8	14.7	14.7	14.6
Iceland	13.2	13.9	13.8	15.8	14.7	15.2	14.5	14.7	14.6
Netherlands	11.6	12.0	12.6	13.3	13.7	14.0	14.0	13.9	14.0
France	11.2	11.0	11.1	11.2	11.5	11.8	12.0	12.2	..
United Kingdom	10.5	10.7	10.9	11.1	11.3	11.6	11.7	11.7	..
Switzerland	10.5	10.5	10.7	11.1	11.3	11.6	11.5	11.5	11.6
Belgium	9.8	10.0	10.3	10.7	10.8	10.9	11.0	11.1	11.2
New Zealand	10.3	10.8	10.8	11.1	11.3	11.0	10.9	11.2	11.0
Ireland	7.9	8.4	9.0	9.5	9.6	9.7	10.1	10.3	10.8
United States	9.4	9.7	10.1	10.4	10.4	10.5	10.6	10.8	..
Germany	9.4	9.5	9.8	10.1	10.2	10.4	10.4	10.4	10.5
Australia	9.7	9.9	10.0	10.0	10.1	10.4	10.4
Austria	8.2	8.5	8.7	8.8	9.0	9.0	9.2	9.5	9.4
Canada	9.2	9.1	9.1	9.3	9.1	9.2	9.2	9.3	..
Japan	6.3	6.6	7.1	7.6	8.2	8.5
Luxembourg	6.3	6.5	6.9	7.2	7.4	7.5	7.5	7.5	7.6
Hungary	6.4	6.2	6.2	6.8	6.9	6.8	6.9	6.7	..
Spain	5.6	5.4	5.6	5.9	6.0	6.2	6.4	6.5	6.6
Italy	6.3	6.3	6.3	6.3	6.4	6.4	6.4	6.3	6.5
Slovak Republic	6.8	6.8	6.8	6.7	6.3	5.8	5.7	6.0	5.8
Poland	6.4	6.4	6.8	6.2	6.0	5.8	6.0	5.7	5.6
Portugal	5.0	5.1	5.3	5.3	5.4	5.5	5.5
Czech Republic	5.4	5.4	5.4	5.5	5.5	5.5	5.6	5.5	5.4
Greece	4.2	4.1	4.2	4.2	4.8	4.7	4.8	5.0	4.9
Korea	2.0	2.2	2.5	2.4	2.6	2.8	3.0	3.2	3.6

출처 <http://stats.oecd.org>

147.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rance	26.1	26.6	26.6	26.7	27.3	27.9	28.8	29.3	29.6
Germany	23.3	23.9	24.3	24.5	24.0	24.6	24.8	25.4	25.7
United States	23.9	24.3	24.1	24.2	24.3	24.4	24.5	24.9	..
United Kingdom	21.8	22.5	22.4	22.9	23.1	23.3	23.2	24.3	..
Belgium	21.8	22.5	22.1	22.1	22.0	22.5	23.1	23.6	24.1
New Zealand	22.1	22.0	22.6	22.9	23.0	23.2	23.1
Italy	20.1	20.1	21.0	21.7	21.9	22.1	22.2	22.0	22.5
Netherlands	21.2	21.3	20.1	19.4	19.6	19.9	20.9	22.1	22.1
Sweden	21.2	21.5	21.4	21.2	20.8	21.0	21.7	21.7	..
Australia	22.2	21.7	21.8	21.6	21.4	21.2	21.7
Luxembourg	18.7	20.1	20.9	19.7	19.8	19.7	18.9	20.4	20.0
Japan	19.1	19.6	19.8	19.8	19.7	19.9	19.9
Finland	16.2	16.7	16.9	17.6	17.9	18.3	18.1	18.2	19.0
Denmark	17.6	18.3	18.2	18.1	18.4	18.7	18.8	19.1	18.9
Austria	16.0	16.4	17.1	17.4	17.9	18.7	18.8	18.7	18.6
Ireland	14.0	15.6	15.2	15.5	15.7	17.1	17.5	18.4	18.4
Hungary	16.9	17.2	17.4	17.0	16.9	17.1	17.8	18.1	..
Iceland	14.3	14.2	14.7	16.2	16.4	17.4	17.1	18.2	18.0
Canada	17.7	18.1	18.4	18.2	17.9	17.8
Spain	14.9	15.2	15.5	15.8	16.0	16.5	17.0	17.2	17.6
Switzerland	17.1	17.8	17.0	16.3	16.6	16.7	16.7	16.7	..
Korea	14.9	14.6	14.5	14.6	14.3	14.4	14.6	14.6	14.9
Slovak Republic	14.7	14.9	15.3	14.0	13.7	13.2	13.7	13.5	14.8
Portugal	14.5	14.0	14.1	14.5	14.4	14.9	14.6
Czech Republic	13.4	13.3	13.0	13.1	13.0	13.7	13.3	13.7	14.2
Norway	13.8	14.5	15.4	15.2	14.4	14.0	13.6	14.7	13.9
Greece	15.1	15.2	15.6	15.3	14.7	14.4	13.8	14.2	13.9
Poland	13.1	13.7	14.2	14.1	13.4	13.7	13.8	13.8	13.9

출처 <http://stats.oecd.org>

148. 사업서비스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etherlands	16.9	16.9	16.7	16.4	16.5	17.1	17.9	18.6	18.9
Belgium	14.6	14.6	14.9	15.0	15.5	15.9	16.5	17.2	17.9
United Kingdom	15.0	15.4	15.4	15.6	15.9	16.5	17.1	17.5	..
Luxembourg	15.5	16.0	16.6	14.2	14.5	14.8	15.6	16.5	17.2
France	14.6	14.9	15.0	14.8	15.0	15.2	15.6	15.9	15.8
United States	14.8	14.5	14.2	14.2	14.4	14.6	14.8	14.8	..
Germany	11.6	12.0	12.2	12.6	13.0	13.2	13.7	14.2	14.5
New Zealand	11.5	12.2	11.9	12.0	12.3	12.8	12.4	12.9	13.2
Denmark	10.2	10.7	10.9	11.1	11.3	11.7	12.2	12.9	13.2
Sweden	11.5	12.0	12.0	12.1	12.2	12.4	12.7	13.0	..
Switzerland	10.5	11.1	11.5	11.6	11.7	11.8	12.1	12.3	12.6
Italy	10.3	10.7	11.2	11.4	11.6	11.8	11.9	12.2	12.4
Norway	9.8	10.0	10.1	9.9	10.1	10.7	11.5	11.9	12.4
Austria	9.5	10.0	10.4	10.7	11.0	11.4	11.7	12.0	12.1
Canada	10.7	10.9	11.1	11.3	11.4	11.6	12.0	12.0	..
Australia	11.9	11.3	11.6	11.8	11.5	11.9	12.0
Japan	9.8	10.3	10.6	10.8	11.1	11.6	11.7	12.0	..
Finland	9.1	9.7	9.9	10.1	10.2	10.5	10.9	11.3	11.7
Czech Republic	8.6	8.8	9.3	9.5	9.7	10.2	10.4	10.8	11.3
Iceland	8.3	8.5	8.5	9.1	9.2	9.3	8.9	9.7	10.6
Spain	7.8	8.1	8.4	8.4	8.6	8.9	9.5	9.9	10.2
Korea	6.4	7.1	7.5	7.8	8.5	8.9	9.4	10.0	10.2
Ireland	8.5	8.7	8.8	8.5	8.5	8.9	9.0	9.4	9.5
Slovak Republic	6.8	7.1	7.0	7.1	7.9	8.6	8.8	8.4	8.6
Hungary	5.3	5.7	6.0	6.8	7.0	7.1	7.2	7.2	..
Poland	4.2	4.4	4.9	5.1	5.8	5.8	5.8	6.3	6.4
Portugal	5.4	5.5	5.6	5.7	6.0	6.2	6.4
Greece	4.7	5.2	5.6	5.6	6.1	6.3	6.2	6.2	6.4

출처 <http://stats.oecd.org>

149. 금융업 부가가치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25.0	21.2	20.7	23.2	22.8	25.7	29.6	28.2	29.0
Switzerland	13.2	11.3	11.5	12.2	12.2	12.0	12.8	13.7	..
Ireland	7.3	7.7	7.6	9.3	9.8	10.1	10.3	10.6	10.2
United States	7.5	7.7	7.9	7.9	7.8	8.0	8.1	7.9	..
Australia	7.1	7.5	7.4	7.6	7.7	7.8	7.9
United Kingdom	5.2	5.3	6.6	7.0	7.0	7.1	7.7	7.6	..
Portugal	6.1	6.5	6.3	6.5	6.6	6.6	7.5
Canada	7.1	7.3	7.3	7.3	7.5	7.4
Iceland	5.4	5.9	6.1	7.3	8.2	8.8	8.6	8.5	7.0
New Zealand	5.7	5.9	6.3	6.4	6.3	6.5	6.8
Japan	5.8	6.2	6.5	6.7	6.5	6.7	6.7
Korea	5.8	6.4	7.5	7.3	6.7	6.9	6.8	7.0	6.6
Netherlands	6.1	6.1	6.5	7.3	7.4	7.7	6.8	5.8	6.2
Denmark	4.7	4.7	5.0	5.4	5.3	5.4	5.4	5.6	5.8
Italy	4.7	4.8	4.6	4.8	4.7	4.8	4.8	5.2	5.4
Spain	4.6	4.9	4.9	4.8	4.7	4.6	4.7	5.3	5.4
Poland	4.9	4.5	4.2	4.2	4.2	4.4	4.5	5.3	5.3
Austria	5.6	5.5	5.5	5.2	5.2	5.3	5.5	5.6	5.2
Belgium	6.0	5.6	6.0	5.8	6.0	5.9	5.7	5.6	5.2
France	5.1	4.5	4.8	4.9	4.9	4.9	4.9	4.7	4.6
Greece	5.5	4.3	4.2	4.3	4.8	4.6	4.7	4.6	4.5
Hungary	3.3	3.4	3.8	3.9	4.1	4.7	4.5	4.2
Germany	4.2	4.1	4.4	4.7	5.1	4.7	4.5	4.0	3.8
Norway	3.0	3.0	3.1	4.0	4.3	3.9	3.4	3.9	3.7
Slovak Republic	2.4	2.4	4.0	4.0	4.2	4.5	3.9	3.6	3.7
Czech Republic	2.8	3.2	3.1	3.6	3.5	3.0	3.1	3.8	3.7
Sweden	4.3	4.1	3.8	3.8	4.2	4.5	3.7	3.6	..
Finland	4.3	3.6	3.4	2.2	2.6	2.3	2.6	2.9	2.6

출처 <http://stats.oecd.org>

150. 금융업 고용비중(전산업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11.2	11.7	11.6	11.3	11.2	11.0	11.2	11.5	11.8
Canada	5.3	5.4	5.4	5.3	5.4	5.4	5.5	5.7	..
Switzerland	4.9	5.2	5.3	5.3	5.2	5.1	5.1	5.2	5.1
Iceland	4.2	4.1	3.9	3.9	4.4	4.1	4.3	4.9	4.8
Ireland	4.1	4.0	4.0	4.2	4.5	4.4	4.3	4.4	4.5
United States	4.1	4.1	4.2	4.2	4.2	4.2	4.3	4.2	..
Australia	3.7	3.8	3.7	3.6	3.7	3.7	3.9
Korea	3.6	3.5	3.3	3.4	3.3	3.3	3.4	3.5	3.5
United Kingdom	3.8	3.9	3.9	3.8	3.7	3.6	3.5	3.5	..
Netherlands	3.5	3.5	3.5	3.4	3.4	3.4	3.4	3.3	3.2
New Zealand	3.2	3.0	3.0	3.0	3.0	3.0	3.2	3.2	3.1
France	3.0	3.0	3.1	3.1	3.1	3.1	3.1	3.1	3.1
Denmark	2.9	2.9	2.9	3.0	2.9	2.9	2.9	3.0	3.1
Belgium	3.5	3.5	3.5	3.4	3.3	3.3	3.2	3.2	3.0
Austria	3.1	3.1	3.1	3.0	3.0	3.0	3.0	3.0	3.0
Germany	3.3	3.3	3.3	3.3	3.2	3.2	3.2	3.0	2.9
Japan	2.9	2.8	2.9	2.8	2.7	2.7	2.7	2.7	..
Greece	2.5	2.4	2.3	2.4	2.4	2.4	2.5	2.5	2.6
Italy	2.6	2.6	2.5	2.5	2.5	2.5	2.5	2.5	2.5
Hungary	2.2	2.0	1.9	1.9	2.1	2.1	2.1	2.1	..
Sweden	2.2	2.2	2.2	2.1	2.1	2.1	2.1	2.1	..
Poland	2.5	2.4	2.3	2.1	2.0	2.1	2.3	2.4	2.1
Spain	2.2	2.1	2.1	2.1	2.0	2.0	1.9	2.0	2.0
Norway	2.2	2.1	2.1	2.1	2.1	2.0	1.9	1.9	1.9
Czech Republic	1.8	1.8	1.7	1.7	1.7	1.7	1.7	1.7	1.7
Portugal	1.8	1.7	1.7	1.6	1.6	1.6	1.6
Slovak Republic	1.9	1.8	1.8	1.7	1.7	1.7	1.6	1.6	1.6
Finland	1.8	1.7	1.7	1.7	1.6	1.6	1.6	1.6	1.6

출처 <http://stats.oecd.org>

151. 자영업자 고용비중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7.4	7.1	6.9	6.8	6.7	6.5	6.3	6.0	5.9
United States	7.4	7.4	7.2	7.6	7.6	7.5	7.4	7.2	7.0
Norway	7.4	7.2	7.1	7.3	7.4	7.4	8.5	8.0	7.8
Denmark	8.7	8.9	9.0	8.8	8.7	8.7	8.9	8.9	8.8
France	9.3	9.1	8.9	8.9	9.0	9.1	9.1	9.0	9.0
Canada	10.6	9.9	9.8	9.8	9.5	9.4	9.1	9.3	9.1
Sweden	10.3	10.0	9.8	9.6	9.9	9.8	10.0	10.6	10.4
Switzerland	13.2	12.9	12.5	12.0	11.4	11.2	11.1	11.5	11.1
Germany	11.0	11.1	11.2	11.4	12.1	12.4	12.2	12.0	11.7
Australia	14.0	13.7	13.8	13.4	13.1	12.9	12.4	11.9	11.7
Hungary	15.2	14.5	13.9	13.5	14.3	13.8	12.8	12.5	12.3
Iceland	18.0	16.8	16.6	13.9	14.1	14.2	14.8	13.7	12.7
Finland	13.7	13.0	12.9	12.9	12.8	12.7	12.9	12.6	12.8
Japan	16.6	15.9	15.4	15.1	14.9	14.7	13.8	13.4	13.0
Netherlands	11.2	11.6	11.7	11.4	12.1	12.4	12.7	13.1	13.2
United Kingdom	12.8	12.8	12.7	13.2	13.6	12.9	13.1	13.3	13.4
Slovak Republic	8.0	8.4	8.6	9.7	12.0	12.6	12.6	12.9	13.8
Austria	13.1	13.2	13.1	12.8	12.8	13.3	13.6	14.4	13.8
Belgium	15.8	15.1	15.4	15.0	14.9	15.2	15.1	14.8	14.2
Czech Republic	15.2	15.2	16.1	17.3	16.9	16.1	16.2	16.2	16.2
Ireland	18.9	18.1	18.1	17.7	18.0	17.3	16.3	16.8	17.3
New Zealand	20.8	19.9	19.4	19.4	19.2	18.5	17.7	17.3	17.3
Spain	20.2	19.8	19.0	18.3	18.1	18.2	17.9	17.7	17.7
Poland	27.4	28.0	28.1	27.3	26.7	25.8	24.4	23.5	22.9
Portugal	26.1	26.8	26.6	26.7	25.9	25.1	24.0	24.2	24.1
Italy	28.5	28.2	27.7	27.5	28.4	27.0	26.7	26.4	25.7
Korea	36.8	36.7	36.0	34.9	34.0	33.6	32.8	31.8	..
Mexico	36.0	36.4	36.8	36.6	36.5	35.5	34.5	34.3	33.9
Greece	42.0	39.9	39.3	39.0	36.6	36.4	36.3	35.9	35.1
Turkey	51.4	52.8	50.2	49.4	49.2	45.8	43.5	39.6	39.0

출처 <http://stats.oecd.org>

152. 임금근로자 고용비중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92.6	92.9	93.1	93.2	93.3	93.5	93.7	94.0	94.1
United States	92.6	92.6	92.8	92.4	92.4	92.5	92.6	92.8	93.0
Norway	92.6	92.8	92.9	92.7	92.6	92.6	91.5	92.0	92.2
Denmark	91.3	91.1	91.0	91.2	91.3	91.3	91.1	91.1	91.2
France	90.7	90.9	91.1	91.1	91.0	90.9	90.9	91.0	91.0
Canada	89.4	90.1	90.2	90.2	90.5	90.6	90.9	90.7	90.9
Sweden	89.7	90.0	90.2	90.4	90.1	90.2	90.0	89.4	89.6
Switzerland	86.8	87.1	87.5	88.0	88.6	88.8	88.9	88.5	88.9
Germany	89.0	88.9	88.8	88.6	87.9	87.6	87.8	88.0	88.3
Australia	86.0	86.3	86.2	86.6	86.9	87.1	87.6	88.1	88.3
Hungary	84.8	85.5	86.1	86.5	85.7	86.2	87.2	87.5	87.7
Iceland	82.0	83.2	83.4	86.1	85.9	85.8	85.2	86.3	87.3
Finland	86.3	87.0	87.1	87.1	87.2	87.3	87.1	87.4	87.2
Japan	83.4	84.1	84.6	84.9	85.1	85.3	86.2	86.6	87.0
Netherlands	88.8	88.4	88.3	88.6	87.9	87.6	87.3	86.9	86.8
United Kingdom	87.2	87.2	87.3	86.8	86.4	87.1	86.9	86.7	86.6
Slovak Republic	92.0	91.6	91.4	90.3	88.0	87.4	87.4	87.1	86.2
Austria	86.9	86.8	86.9	87.2	87.2	86.7	86.4	85.6	86.2
Belgium	84.2	84.9	84.6	85.0	85.1	84.8	84.9	85.2	85.8
Czech Republic	84.8	84.8	83.9	82.7	83.1	83.9	83.8	83.8	83.8
Ireland	81.1	81.9	81.9	82.3	82.0	82.7	83.7	83.2	82.7
New Zealand	79.2	80.1	80.6	80.6	80.8	81.5	82.3	82.7	82.7
Spain	79.8	80.2	81.0	81.7	81.9	81.8	82.1	82.3	82.3
Poland	72.6	72.0	71.9	72.7	73.3	74.2	75.6	76.5	77.1
Portugal	73.9	73.2	73.4	73.3	74.1	74.9	76.0	75.8	75.9
Italy	71.5	71.8	72.3	72.5	71.6	73.0	73.3	73.6	74.3
Korea	63.2	63.3	64.0	65.1	66.0	66.4	67.2	68.2	68.7
Mexico	64.0	63.6	63.2	63.4	63.5	64.5	65.5	65.7	66.1
Greece	58.0	60.1	60.7	61.0	63.4	63.6	63.7	64.1	64.9
Turkey	48.6	47.2	49.8	50.6	50.8	54.2	56.5	60.4	61.0

출처 <http://stats.oecd.org/>

VIII. 인적자본

153.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정부부담, 민간부담)

(%)	2006			2007		
	Public	Private	Total	Public	Private	Total
United States	5.0	2.4	7.4	5.0	2.6	7.6
United Kingdom	5.2	0.7	5.9	5.2	0.6	5.8
Sweden	6.2	0.2	6.3	6.1	0.2	6.3
Spain	4.2	0.5	4.7	4.2	0.6	4.8
Slovak Republic	3.6	0.6	4.3	3.4	0.5	4.0
Portugal	5.1	0.4	5.6	5.1	0.5	5.6
Poland	5.2	0.5	5.7	4.8	0.5	5.3
New Zealand	5.0	1.3	6.3	4.8	1.2	5.9
Netherlands	4.8	0.8	5.6	4.7	0.8	5.6
Mexico	4.6	1.1	5.7	4.7	1.1	5.7
Korea	4.5	2.9	7.3	4.2	2.8	7.0
Japan	3.3	1.7	5.0	3.3	1.6	4.9
Italy	4.6	0.3	4.9	4.1	0.4	4.5
Ireland	4.4	0.3	4.7	4.4	0.2	4.7
Iceland	7.2	0.8	8.0	7.0	0.8	7.8
Hungary	5.1	0.5	5.6
Germany	4.1	0.7	4.8	4.0	0.7	4.7
France	5.5	0.4	5.9	5.5	0.4	6.0
Finland	5.7	0.1	5.8	5.5	0.1	5.6
Denmark	6.7	0.6	7.3	6.6	0.5	7.1
Czech Republic	4.2	0.6	4.8	4.1	0.5	4.6
Canada(05)	4.6	1.5	6.1	4.6	1.5	6.1
Belgium	5.9	0.2	6.1	5.9	0.2	6.1
Austria	5.2	0.4	5.5	5.1	0.2	5.4
Australia	4.1	1.6	5.7	3.8	1.4	5.2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9263238_43586328_1_1_1_1,00.html/

15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PPPs \$)	2006	2007
Australia	7,519	8,786
Austria	9,652	10,974
Belgium	7,768	9,162
Czech Republic	4,588	5,426
Denmark	10,395	10,759
Finland	6,498	8,440
France	6,817	8,932
Germany	6,900	8,270
Hungary	3,964	4,811
Iceland	..	9,015
Ireland	7,345	8,628
Italy	7,332	7,948
Japan	..	9,312
Korea	6,052	7,325
Mexico	2,365	2,598
Netherlands	8,386	9,883
New Zealand	..	6,226
Norway	..	11,967
Poland	3,716	4,134
Portugal	6,152	6,677
Slovak Republic	2,866	3,694
Spain	6,946	8,618
Sweden	7,542	10,262
Switzerland	..	13,031
Turkey	1,581	..
United Kingdom	7,078	9,600
United States	11,637	14,269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9263238_43586328_1_1_1_1,00.html/

155. 학생 1인당 공교육비지출(1인당 GDP대비)

(%)	2006				2007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tertiary education	Total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tertiary education	Total
Australia	17.7	24.4	28.0	24.3	17.7	24.4	28.0	23.0
Austria	24.2	30.0	29.9	30.9	24.2	30.0	29.9	30.0
Belgium	21.0	25.6	25.3	26.3	21.0	25.6	25.3	26.0
Czech Republic	14.6	24.2	29.4	23.6	14.6	24.2	29.4	23.0
Denmark	25.2	27.7	..	29.8	25.2	27.7	..	30.0
Finland	18.1	23.1	24.4	24.7	18.1	23.1	24.4	24.0
France	17.7	30.0	25.8	27.1	17.7	30.0	25.8	27.0
Germany	16.3	23.0	24.4	24.1	16.3	23.0	24.4	24.0
Hungary	25.5	22.1	26.9	25.4	25.5	22.1	26.9	26.0
Iceland	26.5	24.2	..	25.1	26.5	24.2	..	25.0
Ireland	15.2	21.5	20.1	19.4	15.2	21.5	20.1	19.0
Italy	26.3	28.9	19.2	28.1	26.3	28.9	19.2	26.0
Japan	21.8	25.9	..	27.7	21.8	25.9	..	28.0
Korea	21.4	31.5	32.6	29.5	21.4	31.5	32.6	28.0
Mexico	15.0	16.2	40.5	18.4	15.0	16.2	40.5	18.0
Netherlands	17.3	25.6	26.2	25.1	17.3	25.6	26.2	25.0
New Zealand	18.5	22.5	29.9	23.2	18.5	22.5	29.9	23.0
Norway	18.2	21.9	20.6	22.0	18.2	21.9	20.6	22.0
Poland	25.4	23.0	30.1	26.1	25.4	23.0	30.1	25.0
Portugal	23.7	31.6	33.3	30.6	23.7	31.6	33.3	29.0
Slovak Republic	17.9	16.4	29.5	19.3	17.9	16.4	29.5	18.0
Spain	20.2	26.9	26.6	26.5	20.2	26.9	26.6	27.0
Sweden	22.3	24.7	25.7	27.6	22.3	24.7	25.7	28.0
Switzerland	22.8	34.4	33.1	32.8	22.8	34.4	33.1	31.0
Turkey	9.4	15.2	38.5	13.4
United Kingdom	22.7	25.7	28.5	27.3	22.7	25.7	28.5	27.0
United States	22.1	24.7	51.1	30.7	22.1	24.7	51.1	31.0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9263238_43586328_1_1_1_1,00.html/

156. 전체 및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2007					2008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Australia	34	41	34	32	27	36	42	38	33	28
Austria	18	19	19	17	14	18	19	19	18	15
Belgium	32	41	36	28	22	32	42	35	29	22
Canada	48	56	53	45	39	49	56	54	44	40
Czech Republic	14	15	14	14	11	14	18	14	15	11
Denmark	32	40	34	30	24	34	43	37	32	26
Finland	36	39	43	36	28	37	38	44	37	29
France	27	41	29	20	17	27	41	31	20	17
Germany	24	23	26	25	23	25	24	27	26	24
Greece	23	28	26	21	14	23	28	27	22	15
Hungary	18	22	17	16	16	19	24	19	17	16
Iceland	30	31	35	28	23	31	33	36	30	24
Ireland	32	44	34	25	17	34	45	37	27	19
Italy	14	19	14	11	9	14	20	15	12	10
Japan	41	54	46	41	24	43	55	48	43	26
Korea	35	56	40	21	11	37	58	43	23	12
Luxembourg	27	36	27	22	19	28	39	28	22	19
Mexico	16	19	16	15	9	16	20	16	15	10
Netherlands	31	37	31	30	26	32	40	33	31	26
New Zealand	41	47	41	39	35	40	48	40	38	34
Norway	34	43	36	31	26	36	46	38	32	28
Poland	19	30	18	13	12	20	32	19	13	12
Portugal	14	21	14	10	7	14	23	15	10	8
Slovak Republic	14	17	13	14	11	15	18	14	14	11
Spain	29	39	32	23	16	29	39	33	24	16
Sweden	31	40	31	29	26	32	41	33	28	26
Switzerland	31	35	34	30	26	34	38	36	31	27
Turkey	11	14	10	9	8	12	15	11	10	9
United Kingdom	32	37	32	31	25	33	38	33	30	27
United States	40	40	42	40	39	41	42	43	40	40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9263238_43586328_1_1_1_1,00.html/

157. 고등교육 이수 증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98-08
Australia	27	29	31	31	31	32	33	34	36	3.4
Austria	14	14	15	15	18	18	18	18	18	2.8
Belgium	27	28	28	29	30	31	32	32	32	2.5
Canada	40	42	43	44	45	46	47	48	49	2.5
Czech Republic	11	11	12	12	12	13	14	14	14	3.4
Denmark	26	28	30	32	33	34	35	32	34	3.1
Finland	32	32	33	33	34	35	35	36	37	2.0
France	22	23	24	24	24	25	26	27	27	2.9
Germany	23	23	23	24	25	25	24	24	25	1.0
Greece	18	18	19	19	21	21	22	23	23	3.4
Hungary	14	14	14	15	17	17	18	18	19	3.8
Iceland	23	25	26	29	29	31	30	30	31	4.1
Ireland	19	24	25	26	28	29	31	32	34	4.9
Italy	9	10	10	10	12	12	13	14	14	5.3
Japan	34	34	37	37	39	40	40	41	43	3.4
Korea	24	25	26	29	30	32	33	35	37	5.0
Luxembourg	18	18	19	14	24	27	24	27	28	4.2
Mexico	15	15	15	16	17	13	14	16	16	1.8
Netherlands	23	23	25	28	30	30	30	31	32	2.9
New Zealand	29	29	30	32	35	39	38	41	40	3.8
Norway	28	30	31	31	32	33	33	34	36	1.0
Poland	11	12	13	14	16	17	18	19	20	6.1
Portugal	9	9	9	11	13	13	13	14	14	5.6
Slovak Republic	10	11	11	12	13	14	15	14	15	3.7
Spain	23	24	24	25	26	28	28	29	29	4.0
Sweden	30	32	33	33	35	30	31	31	32	1.3
Switzerland	24	25	25	27	28	29	30	31	34	3.9
Turkey	8	8	9	10	9	10	10	11	12	4.9
United Kingdom	26	26	27	28	29	30	31	32	33	3.2
United States	36	37	38	38	39	39	39	40	41	1.7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9263238_43586328_1_1_1_1,00.html/

158. 평생학습 참여율(2007)

(%)	25-34	35-44	45-54	55-64	25-64
Sweden	81	79	74	61	73
New Zealand	69	69	72	59	67
Switzerland	64	60	59	45	57
Norway	65	58	53	41	55
Finland	66	61	57	38	55
United States	56	49	48	40	49
United Kingdom	59	51	49	37	49
Netherlands	60	45	45	29	45
Germany	53	51	47	28	45
Denmark	57	50	45	29	45
Slovak Republic	51	51	45	24	44
Canada	50	47	42	28	42
Austria	47	48	43	25	42
Belgium	56	49	36	23	41
Czech Republic	44	45	41	22	38
Australia	46	40	39	25	38
France	48	39	33	16	35
Spain	40	34	27	17	31
Korea	36	29	27	24	30
Portugal	40	29	22	11	26
Poland	34	26	16	7	22
Italy	30	24	22	12	22
Greece	23	15	13	5	14
Hungary	16	11	7	2	9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52/0,3343,en_2649_39263238_45897844_1_1_1_1,00.html

159. 초등학교사 1인당 학생수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17.30	17.00	16.90	16.60	16.40	16.20	16.00	15.90	15.80
Austria	13.46	..	13.27	13.18	13.13	12.41	12.23	11.86	12.90
Belgium	11.98	12.13	11.94	11.88	11.57	11.49	11.28	11.20	12.60
Canada	17.42	17.40	17.00
Czech Republic	16.89	17.71	17.35	16.79	16.41	16.25	15.66	18.73	24.10
Denmark	10.40	10.00	10.90	10.80	18.10
Finland	16.69	15.90	15.57	16.35	15.96	15.53	15.53	15.03	14.40
France	18.71	18.75	18.64	18.64	18.64	18.55	18.67	18.95	19.90
Germany	15.28	14.76	14.29	14.05	14.19	14.12	13.96	13.63	18.80
Greece	13.41	12.73	12.52	11.94	11.26	11.06	10.54	10.29	..
Hungary	10.71	10.54	10.28	9.59	10.47	10.44	10.25	10.06	10.60
Iceland	10.93	11.26	10.70	10.55	10.53	10.54	10.48	10.31	..
Ireland	21.55	20.29	19.41	18.67	18.17	17.87	17.20	15.94	17.80
Italy	10.96	10.70	10.59	10.83	10.62	10.49	10.55	10.33	10.60
Japan	20.69	20.39	20.04	19.56	19.15	18.90	18.71	18.49	18.80
Korea	32.12	32.02	31.26	30.10	29.02	27.88	26.62	25.59	24.10
Luxembourg	..	11.74	11.74	11.49	11.53	11.33	11.10	11.08	12.10
Mexico	27.16	26.98	26.87	26.66	28.47	28.32	28.00	27.99	28.00
Netherlands	16.80	17.20	17.00	16.00	15.90	15.90	15.30	15.60	15.80
New Zealand	18.45	17.46	17.77	17.77	16.37	16.27	15.89	15.68	17.10
Norway	12.40	11.60	11.50	11.70	11.90	..	10.90	11.00	10.80
Poland	11.32	11.14	11.29	12.65	12.63	11.54	11.23	10.64	10.50
Portugal	13.24	12.95	11.07	11.11	11.57	10.53	10.60	11.73	11.30
Slovak Republic	17.58	19.70	19.11	18.39	17.68	17.51	17.20	15.35	18.60
Spain	14.54	14.30	14.01	13.88	13.93	13.75	13.58	12.83	13.10
Sweden	11.84	11.40	11.47	11.19	10.11	10.05	9.97	9.80	12.20
Switzerland	12.96	13.00	13.00	13.00	12.88	12.78	12.71	14.80	15.40
Turkey	30.50	29.80	27.00	26.00	26.50	25.80	26.70	26.20	24.40
United Kingdom	18.66	17.59	17.18	17.10	18.09	17.47	18.08	17.24	20.20
United States	15.01	15.44	14.83	14.81	14.21	14.13	13.81	13.80	14.30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9263238_43586328_1_1_1_1,00.html/

160.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10.29	..	10.44	10.53	10.71	12.10	12.20	12.10	12.00
Austria	10.29	..	10.44	10.53	10.71	10.98	10.94	10.85	10.20
Belgium	10.06	10.35	10.57	10.03	10.04	10.04	10.04	9.80	9.90
Canada	17.73	17.73	15.90	16.40	16.30
Czech Republic	..	10.81	10.81	10.76	10.31	10.45	10.55	..	12.00
Denmark	12.80	12.40	..	13.40	11.30
Finland	13.80	14.00	13.40	12.90	13.10	13.90	12.90	13.10	13.60
France	11.80	11.61	11.46	11.47	11.40	11.43	12.10	12.10	11.90
Germany	14.36	14.26	14.35	14.19	14.02	13.92	13.95	13.46	14.70
Greece	9.76	9.42	..	8.60	8.30	8.29	8.19	7.88	..
Hungary	9.84	10.68	10.86	10.96	10.51	10.63	10.53	11.10	11.60
Iceland	12.35	12.78	12.40	12.41	11.39	11.33	10.78	10.44	10.20
Ireland	13.70	14.30	15.50	14.60	13.20	12.80
Israel	..	8.21	8.38	9.90	9.93	11.64	11.92	11.88	11.40
Italy	10.45	10.14	10.25	10.58	10.80	10.54	10.62	10.10	10.80
Japan	13.98	13.83	13.55	13.22	12.89	12.63	12.40	12.22	13.40
Korea	21.02	19.91	18.24	17.68	17.76	18.04	18.04	18.06	18.20
Luxembourg	9.20	10.20	10.20	10.59	10.48	10.29	10.09	10.18	9.10
Mexico	16.92	16.88	16.96	17.14	17.95	17.80	17.83	17.92	30.70
Netherlands	13.47	13.09	12.74	13.13	13.31	13.32	15.80
New Zealand	15.55	15.03	..	14.19	13.18	14.71	14.71	14.63	14.50
Norway	9.70	9.30	10.40	9.80	10.00	..	9.90	10.00	10.00
Poland	15.50	13.20	12.10	14.11	14.38	12.71	12.71	12.30	12.50
Portugal	9.79	9.72	8.90	8.78	7.75	7.14	7.06	7.32	7.70
Slovak Republic	12.23	12.72	12.66	12.92	13.08	13.31	13.04	12.81	14.80
Spain	11.11	11.01	11.10	10.95	10.81	9.80
Sweden	14.35	13.89	13.31	12.73	9.46	9.66	9.49	9.62	13.10
Switzerland	11.00	12.00	11.00	..	11.20	11.40	11.90	11.90	11.70
Turkey	14.00	17.20	19.00	18.00	16.90	16.20	15.80	16.20	17.00
United Kingdom	15.02	14.84	15.45	15.31	15.28	14.83	14.54	14.01	13.40
United States	14.61	15.16	14.88	14.92	14.98	14.94	14.62	14.56	15.10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9263238_43586328_1_1_1_1,00.html/

161.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유학생수/고등교육학생수)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13.9	12.5	13.9	17.7	18.7	16.6	17.3	17.8	19.5	20.6
Austria	11.8	11.6	12.0	12.7	13.5	14.1	..	15.5	16.7	18.7
United Kingdom	11.2	11.0	10.9	10.1	11.2	13.4	13.9	14.1	14.9	14.7
Switzerland	16.2	16.6	17.0	17.2	17.7	18.2	18.4	17.9	18.0	14.1
New Zealand	4.1	4.8	6.2	9.6	13.5	17.0	17.0	..	13.6	12.9
France	6.5	6.8	7.3	8.2	10.5	11.0	10.8	11.2	11.3	11.2
Norway	4.8	4.6	4.6	4.8	5.2	5.8	6.3	6.7	7.3	7.6
Belgium	10.3	10.9	10.6	11.0	11.2	6.8	5.4	6.3	6.4	7.4
Ireland	4.8	4.6	4.9	5.2	5.6	6.7	6.9	6.8	8.8	7.2
Czech Republic	2.0	2.2	3.0	3.4	3.6	4.7	5.5	6.3	6.7	7.1
Sweden	7.3	7.4	7.3	7.5	7.8	4.0	4.7	5.0	5.4	5.6
Denmark	6.5	6.8	6.5	7.4	9.0	4.5	4.4	5.3	5.5	..
Canada	3.3	3.3	..	4.2	..	5.3
Netherlands	2.9	2.9	3.3	3.7	3.9	4.8	4.7	4.7	4.7	5.0
Portugal	..	3.0	..	4.0	3.9	4.1	4.5	4.6	4.9	..
Iceland	2.4	4.2	4.1	4.1	4.3	3.3	..	4.5	4.9	4.3
Hungary	3.2	3.2	3.4	3.3	3.1	3.1	3.1	3.3	3.5	3.7
Finland	1.8	2.1	2.2	2.4	2.5	2.6	2.8	3.7	3.3	3.7
Greece	1.6	2.2	2.4	2.4	2.5	3.5	..
United States	3.3	3.6	3.5	3.7	3.5	3.4	3.4	3.3	3.4	3.4
Japan	1.4	1.5	1.6	1.9	2.2	2.9	3.1	3.2	3.1	3.2
Italy	1.3	1.4	1.6	1.5	1.9	2.0	2.2	2.4	2.8	..
Slovakia	..	1.2	1.2	1.1	1.0	0.9	0.9	0.8	0.9	2.3
Spain	1.8	2.2	2.2	2.4	2.9	0.8	1.0	1.0	1.8	2.1
Korea	0.7	1.0	1.3
Turkey	1.3	1.1	1.0	1.0	0.7	0.8	0.9	0.8	0.8	0.8
Poland	0.5	0.6	..

출처 http://www.uis.unesco.org/template/pdf/ged/2009/GED_2009_EN.pdf/

162.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0.6	0.7	0.6	0.6	0.8	0.9	0.9	0.9	0.9	0.9
United Kingdom	1.3	1.1	1.3	1.3	1.4	1.1	1.0	1.0	1.0	0.9
Mexico	0.8	0.8	0.8	1.0	1.0	0.9	1.0	1.0	1.0	1.0
Spain	1.5	1.5	1.5	1.5	1.3	1.4	1.4	1.3	1.3	1.2
Japan	1.5	1.5	1.4	1.6	1.6	1.5	1.6	1.4	1.4	1.3
Netherlands	2.8	2.6	2.4	2.4	2.4	1.6	1.8	1.7	1.8	1.4
Poland	1.1	1.1	1.1	1.2	1.4	1.4	1.5	1.4	1.5	..
Turkey	3.3	3.0	3.1	3.1	2.7	2.6	2.5	1.5	1.5	1.6
Hungary	2.3	2.3	2.3	2.3	2.1	1.8	1.8	1.6	1.7	1.7
New Zealand	3.5	3.5	...	4.0	3.5	2.7	1.6	1.7	1.7	1.7
Italy	2.4	2.6	2.6	2.5	2.5	2.0	1.9	1.7	1.7	..
France	2.6	2.7	2.7	2.9	2.8	2.3	2.3	2.4	2.5	2.1
Finland	3.8	3.8	3.6	3.6	3.6	2.0	1.9	2.0	1.9	2.1
Denmark	3.4	3.5	3.3	3.4	3.4	2.6	2.4	2.3	2.2	..
Czech Republic	1.8	1.8	2.1	2.2	2.4	2.1	2.1	2.1	2.0	2.4
Belgium	2.8	2.9	3.0	3.0	3.2	2.6	2.6	2.6	2.7	2.5
Canada	2.4	2.5	..	2.9	..	3.0
Portugal	3.0	2.8	2.9	2.9	3.1	2.8	3.2	2.7	3.0	..
Sweden	4.2	3.7	4.3	4.1	3.9	3.1	3.2	3.1	3.3	3.4
Korea	2.3	2.3	2.3	2.6	2.8	2.9	3.0	3.2	3.3	3.5
Austria	4.7	4.6	4.5	5.7	5.7	5.1	4.8	3.9	4.0	3.6
Switzerland	5.7	4.5	5.3	6.4	4.3	5.1	4.8	4.9	4.9	4.7
Greece	17.5	15.2	13.1	10.1	9.1	8.0	6.6	5.4	5.4	..
Norway	7.0	7.3	7.8	8.2	7.3	6.4	6.0	5.7	5.5	5.5
Ireland	12.9	11.1	9.4	8.7	8.8	9.3	10.3	10.7	10.2	10.1
Slovakia	3.6	4.3	6.3	7.5	8.7	9.4	10.2	11.3	11.1	11.5
Iceland	28.8	25.5	24.3	25.8	22.7	15.3	15.4	15.5	15.7	15.1

출처 http://www.uis.unesco.org/template/pdf/ged/2009/GED_2009_EN.pdf/

163.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유입률 - 유출율)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26.7	..
Australia	13.3	11.9	13.3	17.2	17.9	15.7	16.3	16.8	18.6	19.8
United Kingdom	9.8	9.9	9.6	8.8	9.8	12.3	12.9	13.2	13.9	13.7
Switzerland	10.5	12.1	11.7	10.8	13.4	13.2	13.6	13.0	13.1	9.4
Austria	7.1	7.1	7.4	7.1	7.9	9.0	..	11.6	12.7	15.2
New Zealand	0.6	1.3	..	5.6	9.9	14.3	15.4	..	11.9	11.2
France	3.9	4.1	4.5	5.3	7.6	8.7	8.5	8.8	8.8	9.2
Czech Republic	0.2	0.4	0.9	1.3	1.2	2.6	3.4	4.3	4.7	4.7
Belgium	7.5	8.0	7.7	8.0	8.0	4.2	2.8	3.7	3.7	4.9
Denmark	3.1	3.3	3.2	4.0	5.6	2.0	2.1	3.1	3.3	..
United States	3.1	..
Sweden	3.1	3.7	3.0	3.4	3.9	0.9	1.5	1.9	2.0	2.2
Portugal	..	0.2	..	1.0	0.8	1.3	1.3	1.9	1.9	..
Hungary	0.8	0.9	1.1	1.1	1.0	1.3	1.4	1.7	1.8	2.0
Japan	-0.1	0.0	0.2	0.3	0.5	1.4	1.5	1.7	1.8	1.9
Finland	-1.9	-1.7	-1.3	-1.3	-1.1	0.6	0.8	1.8	1.3	1.6
Italy	-1.1	-1.2	-0.9	-1.0	-0.6	0.1	0.3	0.8	1.1	..
Turkey	-2.0	-1.9	-2.0	-2.1	-2.1	-1.9	-1.6	-0.7	-0.7	-0.8
Poland	-0.9	-0.9	..
Ireland	-8.1	-6.5	-4.5	-3.5	-3.2	-2.6	-3.4	-3.9	-1.4	-3.0
Greece	-8.4	-6.9	-5.6	-4.1	-2.8	-1.9	..
Korea	-2.5	-2.3	-2.3
Slovakia	..	-3.1	-5.2	-6.4	-7.6	-8.5	-9.3	-10.4	-10.2	-9.2
Iceland	-26.3	-21.3	-20.2	-21.8	-18.3	-11.9	..	-10.9	-10.7	-10.8
Canada	0.8	0.8	..	1.2	..	2.3

출처 http://www.uis.unesco.org/template/pdf/ged/2009/GED_2009_EN.pdf/

164.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성적(과학)

(점)	1995	2000	2003	2006
Finland	..	538.00	548.00	563.32
Canada	531.00	529.00	519.00	534.47
Japan	571.00	550.00	548.00	531.39
New Zealand	525.00	528.00	521.00	530.38
Australia	545.00	528.00	525.00	526.88
Netherlands	524.00	524.86
Korea	565.00	552.00	538.00	522.15
Germany	531.00	487.00	502.00	515.65
United Kingdom	547.00	532.00	..	514.77
Czech Republic	574.00	511.00	523.00	512.86
Switzerland	522.00	496.00	513.00	511.52
Austria	558.00	519.00	491.00	510.84
Belgium	518.00	496.00	509.00	510.36
Ireland	538.00	513.00	505.00	508.33
Hungary	554.00	496.00	503.00	503.93
Sweden	535.00	512.00	506.00	503.33
Poland	..	483.00	498.00	497.81
Denmark	478.00	481.00	475.00	495.89
France	498.00	500.00	511.00	495.22
Iceland	494.00	496.00	495.00	490.79
USA	534.00	499.00	491.00	488.91
Slovak Republic	495.00	488.43
Spain	517.00	491.00	487.00	488.42
Norway	527.00	500.00	484.00	486.53
Luxembourg	..	443.00	483.00	486.32
Italy	..	478.00	486.00	475.40
Portugal	480.00	459.00	468.00	474.31
Greece	497.00	461.00	481.00	473.38
Turkey	434.00	423.83
Mexico	..	422.00	405.00	409.65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20/43/44919588.pdf/>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OECD)

165.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성적(수학)

(점)	1995	2000	2003	2006
Finland	..	536.00	544.00	548.36
Korea	607.00	547.00	542.00	547.46
Netherlands	538.00	530.65
Switzerland	545.00	529.00	527.00	529.66
Canada	527.00	533.00	532.00	527.01
Japan	605.00	557.00	534.00	523.10
New Zealand	508.00	537.00	523.00	521.99
Belgium	549.00	520.00	529.00	520.35
Australia	530.00	533.00	524.00	519.91
Denmark	502.00	514.00	514.00	513.03
Czech Republic	564.00	498.00	516.00	509.86
Iceland	487.00	514.00	515.00	505.54
Austria	539.00	515.00	506.00	505.48
Germany	509.00	490.00	503.00	503.79
Sweden	519.00	510.00	509.00	502.36
Ireland	527.00	503.00	503.00	501.47
France	538.00	517.00	511.00	495.54
United Kingdom	505.00	529.00	..	495.44
Poland	..	470.00	490.00	495.43
Slovak Republic	498.00	492.11
Hungary	537.00	488.00	490.00	490.94
Luxembourg	..	446.00	493.00	490.00
Norway	503.00	499.00	495.00	489.85
Spain	487.00	476.00	485.00	479.96
USA	500.00	493.00	483.00	474.35
Portugal	454.00	454.00	466.00	466.16
Italy	..	457.00	466.00	461.69
Greece	484.00	447.00	445.00	459.20
Turkey	423.00	423.94
Mexico	..	387.00	385.00	405.65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20/43/44919588.pdf/>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OECD)

IX. 물적자본

166. 도로 보급률(도로연장/국토면적)

(km/km ²)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Belgium	4.86	4.88	4.91	4.90	4.90	4.96	4.99	..
Netherlands	2.81	3.72	..	3.72
Japan	3.09	3.10	3.12	3.12	3.13	..	3.16	3.17
Luxembourg	2.01	2.01	2.01	2.01	2.01
Germany	0.65	0.65	0.65	0.65
Switzerland	1.72	1.72	1.72	1.78	1.73	1.73	1.73	..
Hungary	1.71	1.71	1.72	1.72	..	1.72	1.72	..
United Kingdom	1.61	1.62	1.61	1.62	1.60	1.60	1.71	..
Denmark	1.66	1.66	1.67	1.67	1.67	1.68	1.68	..
Czech Republic	1.62	1.62	1.61	1.61	1.62	1.62	1.63	..
Italy	1.59	1.59	..	1.62
Sweden	1.04	0.94	0.94	1.55	..
France	1.62	1.62	1.62	1.72	1.72	1.72	1.41	..
Poland	1.17	1.17	1.22	1.35
Ireland	1.36	1.36	1.36	1.32
Spain	1.31	1.31	1.31	1.32
Austria	2.38	2.38	2.38	1.60	1.26	1.28	..
Korea	0.89	0.92	0.96	0.98	1.01	1.02	1.02	1.04
Portugal	0.75	..	0.79	0.87	0.86	0.90
Greece	0.89	0.87	0.87	0.89
Slovak Republic	0.88	0.88	0.88	0.89	0.89	0.89	0.89	..
USA	0.66	0.66	..	0.70	0.70	0.68
Turkey	0.46	0.46	0.46	0.55	0.55	0.54	0.55	..
New Zealand	0.34	0.34	0.34	0.35	0.34	0.35	0.35	..
Norway	0.28	0.28	0.28	0.28	..	0.29
Finland	0.23	0.23	0.23	0.23	0.23	0.23	0.23	..
Mexico	0.17	..	0.17	0.18	0.18	0.18	0.18	..
Canada	0.14	..	0.14
Iceland	0.13	0.13	0.13	0.13	0.13	0.13	0.13	..
Australia	0.11

출처 http://www.irfnet.org/files-upload/stats/2009/wrs2009_web.pdf/

167. 철도 보급률(철도연장/국토면적)

(km/km ²)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zech Republic	0.120	0.120	0.120	0.121	0.121	0.120	0.120	0.120
Belgium	0.113	0.115	0.115	0.116	0.116	0.117	0.111	0.115
Luxembourg	0.106	0.106	0.106	0.106	0.106	0.106	0.106	0.106
Germany	0.101	0.100	0.101	0.097	0.096	0.096	0.095	0.095
Hungary	0.085	0.086	0.085	0.085	0.085	0.085	0.086	0.085
Switzerland	0.078	0.078	0.078	0.082	0.079	0.081	0.088	0.085
Slovak Republic	0.075	0.075	0.075	0.075	0.075	0.075	0.074	0.073
Netherlands	0.068	0.068	0.068	0.068	0.068	0.067	0.067	0.070
Austria	0.069	0.068	0.069	0.069	0.069	0.069	0.069	0.069
United Kingdom	0.067	0.070	0.070	0.068	0.067	0.082	0.067	0.067
Poland	0.064	0.065	0.064	0.063	0.063	0.062	0.062	0.063
Italy	0.054	0.054	0.054	0.054	0.056	0.056	0.055	0.056
France	0.054	0.053	0.053	0.053	0.053	0.054	0.054	0.054
Japan	0.053	0.053	0.049	0.053	0.053	0.053	0.053	0.053
Denmark	0.048	0.048	0.053	0.050	0.051	0.047	0.050	0.050
Korea	0.031	0.031	0.032	0.034	0.034	0.034	0.034	0.034
Portugal	0.031	0.031	0.031	0.031	0.031	0.031	0.031	0.031
Spain	0.027	0.027	0.028	0.028	0.029	0.029	0.029	0.030
Ireland	0.027	0.027	0.027	0.027	0.027	0.027	0.027	0.027
USA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Sweden	0.024	0.022	0.022	0.022	0.022	0.022	0.022	0.022
Greece	0.018	0.018	0.018	0.019	0.020	0.019	0.019	0.019
Finland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Mexico	0.014	..	0.014	0.014	0.014	0.014
Norway	0.013	0.013	0.013	0.013	0.013	0.012	0.013	0.013
Turkey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Canada	0.006	0.006	0.006	0.006	0.006
Australia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Iceland	0.000	0.000	0.000	0.000	0.000

출처 [http://www.uic.org/International railways statistics 2008/](http://www.uic.org/International_railways_statistics_2008/)

168. 인구100명당 유선전화 회선수

(회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witzerland	72.9	74.5	74.0	72.5	71.1	69.2	67.1	65.6	64.0	61.4
Germany	61.2	63.7	65.3	65.9	66.2	66.5	66.0	64.5	62.1	59.3
Iceland	69.8	69.3	65.8	66.8	65.4	65.5	62.6	60.6	61.3	57.4
France	57.5	57.3	57.0	56.3	55.6	55.2	55.6	56.4	56.4	56.9
Luxembourg	57.0	58.0	55.5	54.1	53.4	52.7	52.9	52.2	54.2	56.3
Sweden	64.9	63.8	62.6	61.7	63.1	62.2	60.9	60.1	57.8	55.6
United Kingdom	59.8	58.5	58.5	57.9	57.7	56.5	55.9	55.5	54.2	54.6
Canada	67.9	68.2	65.9	65.1	64.3	56.2	55.9	55.5	54.9	54.4
Greece	51.7	51.1	57.2	57.2	57.5	57.0	55.7	56.2	53.7	53.1
Slovenia	39.6	40.3	40.6	40.7	40.6	40.8	41.8	42.6	50.1	51.2
United States	66.9	65.8	64.4	61.6	59.3	57.9	54.8	51.3	49.6	49.3
Ireland	48.2	48.1	50.1	48.6	49.1	49.0	51.0	51.9	49.6	46.1
Spain	42.5	43.1	42.8	42.4	42.2	45.2	45.6	45.8	45.4	44.7
Netherlands	62.1	51.0	49.9	48.5	48.4	46.6	45.5	45.0	44.3	44.1
New Zealand	47.3	46.6	44.6	44.8	44.3	42.1	42.4	41.7	41.4	43.8
Australia	52.4	51.8	52.9	52.6	51.5	49.6	48.2	46.8	44.5	42.4
Belgium	49.4	50.2	48.0	47.3	46.3	46.0	45.1	44.3	42.1	40.0
Korea	55.7	55.2	54.8	53.3	49.8	50.3	47.0	46.7	44.3	39.9
Norway	53.5	51.8	51.1	49.0	47.4	45.5	43.9	42.1	39.8	39.5
Austria	49.9	49.7	48.0	47.7	46.7	45.4	43.6	41.0	39.4	38.9
Portugal	42.3	42.6	42.0	41.1	40.4	40.1	40.0	39.5	38.5	37.8
Denmark	71.9	72.2	68.9	67.1	64.6	61.8	57.0	51.9	45.6	37.7
Italy	47.5	47.7	47.1	45.9	44.5	42.7	45.6	37.8	35.6	35.6
Japan	48.9	48.3	47.8	47.3	46.8	45.6	44.0	41.1	38.0	34.9
Hungary	37.2	36.7	36.1	35.6	35.3	33.9	33.4	32.4	30.9	30.7
Finland	55.1	54.1	52.4	49.3	45.3	40.4	36.3	32.9	31.1	26.9
Poland	28.5	29.7	30.9	32.1	32.8	31.0	30.1	27.5	25.5	25.1
Turkey	27.7	28.0	27.6	27.3	27.2	26.7	26.1	24.9	23.7	22.1
Chile	21.4	22.2	22.0	20.4	20.6	21.1	20.5	20.8	21.0	21.1
Czech Republic	37.9	37.8	36.1	35.6	33.7	31.6	28.2	23.4	21.9	20.2
Slovak Republic	31.6	28.9	26.1	24.1	23.2	22.2	21.7	21.3	20.3	18.9
Mexico	12.4	13.7	14.7	15.8	17.3	18.5	18.7	18.6	18.9	17.7

출처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169. 가정용 유선전화 월이용요금

(U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reland	15.4	16.3	21.2	27.2	29.9	30.2	30.3	33.1	37.1
New Zealand	16.5	15.3	17.6	23.2	26.4	28.1	23.4	32.0	31.5
Canada	13.0	12.5	12.7	14.3	15.4	16.5	30.9
Norway	16.9	16.7	19.9	22.5	23.6	24.7	24.8	27.1	28.2
Netherlands	14.4	14.7	..	19.3	22.0	22.5	22.5	24.7	27.1
Belgium	14.9	14.5	15.3	18.9	21.2	20.7	21.5	24.7	26.9
Luxembourg	12.6	16.4	15.1	20.7	22.7	22.2	24.2	25.2	26.9
Spain	8.5	9.3	11.0	13.1	15.6	15.8	16.9	19.0	26.5
Germany	10.0	10.3	11.2	15.2	19.3	19.9	20.0	..	24.0
Czech Republic	4.5	4.6	9.1	10.6	17.9	19.9	23.6
France	11.5	11.2	11.8	14.6	16.0	17.4	18.8	21.9	23.4
Austria	13.3	12.8	15.1	18.0	19.7	19.9	20.1	21.9	23.4
Denmark	14.0	13.6	14.8	18.1	19.9	19.8	23.3
Switzerland	14.9	14.9	16.2	18.7	20.4	20.3	20.1	21.0	23.3
Portugal	10.3	10.6	11.2	16.9	18.6	19.1	19.1	21.0	22.2
Greece	6.5	7.3	9.4	11.8	14.1	14.9	15.6	17.0	21.6
United Kingdom	15.1	14.4	14.2	15.6	17.3	20.9	20.3	21.0	21.6
Chile	10.7	9.4	9.2	9.2	7.6	8.3	21.6
Italy	10.5	11.4	..	16.4	19.2	19.5	19.5	20.2	21.3
Hungary	8.0	10.1	11.9	14.3	16.7	17.0	16.1	19.6	20.3
Poland	7.0	8.6	8.6	9.0	13.7	12.6	13.2	..	20.2
Sweden	11.5	12.1	12.8	15.5	17.0	16.7	16.9	18.5	19.0
Iceland	10.4	11.4	13.2	21.4	19.9	22.5	18.1
Australia	8.0	9.1	11.9	11.4	12.9	13.4	15.0	16.7	17.6
Japan	16.2	14.4	14.0	15.1	15.7	15.4	14.6	15.2	17.3
Slovenia	4.6	5.2	8.1	10.3	13.3	13.3	14.7	15.2	16.3
Mexico	15.5	16.8	16.2	14.5	13.9	14.4	14.4	16.5	16.2
Finland	9.6	10.2	11.1	13.3	15.4	15.6	15.6	11.3	12.1
Turkey	4.4	3.9	4.2	4.8	8.1	8.6	8.8	8.8	10.9
United States	20.8	22.6	23.4	24.8	24.5	24.7	25.3	..	10.0
Slovak Republic	3.5	5.1	6.8	8.1	9.2	9.6	10.0	12.0	9.4
Korea	3.5	4.0	4.2	4.4	4.5	5.1	5.4	5.6	4.7

출처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170. 전력생산량

(TWh)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United States	4,025.7	3,838.6	4,026.1	4,054.4	4,147.7	4,268.4	4,274.3	4,322.9	4,329.4
Japan	1,048.6	1,029.8	1,048.4	1,037.5	1,067.2	1,088.4	1,093.0	1,123.5	1,078.1
Canada	605.6	589.8	601.2	589.5	599.9	626.0	615.9	639.7	632.6
Germany	572.3	581.9	582.0	601.5	608.5	613.4	629.4	629.5	626.7
France	536.1	545.7	553.9	561.8	569.1	571.5	569.3	564.4	569.9
Korea	288.5	309.1	329.8	343.2	366.6	387.9	402.3	425.9	440.5
United Kingdom	374.4	382.4	384.6	395.5	391.2	395.4	394.0	392.3	386.2
Italy	269.9	271.9	277.5	286.3	295.8	296.8	307.7	308.2	312.4
Spain	222.2	233.2	241.6	257.9	277.2	288.9	295.5	300.2	306.5
Australia	207.4	216.5	226.2	227.9	234.3	245.1	251.3	254.6	265.3
Mexico	203.6	209.1	214.6	217.8	224.1	242.0	249.6	257.5	258.3
Turkey	124.9	122.7	129.4	140.6	150.7	162.0	176.3	191.6	198.6
Poland	143.2	143.7	142.5	150.0	152.6	155.4	160.8	158.8	154.0
Sweden	145.2	161.6	146.7	135.4	151.7	158.4	143.3	148.8	149.5
Norway	139.6	119.2	130.3	106.8	110.2	137.2	121.2	136.4	141.7
Netherlands	89.7	93.8	96.1	96.8	100.8	100.2	98.4	103.2	107.7
Czech Republic	72.9	74.2	76.0	82.8	83.8	81.9	83.7	87.8	83.2
Belgium	82.8	78.6	80.9	83.6	84.4	85.7	84.3	87.5	83.1
Finland	70.0	74.5	74.9	84.2	85.8	70.6	82.3	81.2	77.1
Switzerland	66.1	71.1	65.5	65.4	63.9	57.8	62.1	66.5	67.2
Austria	59.9	60.7	60.3	57.7	61.6	63.0	60.8	60.9	64.1
Greece	53.4	53.1	53.9	57.9	58.8	59.4	60.2	62.7	58.6
Portugal	43.4	46.2	45.7	46.5	44.8	46.2	48.6	46.9	45.4
New Zealand	39.2	39.4	41.1	41.2	42.9	43.1	43.5	43.8	43.8
Hungary	35.2	36.4	36.2	34.1	33.7	35.8	35.9	40.0	40.0
Denmark	36.0	37.7	39.3	46.2	40.4	36.2	45.6	39.2	36.4
Slovak Republic	30.8	31.9	32.2	31.0	30.5	31.4	31.3	27.9	29.3
Ireland	23.7	24.6	24.8	24.9	25.2	25.6	27.1	27.9	28.5
Iceland	7.7	8.0	8.4	8.5	8.6	8.7	9.9	12.0	16.5
Luxembourg	0.4	0.5	2.8	2.8	3.4	3.4	3.5	3.2	2.7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171. 전기요금

(US \$)/(Kw)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Korea	0.05	0.05	0.05	0.05	0.05	0.06	0.07	0.07	0.06	..
Norway	0.02	0.03	0.03	0.05	0.04	0.04	0.06	0.05	0.06	0.06
United States	0.05	0.05	0.05	0.05	0.05	0.06	0.06	0.06	0.07	0.07
New Zealand	0.03	0.03	0.03	0.05	0.05	0.06	0.06	0.07	0.07	..
Switzerland	0.07	0.07	0.07	0.08	0.08	0.08	0.08	0.08	0.09	0.09
Finland	0.04	0.04	0.04	0.07	0.07	0.07	..	0.08	0.10	0.10
Germany	0.04	0.04	0.05	0.07	0.08	0.08	0.09	0.11
Poland	0.04	0.05	0.05	0.06	0.06	0.07	0.07	0.08	0.12	0.12
Sweden	0.12
France	0.04	0.04	0.04	0.05	0.05	0.05	0.05	0.11	0.12	..
Luxembourg	0.07	0.12	..
Spain	0.04	0.04	0.05	0.05	0.06	0.08	0.09	0.09	0.13	..
Mexico	0.05	0.05	0.06	0.06	0.08	0.09	0.10	0.10	0.13	0.09
Portugal	0.07	0.07	0.07	0.08	0.09	0.10	0.11	0.12	0.13	0.13
Japan	0.14	0.13	0.12	0.12	0.13	0.12	0.12	0.12	0.14	0.16
Turkey	0.08	0.08	0.09	0.10	0.10	0.11	0.10	0.11	0.14	0.14
United Kingdom	0.06	0.05	0.05	0.06	0.07	0.09	0.12	0.13	0.15	..
Czech Republic	0.04	0.04	0.05	0.06	0.07	0.08	0.09	0.12	0.15	0.15
Austria	0.04	0.08	0.10	0.10	0.11	0.13	0.15	..
Hungary	0.05	0.05	0.06	0.08	0.09	0.10	0.11	0.13	0.17	0.16
Slovak Republic	0.04	0.04	0.05	0.07	0.08	0.09	0.10	0.14	0.17	0.20
Ireland	0.05	0.06	0.08	0.09	0.10	0.10	0.12	0.15	0.19	0.17
Italy	0.09	0.11	0.11	0.15	0.16	0.17	0.21	0.24	0.29	0.28

출처 http://www.iea.org/Textbase/nptoc/EPT_Toc.pdf/

X. 금융자본

172. 상장주식 시가총액비중(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witzerland	258.4	317.0	245.4	198.3	223.6	227.5	252.4	312.1	298.7	175.4
Luxembourg	169.6	167.8	117.7	109.5	128.0	146.7	136.3	186.9	333.3	123.7
United States	180.5	154.7	137.5	106.5	130.8	140.3	137.3	148.1	145.2	83.3
United Kingdom	195.2	174.4	147.2	115.6	132.2	128.1	134.1	155.8	137.6	69.3
Canada	121.1	116.1	97.9	78.3	103.2	118.7	130.7	133.0	152.9	66.8
Australia	112.3	92.0	101.4	98.4	128.6	129.7	119.2	151.3	158.2	66.5
Japan	104.1	67.6	55.0	54.3	71.9	79.9	104.1	108.3	101.7	65.6
Spain	69.9	86.8	76.9	67.8	82.2	90.1	84.9	107.4	125.2	59.0
Finland	267.3	241.1	152.3	102.6	103.5	97.3	107.3	126.7	150.1	56.6
Korea	88.8	32.2	43.6	43.3	51.2	59.4	85.0	87.8	107.1	53.2
Sweden	145.2	133.7	105.0	72.1	93.2	105.5	110.4	145.8	135.1	52.7
France	101.2	108.9	87.7	66.4	75.3	75.6	81.9	107.2	106.9	52.2
Netherlands	169.0	166.3	114.4	91.7	90.8	88.3	92.9	115.1	123.2	44.5
Denmark	60.5	67.3	55.1	44.2	57.2	61.8	69.1	84.4	89.6	38.5
Iceland	55.0	51.0	52.5	71.0	84.7	133.2	170.5	216.9	199.7	33.4
Belgium	72.9	78.7	71.6	50.6	56.0	76.0	76.8	99.2	84.3	33.2
Germany	66.8	66.8	56.7	34.3	44.2	43.5	43.8	56.2	63.5	30.4
Portugal	54.6	53.9	40.0	33.6	37.3	39.3	36.1	53.4	59.2	28.2
Norway	40.0	38.6	40.4	35.1	42.1	54.7	63.2	83.5	92.0	27.9
Greece	151.9	88.3	66.0	46.6	55.2	54.3	59.0	77.9	84.8	25.4
Czech Republic	19.6	19.4	15.1	21.1	19.3	28.2	30.8	34.1	42.1	22.7
Italy	60.6	70.0	47.2	39.4	40.8	45.7	44.9	55.1	50.7	22.6
Mexico	32.0	21.5	20.3	15.9	17.5	22.6	28.2	36.7	38.9	21.4
New Zealand	49.4	37.1	34.1	33.7	38.7	43.4	39.8	41.3	35.2	18.6
Ireland	71.3	84.8	71.9	49.3	54.1	61.7	56.6	73.4	55.2	18.5
Austria	15.7	15.7	12.9	15.5	21.9	29.9	40.9	59.3	61.7	17.5
Poland	17.6	18.3	13.7	14.5	17.1	28.1	30.9	43.6	48.7	17.1
Turkey	45.3	26.1	24.1	14.6	22.4	25.0	33.4	30.6	44.2	16.0
Hungary	34.0	25.1	19.5	19.7	19.8	28.1	29.6	37.1	34.3	12.0
Slovak Republic	3.5	4.2	5.1	5.5	6.1	7.9	7.2	8.1	8.3	5.2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173. 채권발행 잔액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Japan	122.2	133.8	162.6	184.9	192.3	183.9	192.7	202.3	226.2	..
Denmark	147.4	141.2	178.9	183.7	190.6	168.4	179.4	189.6	173.4	216.6
Italy	121.0	119.8	135.9	137.5	136.4	120.9	137.2	143.4	141.4	174.6
United States	138.8	142.4	146.6	150.7	153.9	157.0	161.2	166.5	170.7	..
Spain	59.5	57.4	66.1	71.2	79.3	76.7	95.1	108.4	104.1	133.4
Korea	70.8	87.0	92.7	89.3	100.8	96.6	103.2	102.6	92.7	130.4
Belgium	134.6	124.2	135.1	125.8	112.7	88.2	92.3	96.2	100.4	130.2
Netherlands	91.3	90.8	102.5	109.6	113.5	106.6	114.0	116.1	107.9	125.3
France	80.7	80.4	93.5	98.9	99.5	85.8	97.3	105.4	101.1	119.1
Iceland	85.6	93.6	119.2	168.2	252.0	315.3	381.3	377.2	86.2	114.4
Portugal	50.8	51.2	60.7	63.0	65.9	58.2	66.7	79.4	80.2	101.3
Canada	91.4	88.9	88.8	93.9	91.2	86.3	80.9	84.9	69.0	97.3
Austria	73.5	71.7	81.1	80.7	78.3	68.9	77.9	101.3	82.2	95.0
Sweden	79.7	70.5	82.3	88.6	86.1	77.1	87.6	84.2	71.0	91.4
Germany	90.3	79.5	87.3	86.6	82.2	69.5	77.1	79.1	71.3	84.3
Ireland	32.1	27.2	31.1	43.6	49.1	49.2	58.3	48.1	42.0	72.4
United Kingdom	46.6	45.5	47.4	44.4	47.3	44.0	50.7	48.5	45.8	71.7
Greece	68.4	64.8	69.8	67.9	68.5	57.3	57.4	58.4	64.0	69.0
Norway	34.5	34.6	45.0	42.6	41.4	33.8	35.2	37.2	30.1	62.4
Czech Republic	40.2	41.6	57.9	61.1	59.1	50.2	57.0	60.2	46.9	62.2
Hungary	36.3	38.2	44.1	49.9	52.2	44.8	54.2	55.2	48.7	61.9
Australia	52.9	53.8	58.0	65.1	62.4	58.0	66.3	81.6	60.8	..
Switzerland	63.1	60.3	72.3	68.6	71.5	56.2	57.1	55.9	51.5	52.7
Finland	51.3	44.9	46.9	41.6	40.6	32.4	35.3	37.3	33.6	41.6
Poland	23.5	26.4	30.6	32.1	39.8	34.6	37.9	38.3	28.0	41.1
Turkey	20.5	43.2	39.5	46.3	43.3	37.9	33.8	33.8	24.7	36.0
Slovak Republic	15.6	30.4	35.9	38.9	39.8	27.9	31.3	30.6	26.3	34.2
Mexico	20.1	24.6	25.6	27.9	29.1	32.0	32.5	34.5	29.4	..
New Zealand	26.7	26.1	30.0	28.7	24.6	20.7	18.7	17.7	14.1	..

출처 <http://www.bis.org/statistics/secstats.htm>

174. 은행 국내신용비중(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apan	309.9	308.9	299.5	299.2	307.3	303.2	312.8	304.9	294.4	293.0
United States	211.0	201.1	208.6	200.5	215.4	221.3	225.2	232.5	240.7	223.7
Spain	111.8	115.2	119.6	123.3	131.6	140.0	158.9	176.6	192.4	212.9
United Kingdom	121.8	130.1	135.7	140.8	144.9	153.5	162.1	172.5	188.2	212.3
Denmark	57.5	144.7	152.5	155.5	161.4	164.8	178.2	190.2	206.1	211.2
Ireland	103.4	107.1	109.3	109.7	115.6	134.5	160.3	180.1	194.3	204.3
Luxembourg	83.7	90.0	121.7	97.8	94.3	97.9	127.6	151.6	188.3	197.5
Netherlands	142.2	147.8	147.4	153.1	160.2	169.7	176.6	177.8	199.2	196.0
Portugal	114.7	133.2	142.4	143.0	143.0	144.2	148.9	160.7	171.8	183.8
Switzerland	178.7	171.9	168.1	167.4	172.0	173.5	177.6	183.6	188.7	183.6
Canada	116.9	113.7	203.7	198.4	192.0	194.4	202.9	219.6	153.6	177.8
New Zealand	112.1	111.7	109.5	112.6	119.9	120.7	130.4	139.1	145.3	156.3
Australia	87.8	89.6	91.1	97.9	100.1	105.1	108.8	113.9	131.0	137.8
Sweden	107.5	48.9	107.3	107.3	107.5	109.7	117.9	122.9	132.0	135.8
Italy	93.9	96.4	97.3	96.8	102.5	103.4	108.0	112.2	128.9	132.4
Austria	124.5	125.7	125.1	123.2	122.5	123.3	128.5	128.1	126.6	129.7
France	103.8	103.4	105.6	103.1	104.9	105.8	108.5	114.6	121.8	126.1
Germany	145.0	145.4	144.0	142.4	140.6	137.8	136.0	131.3	125.0	125.7
Belgium	137.3	125.9	119.2	112.4	108.5	102.7	103.9	108.8	112.0	113.8
Korea	88.3	89.2	92.4	96.8	99.3	94.9	99.4	99.9	101.8	112.6
Greece	83.7	90.2	98.7	98.7	93.5	94.2	101.6	104.4	108.9	109.0
Finland	57.4	55.7	61.5	62.9	66.7	69.6	77.7	81.8	85.2	87.7
Hungary	53.2	53.6	49.2	53.0	56.9	58.0	62.3	68.1	74.2	80.7
Poland	36.3	34.4	37.0	37.2	38.4	37.6	37.4	42.0	46.3	60.1
Czech Republic	54.6	49.4	45.7	42.3	48.6	44.7	43.5	48.5	53.1	58.0
Slovak Republic	58.0	56.6	59.7	51.2	43.7	42.9	48.1	49.7	51.5	53.8
Turkey	38.3	39.3	54.1	48.8	44.0	42.6	46.9	45.8	49.3	52.6
Mexico	36.3	34.1	33.1	36.5	33.2	31.8	32.1	34.8	37.7	37.5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175. 은행 무수익여신비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uxembourg	0.5	0.4	0.4	0.5	0.3	0.2	0.2	0.2	..
Denmark	..	0.7	0.9	0.8	0.7	0.4	0.3	0.3	..
Finland	0.6	0.6	0.5	0.5	0.4	0.3	0.3	0.3	0.4
Australia	0.5	0.6	0.4	0.3	0.2	0.2	0.2	0.2	0.5
Switzerland	4.1	2.3	1.8	1.3	0.9	0.5	0.3	0.3	0.5
Netherlands	1.8	2.3	2.4	2.0	1.5	1.2	0.8
Norway	1.2	1.3	1.8	1.6	1.0	0.7	0.6	0.5	0.8
Sweden	1.6	1.5	1.2	1.9	1.1	0.8	0.8	0.6	1.0
Canada	1.3	1.5	1.6	1.2	0.7	0.5	0.4	0.7	1.1
Korea	8.9	3.4	2.4	2.6	1.9	1.2	0.8	0.7	1.1
United Kingdom	2.5	2.6	2.6	2.5	1.9	1.0	0.9	0.9	1.6
Belgium	2.8	2.9	3.0	2.6	2.3	2.0	1.7	1.1	1.7
Japan	5.3	8.4	7.4	5.2	2.9	1.8	1.5	1.4	1.7
Austria	2.4	2.3	3.0	3.0	2.7	2.6	2.1	2.2	2.0
Portugal	2.2	2.1	2.3	2.4	2.0	1.5	1.2	1.3	2.0
Ireland	1.0	1.0	1.0	0.9	0.8	0.7	0.7	0.8	2.6
Germany	4.7	4.6	5.0	5.2	4.9	4.0	3.4	2.7	..
France	5.0	5.0	4.2	4.8	4.2	3.5	3.0	2.7	2.8
Hungary	3.0	2.7	2.9	2.6	2.7	2.5	2.5	2.5	3.0
United States	1.1	1.3	1.4	1.1	0.8	0.7	0.8	1.4	3.0
Mexico	5.8	5.1	3.7	3.2	2.5	1.8	2.0	2.7	3.2
Slovak Republic	13.7	11.1	7.9	3.7	2.6	5.0	3.2	2.5	3.2
Czech Republic	29.3	13.7	8.1	4.9	4.0	3.9	3.7	2.8	3.3
Spain	1.2	0.9	1.1	1.0	0.8	0.8	0.7	0.9	3.4
Turkey	9.2	29.3	12.7	11.5	6.0	4.8	3.8	3.5	3.6
Poland	15.5	..	21.1	21.2	14.9	11.0	7.4	5.2	4.4
Italy	7.8	6.7	6.5	6.7	6.6	5.3	4.9	4.6	4.9
Greece	12.3	5.6	5.5	7.0	7.0	6.3	5.4	4.5	5.0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176.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	2008
Australia	11.3
Austria	12.9
Belgium	16.2
Canada	12.2
Czech Republic	11.6
Germany	13.6
Greece	10.0
Hungary	11.2
Ireland	10.6
Italy	10.8
Japan	12.4
Korea	12.3
Luxembourg	15.4
Mexico	15.2
Netherlands	11.9
Norway	10.1
Poland	11.2
Portugal	10.3
Slovak Republic	11.1
Spain	11.3
Sweden	10.2
Switzerland	15.0
Turkey	18.0
United Kingdom	12.9
United States	12.8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

177. 외환거래량

(억달러)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United Kingdom	4,788	6,852	5,417	8,353	14,832	18,536
United States	2,658	3,834	2,726	4,986	7,452	9,044
Japan	1,677	1,463	1,527	2,074	2,502	3,123
Switzerland	884	916	763	853	2,536	2,626
Australia	405	483	540	1,071	1,763	1,921
France	615	772	496	665	1,268	1,516
Denmark	318	280	238	421	882	1,205
Germany	792	996	915	1,204	1,014	1,086
Canada	307	379	442	593	640	619
Sweden	204	161	249	319	439	448
Korea	..	36	98	205	352	438
Luxembourg	192	227	131	146	439	334
Belgium	285	273	104	208	501	325
Finland	54	44	16	18	83	313
Spain	184	200	81	139	171	293
Italy	242	286	176	235	376	286
Norway	76	89	..	145	321	222
Austria	135	118	84	146	188	195
Netherlands	266	428	305	521	248	183
Mexico	..	87	86	153	153	170
Turkey	10	35	41	168
Ireland	49	107	87	75	114	146
Israel	15	50	84	100
New Zealand	72	70	40	70	128	88
Poland	..	27	51	65	92	78
Greece	33	72	48	43	50	52
Czech Republic	..	51	21	24	50	51
Hungary	..	14	6	28	69	42
Portugal	24	44	17	19	43	37
Slovakia	8	16	35	4

출처 <http://www.bis.org/publ/rpfx10.htm>

* 2010. 4월 평균 외환거래량

XI. 사회적 자본

178. 신뢰지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orway	1.26
Sweden	1.34	1.32
Finland	1.41
New Zealand	1.49
Switzerland	1.49	..
Australia	1.52
Netherlands	1.56
Canada	..	1.63	1.58
United States	1.64	1.60
Japan	..	1.57	1.61
Germany	1.66
United Kingdom	1.70
Korea	1.73	1.70
Italy	1.71
Spain	..	1.66	1.80	..
Poland	1.81
France	1.81
Mexico	..	1.78	1.84
Turkey	1.81	1.95	..

출처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http://www.wvsersdb.com/wvs/>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긍정1, 부정2)
(세계가치관조사)

179. 이방인에 대한 신뢰*

	2005	2006	2007	2008
Sweden	..	2.62
Norway	2.66
Finland	3.01
Canada	..	3.09
Switzerland	3.10	..
Australia	3.11
United Kingdom	..	3.17
France	..	3.23
United States	..	3.26
Spain	3.58	..
Poland	3.71
Germany	..	3.72
Netherlands	..	3.76
Italy	3.87
Korea	4.00
Turkey	4.09	..
Mexico	4.16

출처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http://www.wvsersdb.com/wvs/>

* “처음 만남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완전히 신뢰함1, 전혀 신뢰하지 않음 4) (세계가치관조사)

180. 공정성 지수*

	2005	2006	2007	2008
Norway	7.28
Sweden	..	7.15
Switzerland	6.91	..
Korea	6.65
Finland	6.63
Netherlands	..	6.43
Canada	..	6.42
Australia	6.39
Mexico	6.30
France	..	6.12
United Kingdom	..	6.01
United States	..	5.78
Germany	..	5.51
Italy	5.50
Japan	5.50
Spain	5.17	..
Turkey	4.70	..
Poland	4.63

출처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http://www.wvsersdb.com/wvs/>

*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는 물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 1, 공정10) (세계가치관조사)

181. 공공기관 신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inland	2.35
Switzerland	2.37	..
Norway	2.39
Turkey			2.62	2.40	..
Sweden	2.39
Canada		2.55	2.55
Spain		2.61	2.60	..
Australia	2.61
New Zealand	2.63
Korea		..	2.84	2.66
United States	2.57		2.67
United Kingdom		2.67
Italy	2.73
France		2.76
Japan	..	2.85	2.80
Netherlands		2.81
Mexico	..	3.04	2.97
Poland	3.03

출처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http://www.wvsersdb.com/wvs/>

* 정부, 경찰, 국회, 정당에 대해 신뢰하는지 여부를 측정
(매우 많이 신뢰함 1, 전혀 신뢰하지 않음 4) (세계가치관조사)

182. 자원봉사자 비중*

(%)	2008
United States	41.9
New Zealand	41.5
Norway	38.9
Canada	38.1
Australia	37.9
Netherlands	37.1
Ireland	35.0
Switzerland	34.1
Austria	30.3
United Kingdom	28.7
France	28.5
Finland	27.9
Japan	24.7
Belgium	24.0
Germany	22.7
Korea	21.3
Italy	21.1
Denmark	19.7
Czech Republic	18.2
Spain	14.8
Slovak Republic	12.9
Sweden	12.4
Portugal	11.9
Poland	10.4
Mexico	10.3
Turkey	7.5
Greece	7.4
Hungary	6.3

출처 <http://stats.oecd.org/>

* 전월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

183. 사회지원 비중*

(%)	2008
Canada	66.0
United States	65.5
Australia	64.6
New Zealand	64.1
Switzerland	61.5
Austria	58.8
Ireland	58.7
United Kingdom	58.5
Netherlands	49.4
Norway	48.9
Germany	47.9
Sweden	47.6
Spain	46.0
Belgium	46.0
Denmark	45.6
Finland	42.1
Korea	41.6
Mexico	41.3
Hungary	38.8
Portugal	38.4
Czech Republic	38.3
France	38.2
Poland	36.5
Turkey	35.7
Greece	34.2
Italy	33.8
Slovak Republic	31.4
Japan	22.7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09>

* 전월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인 있는 사람의 비중

184. 부패 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Denmark	9.8	9.5	9.5	9.5	9.5	9.5	9.5	9.4	9.3	9.3
New Zealand	9.4	9.4	9.5	9.5	9.6	9.6	9.6	9.4	9.3	9.4
Sweden	9.4	9	9.3	9.3	9.2	9.2	9.2	9.3	9.3	9.2
Finland	10	9.9	9.7	9.7	9.7	9.6	9.6	9.4	9.0	8.9
Switzerland	8.6	8.4	8.5	8.8	9.1	9.1	9.1	9.0	9.0	9.0
Iceland	9.1	9.2	9.4	9.6	9.5	9.7	9.6	9.2	8.9	8.7
Netherlands	8.9	8.8	9.0	8.9	8.7	8.6	8.7	9.0	8.9	8.9
Australia	8.3	8.5	8.6	8.8	8.8	8.8	8.7	8.6	8.7	8.7
Canada	9.2	8.9	9.0	8.7	8.5	8.4	8.5	8.7	8.7	8.7
Luxembourg	8.6	8.7	9.0	8.7	8.4	8.5	8.6	8.4	8.3	8.2
Austria	7.7	7.8	7.8	8.0	8.4	8.7	8.6	8.1	8.1	7.9
Germany	7.6	7.4	7.3	7.7	8.2	8.2	8.0	7.8	7.9	8.0
Norway	9.1	8.6	8.5	8.8	8.9	8.9	8.8	8.7	7.9	8.6
Ireland	7.2	7.5	6.9	7.5	7.5	7.4	7.4	7.5	7.7	8.0
United Kingdom	8.7	8.3	8.7	8.7	8.6	8.6	8.6	8.4	7.7	7.7
Belgium	6.1	6.6	7.1	7.6	7.5	7.4	7.3	7.1	7.3	7.1
Japan	6.4	7.1	7.1	7.0	6.9	7.3	7.6	7.5	7.3	7.7
United States	7.8	7.6	7.7	7.5	7.5	7.6	7.3	7.2	7.3	7.5
France	6.7	6.7	6.3	6.9	7.1	7.5	7.4	7.3	6.9	6.9
Spain	7.0	7.0	7.1	6.9	7.1	7.0	6.8	6.7	6.5	6.1
Portugal	6.4	6.3	6.3	6.6	6.3	6.5	6.6	6.5	6.1	5.8
Korea	4.0	4.2	4.5	4.3	4.5	5.0	5.1	5.1	5.6	5.5
Czech Republic	4.3	3.9	3.7	3.9	4.2	4.3	4.8	5.2	5.2	4.9
Hungary	5.2	5.3	4.9	4.8	4.8	5.0	5.2	5.3	5.1	5.1
Slovak Republic	3.5	3.7	3.7	3.7	4.0	4.3	4.7	4.9	5.0	4.5
Italy	4.6	5.5	5.2	5.3	4.8	5.0	4.9	5.2	4.8	4.3
Greece	4.9	4.2	4.2	4.3	4.3	4.3	4.4	4.6	4.7	3.8
Poland	4.1	4.1	4.0	3.6	3.5	3.4	3.7	4.2	4.6	5.0
Turkey	3.8	3.6	3.2	3.1	3.2	3.5	3.8	4.1	4.6	4.4
Mexico	3.3	3.7	3.6	3.6	3.6	3.5	3.3	3.5	3.6	3.3

출처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

* 부패지수는 공무원, 정치인 등 국가 지도층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하며, 0~10점 사이의 값을 가짐(낮을수록 부패)(국제투명성기구)

185. 공식적 교제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United States	0.40
New Zealand	0.37
Canada	0.35
Norway	0.34
Sweden	0.32
Switzerland	0.32	..
Australia	0.31
United Kingdom	0.31
Finland	0.27
Mexico	0.27
Netherlands	0.20
Italy	0.19
France	0.18
Poland	0.12
Japan	0.11
Korea	0.11
Spain	0.09	..
Turkey	0.04	..

출처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http://www.wvsersdb.com/wvs/>

*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 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적극적 활동(2), 소극적 활동(1), 참여하지 않음(0)으로 구분하여 측정. (세계가치관조사)

186. 비공식적 교제 비중*

	1995	1996	1997	1998	2004	2005	2006	2007	2008
Switzerland	..	0.53	0.96	..
United States	0.76	0.81
New Zealand	0.71	0.72
Sweden	..	0.50	0.59
Canada	0.54
Australia	0.65	0.51
Mexico	..	0.70	0.51
Finland	..	0.49	0.48
Norway	..	0.46	0.47
United Kingdom	0.45
Netherlands	0.45
Korea	..	0.49	0.40
Italy	0.32
Japan	0.20	0.29
France	0.25
Poland	0.21
Spain	0.32	0.20	..
Turkey	..	0.08	0.04	..
Czech Republic	0.23
Germany
Hungary	0.18
Slovakia	0.23

출처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http://www.wvsersdb.com/wvs/>

* 취미, 종교, 동호회 등 비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적극적 활동(2), 소극적 활동(1), 참여하지 않음(0)으로 구분하여 측정. (세계가치관조사)

XII. 부존자원

187. 국토면적

(km ²)	1961	1970	1980	1990	1999	2000	2005	2006	2007	2008
United States	9158960	9158960	9158960	9158960	9158960	9161920	9161920	9161920	9161920	9161920
Canada	9093510	9093510	9093510	9093510	9093510	9093510	9093510	9093510	9093510	9093510
Australia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Mexico	1943950	1943950	1943950	1943950	1943950	1943950	1943950	1943950	1943950	1943950
Turkey	769630	769630	769630	769630	769630	769630	769630	769630	769630	769630
France	547670	547670	547670	547670	547670	547670	547660	547660	547660	547660
Spain	499780	499780	499470	499440	499440	499000	499090	498980	498980	498980
Sweden	410330	410330	410330	410330	410330	410330	410330	410330	410330	410330
Japan	366700	366700	366300	364600	364500	364500	364500	364500	364500	364500
Germany	348770	348770	348770	348770	348770	348770	348770	348770	348770	348770
Norway	304280	304280	304280	304280	304280	304280	304280	304280	304280	304280
Poland	304680	304680	304540	304420	304360	304360	306330	304270	304250	304250
Finland	304590	304590	304590	304590	304590	304590	304590	304110	304090	304090
Italy	294110	294110	294110	294110	294110	294110	294140	294140	294140	294140
New Zealand	267710	267710	267710	267710	267710	267710	267710	267710	267710	267710
United Kingdom	241930	241930	241930	241930	241930	241930	241930	241930	241930	241930
Greece	128900	128900	128900	128900	128900	128900	128900	128900	128900	128900
Iceland	100250	100250	100250	100250	100250	100250	100250	100250	100250	100250
Korea	98730	98730	98730	98730	98730	98730	96850	96880	96920	96920
Portugal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Hungary	90040	89980	89910	89870	89800	89620	89610	89610	89610	89610
Austria	82450	82450	82450	82450	82450	82450	82450	82450	82450	82450
Czech Republic	77270	77270	77260	77250	77250	77250
Ireland	68890	68890	68890	68890	68890	68890	68890	68890	68890	68890
Slovak Republic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Denmark	42370	42370	42380	42390	42430	42430	42430	42430	42430	42430
Switzerland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Netherlands	33760	33760	33760	33760	33760	33760	33760	33760	33760	33760
Belgium	30280	30280	30280	30280	30280
Luxembourg	2590	2590	2590	2590	2590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188. 인구밀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2	3	3	3	3	3	3	3	3
Iceland	3	3	3	3	3	3	3	3	3
Canada	3	3	3	3	3	3	3	3	3
Norway	14	14	14	14	14	14	14	15	15
Finland	15	15	15	15	15	16	16	16	16
New Zealand	14	15	15	15	15	15	16	16	16
Sweden	20	20	20	20	20	20	20	20	20
United States	29	30	30	30	30	31	31	31	32
Mexico	50	50	51	51	52	52	53	54	54
Ireland	54	55	56	57	58	59	61	62	63
Greece	83	83	83	84	84	84	84	85	85
Spain	80	81	82	83	84	86	87	89	90
Turkey	85	86	87	88	90	91	92	93	94
Austria	96	96	96	97	97	98	99	99	99
Hungary	110	110	109	109	109	108	108	108	108
Slovak Republic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France	107	107	108	109	110	110	111	112	113
Portugal	111	112	113	113	114	115	115	115	115
Poland	123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Denmark	124	124	125	125	125	126	126	127	128
Czech Republic	130	130	129	129	130	130	130	131	132
Switzerland	174	175	176	178	179	180	181	183	185
Luxembourg	168	170	172	174	177	180	182	185	188
Italy	189	189	190	191	193	194	196	197	199
Germany	230	231	231	231	231	231	231	230	230
United Kingdom	242	243	244	245	246	247	249	250	252
Japan	336	336	337	338	338	338	338	338	338
Belgium	336	337	338	340	341	343	345	348	351
Netherlands	383	386	389	391	392	393	394	394	396
Korea	474	477	480	482	484	485	487	488	490

출처 <http://stats.oecd.org/>

189. 원유 확인 매장량

(백만배럴)	2009	2010
Canada	178,092	175,214
United States	21,317	19,121
Mexico	10,501	10,404
Norway	6,680	6,680
United Kingdom	3,410	3,084
Australia	1,500	3,318
Denmark	1,060	1,060
Italy	407	424
Turkey	300	262
Germany	276	276
Spain	150	150
France	103	101
Netherlands	100	100
Poland	96	96
New Zealand	60	60
Austria	50	50
Japan	44	44
Hungary	20	27
Czech Republic	15	15
Greece	10	10
Slovakia	9	9
Korea	5	5

출처 <http://ogjreserch.stores.yahoo.net/>, <http://www.mke.go.kr/>

190.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bcf)	2009	2010
United States	237,726	244,656
Norway	81,680	81,680
Canada	57,906	61,950
Netherlands	50,000	50,000
Australia	30,000	110,000
Mexico	13,162	12,702
United Kingdom	12,110	10,312
Germany	6,200	6,200
Poland	5,820	5,820
Italy	3,325	2,466
Denmark	2,165	2,165
New Zealand	1,200	1,200
Japan	738	738
Austria	570	570
Slovakia	500	500
Ireland	350	350
Turkey	300	215
Hungary	286	286
France	245	250
Korea	175	175
Czech Republic	140	140
Spain	90	90
Greece	70	35

출처 <http://ogjresearch.stores.yahoo.net/>, <http://www.knoc.co.kr/>

191. 금 생산량

(kg)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280,080	266,140	282,010	259,000	263,000	247,000	245,000	215,000	223,000
United States	335,000	285,500	276,100	258,200	256,000	252,000	239,000	233,000	215,100
Canada	160,198	152,060	141,547	130,309	120,500	104,400	102,400	96,400	97,400
Mexico	23,543	21,324	20,166	21,329	30,400	39,000	43,700	49,700	55,500
New Zealand	9,850	9,770	9,300	9,300	10,600	10,600	10,800	16,300	16,800
Turkey	11,100	14,500
Japan	7,815	8,615	8,143	8,300	8,300	8,900	8,900	6,900	7,700
Sweden	4,986	4,456	4,285	5,228	6,600	6,800	5,200	4,900	5,800
Finland	5,600	4,670	5,560	8,520	6,200	6,200	6,200	4,100	1,600
Spain	4,200	5,600	5,400	5,400	2,300	1,600
France	2,500	1,700	1,500	1,500
Hungary	504	504	504	504	500	500	500	500	500
Korea	..	318	660	660	300	300	200	200	200
Italy	522	638	600	600	600	600	600	200	200

출처 <http://www.kores.or.kr/>, <http://rik.kigam.re.kr/>

192. 은 생산량

(kg)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Mexico	2,759,985	2,748,987	2,551,017	2,530,965	2,870,200	2,998,700	3,082,400	3,241,400	3,256,300
Australia	1,970,000	2,077,000	1,868,000	2,237,000	2,417,000	1,727,000	1,880,000	1,926,000	1,635,000
United States	1,606,000	1,419,000	1,236,200	1,246,700	1,230,000	1,138,500	1,124,500	1,250,000	1,239,300
Poland	1,230,700	1,342,000	1,332,200	1,330,000	1,263,000	1,306,300	1,306,800	1,216,200	1,232,400
Canada	1,320,030	1,407,558	1,309,274	1,335,828	1,123,800	995,000	862,400	755,100	630,900
Sweden	285,130	293,936	306,768	329,942	309,900	268,200	294,500	293,100	299,700
Finland	22,800	29,900	33,960	47,520	47,500	50,800	50,900	69,900	69,600
New Zealand	27,120	28,720	29,920	29,940	43,000	43,200	43,200	31,000	31,200
Greece	61,516	74,773	79,200	79,200	2,300	24,700	38,300	33,500	27,500
Portugal	23,130	19,100	21,790	24,620	23,700	21,300	31,300	28,800	22,500
Ireland	19,300	4,500	20,400	20,400	6,300	4,100	4,000	10,200	9,300
Japan	80,397	81,416	78,862	75,689	54,100	11,500	5,300	3,700	3,600
Spain	66,000	66,000	66,000	66,000	3,600	3,600	3,600	..	2,200
Korea	..	11,256	21,600	21,600	21,600	21,600	21,600	1,500	1,500
France	1,008	1,008	1,008	1,008	1,000	1,000	1,000
United Kingdom	400	500
Italy	4,440	4,440	4,440	4,440	4,400	4,400	4,400	100	100

출처 <http://www.kores.or.kr/>, <http://rik.kigam.re.kr/>

193. 철광석 생산량

(천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181,553	182,704	187,219	233,994	261,855	275,042	299,009
United States	46,192	51,570	46,447	55	54,300	52,700	52,500
Canada	26,981	30,969	31,000	28,596	30,387	33,551	32,834
Sweden	19,486	20,300	21,500	22,300	23,300	23,300	24,700
Mexico	8,783	9,900	11,200	11,483	11,700	11,000	12,205
Turkey	3,932	4,500	3,700	3,857	4,000	4,000	3,800
Slovak Republic	435	326	325	305	300	250	3,627
New Zealand	1,636	1,700	1,900	2,329	2,270	2,300	2,200
Austria	1,800	1,900	1,800	1,882	2,000	2,000	2,000
Greece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Norway	500	515	515	600	620	620	620
Germany	412	362	360	412
Korea	195	157	150	226	213	227	291
Portugal	15	15	15	14	14	14	14
United Kingdom
Japan

출처 <http://www.kores.or.kr/>, <http://rik.kigam.re.kr/>

194. 1인당 담수량

(㎥)	2002	2007
Iceland	590,278	546,629
Canada	90,874	86,427
Norway	84,178	81,119
New Zealand	82,816	77,336
Australia	25,036	23,412
Finland	20,575	20,232
Sweden	19,162	18,692
Ireland	12,463	11,223
United States	9,731	9,293
Austria	6,804	6,614
Switzerland	5,546	5,351
Greece	5,279	5,182
Mexico	4,090	3,885
Portugal	3,665	3,582
Japan	3,374	3,365
Turkey	3,319	3,109
Italy	3,193	3,074
France	2,995	2,893
Spain	2,692	2,478
United Kingdom	2,444	2,377
Slovak Republic	2,342	2,335
Luxembourg	2,241	2,083
Poland	1,402	1,406
Korea	1,362	1,338
Germany	1,297	1,301
Czech Republic	1,289	1,273
Belgium	1,161	1,129
Denmark	1,116	1,099
Netherlands	681	672
Hungary	591	597

출처 <http://faostat.fao.org/nr/water/aquastat/data/query/results.html/>

195. 식량자급률(식량생산량/국내생산량)

(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2.6	2.7	1.6	2.7	2.3	2.4	1.4	1.6
France	1.7	1.5	1.6	1.5	1.7	1.5	1.5	1.4
United States	1.3	1.2	1.1	1.3	1.3	1.2	1.2	1.4
New Zealand	1.5	1.4	1.4	1.4	1.4	1.4	1.3	1.4
Canada	1.5	1.3	1.1	1.4	1.5	1.5	1.5	1.3
Hungary	1.2	1.6	1.3	1.1	1.8	1.7	1.5	1.2
Finland	1.2	1.1	1.2	1.1	1.0	1.2	1.2	1.2
Czech Republic	1.0	1.1	1.0	0.9	1.2	1.1	1.1	1.1
Denmark	1.3	1.3	1.2	1.2	1.2	1.2	1.1	1.1
Sweden	1.1	1.0	1.0	1.1	1.1	1.1	1.0	1.1
Slovakia	0.9	1.1	1.1	1.0	1.3	1.4	1.1	1.0
Poland	0.9	1.0	1.0	0.9	1.1	1.0	1.0	1.0
Turkey	1.0	1.0	1.0	1.0	1.0	1.1	1.0	1.0
Austria	1.0	1.0	1.0	0.9	1.0	1.0	0.9	0.9
Germany	1.1	1.1	1.0	1.0	1.1	1.0	0.9	0.9
Ireland	1.1	1.0	0.9	0.9	1.0	0.9	0.8	0.9
Italy	1.0	0.9	0.9	0.9	0.9	0.9	0.9	0.9
Spain	1.1	0.9	1.0	0.9	1.0	0.8	0.9	0.9
Belgium	0.9	0.8	0.8	0.8	0.9	0.9	0.9	0.8
Luxembourg	0.8	0.8	0.8	0.8	0.8	0.8	0.8	0.8
Greece	0.9	0.9	0.9	0.8	0.9	0.9	0.9	0.8
Mexico	0.8	0.8	0.7	0.8	0.8	0.7	0.7	0.8
United Kingdom	1.0	0.8	0.9	0.8	0.9	0.8	0.8	0.8
Norway	0.8	0.7	0.7	0.7	0.8	0.7	0.7	0.7
Netherlands	0.9	0.8	0.8	0.8	0.8	0.8	0.6	0.6
Portugal	0.6	0.6	0.6	0.6	0.6	0.5	0.6	0.6
Korea	0.6	0.6	0.5	0.6	0.6	0.6	0.6	0.5
Switzerland	0.6	0.6	0.6	0.5	0.6	0.6	0.6	0.5
Japan	0.4	0.4	0.4	0.4	0.4	0.4	0.4	0.4
Iceland	0.2	0.2	0.2	0.2	0.2	0.2	0.2	0.2

출처 <http://faostat.fao.org/site/339/default.aspx/>

VIII. 부 지

196. 공적연금 지출비중(GDP대비)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Austria	11.1	12.1	11.9	12.1	12.3	12.4	12.2	12.2
Italy	8.2	9.3	11.1	11.0	11.2	11.3	11.4	11.5
Germany	9.4	10.0	10.5	10.6	10.9	11.0	11.0	11.0
Greece	9.3	9.1	10.0	10.8	10.4	10.3	10.3	10.7
France	9.0	10.4	10.3	10.3	10.2	10.3	10.4	10.6
Poland	4.1	7.6	9.6	10.5	10.8	11.0	10.8	10.4
Portugal	4.1	6.2	6.9	7.2	7.6	8.1	8.6	..
Hungary	7.1	7.2	7.8	7.7	7.8	8.3
Finland	6.3	7.7	6.7	6.8	7.1	7.4	7.4	7.5
Spain	7.1	8.1	8.0	7.8	7.8	7.6	7.6	7.5
Japan	4.0	5.1	6.2	6.5	6.9	7.1	7.2	7.4
Czech Republic	5.2	6.0	7.3	7.2	7.4	7.3	7.0	7.2
Sweden	7.0	7.4	6.7	6.6	6.7	7.2	7.2	7.0
Belgium	6.5	6.9	6.8	6.9	6.9	7.0	7.0	7.0
Switzerland	5.2	6.2	6.2	6.4	6.3	6.5	6.4	6.4
Turkey	2.2	2.9	6.3
Slovak Republic	..	6.1	6.2	6.2	6.3	6.1	6.1	6.0
United Kingdom	4.6	5.1	5.2	5.3	5.3	5.3	5.4	5.5
Denmark	5.1	6.2	5.3	5.3	5.3	5.4	5.3	5.4
United States	5.1	5.3	5.1	5.2	5.3	5.3	5.3	5.3
Luxembourg	7.4	8.1	6.9	4.9	5.1	5.2	5.2	5.2
Netherlands	5.8	5.0	4.6	4.6	4.6	4.7	4.7	4.7
Norway	5.2	5.1	4.5	4.6	4.9	5.0	4.8	4.6
New Zealand	7.2	5.6	4.9	4.7	4.5	4.4	4.2	4.2
Canada	3.8	4.2	3.9	3.9	3.9	3.9	3.8	3.7
Australia	2.8	3.4	3.6	3.2	3.2	3.2	3.4	3.2
Ireland	2.9	2.6	2.3	2.4	2.5	2.5	2.6	2.6
Iceland	2.2	2.3	2.1	2.0	2.1	2.3	2.1	2.0
Korea	0.6	1.1	1.2	1.0	1.0	1.1	1.2	1.3
Mexico	0.4	0.6	0.6	0.7	0.8	1.0	0.9	1.0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197. 사적연금 지출비중(GDP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witzerland	4.7	4.8	4.8	5.1	5.3	5.3	5.3	5.4	5.3
Denmark	..	3.1	3.1	3.2	3.2	3.4	3.8	3.3	4.1
Australia	4.4	4.4	4.4	4.3	3.6	3.7	3.9	3.4	3.9
Iceland	2.9	3.2	3.2	3.4	3.4	3.4	3.5	3.7	3.8
Netherlands	3.0	3.1	3.1	3.2	3.4	3.5	3.6	3.6	3.7
United States	3.1	3.0	3.0	2.8	2.9	2.9	3.1	3.3	..
United Kingdom	2.9	3.0	3.0	2.9	2.8	3.0	3.1	2.8	2.9
Belgium	1.4	1.4	1.4	1.4	1.4	1.3	1.3	2.8	2.6
Canada	2.1	2.1	2.1	2.1	2.2	2.0	2.2	2.2	2.4
Norway	1.4	1.4	2.0	..
Portugal	0.8	1.0	1.0	0.9	0.9	0.9	1.0	1.0	1.4
New Zealand	2.2	2.0	2.0	1.8	1.4	1.3	1.5	1.3	1.4
Sweden	1.0	1.1	1.3	1.2
Korea	..	1.0	1.0	1.0	0.6	0.8	0.9	1.0	0.8
Spain	0.4	0.6	0.6	0.4	0.5	0.5	0.6	0.5	0.6
Finland	0.5	0.5	0.5
Czech Republic	0.2	0.2	0.2	0.2	0.2	0.3	0.3
Italy	0.2	0.2	0.2	0.3
Mexico	0.0	0.0	0.0	0.1	0.1	0.1	0.2	0.3	0.2
Hungary	0.1	0.1	0.1	0.1	0.1	0.2	0.1	0.2	0.2
Austria	0.2	0.2	0.2	0.2	0.2	0.2	0.2	0.3	0.2
Germany	0.1	0.1	0.1	0.1	0.1	0.1	0.1	0.1	0.1
Turkey	0.0	0.0	0.0	0.0	0.1
Luxembourg	0.1	0.1	0.1	0.1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198.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

(%)	1990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Mexico	4.1	4.7	4.9	5.1	5.2	5.3	5.5	5.6	5.8
Turkey	4.4	5.4	5.5	5.7	5.9	6.0	6.0	6.1	6.2
Korea	5.1	7.2	7.9	8.7	9.1	9.5	9.9	10.3	10.7
Iceland	10.6	11.6	11.6	11.7	11.7	11.6	11.5	11.5	11.8
Ireland	11.4	11.2	11.1	11.1	11.1	10.9	10.8	11.5	11.7
Slovak Republic	10.3	11.4	11.5	11.6	11.7	11.8	11.9	12.1	12.6
New Zealand	11.2	11.8	11.8	11.9	12.0	12.2	12.5	12.6	12.8
United States	12.5	12.4	12.4	12.4	12.4	12.5	12.6	12.7	12.8
Australia	11.1	12.4	12.6	12.8	12.9	13.0	13.2	13.2	13.3
Poland	10.1	12.2	12.7	13.0	13.2	13.3	13.4	13.5	13.5
Canada	11.3	12.6	12.7	13.0	13.1	13.2	13.4	13.6	13.9
Luxembourg	13.4	14.1	14.0	14.0	14.1	14.1	14.0	14.0	14.0
Norway	16.3	15.2	14.9	14.7	14.7	14.7	14.6	14.7	14.8
Czech Republic	12.5	13.8	13.9	14.0	14.1	14.3	14.5	14.7	15.2
Netherlands	12.8	13.6	13.7	13.9	14.2	14.4	14.6	14.9	15.2
United Kingdom	15.7	15.8	15.9	16.0	15.5	15.5	15.5	15.7	15.8
Denmark	15.6	14.8	14.8	15.0	15.1	15.3	15.5	15.7	16.1
Hungary	13.3	15.1	15.3	15.6	15.7	15.9	16.1	16.3	16.5
Switzerland	14.6	15.3	15.6	15.8	15.9	16.1	16.3	16.5	17.3
Spain	13.6	16.8	16.9	16.8	16.7	16.7	16.6	16.6	16.7
Finland	13.4	14.9	15.2	15.7	15.9	16.2	16.5	16.6	16.9
France	14.0	16.1	16.3	16.5	16.5	16.5	16.6	16.7	16.6
Portugal	13.4	16.2	16.6	16.9	17.1	17.2	17.3	16.9	17.7
Austria	14.9	15.4	15.5	15.7	16.3	16.7	17.0	17.1	17.3
Belgium	14.9	16.8	17.0	17.2	17.2	17.2	17.1	17.3	17.4
Sweden	17.8	17.3	17.2	17.2	17.3	17.3	17.4	17.6	17.9
Greece	13.8	16.6	17.4	18.0	18.3	18.5	18.6	18.7	18.7
Germany	14.9	16.4	17.3	18.3	18.9	19.5	19.9	20.2	20.3
Italy	14.9	18.3	18.9	19.3	19.6	19.8	20.0	20.3	20.4
Japan	12.1	17.4	18.5	19.5	20.2	20.8	21.5	22.1	22.8

출처 <http://stats.oecd.org>

199. 사회복지 지출비중(GDP대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France	20.8	26.0	25.1	28.6	27.9	29.2	28.6	28.4
Sweden	27.1	29.4	30.2	32.1	28.5	29.4	28.4	27.3
Austria	22.5	23.8	23.9	26.5	26.4	27.2	27.0	26.4
Belgium	23.5	26.0	24.9	26.2	25.3	26.4	26.4	26.3
Denmark	24.8	23.2	25.1	28.9	25.8	27.1	26.6	26.1
Germany	22.7	23.2	22.3	26.5	26.2	26.7	26.1	25.2
Finland	18.0	22.5	24.2	30.9	24.3	26.1	25.9	24.9
Italy	18.0	20.8	20.0	19.9	23.3	25.0	25.1	24.9
Hungary	20.0	22.5	23.1	23.1
Portugal	10.2	10.4	12.9	17.0	19.6	..	22.9	22.5
Spain	15.5	17.8	19.9	21.4	20.3	21.2	21.4	21.6
Greece	10.2	16.0	16.5	17.3	19.2	20.5	21.3	21.3
Norway	16.9	17.8	22.3	23.3	21.3	21.6	20.4	20.8
Luxembourg	20.6	20.2	19.1	20.8	19.7	23.2	21.8	20.6
United Kingdom	16.7	19.8	17.0	20.2	19.2	21.3	20.4	20.5
Netherlands	24.8	25.3	25.6	23.8	19.8	20.9	20.3	20.1
Poland	14.9	22.6	20.5	21.0	21.0	20.0
Czech Republic	16.0	18.2	19.8	19.5	19.1	18.8
Japan	10.6	11.4	11.4	14.3	16.5	18.6	18.4	18.7
Switzerland	13.5	14.5	13.4	17.5	17.9	20.3	19.2	18.5
New Zealand	17.2	17.9	21.8	18.9	19.4	18.5	19.0	18.4
Canada	13.7	17.0	18.1	18.9	16.5	16.5	16.9	16.9
Ireland	16.7	21.3	14.9	15.7	13.6	16.7	15.8	16.3
United States	13.1	13.1	13.4	15.3	14.5	15.9	16.0	16.2
Australia	10.6	12.5	13.6	16.6	17.8	17.1	16.1	16.0
Slovak Republic	18.6	17.9	16.6	16.0	15.7
Iceland	13.7	15.2	15.3	16.9	15.9	14.6
Turkey	4.3	4.2	7.6	7.5	..	13.7	10.0	10.5
Korea	2.9	3.3	5.0	6.9	7.3	7.5
Mexico	..	1.9	3.6	4.7	5.8	7.4	7.0	7.2

출처 <http://stats.oecd.org/>

200. 지니계수

(2004)	Level
Denmark	0.23
Sweden	0.23
Luxembourg	0.26
Austria	0.27
Czech Republic	0.27
Slovak Republic	0.27
Finland	0.27
Netherlands	0.27
Belgium	0.27
Switzerland	0.28
Norway	0.28
Iceland	0.28
France	0.28
Hungary	0.29
Germany	0.30
Australia	0.30
Korea	0.31
Canada	0.32
Spain	0.32
Japan	0.32
Greece	0.32
Ireland	0.33
New Zealand	0.34
United Kingdom	0.34
Italy	0.35
Poland	0.37
United States	0.38
Portugal	0.42
Turkey	0.43
Mexico	0.47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01. 기대수명(전체)

(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apan	80.6	81.1	81.4	81.6	81.8	82.0	81.9	82.3	82.5	82.6
Switzerland	79.6	79.7	80.1	80.3	80.5	81.1	81.3	81.7	81.9	82.2
Italy	79.1	79.5	79.7	79.8	79.6	80.7	80.8	81.3	81.6	81.9
Iceland	78.7	79.0	79.4	79.5	79.6	80.9	81.5	81.2	81.5	81.6
France	78.5	78.9	79.1	79.3	79.3	80.2	80.2	80.8	81.2	81.5
Australia	78.9	79.2	79.6	79.9	80.2	80.5	80.8	81.0	81.3	81.4
Sweden	79.4	79.6	79.8	79.8	80.1	80.5	80.6	80.9	81.0	81.2
Spain	78.7	79.0	79.0	79.2	79.6	80.1	80.2	81.0	81.0	81.1
Canada	78.9	79.2	79.5	79.6	79.8	80.1	80.3	80.6	80.8	81.0
Norway	78.3	78.6	78.8	78.9	79.5	79.8	80.2	80.5	80.5	80.7
Luxembourg	77.8	77.9	77.9	78.1	77.9	79.1	79.4	79.3	79.4	80.5
Austria	77.7	78.0	78.5	78.7	78.7	79.2	79.4	79.9	80.2	80.4
Netherlands	77.8	78.0	78.2	78.3	78.5	78.7	79.4	79.8	80.3	80.4
New Zealand	77.9	78.6	78.7	78.8	79.1	79.5	79.9	80.0	80.2	80.2
Belgium	77.4	77.6	77.9	78.0	78.7	79.1	78.9	79.4	79.8	80.1
Germany	77.7	77.9	78.3	78.2	78.5	78.5	79.3	79.8	80.0	80.1
Greece	78.0	78.0	78.0	78.7	78.8	78.9	79.2	79.5	79.4	80.0
United Kingdom	77.4	77.9	78.1	78.2	78.3	78.8	79.1	79.5	79.6	79.9
Ireland	76.1	76.5	77.1	77.8	78.3	78.9	79.4	79.7	79.7	79.9
Korea	75.4	75.9	76.3	76.8	77.3	77.8	78.4	79.0	79.3	79.8
Finland	77.3	77.5	78.0	78.1	78.4	78.7	79.0	79.4	79.5	79.8
Portugal	76.0	76.5	76.8	77.1	77.3	78.2	78.0	78.8	79.0	79.2
Denmark	76.5	76.8	76.9	77.1	77.4	77.5	78.2	78.4	78.3	78.7
United States	76.9	77.0	77.0	77.2	77.1	77.4	77.7	78.0	78.2	78.4
Czech Republic	74.6	75.0	75.2	75.3	75.3	75.7	76.0	76.6	76.9	77.2
Poland	73.0	73.7	74.2	74.5	74.6	74.5	74.9	75.2	75.3	75.5
Mexico	73.7	74.0	74.2	74.3	74.4	74.4	74.4	74.5	74.9	75.1
Slovak Republic	72.9	73.2	73.6	73.7	73.8	74.0	74.0	74.3	74.4	74.8
Hungary	70.7	71.2	72.2	72.3	72.4	72.6	72.8	73.4	73.5	74.0
Turkey	69.6	70.0	70.3	70.7	71.0	71.2	71.4	71.6	71.7	71.9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2. 기대수명(남성)

(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77.0	77.1	77.7	77.5	77.6	79.2	79.6	79.5	79.6	80.0
Switzerland	76.8	76.9	77.4	77.7	78.0	78.6	78.7	79.2	79.5	79.8
Japan	77.4	77.7	78.1	78.1	78.4	78.6	78.5	79.0	79.2	79.3
Sweden	77.1	77.4	77.6	77.7	77.9	78.4	78.5	78.8	79.0	79.3
Italy	76.1	76.6	76.7	76.8	76.9	77.8	78.0	78.5	78.8	79.3
Australia	76.2	76.6	77.0	77.4	77.8	78.1	78.5	78.7	79.0	79.2
Canada	76.2	76.7	77.0	77.2	77.4	77.8	78.0	78.4	78.6	78.8
Netherlands	75.3	75.5	75.8	76.0	76.2	76.4	77.3	77.7	78.1	78.4
Norway	75.6	76.0	76.2	76.5	77.1	77.5	77.8	78.2	78.3	78.4
New Zealand	75.5	76.1	76.4	76.7	77.0	77.5	77.9	78.0	78.2	78.2
Luxembourg	74.6	74.8	75.2	74.9	75.0	76.0	76.7	76.8	76.7	78.1
France	74.9	75.3	75.5	75.8	75.8	76.7	76.8	77.4	77.7	78.0
Spain	75.3	75.6	75.7	75.6	75.8	76.8	77.0	77.7	77.8	78.0
United Kingdom	75.0	75.5	75.8	76.0	76.2	76.8	77.1	77.3	77.6	77.9
Austria	74.8	75.1	75.6	75.8	75.9	76.4	76.7	77.2	77.4	77.8
Greece	75.5	75.5	75.4	76.4	76.5	76.6	76.8	77.2	77.1	77.7
Germany	74.8	75.0	75.5	75.4	75.7	75.7	76.7	77.2	77.4	77.6
Ireland	73.4	74.0	74.5	75.2	75.9	76.4	77.3	77.4	77.4	77.5
Belgium	74.4	74.6	74.9	75.1	75.9	76.3	76.2	76.6	77.1	77.5
Korea	71.7	72.3	72.8	73.4	73.9	74.5	75.1	75.7	76.1	76.5
Denmark	74.2	74.5	74.7	74.8	75.1	75.2	76.0	76.1	76.2	76.5
Finland	73.7	74.2	74.6	74.9	75.1	75.3	75.6	75.9	76.0	76.5
Portugal	72.6	73.2	73.5	73.8	74.2	75.0	74.9	75.5	75.9	76.2
United States	74.3	74.4	74.4	74.7	74.4	74.6	75.2	75.4	75.6	76.0
Czech Republic	71.3	71.7	72.1	72.1	72.1	72.6	72.9	73.5	73.8	74.1
Mexico	71.0	71.3	71.5	71.7	71.8	71.8	71.8	71.8	72.6	72.7
Poland	68.8	69.7	70.2	70.4	70.5	70.0	70.8	70.9	71.0	71.3
Slovak Republic	69.0	69.2	69.6	69.8	69.9	70.3	70.2	70.4	70.6	70.8
Hungary	66.4	67.1	68.1	68.3	68.4	68.6	68.7	69.2	69.4	70.0
Turkey	67.3	67.7	68.0	68.3	68.6	68.8	69.0	69.2	69.4	69.5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3. 기대수명(여성)

(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apan	83.9	84.6	84.9	85.2	85.3	85.6	85.5	85.8	86.0	86.1
France	82.3	82.7	82.9	83.0	82.9	83.8	83.8	84.4	84.8	85.2
Italy	82.3	82.6	82.8	82.9	82.6	83.7	83.6	84.2	84.5	84.8
Switzerland	82.5	82.6	83.0	83.0	83.1	83.7	84.0	84.2	84.4	84.6
Spain	82.3	82.5	82.5	82.9	83.5	83.5	83.7	84.4	84.3	84.3
Australia	81.8	82.0	82.4	82.6	82.8	83.0	83.3	83.5	83.7	83.7
Korea	79.2	79.6	80.0	80.4	80.8	81.4	81.9	82.4	82.7	83.3
Sweden	81.9	82.0	82.1	82.1	82.4	82.7	82.9	83.1	83.1	83.3
Austria	80.9	81.1	81.6	81.7	81.6	82.1	82.2	82.8	83.1	83.3
Canada	81.7	81.9	82.1	82.1	82.4	82.6	82.7	83.0	83.1	83.3
Finland	81.0	81.0	81.5	81.5	81.8	82.3	82.5	83.1	83.1	83.3
Iceland	80.4	80.9	81.2	81.5	81.8	82.7	83.5	82.9	83.4	83.3
Norway	81.1	81.4	81.5	81.5	82.0	82.3	82.7	82.9	82.9	83.2
Luxembourg	81.1	81.1	80.7	81.5	81.0	82.4	82.3	81.9	82.2	83.1
Belgium	80.5	80.8	81.1	81.1	81.7	82.1	81.9	82.3	82.6	82.9
Germany	80.8	81.0	81.3	81.2	81.4	81.4	82.0	82.4	82.7	82.7
Netherlands	80.5	80.6	80.7	80.7	80.9	81.1	81.7	82.0	82.5	82.5
Portugal	79.5	80.0	80.3	80.5	80.5	81.5	81.3	82.3	82.2	82.4
Greece	80.6	80.6	80.7	81.1	81.3	81.4	81.6	81.9	81.8	82.4
Ireland	78.9	79.2	79.9	80.5	80.8	81.4	81.7	82.2	82.1	82.3
New Zealand	80.4	81.3	81.1	81.1	81.4	81.7	81.9	82.2	82.2	82.2
United Kingdom	80.0	80.3	80.5	80.6	80.5	81.0	81.2	81.7	81.8	82.0
United States	79.7	79.8	79.8	79.9	80.1	80.4	80.4	80.7	80.9	81.0
Denmark	78.9	79.1	79.3	79.5	79.9	79.9	80.5	80.7	80.6	81.0
Czech Republic	78.1	78.4	78.5	78.7	78.7	79.0	79.3	79.9	80.2	80.5
Poland	77.5	78.0	78.4	78.8	78.9	79.2	79.3	79.7	79.8	80.0
Slovak Republic	77.1	77.4	77.7	77.7	77.8	77.8	78.1	78.4	78.4	79.0
Hungary	75.2	75.6	76.5	76.6	76.7	76.9	77.2	77.8	77.8	78.3
Mexico	76.5	76.8	77.0	77.1	77.2	77.2	77.2	77.2	77.4	77.5
Turkey	72.0	72.4	72.8	73.1	73.4	73.7	73.9	74.1	74.2	74.4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4. 국민의료비 지출비중(GDP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Mexico	5.1	5.1	5.5	5.6	5.8	6.0	5.9	5.7	5.8	5.9
Turkey	4.8	4.9	5.2	5.4	5.3	5.4	5.4	5.8	6.0	..
Korea	4.5	4.8	5.3	5.1	5.4	5.4	5.7	6.1	6.3	6.5
Poland	5.7	5.5	5.9	6.3	6.2	6.2	6.2	6.2	6.4	7.0
Czech Republic	6.6	6.5	6.7	7.1	7.4	7.2	7.2	7.0	6.8	7.1
Luxembourg	5.8	5.8	6.4	6.8	7.5	8.1	7.7	7.2
Hungary	7.2	7.0	7.2	7.5	8.3	8.0	8.3	8.1	7.4	7.3
Slovak Republic	5.8	5.5	5.5	5.6	5.8	7.2	7.0	7.3	7.7	7.8
Japan	7.5	7.7	7.9	8.0	8.1	8.0	8.2	8.1	8.1	..
Finland	7.4	7.2	7.4	7.8	8.2	8.2	8.4	8.4	8.2	8.4
Australia	7.8	8.0	8.1	8.4	8.3	8.5	8.4	8.5	8.5	..
Norway	9.3	8.4	8.8	9.8	10.0	9.7	9.1	8.6	8.9	8.5
Ireland	6.1	6.1	6.8	7.1	7.4	7.6	7.5	7.5	7.5	8.7
United Kingdom	6.9	7.0	7.3	7.6	7.8	8.0	8.3	8.5	8.4	8.7
Spain	7.3	7.2	7.2	7.3	8.2	8.2	8.3	8.4	8.4	9.0
Iceland	9.6	9.5	9.3	10.2	10.4	9.9	9.4	9.1	9.1	9.1
Italy	7.8	8.1	8.2	8.3	8.3	8.7	8.9	9.0	8.7	9.1
Sweden	8.3	8.2	9.0	9.3	9.4	9.2	9.2	9.1	9.1	9.4
Denmark	8.5	8.3	8.6	8.8	9.3	9.5	9.5	9.6	9.7	..
Greece	8.6	7.9	8.8	9.1	8.9	8.7	9.5	9.7	9.7	..
New Zealand	7.6	7.7	7.8	8.2	8.0	8.4	8.9	9.3	9.1	9.8
Netherlands	8.1	8.0	8.3	8.9	9.8	10.0	9.8	9.7	9.7	9.9
Portugal	8.2	8.8	8.8	9.0	9.7	10.0	10.2	9.9
Belgium	8.9	9.0	9.1	9.3	9.6	10.0	9.8	9.5	10.0	10.2
Canada	8.9	8.8	9.3	9.6	9.8	9.8	9.9	10.0	10.1	10.4
Austria	10.1	9.9	10.1	10.1	10.3	10.4	10.4	10.3	10.3	10.5
Germany	10.3	10.3	10.4	10.6	10.8	10.6	10.7	10.5	10.4	10.5
Switzerland	10.2	10.2	10.6	10.9	11.3	11.3	11.2	10.8	10.6	10.7
France	10.1	10.1	10.2	10.5	10.9	11.0	11.1	11.1	11.0	11.2
United States	13.4	13.4	14.1	14.8	15.3	15.4	15.4	15.5	15.7	16.0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05.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증가율(자국화폐기준)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99~2008
Turkey	92.3	62.7	48.4	49.7	27.7	22.0	16.4	23.0	14.1	..	39.6
Slovak Republic	9.1	5.7	9.5	11.0	14.0	37.8	6.6	16.3	17.7	10.5	13.8
Mexico	22.9	17.2	12.3	9.9	11.9	16.0	4.9	7.7	10.0	8.0	12.1
Korea	14.9	16.4	18.8	6.7	10.7	7.6	11.0	11.2	11.4	7.5	11.6
Ireland	12.6	15.8	21.2	14.7	10.2	7.9	5.3	5.6	5.7	13.4	11.3
Hungary	13.9	12.4	16.7	19.2	20.9	6.5	10.2	5.2	-1.6	2.5	10.6
Poland	7.6	7.7	11.2	12.2	2.8	9.0	6.6	7.7	15.1	18.0	9.8
Luxembourg	13.7	7.1	8.0	10.9	17.1	11.6	1.8	2.9	9.1
Greece	9.2	-1.5	19.6	10.2	7.7	4.1	15.5	8.6	7.2	..	9.0
Spain	6.9	6.2	7.2	5.8	18.7	6.3	7.5	7.6	6.2	11.2	8.3
Iceland	14.8	5.2	9.5	14.0	4.8	4.0	4.2	7.1	9.0	10.0	8.2
United Kingdom	9.1	6.6	7.5	9.6	8.3	8.1	6.7	7.7	5.9	5.7	7.5
Australia	7.1	9.3	6.8	7.8	5.3	9.1	5.3	7.8	7.0	..	7.3
Portugal	10.5	14.3	4.7	6.0	9.6	6.3	5.0	1.5	7.2
New Zealand	3.8	6.3	8.3	7.6	2.4	11.6	9.3	8.8	3.5	10.2	7.2
Czech Republic	3.2	5.1	10.3	11.2	9.8	5.4	6.6	3.5	5.9	10.5	7.2
Netherlands	6.2	5.8	10.8	10.4	12.4	4.7	2.8	3.9	4.9	6.4	6.8
Norway	8.9	7.1	7.9	10.3	5.7	4.8	4.4	4.7	7.5	5.7	6.7
Canada	4.8	7.9	7.3	6.2	6.3	5.3	6.1	6.0	5.1	7.4	6.2
United States	5.1	5.7	7.4	7.9	7.3	5.9	5.9	5.6	5.1	3.5	5.9
Denmark	5.8	3.7	6.6	4.8	8.0	6.1	5.6	6.5	4.7	..	5.7
Finland	5.0	5.2	7.8	8.1	5.9	5.3	5.6	4.2	5.6	4.5	5.7
Sweden	6.6	5.5	12.3	7.6	4.7	1.6	3.4	4.4	5.3	5.5	5.7
Belgium	6.0	6.4	4.0	5.1	5.9	9.3	1.5	1.2	9.4	6.8	5.5
Italy	4.0	9.4	6.7	4.9	2.4	7.0	5.4	4.2	-0.2	6.3	5.0
France	3.2	3.9	4.4	6.0	5.8	4.5	4.1	3.8	3.8	3.4	4.3
Austria	4.9	2.8	3.5	2.7	3.4	4.7	3.8	3.4	5.5	5.6	4.0
Switzerland	2.8	3.6	5.8	3.2	3.2	2.8	1.4	0.8	3.7	3.9	3.1
Germany	2.7	2.6	3.5	3.4	2.4	0.1	2.6	2.4	3.5	4.1	2.7
Japan	1.9	2.8	2.0	-1.2	1.1	1.0	2.1	0.1	2.1	..	1.3

출처 <http://stats.oecd.org/>

206. 의료접근성(1인당 외래진료횟수)

(회)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apan	14.5	14.4	14.5	14.1	13.8	13.8	13.7	13.6	13.4	..
Korea	8.8	10.6	11.8	13.0
Slovak Republic	15.0	15.0	13.0	13.0	12.4	11.9	11.3	..	11.2	12.1
Czech Republic	12.3	12.6	12.7	12.9	13.0	13.1	13.2	13.0	12.6	11.4
Hungary	10.9	11.1	11.3	11.9	12.2	12.6	12.9	12.9	10.8	11.3
Denmark	6.6	7.4	7.6	7.6	7.9	8.1	8.3	8.5	8.7	8.9
Spain	8.7	..	9.5	8.1
Germany	7.2	7.3	7.5	7.6	7.6	7.0	7.5	7.4	7.5	7.8
Belgium	7.9	7.9	7.8	7.8	7.8	7.6	7.5	7.5	7.6	..
Italy	6.0	6.1	7.0
Austria	6.7	6.7	6.7	6.7	6.7	6.7	6.7	6.7	6.8	6.9
France	6.6	6.9	7.6	7.5	7.4	7.3	7.2	7.0	7.0	6.9
Poland	5.3	5.4	5.5	5.6	6.1	6.2	6.3	6.6	6.8	6.8
Australia	6.5	6.4	6.4	6.2	6.0	6.0	6.1	6.1	6.3	6.4
Iceland	5.6	5.8	5.9	6.1	6.2	6.3	6.5	6.3	6.5	6.4
Turkey	2.1	2.5	2.6	2.6	2.8	3.1	4.1	4.6	5.4	6.3
Luxembourg	6.2	6.1	6.2	6.2	6.3	6.1	6.1	6.0	6.1	..
Netherlands	5.8	5.9	5.8	5.6	5.5	5.3	5.4	5.6	5.7	5.9
United Kingdom	..	5.3	5.1	5.7	5.2	5.3	5.0	5.1	5.0	5.9
Canada	6.4	6.3	6.2	6.1	6.1	5.9	5.9	5.8	5.7	..
Finland	4.3	4.3	4.3	4.2	4.2	4.2	4.3	4.3	4.2	4.3
New Zealand	4.0	4.3	..
Portugal	3.5	3.5	3.6	3.7	3.7	3.8	3.9	3.9	4.1	..
Greece	4.2	4.3	4.0	4.0	4.2	4.2	3.9	4.0
Switzerland	3.4	4.0	..
United States	3.5	3.7	4.1	4.1	3.9	3.8	4.0	3.8	4.0	..
Mexico	2.5	2.5	2.5	2.6	2.5	2.5	2.7	2.6	2.7	2.8
Sweden	2.9	2.8	2.9	3.0	2.8	2.8	2.8	2.8

출처 <http://stats.oecd.org/>

207. 의료접근성(1천명당 의사수)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reece	4.1	4.2	4.3	4.4	4.6	4.8	4.9	5.0	5.4	..
Belgium	3.7	3.8	3.9	3.9	4.0	4.0	4.0	4.0	4.0	4.0
Netherlands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Norway	2.7	2.8	2.9	3.0	3.4	3.4	3.5	3.7	3.8	3.9
Switzerland	3.3	3.4	3.5	3.5	3.6	3.7	3.8	3.8	3.9	3.9
Austria	3.0	3.0	3.1	3.2	3.3	3.4	3.5	3.5	3.7	3.8
Iceland	3.3	3.4	3.4	3.5	3.6	3.6	3.6	3.7	3.7	3.7
Italy	4.1	4.2	4.1	4.3	4.4	4.1	4.2	3.8	3.7	3.7
Spain	2.8	2.9	3.2	3.1	2.9	3.2	3.4	3.8	3.6	3.7
Sweden	3.0	3.0	3.1	3.2	3.3	3.4	3.4	3.5	3.6	..
Czech Republic	3.0	3.1	3.4	3.5	3.5	3.5	3.5	3.6	3.6	3.6
Portugal	3.0	3.1	3.1	3.2	3.2	3.2	3.3	3.4	3.4	3.5
Germany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France	3.3	3.3	3.3	3.3	3.4	3.4	3.4	3.4	3.4	3.4
Denmark	2.7	2.7	2.7	2.7	2.8	2.9	3.0	3.1	3.2	..
Slovak Republic	3.1	3.1	3.1	3.1	3.1
Ireland	2.2	2.3	2.2	2.4	2.4	2.6	2.8	2.8	2.9	3.0
Finland	2.7	2.7	2.7	2.7	2.8	2.9	3.0	..
Luxembourg	2.4	2.5	2.2	2.2	2.3	2.4	2.4	2.4	2.7	2.9
Australia	2.4	2.4	2.5	2.5	2.5	2.6	2.7	2.8	2.8	..
Hungary	3.1	3.1	3.1	3.2	3.2	3.3	3.3	2.8	3.0	2.8
United Kingdom	1.9	1.9	1.9	2.0	2.1	2.2	2.3	2.4	2.4	2.5
United States	2.3	2.2	2.3	2.4	2.3	2.4	2.4	2.4	2.4	2.4
New Zealand	2.2	2.3	2.2	2.2	2.1	2.2	2.2	2.1	2.3	2.3
Poland	2.4	2.3	2.2	2.3	2.3	2.4	2.3	2.1	2.2	2.2
Canada	2.1	2.1	2.1	2.1	2.1	2.1	2.1	2.1	2.2	2.2
Japan	1.9	..	1.9	..	2.0	..	2.0	..	2.1	..
Mexico	1.7	1.7	1.6	1.5	1.5	1.6	1.7	1.8	1.9	2.0
Korea	1.3	1.3	1.3	1.4	1.5	1.6	1.6	1.6	1.7	1.7
Turkey	1.2	1.2	1.3	1.3	1.4	1.4	1.5	1.5	1.4	1.5

출처 <http://stats.oecd.org/>

208. 의사당 진료횟수

(회)	(2007)
Korea(05)	7,251
Japan(06)	6,522
Hungary	3,885
Slovak Republic(04)	3,884
Turkey	3,708
Czech Republic	3,533
Canada(06)	3,335
Poland	3,104
Denmark(04)	2,512
Spain(06)	2,232
Australia(06)	2,171
Germany	2,141
Luxembourg	2,127
New Zealand	2,037
United Kingdom	2,018
France	2,006
Belgium	1,885
Italy(05)	1,831
Austria	1,787
Iceland	1,747
United States(06)	1,570
Mexico(04)	1,494
Finland(06)	1,456
Netherlands	1,450
Portugal	1,168
Switzerland	1,040
Sweden(06)	782

출처 <http://stats.oecd.org/>

209. 유아사망률(신생아 1천명당)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	2.9	2.2	2.1	2.0	1.9
Luxembourg	4.7	4.3	5.1	4.5	4.9	..	3.0	2.6	2.2	1.9
Sweden	3.4	3.3	3.7	3.3	2.8	..	2.8	2.7	2.5	2.3
Japan	3.4	3.3	3.1	3.0	3.0	2.8	2.8	2.7	2.6	2.5
Finland	3.6	3.5	3.2	3.0	3.1	..	3.0	2.9	2.8	2.7
Norway	3.9	3.8	3.9	3.5	3.4	..	3.2	3.1	3.0	2.9
Portugal	..	5.4	3.7	3.4	3.1	2.9
Ireland	5.5	5.9	5.8	5.1	5.1	..	4.3	3.8	3.4	3.0
Italy	5.1	4.8	4.7	4.5	4.3	..	3.6	3.4	3.2	3.0
Czech Republic	4.6	4.4	4.0	4.1	3.9	..	3.5	3.4	3.3	3.1
France	4.3	4.4	4.5	4.4	3.7	3.6	3.4	3.3
Greece	..	5.5	3.9	3.7	3.5	3.3
Austria	4.4	4.5	4.8	4.1	4.5	..	4.0	3.8	3.6	3.4
Spain	4.5	4.4	3.9	3.5	3.6	3.2	3.8	3.7	3.6	3.5
Denmark	4.2	4.5	4.9	4.4	4.4	..	4.2	4.0	3.9	3.7
Germany	4.5	4.4	4.3	4.2	4.2	..	3.9	3.8	3.7	3.7
Belgium	4.9	4.6	4.5	4.4	4.3	..	4.0	4.0	3.9	3.9
Netherlands	5.2	5.1	4.7	4.5	4.8	..	4.5	4.3	4.1	4.0
Switzerland	4.6	4.6	5.0	4.5	4.3	..	4.3	4.2	4.1	4.0
Korea	..	5.9	5.2	5.0	4.8	4.7
Australia	5.6	5.1	5.3	4.6	5.0	5.0	4.9	4.9
New Zealand	5.5	6.1	5.4	5.5	5.2	5.3	5.3	5.2	5.0	4.9
United Kingdom	5.8	5.6	5.5	5.2	5.3	..	5.1	5.0	4.9	4.9
Hungary	8.4	8.4	8.2	7.4	7.7	..	6.4	6.0	5.7	5.4
Canada	..	5.2	..	5.0	5.4	5.5	5.6	5.7
Poland	8.9	8.3	7.7	7.6	7.0	..	6.4	6.2	6.0	5.8
Slovak Republic	8.3	7.9	6.2	7.6	7.9	..	6.9	6.8	6.7	6.6
United States	7.2	7.1	6.8	7.0	6.8	6.8	6.7	6.7
Mexico	..	22.1	17.6	16.8	16.1	15.3
Turkey	..	36.3	25.0	23.2	21.5	19.9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10. 비만율(15세이상 인구 중 비만인구 비율)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21.7
Austria	9.1	12.4	..
Belgium	11.7	12.7
Canada	13.9	..	14.3	..	14.9	..	15.4
Czech	14.2	14.8	17
Denmark	..	9.5	11.4
Finland	10.1	11.2	11.4	11.8	12.8	14	14.1	14.3	14.9
France	..	9	..	9.4	..	9.4	..	10.5	..
Germany	11.5	12.9	..	13.6
Greece	16.4	..
Hungary	..	18.2	18.8
Iceland	12.4	20.1
Ireland	15	15
Italy	8.8	8.6	8.5	8.5	9	..	9.9	10.2	9.9
Japan	2.8	2.9	3.2	3.6	3.2	3	3.9	3.4	..
Korea	3.2	3.5
Luxembourg	15.1	16.3	17.9	17.3	18.4	18.2	18.6	20.4	20
Mexico	..	24.2	30.2	30	..
Netherlands	8.7	9.4	9.3	9.7	10.7	10.9	10.7	11.3	11.2
New	25	26.5
Norway	8.3	9
Poland	12.5
Portugal	12.8	15.4	..
Slovak	15.4	16.5	17.6	..	16.7
Spain	12.6	..	13.1	14.9	..
Sweden	8.1	9.2	9.2	10.2	9.7	9.8	10.7	9.6	10.2
Switzerland	7.7	8.1
Turkey	12
United	20	21	22	23	23	23	23	24	24
United	..	30.5	..	30.6	..	32.2	..	34.3	..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11. 범죄율(인구10만명당 수감자수)

(명)	1992	1995	1998	2001	2004	2009
Iceland	39	44	38	39	39	44
Denmark	66	66	64	59	70	63
Japan	36	38	42	51	60	63
Finland	65	59	50	59	66	67
Norway	58	55	57	59	65	70
Sweden	63	65	60	68	81	74
Switzerland	79	80	85	71	81	76
Ireland	61	57	71	78	76	85
Germany	71	81	96	98	98	90
Belgium	71	75	81	85	88	93
France	84	89	86	75	92	96
Italy	81	87	85	95	96	97
Korea	126	133	147	132	119	97
Austria	87	78	87	86	110	99
Netherlands	49	66	85	95	123	100
Portugal	93	124	144	128	125	104
Greece	61	56	68	79	82	109
Canada	123	131	126	117	108	116
Australia	89	96	107	116	120	129
Slovak Republic	124	147	123	138	175	151
Hungary	153	121	140	170	164	152
United Kingdom	91	100	125	126	140	153
Luxembourg	89	114	92	80	121	155
Turkey	54	82	102	89	100	155
Spain	90	102	114	117	138	164
New Zealand	119	128	143	152	160	195
Mexico	98	102	133	164	183	208
Czech Republic	123	181	209	210	169	209
Poland	160	158	141	208	211	225
United States	505	600	669	685	723	760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12. 도로사망률(인구100만명당)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75	113	84	101	80	79	64	104	48	38
Sweden	65	67	65	63	59	53	49	49	51	43
United Kingdom	62	62	63	63	62	57	55	55	50	43
Netherlands	75	73	67	66	67	54	50	50	48	46
Japan	92	93	89	85	78	75	70	65	52	47
Switzerland	81	82	75	70	74	69	55	50	51	47
Mexico	53	53	52	49	46	45	46	47	51	51
Norway	68	76	61	68	61	56	49	52	49	53
Germany	95	91	85	83	80	71	65	62	60	55
Turkey	69	58	45	62	56	62	62	62	68	57
Ireland	110	110	107	96	84	94	84	87	77	63
Finland	83	76	83	80	73	72	72	64	72	65
Australia	93	95	90	87	82	79	81	78	77	68
Spain	144	143	135	129	128	115	89	94	85	68
France	136	129	130	121	96	87	88	77	75	69
Luxembourg	133	172	159	140	118	109	101	78	90	72
Denmark	97	93	80	86	80	68	61	56	74	74
Italy	116	115	117	117	105	98	94	89	86	79
Austria	135	122	119	118	114	108	94	89	83	81
Canada	98	95	90	93	87	85	91	89	83	82
Portugal	200	186	161	165	148	124	118	104	81	83
New Zealand	134	121	118	103	115	107	99	95	100	86
Hungary	130	118	122	141	131	129	127	130	123	99
Belgium	136	143	144	131	117	112	104	102	100	100
Czech Republic	141	145	130	140	142	136	126	104	118	103
Slovak Republic	125	120	116	116	121	113	111	113	122	112
Korea	232	218	171	152	151	136	132	131	127	121
United States	153	149	148	149	147	146	147	143	136	123
Greece	201	193	178	159	145	151	150	149	141	138
Poland	174	163	143	152	148	150	143	138	147	143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13. 산업재해율(인구10만명당)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United Kingdom	0.9	0.8	0.7	0.7	0.7	0.6	0.7	..
Netherlands	1.4	1.1
Switzerland	2.3	2.0	1.5	1.3	1.9	1.3	1.4	..
Norway	2.5	1.6	1.7	2.1	1.7	2.1	1.3	1.6
Sweden	1.5	1.4	1.4	1.3	1.4	1.6	1.6	..
Japan	2.9	2.0
Australia	2.0	2.6	2.5	2.4	2.0	1.9	2.0	..
Denmark	2.0	2.0
Finland	2.3	2.1	1.8	2.1	2.1	2.4	2.2	..
Germany	3.1	3.0	2.9	2.8	2.6	2.4
Belgium	1.9	2.4
Luxembourg	6.1	2.9
France	4.4	4.2	3.8	3.7	3.5	2.7	3.0	..
Hungary	4.0	3.2	4.2	3.4	4.1	3.2	3.1	3.0
Iceland	2.6	3.4
Ireland	4.2	3.8	3.5
New Zealand	3.5	3.5
Spain	9.2	8.0	6.1	5.3	4.9	4.5	4.4	3.6
Austria	5.3	4.5	4.7	3.9	5.0	4.6	3.9	3.9
United States	4.0	4.0	4.0	4.0
Czech Republic	4.9	5.2	4.6	4.5	4.2	3.7	3.4	4.1
Slovak Republic	4.3	4.9	4.3	4.7	3.9	3.7	4.6	4.1
Poland	5.2	5.1	4.9	4.9	4.7	4.4	4.6	4.3
Portugal	7.3	4.9
Italy	7.0	6.0	5.0	5.0	5.0	5.0	5.0	..
Greece	4.1	5.9	5.3	5.4
Canada	6.0	6.1	6.1	6.1	5.8	6.8	5.9	6.3
Mexico	14.0	12.0	11.0	12.0	11.0	11.0	10.0	9.0
Korea	26.7	26.0	24.6	27.6	27.0	22.5	21.0	19.2
Turkey	24.6	20.6	16.8	14.4	13.6	15.8	20.5	..

출처 <http://laborsta.ilo.org/>, <http://laborstat.molab.go.kr/>

XIV. 환 경

214. 총CO₂ 배출량

(백만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Iceland	2	2	2	2	2	2	2	2
Luxembourg	8	8	9	10	11	11	11	11
New Zealand	32	34	35	36	36	36	37	35
Norway	34	33	33	35	37	35	36	37
Slovak Republic	37	38	38	38	37	38	37	37
Switzerland	42	43	41	43	44	44	44	42
Ireland	41	43	43	42	42	44	45	44
Sweden	53	52	54	55	54	50	48	46
Denmark	50	51	51	56	51	47	55	50
Hungary	54	56	55	57	56	56	56	54
Portugal	59	59	63	58	60	63	56	55
Finland	54	59	62	72	67	55	67	64
Austria	61	65	68	73	74	74	74	70
Greece	87	90	90	94	93	95	94	98
Belgium	119	119	112	120	117	113	110	106
Czech Republic	122	122	117	121	122	120	121	122
Netherlands	173	179	179	184	185	183	178	182
Turkey	201	182	192	202	207	216	240	265
Poland	292	290	280	291	295	294	306	305
Spain	284	285	302	310	327	340	332	345
France	377	384	376	385	385	388	378	369
Australia	339	351	359	360	368	386	391	396
Italy	424	426	433	449	450	454	455	438
Mexico	357	356	364	373	376	404	418	438
Korea	431	449	457	459	479	469	477	489
United Kingdom	526	539	524	536	536	534	536	523
Canada	533	526	533	555	551	556	538	573
Germany	827	845	833	842	843	811	823	798
Japan	1,181	1,167	1,203	1,210	1,211	1,218	1,202	1,236
United States	5,693	5,673	5,614	5,689	5,772	5,784	5,698	5,769

출처 <http://www.iea.org/co2highlights/co2highlights.pdf/>

215. 1인당 CO₂ 배출량

(톤)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12.89	14.05	13.90	15.13	15.68	17.57	18.20	18.80	18.78	18.75
Austria	6.62	7.37	7.18	7.32	7.39	7.66	8.99	8.99	8.92	8.38
Belgium	11.82	12.75	10.34	10.82	11.36	11.57	11.19	10.75	10.40	9.97
Canada	16.30	17.41	15.56	15.61	15.88	17.36	17.21	17.22	16.47	17.37
Czech Republic	15.17	15.98	16.31	15.00	11.99	11.88	11.95	11.70	11.77	11.83
Denmark	10.37	12.21	11.83	9.80	11.02	9.34	9.38	8.73	10.14	9.24
Finland	9.42	11.54	9.91	10.91	10.97	10.42	12.79	10.49	12.67	12.19
France	7.99	8.37	6.37	6.05	5.95	6.20	6.17	6.18	5.99	5.81
Germany	12.40	13.48	13.06	11.98	10.65	10.06	10.22	9.84	10.00	9.71
Greece	3.75	4.62	5.41	6.78	6.84	7.99	8.43	8.56	8.44	8.74
Hungary	6.87	7.97	7.77	6.43	5.54	5.30	5.53	5.56	5.53	5.36
Iceland	7.37	7.62	6.71	7.37	7.30	7.60	7.62	7.36	7.31	7.53
Ireland	6.64	7.62	7.45	8.74	9.17	10.84	10.38	10.53	10.62	10.13
Italy	5.76	6.38	6.14	7.01	7.21	7.44	7.74	7.74	7.73	7.38
Japan	7.68	7.54	7.25	8.63	9.14	9.31	9.48	9.53	9.41	9.68
Korea	2.18	3.26	3.76	5.35	8.09	9.17	9.97	9.75	9.87	10.09
Luxembourg	33.69	32.75	27.03	27.40	19.92	18.27	23.92	24.11	23.64	22.35
Mexico	2.45	3.23	3.42	3.61	3.40	3.63	3.65	3.89	3.99	4.14
Netherlands	10.31	10.82	10.13	10.48	11.08	10.87	11.37	11.19	10.91	11.13
New Zealand	5.52	5.22	5.99	6.34	6.62	8.36	8.75	8.84	8.99	8.48
Norway	6.01	6.85	6.54	6.67	7.53	7.50	7.99	7.67	7.72	7.85
Poland	9.94	11.61	11.28	9.04	8.66	7.63	7.73	7.71	8.02	7.99
Portugal	1.97	2.41	2.44	3.93	4.82	5.82	5.70	5.94	5.32	5.20
Slovak Republic	9.25	11.10	10.54	10.71	7.61	6.92	6.93	7.07	6.95	6.82
Spain	4.39	4.99	4.55	5.28	5.93	7.05	7.67	7.83	7.54	7.68
Sweden	9.69	8.84	7.04	6.16	6.52	5.95	5.96	5.58	5.29	5.05
Switzerland	5.73	6.14	6.34	5.99	5.85	5.81	5.97	6.00	5.91	5.62
Turkey	1.48	1.60	1.88	2.26	2.48	2.97	2.89	3.00	3.28	3.59
United Kindom	10.31	10.14	9.63	9.66	8.95	8.93	8.95	8.87	8.84	8.60
United States	20.19	20.47	19.06	19.44	19.26	20.16	19.66	19.52	19.05	19.10

출처 <http://www.iea.org/co2highlights/co2highlights.pdf/>

216. 1인당 CO₂ 배출량 증가율

(%)	'71-'75	'75-'80	'80-'85	'85-'90	'90-'95	'95-'00	'00-'04	'04-'05	'05-'06	'06-'07	'90-'07
Australia	18.04	9.00	-1.07	8.85	3.64	12.05	3.59	3.30	-0.11	-0.16	23.90
Austria	2.00	11.33	-2.58	1.95	0.96	3.65	17.36	0.00	-0.78	-6.05	14.50
Belgium	-2.23	7.87	-18.90	4.64	4.99	1.85	-3.28	-3.93	-3.26	-4.13	-7.80
Canada	5.43	6.81	-10.63	0.32	1.73	9.32	-0.86	0.06	-4.36	5.46	11.30
Czech Republic	-1.17	5.34	2.07	-8.03	-20.07	-0.92	0.59	-2.09	0.60	0.51	-21.10
Denmark	-6.49	17.74	-3.11	-17.16	12.45	-15.25	0.43	-6.93	16.15	-8.88	-5.70
Finland	9.28	22.51	-14.12	10.09	0.55	-5.01	22.74	-17.98	20.78	-3.79	11.70
France	-3.03	4.76	-23.89	-5.02	-1.65	4.20	-0.48	0.16	-3.07	-3.01	-4.00
Germany	-0.72	8.71	-3.12	-8.27	-11.10	-5.54	1.59	-3.72	1.63	-2.90	-19.00
Greece	33.93	23.20	17.10	25.32	0.88	16.81	5.51	1.54	-1.40	3.55	28.80
Hungary	14.50	16.01	-2.51	-17.25	-13.84	-4.33	4.34	0.54	-0.54	-3.07	-16.70
Iceland	8.54	3.39	-11.94	9.84	-0.95	4.11	0.26	-3.41	-0.68	3.01	2.20
Ireland	-8.92	14.76	-2.23	17.32	4.92	18.21	-4.24	1.45	0.85	-4.61	16.00
Italy	6.27	10.76	-3.76	14.17	2.85	3.19	4.03	0.00	-0.13	-4.53	5.20
Japan	6.08	-1.82	-3.85	19.03	5.91	1.86	1.83	0.53	-1.26	2.87	12.20
Korea	37.97	49.54	15.34	42.29	51.21	13.35	8.72	-2.21	1.23	2.23	88.60
Luxembourg	-25.32	-2.79	-17.47	1.37	-27.30	-8.28	30.93	0.79	-1.95	-5.46	-18.40
Mexico	25.64	31.84	5.88	5.56	-5.82	6.76	0.55	6.58	2.57	3.76	14.90
Netherlands	4.99	4.95	-6.38	3.46	5.73	-1.90	4.60	-1.58	-2.50	2.02	6.20
New Zealand	15.00	-5.43	14.75	5.84	4.42	26.28	4.67	1.03	1.70	-5.67	33.70
Norway	-0.17	13.98	-4.53	1.99	12.89	-0.40	6.53	-4.01	0.65	1.68	17.70
Poland	13.73	16.80	-2.84	-19.86	-4.20	-11.89	1.31	-0.26	4.02	-0.37	-11.60
Portugal	18.67	22.34	1.24	61.07	22.65	20.75	-2.06	4.21	-10.44	-2.26	32.40
Slovak Republic	7.93	20.00	-5.05	1.61	-28.94	-9.07	0.14	2.02	-1.70	-1.87	-36.30
Spain	25.79	13.67	-8.82	16.04	12.31	18.89	8.79	2.09	-3.70	1.86	45.60
Sweden	-4.81	-8.77	-20.36	-12.50	5.84	-8.74	0.17	-6.38	-5.20	-4.54	-18.10
Switzerland	-6.68	7.16	3.26	-5.52	-2.34	-0.68	2.75	0.50	-1.50	-4.91	-6.20
Turkey	29.82	8.11	17.50	20.21	9.73	19.76	-2.69	3.81	9.33	9.45	58.80
United Kindom	-7.53	-1.65	-5.03	0.31	-7.35	-0.22	0.22	-0.89	-0.34	-2.71	-10.90
United States	-2.27	1.39	-6.89	1.99	-0.93	4.67	-2.48	-0.71	-2.41	0.26	-1.80

출처 <http://www.iea.org/co2highlights/co2highlights.pdf/>

217. CO₂ 원단위(CO₂배출량/GDP)

(Kg/\$)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0.99	0.99	0.91	0.92	0.86	0.85	0.80	0.82	0.80	0.78
Austria	0.49	0.47	0.42	0.38	0.36	0.32	0.36	0.36	0.34	0.31
Belgium	0.88	0.82	0.63	0.58	0.57	0.51	0.47	0.45	0.42	0.40
Canada	1.10	1.04	0.85	0.80	0.79	0.74	0.69	0.68	0.64	0.66
Czech Republic	3.49	3.39	3.30	2.81	2.35	2.15	1.90	1.76	1.66	1.58
Denmark	0.60	0.62	0.52	0.41	0.41	0.31	0.30	0.28	0.31	0.28
Finland	0.69	0.74	0.57	0.54	0.58	0.44	0.50	0.40	0.46	0.43
France	0.59	0.54	0.39	0.32	0.31	0.28	0.27	0.27	0.26	0.25
Germany	0.94	0.86	0.77	0.62	0.51	0.44	0.43	0.41	0.41	0.39
Greece	0.45	0.48	0.58	0.70	0.68	0.69	0.61	0.61	0.58	0.58
Hungary	2.17	2.15	1.90	1.50	1.45	1.13	0.98	0.95	0.91	0.87
Iceland	0.42	0.34	0.28	0.28	0.28	0.25	0.22	0.20	0.20	0.20
Ireland	0.77	0.76	0.68	0.63	0.54	0.43	0.35	0.35	0.34	0.31
Italy	0.54	0.49	0.43	0.42	0.41	0.39	0.40	0.40	0.39	0.37
Japan	0.38	0.31	0.27	0.26	0.26	0.25	0.25	0.24	0.24	0.24
Korea	0.87	1.01	0.86	0.81	0.88	0.84	0.78	0.73	0.71	0.69
Luxembourg	1.77	1.56	1.15	0.84	0.54	0.40	0.48	0.46	0.43	0.40
Mexico	0.51	0.56	0.60	0.65	0.63	0.56	0.56	0.58	0.57	0.58
Netherlands	0.72	0.68	0.62	0.56	0.54	0.45	0.46	0.44	0.42	0.41
New Zealand	0.50	0.50	0.51	0.54	0.53	0.61	0.58	0.57	0.28	0.53
Norway	0.33	0.31	0.25	0.24	0.23	0.20	0.20	0.19	0.19	0.19
Poland	2.96	3.47	3.50	2.91	2.52	1.70	1.53	1.47	1.44	1.35
Portugal	0.38	0.39	0.38	0.46	0.52	0.53	0.51	0.53	0.47	0.45
Slovak Republic	2.99	3.39	3.08	3.00	2.37	1.83	1.53	1.47	1.33	1.19
Spain	0.52	0.57	0.50	0.47	0.49	0.49	0.50	0.50	0.47	0.47
Sweden	0.52	0.45	0.33	0.26	0.28	0.21	0.20	0.18	0.17	0.16
Switzerland	0.22	0.22	0.21	0.18	0.18	0.17	0.17	0.17	0.16	0.15
Turkey	0.59	0.63	0.67	0.68	0.70	0.75	0.67	0.65	0.67	0.71
United Kindom	0.72	0.65	0.56	0.48	0.42	0.36	0.33	0.32	0.31	0.30
United States	1.02	0.91	0.76	0.69	0.64	0.58	0.54	0.53	0.51	0.50

출처 <http://www.iea.org/co2highlights/co2highlights.pdf/>

218. SOx(황산화물) 배출원단위

(kg/1,000USD)	2005
United Staes	1.2
Mexico	2.9
Germany	0.3
France	0.3
United Kingdom	0.4
Italy	0.3
Turkey	3.4
Poland	2.7
Japan	0.2
Canada	2.1
Korea	0.5
Spain	1.3
Australia	4.2
Netherlands	0.1
Czech Republic	1.2
Belgium	0.5
Austria	0.1
Sweden	0.1
Switzerland	0.1
Greece	2.4
Slovak Republic	1.2
Portugal	1.1
Norway	0.1
Denmark	0.1
Finland	0.4

출처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6/2007 Air p.5

219. 1인당 물소비량

(톤)	2006
Denmark(04)	130
Slovak Republic	140
Czech Republic	190
United Kindom	240
Poland(05)	300
Sweden(04)	300
Switzerland(05)	340
Germany(04)	430
Finland(01)	450
Austria(02)	470
Norway(03)	540
France(04)	560
Iceland(05)	560
Hungary(04)	580
Korea(03)	610
Turkey(05)	620
Netherlands(05)	630
Belgium(03)	640
Japan(04)	650
Mexico	740
Portugal(00)	860
Spain(04)	890
Australia(04)	930
New Zealand	950
United States(00)	1690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20. 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규모

billion USD	2006
United Staes	87.93
Japan	28.627
Mexico	19.011
Germany	17.932
France	12.93
United Kingdom	12.499
Italy	12.15
Turkey	10.07
Pland	9.025
Canada	7.875
Korea	7.725
Spain	7.282
Australia	4.515
Netherlands	3.577
Czech Republic	3.553
Belgium	2.318
Austria	1.905
Sweden	1.905
Switzerland	1.725
Greece	1.68
Slovak Republic	1.539
Portugal	1.455
Norway	1.38
Denmark	1.335
Finland	1.14

출처 OECD(2006), Infrastructure to 2030: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OECD, Paris, P.313

221.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

(kg)	2007
Czech Republic	290
Slovak Republic	290
Poland	320
Mexico	350
Korea	380
Canada	400
Japan	410
Turkey	430
Greece	450
Hungary(06)	460
Portugal	470
Belgium	490
Finland	510
Sweden	520
France	540
Italy	550
Iceland	560
United Kingdom	570
Germany	580
Spain	580
Austria	590
Netherlands	630
Luxembourg	690
Switzerland	710
United States	760
Ireland	780
Denmark	800
Norway	830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22. 도시 쓰레기 재활용률

(%)	2005
Czech Republic(04)	1
Slovak Republic	1
Poland	4
Mexico(06)	3
Korea(04)	49
Canada(04)	27
Japan(03)	17
Turkey(04)	0
Greece(03)	8
Hungary(03)	3
Portugal	9
Belgium(03)	31
Finland(04)	30
Sweden	34
France	16
Italy	0
Iceland(04)	16
United Kingdom	17
Germany(04)	33
Spain(04)	9
Austria(04)	27
Netherlands(04)	25
Luxembourg(03)	23
Switzerland	34
United States	24
Ireland	34
Denmark(03)	26
Norway(04)	34
Australia(03)	30
N.Zealand(99)	15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22/59/41878217.xls>

223.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urkey	1.13	1.03	1.07	1.10	1.13	1.17	1.27	1.35	1.29
Mexico	1.50	1.50	1.53	1.55	1.59	1.69	1.67	1.74	1.75
Portugal	2.41	2.41	2.49	2.41	2.46	2.51	2.33	2.36	2.33
Poland	2.33	2.35	2.32	2.39	2.39	2.42	2.55	2.55	2.59
Hungary	2.45	2.51	2.52	2.58	2.59	2.73	2.71	2.66	2.65
Greece	2.48	2.56	2.58	2.64	2.69	2.72	2.71	2.88	2.91
Italy	3.00	3.01	3.00	3.10	3.10	3.12	3.07	3.00	2.96
Spain	3.03	3.07	3.12	3.17	3.26	3.27	3.21	3.21	3.02
Slovak Republic	3.29	3.46	3.48	3.47	3.41	3.50	3.46	3.31	3.37
United Kingdom	3.80	3.80	3.69	3.75	3.72	3.70	3.62	3.48	3.40
Ireland	3.58	3.74	3.74	3.55	3.53	3.46	3.45	3.46	3.41
Denmark	3.48	3.57	3.53	3.72	3.59	3.47	3.69	3.60	3.50
Switzerland	3.41	3.61	3.49	3.49	3.51	3.48	3.62	3.42	3.55
Japan	4.08	4.01	3.99	3.95	4.08	4.06	4.06	4.02	3.85
Austria	3.56	3.76	3.83	4.03	4.04	4.10	4.12	3.99	3.90
Germany	4.10	4.22	4.11	4.15	4.16	4.11	4.14	4.03	4.07
New Zealand	4.36	4.36	4.34	4.11	4.12	4.00	4.01	4.01	4.08
France	4.17	4.27	4.25	4.30	4.33	4.32	4.24	4.15	4.17
Czech Republic	3.92	4.03	4.10	4.35	4.46	4.39	4.47	4.43	4.42
Korea	4.02	4.04	4.24	4.30	4.40	4.37	4.43	4.59	4.68
Netherlands	4.59	4.70	4.69	4.82	4.86	4.83	4.69	4.91	4.82
Sweden	5.36	5.68	5.80	5.65	5.85	5.71	5.53	5.51	5.40
Belgium	5.71	5.68	5.46	5.71	5.65	5.60	5.51	5.37	5.44
Australia	5.65	5.49	5.60	5.58	5.54	5.88	5.89	5.87	6.11
Finland	6.20	6.33	6.64	7.03	7.04	6.48	7.02	6.90	6.59
Norway	5.64	5.77	5.44	5.90	6.08	6.11	6.23	5.71	6.60
United States	8.08	7.85	7.87	7.78	7.87	7.84	7.70	7.75	7.53
Canada	8.18	8.00	7.93	8.26	8.38	8.41	8.25	8.17	8.07
Luxembourg	7.55	7.78	8.11	8.45	9.16	9.21	9.11	8.79	8.48
Iceland	11.03	11.36	11.40	11.33	11.50	11.76	13.68	15.74	15.21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 Toe : 석유 1톤 연소시 생성되는 에너지(Tonnes of oil equivalent)

224. 에너지 원단위(에너지공급량/GD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reland	0.12	0.13	0.12	0.11	0.11	0.10	0.10	0.09	0.10
Switzerland	0.11	0.11	0.11	0.11	0.11	0.11	0.11	0.10	0.10
Denmark	0.12	0.12	0.12	0.13	0.12	0.11	0.12	0.11	0.11
Italy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1	0.11
Turkey	0.13	0.13	0.13	0.13	0.12	0.11	0.12	0.12	0.11
United Kingdom	0.15	0.14	0.14	0.14	0.13	0.13	0.12	0.12	0.11
Austria	0.12	0.13	0.13	0.14	0.14	0.13	0.13	0.12	0.12
Greece	0.13	0.13	0.13	0.13	0.12	0.12	0.12	0.12	0.12
Luxembourg	0.14	0.14	0.14	0.15	0.16	0.15	0.15	0.14	0.13
Portugal	0.14	0.14	0.14	0.14	0.14	0.15	0.13	0.13	0.13
Spain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3	0.13
Germany	0.16	0.16	0.16	0.16	0.16	0.15	0.15	0.14	0.14
Japan	0.16	0.16	0.16	0.15	0.15	0.15	0.15	0.14	0.14
France	0.17	0.17	0.17	0.17	0.17	0.16	0.16	0.15	0.15
Netherlands	0.16	0.16	0.16	0.16	0.16	0.16	0.15	0.15	0.15
Hungary	0.20	0.20	0.19	0.18	0.18	0.18	0.17	0.16	0.16
Mexico	0.15	0.15	0.15	0.16	0.16	0.16	0.15	0.16	0.16
Norway	0.16	0.16	0.15	0.16	0.16	0.16	0.16	0.14	0.16
New Zealand	0.21	0.20	0.20	0.18	0.18	0.17	0.17	0.17	0.17
Sweden	0.19	0.20	0.20	0.20	0.19	0.18	0.17	0.17	0.17
Belgium	0.21	0.21	0.20	0.20	0.20	0.19	0.18	0.18	0.18
Poland	0.22	0.22	0.21	0.21	0.20	0.20	0.19	0.18	0.18
Australia	0.21	0.20	0.20	0.19	0.19	0.20	0.19	0.19	0.19
Slovak Republic	0.30	0.30	0.29	0.28	0.26	0.25	0.23	0.20	0.19
United States	0.23	0.23	0.23	0.22	0.22	0.21	0.20	0.20	0.20
Czech Republic	0.26	0.26	0.26	0.27	0.26	0.24	0.23	0.22	0.21
Finland	0.24	0.24	0.25	0.26	0.25	0.23	0.23	0.22	0.21
Korea	0.24	0.24	0.24	0.23	0.23	0.22	0.21	0.21	0.21
Canada	0.29	0.28	0.27	0.28	0.28	0.27	0.26	0.26	0.25
Iceland	0.38	0.38	0.39	0.38	0.36	0.35	0.40	0.45	0.42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25. 신재생에너지 비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celand	74.5	75.6	75.0	75.2	74.5	75.6	78.4	80.8	82.4
Norway	52.5	45.0	50.9	38.8	38.2	46.1	40.1	48.3	43.4
New Zealand	29.8	27.8	29.7	29.7	31.6	32.1	31.7	32.6	33.9
Sweden	31.7	28.8	26.0	25.3	25.8	29.7	29.7	31.1	32.6
Austria	24.0	23.3	23.3	20.9	22.2	22.4	23.9	25.6	25.8
Finland	24.8	23.3	22.9	21.9	23.6	23.7	23.3	23.5	25.2
Switzerland	18.6	19.3	17.6	18.0	18.4	18.5	18.0	20.7	20.4
Denmark	11.4	12.0	12.9	13.9	15.7	17.1	16.3	18.1	18.5
Portugal	15.6	16.5	14.1	17.3	15.1	13.6	17.6	18.3	18.2
Canada	16.9	16.0	16.9	15.7	15.6	16.1	15.8	16.2	16.5
Mexico	10.8	10.3	9.6	9.6	9.8	9.7	9.5	9.3	9.6
Turkey	13.2	13.3	13.5	12.9	13.3	12.0	11.2	9.6	9.5
Germany	3.2	3.5	3.8	4.3	4.9	5.2	6.1	8.6	8.4
Italy	6.1	6.2	6.0	6.3	7.1	6.7	7.3	7.2	8.2
France	7.2	7.1	6.5	6.6	6.6	6.4	6.7	7.2	7.5
Spain	5.8	6.7	5.5	7.0	6.5	6.0	6.6	7.1	7.5
Hungary	3.5	3.6	3.6	3.5	3.7	4.5	4.8	5.4	6.1
Poland	4.8	5.1	5.2	5.1	5.3	5.4	5.7	5.7	6.0
Australia	6.0	6.2	6.2	6.0	6.0	5.5	5.3	5.6	5.3
United States	4.8	4.3	4.3	4.6	4.6	4.8	5.0	5.0	5.3
Czech Republic	2.0	2.1	2.5	3.7	4.1	4.3	4.6	5.0	5.1
Greece	5.4	4.9	5.0	5.4	5.4	5.5	5.9	5.4	5.1
Slovak Republic	4.6	4.4	4.2	3.6	4.2	4.6	4.7	5.7	5.1
Netherlands	2.5	2.6	2.8	2.7	3.0	3.6	3.8	3.9	4.5
Belgium	1.8	2.1	2.1	2.4	2.6	2.8	3.4	3.8	4.4
Ireland	1.7	1.6	1.8	1.6	2.0	2.5	2.9	3.1	3.7
Japan	3.3	3.3	3.3	3.6	3.5	3.3	3.5	3.4	3.2
United Kingdom	1.1	1.3	1.5	1.6	1.7	2.0	2.1	2.4	2.8
Luxembourg	1.5	1.7	1.4	1.6	1.7	1.9	1.9	2.8	2.4
Korea	0.9	1.0	0.9	1.1	1.1	1.2	1.3	1.4	1.5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0>

226. 원자력 발전비율

(%)	2007	2008	2009
France	76.8	76.4	75.1
Slovak Republic	54.9	57.0	54.4
Belgium	53.9	53.3	51.7
Hungary	37.1	37.5	44.9
Switzerland	40.1	39.0	39.2
Sweden	44.2	42.0	37.4
Czech Republic	30.2	36.7	35.8
Korea	36.4	36.7	34.7
Finland	28.9	29.9	33.1
Japan	25.6	26.0	29.2
Germany	22.2	23.4	22.8
United States	19.4	19.6	20.2
United Kingdom	15.8	13.2	17.9
Spain	17.6	18.4	17.5
Canada	14.6	14.8	14.8
Mexico	4.3	4.0	4.4
Netherlands	4.0	3.5	3.2
Australia	0.0	0.0	0.0
Austria	0.0	0.0	0.0
Denmark	0.0	0.0	0.0
Greece	0.0	0.0	0.0
Iceland	0.0	0.0	0.0
Ireland	0.0	0.0	0.0
Italy	0.0	0.0	0.0
Luxembourg	0.0	0.0	0.0
New Zealand	0.0	0.0	0.0
Norway	0.0	0.0	0.0
Poland	0.0	0.0	0.0
Portugal	0.0	0.0	0.0
Turkey	0.0	0.0	0.0

출처 <https://www.oecd.int/olis/portal/Views/PubDescriptionIncludeFile.jsp?pdfName=6610063E.PDF/>

227. 정부재정의 환경보호 지출비율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Japan	3.90	4.34	3.56	3.38
New Zealand	2.93	3.30
Korea	2.89	2.90	3.14	3.13	3.15	..
Ireland	2.59	2.60	2.79	3.10	2.99	..
Luxembourg	2.57	2.68	2.55	2.64	2.62	2.65
Spain	2.22	2.23	2.39	2.38	2.38	..
Czech Republic	2.42	2.61	2.63	2.40	2.28	..
United Kingdom	1.70	1.51	2.08	2.26	1.99	..
Netherlands	1.86	1.93	1.82	1.79	1.84	..
Slovak Republic	1.73	1.74	1.86	1.76	1.81	..
Hungary	1.33	1.21	1.41	1.43	1.71	..
Italy	1.84	1.81	1.65	1.66	1.65	..
France	1.55	1.58	1.63	1.65	1.64	..
Iceland	1.64	1.60	1.57	1.49
Norway	1.41	1.43	1.41	1.42	1.49	..
Poland	1.30	1.40	1.42	1.34	1.44	..
Canada	1.31	1.41	1.39
Greece	1.29	1.32	1.37	1.28	1.23	..
Belgium	1.36	1.27	1.23	1.14	1.17	..
Portugal	1.21	1.29	1.18	1.15	1.15	..
Germany	1.03	1.02	1.04	1.09	1.10	..
Denmark	0.93	1.06	1.06	1.03	0.97	0.86
Austria	0.90	0.99	1.00	0.95	0.90	..
Sweden	0.61	0.72	0.74	0.70	0.68	..
Finland	0.58	0.64	0.66	0.69	0.64	..

출처 <http://stats.oecd.org>

228. GDP대비 환경세 수입비중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etherlands	3.80	3.75	3.65	3.49	3.56	3.73	3.85	4.60	4.38	4.49
Denmark	5.16	4.80	4.66	4.83	4.65	4.77	4.83	4.78	4.58	4.25
Turkey	2.50	2.38	2.65	3.50	4.08	3.58	4.04	3.65	3.54	3.34
Hungary	3.34	3.04	2.83	2.76	2.72	2.98	2.98	3.01	3.00	2.89
Finland	3.43	3.15	2.98	3.08	3.21	3.27	3.09	2.99	2.74	2.73
Czech Republic	2.75	2.64	2.76	2.73	2.70	2.81	3.01	2.78	2.74	2.68
Portugal	3.38	2.73	2.96	3.14	3.11	3.12	3.05	2.96	2.93	2.62
Sweden	2.82	2.74	2.77	2.83	2.86	2.80	2.84	2.72	2.59	2.59
Italy	3.53	3.22	3.07	2.89	3.00	2.83	2.81	2.78	2.68	2.52
Korea	2.58	2.73	3.01	2.75	2.76	2.59	2.62	2.57	2.81	2.52
Luxembourg	2.81	2.78	2.82	2.77	2.78	3.06	2.95	2.61	2.55	2.51
Austria	2.31	2.42	2.61	2.66	2.73	2.71	2.63	2.49	2.43	2.40
Norway	3.24	2.89	2.92	2.98	2.92	2.97	2.81	2.73	2.77	2.40
Ireland	2.93	2.84	2.31	2.32	2.31	2.48	2.49	2.47	2.44	2.37
United Kindom	3.12	3.01	2.78	2.68	2.61	2.56	2.46	2.36	2.41	2.36
Germany	2.25	2.34	2.53	2.52	2.65	2.53	2.46	2.40	2.23	2.19
Greece	2.78	2.71	2.44	2.26	2.15	2.08	2.00	1.93	1.97	2.13
Switzerland	2.07	2.07	2.14	2.14	2.13	2.09	2.16	2.05	1.98	2.00
Iceland	3.17	2.98	2.40	2.28	2.53	2.70	2.97	2.72	2.63	1.97
Belgium	2.40	2.25	2.26	2.20	2.24	2.34	2.34	2.14	2.08	1.96
Slovak Republic	1.98	2.11	2.00	2.05	2.32	2.43	2.31	2.17	2.02	1.96
Poland	1.98	1.97	1.95	1.96	2.00	1.98	2.04	1.86	2.04	1.94
Australia	2.75	2.43	2.35	2.34	2.26	2.24	2.07	1.89	1.83	1.84
France	2.43	2.22	2.11	2.15	2.06	2.10	1.94	1.90	1.79	1.74
Spain	2.25	2.14	2.02	2.02	2.04	2.02	2.05	1.88	1.83	1.65
Japan	1.77	1.75	1.77	1.79	1.79	1.76	1.76	1.72	1.67	1.59
New Zealand	1.36	1.36	1.32	1.42	1.33	1.20	1.19	1.12	1.10	1.10
Canada	1.50	1.37	1.34	1.36	1.32	1.24	1.18	1.14	1.12	1.09
United States	0.99	0.96	0.92	0.90	0.89	0.87	0.86	0.84	0.81	0.77
Mexico	1.96	1.32	1.61	1.87	1.38	0.83	0.38	-0.19	-0.21	-1.59

출처 <http://www.oecd.org/econstat/queries/index.htm/>

229. 조세수입대비 환경세 수입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urkey	8.50	10.80	9.90	10.20	14.20	15.70	14.90	16.70	14.90	14.70
Netherlands	9.20	9.50	9.50	9.60	9.30	9.60	10.00	10.00	11.80	11.70
Korea	12.40	12.50	12.10	13.10	11.90	11.50	11.20	10.90	10.30	10.60
Denmark	10.00	10.10	9.80	9.40	10.10	9.70	9.70	9.50	9.70	9.40
Portugal	10.90	10.50	7.90	8.80	9.10	9.00	9.20	8.80	8.30	8.00
Ireland	9.30	9.50	9.00	7.80	8.20	8.10	8.30	8.20	7.80	7.90
Slovak Republic	6.90	8.50	8.80	9.20	8.90	10.40	10.30	9.40	9.10	7.70
Hungary	8.90	8.70	7.90	7.50	7.30	7.20	8.00	8.00	8.10	7.60
Czech Republic	7.40	7.70	7.50	7.80	7.50	7.30	7.40	8.00	7.50	7.40
Luxembourg	7.60	7.40	7.10	7.10	7.10	7.30	8.20	7.90	7.30	7.20
Switzerland	6.00	7.20	6.90	7.20	7.20	7.30	7.30	7.40	7.00	6.80
United Kingdom	8.50	8.80	8.20	8.00	7.80	7.70	7.40	7.00	6.60	6.80
Finland	7.30	7.50	6.70	6.70	6.90	7.30	7.50	7.00	6.90	6.40
Iceland	9.10	8.90	7.80	6.50	6.30	6.80	7.10	7.30	6.60	6.40
Norway	8.10	8.10	6.70	6.80	6.90	6.90	6.90	6.50	6.20	6.40
Germany	5.80	6.10	6.30	7.00	7.10	7.50	7.30	7.10	6.70	6.20
Italy	8.20	8.30	7.60	7.30	7.00	7.20	6.90	6.90	6.60	6.20
Chile	9.00	9.70	9.40	9.60	9.70	9.40	8.40	7.60	6.40	6.10
Greece	10.00	8.40	8.00	7.40	6.70	6.60	6.70	6.30	6.10	6.10
Australia	9.60	9.20	7.80	8.00	7.70	7.40	7.20	6.70	6.20	5.90
Japan	6.30	6.60	6.30	6.40	6.90	6.90	6.70	6.40	6.10	5.90
Poland	5.00	6.10	6.20	6.30	5.90	5.90	5.90	6.20	5.60	5.90
Austria	5.20	5.30	5.60	5.80	6.00	6.30	6.20	6.20	5.90	5.80
Sweden	6.10	5.50	5.20	5.50	5.80	5.80	5.80	5.70	5.50	5.40
Spain	6.70	6.60	6.30	6.00	5.80	6.00	5.80	5.70	5.20	4.90
Belgium	5.30	5.40	5.00	5.00	4.90	5.00	5.20	5.20	4.80	4.70
France	5.40	5.40	5.00	4.80	4.90	4.80	4.80	4.40	4.30	4.10
Canada	4.30	4.10	3.80	3.80	3.90	3.90	3.60	3.50	3.40	3.30
New Zealand	4.20	4.10	4.00	3.90	4.10	3.80	3.40	3.20	3.00	3.00
United States	3.60	3.50	3.30	3.20	3.50	3.50	3.40	3.20	3.00	2.90
Mexico	11.10	12.40	7.80	9.40	11.40	8.00	4.90	2.10

출처 <http://www.oecd.org/eoicst/queries/index.htm/>

※ 경쟁력보고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T. 02-2150-2873, 28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